

국역 류성룡 시 IV-1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재, 복제, 기타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단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와 역주·감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역 서애전서
國譯西厓全書

Ⅲ - 4 - 1

국역 류성룡 시 IV-1

西厓 柳成龍 지음

류명희 역주·감수
안유호

사단
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



우리 민족정신과 문화의 근간에는 유구한 역사 속에 매 시대마다 끊임 없이 발생하는 시련을 딛고, 이를 계승발전 시키고자 했던 위대한 선조들의 각고刻苦의 노력들이 스며있습니다. 그 중에도 선조先祖들의 정신이 담긴 각계의 수많은 유지遺著는 바로 문화의 기층基層을 헤아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누구나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 선생은 우리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임진왜란의 중심에 서서 공적으로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위해, 불철주야 군략軍略과 시정施政의 방책을 강구하기에 고심苦心하셨고, 사적으로는 육친에 대한 효제孝悌 정신의 실천을 삶의 근간으로 하였던 대유大儒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덕正德으로 일관했던 서애 선생의 생애는 바로 부친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선생의 유학적儒學的 경륜에 의거한 훈도訓導와 퇴계의 문하에서 심화시킨 정·주이학程朱理學의 도학道學 사상이 선생의 생애를 마름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0년간의 입조入朝에서 거의 유례없는 승진陞進을 거듭할 때마다, 한결같이 직위는 초개草芥 같이 여기시나 직분職分에는 오로지 ‘충忠’으로 일관하셨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성이 진리를 궁구窮究하시는 학자적 면모를 지니셨던 터라, 국난國難의 중심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범국가적 고초와 개인의 애환을 문文과 시詩로 하나하나 남겨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게 하셨으니 별세 후에도 그 음덕蔭德이 하늘에 닿습니다.

타계하신 선친先親(韓諱 찬우續佑)께서는 1976년 12월 21일에 사단법인
社團法人 ‘서애선생기념사업회西厓先生紀念事業會’를 발족시켜, 15년이 넘는
각고刻苦 끝에 1991년 서애 선생의 저술을 집대성하여, 서애전서西厓全書
4책冊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한문漢文으로 되어 있어,
본회에서는 서둘러 국역작업을 시작했으나, 역시 서애전서西厓全書 간행
으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난, 2001년에서야 전서全書의 일부를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친은 완성단계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때 간행된
것은 ‘문부文部’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여 모두 7책
이었습니다. 즉 제Ⅰ부는 서애전서西厓全書 · 별저편別著篇을 중심으로 총
5책, 즉 ‘징비록懲毖錄 · 근폭집芹曝集 · 진사록辰巳錄Ⅰ · 진사록辰巳錄Ⅱ ·
군문등록軍門謄錄’이고, 제Ⅱ부는 문집편文集篇의 본집本集 · 별집別集 · 속집
續集을 대상으로 총 2책, 즉 ‘잡저雜著와 서書’를 국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애전서 일부가 국역으로 간행된 지 다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부詩部’의 국역을 착수하게 되니, 미리 번역했던 국역본의
간행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계와 사림士林의 인사들에게 죄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역자譯者의 선정 및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늦어졌으니 너그러우신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시집詩集은 앞의 Ⅰ · Ⅱ부의 후속편으로 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Ⅰ · Ⅱ부의 ‘문文’을 통해서 보았던, 정치가 혹은 군략가軍略家
로서의 서애 선생의 지극한 뜻과 의지가, 이번에 제Ⅲ부의 ‘시詩’에서는
서애 선생 인생의 면면에 대한 개인적인 감회와 처세處世 및 철학과 사상
등을 엿볼 수 있어, 서애 선생을 연구하거나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애전서西厓全書에 수록된 시의 총수는 총 723제題 886수首입니다. 이의 구체적인 수량을 보면,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에, 119제 166수 ; 역시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의 본집 권2에 102제 147수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의 별집別集 권1에, 152제 167수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2 속집편續集篇에, 300제 355수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3 관화록觀化錄에, 38제 39수 ; 기타 시에, 12제 12수가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 국역된 권4는 총 120제 145수입니다. 이는 국역 류성룡 시 VI-1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앞의 세 권과는 달리 이의 출처는 가장초고家藏草稿와 기타 기록물의 ‘모음편찬’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고 작품의 수량 또한 한 책으로 완성할 수 없는 수량(총 300제 355수)이어서, 계속하여 이의 속집이 나올 것입니다.

끝으로 본회에서 서애시집의 국역 및 감수監修의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을 각방으로 물색하던 중, 바로 서애 선생의 12대 후손이 되는 한시漢詩 전공에서만 30년 경력을 지닌 류명희柳明熙 교수를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류교수의 부군夫君인 안유호安維鎬 선생 역시 유년 시절부터 한학漢學을 익혔고 중화민국中華民國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재원으로, 본 시집의 국역과 감수에 공동으로 참여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애시집의 국역을 염두에 두고 번역자의 물색에서부터 본 시의 국역에 대한 제작과 실무를 모두 맡아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서애 선생기념사업회의 류영한柳永漢 이사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사단법인) 서애선생기념사업회西厓先生紀念事業會 이사장理事長

서애西厓 13대 후손 류진柳津 삼가 씀



우리 내외는 그저 하루에 한걸음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지에 불을 지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더니 오늘 이렇게 제4권의 역자 서설을 쓰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에도 역시 지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번역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시대성을 지닌 자구字句의 표층·심층의 의미와 사상적 철학적 함의含意를 지닌 시적경계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자간·행간字間行間에 넘치는 정서나 한 마디 말로 시적 묘미를 전달해야 하는 과정들은 그대로 또 하나의 창작의 여정이나 다름없었다.

서애 시에서 묘사된 우거진 수림과 청청한 야초野草는 역자내외의 마음을 푸르게 하였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마음을 편안하게 했으며, 덧없는 인생에의 표현은 세속을 초탈케 하였다. 서애 시에는 자연이 숨을 쉬고 있었으며 인생이 진솔하게 펼쳐져 있다. 또한 벗에게 읊은 시에서는 역자내외의 우정과 은애恩愛도 되새기게 했고, 나라와 부모에 대한 진심 어린 충효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선비정신은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했다.

서애 선생은 또한 진왕조秦王朝가 멸망하면서 전개된 한왕漢王 유방劉邦과 초왕楚王 항우項羽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고훨古訓을 통해서, 조선의 현실에 대한 우국심憂國心の 함축과 군신君臣 모두의 치국治國의 도리를

강조했다. 또한 송왕조宋王朝의 국난國難에 처해진 정황의 묘사에서는 외침外侵을 당하지 않도록 군신 모두가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송대宋代의 명장 악비岳飛의 묘사에서는 무장武將의 충성과 비극적 죽음을 애통해하였다. 서애 선생이 이렇게 중국사서中國史書를 읽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시를 읊은 것은 선생의 애국애민하는 영도자로서의 간절한 마음이 시종 그 바탕에 있었던 것이다. 서애 시를 번역하면서 역자내외는 다시 한번 선생의 깊은 뜻에 공감하였다.

이와 같이 심도深度있는 선생의 공명정대한 의리義理의 치세治世 정신과 다정다감한 정감의 향기를 과연 적합한 시어로 적절하게 표현해냈는지에 대해 역자내외는 스스로 그 미진함을 절감하는 순간들이 많았다. 주역周易·계사전繫辭傳에 보이는 이른바, “글로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 표현할 수 없고, 말로는 생각하고 있는 바를 다 전달할 수 없다(書不盡言, 言不盡意).”라는 명언의 의미를 번역하는 내내 되새김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의 자책은 욕심으로 여겨 미진한 부분은 후학의 몫으로 돌리면서 삼가 독자제위께 이 줄역의 서책을 올리니 기탄없는 질책을 바란다.

이번 권4의 국역시집은 대체로 선생이 손수 기록한 유고중遺稿中에서 본집本集과 별집別集에서 누락된 가장초고家藏草稿나 기타의 문집·제액題額의 현판 등에서 발견된 것을 편집하여 성책成冊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뒤의 해제解題에서 밝혔다. 여기서는 본 시집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마다않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풍산류씨 충효당 종손 류창해柳昌海 선생과 병산서원 별유사屏山書院別有司 류한옥柳漢郁 선생은 번역과정에서 필요한 문건 자료나 유적관련

등에 대한 물음에 언제나 진지하게 협조해주어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시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산북山北’이라는 지명에 대한 근거자료를 찾지 못해 노심勞心하던 끝에 산북면山北面 사무소의 행정주사인 허세정許世貞 선생이 산북면지山北面誌에 수록된 해당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어 이를 해결 하였음에 감사를 드린다. 뿐만 아니라 본고本稿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신 분으로 경북대학교 국문과 정우락 교수와 경북 김천시 증산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김성훈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하회마을 충효당에서 보관해왔던 선생의 육필 기록물들(지금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옮겨 보관중임)과 또한 한국학 중앙 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16· 하회풍산류씨편 시문류詩文類의 자료 등에서 확인대조가 필요한 시문詩文들이 있었는데, 그 곳에 근무하는 류승호柳承坪군의 도움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기로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본고의 시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세심한 배려를 이낌없이 보내준 한스북스 사장 류한경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3월

서애西厓 12대 후손 류명희柳明熙

후학後學 안유호安維鎬 삼가 씀



『국역 류성룡 시 IV-1』 역시 하회본河回本 『서애전서西厓全書』 속집편續集篇의 시부詩部를 저본底本으로 한 것이다. 본 속집편은 총 300제題 355수首이다.¹⁾ 작업을 해보니 특히 앞쪽의 10제는 모두 40구句 이상의 고시체로 분량이 상당하여, 일단 120제 145수를 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제목미상인 작품도 다섯 시제詩題가 들어 있다. 이 중에는 꺾자闕字가 있는 작품도 보인다.

본 속집편의 시부를 국역하면서 속집편이 안고 있는 ‘모음집 편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의심이 가는 시문에 대해서는 자료이해에 각별히 집중하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수확을 얻기도 했다. 이를테면, 「시73」의 경우는 시제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관련 자료를 수색하던 중에 이의 시제가 본래 「잠계潛溪 이전인李奎仁 공공의 시인 「봉림대」를 차운

1) 본고의 저본(底本)인 『서애전서·속집편』에는 총 301제(題) 355수(首)가 수록되어 있으나, 이번 『국역 류성룡 시 IV-1』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시91」의 시제(詩題)가 1제 1수가 아니라 1제 2수임이 확인되면서, 전체 숫자에도 변동이 왔다. 이의 근거는 여대로(呂大老)의 『감호집(鑑湖集)』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아래의 주석 3)을 참조 바란다. 하여서, 시제는 그대로 301제이나 동일시제에서 한 수를 더 올렸기 때문에 301제 356수가 되었다. 그러나 뒤의 「시118」에는 또한 이의 시제(詩題)와 시문(詩文)이 『서애전서 권1·간본편 별집 권1·시38』의 것과 동일하여, 시 전체에서 보면, 이를 삭제해야 함으로 다시 1제 1수를 삭제하고 보니 마지막으로 집계된 것은 총 300제 355수가 되었다. 결과 당초에 120편(篇)의 시제를 대상으로 했던 『국역 류성룡 시 IV-1』의 시제와 그 수량도 당초에 120시제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시 1시제를 더 번역하여 총 120시제로 만들고자, 텍스트의 121번의 시제를 더 추가 번역하였기로 본 역집에서는 여전히 120시제를 수록하게 되었다.

하여(次鳳臨臺韻)」라는 시제임을 알게 되었다.²⁾ 또한 「시91」의 경우에는 『서애전서』에서는 한 수만 수록되어 있는데 감호당鑑湖堂 여대로呂大老의 문집인 『감호집鑑湖集』에는 본 시가 두 수로 수록되어있음을 발견하였다.³⁾ 그리고 「시94」의 시제 또한 1975년에 우암遇巖 이열도(李閱道 : 1538 ~ 1591 : 서애와 시돈지간임) 선생의 16대 주사손主祀孫인 중화옹重華翁이 인쇄한 『선몽대지仙夢臺志 건乾』에도 수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애전서』에 기록된 시제와는 달리, 「선몽대 주인에게 삼가 올린다(奉呈仙夢臺主人)」라고 수록되어 있었고, 또한 “1587년 만춘(丁亥暮春)”이라는 작시 년대까지 밝히고 있어, 시제는 텍스트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그대로 두고 작시 년대는 국역본 시에 보충하였다. 이외에도 몇몇 작품의 시문은 본고本稿의 텍스트와 출입出入이 있어 수정을 가한 것도 있다. 모두 주석에서 밝혔으니 관련 시는 감상할 때 참조하기 바란다.

역자가 ‘서애 시’를 번역하면서 줄곧 ‘주석註釋’에 많은 편폭을 할애했던 이유는 ‘본 시’의 작시作詩 시기가 조선朝鮮이라는 시대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서애 선생 자신의 경력이 당시의 국시國是인 성리학性理學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한 대유大儒였고 동시에 임진壬辰 · 정유丁酉 양난兩亂이라는 7년 전쟁을 국정의 수반으로 군정軍政을 책임졌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생이 읊은 시문은 정감을 읊은 서정시조차도 내심의 깊은 곳에는 시대와 인간, 곧 대인對人 · 대물對物 관계에서 어느 것 하나 시인 개인의

2)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73」의 주석 1)을 참조바람.

3) 여대로(呂大老 : 1552 ~ 1619)의 『감호선생문집(鑑湖先生文集) 권1(卷一) · 인동현仁同縣 망호현望湖軒에서 서애西厓 류공柳公의 시를 차운하여(仁同望湖軒, 次柳西厓韻)』란 시제(詩題) 아래 자신의 시를 읊은 다음, ‘서애 시를 첨부하다(附西厓詩)’라는 제목 아래 서애의 원시(原詩) 제1 · 제2수가 모두 첨부되어 있었다. 『서애전서 · 속집편』에는 제1수만 수록되어 있다.

『감호집(鑑湖集)』은 3권2책으로 목판본이다. 1650년에 여대로의 증손 문징(文徵) 등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1860년에 9대손 찬조(繼祖)가 중간(重刊)하였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자세한 내용은 뒤의 「시91」을 참조바람).

역사성과 철학성이 갖는 사상적인 정서가 녹아있지 않은 게 없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하여서 역사는 이 시대의 일반 독자들이 시문의 깊은 뜻이 이해되지 못하여 책장을 덮게 하는 불상사를 줄이고자 고심하였다.

1. 『국역 류성룡 시 VI-1』의 편집체제

이번에 간행하게 된 속집續集篇의 『국역 류성룡 시 IV-1』은 『서애 전서西厓全書』의 해제解題에서 이의 편집체제를 잘 밝혀주고 있다. 본 해제에 의하면, “선생이 손수 기록한 유고 遺稿中 본집本集과 별집別集에서 누락된 시문詩文, 즉 가장초고家藏草稿와 기타 기록, 문집과 제액題額의 현판, 구묘 丘墓中에서 발견된 선생의 문적文蹟 등을 본집本集의 편집순서에 따라 「속집」이란 편명篇名으로 편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본 텍스트를 보면, 본집이나 별집에 ‘해당 시제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밝혀주고 있다. 또한 이어서 “찬자撰者의 연차年次가 분명한 것은 그 연차에 따라 순서를 정하였고, 연차가 분명치 않은 것은 그 문의 文義에 따라 추정 편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2. 『국역 류성룡 시 VI-1』의 시체詩體

본 국역시집에 보이는 시체의 종류는 모두 10종이다. 이를 5언구五言句와 7언구七言句로 대별大別하여 개괄하면, 전자는 5언절구五言絶句(3제題 7수首) · 5언고절五言古絶(3제 5수) · 5언율시五言律詩(22제 23수) · 5언고시五言古詩로 나뉜다. 여기서 5언고시의 경우에는 8구로 구성된 고시는 1제 2수이고, 10구 · 18구는 각각 1제 1수이며, 무려 40구로 구성된 고시도 보이는데 이는 5제 5수나 된다. 이를 총합하면 모두 36제 44수로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에는 7언절구七言絶句(38제 50수) · 7언고절七言古絶(3제 3수) ·

7언율시七言律詩(34제 39수) · 7언배율七言排律(1제 1수) · 7언고시七言古詩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7언고시의 경우에는 6 · 18 · 40구는 각각 1제 1수가 보이고, 20구는 2제 2수가 보인다. 이를 총합하면, 81제 98수이다. 악부시樂府詩는 2제 2수이다. 전자는 28구이고, 후자는 무려 44구로 구성된 장시長詩이다.

이상에서 보면, 위의 시체는 7언체가 5언체 보다 그 총수가 훌쩍 배를 넘기고 있다. 이들 시율詩律을 음악성의 절주로 가늠할 때, 5언시체는 절주가 경쾌하여 민가적民歌의인 소박한 정서를 부각시키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7언체는 그 절주가 무거워서 사대부의 유장한 맛을 살리기에 족한 것이다. 그렇다면, 본 시집에 부각된 시율의 음악성은 사대부의 풍도風度와 정서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시의 모음집은 긴 편폭의 장시가 상당수 있는데, 이 장시들은 모두 시집詩集의 앞쪽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 이유는 ‘1의 편집체제’의 항목에서 밝혔듯이 찬자撰者가 해당시를 작시作詩의 연차年次에 따라 편집을 한 것으로 시인의 나이가 젊은 시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집을 열면, 7언율시로 된 「시1」을 제외하고 「시12」에까지 이르도록 모든 시가 장시로 구성된 시가인데 이는 우리 독자들에게 선생의 젊은 시절의 심리적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국역 류성룡 시 VI-1』의 내용

본 국역시집은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의 ‘모음편찬’이라는 특수성 때문 인지는 몰라도 표제어標題語가 있는 시제詩題, 곧 ‘차운次韻, 증정贈呈, 증별贈別 · 유별留別, 기시寄詩’ 등이 무려 58편篇의 시제나 보이고 있어 시인의 일상생활의 동정을 살피는 데 용이하다. 이번에 번역한 권4의 국역시집에서 다룬 시제詩題의 총 수량이 120시제이므로, 이 표제어 시가 차지하는 분량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량이다. 그래서 본 시제들을 먼저 하나

로 묶어 이들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여 선생의 타자他者와의 교류내용의 전모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어서 다음은 표제어가 없는 일반 시의 시제詩題들을 또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서 이 역시 내용별로 대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선생의 심중心中에 있는 내심의 동향을 살피기에 용이할 것이다.

1) 표제어標題語가 명기明記된 시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는 차운시次韻詩, 증정贈呈의 시, 증별贈別·유별留別의 시, 기시寄詩 등이 있다. 이와 관련되는 58편篇의 시제詩題를 내용별로 대별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차운시次韻詩

이와 관련한 시의 내용은 애국충정, 은자隱者의 생활 전망, 안심安心, 처세處世·자성自省·회상回想,仙境仙境에의 동경, 사향지심思鄕之心 등으로 나타난다.

① 애국충정愛國忠情

중국 남송의 충신 악비岳飛의 애국충정이 도리어 그의 골육과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된 악운惡運이 되었음을 안타까워한다. 그리하여, 다시는 그의 영명靈명한 혼령과 용맹한 기백이 살아날 수 없음을 애도하는 마음을 읊었다(시11).

② 은자隱者의 생활 전망

10년을 정일精一한 마음으로 은거隱居하는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의 은거처는 바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곳이라는 것(시22), 병산서원 초대원장을 역임한 안성백安成伯에게 서원에서의 유연한 생활을 권유하면서 바로 그것

은 화자 자신이 누리고 싶은 희망임을 시사함(시26), 중앙절重陽節에 객지에서 인구에 회자하는 동쪽 울타리의 국화와 시골탁주 담그던 옛 친구의 은자적 삶을 떠올림(시31), 외딴 촌에 은거하며 국화의 계절이 도래하자 신념이 일치하는 벼를 그리워함(시54) 등을 읊었다.

③ 안심安心

역경에 처하든 출세하든 도道로써 일관하면 마음이 편해짐(시55), 날마다 산을 관상觀賞하고 독서하고 수도修道하는 것은 모두 사물을 통찰하며 세상사와 거리를 두는 것이므로 마음이 편해짐(시64), 승려 명열明閑에게 마음 안정시킬 구경법究竟法을 묻고자하는데 강물에 비친 달그림자가 그 답을 일러줌(시72), 정좌수련靜坐修練하면서도 도학수도道學修道에 소홀하여 마음안정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시89), 대설大雪과 농운濃雲이 야기한 외부경물을 통해 평정심을 회복하면서 장고長考하던 난제難題가 풀리어짐(시118) 등을 읊었다.

④ 처세處世 · 자성自省 · 회상回想

처세處世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문장은 상서祥瑞로울 세상에 부합되도록 써야하며 소인배와는 시속을 논쟁하지 말 것(시73), 열사烈士와 고사高士의 장한 품행을 가슴에 새기며 본받고자 해도 사방에 장애가 많아 진리에 부합되는 처세를 하기가 쉽지 않음(시85) 등이다.

자성自省과 관련한 내용에서는 우중雨中에서 세월의 흐름에 대지의 경색景色이 바뀌어 지는 것을 보고 진력盡力하지 못한 인생에 감개하면서 수·운·화·조水雲花鳥에서 속진俗塵의 정한情恨을 씻어내고자 함(시90), 시대마다 성쇠의 기운이 거듭되는 것을 통해, 인심의 옳고 그름이 점점되는 것, 이미 마흔 살이 되고 보니 벼를 찾을 기회가 적어졌다는 것(시107) 등을 읊었다.

회상관련으로는 재사齋舍에서 지내는 하룻밤의 적막을 1년 같이 긴 시간으로 느끼면서 이전에 수학하며 토론하던 시절을 애호할만한 것(시71)으로 떠올렸다.

⑤ 선경仙境에의 동경

누각에 기대어 신선이 머무는 곳을 찾으며, 절후가 바뀌는 것에 놀라면서 근심에 겨워하다가 어떤 승려를 만나 시 한 수 지어주고 나서 마음이 맑아졌다는 것(시96),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노형老兄이 마련한 새 거처지가 운치 있는 곳이라는 소리를 듣고 선인仙人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겠다며 찬미하는 것(시112) 등이다.

⑥ 사향지심思鄉之心

인동현仁同縣 망호현望湖軒에서 가을걷이 광경을 보며 사향지심思鄉之心을 이기지 못해 『시경詩經』의 「시편詩篇」을 펼치기도 하고 시름겨운 사람 곁에서는 문왕조文王操의 곡조를 타지 말라고도 함(시91-1), 세밀에 객관에서 친한 벗들과 합숙을 하면서 고향생각에 한이 맺혀 ‘관산곡關山曲’만 피리로 불었다고 토로함(시91-2) 등이다.

(2) 증정贈呈·증별贈別·유별留別의 시

여기서는 시를 지어 선물의 의미로 주는 ‘증정’, 떠나는 사람에게 시를 지어 정표로 주면서 작별하는 ‘증별’, 떠나는 사람이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에게 작별의 애뜻함을 표하는 ‘유별留別’의 시詩 등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소개한다.

① 증정시贈呈詩

이와 관련한 시에는 무려 다섯 가지 유형이 보인다.

첫 번째는 자성自省과 관련하여 자신의 동정動靜은 물론이고 공무를 수행하는 관료들의 부도덕성 또한 천도天道와 연계하여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는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목민관으로서의 자성自省과 희망을 동시에 피력한 것(시44), 작서모雀鼠耗를 징수하고도 건강 부회하는 관리들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잊혀져가는 인륜의 도리를 걱정하며 자성함(시81), 금계촌金溪村에 계곡물은 말라도 방초는 죽지 않고 자랄 것이라는 천도에 대한 믿음(시86), 평소에 도심道心속에서 지내온 봄날 석달을 스스로 만족해 함(시102), 도력이 쇠잔해지니 정신마저 혼란스러운데 방초와 하늘의 구름은 여전히 의연함(시120) 등이다.

두 번째는 타자他者를 향한 정감과 내심의 정한情恨을 표현한 것이다. 먼저 타자를 향한 정감의 내용을 보면, 7년 만에 겨우 10칸 집을 짓고 나서 아직 미완성이라고 걱정하는 탄홍誕弘 승려를 위로함(시45), 체천정濟川亭을 유람하는 명나라 사신을 보며 이제는 다시 보기 어려울 재회를 안타까워하면서 증여한 것(시47), 옥연정사玉淵精舍건축을 주도한 탄홍誕弘 승려가 재물을 내놓고 집을 지어주겠다는 호의에 농조로 써서 읊은 것(시68), 이별 당시에 선몽대仙夢臺 주인 이열도李閼道 공의 다정한 만류를 떠올리며 사직하고 귀隱한 그를 그리워하는 정감(시94), 산승山僧 혜묵惠默의 행방에 대하여 수소문하며 그리워함(시99), 산승 사경思敬이 만날 때마다 휴대하고 오는 시축詩軸을 보고 감동하는 것(시100) 등이다. 다음은 내심의 정한관련을 보면, 면벽공력面壁功力으로 세속을 초월하고자 했는데, 추풍이 부니 여전히 지난 날 어가 호종하고 서관로西關路를 지나가던 아픔을 지울 수 없음(시87), 한사寒舍에 내방한 산승에게 가을날 저물녘에 거뭇거뭇해 지는 벽오동의 모습과 수많은 산봉을 황금으로 물들이며 솟아오르는 월출광경에 내심의 정한을 기탁한 것(시88), 병중에 찾아온 산승에게 빈민하는 심회를 떨치지 못하는 내심(시102-1) · 강변누각에서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오길 바람으로써 내심의 정한을 함축함(시102-2),

학봉이 산천을 유람하며 지은 시를 보내와서 같은 강줄기에 살고 있으니 역류逆流라도 편주를 타고 가서 함께 시작품을 품평하고 싶다는 내심의 우정(시113) 등을 표현하고 있다.

세 번째는 귀향과 은거에 대한 내용이다. 산승에게 증여한 것으로 산승이 화자에게 진흙땅을 던지 말라한 것, 화자 역시도 입세入世의 의지가 추풍과 운무雲霧 속에서 약화된다는 것을 읊음(시82), 문경현聞慶縣을 지나는 도중에 객관주인에게 증정한 것으로 한 수는 먼 길에 봄추위로 병객病客이 힘이 들어 귀향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시115-1), 오래 사귀 벼과도 귀향을 상의하지 않고 단기필마單騎匹馬로 귀농하러 간다는 것(시115-2).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반기면서 은거하려한다면 상산商山이 적지適地임을 언급하여 화자의 내심을 함축하고 있음(시101) 등이다.

네 번째는 안심법安心法의 추구이다. 승려에게 증여한 것이다. 가을날 우뚝 솟은 산봉에서 병산서원의 만대루萬臺樓를 굽어보며 애상에 젖어드는 심회를 단번에 제거할 안심법安心法을 찾고 싶음을 읊었다(시78).

다섯 번째는 군자 혹은 문도들을 향한 찬미와 학문하는 방법이다. 죽연정竹淵亭에서 고서古書를 교감하는 군자들에게 증여한 것이다. 문풍文風의 장려와 훈공이 없는 고서교감古書校勘에 참여한 군자들을 찬미함(시46), 멀리서 내방來訪한 문도들에게 학문을 하는 데는 오로지 지극한 정성을 쏟으라고 말한다(시116).

② 증별시贈別詩

이와 관련한 시는 벼과의 우정·혈육간의 우애, 자성自省, 교훈적 일침, 낭만적 별리別離 등으로 나뉜다.

첫 번째 우정을 표현한 증별의 시에는 신병身病을 앓으면서도 벼들을 떠나는 친구를 국경의 강변에서 배웅하면서 쓸쓸한 노정을 낙담하지 말라는 송별의 애뜻함을 전한 것(시30), 또한 화자가 병중인지라 한성漢城에서

부모님 문안차 내려온 빗을 만나지 못하는 애뜻한 정회를 표현한 것(시33)이 보인다. 다음은 백씨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선생이 환조還朝하는 날, 아득히 먼 서도西道로 가는 길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금할 길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시40).

두 번째는 자성自省 관련으로, 인생행로가 힘들지만 반드시 삼가며 처신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잔설위로 불어오는 북풍에 마음이 쓸쓸해진다는 것을 토로하였다(시33-2).

세 번째는 교훈적 일침이 보이는 내용으로, 어느 젊은이의 능력을 찬미하면서 안으로는 효도하고 밖으로는 세상에 기여할 인재임을 인정하며 사회 활동을 권유함(시108), 송별에 앞서 문도들에게 세상이치는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금욕을 하고 세상에 대한 기대에는 집착하지 말 것과 요행 속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음을 일깨워 주는 시이다(시117).

네 번째는 낭만적 별리로, 여기에는 이별가 곡조 하나로 떠나는 이를 전송하는 것(시67)과 낭만적 기이함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 한상인閑上人이라는 대사大師의 선계仙界를 신유神遊다가 송별하는 것(시98)을 읊었다.

③ 유별시留別詩

정주목사定州牧使에 임직중인 부친을 근친覲親하고, 경성으로 돌아오는 데, 자신을 전송해준 사람에게 애뜻한 유별의 정을 표현한 것이다(시16).

(3) 기사寄詩

‘기사寄詩’란, 시를 지어서 이를 인편人便에 부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의 내용은 우정友情, 자성自省과 은거隱居, 도교적 양생養生, 애국애민 등의 내용으로 개괄한다.

① 우정友情

우정의 대상은 벗 혹은 동료들이다. 실록교정實錄校正에 참여한 동료에게 교정의 어려움과 엄정성을 일깨우며 주군主君의 선온宣醞으로 위로받기를 바램(시18), 동방同榜의 벗인 극부克夫 서인원徐仁元에게 그의 관직직무의 어려움을 밤이 새도록 걱정하며 그 정화를 읊음(시43-1)과 멀리 있는 벗에게서 소식이 단절되어 수시로 난간에 기대앉아 그리워함(시43-2), 미숙美叔 허봉許篈에게 사는 곳이 서로 달라 벗의 횡액을 위로해 줄 수 없는 마음을 읊음(시37), 남계정사南溪精舍에 머무는 여러 벗들에게 며칠간 머무르면 서 속념을 씻어내라고 당부함(시43), 시인의 문도門徒인 경임景任 이보李輔의 옥 같은 성품을 떠올리며 그리워함(시74), 한성漢城에 거주하는 노종원盧從元 정랑正郎을 그리워하며 호수에서 서곡가西曲歌를 부르며 노닐었던 풍류에 다시 참여하고픈 마음을 표현함(시83), 하회마을에서 이른 봄에 사문斯文 이경영李景嶸과 노닐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리워 함(시104) 등이다.

② 자성自省과 은거隱居

먼저 자성관련 시를 보면, 노자암鷓鴣巖 주인에게 부치는 시로 화자는 평생 명리에 얽매었던 지난 이력을 자성自省함(시65)이나, 중수仲綏 남연록南延祿 공의 양심에 의거한 자성自省태도를 찬미한 것(시84)이다. 다음에 은거관련을 보면,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에게 부친 시로, 이는 국화와 심사心思를 같이하여 세속과 거리를 두는 은거의 자세를 읊은 것이다(시21).

③ 도교적 양생養生

영옥병풍靈玉屏風에 쓰일 시문을 보내고 나서 양생養生의 소망을 피력하며 도교적 정각正覺의 경지에 몰입한 것을 읊었다(시110).

④ 애국애민

모공某公의 애국애민하는 충정을 기리면서 화자의 애국애민도 이에

기탁하고 있다(시110).

2) 표제어標題語가 없는 일반 시詩

본 항목과 관련된 시제詩題는 총 62편篇의 시제이다. 앞의 표제어가 있는 시제의 총수인 58편篇과 비교하면 4편의 시제가 더 많다. 이에는 처세處世, 자성自省, 사친思親 · 사향思鄉, 계절季節과 세모歲暮의 정서, 애도哀悼, 기타 등으로 대별하여 소개한다.

(1) 처세處世

이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① 개인적 차원

여기에서는 세상을 향한 소극적 처세를 읊고 있다. 요행의 문이란 쥐구멍과 같지만, 타인과 사귀기 위한 통로인 요행의 문은 한 개쥌 뚫어놓아야 함(시25), 부제학副提學에 임용되고 나서 휴가를 얻어 귀향하는 길에 도연명의 귀거래를 흠모하며, 은거를 소망함(시48), 신선의 거주지인 화산華山에서 은거하기를 희망함(시58), 지병持病이 있는데도 삼복더위를 극복한 이후, 절후가 바뀌면서 술잔도 마주하고 강물 · 구름 · 월출月出도 기다리면서 낮에 즐겁게 한 유람을 꿈속에서도 경이로워하는 자기극복을 읊음(시92), 세상사가 떠도는 구름처럼 느껴져서 또 다시 사직을 결심함(시111-4), 대문 닫아놓고 세속과 거리 두어도 양쪽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해짐(시111-5), 아침저녁 한가롭게 안거安居하는 것에 대한 만족함을 읊은 것(시111-6) 등이다.

② 사회적 차원

여기에서는 세상을 향한 적극적 처세를 읊고 있다. 중국 송宋나라의 패망

역사를 교훈삼아 왕사(往事)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지는 애국충정이 깃들여 있음(시2), 국정의 수반은 개인적 기호와 욕망을 벗어나야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할 수 있다는 리더의 홍익정신을 함축하고 있음(시3), 불평등의 등급을 다투는 속세와 맞선 의인(義人)들이 모여드는 취성정(聚星亭)의 찬미를 통해 깨어있는 철학정신을 시사함(시4), 중국 남송초기 순창(順昌) 지역에서 항금(抗金)장수 유기(劉錡)가 소수병력으로 10만의 금군(金軍)을 대적하여 순창 보위전을 최후 승리로 이끌어 낸 것을 통해 리더의 우국충정을 시사함(시6), 정부의 목적은 인간사회를 이해하여 홍익하는 사회선(社會善)의 양성을 위한 것임(시36), 귀은(歸隱)을 생각하면서도 변방의 군비계획에 대한 상소(上疏)를 읊어 우국정신을 피력함(시50-1), 중국 당(唐)나라의 중앙에 고구려 유민(流民)의 역사를 우뚝 세운 ‘목릉관(穆陵關)’을 대상으로 역사가 주는 교훈을 시사함(시51), 북방의 변경지역에서 발생한 ‘이탕개의 난’을 제때에 방어하지 못한 조정의 실책과 추계방어전을 위한 대책을 읊음(시52), 봄비가 와서 발갈이하는 정경을 통해, 군왕의 백성은택과 화자의 백성평안에 대한 기원을 읊음(시61), 전국이 청산을 제외하고는 온통 가뭄의 재난으로 시름에 겨워하고 화자도 날마다 누각에서 하늘을 보며 비를 기원함(시62) 등이다.

(2) 자성(自省)

철리적(哲理的) · 역사적 측면에서의 자성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① 철리적(哲理的) 차원

현상계는 변화를 본질로 하지만 그것이 불변하는 본체의 발현임을 깨우쳐 유한한 삶에 미혹되는 견식(見識) 좁은 언행을 삼갈 것을 시사함(시1), 산천자연의 변함없는 이법(理法)을 통해, 인재(人災)에서 비롯되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돌이켜 봄(시2), 관직생활을 떠나 대자연이 함께 하는 와룡암의 장관

壯觀을 유람하면서, 대자연이 보여주는 조화의 이법理法에 순응하지는 자기 성찰을 보임(시5), 정유재란丁酉再亂이 끝나갈 무렵 모든 관직이 삭탈되고 낙향 이후 일상을 제한고절歲寒孤節의 기쁨으로 육식과 한가한 배회를 사양하는 수심양성修心養性의 생활을 읊음(시7), 아들로서 양친에게 효심을 다하고, 일개 백성으로서 풍년을 기원하고, 선비로서는 매화의 고고孤高한 근성과 고절孤節을 보존해야 함을 피력함(시9), 한식날 금계촌金溪村의 선친 묘소에 성묘하고 돌아오면서, 나이 들수록 외물外物에 미혹되는 욕심을 자성自省함(시24), 방종심이 생길까 하여 자기 경계를 해도 시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해도 도량이 미치지 못하여 득도하기 어렵고, 정좌靜坐하여 만물의 이치를 살피도 정신이 상한다는 자신의 한계를 자성함(시32-1), 젊은 시절엔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분별하느라 애썼는데 늙어서는 도심의 근원을 멀리할까 주의를 요함(시39-2), 밤중까지 정좌靜坐를 통해, 진세塵世의 생각을 제거하고 정기精氣서린 본성만 남아있길 희망함(시75), 만물의 출몰出沒은 바로 통철하는 명결明潔한 마음에 있음(시76), 계절의 변화를 통해 도덕과 학문의 도리를 양생養生하고, 생각을 고요히 하여 속진俗塵을 벗어남을 읊음(시109) 등이다.

② 현실적 차원

천리天理와 함께 하면 도의道義가 풍성해지는데, 공문孔門의 학문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를 쳐다만 볼 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결핍감을 면할 수 없음을 돌아봄(시8), 항우項羽가 초한전楚漢戰에서 위세를 과시하고도 승전하지 못한 패인敗因이 주는 교훈은 다름 아닌 외물外物을 추구하다가 심신을 해쳤기 때문임(시10), 불여의한 시세時世・사람을 구제하려는 것 등은 혼자서 주관할 수 없는 것임(시12), 홀로 잠을 청하다가 개울물 소리 들으면서 묵좌하는 가운데 군무軍務에 차질을 주는 원인을 찾아봄(시77), 근래에 사람들은 오도悟道의 방향이 쇠퇴해져 소리小利에 집착함(시93) 등

이다.

(3) 사친思親·사향思鄉

저물녘에 정주목사定州牧使에 임직 중인 부친을 그리워함(시17), 부친의 3년상을 치른 후에도 여전히 사친思親에 대한 애통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심회를 읊음(시27), 경상도 관찰사로 임직하던 시기에 산골 집 창 아래서 부친 여윈 아픔을 되새기며 나그네 시름을 읊음(시59) 등이다.

객지에서 송년을 맞이하며 사향思鄉의 정서에 젖어 듭(시42), 만춘晩春에 한성漢城 생활 1년을 보내면서 사향思鄉에 사무침(시66) 등이다.

(4) 계절季節과 세모歲暮의 정서

가을 밤 심야에 내리는 찬비와 끊임없이 불어대는 추풍이 그리움의 정서를 야기함(시13), 만추晩秋를 그린 제화題畫에 취하여 월광 속에서, 술에 취하여 거문고를 탐(시14), 거울에서 봄으로 들어서는 환절기에 한매寒梅에서 약류弱柳로 경색景色을 달리하는 것에 대한 감회(시15), 가을 날 서루西樓에서 계절이 가을로 바뀌는 시점에 야기되는 처량한 정서(시28), 산북리山北里 주민들과 술을 함께 하면서 느끼는 석춘惜春의 정서(시57) 등이다.

만사가 복잡하게 얽힌 채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자신의 신세가 가련함을 느낌(시97-1), 늙으면 세월의 흐름이 더 빨라진다는 격언을 되새기며 강변길을 산책하는데 백사白沙며 청초靑草는 화자보다 더 강인하다는 것을 느낌(시97-2) 등이다.

(5) 애도哀悼

도학의 계승자인 퇴계가 학생들에게 끼친 청풍명월 같은 빛나는 교화와 무연無緣으로 바뀌어진 현실 및 선생의 구세救世의 뜻 등을 되새기며 그의 죽음을 애도함(시20), 김생원金生員 생전의 덕성과 명망, 예법과 도의

를 몸소 실천해 보인 것을 회고하며 애도함(시29), 무인년(戊寅年) 겨울에 서부지방으로 나갈 때 청연(靑蓮) 이후백(李後白) 공의 별세 소식을 듣고 그의 죽음을 애도함(시35), 기정(岐亭)에서 노닐다가 유명(幽明)을 달리한 봉원(逢原) 이안도(李安道) 공이 그리워서, 춘풍을 쫓으며 눈물을 흘림(시63), 강변에 추석이 짙어지자 고독한 혼령이 된 첫 번째 아들을 그리워하며 읊음(시79), 구천(九泉)에 간 의흥현감(義興縣監)의 혼령이 명검(名劍)을 모은 검광(劍光)의 위력으로써 이승으로 돌아올 것을 기원함(시114) 등이다.

(6) 기타

본 항목에서는 정사(精舍)를 시적공간으로 읊은 것이다. 이에는 원지정사(遠志精舍), 옥연정사(玉淵精舍), 남계정사(南溪精舍), 겸암정(謙菴亭) 등이 보인다.

① 원지정사(遠志精舍)

동서당론(東西黨論)의 심화로 휴가를 얻어 고향에 와서 심야에 강변누각의 난간에 기대앉아서 화자의 가슴에 만감이 교차함을 읊은 것(시49), 가을날 부친생전에 서림(西林)에 정자 지으려고 했던 기억을 떠올리다가 은거(隱居)하는 나날 속에 처마 아래서 쫓는 아침햇살을 은혜롭게 여김(시69), 추풍이 부는 원지정사의 연좌루(燕坐樓)에서 달빛을 받으며 길게 휘파람을 불며 먼 옛날의 은사(隱士)에 대하여 회고함(시95) 등이다.

② 옥연정사(玉淵精舍)

은거 중에 만년(晩年)의 생활을 경전독서로 보내고자 함을 써서 벽에 붙임(시70).

③ 남계정사(南溪精舍)

남계정사 주변의 승지(勝地)를 묘사하면서, 동구 밖을 에워싼 화나무를

묘사하여 학문의 전당임을 부각하였음(시41), 남계정사에 머무는 여러 벗들에게 때마침 화자에게 의뢰한 시를 명승지에서 낭송한다는 소식에, 며칠 간 머무르면서 손님들을 씻어내라고 당부함(시43) 등이다.

④ 겸암정謙菴亭

견제牽制의 중심에 서서있던 조정朝廷을 벗어나서, 시세時勢에 대한 우려를 북두병北斗柄의 선회에 유의하는 것으로 함축하고 있음(시56-1), 세속의 애환을 일소一笑에 부침(시56-2), 개울물과 종신토록 회포를 풀고자 함(시56-3)을 읊었다.

이상의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표제어를 지닌 시제詩題의 내용에서 화자의 상대자로 거론된 대상은 도·불道佛과 관계가 깊은 지우知友, 관계官界의 동료군자들, 은일계隱逸界의 지우知友 및 선생의 문도門徒와 학형學兄, 임지任地에서 만난 백성·촌민村民 등이다. 선생은 이들을 향해 선비로서의 의리義理와 개인으로서의 다양한 정감을 표현했지만 이의 저변에는 대체로 입세入世보다는 출세出世와 귀은歸隱쪽으로 기울어지는 소극적 냉감의 정서를 보였다.

표제어가 없는 일반시제의 내용에서도 그 유형은 위의 항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본 항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처세處世와 자성自省’의 내용성은 선생의 사상과 철학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권4의 핵심내용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의 중심철학이 기타 유형의 내용에까지 하나의 골격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테면, ‘처세’에서 나타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자세나 ‘자성自省’에서 보여준 철리적哲理的 기준은 모두 성리학적 우주관을 기저에 깔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전자의 ‘처세’에서는 개인적 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간에 모두 천리天理에 부합되는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며, 후자의 사회적 차원은 이의 도덕성 곧 의리

의 정신을 사회와 국가를 향해 펼치고자 했다는 것이 다를 뿐이었다.

게다가 권4의 국역시집 역시 표제어가 붙은 시제나 표제어가 없는 시제나 모두 처세관련 시제보다 자성自省 관련 시제가 많이 보여서, 선생의 내성외왕적內聖外王의 인생 태도를 가늠할 수 있기에 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인·대물對人對物 관계에서 보여준 다정다감한 정감은 선생이 견지한 도심道心を 무력하게 하는 진솔함을 보여주어 선생에 대한 친근감이 더욱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2020년 3월

서애 12대 후손 류명희柳明熙

후학後學 안유호安維鎬



1. 이 책의 국역 저본은 서애선생기념사업회의 간행본인 『서애전서西厓全書』 권2 속집편續集篇, 시부詩部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본 시집에서 시의 배열은 『서애전서』 권2 속집편, 시부의 목차에 준하였다. 이 목차의 순번에 따라 찾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번역시 제목 앞에는 ‘시1, 시2……’ 식으로 표기하였고, 원시 제목 앞에는 ‘詩1, 詩2……’ 식으로 번호를 덧붙여 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동시에 이 번호의 색을 열게 표기하여, 한편으로는 시제詩題의 순서를 나타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의 제목이 아님을 시각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3. 원시 제목에서는 방점을 찍지 아니하고 띄어쓰기만 했으며, 원시의 서문에서는 방점 처리를 하였다. 동시에, 원시와 이에 부속된 서문의 한문은 모두 한글 음을 달았다.
4. 시의 목차에서 ‘번역시 제목’은 왼쪽 페이지에, ‘원시제목原詩題目’은 오른쪽 페이지에 두었으며, 동시에 양자兩者를 동일 행行에 나란히 인배하여, 역시譯詩와 원시의 시제를 대조해서 즉각 해당 시제의 쪽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목차에서는 시제를 단순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부속된 서문은 생략하였다.
6. 같은 시제 아래, 2수 이상의 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원시의 목차에 준하여 [1], [2] 등으로 표기하였다.
7. 시의 1구는 1행으로 적었으며, 1구가 끝나면서 압운押韻하는 곳은 ‘.’

로, 압운하지 않는 곳은 ‘ , ’로 표기했다.

8. 연대는 공동연대Common Era로 표시하되, 필요시엔 괄호를 열어 당시 제왕의 재임연수와 서애西厓 선생의 당시 나이를 모두 표기하였다.
9. 주석注釋에서 인물과 지명에 대한 소개는 되도록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인물을 소개할 때는 원문에 기록된 성씨, 직함, 자字, 이름의 순으로 번역하고, 그 아래 ① 성명, ② 직함을 별도로 주석하였다. 번역문에서는 현대식으로 자나 직함을 앞에 쓰고, 성명을 뒤에 썼다.
10. 주석에서 특히 지명의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를 열고 오늘날의 위치로써 간주間註하였다.
인명·지명·서명書名 등에서, 중국관련 고유명사는 중국어 발음으로 표현해야 하나, 서애 선생이 작시作詩하던 시대적 상황과 한국의 한자 문화권의 정서를 고려하여, 한국어 음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인명과 지명 및 관직명에 관해서 각종 사전을 인용한 것은 일일이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11. 주석달기에서 단위별 항목의 표기는 1), ①, a, ㉠ 등의 순서로 표기하였고, ①의 단어설명에서 내용의 열거는 ‘☆’로, a와 ㉠ 항목의 단어설명에서 내용의 열거는 ‘○’로 표기하였다.
12. 주석은 가능하면 사전 없이 본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달았으며, 매 작품의 끝에 미주로 처리하였다. 서애 선생이 단 주석과 역자譯者의 주석 및 해설은 ‘**’라는 부호로 표기하였고, 주석 속에 다시 주석이 필요한 경우는 ‘*’로 표기하였다.
13. 역시의 제목과 시문詩文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현대어를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14. 부호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 1) () : 해당 단어에 대한 참고사항 및 연도 혹은 연도성 성격에 준하는 의미 및 시문이나 소서小序의 역문譯文 등에서 생략된 의미를

역자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 부호를 사용했다.

2) 「 」 : 작품의 편명을 표기하였다.

3) 『 』 : 책명을 표기하였다.

4)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었다.

5) ‘ ’ : 재인용이나 강조 부분을 묶었다.

6) [] : 같은 시제詩題 아래 2수 이상의 작품이 있는 경우에는 원시
原詩의 목차에 준하여 이 부호로써 해당 번호를 묶었다. 또한
내용설명에 대한 약식略式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도 본 부호를 사용
하였다.

15. 권말卷末부록으로 ① 「서애연보西厓年譜」 초록抄錄, ② 색인索引을 수
록하였다.



목 차

간행사刊行辭 _ 5

역자 서설序說 _ 9

해제解題 _ 13

일러두기 _ 31

- 시1. 임술년(壬戌年: 1562: 서애 21세) 초가을 칠월 열엿새날,
“소동파蘇東坡 공공이 적벽赤碧에서 뱃놀이 한 정황을 가슴에
새겨두라”는 가친家親의 명을 받고, 본 시를 짓는다 1
- 시2. 세상 운수運數를 열어 창엽한 황제의 궁궐인데 7
- 시3. 종묘宗廟에서 신령을 영접하면서 21
- 시4. 취성정聚星亭 30
- 시5. 와룡암행臥龍菴行 43
- 시6. 순창성順昌城에서 올린 승전보 54
- 시7. 한록당寒綠堂 69
- 시8. (여럿이 모여) 시가詩歌를 읊다가 귀가歸家하다 78
- 시9. 매화의 풍격을 본받으면서 88

詩1.	壬戌 秋七月 旣望 懷蘇子赤碧之遊 承家君之命 作 …	1
	임 술 추 월 기 망 회 소 자 적 벽 지 유 승 가 군 지 명 작	
詩2.	啓運宮	7
	개 운 궁	
詩3.	候神太室	21
	후 신 태 실	
詩4.	聚星亭	30
	취 성 정	
詩5.	臥龍菴行	43
	와 룡 암 행	
詩6.	順昌奏捷	54
	순 장 주 첩	
詩7.	寒綠堂	69
	한 륭 당	
詩8.	詠歸	78
	영 귀	
詩9.	孝梅 甲子	88
	효 매 갑 자	

시10. 해하垓下 땅의 고훈古訓을 조사연구하면서	103
시11. 시 「악왕묘岳王墓」를 차운次韻하여	123
시12. 수심愁心	133
시13. 한적閑寂한 정취	145
시14. 화폭에 쓴 제시題詩	147
시15. 병인년丙寅年 이월 말, 서행西行하던 중에 저복원貯福院에 도착하여, 잠시 쉬어 가는데 느낀 바 있어	149
시16. 공강정控江亭에서 이인언李仁彦을 유별留別하면서	151
시17. 저물녘에 낙동강 동쪽 산봉에 올라 정주定州를 바라보면서 ..	154
시18. 실록교정청實錄校正廳에 선온宣醞하는 날이라 동료에게 부친 시 두 수	156
시19. 호수湖叟 박태수朴台壽 공공의 회갑연 연석에서 그 분의 시운詩韻을 보운步韻하여	163
시20. 퇴계 이황 선생을 애도하면서 신미년(辛未年: 1571년: 서애 30세)에 두 수를 읊다	165
시21.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 공공께 부치다	171
시22.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 공공의 시 세 수를 차운하여	174
시23. 임보任甫 김홍민金弘敏 형제를 작별하면서 증여하다	178
시24. 한식날 금계촌金溪村의 선친 묘소에 성묘하고 돌아오는 길에 감회를 쓰다	181

詩10.	垓下訪古	103
	해 하 방 고	
詩11.	次岳王墓韻	123
	차 악 왕 묘 운	
詩12.	愁	133
	구	
詩13.	閑情	145
	한 정	
詩14.	題畫	147
	제 화	
詩15.	丙寅二月末 西行過貯福院 小歇有感	149
	병 인 이 월 말 서 행 과 저 복 원 소 쉴 유 감	
詩16.	控江亭 留別 李仁彦 戊辰	151
	공 강 정 유 별 이 인 언 무 진	
詩17.	洛河東峯暮登望定州	154
	낙 하 동 봉 모 등 망 정 주	
詩18.	實錄校正廳 宣醞日 寄同僚 二首	156
	실 록 교 정 청 선 운 일 기 동 료 이 수	
詩19.	朴湖叟台壽 晬筵步其韻	163
	박 호 수 태 수 수 연 보 기 운	
詩20.	退溪先生挽 二首 辛未	165
	퇴 계 선 생 만 이 수 신 미	
詩21.	寄權章仲好文	171
	기 권 장 중 호 문	
詩22.	次權章仲韻 三首	174
	차 권 장 중 운 삼 수	
詩23.	贈別金任甫兄弟弘敏弘微	178
	증 별 김 임 보 형 제 홍 민 홍 미	
詩24.	寒食 拜掃金溪 還路感懷	181
	한 식 배 소 금 계 환 로 감 회	

시25. 무제無題	185
시26. 성백成伯 안경로安景老 공공의 시 「남강에서 노닐며遊南江」의 시운詩韻을 차운次韻하여	187
시27. 병자년(丙子年: 1576년: 서애 35세) 봄에	192
시28. 가을날 서루西樓에서 즉흥시를 쓰다	194
시29. 김 생원을 애도하며	196
시30. 한덕재韓德載 형이 연경燕京으로 가는 것을 봉별奉別하면서	198
시31. 공직公直 심충겸沈忠謙의 시를 차운하여	201
시32. 세월에 은거하며 세월의 흐름이 몹시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 감개한 나머지, 두 수의 율시를 지어 내 마음을 표현한다 두 수	204
시33. 봉원逢原 이안도李安道 공공이 부모님께 문안차 남쪽(고향)에 내려와 있는 중인데 <내가> 병중이라 외출을 할 수 없어 별리別離의 시로써 그 정회情懷를 읊어 본다	210
시34. 극부克夫 서인원徐仁元 공공에게 부치다	214
시35. 무인년(戊寅年: 1578년: 선조 11년, 서애 37세) 겨울, 서부 지방에 갈 때,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 공공의 별세 소식을 처음으로 듣고, 삼가 (애도의) 감정을 글로 표현한다	218
시36. 독서	222
시37. 미숙 허봉許篈에게 부치다	225
시38. 경진년(庚辰年: 1580년: 서애 39세) 봄에	230
시39. 무제無題	232
시40. 백씨伯氏의 환조還朝를 봉별奉別하면서	235

詩25.	無題	185
	무 제	
詩26.	次安成伯 遊南江韻 二首 乙亥	187
	차 안 성 백 유 남 강 운 이 수 윤 해	
詩27.	丙子春	192
	병 자 춘	
詩28.	秋日西樓卽事 己卯	194
	수 일 서 두 즉 사 기 묘	
詩29.	輓金生員	196
	만 김 생 원	
詩30.	奉別韓德載年兄赴燕 丙子仲秋	198
	봉 별 한 덕 재 년 형 부 언 병 자 중 추	
詩31.	次沈公直忠謙韻	201
	차 심 공 직 중 겸 윤	
詩32.	歲暮潛居 念時序流邁 感慨之餘 以二律見意 二首	204
	세 모 잠 거 념 시 서 유 매 감 개 지 여 이 이 읊 건 의 이 수	
詩33.	李逢原安道 省覲南中 病未出別詩以寫懷	210
	이 봉 원 안 도 성 근 남 중 병 미 출 별 시 이 사 회	
詩34.	寄徐克夫仁元 二首	214
	기 서 극 부 인 원 이 수	
詩35.	戊寅冬 西行時 初聞青蓮公訃 有作情見于辭	218
	무 인 동 서 행 시 초 문 청 연 공 부 유 작 정 연 우 사	
詩36.	讀書	222
	독 서	
詩37.	寄許美叔簪	225
	기 허 미 숙 봉	
詩38.	庚辰春	230
	경 진 춘	
詩39.	無題	232
	무 제	
詩40.	奉別伯氏還朝	235
	봉 별 백 씨 환 조	

시41. 남계정사南溪精舍 편액扁額	237
시42. 길썰의 난초	240
시43. 우중雨中에 남계정사南溪精舍의 여러 벗들에게 부치다	242
시44. 상주商州에 계신 연로한 어르신들께 증정하다	244
시45. 탄홍의 시집에 쓰다	248
시46. 죽연정竹淵亭에서 고서古書를 교감校勘하시는 군자 여러분께 올림	251
시47. 시 「제친정濟川亭」의 운韻을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명명의) 현귀顯貴한 사신에게 증정하다	256
시48. 충주忠州 노상路上에서	260
시49. 원지정사를 읊다	263
시50. 계미년(1583년, 서애 42세) 가을의 정사잡영精舍雜詠 두 수二首 ..	265
시51. 계미년(癸未年: 1583년 서애 42세) 칠월 열 여드렛날에 우연히 짓다	269
시52. 북방 오랑캐 여진족女眞族이 종성鍾城을 포위했다는 소식 듣고	271
시53.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어은정漁隱亭에서 함께 놀았던 분들에게 부치다	277
시54. 삼가 어은漁隱 이용李容 공公의 시운詩韻을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거듭 증정하다	280
시55. 방금 벗과 북호北湖로 나갔다가, 삼가 벗이 지은 시를 읽으며 재사齋舍에 돌아와서, (내가 그 자리에서) 즉시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보면서 웃는다	283

詩41.	南溪扁額	237
	남 계 편 액	
詩42.	路邊蘭	240
	노 변 란	
詩43.	雨中寄南溪諸友	242
	우 중 기 남 계 제 우	
詩44.	贈商山耆老	244
	증 상 산 기 로	
詩45.	書誕弘詩卷 壬午	248
	서 탄 홍 시 권 임 오	
詩46.	奉呈竹淵亭校書諸君子	251
	봉 정 죽 연 정 교 서 제 군 자	
詩47.	濟川亭次贈華使	256
	제 천 정 차 증 화 사	
詩48.	忠州道中時以副提學乞暇還鄉	260
	충 주 도 중 시 이 부 제 학 겸 가 환 향	
詩49.	題遠志精舍 癸未	263
	제 원 지 정 사 개 미	
詩50.	癸未秋精舍雜詠 二首(又有二首 載別集一首缺)	265
	개 미 추 정 사 잡 영 이 수	
詩51.	癸未七月十八日偶題	269
	개 미 칠 월 십 팔 일 우 제	
詩52.	聞北虜圍鍾城	271
	문 북 로 위 중 성	
詩53.	次韻寄漁隱亭同遊諸君子(三首內一首 載別集)	277
	차 윤 기 어 은 정 동 유 제 군 자	
詩54.	謹次漁隱韻仍呈	280
	근 차 이 은 윤 임 정	
詩55.	將與友人出北湖 惠詩到門 走次睹笑	283
	장 여 우 인 출 북 호 혜 시 도 문 주 차 도 소	

시56.	어젯밤 겸암정謙菴亭에서 (여러 선비들과) 하룻밤을 묵으며 북담北潭에서 노닐었던 까닭에 홀연 시운詩韻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삼가) (그분들의 시운을) 차운하여 (본 시를) 읊는다 ···	288
시57.	(승정원承政院의 관원이) 어명御命을 받잡고 (제수除授한 관직에) 응락하라며 (나를) 방문하신 분이, (내가) 우연히 지은 시에 감탄하셨으나, 단지 아직은 배를 어디에 대야 좋을지 모르면서	293
시58.	화산華山의 옥정玉井 샘물	295
시59.	신녕현新寧縣의 현관	297
시60.	성현역省峴驛에서 묵으며	299
시61.	봄비 와서 밭갈이들 하는데	301
시62.	가뭄을 걱정하면서	304
시63.	기정岐亭에서 노닐다가 봉원逢原 이안도李安道 공공이 그리워서	307
시64.	농부 김천민金天民 존장께서 봄에, 내가 거주하는 하회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시집을 보여주면서, 시가詩歌로 화답하며 한답하자기에 (그 시집 중에) 첫 번째 시의 운자에 차운하여 짓다	310
	농부 김천민金天民 존장尊長의 시운詩韻에 또 차운하여	312
시65.	노자암鰲巖 주인에게 부치다	315
시66.	방금 찢꼬리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서	319
시67.	강변에서 사문斯文 이경을李景嶸 공공을 송별하면서	321
시68.	승려 탄홍誕弘이 강변에 안식처를 헌납하겠다고, 재물을 내놓고 집을 짓는다기에, 농 삼아 시를 써서 증여하다	323

詩56.	昨宿謙巖亭 因遊北潭 忽拔來韻 謹次 작 숙 겸 암 정 인 유 북 담 홀 피 래 운 근 차	
	三首 癸未陽月晦 삼 수 계 미 양 월 회	288
詩57.	承許枉訪 感歎偶題 第未知艤舟何處爲佳也 승 허 왕 방 감 탄 우 제 제 미 지 의 주 하 처 위 가 야	293
詩58.	華山玉井靈源 화 산 옥 정 영 원	295
詩59.	新寧縣懸板 甲申 신 녕 현 련 판 갑 신	297
詩60.	宿省峴驛 숙 성 현 역	299
詩61.	春雨向田耕 춘 우 향 전 경	301
詩62.	悶旱 민 한	304
詩63.	遊岐亭憶逢原 乙酉 유 기 정 억 봉 원 을 유	307
詩64.	金天民丈農於春日 訪余河庄 示以詩卷求和聊 김 천 민 장 등 이 춘 일 방 여 하 장 시 이 시 권 구 화 료	
	次首韻 乙酉仲春 차 수 운 을 유 중 춘	310
	又次金天民韻 우 차 김 천 민 운	312
詩65.	寄鷓鴣巖主人 乙酉 기 노 자 암 주 인 을 유	315
詩66.	聞新鶯 문 신 앵	319
詩67.	江上送李斯文景嶸 강 상 송 이 사 문 경 릉	321
詩68.	僧誕弘將入海鳩 資作舍 戲書以贈 승 탄 홍 장 입 해 구 자 작 사 희 서 이 증	323

시69. 가을날 원지정사遠志精舍 남쪽 처마 밑에서 등에 햇별을 꺾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시로 지어서 벽에 붙이다 …	326
시70. 정사精舍 벽에 써 붙이다 ……………	329
시71. 이전에 벽에 써 붙인 시의 운韻을 차운하여, 그 아래 써 붙이다 ……………	332
시72. 승려 명열明閱의 시운詩韻을 차운次韻하여 ……………	334
시73. 잠계潛溪 이전인李全仁 공公의 시 「봉림대鳳臨臺」를 차운하여 ……………	338
시74. 경임景任 이보李輔에게 부치다 ……………	342
시75. 제목 미상 ……………	344
시76. 농 삼아 한 수 읊다 ……………	347
시77. 제목 미상 ……………	351
시78. 승려에게 증여하다 ……………	354
시79. 을유년乙酉年(1585년, 서애 44세) 가을에 ……………	357
시80. 남계南溪에서 출발하여 산행하던 도중에 짓다 ……………	358
시81. 임무년林茂年 공公에게 증여하다 ……………	361
시82. 산중의 승려에게 증여하다 ……………	365
시83. 노종원盧從元 정랑正郎께 화답하여 부치다 ……………	366
시84. 중수仲綏 남연록南延祿 선비께 화답하여 부치다 ……………	370
시85. 강변누각에서 중수仲綏 남연록南延祿이 불러주는 운자韻字를 따라서 ……………	373
시86. 행정行正 승려에게 증여하다 ……………	375

詩69.	遠志精舍 秋日 負暄南簷 偶吟書壁	326
	원 지 정 사 추 일 부 원 남 첨 우 음 서 벽	
詩70.	書精舍壁間	329
	서 정 사 벽 간	
詩71.	次前日壁上韻 題其下	332
	차 전 일 벽 상 운 제 기 하	
詩72.	次僧明閱韻 乙酉春	334
	차 승 명 열 운 을 유 춘	
詩73.	次鳳臨臺韻	338
	차 봉 립 대 운	
詩74.	寄李景任輔	342
	기 이 경 임 보	
詩75.	題未詳	344
	제 미 상	
詩76.	戲成	347
	희 성	
詩77.	題未詳	351
	제 미 상	
詩78.	贈僧 乙酉秋	354
	증 승 을 유 추	
詩79.	乙酉秋	357
	을 유 추	
詩80.	自南溪山行路中作 乙酉	358
	자 남 계 산 행 로 중 작 을 유	
詩81.	贈林茂年	361
	증 임 무 년	
詩82.	贈山僧	365
	증 산 승	
詩83.	寄答盧正郎從元	366
	기 답 노 정 랑 종 원	
詩84.	奉酬寄南仲綏延祿	370
	봉 수 기 남 중 수 연 복	
詩85.	江閣與南仲綏呼韻	373
	강 각 여 남 중 수 호 운	
詩86.	贈行正僧	375
	증 행 정 승	

시87. 정일精一의 시축에 쓰다	376
시88. 신경信敬 승려에게 증여하다	379
시89. 시 「망호현望湖軒」을 차운次韻하여	381
시90. 우중에 지난 날을 생각하며 시 「작년 한식 때의 성묘前歲寒食拜掃」를 차운次韻하여	384
시91. 인동현仁同縣 망호현望湖軒에서 시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재상(湖陰相國)」을 차운하여	386
시92. 제목 미상	393
시93. 권직장權直長의 초은정招隱亭을 쓰다	396
시94. 선몽대仙夢臺의 주인 정가靜可 이열도李閔道 공公에게 증여하다	400
시95. 원지정遠志亭의 연좌루燕坐樓에서	404
시96.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공과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 공이 지은 시의 운을 차운하여 두 분께 드리다	406
시97. 눈앞의 사물을 읊다	410
시98. 지한대사智閑大師를 송별하면서	412
시99. 산승山僧 혜묵惠默에게 증여하다	421
시100. 산승山僧 사경思敬에게 증여하다	423
시101. 김제천金提川 공公에게 증여하다	426
시102. 산승에게 증여하다	430
시103. 예복禮服을 쓰다	435
시104. 강변마을에서 사문斯文 이경영李景嶸에게 부치다	438

詩87. 精一詩軸	376
精 일 시 축	
詩88. 贈山人信敬	379
증 산 인 신 경	
詩89. 次望湖軒韻	381
차 망 호 현 운	
詩90. 雨中感舊次前歲寒食拜掃韻	384
우 중 감 구 차 전 세 한 식 배 소 운	
詩91. 仁同望湖軒 次湖陰相國韻	386
인 동 망 호 현 차 호 음 상 국 운	
詩92. 題未詳	393
제 미 상	
詩93. 題權直長 招隱亭	396
제 권 직 장 초 은 정	
詩94. 贈仙夢臺主人李靜可 閔道丁亥暮春	400
증 선 몽 대 주 인 이 정 가 일 도 정 백 모 춘	
詩95. 遠志亭燕坐樓	404
원 지 정 연 좌 루	
詩96. 次鶴峰松巖韻贈上人	406
차 학 봉 송 암 운 증 상 인	
詩97. 卽事 二首	410
즉 사 이 수	
詩98. 送閑上人	412
송 한 상 인	
詩99. 贈山人惠默	421
증 산 인 혜 묵	
詩100. 贈山人思敬 二首	423
증 산 인 사 경 이 수	
詩101. 贈金堤川 用進退格甲申	426
증 김 제 천 용 진 퇴 격 갑 신	
詩102. 贈山人 三首	430
증 산 인 삼 수	
詩103. 題卷衣	435
제 권 의	
詩104. 江上寄李斯文景嶸	438
강 상 기 이 사 문 경 형	

시105. 무제無題	440
시106. 영옥병풍靈玉屏風에 쓰일 시문을 보내고 나서 풍악산楓岳山을 유람하면서	442
시107. 삼가 시 「정양재汀養齋에 와서(臨汀養齋)」의 운韻을 받들어 지은 시를 기록하여 드리오니 질정叱正 있으시기 바랍니다	445
시108. 송별하면서 증여한 시	448
시109. 녹음綠陰	451
시110. 모某 공公에게 기증하다	453
시111. 제목 미상	457
시112. 어제 정안군鄭安奇군을 만나서 (학봉노형鶴峯老兄의 새 거처지가) 경치 좋은 곳이란 소리를 듣고, 잠시 고상한 운치가 있는 (노형의) 시를 (정군과) 읊다가, 삼가 보운步韻하여 학봉형께 드린다	462
시113. 사월 스무 이렛날, 옥연정사에 강풍이 불었다. 때마침 사순士純 김성일金誠一 공이 성산臺에서 산을 유람하며 지은 여러 수의 시를 보내왔는데, 각종 시체詩體를 구비한 그 시들이 진귀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어 감탄한 나머지, 일일이 다 화답할 수는 없지만, 아래의 시 한 수를 보내 드린다	465
시114. 의흥현감義興縣監 정희린鄭姬鄰 공公의 별세를 애도한 시	470
시115. 문경현聞慶縣을 지나가는 도중에, 병이 나서 아직 길을 나설 수 없는지라, 동행인을 청해 절구시絶句詩 두 수를 읊은 다음, (이름) 기록하여 객관 주인에게 증정하다	475

詩105.	無題 무 제	440
詩106.	送靈玉遊楓岳 송 영 옥 유 풍 악	442
詩107.	奉次臨汀養齋韻錄呈求正 봉 차 임 정 양 재 운 녹 정 구 정	445
詩108.	贈別 증 별	448
詩109.	綠陰 녹 음	451
詩110.	寄贈缺 기 증 결	453
詩111.	題未詳 六首 제 미 상 육 수	457
詩112.	昨逢鄭安奇聞得勝地 且誦雅韻 작 봉 정 안 기 문 득 승 지 차 송 아 운	
	謹步奉呈鶴峯老兄 근 보 봉 정 학 봉 노 형	462
詩113.	四月二十七日 大風在玉淵精舍 사 월 이 십 칠 일 대 풍 재 옥 연 정 사	
	適士純自星山寄示遊山諸詩 衆體俱備金玉鏗鏘 적 사 순 자 정 산 기 시 유 산 제 시 중 체 구 비 금 옥 경 장	
	感歎之餘 不能盡和只次首篇奉呈 감 탄 지 여 불 능 진 화 지 차 수 편 봉 정	465
詩114.	義興縣監鄭姬鄰輓詞 의 흥 현 감 정 의 름 난 사	470
詩115.	聞慶道中 病未赴 召偶吟二絕 錄呈主人 문 경 도 중 병 미 부 소 우 읊 이 절 녹 정 주 인	475

- 시116. 어젯밤에 홀로 정원에서 거니는데, 월색이 너무
아름다운데다가, 멀리서 내방한 제군諸君의 마음이 고마워서,
얼핏 떠오른 생각으로 읊은 시를 기록하여 증정한다.
김회중金晦仲 형제와 정경임鄭景任 그리고 이숙평李叔平이 문안 왔다
(김회중 형제에게 증여한 시는 별집別集에 실려 있다) 478
- 시117. 송별에 즈음하여 미백美伯 김교金窩와
회중晦仲 김혜金憲 형제에게 증여하다 481
- 시118. 서재書齋에 머무르는 감회 485
- 시○○○. 정해년丁亥年 정월 초하룻날 대설大雪이 내리는데,
시詩 「인동 망호현仁同望湖軒」의 운자韻字를 차운하여 488
- 시119. 시축詩軸에 쓰다 492
- 시120. 정해년(丁亥年: 1587년: 서애 46세) 이월 열 여드렛날 비가
오는데, 연좌루燕坐樓에 앉아 반산半山 왕안석王安石의
시를 차운하여 494

서애연보西厓年譜 초록抄錄 _ 497

찾아보기 _ 533

詩116.	昨夜獨步庭中 月色甚佳 有感於諸君遠來之意 작 아 독 보 정 중 월 색 심 가 유 감 어 제 군 원 래 지 의	
	偶吟錄呈 金晦中兄弟與鄭景任、李叔平來謁 우 음 녹 정 김 회 중 형 제 이 정 경 임 이 숙 평 래 안	
	(有贈金晦中兄弟詩 載別集)	478
詩117.	贈別金美伯窩 晦仲憲 兄弟	481
	증 별 김 미 백 교 회 중 해 형 제	
詩118.	齋居感懷 丁亥	485
	재 기 감 회 정 해	
詩○○○.	丁亥元日 大雪 次仁同望湖軒韻	488
	정 해 원 일 대 설 차 인 동 망 호 원 운	
詩119.	詩軸	492
	시 축	
詩120.	丁亥二月十八日雨 坐燕坐樓 次半山韻	494
	정 해 이 월 십 팔 일 우 좌 연 좌 루 차 반 산 운	

시1. 임술년(壬戌年: 1562: 서해 21세) 초가을 칠월
 열엿새날, “소동파蘇東坡 공公이
 적벽赤碧에서 뱃놀이 한 정황을 가슴에
 새겨두라”는 가친家親의 명을 받고,
 본 시를 짓는다



詩1. 壬戌 秋七月 既望 懷蘇子赤碧之遊 承家君之命 作¹⁾
 임 술 추 칠 월 기 망 회 소 자 적 벽 지 유 승 가 군 지 명 작

壬戌初秋月既望,
 임 술 초 추 월 기 망

임술년 초가을의 칠월 열엿새날,

長吟獨坐感前賢²⁾.
 장 음 독 좌 감 전 현

시가를 읊으며 홀로 앉았노라니
 옛 명인이 그리워지네.

蘭槳桂棹仙遊遠³⁾,
 난 장 계 도 선 유 원

난장蘭槳과 계도桂棹로 배질하여
 선유仙遊한 건 옛날이나,

山色江聲尙宛然⁴⁾.
 산 색 강 성 상 완 연

산 풍경이며 강 물결소리는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하네.

月白風清空萬古⁵⁾.
 월 백 풍 청 공 만 고

밝은 달빛 맑은 바람은
 만대에 걸쳐 변함이 없는데,

名留人去幾千年⁶⁾.
 명 유 인 거 기 천 년

사람은 죽고 이름 남겼어도
 몇 천 년에 불과하네.

偏荒晚出同鷄甕⁷⁾,
편 황 만 출 동 계 웅

외진 곳에 늦게 출현한 전식 좁은
이 사람처럼,

誰載寒光更扣舷⁸⁾.
수 재 한 광 경 구 현

누가 달빛 아래 또 뱃전 두드리며
시가를 읊을꼬?

- 1) ① 추칠월(秋七月): 음력 칠월의 가을철을 이르는 말로서, ‘오곡이 여무는 가을철’, 곧 ‘초가을’을 칭하는 말이다.
- a. 추(秋): 오곡이 여물다. 본 시에서는 ‘초가을’이란 뜻으로 쓰였다.
- ② 기망(既望): 음력으로 매달 열넷새날. 주력(周曆: 주나라 시대의 달력)에서는 매 월 15일과 16일에서 22일과 23일까지를 ‘기망(既望)’이라 했다. 그 후 사람들은 ‘음력 15일’을 ‘망(望)’이라 하고, ‘16일’을 ‘기망(既望)’이라 했다.
- ③ 회소지적벽지유(懷蘇子赤壁之遊: 소동파공이 적벽에서 뱃놀이 한 정황을 가슴에 새겨두라):
- a. 회(懷): (생각 등을) 가슴에 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 b. 소자(蘇子): 동파(東坡) 소식(蘇軾) 공(公). 소동파(蘇東坡)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다.
- ④ 소(蘇): 동파(東坡) 소식(蘇軾)의 성씨로서, 그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⑤ 자(子): 남자에 대한 존칭이나 미칭(美稱)으로 쓰인 말이다.

☆소식(蘇軾: 1037~1101): 북송(北宋) 미주(眉州) 미산현(眉山縣),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미산현 사람이다. 자는 자첨(子瞻) 또는 화중(和仲)이고, 호는 동파거사(東坡居士)이며 소순(蘇洵: 1009~1066)의 아들이다. 송나라 최고의 시인이며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이다.

인종(仁宗) 가우 2년(嘉祐二年: 1061~소식 26세)에 진사(進士)에 합격하고, 이어서 제과(制科)에 합격했다. 그 해에 봉상부 첨서판관(鳳翔府 簽書判官)으로 재직하다가 사관(史館)에 근무하면서, 개봉부 추관(開封府 推官)을 역임했다. 신종(神宗) 화녕 2년(熙寧二年: 1069: 소식 34세)에 「신종황제께 올리는 상소문(上神宗皇帝書)」과 화녕 3년(熙寧三年: 1070: 소식 35세)에 「재차 신종 황제께 올린 상소문(再上神宗皇帝書)」에서 왕안석(王安石: 1021~1086) 신법(新法)의 불편함을 논했다가 항주통관(杭州通判)으로 좌천되었다. 이어서 밀주(密州)·서주(徐州)·호주(湖州) 등 3개 주의 지주(知州)를 역임하였다.

원풍 2년(元豐二年: 1079: 소식 44세)에 「〈동생〉 자유(子由: 소철蘇轍의 자字)에게 농 삼아 쓰다(戲子由)」라는 시에서, “만권의 책은 읽었어도 율법(律法: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가리킴〉)은 아니 읽었기에, 주군을 보좌해 요순 같은 성군 되게 할래도 방법이 없음을 알겠네(讀書萬卷不讀律, 致君堯舜知無術).”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이 시로 인하여, 초유의 필화사건(筆禍事件)인 ‘오대시안(烏臺詩案)’이 발생하여 수 개월간 옥고

를 치르다가 황주(黃州)의 단련부사(團練副使)로 유배되어 4년간 그곳에서 지냈다.

철종(哲宗: 1077~1100)이 즉위하면서 구법당(舊法黨)이 득세하자 등주(登州)의 지주(知州)로 재기하고, 중서사인(中書舍人)과 한림학사 겸 시독(翰林學士兼侍讀)을 역임하였다.

철종 원우 4년(哲宗元祐四年: 1089: 소식 54세)에 용도각 학사(龍圖閣學士)로서 항주지주(杭州知州)가 되었는데, 당시 그곳에 큰 가뭄이 발생하여 기근이 들고 질병이 창궐하자 공미(供米) 올리는 것을 면제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방출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또한 항주(杭州)가 바다와 근접한 지역에 위치 했던터라 샘물에 염분이 들어 있어 주민들이 고 통스러워하자, 소식은 하천을 준설하는 한편, 서호(西湖)주변에 30리의 제방을 증축하여 많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했다.

원우 6년(元祐六年: 1091)에 한림승지(翰林承旨)로 소환되었으나 얼마 안되어 참소를 당해 영주지주(穎州知州)로 좌천되었고, 나중에 양주(揚州)로 전근되었다.

원우 8년(元祐八年: 1093: 소식 58세)에 단명전 학사(端明殿學士)겸 한림시독학사(翰林侍讀學士)로 정주지주(定州知州)를 역임하다가 해주지주(惠州知州)로 폄직되었다.

황태후 향씨(向氏)의 죽음을 계기로 신법당이 다시 권력을 잡자 소식은 소성 4년(紹聖四年: 정축년: 1097: 소식 62세)에 경주별가(瓊州別駕)로 폄직되고, 창화군(昌化軍)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7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는 중, 원부 3년(元符三年: 경진년: 1100: 소식 65세)에 휘종(徽宗: 1082~1135)이 등극하자 사면되어 돌아오면서, 저명한 도관(道觀)인 옥국관(玉局觀)을 관리하며 조봉랑(朝奉郎)으로 관직이 회복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북상(北上)하던 중, 휘종 건중정국 원년(建中靖國元年: 신사년: 1101: 소식 66세) 6월 초에 소식은 외사촌 동생이자 정치가인 정지원(程之元)과 절친한 친구인 전세웅(錢世雄)을 만나서 금산(金山)의 묘고대(妙高臺)에 올라갔다 오며 정치적 처신을 의논하고, 동생 소철(蘇轍)이 서신으로 전한 북방의 정치적 정황을 들었던 터라, 소식은 경성(京城)으로 북상하지 않고 상주(常州: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상숙시常熟市 서북)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중순, 서화가(書畫家) 미불(米芾: 1051~1107)과 백사(白沙)의 동부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금산에 오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곳 날씨가 혹서(酷暑) 상태였던 까닭에 낮에 찬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밤에 급성 복사(腹瀉)가 심했다. 게다가 순식간에 장독(瘡毒)에 감염되어 앓다가 7월에 결국 타계하였다. 시호는 문충공(文忠公)이다.

당시(唐詩)가 서정적인 데 대하여 소식의 시는 철학적인 요소가 짙으면 서도 시문이 청신창달(清新暢達)하고 작사(作詞)가 호방하여 시적내용을 새롭게 개척했고, 기미시풍(綺靡詞風: 문사文詞가 화려한 풍조)을 돌파했

다. 대표작 「적벽부(赤壁賦)」는 불후의 명작으로 널리 애송되고 있다. 또한 소식은 시·서·화(詩書畵)에 모두 탁월했다. 저서에 동파칠집(東坡七集)과 동파지림(東坡志林), 동파악부(東坡樂府), 구치필기(仇池筆記), 논어설(論語說) 등이 있다.

*오대시안(烏臺詩案 : 오대구안烏臺舊案) : 당시의 용어로 ‘오대시안(烏臺詩案 : 사법기관인 어사대御史臺가 소식蘇軾이 지은 풍자시가 조정을 우롱하였다 하여 문책한 사건)’이라 했고, 후세에 와서는 ‘오대구안(烏臺舊案 : 어사대가 소식을 문책한 종전의 사건)’이라 일컬었다. 이 용어는 필화사건(筆禍事件)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오대(烏臺)’란 말은 ‘오부(烏府)’와 같은 말로서 ‘사법기관으로 탄핵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관청’인 ‘어사대(御史臺)’의 별칭이다. 이 용어는 한대(漢代)에 생겼는데, 당시의 탄핵을 관장하는 관청인 어사대와 그 관청에 근무하는 관리가 사는 부락에는 우물물이 고갈되고, 그 주변에는 측백나무만 무성하고, 해가 저물면 까마귀 떼만 모여들었기에 ‘어사대’를 ‘오대(烏臺)’라고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이 ‘오대시안’은 지나치게 현실을 증시한 수구세력으로 구법당에 속한 소식이 과도한 이상론에 편중된 진보 세력인 왕안석(王安石 : 1021~1086)의 신법(新法), 즉 변법(變法)을 비판하며 반대하다가 여기저기로 폄적되면서 풍자시를 읊었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탄핵을 받고 형옥(刑獄)을 관장하는 관청인 어사대에서 문죄를 당한 사건이다. 이 오대시안에 관한 기록은 당시의 문인 봉구만(朋九萬 : 생몰년 미상)이 저술한 『오대시안(烏臺詩案)』에 자세히 기록된 것이며,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 권11에 수록되어 있다.

- c. 적벽지유(赤壁之遊) : 본 시에서는 ‘적벽(赤壁) 강에서의 뱃놀이의 정황’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역자주석 : 본 시제에서 언급한 ‘적벽지유(赤壁之遊)’는 ‘소식이 적벽에서의 뱃놀이를 하고 읊은 「적벽부(赤壁賦)」’를 가리킨다. 소동파가 적벽산과 가까운 남쪽으로 유배된 계기가 된 것은 필화사건(筆禍事件)인 ‘오대시안(烏臺詩案)’이었다. 입암(立巖) 공(公)이 아들에게 ‘소동파의 적벽에서의 선유를 가슴에 담아두라고 한 것’은 바로 소동파가 겪은 것 같은 정치적 사건을 경계하라는 뜻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식(蘇軾)이 지은 「적벽부(赤壁賦)」의 부(賦) : 운문과 산문의 종합체로서, 문사文詞와 대우對偶 및 용운用韻을 중시하며 읊은 글임)는 「전적벽부(前赤壁賦)」와 「후적벽부(後赤壁賦)」의 두 작품으로 되어 있다.

*전적벽부(前赤壁賦) : 원풍 5년(元豐五年 : 임술년壬戌年 : 1082 : 소식 47세) 7월 중순에 적벽에서 뱃놀이를 하며 읊은 것이다. 당시 소식은 오대시안(烏臺詩案)으로 인하여 황주(黃州)로 좌천되어 갔던 때였다.

*후적벽부(後赤壁賦) : 그 해 10월 중순에, 재차 적벽 아래에서 선유를 하였다. 그때는 설당(雪堂 :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황주시黃州市 동부, 당시 이곳에 소식이 동파정東坡亭을 지었음)에서 임고정(臨臯亭 : 지금의 호북성 황주시 남부 장강長江 기슭, 소식이 당시에 거처하던 곳임)으로 돌아오며 황니(黃泥 :

누런 진흙) 고갯길을 넘어오는데, 두 사람의 객(客)이 함께 하여, 적벽산
위를 유람하고 다시 적벽산 아래를 선유하며 읊은 것이다.

- ㉔ **적벽(赤壁)**: 고지명(古地名)으로도 썼고, 산명(山名)으로도 쓰는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소식이 유람을 갔던 곳과 조조(曹操: 155~220)의 군대가
대패했던 곳과는 그 지역이 다르다.

○ **고지명(古地名)**: 고지명으로, 적벽(赤壁)·적벽기(赤壁磯)·적비기(赤鼻
磯)라고도 칭한다.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황주시(黃州市) 서북쪽의 장
강(長江) 기슭에 위치하는데, 산형(山形)이 마치 칼로 내리쳐 잘라놓은
벽과 같이 생겼는데다 그 색깔이 적색이라서 ‘적벽’이라 불렀다. 본 시에
서는 이곳의 뜻으로 쓰였다.

○ **산명(山名)**: 산명으로, 한헌제(漢獻帝: 181~234) 건안 13년(建安十三
年: 208) 손권(孫權: 182~252)과 유비(劉備: 161~223)의 연합군이
조조(曹操: 155~220)의 군대를 대파한 곳이다. 지금의 호북성 무창현
(武昌縣) 서쪽 적기산(赤磯山)으로, 한양현(漢陽縣) 남쪽 사모산(紗帽
山)과는 장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또한 일설에 의하면, 이 ‘적벽’을 호북성 포은현(蒲圻縣) 서쪽에 위치한
적벽산을 말하기도 한다.

- ④ **가군(家君)**: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칭. 아버님, 엄군(嚴君), 엄부(嚴父), 가친(家親)

- 2) ① **장음(長吟)**: 긴소리 내어 읊다, 소리를 길게 끌며 읊다

- ② **감(感)**: 그리워하다. 생각하다. 사념(思念)하다

- ③ **전현(前賢)**: 전대(前代: 자나간 시대·이전의 왕조·전세前世)의 현인(名
人). 본 시에서는 동파를 칭한 것임.

- 3) ① **난장(蘭槳)**: 난목(蘭木)으로 만든 작은 노[槳]

a. **난(蘭)**: 백목란(白木蘭): 목란과의 낙엽교목으로, 일종의 향목(香木)이다.
목련(木蓮)과 동일하며, 이 꽃의 향은 난(蘭)이나 두약(杜若)과 유사하여, 목
란(木蘭), 두란(杜蘭), 혹은 임난(林蘭)이라고도 칭한다. 고대문학작품에는 난
계(蘭桂)로 병칭하여, 군자(君子)와 충신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목란의 물성(物性) 자체가 아무리 겹질을 제거해도 죽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
니고 있어, ‘불변(不變)’의 심리를 상징하는 애정시에도 많이 보인다. 그러므
로 이는 군자와 충신 내지는 규녀(閨女)의 시에 난주(蘭舟) 혹은 난장(蘭槳)
으로 등장하여 객체(客體)에 대한 불변성을 상징한다. (潘富俊의 『楚辭植物
圖鑒』) (중국: 海書店出版社, 2003.) 본 시에서는 동파에 대한 그리움을
함축하고 있다. 뒤의 「시83」의 주석 8)의 ③ ‘목란주(木蘭舟)’ 향목을 참조
바람)

b. **장(槳)**: 물을 헤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로서, 큰 것을 ‘노(櫓)’라 하고 작
은 것을 ‘장(槳)’이라 한다. ‘노’는 ‘삿대[삿대]’와 구별해야 한다. 삿대에는
배질을 할 때 쓰는 긴 막대로서, 배를 댈 때나 띄울 때, 또는 물이 얇은 곳에
서 배를 밀어나갈 때 쓴다.

- ② **계도(桂棹)**: 계도(桂櫂): 계수나무로 만든 큰 노[櫓]

- ③ **선유원(仙遊遠)**: 선경(仙境)을 유람한지 오래되다

- 4) **완연(宛然)**: 눈에 보이는 것처럼 뚜렷하다

- 5) ① 월백풍청(月白風淸): ‘달’과 ‘바람’의 본체는 ‘밝음[白]’과 ‘시원함[淸]’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 ② 공만고(空萬古): 만고(萬古)에 걸쳐 어떠한 변화도 없다. 즉 ‘달[月]’과 ‘바람[風]’의 실체(實體)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다는 뜻이다.
- 6) 명류인거(名留人去): 이름을 남기면서 사람은 죽는다. 본 시에서는 현상세계를 살다 간 동파(東坡) 소식(蘇軾)에 빗대어 화자의 사물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 7) ① 편황(偏荒): 외지고 황량하다. 본 시에서는 그러한 곳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② 계옹(雞甕): ‘옹계(甕雞)’가 도치된 말로서, ‘옹리혜계(甕裏醢雞)’의 뜻으로 쓰였으며, 물항아리나 술단지 속에서 생기는 우충(羽蟲: 날개가 달린 작은 곤충), 즉 초·간장·된장·술 따위에 잘 덤벼드는 ‘파리’, 곧 ‘초파리’를 가리킨다. 혜계(醢雞)와 같은 말이다.
- a. 계(雞): 13경(十三經)의 하나로 가장 오래된 자서(字書)인 『이아(爾雅)·석충편(釋蟲篇)』에서, “계(雞)는 ‘한(翰)’의 뜻으로 ‘천계(天雞: 배짱이)’란 뜻이다(翰, 天雞).”고 하였다. 동진(東晉)의 학자 곽박(郭璞: 276~324)이 주(註)를 달기를, (‘한翰’)은 “작은 곤충인데, 몸통은 흑색이고 머리는 적색이며, 일명 사계(莎雞)라고도 하고, 저계(樗雞)라고도 한다(小蟲, 黑身赤頭, 一名莎雞, 又曰樗雞).”고 하였다.
- b. 옹(甕): 물 항아리
- c. 옹리혜계(甕裏醢雞): ‘술독 속에 있는 초파리’라는 뜻으로, 후세에 건식이 얇은 사람, 곧 식견이 좁고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비유한 말로 썼다. 『장자(莊子)·전지방편(田子方篇)』에, “공자는 물러나와, 안희에게 이르기를(孔子出, 以告顏回曰: ‘나 공구의 대도에 대한 이해는, 마치 항아리 속의 초파리와 같았구나(丘之於道也, 其猶醢雞與)! 노자선생께서 나의 몽매함을 깨우쳐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전히 천지의 진부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微夫子之發吾覆也, 吾不知天地之大全也).’”고 한 대목이 있다.
- 이 문장에 대해서, 서진(西晉)의 사상가 곽상(郭象: 252?~312)은 『장자주(莊子注)』에서 이르기를, “혜계醢雞란 것은 항아리 속의 멸망(蠅蠸<진디 등>에 속하는 곤충)이다(醢雞者 甕中之蠅蠸).”고 주석 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옹리혜계(甕裏醢雞)’란 말을 건식이 천박하고 비루한 사람을 비유한 뜻으로 썼다. 본 시에서는 서애(西厓) 자신의 겸칭으로 썼다.
- 8) ① 재(載): 싣다. 본 시에서는 ‘(달빛을) 받다’는 것을 표현한 뜻으로 쓰였다.
- ② 한광(寒光): 청량한 달빛
- ③ 갱(更): 또다시, 또
- ④ 구현(扣舷): 뱃전을 두드리다. 시가를 읊을 때 박자를 맞추는 말로 많이 쓰는 말이다.
- a. 구(扣): 두드리다
- b. 현(舷): 뱃진. 소동파(蘇東坡)의 「전적벽부(前赤壁賦)」에, “이에 술을 마시며 몹시 즐거워, 뱃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네(於是飲酒樂甚, 扣舷而歌之).”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시2. 세상 운수運數를 열어 창업한 황제의 궁궐인데

詩2. 啓運宮¹⁾
계 운 궁



大宋開鴻業²⁾,
대 송 개 홍 업

대국大國 송나라는 제업帝業을 창건한 이후,

相傳累葉隆³⁾.
상 전 누 업 융

대대로 전수하며 누대에 걸쳐 융성했네.

配天靈緒遠⁴⁾,
배 천 영 서 원

천제天帝와 선조 제사 함께 지내니
성명聖明한 마음 심원하고,

尊祖孝思豐。
존 조 효 사 풍

조상을 존중하니 효사상도 풍부해졌네.

一日金甌缺⁵⁾,
일 일 금 구 결

(하지만) 어느 날 국토가 보전되지 못하면서,

千齡寶運窮⁶⁾.
천 령 보 운 궁

천년의 국운이 쇠퇴해지고 말았네.

中原委羯虜⁷⁾,
중 원 위 갈 로

증원中原에서 갈족羯族 같은
오랑캐에게 굴종하면서,

故國滿腥風⁸⁾.
고 국 만腥 풍

한족漢族의 왕조는
피비린내 가득히 풍겼네.

避地移宗祏⁹⁾,
피 지 이 종 석

蒙塵出漢宮¹⁰⁾。
몽 진 출 한 궁

勢危閩海外¹¹⁾,
세 위 민 해 외

儀備草萊中¹²⁾。
의 비 초 래 중

北望雙巒迥¹³⁾,
북 망 쌍 난 형

南遷七廟¹⁴⁾同。
남 천 칠 묘 동

衣冠虛寢殿¹⁵⁾,
의 관 허 침 전

霜露感宸衷¹⁶⁾。
상 로 감 신 충

野寺來權駐¹⁷⁾,
야 사 래 권 주

藍輿遠僅通¹⁸⁾。
남 여 원 근 통

月遊多曠禮¹⁹⁾,
월 유 다 광례

時食薦非躬²⁰⁾。
시 식 권 비 궁

피난지로 황실 사당인 종묘를 옮겨가고,

황제는 몽진蒙塵하느라 궁전을 떠났네.

권세 위태하긴 먼 변방의
민왕조閩王朝도 동일하나,

법도 갖춰진 이는 평민 중에도 있었네.

북쪽을 바라보니 한 쌍의 어가御駕
아득히 멀어져 가는데,

남쪽으로 칠세七世의 신위神位도
함께 모셔가네.

의관마저 치워져서 침전寢殿이
텅 빈 터라,

서리와 이슬 맞은 듯한 오싹한 심정을
제왕은 느끼네.

인적 드문 교외 묘우廟宇에 와서
잠시 머무는데,

덧개 없는 가마 타고 멀지만
근근이 통행하네.

달마다 능침에서 종묘까지
의관 모심에 결례缺禮가 많고,

제철에 나는 제물祭物 진설陳設도
몸소 하는 것이 아닐세.

香苑²¹⁾淒涼甚,
향원 처량 심

兵戈在處訐²²⁾。
병과 재 처 홍

寓名愁越在²³⁾,
우명 수 월 재

昭事怨時恫²⁴⁾。
소사원시통

松柏喬陵暗²⁵⁾,
송백교릉암

風塵節序忽²⁶⁾。
풍진절서홍

神人含大辱²⁷⁾,
신인함대욕

志士奮孤忠²⁸⁾。
지사분고충

未卜亡胡歲²⁹⁾,
미복망호세

難收擊楫功³⁰⁾。
난수격楫공

宴安元速禍³¹⁾,
연안원속화

衰替更和戎³²⁾。
쇠체갱화용

廟算歸虛謬³³⁾,
묘산귀허류

꽃 피던 원림園林은 처량하기 그지없고,

군대는 도처에서 궤멸하고 말았네.

(황제 체면 손상될까) 차명借名하니 수심은
한층 짙게 남아있어,

제사 지내면서 한탄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네.

송백松柏은 선대제왕들의
능침 주변에서 유심幽深한데,

세상의 절기순서節氣順序는 총망하게 바뀌네.

비범한 사람은 큰 치욕도 받아들이고,

지사志士는 혼자래도 충절을 발양하네.

오랑캐 패망시킬 시기 알 수는 없지만,

삿대로 강물 치며 (국토수복) 맹세한
효과는 거두기 어렵네.

놀이만 즐기면 원래 화를 자초하게 되며,

(국력이) 쇠퇴하면 한층 더 오랑캐와
강화講和하러 한다네.

조정에서 의결한 전략이
결국 오류로 드러나도,

姦臣自蔽聰³⁴⁾
간 신 자 폐聰

간신은 자기가 행한 일을 숨기며
총명하다 하네.

建康猶屬楚³⁵⁾
건 강 유 속 초

건강성建康城은 여전히 초국楚國 땅에
연접해 있건만,

江漢故流東³⁶⁾
강 한 고 류 동

장강長江과 한수漢水는
본래부터 동류東流 한다네.

落日精靈在³⁷⁾
낙 일 정 령 재

지는 해에도 만물 생성하는
근원적 기운 서려있거늘,

秋山佛宇空³⁸⁾
추 산 불 우 공

가을철 산중의 불사佛寺는
인적 없이 텅 비었네.

向來青史淚³⁹⁾
향 래 청 사 루

지금까지 사서史書 읽고
눈물이 맺히는데,

寂寞灑江楓⁴⁰⁾
적 막 쇠 강 풍

적막한 중에 강상江上에는
단풍잎이 흩날리네.

-
- 1) 계운궁(啓運宮) : 세상의 운수를 열어 건국한 황제의 궁궐

**역주주석 : 본 시는 고체시(古體詩)로써 중국 북송의 궁궐을 읊었다. 여기서의
‘계운궁’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 ① 계운(啓運) :

☆황제가 세상의 운수(運數)를 열어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남송의 학자
주휘(周輝 : 1126~1198)는 그의 『청파별지(淸波別志)』 권상(卷上)에서,
“예조藝祖〈역대 태조의 통칭〉는 세상의 운수[世運]를 열어서 창업을 하여, 하
늘과 백성의 뜻에 순응順應하였다(藝祖啟運創業, 應天順人).”라는 대목이
있다. 본 시에서는 황제가 세상의 운수(運數)를 열어 건국(建國)하는 것을
이르는 뜻으로 쓰였다.

- ② 궁(宮) : 궁궐, 궁전

- 2) 홍업(鴻業) : 대업(大業 : 위대한 사업). 왕업(王業), 곧 제업(帝業 :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
는 큰 사업)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는 말이다.

- ① 홍(鴻) : ‘대(大)’, 곧 ‘크다, 위대하다’는 뜻이다.

- 3) ① 상전(相傳): 대대로 이어져 전하다, 서로 전하다, 대대로(차례차례) 서로 전수(傳授)하다.
- ② 누엽(累葉): 누세(累世)와 같은 말
- a. 엽(葉): ‘세(世: 가계나 지위의 차례. 본 시에서는 왕조의 임금 순위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였음), 대(代: 세대, 한 집안에서 이어 내려오는 혈통과 계보)’의 뜻으로 쓰였다.
- 4) ① 배천(配天): 고대 제왕이 천제(天祭)를 지낼 때 그의 조상을 같이 제사지내다 (古帝王祭時以先祖配祭).
- ② 영서(靈緒): 정서(情緒), 정신
- a. 영(靈): 정신, 감정, 영혼, 정기(精氣)
- b. 서(緒): 마음, 끊임없는 심사(心思·감정·영혼·생각·정서)
- ③ 원(遠): 심원하다
- 5) ① 일일(一日): 어느 날
- ② 금구결(金甌缺): 국토가 보전되지 못하거나 나라가 외모(外侮: 외국으로부터 받는 모욕)를 당함을 이르는 말
- a. 금구(金甌): 강토(疆土)가 완고함을 비유한 말. 국토를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 b. 결(缺): 파손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보전되지 못함’을 가리킨다.
- 6) ① 천령(千齡): 천년, 천세(千歲). 시간(세월)이 장구함을 극단적으로 형용한 말이다.
- ② 보운(寶運): 국운(國運), 황업(皇業: 대업大業, 황제의 사업)
- ③ 궁(窮): 곤궁하다. 본 시에서는 ‘쇠퇴해지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7) ① 중원(中原):
- ☆지역 명칭으로, 광의(廣義)로는 황하유역 전체를 가리키고, 협의로는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일대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범칭(泛稱) 중국을 가리킨다. 전(轉)하여, ‘한족(漢族)이 세운 왕조가 위치한 국토’를 가리킨다.
- ② 위(委): 순종하다, 허리를 굽하다. 본 시에서는 ‘굴종(屈從)’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갈로(羯虜): 갈족(羯族) 오랑캐. 광의로 해석하면, 흉노족(匈奴族)·선비족(鮮卑族)·강족(羌族) 등을 포괄하는 호족(胡族: 오랑캐 족)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역주주석:** 동한(東漢: 25~220)에서 남북조 시대(南北朝時代: 5세기 초엽~6세기 말엽)에 이르기까지 16국 중 13개 나라가 이민족인 5호(五胡: 서북방으로부터 중국 본토에 이주한 5개 민족으로, 흉노匈奴·갈궤·선비鮮卑·저氐·강궤를 이룸)가 건국한 왕조이다. 예를 들면, 304년에 흉노족 출신 유연(劉淵: ?~310)은 전조(前趙)를 세웠고, 319년에 갈족 출신 석륵(石勒: 274~333)은 후조(後趙)를 세웠고, 337년에 선비족 출신 모용위(慕容暉: 350~370)는 전연(前燕)을 세웠고, 384년에 선비족 출신 부견(苻健: 317~355)은 전진(前秦)을 세웠고, 384년에 강족 출신 요장(姚萇: 330?~393)은 후진(後秦)을 세웠고, 385년에 선비족 결복국인(乞伏國)은 서진(西秦)을 세웠으며, 398년에 선비족 모용덕(慕容德: 336~405)은 남연(南燕)을 세웠다. 이 밖에도 407년에 선비족 혁련발발(赫連勃勃: 381~425)은 대하(大夏)를 세웠고, 302년에 저족(氐族) 이특(李特: ?~303)은 성한(成漢)

을 세웠고, 386년에 저족 여광(呂光: 338~399)은 후량(後凉)을 세웠고, 397년에 흉노족 저거몽손(沮渠蒙遜: 368~433)은 북량(北凉)을 세웠으며, 397년에 선비족 독발오고(秃髮烏孤: ?~399)는 남량(南凉)을 세웠다.

남북조시대 이후에도 916년에는 거란족(契丹族)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916~926)가 요(遼)를 건국했고, 1115년에는 여진족(女真族) 아골타(阿骨打: 1068~1123)는 금(金)을 건국했으며, 1271년에 몽고족과 쿠빌라이(忽必烈: 1215~1294)는 원(元)을 건국했다.

이 과정에서 동진(東晉)이 망한 이후에 남북조(南北朝)를 거치며 한족(漢族)이 건립한 왕조가 흥망을 거듭했으나, 수(隋)·당(唐)을 거쳐, 오대(五代: 당唐이 망한 뒤 송宋이 건국되기 이전까지의 과도기에 중원에 흥망한 5개 왕조로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를 이름)을 지나 송(宋)이 흥망했다.

- a. 갈(羯): 갈족: 고대 중국의 이민족 중의 하나로, 흉노족에 소속된 민족이다. 위진시대(魏晉時代: 220~419)에는 상당군(上黨郡),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노성현(潞城縣) 부근의 각 현에 흩어져 살았다. 동진시대(東晉時代: 317~420)에는 갈족(羯族)의 지도자 석륵(274~333)이 황하강 유역에서 후조(後趙)를 건립하였으니, 이 왕조가 16국 중의 하나이다.
- b. 로(虜): 오랑캐. 고대 중국 한족(漢族)이 북방 이민족이나 남방이민족에 대해서 부르던 멸칭(蔑稱)이다.

8) ① 고국(故國):

☆이미 멸망한 국가, 전대(前代)의 왕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동진(東晉)을 가리킨다. 전(轉)하여, '한족(漢族)이 건립한 왕조'라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본국, 조국

- ② 성풍(腥風): 피비린내 나는 바람. 흉악하고 잔인한 기분을 비유한 말이다.

- a. 성(腥): (피·고기·생선 등의) 비린내가 나다

9) ① 피지(避地): 피난지(避難地): 재난을 피하여 옮겨간 지역

- ② 종석(宗祏): 종묘(宗廟)에 신주를 모셔두는 석실(石室: 돌로 된 장롱). 즉 신주함(神主函)을 뜻한다. 전(轉)하여, 종묘[황실사당]나 사당(祠堂: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종묘'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a. 석(祏):

○돌로 만든 신주를 모셔 두는 장롱[櫨]. 석제(石製), 감실(龕室)

○조정(朝廷) 또는 국가

10) ① 몽진(蒙塵):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쓴다는 뜻으로, 나라에 난리가 있어 임금도 성(都城) 밖으로 도주(逃走)함을 말한다.

- ② 한궁(漢宮): 한나라 왕조의 궁전. 전(轉)하여 기타 왕조의 궁전을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북송의 수도가 있는 개봉(開封: 현재 하남성河南省 개봉시開封市)의 황궁을 가리킨다.

11) ① 세위(勢危): 권세의 위태함

- ② 민(閔):

☆오대십국(五代十國: 당唐이 멸망한 뒤부터 송宋이 통일할 때까지 흥망한 왕조, 또는 그 시대를 이르는 말로서, 중원中原을 중심으로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

後漢·후주後周의 다섯 왕조와 중원 이외 지방의 전촉前蜀·오촉·남한南漢·형남荊南·오월吳越·조북·민국·남당南唐·후촉後蜀·북한北漢의 10개국을 이룸) 중의 하나이다. 당 말엽인 893년에 광주(光州) 고시현(固始縣,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고시현 동북방 사람인 왕조(王潮 : ?~898)가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땅에 거주하면서 복건관찰사(福建觀察使)를 역임하다가, 위무군절도사(威武軍節度使)로 승진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그의 동생 왕심지(王審知 : 862~925)가 909년에 후량(後梁)의 민왕(閩王)에 봉해졌다. 933년 왕심지의 아들 왕연균(王延鈞 : ?~935)이 칭제(稱帝)하면서 장락현(長樂縣 : 지금의 복건성 복주현福州縣)에 도읍을 정하면서 국호를 민(閩)이라 하였다. 이 왕조는 6주(六主) 37년 만에 남당(南唐)에게 멸망되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중국의 고대 종족 명칭으로,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남부와 복건성(福建省) 일대에 거주했었다. 그러한 까닭에 후세에 복건성의 별칭을 '민(閩)'이라고 칭한 것이다.

- ③ 해외(海外) : 사해(四海)의 밖. 일반적으로 변경지역, 곧 아주 먼 국경지역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도 이 뜻으로 쓰였다. 지금은 외국, 국외(國外)의 뜻으로 쓴다.
- 12) ① 의비(儀備) : 법규의 대비. 본 시에서는 법도가 갖추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a. 의(儀) : 법규, 준칙, 표준, 의식, 예절
b. 비(備) : 대비, 준비

- ② 초래(草萊) : 포의(布衣), 평민의 뜻으로 쓰였다.

- 13) 쌍난형(雙鸞迥) : 한 쌍의 어가(御駕)가 아득히 멀어져 가다

- a. 쌍난(雙鸞) : 두 대의(한 쌍의) 어가(御駕)
④ 쌍(雙) : 양사(量詞)로 쓰여 짝(쌍)을 이루는데 쓰인 자이다.
⑤ 란(鸞) :

○ 방울. 멩에(마소의 목에 얹는 가로나무)나 거형(車衡 : 마차의 채 끝에 댄 횡목橫木)에 장식하는 방울이다. 수레의 자붕이나 천정에는 원반형(圓盤形)의 방울을 달아놓고 아래쪽은 얹는 자리이다. 방울 안에는 환(丸 : 둥글고 단단하게 만든 알)이 들어있어서 마차가 가면 흔들리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난조(鸞鳥)의 소리와 흡사하다.

○ 황제가 타는 수레. 난가(鸞駕 : 천자가 타는 마차), 난여(鸞輿). 천자가 타는 수레에는 난령(鸞鈴)이 달려 있어서 이르는 말이다.

- b. 형(迥) : 형(迥)으로도 쓴다. 형(迥)은 형(迥)의 속자(俗字)이다.
○ 요원하다, 아득히 멀다

- 14) 칠묘(七廟) : 칠묘제(七廟制) :

☆7세의 황제 조상을 모시는 종묘(宗廟), 곧 천자(天子)의 종묘와 삼소(三昭)·삼목(三穆)의 총칭이다. 『묘(廟)는 조상의 신위(神位)를 모시는 사당의 뜻이다. 『예기(禮記)·왕제편(王制篇)』에, “(선조先祖를 제사 지냄에 있어) 천자는 사당에 7대7代の 신주神主를 모시나니(天子七廟), 3소(三昭 : 시조 신주의 왼쪽에 모시는 것을 ‘소昭’라 하며,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자리의 왼쪽에 모시는 2세2世·4세4世·6세6世의 신주를 ‘3소’라고 함) 3목(三穆 : 시조 신주의 오른쪽에 모시는 것을 ‘목穆’이라 하며, 오른쪽에 모신 3세3世·5세5世·7세7世의 신주를 ‘삼목三穆’이라 함)(三昭三穆)과, 태

조의 신주를 합하여 모두 7묘七廟이다(與太祖之廟而七).”고 한 대목이 있다. (조상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는 차례에 있어서, 시조始祖의 신주 위치는 북쪽의 중앙에 남향하여 모심)

이 말은 황제 자신으로부터 가까운 4대에 걸친 조상, 즉 부(父)·조(祖)·증조(曾祖)·고조(高祖)와 2조(二祧: 2대二代에 걸친 먼 조상) 및 시조를 신주로 모신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칠묘’는 일반적으로 제왕이 조상을 봉공(奉供)하는 ‘종묘’를 가리키는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왕조(王朝)의 대칭(代稱)으로 쓰는 말이다.

- 15) ① 의관(衣冠): 의복과 갓. 옛날의 선비는 늘 관(冠)을 쓰고 다니는 까닭에 선비 이상 신분의 복장(옷차림)을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② 침전(寢殿): 제왕의 침궁(寢宮), 침실

- 16) ① 상로(霜露): 상로감(霜露感): 상로지감(霜露之感): 상로비(霜露悲): 상로지사(霜露之思): 이는 모두 추운 계절이 돌아오자, 아버지의 무덤에 서리와 이슬이 내릴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선친과 선조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말한 것이다. 『예기(禮記)·제의편(祭義篇)』에, “서리나 이슬이 내린 뒤에, 군자가 그것을 밟으면, 반드시 오작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는 결코 날씨가 추워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霜露既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고 한 대목이 있다. 위의 문구에 관하여, 후한(後漢)의 경학가(經學家) 정현(鄭玄: 127~200)이 주석(注釋)에서 이르기를, “그 심정은 날씨가 한랭한 것을 이른 것이 아니다(非其寒之謂)고 한 이 말은, 〈여윈 아버지께 대하여〉 애통해하고 경외(敬畏)하는 마음이감을 이른 말이니(謂悽愴及忱惕), 모두 계절이 바뀔수록 느끼면서 선친을 그리워하는 것이다(皆爲感時念親也).”고 하였다. 후세사람들은 위의 ‘상로지감(霜露之感)’이나 ‘상로지사(霜露之思)’ 등의 말을, ‘부모나 조상에 대한 그리움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본 시에서는 권세를 잃은 제왕의 마음을 위의 용사(用事)에 빗대고 있다.

② 감신충(感宸衷): 제왕의 심정을 느끼다

a. 감(感):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서 …를 느끼다

b. 신충(宸衷): 제왕의 심의(心意: 생각·의사意思·의향·심정·마음·심중). 임금의 마음이나 고충

④ 신(宸): 북극성이 머무는 곳, 즉 자미원(紫微垣)으로, 곧 북두성 북쪽에 있는 성좌(星座)란 뜻인데, 천자가 머무는 곳이란 의미에서 전(轉)하여 제왕위(帝王位)나 제왕 또는 대궐을 대칭(代稱)하는 말로 쓴다.

⑤ 충(衷): 마음, 생각, 심중

- 17) ① 야사(野寺): 야외(野外: 인적이 드문 곳, 교외)의 묘우(廟宇: 신위神位를 모신 집, 절, 사찰寺刹, 사당, 묘당廟堂, 종묘宗廟). 본 시에서는 사당(祠堂)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사람들은 또한 이 ‘사(寺)’를 사당(祠堂)이나 종교 교도들이 예배하는 장소 또는 경전을 강의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썼다.

② 권주(權駐): 잠시 머무르다

a. 권(權): 부사로, ‘잠시’의 뜻으로 쓰였다.

b. 주(駐): 머무르다

- 18) ① 남여(藍輿): 포장이나 덮개가 없는 남색의 (대나무로 만든) 가마. 죽교(竹輜: 죽어

竹輿: 죽두竹兜)라고도 하며, 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것의 밑에 두 개의 약간 긴 채를 꿰어 붙인 포장이나 덮개가 없는 죽제(竹製)가마이다.

- ② 근통(僅通): 근근이 통행하다
- ③ 원근통(遠僅通): 멀지만 근근이 통행하다.

- 19) ① 월유(月遊): 월유(月游)로도 쓰며, ‘매월 사자(死者)의 의관을 받들고 외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중국 한왕조(漢王祖)의 예제(禮制)로, 매월 초에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 BC 247 ~ BC 195)의 능침궁전(陵寢宮殿: 능陵)에서 그의 의관을 꺼내 받들고 외출하여 한고조의 사묘(祠廟)까지 가서 제사지내는 것을 기념으로 삼은 것에서 비롯한다. 이 말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사기(史記)·유경(劉敬)·숙손통전(叔孫通傳)』에,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건축해 놓은 복도複道〈각도閣道라고도 하며 누각 사이에 가공架空한 통도通道임. 본 예문에서는 능陵과 사당 사이에 가공한 복도를 가리킴〉를 통해서, 고조능침〈高祖陵寢: 한고조 유방의 신위를 모신 사당〉까지 매월 외출하여 거닐으십니까(陛下何自築複道, 高寢衣冠月出游高廟)?”라고 한 대목이 있다.

위 문장에 대해서 남조(南朝) 송나라 사학자 배인(裴駰: 생몰년 미상)은 『사기집해(史記集解)』에서 후한(後漢)의 학자 응소(應劭: 생몰년 미상)가 『한서집해(漢書集解)』에서 한 말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매월 한고조의 의관을 꺼내는 것은, 법가(法駕: 천자가 예식을 거행할 때 타는 어가御駕로서 금근거륜車라고도 하며 여섯 필의 말이 끌)에 받들어 실을 준비를 하는 것이니, 이름하여 유의관(遊衣冠: 한대漢代의 제도에, 매월 초하룻날에 한고조의 의관을 능묘陵墓의 궁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한고조의 종묘까지 옮겨가는 것을 이름)이라고 한다(月出高帝衣冠, 備法駕, 名曰遊衣冠).”고 하였다.

- ② 광례(曠禮): 실례(失禮). 언행이 예의에서 벗어나거나, 예절에 맞지 아니함, 곧 실례(失禮), 결례(缺禮), 무례(無禮)를 말한다.

a. 광(曠): 헛되다, 쓸데없다, 결핍되다, 부족하다

- 20) ① 시식(時食): 계절이 바뀌면서 그 철에 나는 음식, 또는 그 시절에 알맞은 음식
- ② 천비궁(薦非躬): (제물을) 품소 진설하는 것은 아니다. (음식물을) 품소 진상(進上)하는 것은 아니다.

a. 천(薦): 제사지낼 때 희생물을 바치다(제물을 진설하다), 진상하다, (물건을) 드러나다

b. 궁(躬): 품소(친히) 하다

- 21) 향원(香苑): 꽃피는 원림(園林)

① 향(香): ‘향기롭다’는 뜻인데, 전(轉)하여, ‘꽃’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원(苑): 옛날에는 울타리를 치고 금수(禽獸)를 기르고 수목(樹木)을 심던 동산을 가리켰는데, 제왕이나 귀족의 원림(園林)을 가리키는 뜻으로 많이 쓰였다.

- 22) ① 병과(兵戈):

☆칼과 창이란 뜻으로 병기(兵器)를 가리킨다.

☆전쟁

☆군대

② 재처흥(在處訐): 도처에서 꾀멸하다

- a. 재처(在處): 도처에, 곳곳에, 이르는 곳마다
b. 흥(訢):
○ 궤패(潰敗): 전쟁에 패하여 진형陣形이 무너짐하다. 실패하여 성공하지 못하다
- 23) ① 우명(寓名): 탁명(託名: 남의 이름을 사칭함), 차명(借名: 남의 이름을 빌려 씀). 본 시에서는 국난이 연속되고 군대가 궤멸한 상황에서 황제체면이 손상될까 싶어 차명(借名)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수월재(愁越在): 수심은 한층 더 깊게 남아있다.
- 24) ① 소사(昭事): 제사 지내다
- a. 소(昭): 종묘에 차례차례 모신 신주를 가리킨다. 즉 종묘에 신주를 모시는 배열(排列)의 차례이다. 분묘(墳墓)의 장지(葬地) 위치의 좌우 차례도 이와 같다. 태조를 중앙에 모시고, 이하 부자(父子)를 차례로 소목(昭穆)을 정하는데, 부(父)를 소(昭)라 하고 자(子)를 목(穆)이라 한다. 즉 2세(世)·4세(世)·6세(世)는 소(昭)라 하여 왼편에, 3세·5세·7세는 목(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신다. 이리하여, 천자는 삼소(三昭)·삼목(三穆)의 칠묘(七廟)가 되고, 제후는 2소·2목의 5묘가 되며, 대부(大夫)는 1소·1목의 3묘가 된다.
- b. 사(事): 섬기다, 모시다
○ 종묘에 모신 신주를 모신다는 의미에서, ‘제사(祭祀)’를 가리킨다.
○ 근면하게 종사(근무, 복무)하다. ‘소(昭: 근면함)’는 ‘소(邵: 근면함)’와 통한다. 일설에는 이 ‘소사(昭事)’란 말을 광명정대하게 종사한다는 뜻으로 쓴다고도 한다.
- ② 원시통(怨時恫): 시원시통(時怨時恫)의 약어. ‘때로는 한탄하고 때로는 두려워한다’는 뜻이다.
- a. 원(怨): 한탄하다, 슬퍼하다
b. 통(恫): 상심하다. 두려워하다
- 25) ① 송백(松柏): 송백(松柏)으로도 쓴다. 소나무와 잣나무를 이른다. 이 두 종류의 나무는 상록수(常綠樹)이므로 지조가 굳은 것을 상징하는 말로 쓴다.
- ② 교릉(喬陵): 선대제왕들의 능침(陵寢)을 말한다.
- a. 교(喬): 높이 솟다
b. 릉(陵): 능, 무덤. 큰 언덕. 본 시에서는 ‘능(陵)’을 말한다.
- ③ 암(暗): 색채가 유심(幽深)하다. 색이 짙고 그윽하다.
- 26) ① 풍진(風塵): 진세(塵世): 티끌세상: 속세: 이 세상: 혼란스러운 현실생활의 경계(境界).
- ② 절서총(節序忽): 절기(節氣) 순서의 바뀜이 총망하다. 이 말은 계절이 바뀌는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면서, 세월의 흐름이 빠른 것을 표현한 말이다.
- a. 절서(節序): 절기(節氣: 한 해를 24개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 절령(節令: 모쪼록 절기의 기후와 물후(物候: 철·기후에 따라 변화하는 만물의 상태))의 순서. 본 시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총(忽): 바쁘다, 총망하다, 분망하다
- 27) ① 신인(神人): 신기하고 비범한 사람
- ② 함(含): 받아들이다, 포용하다, 용납하다, 인수(忍受: 참고 받아들임)하다, 관용하다
- ③ 대육(大辱): 큰 치욕

- 28) ① 지사(志士) : 절의(節義)가 있는 선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을 바치는 사람
 ② 분(奮) : 분발하다, 분기(奮起 : 분발하여 일어남)하다, 발양(發揚 : 마음·기운·재주 따위를 떨쳐 일으킴)하다
 ③ 고충(孤忠) : 충정(忠貞)과 궁지가 있어 남에게 살피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절조(節操 : 절개와 지조). 남에게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외로이 바치는 충성
- 29) ① 미복(未卜) : 짐을 치지 않다. 전(轉)하여 ‘알지 못하다’. ‘예측하기 어렵다(難料)’는 뜻으로도 쓴다.
 ② 망호세(亡胡歲) : 오랑캐를 패망시킬 때(시기)
 a. 망(亡) : 멸망하다, 패망하다, 도망하다
 b. 호(胡) : 고대 중국 북방과 서방에 살던 민족을 칭하던 말로, 한족(漢族) 이외의 이민족에 대한 멸칭(蔑稱)이며, 통칭(通稱) ‘호(胡)’라고 하였으며, ‘오랑캐’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흉노(匈奴), 여진(女眞) 등이 있다.
 c. 세(歲) : 년(年), 해. 본 시에서는 시기, 연도(年度)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30) ① 난수(難收) : 거두기 어렵다
 ② 격즙공(擊楫功) : 노를 잡고 강물을 치며 국토 수복을 맹세하던 효과. 노를 잡고 강물을 치며 하던 맹세
 a. 격즙(擊楫) : 격즙(擊楫)으로도 쓴다. 서진(西晉)의 말염에, 변왕(藩王 : 변방 제후국의 왕)들의 권력 쟁탈로 상호 투쟁하는 사이에 국방이 소홀해진 틈을 타고 융적(戎狄)이 침입하여 중원(中原)의 국토가 상실됐다. 국난이 현실화되면서 경사(京師)가 크게 어지러워지자 조적(祖逖 : 266~321)은 백여 가구의 친당(親黨)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평소애 사직(社稷)을 바로 잡고 실지(失地)를 회복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그는 북벌(北伐)을 강력히 주장했다. 황제[元帝]는 이를 가상히 여겨 그에게 분위장군(奮威將軍)과 예주자사(豫州刺史)라는 직함을 주고, 동시에 1천명분의 구호미와 피륙 3천 필을 지원하면서 북벌을 독려했다. 갑옷과 병장기의 지급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백여 가구의 무리를 이끌고 북벌하기 위해 도강(渡江)을 시작했다. “강 한 가운데 이르러 노를 잡고 강물을 치면서 맹세하기를: ‘조적이 이변에 중원 땅을 회복할 수 없다면 다시 이 강을 건널 것이니, 이 장강(長江 : 양자강揚子江)의 흐름과 같으리라(중단하지 않으리라)’(中流擊楫而誓曰 : ‘祖逖不能清中原而復濟者, 有如大江!’)고 외쳤다.” 그의 말과 기색의 장렬(壯烈)함에 모두들 감탄하였다. 그 후에, 그는 용구(雍丘 : 지금의 하남성河南省杞縣)에 주둔하면서 황하 이남을 모두 진(晉)나라의 영토로 만들었다. (위의 내용은 『진서(晉書) · 조적전(祖逖傳)』에 보임) 위의 고사(故事)로부터 후세에 와서 뜻이 비슷한 3가지 용어가 생겼으니 아래와 같다.
 첫째, 격즙(擊楫) : 이 말의 직역은 ‘노를 들고(강물을) 치다’는 뜻이다. 위의 고사를 가장 농도 짙게 축약(縮約)한 표현으로 보면 되겠다. 실지(失地)를 회복하고 국가를 통일하려는 장지(壯志)를 찬양하는 표준으로 사용할 때 이 말을 쓴다. 본 시에서 서애(西厓)가 이 말을 쓴 것도 왜적을 몰아내고 국권(國權)을 회복하려는 장지(壯志)를 표현한 것이다.
 둘째, 격즙중류(擊楫中流) : 직역하면, ‘강 한가운데서 노를 들고 강물을 치다’는 말인데, 위의 고사에서 보듯이, ‘중원(中原)의 실지(失地)를 회복하지 못하

면, 실지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말이다. 이 말은 실지를 회복하기 위해 나라에 충정을 다하는 장렬한 생각과 기개 넘치는 지절(志節)을 칭송할 때 이 말을 쓴다.

셋째, 격증서(擊楫誓): 직역하면, '노를 들고 (강물을) 치면서, 실지회복을 위한 맹서'라는 말인데, 뜻은 위의 '격증중류'와 같다.

- b. 공(功): 효과, 효력, 성과, 업적. 본 시에서는 '삿대로 강물을 치며 국토수복을 맹세한 효과'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31) ① 연안(宴安): 일락(逸樂: 일없이 편안히 놀기를 즐김. 하는 일 없이 몸은 한가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살며 놀기를 즐김. 쾌락을 즐기며 멋대로 놀)하다. 놀며 즐기다, 안락하게 지내다. 본 시에서는 어떤 개인이 일락(逸樂)하는 삶에 탐닉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a. 연(宴): 안락(安樂)하다, 일락(逸樂)하다, 즐기다. 본 시에서 언급한 '연안(宴安)'이라는 말은 '연안침독(宴安鴆毒)'과 뜻이 같다.

② 원속화(元速禍): 원래 화를 자초하다

- a. 원(元): 본래, 원래
- b. 속화(速禍): 속화(速厄)로도 쓰며, '화를 미치게 하다', '화해(禍害)를 초래하다'는 뜻이다.

32) ① 쇠체(衰替): 쇠체(衰敗: 쇠락하여 퇴폐함, 쇠락하여 망가짐, 쇠락하여 손상됨, 쇠락하여 육됨)하다, 쇠락(衰落)하다. 본 시에서는 국력이 쇠퇴함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갱(更): 더욱, 한층 더

③ 화응(和戎):

- ☆'화친(和親)하다'와 같은 말
- ☆소수민족이나 외국과 강화(講和)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 본 시에서는 북방 오랑캐와 강화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33) ① 묘산(廟筭): 묘산(廟筭)으로도 쓴다. 출병(出兵) 전에 승전(勝戰)을 위하여 조정이나 제왕이 전쟁과 관련된 작전에 대해서 결정한 계책을 말한다. '묘략(廟略)'과 같은 말이며, '조정에서 의결한 전략계획'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

- a. 묘(廟): 묘당(廟堂: 사당祠堂·종묘). 전(轉)하여, 조정 또는 제왕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산(算): 모획(謀劃)하다, 계책을 마련하다

② 귀(歸): 부사로서 '결국, 최후에'의 뜻으로 쓰였다.

③ 허류(虛謬): 허황(虛荒: 헛되고 황당함)하다. 허망한(허황된) 오류

- a. 허(虛): 허위, 거짓
- b. 류(謬): 잘못되다, 틀리다, 사리에 맞지 않다, 황류(荒謬: 황당무계함. 터무니없음)하다

34) ① 자폐(自蔽): 자행(自行)한 일을 엄폐(掩蔽)하다. 자기가 행한 일을 숨기다.

② 총(聰): 총명하다

35) 건강 유축초(建康猶屬楚: 건강성建康城은 여전히 초국楚國 땅에 연결해있건만):

**역지주석: 본 시구의 뜻은 초나라가 긴 역사 속에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건국주(建國主)와 영역의 크기는 달랐지만, 그 위치는 건강성(建康城: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남경시南京市)과 비교적 가까운 지금의 호남성, 호북성, 하남성, 안휘성,

강소성 등 중국 남부에 위치하였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① 건강(建康) : 건강성(建康城) : 원래 이곳의 지명은 건업현(建鄴縣)으로 통치관청은 석두성(石頭城)에 있었으며,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남경시(南京市) 청량산(清涼山)에 위치했다. 서진(西晉) 태강원년(太康元年 : 282)에 건업(建業)을 건업(建鄴)으로 바꾸었는데, 건흥원년(建興元年 : 313)에 민제(愍帝) 사마염(司馬鄴)의 ‘업(鄴)’이란 휘자(諱字 : 돌아가신 어른의 생전 이름자)를 피하여 ‘건업(建鄴)’을 ‘건강(建康)’으로 개칭하였다. 이곳은 동진(東晉)과 남조시대(南朝時代) 왕조의 도성(都城)이 되면서 ‘건강성(建康城)’이라 불렸다. 북송의 사학자이자 문인인 악사(樂史 : 930~1007)는 지리를 기술한 저서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권90에서 『금릉기(金陵記 : 금릉사기金陵史記. ‘금릉’은 지금의 ‘남경시’의 별칭임)』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남조시대 양粱나라 도읍이었을 당시, <이곳 건강은> 성안에 28만여 호의 민가가 있었고, … 면적은 사방 40리였다(梁都之時, 城中二十八萬餘戶, … 東西南北各四十里).”고 하였다.

- ② 유축초(猶屬楚) : 여전히 초국(楚國) 땅에 연결해 있다.

- a. 유(猶) : 부사로 쓰여, ‘여전히’, ‘아직도’의 뜻이다.
- b. 축(屬) : 연결(聯接 : 서로 잇닿아 있음)하다
- c. 초(楚) : 국명이며, 초(楚)나라를 칭한다.

○ 초나라 시조의 성씨는 미(芈)씨이고, 이름은 육웅(鬻熊)이다. 서주(西周)시대에 형산(荊山) 일대에서 건국했으나,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지쿠현(秭歸縣) 동남부였다. 주(周)나라 사람들은 초나라를 형만(荊蠻)으로 불렀으며, 후에 도읍을 영(郢)땅에 정했으나 지금의 호북성 강릉현(江陵縣) 서북기왕성(紀王城)이다.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는 국력이 강성해져 강역(疆域)이 호북(湖北) · 호남성(湖南省)에서 하남(河南) · 안휘(安徽) · 강소(江蘇) · 절강(浙江) · 강서(江西) 및 사천성(四川省)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면서 오패칠웅(五霸七雄) 중의 하나가 되었다. 전국시대(戰國時代) 말엽에 이르러 국력이 점차 쇠약해지면서 누차에 걸쳐 진(秦)나라에 패배하여 진(陳 : 지금의 하남성 회양시淮陽市)으로 천도(遷都)하였다가, 다시 수춘(壽春 : 지금의 안휘성 수현縣壽縣)으로 천도하였다. 그 후 BC 223년에 진(秦)나라에 멸망되었다. (자세한 것은 『사기(史記) · 초세가(楚世家)』편을 참조 바람)

○ 진(秦) · 초(楚) 양국이 대치하고 있을 때는, 진2세 원년(秦二世元年 : BC 209)에서 한 6년(漢六年 : BC 201)까지의 8년간으로, 먼저 진승(陳勝 : ?~208)이 기현(蕲縣)에서 기병(起兵)하여 진현(陳縣 : 지금의 하남성 회양현)에서 장초정권(張楚政權 : 국호를 ‘장초張楚’라고 칭하였음)을 건립하면서 초왕(楚王)을 자칭하였다. 후에 양강(襄彊 : 생몰년 미상), 경구(景駒 : ?~BC 208) 그리고 웅심(熊心 : ?~BC 205) 등도 국호를 초(楚)라고 자칭하였다. 한원년(漢元年 : BC 206)에 항우(項羽 : BC 232~BC 202)가 서초패왕(西楚霸王)이라 칭하면서 하비(下邳 : 지금의 강소성 수녕현睢寧縣 서북)에 도읍을 정했는데, 한 6년(漢六年 : BC 201)에 나라가 제거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문헌통고(文獻通考) · 봉건육(封建六)』을 참조 바람)

○ 오대십국(五代十國) 중의 한 나라로서, 마은(馬殷 : 852~930)이 창건하였

다. 마은은 지금의 호남성을 중심으로 창건하였으며, 후량(後梁)이 초왕(楚王)으로 봉했다. 장사(長沙)에 도읍을 정했으며 강역(疆域)은 지금의 광서성(廣西省) 동부에 까지 이르렀었다. 후에 남당(南唐)에 망했으며, 역대 여섯 군주가 계위(繼位)하여 45년간 존속하였다(907~951). (자세한 내용은 『신오대사(新五代史)·초세가(楚世家)』를 참조 바람)

- 36) ① 강한(江漢): 장강(長江)과 한수(漢水)
 ② 고류동(故流東): 본래 동쪽으로 흐른다

37) 정령(精靈):

☆만물의 본원(근원)을 이룬다는 신령스러운 기운. 만물을 생성하는 근원이 되는 기운. 고대인들은 이 ‘정령지기(精靈之氣)’가 만물의 근원을 이룬다고 생각했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정신’과 같은 말

☆영혼

☆신선(神仙), 도깨비, 요괴

38) 불우공(佛宇空): 불사(佛寺)는 인적 없이 텅 비어 있다.

39) ① 향래(向來): 지금까지, 여태껏, 이제까지, 줄곧, 내내

② 청사(靑史): 사서(史書), 사적(史籍). 종이가 없던 고대에는 푸른 대나무를 쪼개어 엮어서 만든 책인 ‘죽간(竹簡)’에 기사(記事)를 썼던 까닭에 ‘사적’을 ‘청사’라 칭한 것이다.

****역자주석:** 본 시의 내용을 놓고 볼 때, 당시 서예 선생은 ‘송사(宋史)’를 읽고 본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40) 왜강풍(灑江楓): 강상(江上)에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다.

- ① 왜(灑): 바람에 흩날리다(나부끼다, 방향(芳香)이 풍기다)
 ② 풍(楓): 단풍잎

시3. 종묘宗廟에서 신령을 영접하면서

詩3. 候神太室¹⁾ 후 신 태 실



人間脫屣萬機輕²⁾,
인 간 탈 사 만 기 경

속세 벗어났단 상상하니 번잡한
정무政務도 가뻔해져,

早歲遊神白玉京³⁾。
조 세 유 신 백 옥 경

젊지만 신유神遊 떠나
백옥경白玉京에 가네.

已向仙山聞鳳吹⁴⁾,
이 향 선 산 문 봉 취

마침내 선산仙山에 도착하니
생황笙簧소리 들리는데,

更教方士駐蓬瀛⁵⁾。
깁 교 방 사 주 봉 영

별도로 도사시켜 봉래산蓬萊山과
영주산瀛洲山에 머물게 하네.

虛程杳杳凝情遠⁶⁾,
허 정 묘 묘 응 정 원

하늘 길은 멀고멀어
정 붙이기 요원한데,

怪事紛紛觸眼驚⁷⁾。
괴 사 분 분 촉 안 경

괴이한 일 분분하여
보기만 해도 놀랍네.

稽首靈壇青鳥過⁸⁾,
계 수 영 단 청 조 과

제단祭壇에 배례拜禮 하는데
파랑새 날아가고,

焚香靜晝碧雲生。
분향정주벽운생

조용한 낮에 분향하는데
푸른 구름이 이네.

安期與果憑誰見⁹⁾,
안기여과빙수현

신선 안기安期和 선도仙桃는
누구에게 소개 받을꼬!

五利燒丹久未成¹⁰⁾。
오리소단구미성

방사方士 오리五利는 오랜 세월 연단煉丹
제조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거늘!

桂殿留書人已去¹¹⁾,
계전유서인이거

도관道觀에 도서道書만 남겨놓고
사람은 이미 저승에 갔는데,

金盤零露月空清¹²⁾。
금반령로월공청

금반형金盤形 명당明堂에는 이슬 내리고
달빛은 허공에서 청명하네.

仙塵¹³⁾異路終難遇,
선진이로종난우

선인仙人과 속인은 가는 길 달라
결국 조우遭遇하기 어렵고,

笙鶴無緣詎易迎¹⁴⁾。
생학무연거이영

신선이 타는 학은 인연 없어
쉬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닐세.

自是皇心多嗜欲¹⁵⁾,
자시황심다기욕

독선적인 황제 마음은 기호와
욕망도 많았으니,

非關神怪惑聰明¹⁶⁾。
비관신괴혹총명

신괴神怪와 무관하게
총명함이 흐려져서일세.

從教大業幾墜緒¹⁷⁾,
종교대업기추서

국정國政을 맘대로 하다
몇 왕조가 멸절滅絶됐던가?

不補他年作悔崩¹⁸⁾。
불보타년작회붕

이후에 보완하지 않으면
후회할 가닥이 생길 걸세.

草樹茂陵¹⁹⁾千載後,
초 수 무릉 천 재 후

무릉茂陵 왕릉에 초목 무성해진
천년 후에,

題詩一吊有餘情²⁰⁾。
제 시 일 조 유 여 정

시를 지어 조의弔意 표했지만
애뜻한 생각 여전히 남아있네.

1) 후신태실(候神太室 : 종묘宗廟에서 신령을 영접하면서) :

① 후(候) : 영접하다, 영후(迎候 : 마중나감. 출영出迎함)하다

② 태실(太室) : 태실(大室)이라고도 쓴다. 태묘(太廟 : 제후의 시조를 모신 묘(廟 : 사당, 산을 제사 지내는 곳)의 중앙에 있는 방, 태묘(太廟 : 태조의 종묘))를 가리키기도 한다. 『서경(書經)·낙고편(洛誥篇)』에, “왕이 태실太室에 들어가서 강신주降神酒를 땅에 부으시다(王入太室裸).”고 한 대목이 있다.

2) ① 인간(人間) : 진세(塵世), 세속사회

② 탈사(脫屣) : 매우 경시하는 (알보는) 것을 비유한 말로, 아쉬워하는 바가 없어, 마치 벗어버린 신과 같다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정신적으로) 속세를 벗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a. 탈(脫) : 벗다

b. 사(屣) : 신

③ 만기경(萬機輕) : 번잡한 정무(政務)가 적다.

a. 만기(萬機) : 만기(萬幾)와 같은 말로서, 제왕의 일상적이고 번잡한 정무를 가리킨다.

④ 만(萬) : 만사. 번잡한 정무를 가리킨다.

⑤ 기(機) : 기(幾)와 같은 뜻이고, ‘미(微 : 미세한 것 곧 번잡한 것을 가리킴)’의 뜻으로 쓰였다.

b. 경(輕) : 힘이 안 들다(덜 들다), 간편(수월, 용이)해지다, 긴장이 풀리다, 가뿐하다.

3) ① 조세(早歲) : 젊을 때, 젊은 나이, 조년(早年)

② 유신(遊神) : 정신여행을 떠나다. 곧 명상(冥想 : 명상冥想) 여행을 말한다.

☆옛날에 방사(方士 : 도사道士 : 신선의 술법을 닮은 사람)들은, 정신은 육신을 떠나 유력(遊歷 : 돌아다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본 시에서는 ‘유신(遊神)’이 도치된 ‘신유(神遊 : 육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심신으로 동경하여 몸소 그 환경을 여행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느끼는 것)’의 뜻으로 쓰였다고 보고 ‘정신 여행’이라 번역한다. 곧 명상(冥想)을 말한다.

③ 백옥경(白玉京) : 하늘 위에 옥황상제(玉皇上帝 : 민간 도교에서 받드는 최고신의 명칭)가 산다고 하는 서울

4) ① 이(已) : 마침내

② 향(向) : 가다, 근접하다, 접근하다

③ 봉취(鳳吹) : 생황(笙簧)과 통소 등 관현악에 대한 미칭(美稱).

- 5) ① 갱(更): 부사로, ‘또, 다시, 달리, 그 밖에, 별도로’ 등의 뜻이다.
 ② 교(敎): 사역동사로 ‘~로 하여금(~에게) ~하게 하다’의 뜻이다. ‘사(使)·령(令)·양(讓)’과 같다.
 ③ 방사(方士):
 ☆도사(道士), 방술사(方術士). 도교에서 신선을 추구하며 수련하고 불사약이라고 하는 연단(煉丹)을 만들어 먹으며 불로장생하는 술법인 ‘방술(方術)’을 익혔다고 자칭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성점(星占: 별의 빛과 위치 등으로 길흉을 점치는 짓)을 하거나, 방중술(房中術: 도사가 절욕양생節欲養生하여 기운을 보강하는 술수)을 익히는 한편, 무의(巫醫: 축복기도를 곁해서 약간의 약물로 채난을 물리치고 병을 치료하는 사람)나 점복(占卜: 점치는 일) 등의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다.
 ④ 봉·영(蓬瀛):
 ☆봉래(蓬萊)와 영주(瀛洲)라는 신선의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봉래산(蓬萊山)과 영주산(瀛洲山)이라는 신선이 거주하는 곳을 이르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일반적으로 선경(仙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쓴다.
 ☆고대 중국에서 전설상의 선산(仙山)이라고 하면, 세 곳인데, 모두 해상(海上)에 위치한다. 그 삼좌(三座)의 선산은 봉래산(蓬萊山)·방장산(方丈山)·영주산(瀛洲山)인데, 산형(山形)이 주전자같이 생겼고, 산상(山上)에는 황금과 백은으로 지은 궁전이 있으며, 불사약이 있는 동시에 이곳이 바로 신선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한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제위왕(齊威王)·제선왕(齊宣王)·연소왕(燕昭王) 그리고 진시황(秦始皇) 등은 모두 사람들을 파견하여 바다에서 항해하며 이 선산을 찾게 하였다.
- 6) ① 허정(虛程): 하늘 길
 ② 묘묘(杪杪): 묘망(渺茫)과 같은 말이다. ‘멀고멀다, 막막하다, 묘묘하다, 아득아득하다’로 표현할 수 있다.
 ③ 응정원(凝情遠): 정 붙이기가 요원하다.
 a. 응정(凝情): 정의(情意)가 맺히다. 정의가 깊다. 역자는 이 말을 ‘정을 붙이다’는 말로 표현한다.
 ④ 응(凝): 응결되다, 견고하다, 형성되다
 ⑤ 정(情): 정의(情意), 심정·본의(本意)·감정
- 7) ① 괴사(怪事): 괴이한 일, 기괴한 일, 이상한 일, 불가사의한 일
 ② 분분(紛紛): 어지러운 모양, 뒤섞인 모양, 번잡한 모양, 다양한 모양, ‘분분하다’로 표현할 수 있다.
 ③ 촉안경(觸眼驚): 촉목경심(觸目驚心: 보기만 해도 놀란다. 보기에 가슴 아프다)과 같은 말이다.
 a. 촉안(觸眼): 눈에 띄다, 눈길이 닿다.
- 8) ① 계수(稽首): 머리가 땅에 닿도록 공손히 절을 하다. 고대에 꿇어앉아 배례(拜禮)하면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것으로, 구배(九拜) 중에서 가장 공경하는 절이다.
 a. 계(稽): 조아리다. 『주례(周禮)·춘관(春官)·대축(大祝)』장에, “‘구배九拜’를 분별하자면(辨九拜), 첫째 ‘계수稽首’라 하고, 둘째 ‘頓首(頓首: 머리를 땅에 조

아리고 절을 함)’라 하고, 셋째 ‘공수(空首: 머리가 손에 닿도록 무릎을 꿇고 하는 절)’라 하며, 넷째 ‘진동(振動: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 두 무릎을 동시에 꿇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쪽 무릎을 꿇은 다음에 머리를 조아리고 양손으로 손바닥을 치며 다시 다른 한쪽 무릎을 꿇고 하는 절로서 아배雅拜라고도 함)’이라고 하며, 다섯째 ‘길배(吉拜: 먼저 배수拜手하고, 즉 머리를 땅 짚은 손 있는 때까지 먼저 조아리고 다음에 계상稽顙하는, 즉 이마를 땅에 닿도록 하는 절)’라 하며, 여섯째 ‘흉배(凶拜: 상례喪禮를 거행할 때 행하는 절로서, 먼저 돈수頓首, 즉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그 다음에 공수空首, 즉 머리가 손에 닿도록 무릎을 꿇고 하는 절)’라 하고, 일곱째 ‘기배(奇拜: 일배一拜)’라 하며, 여덟째 ‘포배(褒拜: 재배再拜)’라 하며, 아홉째 ‘숙배(肅拜: 공수拱手하고 즉 손을 모으고, 읊揖하는 형식의 절)’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를 행하여 신에게 제물을 권하며 제사를 지낸다(一曰稽首, 二曰頓首, 三曰空首, 四曰振動, 五曰吉拜, 六曰凶拜, 七曰奇拜, 八曰褒拜, 九曰肅拜, 以享右祭祀).”고 한 대목이 있다.

② 영단(靈壇): 제단(祭壇). 영혼의 위패를 모셔두는 곳

③ 청조(靑鳥): 본 시에서는 서왕모의 사자인 ‘파랑새[靑鳥]’를 시사한다.

☆신화전설 중에 신녀(神女) 서왕모(西王母)가 먹을거리를 취하고 서신을 전했다는 신조(神鳥)이다. 『산해경(山海經)·서산경(西山經)』에, “또한 서쪽으로 220리 밖에, 삼위산三危山이라는 산이 있는데, 세 마리의 청조靑鳥가 그곳에 살았다(又西二百二十里, 曰三危之山, 三靑鳥居之).”고 한 대목이 보인다.

동진(東晉)의 학자 곽박(郭璞: 276~324)이 그의 『산해경주(山海經注)』에서 위의 문장을 주석하면서 말하기를, “세 마리 청조의 주인은 서왕모로서 먹을거리를 구해오는 새인데, 독자적으로 특별히 이 산에 서식했다(三靑鳥主爲西王母取食者, 別自棲息於此山也).”고 하였다.

당나라 초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인 구양순(歐陽詢: 557~641)은 그의 저서 『예문유취(藝文類聚)』 권9에서, 후한(後漢)의 사학자 반고(班固: 32~92)가 편찬한 책인 (舊題) 『한무고사(漢武故事: 한무제고사漢武帝故事)』를 인용하여 말하기를, “칠월 초이렛날, 상(한무제를 가리킴)께서 승화전에서 재계(齋戒: 부정不淨을 피하고 몸을 깨끗이 함)하고 계셨는데, 그날 정오에, 홀연 청조 한 마리가 서방西方에서 날아와서, 궁전 앞에 내려앉았다(七月七日, 上(漢武帝)於承華殿, 正中, 忽有一靑鳥從西方來, 集殿前). 상께서 동방삭(東方朔: BC 154~BC 93)에게 <저것이 무슨 새냐? 하고 묻자, 동방삭이 <그 새는 서왕모의 사자使者라고 여겨> 아뢰기를, ‘이것은 서왕모가 오시려는 것이옵니다(上問東方朔, 朔曰, ‘此西王母欲來也’).’고 하였다. 잠시 후, 서왕모가 도착했는데, 까마귀와 같은 두 마리의 청조가, 양쪽에서 서왕모를 모시고 있었다(有兩靑鳥如鳥, 俠侍王母旁).”고 한 대목이 보인다. 후에, 사람들은 이 ‘청조’란 말을 사신(使臣)의 대칭으로 썼다.

9) ① 안기여과(安期與果): 선인 안기생(安期生)과 그가 먹던 선과(仙果: 선선이 먹는 과일. 그 명칭은 안기조安期棗임)

a. 안기(安期: 생몰년 미상): 안기생(安期生): 전설상의 도가(道家) 선인(仙人)의 이름이다. 선진시대(先秦時代) 방사(方士)였는데, 후세에 와서 도가의 선인으로 전해진다. 일설에는 진말(秦末) 한초(漢初) 시대의 제(齊)나라 사람으로,

낭야(琅瑯)의 부향(阜鄉 : 발해渤海 해변 어디라고 하나 지금의 어딘지는 알 수 없으며, 후에 사람들은 전轉하여, 선향仙鄉을 가리키는 뜻으로 씀) 사람이라고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하상장인(河上丈人 : 고대 은사隱士의 이름)으로부터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학설을 익혔으며, 동해의 해변에서 선약(仙藥)의 제조를 공부했다고 한다. 그는 동해 해변에서 그 선약을 팔았으며, 그 당시 그의 나이가 1000살이라고 하여, 사람들은 그를 천세옹(千歲翁)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진시황(秦始皇 : ?~BC 210)이 동유(東游)했을 때, 그와 삼주야(三晝夜)를 함께 담소했으며, 시황이 그에게 금옥(金玉) 수천 냥을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모두 부향정(阜鄉亭)에 두고 떠났는데, 갈 때 서신 한 장과 적옥석(赤玉鳥 : 적색 옥으로 만든 신) 한 켤레를 보답으로 남겨두고 떠났다고 한다. 그 후 진시황은 사람을 시켜 동해로 가서 그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봉래산에도 이르지 못한 채 풍파를 만나 돌아오고 말았다고 한다. 또 일설에 의하면, 그는 전한(前漢)의 괴통(蒯通 : 진秦 말기, 범양範陽 사람. 본명은 괴철(蒯徹 : 생몰년 미상). 제齊나라의 연변가로서 유방이 아직 항우와 천하제패를 다투고 있을 때, 한신(韓信)을 찾아가서 고조 유방을 배신하고 스스로 독립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한신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아 끝내 죽임을 당했음)과 친했다고 하며, 일찍이 항우(項羽 : BC 232~BC 202)에게 헌책(獻策)하여 간(諫)했으나 채용되지 못했다고 한다. 후세의 방사(方士)와 도가는 그를 해상에 거주하는 신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외에 『사기(史記) · 악의열전(樂毅列傳)』과 전한(前漢)의 경학가 유향(劉向 : BC 77~BC 6)의 저서인 『열선전(列仙傳)』 등에 언급되고 있다.

b. 여(與) : 접속사로서 ‘…와, …과’의 뜻이다.

c. 과(果) : 과(菓)와 동자(同字)이며 과실(果實 : 과일)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안기조(安期棗)’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안기조(安期棗) : 전설상의 신선이 먹던 과실의 명칭으로, ‘선인(仙人) 안기생(安期生)이 먹던 과실인 대추’란 뜻이다. 『사기(史記) · 봉선서(封禪書)』에, “신臣(한무제漢武帝 때 방술가 이소군李少君을 가리킴. 그는 신단神丹을 만든 시조인. 『신선전』에 따르면, 제齊나라 출신으로 안기생의 가르침을 받아 연단술을 배워 불로장생약을 만들었지만 권력자 무제의 향락을 비판하고 병을 핑계 삼아 무제를 떠나 천계로 옮겨 갔다고 함)이 일찍이 해상에 유람을 갔었을 때, 안기생은 만났는데, 그 때 안기생이 커다란 대추를 먹으라고 주었는데, 그 크기가 참외만큼 굵었습니다(臣嘗游海上, 見安期生, 安期生食巨棗, 大如瓜).”라고 한 대목이 있다. 후에 ‘안기조(安期棗)’라는 명칭이 생겼다.

② 빙수현(憑誰見) : 누구에게 의존해야 소개를 받을 수 있을꼬.

10) ① 오리(五利) :

☆한(漢)의 방사(方士) 난대(樂大 : ?~BC 112)의 칭호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사기(史記) · 효무본기(孝武本紀)』에, “당시에 황상은 황하가 범람하는 일을 걱정하고 있었고, 황금 또한 제조해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난대樂大를 오리장군五利將軍에 봉하였다(是時上方憂河決, 而黃金不就, 乃拜大爲五利將軍).”고 한 대목이 있다.

*난대(樂大: ?~BC 112): 서한(西漢) 교동군(膠東郡),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평도시(平度市) 동남부 사람이다. 한무제(漢武帝: BC 154~BC 87: 유철(劉徹)시)에 교동왕(膠東王)의 상방(尙方: 上方: 한나라 조정의 의도醫道와 의술을 관장하는 의관醫官 명칭)이었다. 방략(方略: 권모權謀)에 대한 말을 많이 했으며 감히 큰소리를 많이 쳤다. 무제(武帝)가 신선방술을 추구하는 것을 알고 나서, 낙성후(樂成侯: 성명은 정의(丁義: 생몰년 미상)는 가장 친근한 벗인 난대(樂大)를 무제에게 소개했다. 그 때 난대는 무제에게 허풍을 치면서, 일찍이 바다를 왕래하면서 안기생(安期生)과 선문고(羨門高) 등의 선인(仙人)도 만났고, 불사약도 만들 수 있다고 하여서, 무제는 난대를 오리장군에 봉했다. 원정 4년(元鼎四年: BC 113)에 낙통후(樂通侯: 낙통樂通은 지명으로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사흥현泗洪縣 동남부임)에 봉하고 무제의 위황후(衛皇后)의 장녀인 장공주(長公主)와 결혼시켰다.

그 후 신선을 영접하기 위해서 파견된 오리장군 난대는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태산(泰山)에 가서 제사만 지냈다. 오리장군은 선사(仙師)를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으나, 실제로는 만나지 못했고, 방술 또한 영험을 나타내지 못했다. 무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를 참(斬)했다. 이때 난대를 소개했던 낙성후(樂成侯) 정의(丁義)도 함께 처형되었다.

*황금불취(黃金不就): 단사(丹砂: 진사(辰砂: 수은과 유황의 화합물인데, 약용으로 쓰이고 안료로도 씀. 고대 방사들은 이것을 가지고 불사약이나 황금을 제련할 수 있다고 믿었음)와 연석(鉛錫: 납과 주석朱錫: 은백색의 고체금속으로 녹슬지 않음)으로 황금을 제련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② 소단(燒丹): 연단(煉丹)과 같은 말이다. 도교에서 주사(朱砂: 진사辰砂: 단사丹砂: 자세한 주석은 위의 주석 10)의 ① ‘황금불취’ 조항을 참조 바람)를 가지고 연약(煉藥)하는 것을 가리킨다.

- 11) ① 계전(桂殿): 불교의 사원이나 도교의 도관(道觀)에 대한 미칭(美稱)
 ② 서(書): 일종의 ‘전문서적’이란 뜻으로 점조서(占兆書), 역서(曆書) 등을 말하는 데, 본 시에서는 ‘도서(道書) 곧 선사(仙書)’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거(去): 거세(去世: 세상을 떠남), 사망
 12) ① 금반(金盤): 이는 금반형(金盤形)의 명당(明堂)을 칭한 것이다. 금반(金桴)으로도 쓴다.

☆금반형(金盤形)의 명당(明堂). 여기서 명당이란, 풍수지리에서 장차 좋은 일이 자주 생긴다는 집터를 칭한 것으로, 본 시에서는 방사(方士) 오리(五利)의 도관(道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② 영로(零露): 방울져 떨어지는 이슬

- 13) 선진(仙塵): 선경(仙境)과 속세 혹은 선인(仙人)과 속인
 14) ① 생학(笙鶴): 서한(西漢)의 학자 유향(劉向: BC 77?~BC 6)의 저서 『열선전(列仙傳)』에, “주영왕(周靈王: ?~BC 545)의 태자 희진(姬晋: 생몰년 미상: 선인仙人이 되고나서의 성명은 ‘왕자교王子喬’, 왕교王喬라고도 함)은 직간(直諫)을 잘해서 태자에서 폐위되고 서인(庶人)이 되었다. 그는 생황을 잘 불어 봉황의 울음 소리를 냈으며, 이수(伊水)와 낙수(洛水) 사이에서 노닐었다. 도사(道士) 부구공(浮丘公: 생몰년 미상)이 그를 데리고 송고산(嵩高山)으로 올라갔다. 30여년 뒤 왕자교는

백학을 타고 구씨산(皐氏山) 정상에 내려 앉아 당시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 반긴 다음에 작별하고 신선이 되어 떠나갔다”고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송나라 때 이방李昉 등이 황제의 명에 따라 편집한 백과사전인 『태평어람(太平御覽)』에도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후에 사람들은, 이 책에 나오는 ‘생학(笙鶴)’이란 말을 ‘선인이 타고 다니는 선학’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 ② 거이영(詎易迎): 쉽사리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a. 거(詎): 부사로서 부정을 표시하고, ‘무(無), 비(非), 불(不)’에 상당하며, ‘없다. 아니다. 안 된다’는 뜻이다.
- 15) ① 자시(自是): 자기의 의견만 (스스로) 옳다고 여기다. 독선적이다.
② 기욕(嗜欲): 기욕(嗜慾)으로도 쓴다. 뜻은 ‘기호(嗜好)와 욕망’이며, 주로 신념과 각 방면에서 좋아하고 즐기려는 욕망을 가리킨다.
- 16) ① 비관(非關): …때문이 아니다, 무관하다
② 신괴(神怪): 신선과 요괴(도깨비·유령), 귀신같이 괴이한 물건
③ 혹(惑): 흐려지다
- 17) ① 종교(從敎): 좋을 대로 내맡기다, 마음대로(자유로이) 하게 하다
② 대업(大業):
☆제업(帝業): 왕조를 건립하려는 사업, 곧 제왕의 사업. 전(轉)하여 왕조의 유지, 곧 나라의 큰 사업, 즉 ‘국정(國政)’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쓴다.
③ 추서(墜緒): 쇠퇴하여 명맥만 남아있는 것, 본 시에서는 끊어진 왕통을 가리킨다.
a. 추(墜): 분실하다, 상실(喪失)하다, (풍속, 관습, 명예 등을) 손상시키다
b. 서(緒):
○선대로부터 이어온(조상이 물려준) 업적을 가리킨다.
『서경(書經)·오자지가(五子之歌)』에, “네 번째 노래 가사에 이르기를: …… (이제는) 조상의 업적을 폐기 상실하고, 종족(宗族: 겨레붙이)은 몰락하여 제사를 단절하게 되었네(其四曰: 荒墜厥緒, 覆宗絕祀).”라고 한 구절이 있다. 당나라의 학자 공영달(孔穎達: 574~648)은 『상서정의(尙書正義)』에서, 위의 구절에 대하여 말하기를: “태강(太康: 하夏나라의 제2대 왕 계림의 아들)은 본업인 정치에 힘쓰지 않다가 망했다(太康失其業以取亡)”고 하였다. 후에 사람들은 이 ‘추서(墜緒)’란 말을, ‘장차 곧 단절되려 하는 황통(황통)’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 18) 작회맹(作悔萌): 후회 가닥이 생길 것이다.
a. 작(作): 생기다
b. 회맹(悔萌): 후회의 싹, 후회의 발단 곧 ‘후회 가닥’을 이르는 말이다. ‘맹(萌): 호목의 싹’의 이체자(異體字)이다.
- 19) 무릉(茂陵): 능묘(陵墓)의 명칭으로, 한무제(漢武帝) 유철(劉徹: BC 154~BC 87)의 능묘이다.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흥평현(興平縣) 동북에 위치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20) ① 제시(題詩): 어떤 한 가지 일이나 하나의 사물, 또는 어떤 한 폭의 글씨나 한 폭의 그림 등을 취하여 느낀 바의 감정을 토로해서 제목을 붙이고 시를 짓는 것이다. 주로 지은 시를 써서 벽에 걸거나 화폭의 좌측 상단 또는 도자기류의 기명(器皿)에 쓴다.

- ② 일조(一吊): 조의(弔意: 남의 죽음을 슬퍼함)를 한 번 표하다
- ③ 여정(餘情): 가지지 않고 마음 속 깊이 아직 남아 있는 정이나 생각. 충만한 정취를 이르는 말



시4. 취성정¹⁾聚星亭

詩4. 聚星亭 취성정

天地培元化²⁾,
천지배원화

천지 신령이 우주 만물을 배양하니,

山河效厥靈³⁾.
산하효권영

산천은 그 정기精氣를 그대로 본받네.

名賢膺間氣⁴⁾,
명현옹간기

저명한 현철賢哲은
특별히 맑은 기품 타고나고,

並世襲芳馨⁵⁾.
병세습방형

동시에 자자한 명성까지 이어받네.

丘長明神鑑⁶⁾,
구장명신감

일개 존장도 영명한 감찰력 드러내거늘,

荀君抱大經⁷⁾.
순군포대경

순욱荀彧 공이야 대도大道를
가슴에 품고 살았음에라!

無雙名旣盛,
무쌍명기성

세상에 들도 없는 명성 이미 떨쳤음에도,

濟美德堪刑⁸⁾.
제미덕감형

미덕을 이어받아 형벌도 감수했다네.

晚托林園契⁹⁾,
만탁임원계

만년에 의지할 것은 귀향하자는 맹약이라,

相孚義氣形¹⁰⁾。
상 부 의 기 형

서로 의견 일치하여
의기義氣가 형성됐다네.

經過驂鹿駕¹¹⁾，
경 과 참 록 가

사슴이 끄는 수레 몰고 (집 앞을) 지나가니,

顛倒掃風櫪¹²⁾。
전 도 소 풍 령

선회하는 바람 처마 밑을 스쳐갔다네.

易說同聲應¹³⁾，
이 설 동 성 응

화목하고 즐겁게 한목소리로 응하면서,

詩歌伐木丁¹⁴⁾。
시 가 벌 목 정

『시경』의 「벌목(伐木)」편을
찌렁찌렁 읊었다네.

愜心忘主客¹⁵⁾，
협 심 망 주 객

흐뭇한 마음에 주객의 분별도 잊은 채,

高韻聳瞻聆¹⁶⁾。
고 운 웅 참 령

고아한 시가詩歌를
귀 기울이고 들었다네.

杖屨隨諸子¹⁷⁾，
장 구 수 제 자

지팡이 짚고 걷는
노인장 아들 형제가 수행해서,

風流屬一廳¹⁸⁾。
풍 류 속 일 청

걸출한 군자들과
한 대청에서 회합했다네.

八龍俱侍座¹⁹⁾，
팔 룡 구 시 좌

팔 형제는 모두 노인을
좌석에 모셔놓고,

群玉更趨庭²⁰⁾。
군 옥 경 투 정

서재에서 교대로 부친의 가르침을 받네.

散朗神情秀²¹⁾，
산 랑 신 정 수

말단관직 산랑散郎이나 기색은 비범하고,

純眞道義寧²²⁾。
순 진 도 의 념

순박·진실해서 도의道義 실천함이
증심衆心을 편케 했네.

人間太史奏²³⁾,
인 간 태 사 주

속세에선 태사太史가 돼야
상주上奏할 수 있는데,

天上少微停²⁴⁾。
천 상 소 미 정

신선계는 미천해도 머무를 수 있다네.

粲爛聯奎壁²⁵⁾,
찬 란 연 규 벽

반짝반짝 유성奎星과 벽성壁星이 연계해서,

昭回近帝廷²⁶⁾。
소 회 근 제 정

반짝이며 태미원太微垣 성좌星座
가까이서 회전하네.

瑞光臨白屋²⁷⁾,
서 광 림 백 옥

밝은 서광 허술한 초가에 비치는데,

佳氣動青冥²⁸⁾。
가 기 동 청 명

몽실몽실 고운 구름 푸른 하늘에 떠가네.

一體交無間²⁹⁾,
일 체 교 무 간

이들은 하나같이
서로 허물없이 잘 지내고,

三才理不暝³⁰⁾。
삼 재 이 불 명

천·지·인天地人 세 방면 도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네.

誰知造次會³¹⁾,
수 지 조 차 회

창졸간에 갖는 회합 누가 알았겠나만,

能徹蓋高聽³²⁾。
능 철 개 고 청

능력이 투철하니
아마 남들도 흔히 청취하셨으리라.

來訪桐江隱³³⁾,
내 방 동 강 은

동강桐岡 강변에 은거하는
은사隱士를 방문하고는,

長悲楚澤醒³⁴⁾。
장 비 초 택 성

늘 그리워하다 옛 초국楚國 땅
호숫가에서 깨달았다네.

何緣帝賚夢³⁵⁾,
하 연 제 회 몽

어째서 제왕이 호택湖澤을 하사 하겠는가?

無故發聞腥³⁶⁾
무 고 발 문腥

아무런 까닭 없이 비린내가 나겠는가!

寶貝愁藏海³⁷⁾
보 배 수 장 해

귀한 청년들 가슴에 찬 수심
바다 같이 심대深大해도,

驂騑棄在垆³⁸⁾
화 류 기 재 경

준마 타고 달려 나가
교외에서 훌훌 털어버리네.

緇衣千載意³⁹⁾
치 의 천 재 의

흑색 조복朝服 입은 채
변함없는 충심忠心 품고,

嘆息一虛亭⁴⁰⁾
탄 식 일 허 정

홀로 텅 빈 정자에서
(그들을) 찬탄했다네.

-
- 1) 취성정(聚星亭): 남경시(南京市) 부자묘(夫子廟: 공묘孔廟: 공자의 사당)의 영성문(靈星門) 서쪽에 위치하며, 영성문 서쪽에 있는 규광각(奎光閣: 별명은 괴성각魁星閣. 문운文運을 주재하는 신을 모신 누각)과 상응하여 문풍(文風: 글을 숭상하는 풍습)이 창성(昌盛)하는 것을 상징한다. 팔각2층(八閣二層)의 누각이며 명(明) 만력 14년(萬曆十四年: 1586)에 건축되었다.

① 취성(聚星):

☆취(聚)‘지는 ‘모이다’는 뜻이고, ‘성(星)’자는 ‘별’이란 뜻으로, ‘몇 개의 항성(恒星: 별)이 모여서 학문에 전력하는 것과 연관된 것을 상징한다’고 해서 ‘취성(聚星)’이라고 불렀다. ‘취성(聚星)’은 ‘규성(奎星: 규수奎宿)의 상징성을 모아서功名(功名)을 취득한다’는 뜻이다. 규성은 이십팔수(二十八宿: 천구天球를 황도黃道에 따라 28등분한 구획의 별자리) 중의 하나로서, 북두칠성(北斗七星)의 첫 번째 별이다. 한대(漢代)의 서적『효경수신계(孝經授神契)』에 “규성奎星은 문장을 주관한다(奎主文章).”는 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동한(東漢)의 학자 송균(宋均: ?~76)은 이 말을 주석하기를, “규성奎星이 있는 별자리는 굴곡되어 같고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 형상이 문자의 획과 같다(奎星屈曲相鉤, 似文字之畫).”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규성’을 ‘괴성(魁星: 우두머리 별, 두목 별)’이라고도 쓰며, 이 뜻을 전(轉)하여, ‘천상문관(天上文官)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전설에 의하면, ‘규성(奎星)’이란 사람이 실제로 있었으니, 그는 생긴 모습이 몹시 추하게 생긴데다가, 얼굴이 심하게 엷었을 뿐 아니라, 절름발이여서 어릴 때부터 이웃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는 지기(志氣)가 아주 높아 분발하면서 독서하여 과거에 진사(進士)로 합격했다. 진시(殿試: 황제가 친

히 보이던 과거)때에 황제가 그를 화문하면서 묻기를, “자네 얼굴이 어떻게 그리
 얹었는가?”라고 하니, 그는 “얼굴에 천성(天星 : 하늘의 별)이 가득하옵니다.”라
 고 하였다. “다시 묻건대, 자네 다리는 왜 절름발이인가?”라고 하니, 그는 “의
 다리로도 용문(龍門 : 과거시험장의 정문)을 뛰어왔사옵니다.”고 답하였다. 황제
 가 보기에 그는 재기(才氣)가 민첩한데다 그 답변이 유창하고 과거 시험 답안
 도 아주 훌륭하여 그를 장원(壯元)에 급제시켰다. 구성(奎星)의 고사(故事)는
 역대로 전해지면서 그 명성이 아주 높았다.

- 2) ① 천지(天地) : ‘천지신령(天地神靈)’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② 배(培) : 배양하다
- ③ 원화(元化) : 조화(造化 : 대자연의 이치에 따라 창조화육創造化育된 우주만물). 대자연
 의 운전변화(運轉變化), 곧 우주만물이 생성·소멸·변화되는 이치. 천지만물을
 창조·화육(化育)시키는 조물주의 작용을 의미하기도 한다.
 - a. 원(元) : 하늘[天]. 고대인은 ‘하늘을 만물의 주재자’라고 생각했다. 전(轉)하여,
 ‘대자연의 이치’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화(化) : 성장하다, 화육(化育)하다. 본 시에서는 그렇게 된 것, 즉 ‘창조화육된
 만물’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3) 효궤령(效厥靈) : 산천은 그 정기精氣를 그대로 본받네) :
 - ① 효(效) : 본받다
 - ② 궤령(厥靈) : 그 정기(精氣 : 천지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기운)
 - a. 궤(厥) : 지시 대명사로 ‘그의, 그것의’란 뜻이며, ‘기(其)’와 같은 뜻이다.
 - b. 령(靈) : 정기(精氣), 정신, 영기(靈氣)
- 4) ① 응(膺) : 감응하다. 받다. 인수하다. 본 시에서는 ‘타고나다’로 번역한다.
- ② 간기(間氣) : 간기(間氣)로도 쓴다. ‘세상에 드물게 타고났다는 천지의 특수한 기
 (氣)’란 뜻이다. 옛날에, 영웅호걸은 위로는 성상(星象 : 별의 명암과 위치 등의 현상.
 옛사람들은 이 성점(星占)을 근거로 인사人事의 길흉화복을 예측했음)에 감응하고, 천지
 의 특수한 기(氣)를 품고 있어서, 세간에서 걸출하게 된다고 생각한 까닭에 일컬
 어진 말이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기운을 타고난 인물을 ‘간기인물
 (間氣人物)’이라고 한다.
- 5) ① 병세(並世) : 세상에 동시에 존재하다.
- ② 습(襲) : 계승하다. 물려받다, 이어받다
- ③ 방형(芳馨) :
 - ☆‘훌륭한(높은) 명성’을 비유한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방향(芳香 : 꽃다운 향기, 좋은 향기)’과 같은 말. 전(轉)하여 향초(香草)라는 뜻
 으로도 쓴다.
- 6) ① 구장(丘長) : 한 촌락의 촌장. 『주례(周禮) · 지관(地官) · 소사도(小司徒)』권에,
 “구부(九夫 : 9명의 장정)가 경작할 수 있는 전지田地를 ‘정井(900묘畝 : 약
 27,000평)’이라 하고, 4정四井을 읍읍(사방 2리二里)이라 하며, 4읍四邑을 구丘
 (사방 4리四里)라 하며, 4구四丘(사방 8리八里)를 진(甸 : 사방 8리八里)이라 하
 며, 4진四甸을 현縣(사방 20리二十里)이라 한다(九夫爲井, 四井爲邑, 四邑爲
 丘, 四丘爲甸, 四甸爲縣).”는 대목이 있다. 청대(清代)에 어떤 지역에서는 대촌
 락을 ‘구(丘)’라고 칭한 지역도 있었다.

- ② 명(明) : 분명히 드러나다, 명현(明顯)하다
- ③ 신감(神鑑) : 신감(神鑒)으로도 쓰며, ‘영명(英明)한 감찰력(鑑察力)’이란 뜻이다. 잘 꿰뚫어본다는 뜻이다.
- 7) ① 순군(荀君) : 순공(荀公) : 순욱 공(荀彧公)
- a. 순(荀) : 후한(後漢)의 말의 정치가 순욱(荀彧)을 가리킨다.
- ④ 순욱(荀彧 : 163~212) : 후한(後漢) 영천군(潁川郡) 영음현(潁陰縣),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허창시(許昌市) 출신으로 후한 말의 정치가이다. 자는 문약(文若)이고, 순숙(荀淑 : 83~149)의 손자다. 어릴 때부터 재명(才名)이 있었다. 중평 6년(中平六年 : 189) 효렴(孝廉 : 효성스럽고 청렴한 선비. 한 무제 때 설립한 관리 선발 시험에서 관원을 임용하는 과목의 일종임. 즉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어른들에게 공손하는 ‘효’와 일치리에 청렴한 ‘람’을 뜻하는 것임. 명조, 청조 때에 와서는 ‘거인(舉人 : 과거를 보는 사람)’이라는 아칭雅稱으로 쓰였음)으로 천거되어 항보현(亢父縣 :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제녕시濟寧市 남쪽 40여리)의 현령(縣令)을 지냈다. 얼마 뒤 원소(袁紹 : ?~202)에게 의탁했는데, 원소가 큰일을 이루지 못하리라 판단하고 조조(曹操 : 155~220)에게 몸을 의탁했다. 조조는 그를 깊이 신임하여 분무사마(奮武司馬 : 4품인 분무장군 조조의 수하무장으로, 정5품이었음)와 진동사마(鎭東司馬 : 동부지역 적군의 진압을 관장하는 진동장군 조조의 수하 무장으로 정5품 직급이었음)에 임명하면서, “그대는 나의 장자방張子房이다(吾之子房也).”라고 말할 정도였다. 조조에게 도읍을 허도(許都)로 옮기고 헌제(獻帝)를 모시자고 적극 제안하여 천자를 두고 제후를 호령하는 지위를 얻게 했다. 조조가 대장군의 벼슬을 받은 뒤 그를 시중(侍中)과 상서령(尙書令)으로 임명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조조가 여포(呂布 : ?~198)를 죽인 뒤 원소와 대치했을 때 원소와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제공해 조조의 강한 신임을 얻었다. 이때부터 허도에서 정무를 처리했다. 관도(官渡 : 관도는 지명으로 지금의 하남성 중모현中牟縣 동북임. 이곳에 관도수官渡水가 흐르기 때문에 얻어진 지명임. 이곳에서 조조는 열세의 병력으로 원소의 주력군을 격파하였음) 전투 때 군량이 다한 조조가 철군하려고 하자 끝까지 견벽(堅壁)할 것을 주장하면서 기묘한 방법으로 원소를 격파해 만세정후(萬歲亭侯)에 봉해졌다. 시중이 되어 절월(節鉞)을 지니고 승상군사(丞相軍事)에 참여했다. 건안 17년(建安十七年 : 212) 동소(董昭 : 156~236)가 조조에게 위공(魏公)의 벼슬을 받으라고 권했을 때 반대하여 조조의 의심을 샀다. 얼마 뒤 조조가 그에게 찬합을 보냈는데 아무런 음식도 들어있지 않았다. 조조의 뜻을 알아차리고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
- b. 군(君) : 상대방에 대한 존칭으로, 성명 뒤에 써서 존경을 표시하는 말이다. 역자는 ‘공(公)’으로 번역한다.
- ② 포(抱) : (생각, 의견, 어떤 사상 따위를) 가슴에 품다
- ③ 대경(大經) : 상도(常道). 상규(常規), 대도(大道)
- 『여씨춘추(呂氏春秋) · 교자(驕恣)』편에, “충언을 막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禮로써 선비를 대해야 하고, 왕위가 위태롭지 않으려면, 반드시 민심을 얻어야 하며, 재난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방비를 해야 한다(欲無壅塞, 必禮士, 欲位無

危, 必得衆, 欲無召禍, 必完備). 이 세 가지가 군주의 대도이다(三者, 人君之大經也).”고 한 대목이 있다. 후한(後漢)의 학자 고유(高誘: 생몰년 미상)는 『여씨춘추주(呂氏春秋注)』에서, “『경經』은 ‘도道’이다(經, 道也).”라고 하였다.

- 8) ① 제미(濟美): ‘(사업, 전통 등을 원래의 기초 위에서) 더욱 확대 발전시키다(더욱 빛내다)’는 의미이다.
- ② 덕감형(德堪刑): 그 품덕으로 형벌도 감수했다네.
- 9) ① 만탁(晩托): 만년에 의지하다, 늦그막에 몸을 의탁하다
- ② 임원계(林園契): 고향에서 한 맹약. 산림전원(山林田園)에서 살자는 맹약. 전(轉)하여, ‘귀향하자는 맹약’으로 번역한다.
 - a. 임원(林園): 산림전원(山林田園), 산림이 무성한 농촌. ‘원림(園林: 고향을 가리킴)’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b. 계(契): 맹약(盟約)
- 10) ① 상부(相孚):

☆‘상부(相符): 서로 부합함. 서로 일치함. 서로 들어맞음’과 같은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a. 부(孚): 신복(信服: 믿고 따름)하다, 상응하다, 부합하다

☆위인신복(爲人信服: 사람됨이 믿고 따를만함)하다
- ② 형(形): 형성되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 11) ① 참록가(駟鹿駕): 사슴이 끈 수레를 타다(몰다)
 - a. 참(駟): 몰다, 부리다, 타다(승乘)
 - b. 녹가(鹿駕): 사슴이 끄는 수레
- 12) ① 전도(顛倒): 허공에서 선회하다
- ② 소풍령(掃風檣): 바람이 치마 밑을 스쳐가다
 - a. 소(掃): 바람이 스치다, 바람에 흔들리다, (가볍게) 스쳐 지나가다
 - b. 풍(風): 바람
 - c. 령(檣): ‘령(樑)’과 같은 자이다
- 13) ① 이열(易說): 이열(易悅)로도 쓰며, ‘화목하고 즐겁다’는 뜻이다.
 - a. 이(易): 화기애애하다, 화목하고 즐겁다
 - b. 열(說): ‘열(悅)’과 같은 뜻으로 쓰였으며,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다.
- ② 동성응(同聲應): 한 목소리(같은 소리, 같은 견해)로 웅대(호응)하다.
- 14) ① 시가(詩歌): 『시경(詩經)·소아(小雅)』에 있는 「벌목(伐木)」시편(詩篇)을 말함.
- ② 벌목쟁(伐木丁): 『시경』의 「벌목(伐木)」시편을 찌렁찌렁 소리 내어 읊다.
 - a. 벌목(伐木): ‘나무를 베어 내다’는 뜻의 이 「벌목(伐木)」이란 말은 『시경(詩經)·소아(小雅)』의 편명이다. 그 시구에 이르기를, “나무 베는 소리 쟁쟁 울리자, 숲속의 새들이 짹짹거리며 우네. …… 그 새들이 짹짹거리며 우는 것은, 자기들의 벗을 찾는 소리이지(伐木丁丁, 鳥鳴嚶嚶. …… 嚶其鳴矣, 求其友聲).”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이 ‘벌목(伐木)’이란 말을 ‘심정후의(深情厚誼: 깊고 두터운 정의情誼)의 전고(典故: 문헌상의 출처로 삼을만한 옛 일)’를 뜻하는 말로 삼았다.
 - b. 쟁(丁): “쟁쟁(丁丁)”의 약어로, 이는 「벌목(伐木)」편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擬聲語)로 사용한 것이다. 본 시에서는 본 시

편을 ‘씩씩하게 저렁저렁 소리를 내어 읊는다’는 의미로 쓰였다.

- 15) ① 협심(愴心) : 호소한 (혹족한) 심정. 만족하다
 ② 망주객(忘主客) : (어떤 일에 열중한 나머지) 주인이 누구이고 손님이 누구인지 구분하는 것도 없다.
- 16) ① 고운(高韻) : 고아한 시가(詩歌)
 ② 웅담령(聳瞻聆) : 쪽긋 귀를 기울이고 듣다
 a. 웅담(聳瞻) : 쪽긋 귀를 기울이다
 ④ 웅(聳) : 높이 세우다. 뻗뻗하게 세우다. 우뚝 솟다. 본 시에서는 ‘웅이(聳耳 : 귀를 쪽긋 세움)’의 뜻으로 쓰였으며, 주의해서 듣는 것을 형용한 말로, ‘귀를 기울이다’는 의미이다.
 ⑤ 담(瞻) : 귀가 늘어지다. 늘어진 귀. 본 시에서는 ‘귀를 늘어뜨리고, 즉 ‘귀를 기울이는 동작’을 형용한 말로 쓰였다.
 b. 령(聆) : 듣다
- 17) ① 장구(杖屨) :
 ☆원래의 뜻은 ‘지팡이와 신’이란 뜻이나, 전(轉)하여, ‘지팡이 짚고 걷다(보행하다, 만보漫步하다, 한가롭게 천천히 거닐다)’는 뜻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당(唐)나라 시인 두보(杜甫 : 712~770)의 시 「상부인(湘夫人 : 굴원屈原의 『구가九歌 · 산귀山鬼』에서 묘사된 산중여신山中女神)의 사당 남쪽에서 저녁노을 바라보면서(祠南夕望)」에, “유흥遊興이 일자 지팡이 짚고 서행하는데(興來猶杖屨), 시선 끝에서 가물거리니 더욱더 구름과 모래 사이 간격처럼 멀구나(目斷更雲沙).”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노인이나 존장(尊長)에 대한 경칭(敬稱)으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도 포괄하고 있다.
 ② 수제자(隨諸子) : 아들형제가 모시고 가다
 a. 수(隨) : 따라가다, 수행하다, 추종하다. 본 시에서는 ‘모시고 가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제자(諸子) : 공자(公子). 여러 형제. 아들 여러 형제.
- 18) ① 풍류(風流) : 걸출하고 비범하다, 뛰어나다, 영준(英俊)하다, 특출하거나 그러한 사람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축일청(屬一廳) : 한 대청에 모이다. 한 대청에서 회합시키다.
 a. 축(屬) : 모이다, 만나다, 회합하다, 취합하다
 b. 청(廳) : 빈객을 회합하거나 연회를 열거나 행례(行禮)를 하는 큰 방. 대청(大廳).
- 19) ① 팔룡(八龍) : 동한(東漢)의 명사(名士) 순숙(荀淑 : 83~149)의 아들 8형제를 칭하는 말이다. 순숙은 순욱(荀彧)의 조부이다. 『후한서(後漢書) · 순숙전(荀淑傳)』에, “〈순숙은〉 아들이 여덟이나 있었는데, 〈그 아들들 이름은〉 검검 · 곤緄(순욱의 부친임) · 정靖 · 도燾 · 왕汪 · 상爽 · 숙肅 · 부桴(부數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음)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명성이 자자하여, 당시 사람들은 이 ‘8형제’를 ‘팔룡八龍’이라 불렀다(有子八人, 儉、緄、靖、燾、汪、爽、肅、桴, 並有名稱, 時人謂之八龍).”고 한 대목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남의 아들형제나 ‘남의 형제’를 칭찬하는 말로 이 ‘팔룡(八龍)’이라는 말을 썼다. 본 시에서도 이 뜻으로 쓰였다. ‘팔 형

제'라고 표현하나, '아들형제'를 가리킨다.

② 구시좌(俱侍座) : 다 같이 (노인을 혹은 부친을) 좌석에 모셔놓다

20) ① 군옥(群玉) : 군옥(羣玉)으로도 쓴다. 서재(書齋)를 칭한다. '군옥(羣玉)'이란 이 말은 본래 전설상 고대 제왕들이 서책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후대에 와서는 이 말을 제왕의 진귀한 보물이나 서적·서화(書畵) 등을 보관하는 장소란 뜻으로 썼다. 본 시에서는 '서재(書齋)'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갱추정(更趨庭) : 교대로 부친의 가르침을 받다.

a. 갱(更) : 교대로(하다). 번갈아(하다). 본 시에서는 부사로 쓰였다.

b. 추정(趨庭) : 추정(趨庭)이라고도 쓴다. 아들이 '부친의 가르침을 받다.'는 뜻으로 쓰였다. 『논어(論語)·계씨(季氏)』편에, “진항(陳亢 : 진陳나라 사람, 자字는 자금子禽. 『공자가어(孔子家語)』에서는 공자 제자라고 했으나 『사기(史記)·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서는 그에 대한 기록이 없음)이 백어(伯魚 : 공자의 아들 鯉의 자)에게 묻기를, ‘그대는 아마도 남다른 가르침을 받은 바 있겠지요(陳亢, 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라고 하니, 백어가 대답하기를, 없습디다(對曰, 未也). 전에 <아버님께서 홀로 <당상堂上>에 서 계실 때, 이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정원을 지나가자, 아버님께서 물으시기를, ‘<너는 『시(詩)』를 배웠느냐?’라고 하시기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직 못 배웠습디다(嘗獨立, 鯉趨而過庭, 曰學『詩』乎? 對曰, 未也).’라고 하니, 그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시(詩)』를 배우지 않으면, 남과 대화를 나눌 때 응대할 수 없다.’고 하시기에, ‘저는 몰려나 『시(詩)』를 공부하였습디다(不學『詩』, 無以言, 鯉, 退而學『詩』).’”라고 한 구절이 있다. 훗날 사람들은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추정(趨庭)’이란 말을 ‘아들이 부친의 가르침을 받음’을 이르는 말로 썼다.

21) ① 산랑(散郎) : 관명(官名). 위(魏)·진(晉) 시대의 중랑(中郎)이나, 낭중(郎中) 등의 관리는 일정하게 규정된 직무가 없는 까닭에 일컬어진 관명이다.

② 신정수(神情秀) : 기색이 비범하다

22) 도의녕(道義寧) : 도의(道義)를 지켜 편안하다. 도의를 실천함으로 중심(衆心)을 편하게 하다.

23) ① 인간(人間) : 인간(人間)으로도 쓴다.

☆진세(塵世 : 속세), 세속사회(이 세상)

② 태사주(太史奏) : 태사(太史)는 왜야 상주(上奏)할 수 있다.

a. 태사(太史) : 관명이다. 서주(西周) 시대와 춘추시대(春秋時代)의 태사는 역사 기록과 사서(史書) 편집, 국정문서 초안 작성과 국가전적(國家典籍) 및 천문 역법(天文曆法 : 천체의 주기적 현상을 기준으로 하여 세시歲時를 정하는 방법) 등을 관리했다. 진한시대(秦漢時代)에는 태사령(太史令)이라고 칭했으며, 태상(太常 : 종묘예의宗廟禮儀를 관장하고 박사博士를 선시選試하던 관리)에 소속된 관직으로 천시(天時 : 자연현상을 기준으로 세시歲時를 정함)와 성역(星曆 : 천문역법)을 관장했다. 위진시대(魏晉時代) 이후, 국사편찬은 저작랑(著作郎)에게 돌아가고, 태사는 역법(曆法)만을 관장했다. 수대(隋代)에는 태사를 태사감(太史監)이라 개칭했으며, 당대(唐代)에는 다시 태사국(太史局)이라 개칭했고, 송대(宋代)에 와서는 태사국(太史局)·사천감(司天監)·천문원(天文院)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 원대(元代)에는 태사원(太史院)이라 개칭했다. 명청시대(明清

時代)에는 흠천감(欽天監)이라 개칭했으며, 국사 편찬의 직무는 한림원(翰林院)에 귀속되었던 까닭에 ‘태사’를 속칭 ‘한림(翰林)’이라고 불렀다.

- b. 주(奏) : 신하가 임금에게 진언(進言)하다, 아뢰다. 상주(上奏 : 임금께 아뢰)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24) ① 천상(天上) : 신선세계

② 소미정(少微停) : 미천해도 머무를 수 있다.

a. 소미(少微) : 미천하다

b. 정(停) : 머무르다, 체류하다, 묵다

25) 연규벽(聯奎壁) : 규성(奎星)과 벽성(壁星)이 연계하다.

a. 련(聯) : 연계(聯系)하다

b. 규벽(奎壁) : 이십팔수(二十八宿 : 하늘의 적도를 따라 그 남북에 있는 별들을 2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부른 이름) 중 규수(奎宿 : 규성奎星 : 28수宿 중 15번째 별자리. 초여름에 자오선을 지나며, 규성은 안드로메다 자리의 제타성(zeta)성 : 별자리 가운데 6번째로 밝은 항성恒性)임)와 벽수(壁宿 : 벽성壁星 : 이 28수의 14번째 별자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옛사람들은 이 이수(二宿)가 ‘문운(文運)’을 주체한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문원(文苑 : 문단文壇, 문학계)’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썼다.

26) ① 소회(昭回) : 성신(星辰 : 별)이 반짝이면서 회전하는 것을 이르는 말

② 제정(帝廷) :

☆고대천문학에서의 태미원(太微垣)을 가리키는 말이다. 태미원은 사자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별자리이다. 자미원(紫微垣 : 자궁紫宮 : 자미궁紫微宮 : 큰곰자리를 중심으로 170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임) · 천시원(天市垣 : 뱀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별자리)과 더불어 삼원(三垣)이라 부르며, 이 별자리를 천자(天子)에 비유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27) 임백옥(臨白屋) : 허술한 초가집에 비치다.

a. 림(臨) : (빛을) 밝게 비추다, (빛이) 비치다

b. 백옥(白屋) : 지붕이나 기둥에 아무런 도색(塗色)도 하지 못하고 원래의 자재(資材)가 그대로 드러난 집을 가리킨다. 일설에는 백묘(白茅 : 띠 : 벼과의 여러해살이 풀)로 지붕을 이은 집을 가리킨다. 곧 ‘고대에 평민이 살던 집, 허술한 초가집’을 의미한다.

28) ① 가기(佳氣) : 아름다운 운기(運氣 : 구름이 움직이는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고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상서로움과 번창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아름다운 풍광을 가리키기도 한다.

② 동청명(動靑冥) : 푸른 하늘에 떠가다

a. 동(動) : (구름이) 흘러가다, 떠가다

b. 청명(靑冥) : 푸른 하늘. 청색이 유원(幽遠 : 심오하고 아득함)함을 형용한 말이다. 또는 아래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그러한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이 ‘청명(靑冥)’이란 말로서 ‘청천(靑天)’, ‘선경(仙境)’, ‘산악(山岳)’, ‘창해(滄海 : 푸른 바다)’, ‘대나무와 수목(樹木)’이 우거진 모양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29) ① 일체(一體) : ‘하나같이, 일률적으로’의 뜻으로 쓴다.

- ② 교무간(交無間) : 서로 사귀에 간격을 두지 않는다. 즉 서로 허물없이 잘 지낸다.
- 30) ① 삼재(三才) : ‘천[하늘] · 지[땅] · 인[사람](天地人)’을 가리킨다. 『주역(周易) · 설괘전(說卦傳)』 하(下)에, “옛날에 성인이 『주역』을 창작할 때, <그것을 가지고> 만물의 성질과 자연 명운의 변화하는 규율을 순합順合하였다(昔者聖人之作『易』也, 將以順性命之理). 그래서 하늘의 도리를 설정하여 ‘음陰’과 ‘양陽’ 두 분야가 있다 했고, 땅의 도리를 설정하여 ‘유柔’와 ‘강剛’의 두 분야가 있다 했으며, 사람의 도리를 설정하여 ‘인仁’과 ‘의義’ 두 분야가 있다고 했다(是以立天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주역』을 창작한 사람은 삼획三畫의 팔괘八卦 부호 ‘☰ ☷ ☲ ☵ ☴ ☶ ☱ ☳’ 중에서) 천 · 지 · 인의 상징으로 각 양괘兩卦(즉 천天은 ‘음陰과 양陽’, 지地는 ‘유柔와 강剛’, 인人은 ‘인仁和 의義’)씩 거듭된 것을 포개어 합한 까닭에, 『주역』의 패체卦體는 반드시 육획六畫을 구비해야 비로소 일괘一卦를 형성한다(兼三才而兩之, 故『易』六畫而成卦).”고 한 대목이 있다.
- a. 재(才) :
『주역(周易) · 계사전(繫辭傳) 하(下)』에, “(『주역』이란, 책은 광대하여 모든 이치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 책안에) 하늘의 도리가 갖추어져 있고, 땅의 도리가 갖추어져 있으며, 사람의 도리가 갖추어져 있다(有天道焉, 有地道焉, 有人道焉). <삼획三畫의 팔괘八卦 부호 중에서> 천 · 지 · 인의 상징으로 각 양 兩씩 거듭된 것을 포개어 합한 까닭에, 육획六畫의 패卦가 출현한 것이다(兼三才而兩之, 故六).”고 한 대목이 있다. ‘삼재(三才)’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나왔다. ‘천(天 : 하늘) · 지(地 : 땅) · 인(人 : 사람)’을 ‘삼재(三才)’라고 한다함은 앞에서도 언급했거니와 이때의 ‘재(才)’는 ‘재(材 : 자질資質, 본성本性)’와 통한다. 『예기(禮記) · 학기(學記)』편에, “오늘 날의 교육자는 ……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 자신의 자질本質을 다해서 교육하지 않는다(今之教者, …… 教人不盡其材).”고 한 대목이 있다. 후한(後漢)의 학자 정현(鄭玄 : 127~200)은 이 문장을 주석하여 말하기를, “‘재材’는 ‘도(道 : 만물의 본질)’이다(材, 道也). ‘삼재三才’는 ‘천도(天道 : 천리天理 : 음양의 이치 : 천지자연의 이치), 지도(地道 : 강유剛柔의 이치 : 대지大地의 특징과 규율), 인도(人道 : 인의仁義의 이치 : 사람이 준수해야 할 도덕규범)’를 이르는 말이다(三才, 謂天地人之道).”고 하였다. 본 시에 서도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이불명(理不暝) :
☆도리에 어긋나지 않다.
☆이치규명에도 몽매(蒙昧)하지 않다.
- 31) 조차회(造次會) : 창졸간의 회합, 총망중에 개최하는 회합
① 조차(造次) : 창졸간에, 별안간, 총망히, 분주히, 황망히
- 32) ① 개(蓋) : 부사로 쓰여, ‘대개, 대략, 아마’의 뜻이다.
② 고청(高聽) : 경사(敬詞 : 경어敬辭 : 경어敬語 : 높임말, 존댓말)로서, ‘타인의 청문(聽聞 : 귀로 들음. 청각. 들음)’을 청하는 말이다. 곧 ‘청취(聽取)’의 높임말이다. ‘귀측(貴側)의 청취. 들으시다, 청취하시다’는 말로 번역된다.
- a. 고(高) : 경사(敬詞)로, ‘귀하의’, ‘귀측의’ 뜻이며, ‘고성(高姓 : 존성尊姓, 귀성貴姓)’ 등이 그 예이다.
- 33) 동강은(桐江隱) : 동강(桐江) 강변에 은거하는 은사로, 동한(東漢)의 은자인 엄광(嚴

光: BC 39~AD 41)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후한(後漢)을 세운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 BC 5~AD 57)와 동학(同學)한 사이였는데, 광무제가 즉위한 뒤에 세 차례나 그를 초빙했으나 끝내 이에 응하지 않고, 동강(桐江) 강변에 숨어 낚시질로 낙을 삼았다. (『후한서(後漢書)·고사전(高士傳)』에 보임)

*엄광(嚴光: BC 39~AD 41): 본성(本姓)은 장(莊)인데, 후인(後人)들은 한 명제(漢明帝) 유장(劉莊)을 휘자(諱字)를 피하여, 그 성(姓)을 바꾸어, 일명 준(遵)이라고 칭하였다. 자(字)는 자릉(子陵)이고, 회계(會稽)의 여요(余姚: 지금의 절강성 여요시余姚市)사람으로 엄릉(嚴陵)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후한의 광무(光武)가 제위에 오르기 전에 함께 공부하던 사이였는데, 광무가 즉위하자 변성명을 하고 동려(桐廬) 부춘강변(富春江邊)에서 매일 낚시를 하며 지냈다. 그러자 광무가 물색 끝에 그를 찾아내어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제수하였으나 이를 받지 않고 부춘산(富春山)에서 여생을 마쳤다. (『후한서(後漢書) 권83·일민열전(逸民列傳) 제73』에 보임)

- a. 동강(桐江): 절강성(浙江省) 중부에 있는 부춘강(富春江)의 상류이다. 즉 전당강(錢塘江)의 주류가 건덕시(建德市) 매성진(梅城鎭)에서 동려현성(桐廬縣城)까지 흐르는 구간의 강을 동강(桐江)이라고 한다.

- b. 은(隱): 은사(隱士) 건덕(建德)

34) ① 장비(長悲): 늘 그리워하다

- a. 장(長): 오랫동안, 항상, 늘
- b. 비(悲): 그리워하다

- ② 초택(楚澤): 옛 초(楚)나라 땅에 ‘운몽(雲夢)’ 등 일곱 곳의 호택(湖澤: 호수와 못)이 있었던 까닭에, ‘초택’은 일반적으로 ‘옛 초국(楚國) 땅’이나, ‘옛 초국 땅에 있는 호택’을 가리킨다.

- ③ 성(醒): 깨닫다. 알아차리다.

35) ① 하연(何緣): 어떻게,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무슨 까닭으로

- ② 제뢰몽(帝賚夢): 제왕이 호택(湖澤)을 하사하다.

- a. 제(帝): 천자, 황제, 군주, 군왕
- b. 뢰(賚): 하사(下賜)하다

- c. 몽(夢): 일반적으로 ‘몽(夢)’은 ‘꿈 또는 꿈을 꾸다’는 말로 쓰이나, 본 시에서는 ‘호택(湖澤: 호수와 못)’의 뜻으로 쓰였다.

○ 호택(湖澤: 호수와 못).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초사(楚辭)·초혼(招魂)』편에, “군왕과 함께 운몽택(雲夢澤)을 향해 달리면서, 선후의 순위를 가렸지(與王趨夢兮, 課後先).”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후한(後漢)의 학자 왕일(王逸: 89?~158)은 『초사장구(楚辭章句)』에서 이 문장을 주석하기를, “‘몽(夢)’은 ‘호택(湖澤: 택중澤中: 호수)’이다(夢, 澤中也). 초나라 사람들은 ‘택중(澤中)’, ‘몽중(夢中)’이라고 칭하였다(楚人名澤中爲夢中).”고 하였다.

36) ① 무고(無故): 아무런 까닭이 없다. 그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없다.

- ② 발문성(發聞腥): 비란내가 나다(풍기다)

- a. 발문(發聞):

○ 전파(傳播: 전하여 널리 퍼뜨림)하다. 현양(顯揚: 명성을 세상에 드러냄)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비란내가〉 나다. 풍기다’는 뜻으로 쓰였다.

- b. 성(腥) : (생선, 고기 등의) 비린내(가 나다)
- 37) ① 보패(寶貝) : 귀중하고 친애하는 자에 대한 애칭. 주로 어린이나 젊은 후배들에게 쓰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귀한 청년들’로 번역한다.
- ② 수장해(愁藏海) : 가슴에 찬 수심이 바다같이 심대(深大)하다.
- a. 수(愁) : 수심(愁心). 걱정(하다)
- b. 장(藏) : 심중에 품다, 간직하다
- c. 해(海) : 바다같이 심대하다. 본 시에서는 ‘해수(海水)처럼 극히 깊고 많은 것’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 38) ① 화류(驂驪) : ‘화류(驂驪)’로도 쓴다. 주목왕(周穆王 : 생몰년 미상)의 팔준마(八駿馬)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준마(駿馬)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쓴다.
- a. 화(驂) : 준마
- b. 류(驪) : 준마. ‘류(驪)’와 동자(同字)이다.
- ② 기재경(棄在垌) : 교외에서 버리다
- a. 기(棄) : 내버리다, 포기하다. 본 시에서는 ‘(수심을) 말끔히 정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재(在) : …에, …에서
- c. 경(垌) : 성 밖의 들, 교외
- 39) ① 치의(緇衣) : 고대에 검은 색 비단으로 만든 조복(朝服 : 조정 대신이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예복禮服)을 말한다.
- ② 천재의(千載意) : 변함없는 충심
- a. 천재(千載) : 천년. 세월이 장구(長久)함을 형용한 말이다.
- b. 의(意) : 생각, 의사, 마음, 견해. 본 시에서는 충심(忠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40) ① 탄식(嘆息) : 찬탄(讚歎 : 찬탄贊嘆 : 칭찬하여 감탄함)하다.
- ② 일허정(一虛亭) : 홀로 텅 빈 정자에서
- a. 일(一) : 홀로
- b. 허정(虛亭) : 텅빈 정자, 사심(私心)을 비운 정자

시5. 와룡암행 臥龍菴行

詩5. 臥龍菴行¹⁾ 와 룡 암 행



廬山高哉幾千仞²⁾,
여 산 고 재 기 천 인

여산廬山은 높기도 하지
몇 천척이나 될꼬!

遠磨蒼翠凌紫穹³⁾.
원 마 창 취 등 자 궁

저 멀리서 뒹눕힌 청록 산봉
우뚝우뚝 높이 솟았네.

上有千尺銀波傾⁴⁾,
상 유 천 척 은 파 경

하늘에는 일 천척一千尺
기나긴 은하수 흐르고,

下有百丈蛟螭宮⁵⁾.
하 유 백 장 교 리 궁

땅에는 일백장一百丈 긴 긴 교룡蛟龍
암반 이어졌네.

何年造物騁神巧⁶⁾,
하 년 조 물 빙 신 교

조물주가 언제
신비로운 솜씨를 펼쳤는지,

石竇隱隱潛黃龍⁷⁾.
석 두 은 은 잠 황 룡

석동石洞에 찰찰 흐르는 냇물 소리
황룡이 잠복했나보네.

細看鱗甲欲飛動⁸⁾,
세 간 인 갑 욱 비 동

비늘 같은 물결 자세히 보니
용이 비상하는 듯,

千古萬古奔波中⁹⁾。
천 고 만 고 분 파 중

천년만년 옛적부터 (저리) 세치에 흘러왔겠지.

謫仙一去山寂寞¹⁰⁾，
적 선 일 거 산 적 막

재학才學 출중한

은사隱士 다녀간 뒤 산은 적막하지만,

奇觀勝賞誰能窮¹¹⁾。
기 관 승 상 수 능 궁

기이한 경치 감상 누구인들
마다하겠는가.

流傳一夕忽有遇¹²⁾，
유 전 일 석 홀 유 우

해질녘에 잠시 다니다가
홀연히 만난 사람 있었으니,

先生杖履來秋風¹³⁾。
선 생 장 리 래 추 풍

선생은 지팡이 짚고 거닐며
추풍 씌고 있었네.

臨流磅礴不能去¹⁴⁾，
임 류 방 박 불 능 거

냇가에 오니 시냇물 쿵쿵 흘러
건널 수 없는 지라,

俯仰今古多悲哀¹⁵⁾。
부 앙 금 고 다 비 충

지난 세월 곱곰이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슬프네.

佳名遙憶漢丞相¹⁶⁾，
가 명 요憶 한 승 상

높은 명성의 인사人士 회고하면
한승상漢丞相인데,

好事寄與西原翁¹⁷⁾。
호 사 기 여 서 원 웅

선행善行 기여 많이 한 인물은
서원옹西原翁일세.

數椽精舍靜且深¹⁸⁾，
수 연 정 사 정 차 심

몇 간의 정사精舍 고요하고도 그윽한데,

一幅遺像藏龕籠¹⁹⁾。
일 폭 유 상 장 감 룡

한 폭의 유상遺像이
감실龕室 안 죽기竹器에 봉안되어 있네.

仙翁釋子亦相携孤尋獨眺²⁰⁾，
선 웅 석 자 역 상 휴 고 심 독 조

도사와 승려 도반道伴하여

(각자의) 도력道力으로 조망하다가

往往吐氣如長虹²¹⁾。
왕 왕 토 기 여 장 홍

왕왕 원기元氣 발산하면
그 정기精氣 무지개처럼 펼친다네.

當年夫子濟世志²²⁾，
당 년 부 자 제 세 지

왕년에는 남아로서
세상 구제의 뜻도 지녔지만,

一起雷雨開鴻濛²³⁾。
일 기뢰 우 개 홍 몽

돌연 천둥 치고 폭우 내려
세상이 망망해졌다네.

如何一官便歸來²⁴⁾，
여 하 일 관 편 귀 래

어찌다 줄곧 관직에 있다
사직하고 돌아와서,

欲與魚鳥甘長終²⁵⁾。
욕 여 어 조 감 장 종

물고기며 새와 더불어 삶을 길이
함께 하려는고!

天高慘慘白日遠²⁶⁾，
천 고 참 참 백 일 원

하늘은 높이 침침하여 양광陽光은
멀기만 한데,

九廟漠漠烟塵蒙²⁷⁾。
구 묘 막 막 연 진 몽

종묘宗廟는 정적에 잠겨 막막한 채
연진烟塵에 싸여있네.

大聲三叫龍不起²⁸⁾，
대 성 삼 규 용 불 기

목청 높여 삼차 절규했으나
응은 꿈쩍도 않았으니,

堪嗟已矣行天功²⁹⁾。
감 차 이 의 행 천 공

아하! 그만두자,
자연의 조화로 행해지는 것임에라.

1) 외룡암행(臥龍菴行) : 악부시

- ① 외룡암(臥龍菴) : ‘외룡암(臥龍巖) 부근의 초옥(草屋)’이란 뜻으로 무흘정사(武屹精舍)를 말한다. 본 정사는 「한강선생연보(寒岡先生年譜) 권1」에 의하면, 한강(寒岡) 정구(鄭逵 : 1543~1620) 선생이 1604년(선조 37, 62세)에 성주에서 서쪽으로 지례(知禮)와 거창(居昌)의 경계에 위치한 수도산(修道山) 속에 지은 집이다. 당시에 초가로 3칸을 지었으며, 산이 깊고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곳 무흘정사의 옛터인 무흘강도지(武屹講道址 : 시도기념물 제168호)는 무흘구곡

(武屹九曲) 중, 제7곡(第七谷) 만월담(滿月潭)과 제8곡(第八谷) 와룡암(臥龍巖) 사이에 있으며, 이의 현재 주소지는 경북 김천시(金泉市) 증산면(甞山面) 평촌리(坪村里)이다. 와룡암(臥龍菴)이 있었던 자리에는 와룡암(臥龍巖)이라는 암반이 있었기 때문에 와룡암(臥龍菴)이라는 이름을 취한 것이다.

*무흘9곡(武屹九曲):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는 중국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의 사상을 호모하여, 주희의 ‘무이9곡(武夷九曲: 중국 복건성福建省에 있는 9개 굽이의 계곡. 일찍이 송나라 주희가 구곡가九曲가를 지은 데서 나온 말임)’을 본떠 자신만의 9곡(九曲)을 설정하고 ‘무흘9곡’을 지었다. 이 무흘9곡은 김천(金泉) 수도산(修道山)의 계류인 대가천(大伽川: 가야산伽倻山 북서쪽에서 발원하여 성주군星州郡 수륜면修倫面을 거쳐 운수면雲水面을 관류貫流함) 계곡에 주희의 9곡 경영을 차운하여 자신만의 9곡을 설정하였다. 한강(寒岡)의 9곡은 경북 성주군(星州郡) 수륜면(修倫面)에서 김천시(金泉市) 증산면(甞山面)에까지 걸쳐 있다. 제1곡(第一谷)은 봉비암(鳳飛巖)이고, 제2곡은 한강대(寒岡臺), 제3곡은 선암(船巖: 주암舟巖: 배 바위), 제4곡은 입암(立巖: 선바위), 제5곡은 사인암(捨印巖), 제6곡은 옥류동(玉流洞), 제7곡은 만월담(滿月潭), 제8곡은 와룡암(臥龍巖)이고, 제9곡은 용추폭포(龍湫瀑布)이다. 그는 9곡의 매 굽이마다 주제를 부여하고 관념적으로 상징화하여 9곡의 경관을 도학의 근원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당시 사대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정구(鄭逑: 1543~1620):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로 본관은 청주(淸州)이며, 자는 도가(道可)이고, 호는 한강(寒岡)이며, 성주(星州) 출신이다. 이황(李滉)·조식에게서 성리학을 배웠다. 그의 관직은 통천군수·우승지·강원도 관찰사·충주부사·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학문세계는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경서(經書)·병학·의학·역사·천문·풍수지리 등 모든 분야에 통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예학은 특출하였다. 그의 저서는 『오선생예설분류(五先生禮說分類)』·『심경발휘(心經發揮)』·『고금충모(古今忠謨)』 등 다방면에 걸쳐 여러 권의 저서가 있다. 인조반정 이후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성주의 회연서원(檜淵書院) 등 여러 서원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② 행(行): 이는 악부(樂府)의 편명(篇名)의 하나이다.

**역자주석: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선생이 읊은 본 시의 시제(詩題), 「와룡암행(臥龍菴行)」과 동일한 시제로 읊은 시가 또 있다. 이 시는 역시 조선 중기의 문신인 백암(柏巖) 김록(金玞: 1540~1616) 공이 읊은 「와룡암행(臥龍菴行)」이다. 이 시는 시제만 같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거의 동일하다. 세 구(句)에 걸쳐 네 자(字)가 다를 뿐이다. 두 분은 고향도 같은 안동(安東)이고,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문인이란 점에서도 동일하며, 동일한 시대에 생존했을 뿐 아니라, 처한 직분은 달랐지만 두 분 모두 왜적 토벌과 치안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으며, 학식과 품성 또한 당대의 대표적인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가 양가(兩家)의 문집에 각자의 명의로 수록되어 있어, 역자가 지금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추정컨대, 이는 후세인들이 자료수집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후일, 서예시(西厓詩) 연구자의 고찰에 기대를 해본다.

***김득(金玢: 1540~1616)**: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예안(禮安). 자는 희옥(希玉), 호는 백암(柏巖)이다. 이황(李滉: 1501~1570)의 문인이다. 그의 관직으로 영월군수·안동부사·경상우도관찰사·대사성·이조참판·대사헌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충성스럽고 의기 있는 선비들에게 국가의 뜻을 알리고 외적을 토벌하도록 장려하였으며 기근이 든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애썼다. 영친의 구산서원(龜山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백암문집(柏巖文集)』이 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민절(敏節)이다.

2) ① 여산고재(廬山高哉): 여산은 참으로 높구나.

a. 여산(廬山): 고대에는 남장산(南障山)이라고 불렀다. 일명 광산(匡山)이라고도 하고 광려산(匡廬山)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구강시(九江市) 남쪽에 위치한다. 파양호(鄱陽湖)와 장강(長江) 기슭에 우뚝 솟았으며 산맥은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이어졌으며 이 산으로 이어진 산맥의 길이는 25리이고 폭은 10리이다. 최고봉은 한양봉(漢陽峯)으로 해발 1474m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산봉으로 향로봉(香爐峰)·오로봉(五老峰)·천상봉(天上峰) 등이 있다. 이 산은 삼면이 강호(江湖)에 연접해 있어 산수경관이 극히 아름다우며, 산에는 깎아지른 듯이 높은 암벽과 낭떠러지와 청천(淸泉)과 폭포 같은 명승지가 많음을 기록했다. 저명한 명승고적으로 동굴 백록동(白鹿洞)과 선인동(仙人洞)이며 폭포로 절경을 이룬 호수 같은 샘 삼첩천(三疊泉)과 풍경이 극히 수려한 골짜기인 함과구(含鄱口) 등을 기록했다. 현대 중국의 유명한 유람 명승지이다.

본 시에서의 ‘여산(廬山)’은 한강(寒岡)이 읊은 ‘무흘구곡(武屹九曲)’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가야산(伽倻山: 최고봉은 상왕봉象王峰으로 1430m)을 비유하여 읊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주석 1)의 ① ‘와룡암(臥龍菴)·무흘구곡’을 참조 바람.

b. 재(戡): 어기조사로서, 감탄, 의문, 반문, 기대이나 명령 혹은 금지, 긍정 등을 표시한다. 본 시에서는 ‘감탄’을 표시하는 뜻으로 쓰였다.

② 기천인(幾千仞): 몇 천척이나 될꼬!

a. 기(幾): 의문대명사로서 ‘몇, 얼마’의 뜻인데, 이 ‘기(幾)’가 대신해서 묻는 숫자는 일(一)에서 구(九)까지이나, 십(十), 백(百), 천(千) 등의 앞과 십(十)의 뒤에 쓰이기도 한다.

b. 인(仞): 고대에 길이의 단위로서, 7척(七尺: 일곱자)을 ‘1인(一仞)’이라고 했다. 일설에 의하면, ‘8척(八尺: 여덟 자)’을 ‘1인(一仞)’이라고도 했다.

3) ① 원마(遠磨): 아득히 멀리서 뒤엎히다.

② 창취(蒼翠): 청록색, 심청색. 본 시에서는 ‘그런 색깔의 산봉(山稜)의 산봉(山峯)’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능자궁(凌紫穹): 우뚝우뚝 하늘 높이 솟아있다.

a. 림(凌): ‘오르다, 올라가다’의 뜻이나, 본 시에서는 산이 하늘 높이 솟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자궁(紫穹): 하늘, 창공

**역자주석: 본 시구를 백암(柏巖) 김득(金玢) 공은 “애애창취 능자궁(靄靄蒼蒼

翠凌紫霄 : 뭉게뭉게 구름 뚫고 청록 산봉 하늘에 닿았네)”이라고 읊었다.

*애애(靄靄) :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양을 형용한 말로, ‘뭉게뭉게’로 번역한다.

4) 상유천척(上有千尺銀波傾 : 하늘에는 일 천척—千尺 가나긴 은하수 흐르고) :

**역주주석 : 본 시구의 ‘파(波)’자(字)가 본고의 텍스트인 『서예전서(西厓全書)』에는 ‘파(派)’자로 표기되어서, 편집상의 오류로 보고 ‘파(波)’자로 바로 잡는다.

① 상유천척(上有千尺) : 하늘에는 가나긴 …이 있다

a. 상(上) : 하늘

b. 천척(千尺 : 일천 자) : 극히 깊거나 높거나 긴 것을 이르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은하수의 길이가 일천척이나 되는 것을 형용한 말로 쓰였다.

② 은파경(銀波傾) : 은하수가 비스듬히 흐른다.

a. 은파(銀波) :

○ 은하(銀河 : 천구天球 위에 구름 떠 모양으로 길게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천체의 무리). 본 시에서는 이 ‘은하수’란 뜻으로 쓰였다. 천하(天河), 천강(天江)이라고도 한다.

b. 경(傾) : 기울다, 경사지다. 본 시에서는 ‘(강물이) 비스듬히 흐르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5) ① 하유백장(下有百丈) : 땅에는 일백장(一百丈)의 긴긴 …이 있다.

a. 하(下) : 땅

b. 백장(百丈) : 극히 높거나, 깊거나, 먼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길이가 일백 장이나 되는 암반을 형용한 말로 쓰였다.

④ 장(丈) : 길이의 단위로, 1장(一丈)은 10척(十尺 : 3.33m)이다.

② 교리궁(蛟螭宮) : ‘교룡(蛟龍)의 궁궐’이란 뜻인데, 본 시에서는 암반으로 하천바닥을 이룬 무흘구곡(武屹九曲) 중의 제8곡인 와룡암(臥龍巖)을 비유하여 표현한 말이다. ‘와룡천(臥龍川)의 모습 자체가 흡사 한 마리의 용이 었드려 머무는 곳인 듯하다’는 의미에서 ‘교리궁(蛟螭宮)’이라 명명(命名)하여 비유적으로 읊은 것이다.

a. 교리(蛟螭) :

○ ‘교룡(蛟龍)’과 같은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일반적으로는 ‘수족(水族)’을 가리켜 쓰는 말이기도 하다.

④ 교(蛟) : 용(龍)의 일종으로 상상상의 동물이며 홍수를 일으킨다고 한다.

⑤ 리(螭) : 전설상의 동물로서, 뿔이 없는 용을 ‘리(螭)’라고 한다.

○ 교룡(蛟龍)은 고대 전설상의 두 종류 동물로서, 깊은 물속에 산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교(蛟)’는 홍수를 낼 수 있고, ‘용(龍)’은 운우(雲雨)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용 중에 비늘이 있는 것을 ‘교룡’이라 하고, 날개가 있는 것을 ‘응룡(應龍)’이라 하며, 뿔이 있는 것을 ‘규룡(虯龍 : 규룡虯龍)’이라 하며, 뿔이 없는 것을 ‘이룡(螭龍)’이라고 한다.

6) ① 조물(造物) : 조물주(造物主) : 만물을 창조하는 신

② 빙신교(騁神巧) : 신비롭고 교묘한 솜씨를 펼치다

a. 빙(騁) : 퍼다, 펼치다

b. 신교(神巧) : 신비롭고 교묘하다

7) ① 석두(石竇) : 석혈(石穴) : 석동(石洞) : 암반에 뚫린 동굴

- a. 두(竇) : 동굴, 공혈(孔穴 : 구멍)
- ② 은은(隱隱) : 의성어(천둥, 포성砲聲, 수레 소리 등을 형용한 말). 본 시에서는 와룡암(臥龍巖) 계곡을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를 형용하였으며, ‘찰찰’로 표현한다.
- ③ 잠황룡(潛黃龍) : 황룡이 잠복해 있다.
- a. 잠(潛) : 잠수하다, 잠복하다
- b. 황룡(黃龍) : 고대 전설상의 동물명칭.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와룡암(臥龍巖)의 계곡을 흐르는 하천수를 비유한 말로 쓰였다. 참위가(讖緯家 : 미래의吉凶화복의 조짐이나 앞일에 대하여 예언하던 사람)는 이것을 제왕의 서징(瑞徵 : 좋은 징조)이라고 생각했다.
- 8) 인갑(鱗甲) : 어패류(魚貝類)의 비늘과 갑각(甲殼 : 껍질).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수면(水面)의 물결을 비유한 말로 썼다.
- 9) ① 천고만고(千古萬古) : ‘아주 먼 옛날’을 가리킨다. ‘천년만년’으로 번역한다.
- ② 분파중(奔波中) : (넷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다.
- a. 분파(奔波) : 세찬 물결, 넷물이 세차게 흐르며 이는 파도. 본 시에서는 와룡암(臥龍巖)의 계곡에 ‘넷물이 세차게 계속 흐른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중(中) : 본 시에서는 ‘동사 + 中’의 형태로 상태가 지속중임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 10) ① 적선(謫仙) : ‘적선(謫僊)’이라고도 쓴다.
☆세간(世間)에 격거(謫居 : 귀양살이 함)하는 선인(仙人). 초범절군(超凡絕群 : 비범하여 무리 속에서 특히 빼어남)하고 사재(詞才 : 글 짓는 재주)가 있는 사람, 재학이 뛰어난 사람을 찬양할 때 상용하는 말이다. ‘글재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번역한다. 본 시에서는 한강(寒岡) 정구(鄭逵 : 1543~1620) 선생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일거(一去) : 잠시 떠나다. 한 번 다녀가다
- 11) ① 기관(奇觀) : 보기 드문 경상(景象 : 경치)
- ② 승상(勝賞) : 아름다움을 관상(觀賞)하다, 아름다움을 보면서 즐기다, 창쾌(暢快 : 마음이 시원하고 유쾌함)한 관상
- a. 승(勝) : 사물이 아름다움을 형용한 말
- ③ 수능궁(誰能窮) : 누가 마다하겠는가(싫다고 하겠는가)?
- a. 궁(窮) : 멈추다, 그치다, 두절(杜絕)하다
- 12) ① 유전(流傳) : 여기저기(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 ② 일석(一夕) : 잠시 해질녘에
- 13) ① 선생(先生) : 본 시구의 ‘선생’은 한강(寒岡) 정구(鄭逵 : 1543~1620) 선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강연보에 의하면, 62세 당시는 충주목사(忠州牧使)에서 사임하고 귀향한 상태였다.
- ② 장리(杖履) :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것을 이르는 말.
- ③ 래(來) : 동사의 앞이나 뒤에서 ‘구체적인 동사 대신에 쓰인 자(字)’이다. 본 시에서는 ‘추풍(秋風)을 쐬다’ 또는 ‘(추풍이) 불어오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14) ① 임류(臨流) : 냇가에 오다(이르다)

- ② 방박(磅礫): 기세가 성대한 모양. 수세(水勢)가 거친 모양을 표현한 말로 쓰였다.
 ‘(넋물에) 거세게 팔팔 흐르다’로 번역된다.
- **역지주석:** 위의 싯구를 백암(柏巖) 김득(金玔) 공은 “임류반박 불능거(臨流盤礫不能去: 냇가에 이르니 시냇물 거세게 흘러 건널 수 없는지라).”라고 읊었다.
- *번박(盤礫):** 광대하다, (도량) 넓다, (산세山勢가) 웅대하다, 웅위하다, (건물이) 웅장하다, (수세水勢가) 거세다. 김득 공의 본 싯구는 ‘수세水勢가 거세다’는 뜻으로 쓰였다.
- 15) ① 부앙금고(俯仰今古): 지난 세월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a. 부앙(俯仰): 심사숙고하는 모양. ‘곰곰이 생각하다’로 번역한다.
 b. 금고(今古):
 ○ ‘과거·예전’의 뜻으로만 쓰기도 한다. 전(轉)하여, ‘지나간 인간사’와 ‘흘러간 세월(시간)’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 ② 다비충(多悲衷): 마음이 몹시 슬프다
 a. 충(衷): 마음, 생각, 심중
- 16) ① 가명(佳名): 높은 명성, 미명(美名: 명예스런 이름)
 ② 요억(遙憶): ‘회억(回憶)’과 같은 말이다. 회고(回顧)하다, 회상하다,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다
 ③ 한승상(漢丞相): 한(漢)나라 승상. 본 시에서는 촉한(蜀漢)의 승상인 공명(孔明) 제갈량(諸葛亮: 181~234)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17) ① 호사(好事): 좋은 일. ‘선행(善行)’으로 표현한다.
 ② 서원옹(西原翁): ‘청주정씨(淸州鄭氏) 정구(鄭逵) 공’을 가리키는 말이다.
 a. 서원(西原): 첫째, 지금의 충북(忠北) 청주시(淸州市)의 옛 지명이다. 둘째, 서원(西原)이란 이 지명을 본 시에서는 ‘본관(本貫)’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청주정씨(淸州鄭氏)’의 ‘청주(淸州)’를 옛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b. 옹(翁): ‘옹(翁)’은 옛날에, ‘조부’와 ‘부친’ 및 ‘외삼촌’을 칭하는 말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관계(官界)에서 존칭으로 쓴 말’이기도 했고, ‘연장자(年長者)’ 또는 ‘노인에 대한 존칭’으로 쓰기도 했던 말이다. 주로 성(姓)이나 성명 또는 호(號) 뒤에 써서 존칭을 표시하는데, 본 시에서는 본관 뒤에 써서 특징인을 암시하였다. 본 시에서는 한강(寒岡) 정구(鄭逵) 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18) ① 수연(數椽): (집) 몇 간(間). 본 시의 시제(詩題)와 연계시켜 볼 때, 본 시에서의 ‘수연(數椽)’은 ‘몇 간(間)의 초가’를 가리킨다.
 a. 연(椽): 집(가옥, 건물)의 ‘간수(間數)’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의 ‘간(間)’은 ‘초가삼간(草家三間: 세 칸 밖에 안 되는 초가집)’이라고 할 때의 ‘간(間)’으로서, 그 뜻은 ‘집이나 건물의 넓이를 재는 단위로서, 양사(量詞)’이다.
- ② 정사(精舍): ‘학문을 닦거나 독서를 하는 곳’으로서, ‘학교, 학사(學舍)’의 뜻이며, 본 시에서는 ‘무흘정사(武屹精舍)’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③ 정차심(靜且深): 고요하고도 조용하다
- 19) ① 일폭(一幅):
 ☆수량을 표시하는 말로서, 포백(布帛)이나 지장(紙張: 등나무 껍질로 실을 뽑아 봉

제한 휘장) 또는 도화(圖畵) 등을 셀 때 쓰는 ‘한 폭(幅)’이란 뜻의 말이다.
 ☆경물(景物: 풍경)의 어느 한 쪽 광경을 가리켜 “한 폭의 그림 같다”고 할 때, 쓰는 말이다.

② 유상(遺像): 유상(遺象)이라고도 쓴다.

****역주석:** 본 시에서의 ‘유상(遺像)’은 본 시의 시제(詩題)가 「와룡암행(臥龍菴行)」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촉한(蜀漢)의 승상인 공명(孔明) 제갈량(諸葛亮: 181~234)의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③ 장감룡(藏龕籠): 감실(龕室)의 죽기(竹器)에 보관해 두다.

a. 장(藏): 보관하다

b. 감(龕): 감실(龕室). 사당(祠堂) 안에 신불(神佛)이나 신주(神主)를 모셔두는 석실(石室)이나 장(藏: 장롱)

c. 룡(籠): 대바구니[죽기(竹器)의 총칭], (비교적 큰) 대상자. 본 시에서는 유상(遺像)을 모신 죽기(竹器)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20) ① 선옹(仙翁): 남성(男性) 신선을 칭하는 말. 선인(仙人). 본 시에서는 ‘도사(道士)’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석자(釋子): ‘승도(僧徒: 수행하는 중의 무리)’의 통칭으로, ‘석가(釋迦)의 제자’란 뜻에서 취한 말이다.

③ 상휴(相携): ‘상휴(相携)’로도 쓰며, ‘상반(相伴: 상호 동반함)’하다, ‘상호부축하다’는 뜻이다. 본 시에서는 ‘서로 도반(道伴)으로 하다’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본 시구에서의 “휴(携)”자를 백암(栢巖) 김륙(金玞) 공의 ‘시’에서는 “휴(攜)”자로 썼다. 두 지는 음·의(音義)가 모두 동일하다.

④ 고심독조(孤尋獨眺): 각자의 독특한 도력(道力)으로 탐구하다가 먼 산을 조망(眺望)하다.

21) ① 왕왕(往往): 부사로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따금, 흔히, 때때로” 등의 뜻이다.

② 토기(吐氣): 원기(元氣)를 토해내다(발산하다)

③ 장홍(長虹): 긴 무지개

22) ① 당년(當年): 왕년(往年), 석년(昔年)

② 부자(夫子): 고대에 남자에 대한 존칭으로 쓰던 말

③ 제세지(濟世志): 구세(救世)의 의지, 세상을 구제하려는 의지

23) 일기뇌우 개홍몽(一起雷雨開鴻濛: 돌연 천둥치고 폭우 내려 눈앞의 세상 망망해졌다네):

****역주석:** 본 시구는 임진왜란을 은유하여 읊은 것으로 보인다.

① 일기(一起): 일단(一旦: 하루아침에, 돌연) 발생하다, 일단 흥기(興起)하다

② 개홍몽(開鴻濛): (눈앞의 천지가) 망망(茫茫)해지다

a. 개(開): 전개되다, 펼쳐지다, 개시(開始)하다

b. 홍몽(鴻濛): 홍몽(鴻蒙)으로도 쓴다.

○(연무가) 몹시 자욱하여 광대하게 아득한 모양. ‘망망하다’는 뜻이다.

④ 홍(鴻): 성(盛)하다, 강하다

⑤ 몽(濛): (연무가) 자욱하다

24) ① 여하(如何): 왜, 어째서

② 일관(一官): 줄곧 관직에 있다

- ③ 편귀래(便歸來) : 문득 사직하고 돌아오다
 a. 편(便) : 문득
 b. 귀래(歸來) : 돌아오다, 떠났던 곳 혹은 고향으로 돌아오다.
- 25) ① 어조(魚鳥) : 물고기와 새. 대체로 은일(隱逸)의 경물(景物)을 가리킨다.
 ② 장종(長終) : 영구(永久)하다, 영원하다. ‘길이(오랜 세월 지나도록)’로 번역한다.
- 26) ① 침침(慘慘) : 혼암(昏暗 : 어두움)한 모양, 어두운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침침하다’로 번역된다. ‘참(慘)’은 ‘참(黫)’과 통한다.
 ② 백일원(白日遠) : 양광은 멀기만 하다.
 a. 백일(白日) : 태양, 양광
 b. 원(遠) : 멀다, 요원하다
- 27) ① 구묘(九廟) : 제왕의 종묘(宗廟 : 역대 제왕과 황후의 위패를 모시던 황실의 사당)를 가리킨다. 고대 제왕은 종묘를 설치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신주(神主)를 모시는 데는 차례가 있었다. 제왕은 태조(太祖)의 위패를 중앙에 모시고, 2세·4세·6세는 ‘소(昭)’라 하여 왼편에 위패를 모시고, 3세·5세·7세는 ‘목(穆)’이라 하여 오른 편에 그 위패를 모셔서, 태조를 포함하여 삼소(三昭 : 삼소묘 三昭廟)·삼목(三穆 : 삼목묘 三穆廟)의 ‘칠묘(七廟)’를 모셨다. 왼쪽에 위치한 소묘(昭廟)는 오른 쪽의 목묘(穆廟)보다 윗대에 속하므로 소묘(昭廟)를 ‘조묘(祖廟)’라 칭하고 오른 쪽의 목묘(穆廟)를 ‘친묘(親廟)’라 칭했다. 또한 ‘소(昭)’와 ‘목(穆)’을 아울러 칭하여 ‘소목(昭穆)’이라 하는데, 이 말은 ‘고대 종법제도(宗法制度)’로서 종묘나 종묘에 신주를 모시는 배열순서’란 뜻으로 쓴다. 그런데전한(前漢) 말엽, 자신이 융립한 평제(平帝)를 독살하고 황위를 찬탈하여 국호를 ‘신(新)’으로 명명한 정치가 왕莽(王莽 : BC 45 ~ AD 23)이 소목(昭穆)의 위패를 각각 1세씩 첨가하여 모셨으니, 소(昭)는 사묘(四廟)로 하여, 2세·4세·6세·8세까지 제사를 모셨고, 목(穆)은 사묘(四廟)로 하여, 3세·5세·7세·9세까지 모셨다. 여기에 태조의 묘(廟)를 더하니 도합 9묘(九廟)가 된 것이다. 이후, 역대 왕조는 모두 이 9묘의 예를 답습하였다.
 ② 막막(漠漠) : 정적(靜寂)이 감돌아 소리가 없는 모양
 ③ 연진몽(烟塵蒙) : 연무(烟霧)와 먼지에 싸여있다.
 a. 연진(烟塵) : 연진(煙塵)으로도 쓴다.
 ○ 연무(烟霧)와 먼지, 또는 연기와 먼지
 b. 몽(蒙) : 덮혀 가리다, 침침하다(밝지 않다)
- 28) ① 대성(大聲) : 본의(本意)는 ‘큰 목소리’이나, 본 시에서는 ‘크게 목청을 높이다’로 전용(轉用)하였다.
 ② 삼규(三叫) : 삼규(三叫)로도 쓴다. 세 번 크게 목청을 높여 외치다.
 **역주주석 : 본 시에서는 ‘서애의 사직상소를 시사(示唆)한 표현인듯 하다. 「서애 연보」 무술년(戊戌年) 조항에 의하면, 1598년 9월 명(明)나라 감찰관 정응태(丁應泰)가 자국(自國)의 경리(經理) 양호(楊鎬)를 울산성 전투를 승전으로 허위보고 했다는 것을 탄핵하자, 선조가 이에 양호를 변호하고자 서애에게 명(明)에 다녀 올 것을 명했다. 그러나 서애는 ‘이는 명나라 내부의 문제일 뿐 조선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 하여 거절했다. 그런데, 당시 대북파(大北派)의 실세였던 이이첨(李爾瞻)은 엉뚱하게도 이 사건이 있는 즉시 명나라에 변무(辨誣)를 위

한 사신을 보낼 것을 주청하여 서애가 사신으로 자청하지 않은 것을 탄핵하였다. 이에 서애는 사직을 청했고 선조는 응낙하지 않았다. 복인은 계속하여 탄핵 상소를 냈고 선조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대간들의 상소는 더욱 격렬해졌고 상소의 내용도 더욱 발전하여 주화오국(主和誤國)의 누명예다가 부정축재까지 추가하였다. 서애는 수차에 걸쳐 사직상소를 올리다가 마침내 동문 밖으로 처소를 옮기고 선조의 처분을 기다렸다. 그리하여 그 해 10월 8일에 영의정 자리에서 물러났고 11월 19일에 임난(壬亂) 7년 전쟁이 끝이 났으며 이 날 선조는 서애를 파직시켰다.

- a. 삼(三): 정수(定數) ‘삼(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많은 수’를 뜻한다. ‘여러 차례’로 번역한다.
- b. 규(呬): 규(呬)의 속자(俗字)로서 ‘큰 소리로 외치다’는 뜻이며, 본 시에서는 사직에 대한 상주(上奏)를 칭한 것으로 보인다.

③ 용불기(龍不起): ‘용이 일어나지 않다’로, 이는 ‘선조 임금의 서애의 사직상소문에 대한 비답(批答)을 내리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a. 용(龍): ‘왕’을 대칭한 것이다.
- b. 불기(不起): 몸을 일으키지 않다. 본 시에서는 왕이 서애의 ‘사직상소문’에 비답(批答)을 내리지 않는 것을 함축한 말이다.

29) ① 감차이의(堪嗟已矣): 탄식을 건넨다.

- a. 감차(堪嗟): 감탄사로서 비탄해 하고 슬퍼하고 상심함을 표현한 말로 쓴다. 본 시에서는 ‘아하’로 번역한다.
 - ㉠ 감(堪):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기에 족하다, 건디다
 - ㉡ 차(嗟): 탄식하다, 차탄(嗟歎)하다는 말로 쓴다. 자세한 뜻은 위의 주석 ‘감차(堪嗟)’ 조항을 참조 바람.
 - b. 이의(已矣): 끝내다, 끝마치다
- ② 행천공(行天功): 자연의 조화 속에서 행해지다.
- a. 행(行): 거닐다, 행하다(행해자다)
 - b. 천공(天功): 천지자연의 조화



시6. 순창성 順昌城에서 올린 승전보

詩6. 順昌奏捷¹⁾

순창주첩

南渡中興日²⁾,
남도중흥일

장강長江 이남으로 천도하여
남송왕조 건립한 시기에,

何人第一功。
하인제일공

어떤 사람의 공로가 가장 컸을꼬?

臨危須利器³⁾,
임위수리기

위기에 직면하면 걸출한 재능이
반드시 필요하고,

濟亂拔孤忠⁴⁾。
제란발고충

변란을 구제하려면 절조 있는
충정忠貞인사도 발탁해야 하네.

受命防河外⁵⁾,
수명방하외

(송고종宋高宗은) 황하 동북부와 서부를
방어하란 (선황제의) 명을 받고,

行師駐楚中⁶⁾。
행사주조중

출국出國해서는 옛 초국楚國 땅에
주둔해버렸네.

天心遲悔禍⁷⁾,
천심지회화

군주 마음에서 재화災禍 퇴치를 주저하자,

賊勢更誇雄⁸⁾。
적세강과웅

(금군金軍의) 외침外侵 세력은
영웅행세 더욱 과시했네.

羽檄朝來急⁹⁾,
우 격 조 래 급

(송군宋軍의 군영軍營에는) 깃털 꽃은
긴급 격문 새벽부터 속달했으나,

寒城夕閉空¹⁰⁾。
한 성 석 폐 공

추운 날 성곽에는 날 저물자
성문 닫고 고요하네.

陰雲連磧黑¹¹⁾,
음 운 연 적 흑

먹구름 끼자 급류하는
여울 물빛 검게 보이고,

烟火照江紅¹²⁾。
연 화 조 강 홍

봉화烽火불빛 비치자
강 물빛 붉게 물드네.

勇激如無敵¹³⁾,
용 격 여 무 적

(송군宋軍의) 용사들이 격노하자
필적할 맛수 없는 것 같았고,

誠多不有躬¹⁴⁾。
성 다 불 유 공

충정심이 뛰어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네.

沈舟心早決¹⁵⁾,
침 주 심 조 결

배가 침몰하자
심중에 이미 결단 내리고,

毒草計還工¹⁶⁾。
독 초 계 환 공

독초계毒草計 실행하자면 계책
직사관職事官에게 반환했다네.

豈畏靴尖趯¹⁷⁾,
기 의 화 첨 약

어찌 군화발로 걷어차이는 걸
두려워했겠나만,

難回馬首東¹⁸⁾。
난 회 마 수 동

말머리를 동북쪽으로
돌리기는 어려웠다네.

超乘人怒氣¹⁹⁾,
초 승 인 노 기

말 타고 내달으며
용사들은 노기 등등 했고,

磨劍女編戎²⁰⁾
마 검 여 편 용

검 갈아서 여인들은 병장기를
순차대로 배열해놓네.

夜寨囂聲合²¹⁾
야 채 효 성 합

밤이 되자 병영兵營으로
웁자지결 집합했지만,

平原虜技窮²²⁾
평 원 노 기 궁

(낮에) 평원에선 적들에게
갖은 수단 다 썼다네.

拋戈橫紫塞²³⁾
포 과 횡 자 새

병장기 놔두고 북방요새로 건너와서,

鳴凱動蒼穹²⁴⁾
명 개 동 창 궁

개선가를 부르니
푸른 하늘도 감동했다네.

社稷勳庸大²⁵⁾
사 직 훈 용 대

사직社稷을 위해
세운 공훈이 지대했나니,

江淮道路通²⁶⁾
강 회 도 로 통

장강長江에서 회하淮河까지
가는 길이 뚫렸다네.

羣胡愁破竹²⁷⁾
군 호 수 파 죽

호족胡族들을 파죽지세로
몰아낼 방도 근심하자,

列帥盡趨風²⁸⁾
열 수 진 추 풍

장수들은 모두 질풍같이 달려왔다네.

露布歸唐殿²⁹⁾
노 포 귀 당 전

(하지만) 당나라 궁전 있던 곳에서
선전포고 하고 돌아가서,

軍書策漢宮³⁰⁾
군 서 책 한 궁

한漢나라 궁전 있던 곳에서
전략협의 했다네.

尙憐行在遠³¹⁾
상 려 행 재 원

더구나 가련한 것은 (황제가)
행재소行在所를 멀리 옮겼는데도,

將見舊員同³²⁾。
장견구원동

장수가 보기에 세습관원 수는
동일하단 것일세.

誰謂搖樞極³³⁾，
수위요추극

누가 나라의 천추天樞와
북극성을 흔들라고 했단고!

居然蔽帝聰³⁴⁾。
기연폐제총

분명 황제의 총명을 흘뜨려놨음일세.

九關呼不達³⁵⁾，
구관호부달

조정에서 외쳐 봐도
뜻이 통하지 않는데,

中道事無終³⁶⁾。
중도사무종

그 와중渦中에도 전란은
끝없이 일어나네.

運去謀臣死³⁷⁾，
운거모신사

국운이 다해서인지 지모智謀있는 신하 죽자,

時危國是誼³⁸⁾。
시위국시홍

시국은 위태롭고 국책國策은
혼란에 빠졌네.

至今餘義烈³⁹⁾，
지금여의열

이때까지 충의忠義 높고
지조 굳은 사람 남아있어,

應作射天虹⁴⁰⁾。
응작사천홍

곧바로 활동하자 반역행위 꺾을했다네.

1) 순창주첩(順昌奏捷) : 순창성(順昌城)에서 올린 승전보(勝戰譜). 순창 지역에서 일어난 송·금(宋金) 양국간의 전쟁결과, 승전하여 순창성에서 올린 보고란 뜻이다.

① 순창(順昌) : 본 시에서는 ‘순창성(順昌城)’을 가리킨다. 이곳은 ‘순창부(順昌府 : 북송 정화 6년(政和六年 : 1116년)에 영주潁州를 개칭하여 설치한 관청으로, 관할 경계는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부양시阜陽市와 태화현太和縣, 영상현潁上縣 및 임천현臨泉縣 등의 시市, 현縣을 포괄하는 지역이었다)’의 주재소이며, 지금의 안휘성 부양시 관내에 위치하였다.

**역지주석 : 순창지전(順昌之戰 : 순창지역順昌之役 : 순창지역에서의 전투)

▶ 전쟁 배경

1125년 금태종(金太宗 : 1075~1135 : 금나라의 황제. 여진족女眞族 완안부完顔

部 사람으로 본명은 ‘오걸매릇乞買’였으나 ‘성晟’으로 개명하여, ‘완안성完顔晟’으로 불림이 송(宋)을 공격하여 북송의 수도 변량(汴梁: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개봉시開封市: 전국시대戰國時代 위魏의 수도로 대량大梁이라 칭했으며, 수·당隋唐 시대의 번주汴州였음)을 포위하자, 송회종(宋徽宗: 1082~1135: 북송의 8대 황제로 신종神宗의 아들임)은 두려워하며 태자 조환(趙桓)에게 선위(禪位)하니, 곧 송흠종(宋欽宗: 1100~1161)이다. 금군(金軍)이 변량(汴梁)을 공격할 때, 북송의 주전파(主戰派) 이강(李綱: 1083~1140: 자는 백기伯紀 호는 양계梁溪, 송고종宋高宗 때의 재상으로 시문을 잘 지었으며 유·불이고 일치론儒佛二教一致論을 주장하였음)에게 격패당하기도 하였으나, 북송은 결국 굴욕적인 조약 체결에 동의하였고, 금군은 북귀(北歸)하였다.

1126년, 금나라 왕조는 다시 완안종간(完顔宗幹: 1079~1136: 금나라와 종실宗室로서 본명은 점물갈粘沒喝, 점한粘罕이라고도 함)을 파견하여, 두 노선으로 갈라 송을 공격하여 그 병력이 재차 변량성 아래 주둔하였으나, 그 이전에 송흠종은 이미 이강을 재상직에서 파면했던터라 금군에 항전할 장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금군은 또다시 변량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회종과 흠종 두 황제를 비롯하여 수 천 명의 황실인사를 포로로 납치하여 북귀(北歸)하면서 북송은 멸망하였다. ‘정강년간(靖康年間: 1126)에 벌어진 변란’이라 하여, 이것을 사칭(史稱) ‘정강지변(靖康之變)’이라 한다.

1127년, 금나라 왕조가 북송을 멸망시킨 후에, 요행히 납치를 면한 송 회종의 아홉째 아들 강왕(康王) 조구(趙構)가 남경(南京: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상구현商丘縣)에서 웅립되어 황제가 되니, 이를 사칭(史稱), 고종(高宗: 1107~1187)이라 하고, 이로써 남송이 건립되었다. 금나라 조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송나라 조정의 잔여조직을 멸하기 위해 다시 파병하여 남침하니, 송 고종은 두려움에 떨며 줄곧 남쪽으로 도망치다가 건강현(建康縣: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남경시南京市)까지 이르렀다. 동시에, 송금전쟁(宋金戰爭)서 항금대오(抗金隊伍)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종택(宗澤: 1059~1128, 자는 여림汝霖) 같은 애국자가 금군에게 완강히 저항하면서 황하에서 출격하여 금군을 격파하기도 했다.

1130년(건염 4년建炎四年), 금나라 장수 완안율술(完顔兀術: 완안종필(完顔宗弼: ?~1148: 금나라 태조 아골타阿骨打的 넷째 아들: 본명은 간철율술斡喙兀術이라고도 하고 간출출이라고도 쓰며 황간출물출이라고도 쓰며 황간출물출이라고도 함)이 송나라 장수 종택의 사후에 다시 남침하였으나 황천탕지전(黃天蕩之戰: 황천탕黃天蕩에서 벌어진 전투. 황천탕은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남경시 북쪽 장강長江 구간임)에서 한세충(韓世忠: 1089~1151. 자는 양신良臣, 만호晩號는 청량거사淸涼居士)에게 패하고, 화상원지전(和尚原之戰: 화상원에서 벌어진 전투. 화상원은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보계시寶鷄市 서남 35리임)과 요봉관지전(繞鳳關之戰: 요봉관은 지금의 섬서성 석천현石泉縣 북쪽 요봉령繞鳳嶺임) 및 선인관지전(仙人關之戰: 선인관에서 벌어진 전투. 선인관은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휘현徽縣 남쪽 10리 지점의 가릉강嘉陵江 주변임)에서 남송의 대장 오개(吳玠: 1093~1139. 호는 사열思烈, 별명은 오진경吳晉卿)에게 누차 패하는 등 금나라 전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건염년간(建炎年間: 1127~1130)에 벌어진 전투라 하여 중국 역사에

서는 이를 ‘건염지전(建炎之戰 : 건염전쟁)’이라 칭한다.

1135년(소흥 5년紹興五年), 금군(金軍)은 장방창(張邦昌 : 1081~1127 : 1126년 금군이 변경汴京을 함락했을 때 금군에 의해 대조大楚란 국명을 내걸고 황제로 책봉되었으나 궁정宮政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사사賜死 되었음)과 유예(劉豫 : 1073~1146 : 금나라 조정에서 황제로 책봉하고 국명을 대제大齊라 칭하며, 금군을 유인해 송군을 공격했으나 실패했음. 1137년에 폐위되어 촉왕蜀王이 되었다가 훗날 조왕曹王으로 개봉改封되었음) 같은 한족(漢族)을 송황제로 책봉하여 괴뢰정권을 수립해서 이한치한(以漢治漢 : 한족으로 한족 나라를 통치하게 함)을 기도했으나, 실패하면서 금군(金軍)의 허약한 정황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고종(宋高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신 진희(秦檜 : 1090~1155)와 모의하여 부단히 금나라에 화의를 청하였다. 금나라 통치자는 전쟁하지 않고 남송을 굴복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금군(金軍) 자체에도 휴식과 정비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1139년(소흥 9년紹興九年) 정월에 남송과 화친조약을 맺었다. 그 내용은 송나라는 금나라에 국도를 할양하는 동시에 거액의 배상을 하며 금(金)에게 칭신(稱臣)을 하는 것이었다. 당시, 송 황제는 화친조약을 경하(慶賀)하면서 다수에게 관직을 주고 승진을 시키고 있을 때, 금군은 1년이 채 안되어 전쟁준비를 완료하면서, 화친조약을 폐기하고 1140년(소흥 10년紹興十年) 5월에 군대를 네 갈래 길로 나누어 재차 남침전쟁을 발동했다. 금나라 대장은 완안올술(完顏兀術)이었으며, 전선은 동부의 회수(淮水) 하류에서 서부의 섬서성(陝西省)에까지 이어졌다. 남송 통치자는 금군의 공격에 대하여 방비책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하남성과 섬서성의 지방 관원들은 대부분 괴뢰정권 대제(大齊)의 관리였던 터라, 금군이 공격해오자 줄줄이 금군에게 투항했던 까닭에 금군의 초기 형세는 기세등등 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악비(岳飛 : 1103~1142, 자는 봉거鵬舉) · 유기(劉錡 : 1098~1162, 자는 신숙信叔) · 한세충(韓世忠 : 1089~1151, 자는 양신良臣, 만호晩號는 청량거사淸涼居士) · 오린(吳玠 : 1102~1167, 자는 당경唐卿, 오개吳玠의 동생임) 등 장수들이 주동하는 남송 군민(軍民)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여 금군의 진격기세가 저지되었다. 그 중에서 유기(劉錡)가 지휘한 순창보위전(順昌保衛戰)이 가장 뛰어나다. 중국 역사에서는 소흥년간(紹興年間 : 1131~1162)에 벌어진 전쟁이라 하여, ‘소흥전쟁(紹興戰爭 : 소흥지전紹興之戰)’이라 칭한다.

㉠ 순창지전(順昌之戰 : 순창지역順昌之役 : 순창지역에서의 전투)

순창전쟁은 남송초기 항금(抗金)에 대한 중요전쟁 중의 하나이다. 저명한 항금 장수 유기(劉錡)가 지휘한 이 전투는 역사적으로 가장 저명한 소수 병력으로 대군을 격파한 성읍방어(城邑防禦) 전쟁이었다. 남송군(南宋軍) 병력은 1만 8천명이었고, 금군(金軍)은 10만이었다. 전체 전투결과를 놓고 볼 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단계는 1140년 5월 25일에서 6월 1일까지 6일간 3차 전투를 거치면서 금군의 선봉부대를 깨멸시켰다. 둘째 단계는 6월 7일에서 6월 12일까지 6일간 유기는 성 안의 군민(軍民)을 거느리고 금장(金將) 완안올술(完顏兀術)이 친히 지휘하는 금군의 주력부대와 결전을 전개하여 순창보위전의 최후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를 사칭(史稱) ‘순창지역(順昌之役)’이라 한다.

(이상은 ‘정강지변靖康之變’과 ‘건염지전建炎之戰’ 및 ‘소흥지전紹興之戰’, 그리고 ‘순창지전順昌之戰’에 관한 자료는, 진치평陳致平 저, 『중화통사中華通史 제6권·제2장·제1절 남송과 금·몽고(南宋與金及蒙古)』 조항과 ‘중국 바이뉘백과百度百科’를 참조함)

- ② 주첩(奏捷): 제왕에게 첩보(捷報: 승전보勝戰譜)를 올리다. 또는 ‘제왕에게 올린 승전보’란 뜻이다.
- 2) ① 남도(南渡): 남천(南遷)과 같은 말이다. 진원제(晉元帝: 276~322: 사마예(司馬睿). 동진東晉의 황제. 사마의司馬懿의 증손. 흉노족으로 16국 시대에 조趙나라 군주였던 유요劉曜가 장안을 함락하고 서진西晉이 망하자, 건강建康, 지금의 강소성 남경시로 천도하여 즉위하였음)와 송고종(宋高宗: 1107~1187: 성명은 조구趙構, 정강 2년(靖康二年: 1126)에 금군金軍이 휘종과 흙종을 포로로 잡아가지 남경南京으로 천도하여 즉위하였음)은 모두 장강長江을 건너 남방에서 건도(建都)하였던 까닭에, 이를 사칭(史稱) ‘남도(南渡)’라고 한다.
- ② 중흥(中興): 중도에 흥성하다, 쇠퇴한 국가나 집안이 중도에 다시 일어나다(일어나게 하다), 떨쳐 일으키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북송이 망하고 남송이 건국된 것을 가리킨다.
- ③ 일(日): 시기, 시대
- 3) ① 임위(臨危): (상황 등이) 위기에 직면하다
- ② 이기(利器): 예리한 무기 또는 정교한 공구(工具)라는 말인데, 본 시에서는 ‘걸출한 재능을 비유한 말’의 뜻으로 쓰였다.
- 4) ① 제란(濟亂): 변란(재난·위험 등)에서 구조하다
- ② 발(拔): 이탈하다, 떠나다, 벗어나다, 떨쳐 버리다
- ③ 고충(孤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외로이 바치는 충성, 충정(忠貞)의 공지를 지니고 있어, 남의 보살핌을 요구하지 않는 절조(節操)
- 5) 수명 방하외(受命防河外): 〈송고종宋高宗은〉 황하 동북부와 서부를 방어하란 〈선험제의〉 명을 받고):

****역주주석:** 본 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주석 1)의 ①에서 ‘순창지전(順昌之戰)의 전쟁배경’을 참조 바람
- ① 수명(受命): 천명(天命)을 받다, 고대 제왕은 자칭 천명을 받아서 제왕이 됐다가 나 그의 통치를 공고히 한다고 생각하였다.
- ② 하외(河外):

춘추시대(春秋時代) 진(晉)나라 사람들은 황하(黃河) 이북을 ‘하내(河內: 황하 안쪽지역)’라고 칭하고, 하서(河西: 황하서쪽)와 하남(河南: 황하남쪽)을 ‘하외(河外: 황하 바깥쪽 지역)’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진(晉)나라가 황하 이북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좌전(左傳)·회공 15년(僖公十五年: BC 645)』 조항에, “진후(晉侯: 진필나라 군주인 후작 진혜공晉惠公)가 진秦나라 군주에게 하남(河南: 황하남쪽)의 다섯 성城을 뇌물로 주기로 약속했다(〈晉侯〉賂秦伯以河外列城五).”고 한 대목이 있다. 이 문장에 대하여, 현대 중국의 언어학자 양백준(楊伯峻: 1909~1992)은 주석하기를, “하외河外 지역은 하서河西와 하남河南 지역을 가리키는데, 황하가 용문(龍門: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하진시河津市 서북과 섬서성陝西省 한성시韓城市 동북)에서 화음현(華陰縣: 지금의 섬서성 화음시華陰市)까지

는, 강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데, 진(晉)나라의 도읍지가 강(絳: 지금의 산서성 익성현翼城縣 동남) 땅에 위치하고 있었던 까닭에, 하서河西와 하남河南을 하외河外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河外, 指河西與河南, 黃河自龍門至華陰, 自北以南, 晉都於絳, 故以河西與河南爲外). 포신언(包慎言: 생몰년 미상)이 『하서고(河西考)』에서, “하서를 하외 라고 한 것이나(包慎言『河外考』以河西爲外), 서진西晉의 학자 두예(杜預: 222~284)가 하외河外를 하남河南이라고 주석 한 것은 모두 단지 한 가지의 편견일 따름이다(杜注以河外爲河南, 皆僅得其一偏).”고 하였다. 또한 전국시대(戰國時代) 위(魏)나라 사람들도 여전히 이 명칭을 답습하여 사용하면서, 하남과 하서지역을 ‘하외’라고 하였다. 『사기(史記)·위세가(魏世家)』편에, “진(秦)나라에 상실한 토지가, 화산華山 남북과 하남河南 하서河西 지역 및 하북河北 지역을 포함하여, 큰 현이 수십 개이고, 저명한 도시가 수백 곳이다(所亡於秦者, 山南山北, 河外河內, 大縣數十, 名都數百).”라고 한 대목이 있다. 여기서 말한 하외(河外)는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화양현(華陽縣)에서 하남성 섬현(陝縣)일대의 지역까지를 가리킨다. 역시 전국시대 조(趙)나라 사람들은 하남 지역을 ‘하외(河外)’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진(秦)나라 사람들은 하동(河東: 황하동쪽 지역)을 하외(河外)라고 칭하였다. 하동지역은 진한시대(秦漢時代)에는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서남부를 가리키고, 당(唐) 이후에는 대체로 지금의 산서성 전체를 가리킨다. 진(秦)나라는 황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지역의 서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하동(河東)이란 말을 쓴 것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주나라 4년(周赧王四年: BC 311)』 조항에, 위(魏)나라의 정치가 장의(張儀: ?~BC 310)가 말하기를, “양(梁)나라는 하동(河東: 황하동쪽 지역) 지역을 진(秦)나라에 넘겼습니다(梁效河外).”고 한 대목이 있다. 이 대목에 대하여 송말(宋末) 원초(元初) 시대의 송나라 학자 호삼성(胡三省: 1230~1302)은 주석하기를, “진(秦)나라는 아마도 〈황하서쪽에 위치했기에〉 하동河東을 하외河外라고 했고, 양(梁)나라는 〈황하동쪽에 위치했기에〉 하서(河西: 황하서쪽 땅)를 하외河外라고 했던 것이다(秦蓋以河東爲河外, 梁則以河西爲河外).”고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외(河外)’란 지명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황하를 기준으로 지역명칭을 표현하다가 보니, 왕조가 흥망함에 따라 각 왕조의 영토위치와 국경구역이 바뀐 까닭에 ‘하외(河外)’를 가리키는 지역이 다른 것이다. 북송 전성기의 ‘하외(河外)’는 대략 하동북(河東北: 황하 동북부)과 ‘하서(河西)’를 포괄한 지역을 가리킨다. 북송 북동부 영토가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대부분의 지역과 산서성(山西省)과 하북성(河北省)의 중남부 및 산둥성(山東省)을 포괄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 동북쪽에는 916년에 거란족(契丹族)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세운 요(遼)나라가 위치하고, 지금의 Ningxia(寧夏省)과 감숙성(甘肅省) 북부 지역은 1038년에 티베트계 당구트족[당항족黨項族] 탁발씨(拓跋氏)가 건립한 서하(西夏)가 위치하고 있었다.

- 6) 행사 주중중(行師駐楚中: 출병出兵해서 옛 조국楚國 땅에 주둔해버렸네):
- ① 행사(行師): 용병(用兵)하다, 출병(出兵)하다
 - ② 초중(楚中): 옛 초나라 땅이었던 곳에
 - a. 초(楚): 초나라. 시대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주석한다.
 -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초나라는 국세(國勢)가 강성해져서 강역(疆域)이 호

북(湖北)·호남성(湖南省)에서 확장되어, 지금의 하남(河南)·안휘(安徽)·강소(江蘇)·절강(浙江)·강서(江西)·사천(四川) 등 제성(諸省)을 포괄하여 통치했으며, 오패칠웅(五霸七雄) 중의 한 나라가 되었다. 본 시에서는 이 당시의 초나라 영역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서주(西周) 시대의 초나라는 웅역(熊繹)이 형산(荊山) 일대에서 건국했으며, 도읍지는 단양(丹陽: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자귀현秭歸縣 동남)이었다. 왕족의 성은 미(芈)씨이고 시조는 죽웅(鬻熊)이었다. 당시 주나라 사람들은 초나라를 형만(荊蠻)이라고 불렀다. 후에 영(郢: 지금의 호북성 강릉현江陵縣 북방의 기왕성紀王城) 땅으로 천도하였다.
- 전국시대(戰國時代) 말엽에는 국력이 다소 쇠약해져 누차 진(秦)나라에게 패하였으며, 진(陳: 지금의 하남성 회양현淮陽縣)으로 천도했다가, 다시 수춘(壽春: 지금의 안휘성 수현壽縣)으로 천도했다. BC 223년, 진(秦)나라에 멸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사기(史記)·초세가(楚世家)』편을 참조 바람)
- 진(秦)·초(楚)가 대립하던 시대에 진2세 원년(秦二世 元年: BC 209)에서 한 6년(漢六年: BC 201)까지의 8년간, 먼저 진승(陳勝: ?~BC 208)이 기현(蕲縣)에서 기병(起兵)하여 진현(陳縣)에 ‘장초(張楚)’라고 명명한 정권을 건립하고 자호(自號)를 초왕(楚王)이라고 하였으며, 후에 양강(襄彊: 생몰년 미상)과 경구(景駒: ?~BC 208) 및 웅심(熊心: ?~BC 205: 초희왕楚懷王) 역시 자칭 초왕이라고 했으며, 한원년(漢元年: BC 206)에는 항우(項羽: BC 232~202)가 자립하여 서초패왕(西楚霸王)이 되어 하비(下邳: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수영현睢寧縣 서북방)에 도읍했다가 한 6년(漢六年: BC 201)에 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문헌통고(文獻通考)·봉건 6(封建六)』편을 참조 바람)
- 초나라는 또한 오대시대(五代時代)에 십국(十國) 중의 하나였다. 마은(馬殷: 852~930)이 창건했다. 마은은 호남(湖南) 땅에 거주하면서 후량(後梁)으로부터 초왕에 봉해져서 장사(長沙: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장사시長沙市)에 도읍했으며, 그 강역(疆域)은 광서성(廣西省) 동부에까지 이르렀다. 남당(南唐)에 의해 멸망되었으며, 역대 여섯 군주가 재위하는 45년간(907~951) 국운이 존속했다. (자세한 내용은 『신오대사(新五代史)·초세가(楚世家)』편을 참조 바람)

b. 중(中):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로서 ‘명사+중’의 형태로 쓰여, ‘...에’의 뜻을 지니고 있다.

- 7) ① 천심(天心): 군주의 마음
- ② 지(遲):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망설이다.
- ③ 회화(悔禍): 가해진 재화(災禍)를 퇴치하거나 거두어들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8) ① 적세(賊勢): 역도나 역적의 세력 또는 그 형세. 본 시에서는 ‘외침세력’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과웅(誇雄): 영웅적 행세를 과시하다.
- 9) ① 우격(羽檄): 우서(羽書): 새의 깃을 꽂은 격문(檄文). 이는 고대 군사상의 문서로, 새의 깃을 꽂아서 긴급함을 알리는 까닭에, 반드시 신속하게 전해야 했다.
- a. 우(羽): 새의 깃, 새의 날개의 긴 털을 말한다.

- b. 격(檄): 문체명(文體名)으로, 옛 관부(官府)에서 징소(徵召: 징병徵兵)하거나 효유(曉諭: 효시曉示: 깨달아 알아듣도록 타이름) 하거나 성토(聲討)할 때 쓰는 문서를 ‘격(檄)’이라고 하는 동시에 그 문서의 문체(文體)를 ‘격(檄)’이라고도 한다. 곧 ‘격(檄)’은 ‘격문(檄文)’인 동시에 ‘격문의 문체’이다.
- ② 조래(朝來): 조신(早晨): 조조(早朝): 이른 아침, 새벽
- 10) ① 한성(寒城): 추운 날의 성곽
- ② 석폐공(夕閉空): 날 저물자 성문 닫고 고요하다
- 11) ① 음운(陰雲): 날이 흐릴 때의 구름, 하늘을 덮은 검은 구름, 검은 구름, 오운(烏雲: 흑운黑雲: 먹구름) 보다는 운색(雲色)이 얇은 검은 구름을 이른다. 그러나 의미상 역자는 ‘먹구름’이라 번역한다.
- ② 연적흑(連磧黑): 길게 이어져 급류하는 여울물 빛이 검다.
- a. 련(連): 이어지다, 연결하다, 연결하다. 본 시에서는 ‘길게 이어져 흐르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적(磧):
- 사석(沙石: 자갈) 위를 흐르는 얇고 빠르게 흐르는 물[급류].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여울물빛’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한서(漢書)·무제기(武帝紀)』에, “〈귀순한 월인越人〉 갑甲은 하회장군下瀨將軍이 되어, 창오蒼梧 지역을 정복했다(甲爲下瀨將軍, 下蒼梧).”고 한 대목이 있다. 당나라 학자 안사고(顔師古: 581~645)가 이 대목을 주석하기를, “복건(服虔: 생몰년 미상: 후한後漢의 학자)은 말하기를(服虔曰, 갑甲은 고향이 월越 땅인 사람으로서 한나라에 귀순한 자이다(故越人歸漢者也)’고 하였고, “신찬(臣瓚: 성씨는 알 수 없고 이름만 신찬이라 전해지는 서진西晉의 학자)은 말하기를 (臣瓚曰), ‘뢰(瀨: 자갈 위를 급류하는 얇은 여울)’는 ‘단(湍: 급류하는 얇은 여울물)’의 뜻으로(瀨, 湍也), 오吳·월越 땅에서는 ‘뢰瀨’라고 하는데(吳越謂之瀨), 중국에서는 그것을 〈급류하는 여울을〉 ‘적磧’이라고 한다(中國謂之磧).”고 하였다. 또한, “『오자서서(伍子胥書)』에 ‘하뢰선(下瀨船: 급류하는 여울물을 통해 적진을 공격하는 배로 여울물이 얇기에 배 밑바닥이 평평하며 쾌속선임)’이란 말이 나온다(伍子胥書有下瀨船).”고 하였다.
- c. 흑(黑): 검다. 본 시에서는 ‘여울물빛이 검게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12) ① 연화(烟火): ‘연화(煙火)’로도 쓰며, ‘봉화(烽火)’란 뜻이다.
- ② 조강홍(照江紅): (봉화발) 비추자 강물의 물빛이 붉게 물들다.
- 13) ① 용격(勇激): 용사들이 격노하다
- ② 여무적(如無敵): 필적할 맞수가 없는 것 같다
- 14) ① 성다(誠多): 충성심이 뛰어나다
- ② 유궁(有躬): 자기 자신을 돌보다
- a. 유(有): ‘우(右)’와 통하며, ‘우(佑: 보호함, 돌봄, 원조함, 지원함)’의 뜻으로 쓰였다. ‘돌보다’는 말로 해석한다.
 - b. 궁(躬): 신(身): 몸, 자기 자신
- 15) ① 침주(沈舟): ‘침주(沉舟)’로도 쓴다.
- ☆수중에 배가 가라앉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침몰된 배

- ② 심조결(心早決) : 심중에 이미 결단을 내리다.
a. 조(早) : 부사로 쓰였으며, ‘이미’의 뜻이다.
- 16) 독초계 환공(毒草計還工) : 독초계毒草計 실행하잔 계책 직사관職事官에게 반환했네) :
**역주주석 : 본 시구는 전장(戰場)에서 패전할 경우, 차라리 자진할지언정 결코 투항하지 않겠다는 병사들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① 독초계(毒草計) : 패전이 확실한 경우, 투항을 하느니, 차라리 독초를 먹고 자진하자는 계책
- ② 환(還) : 반환하다
- ③ 공(工) : 직사관(職事官) : 구체적인 정부政務를 관장하는 관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군률(軍律)을 관장하는 관리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17) ① 기외(豈畏) :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② 화첨악(靴尖惡) : 군화발로 날카롭게 걷어차이다.
a. 화(靴) : ‘화(韉)’로도 쓴다. 가죽신, 장화. 본 시에서는 ‘군화(軍靴)’의 의미로 쓰였으며, ‘군화발’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첨(尖) : 날카롭다, 예리하다
c. 악(惡) :
o(발로) 차다, 본 시에서는 ‘걷어차이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o(꺾꺾꺾꺾) 뛰다
- 18) ① 난회(難回) : 돌리기 (방향을 바꾸기) 어려웠다. 본 시에서는 ‘적군을 향해 진격하기 어려웠던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그 이유는 서쪽에 위치한 서하(西夏)의 침공에 의한 방어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다.
② 마수동(馬首東) : 말머리를 동쪽으로 돌리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머리를 동북쪽으로 돌리다’는 말로 번역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동(東)’은 ‘당시 송나라의 위치에서 볼 때, 적국인 요(遼)나라가 위치한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 현재 중국의 동북삼성(東北三省) 황하의 동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 19) ① 초승(超乘) : 치취(馳驟) : 말을 달림, 종횡무진 내달음, 힘껏 달림, 달음박질함)하다
② 인노기(人怒氣) : 용사들이 노기등등하다
a. 인(人) : ‘사람들, 백성’의 뜻이나, 특정한 어떤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며, 본 시에서는 ‘송나라 용사들’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노기(怒氣) : ‘성난 기색이나 기세’로서, 본 시에서는 ‘노기등등(怒氣騰騰 : 노하거나 성난 기운이 얼굴에 가득함)’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20) ① 마검(磨劍) : 검을 갈다. 본 시에서는 ‘검을 갈아 놓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여편용(女編戎) : 여인들은 병장기를 순차대로 배열했다.
a. 여(女) : 여인, 여성. 본 시에서는 ‘송나라 여인’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편(編) : 순차대로 배열하다
c. 용(戎) : 고대 병장기의 총칭
- 21) ① 야채(夜寨) : 야간 병영(兵營). 밤이 되자 병영에서는
a. 채(寨) :
o방위용의 목책(木柵) : 책란柵欄 : 울장). 주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주군처(駐軍處), 곧 병영(兵營)을 가리킨다.

- ② **효성합(囂聲合)**: 왁자지껄하며 집합하다
 a. **효성(囂聲)**: 왁자지껄한 소리, 떠들썩하는 소리
 b. **합(合)**: 회집(會集): 여러 사람이 한곳에 많이 모임하다, 취합(聚合: 모여서 합집)하다
- 22) **노기궁(虜技窮)**: 적들이 갖은 방법을 다 쓰다.
 a. **로(虜)**: 적을 가리키는 말. 반역(하다)
 b. **기궁(技窮)**: 갖은 방법(재능, 솜씨 등)을 다 쓰다
- 23) ① **포과(拋戈)**: 병장기를 버두다(놓아두다)
 a. **포(拋)**: 집어두다(내버려 두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버두다(놓아두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과(戈)**:
 ○ 창.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병장기’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전(轉)하여, 전쟁·전란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쓴다.
- ② **횡자새(橫紫塞)**: 북방의 국경요새를 건너오다
 a. **횡(橫)**: 횡도(橫渡: 강이나 바다를 건넌)하다, 횡월(橫越: 어떤 지점에서 다른 곳으로 가로 질러 건너감: 횡단합)하다
 b. **자새(紫塞)**: 북방의 국경요새, 북방의 변새(邊塞). 서진(西晉)의 관료출신 학자인 최표(崔豹: 생몰년 미상)의 저서 『고금주(古今注)·도읍(都邑)』편에, “진(秦)나라에서 건축한 만리장성은, 토색土色이 모두 자색紫色이고, 한(漢)나라가 축조한 요새 또한 그러한 토색인 까닭에, 〈진한秦漢 모두 북방에 위치했던 터라 북방의 요새를 ‘자새(紫塞: 자색토의 요새)’라 칭한 것이다(秦築長城, 土色皆紫, 漢塞亦然, 故稱紫塞焉).”고 한 대목이 있다.
 ④ **자(紫)**: 자색(紫色: 자주색)
 ⑤ **새(塞)**: 요새(要塞: 적의 침입을 방어할 만한 험준한 요해지),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든든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 또는 그런 시설을 한 곳
- 24) ① **명개(鳴凱)**:
 a. **명(鳴)**: 소리를 내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노래를 부르다’는 뜻으로 쓰였다.
 b. **개(凱)**: 승전기(勝戰歌), 전승의 환호성
- ② **동창궁(動蒼穹)**: 푸른 하늘을 감동시키다.
 a. **동(動)**: 감동시키다
 b. **창궁(蒼穹)**: 창천(蒼天): 창현(蒼玄): 창호(蒼昊): 창공(蒼空): 푸른 하늘
- 25) ① **사직(社稷)**: 고대 제왕이나 제후가 제사 지내는 토신(土神: 토지 신)과 곡신(穀神: 곡식 신). ‘사(社)’는 토신(土神)이고, ‘직(稷)’은 곡신(穀神)이다. 후세 사람들은 이 사직이란 말을 ‘국가’를 대칭하는 말로 썼다.
 ② **훈동(勛庸)**: ‘훈용(勛庸)’이라고도 쓰며, ‘공훈(功勳)’이란 뜻이다.
- 26) **강회(江淮)**: 장강(長江)과 회하(淮河). 본 시에서는 ‘장강에서 회하까지’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a. **강(江)**: 본 시에서는 ‘장강(長江: 양자강揚子江)’의 약칭으로 쓰였다.
 b. **회(淮)**: 본 시에서는 ‘회하(淮河: 회수淮水)’의 약칭으로 쓰였다.
- 27) ① **군호(羣胡)**: 북방과 서방의 여러 이민족
 a. **군(羣)**: ‘군(群)’으로도 쓰며, ‘많다’는 뜻이다.

- b. 호(胡): 고대 중국의 북방과 서방의 민족을 한족(漢族)이 칭하는 말로서, 북방의 말갈족(靺鞨族) 흉노족(匈奴族), 여진족(女真族), 거란족(契丹族)과 서방의 당항족(黨項族) 등이 그 예이다. 본 시에서는 당시 송나라와 교전을 벌였던 요(遼)나라의 민족인 거란족과 서하(西夏)의 민족인 당항족, 금(金)나라의 민족인 여진족, 원(元)나라의 민족인 몽고족(蒙古族) 등을 통칭하는 말로 쓰였다. 곧 호인(胡人)을 가리키는 말로 범칭(泛稱) 외국인을 가리킨다.
- ② 파죽(破竹): 대를 쪼개다. 형세를 쫓아 공략함이 순조로워 아무도 가로막지 못함(멈출 수 없음, 저지할 수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곧, 파죽지세(破竹之勢)와 같은 뜻이다.
- 28) ① 열수(列帥): 여러 장수들
 ② 진(盡): 부사로서 ‘모두, 전부, 다’의 뜻으로 쓰였다.
 ③ 추풍(趨風): ‘추풍(趨風)’으로도 쓴다.
 ☆바람이 불 듯 빨리 달려가서 (질풍같이 달려와서) 공격함을 표현하다.
 a. 추(趨): 질주하다, 빨리 가다
- 29) ① 노포(露布):
 ☆군려문서(軍旅文書: 군대에서 군사적인 업무로 쓰는 문서)로 쓰는데, 첫째, 정도(征討: 정벌)하면서, 격문(檄文)을 보낼 때의 문서, 즉 선전포고문을 이르기기도 하고, 둘째, 승전했음을 조정에 알리는 고첩문서(告捷文書: 승전했음을 알리는 문서)의 뜻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전자의 뜻으로 쓰였다.
 a. 로(露): 선포하다, 드러나다
 b. 포(布): 선포하다, 전파하다
- ② 당전(唐殿): 당나라 궁전. 본 시에서는 ‘당나라 궁전이었던 곳의 북송 최고 군영’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당나라는 이연(李淵: 566~635: 대무황제大武皇帝)과 그의 아들 이세민(李世民: 598~649: 태종太宗)이 창건한 나라로서, 도성(都城)은 장안성(長安城)으로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서북 13리에 위치했다. 당나라의 황궁(皇宮)은 태극궁(太極宮)을 위주로 했으며, 지금의 섬서성 서안성(西安城) 북부에 위치했다.
- 30) ① 군서(軍書): 전략협의를 하다
 ☆군사적(軍事的)인 문서, 본 시에서는 ‘전략협의를 하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군사(軍事)와 병법에 관한 책
- ② 책(策): 책략, 전략
- ③ 한궁(漢宮): 한(漢)나라 왕조의 궁전. 전(轉)하여 기타 왕조의 궁전을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역자주석: 본 시에서의 ‘한궁(漢宮)’은 ‘동한의 궁전’을 가리키고, 이는 다시 ‘남송(南宋)의 도성인 임안(臨安: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항주시杭州市)에 건립한 궁전을 비유하여 대칭(代稱)한 말’로 쓰였다. 북송(北宋) 태조(太祖) 조광윤(趙匡胤: 927~976)은 개봉(開封: 지금의 하남성 개봉시開封市)에 도읍을 정했으나, 금(金)나라에 밀려 남송의 고종(高宗) 조구(趙構: 1107~1187)가 남경(南京: 지금의 하남성 상주시商丘市)에 도읍을 정했다가 다시 임안(臨安: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항주시杭州市)으로 천도하였다.
- 31) ① 상련(尙隣): 더구나 불쌍히 여겨지는 것

- a. 상(尙): 부사로서, ‘또한, 게다가, 더구나’의 뜻으로 쓰였다.
 b. 런(隣): 불쌍히(가여이) 여기다
- ② 행재원(行在遠): 행재소(行在所)를 멀리 옮기다. 이 말은 곧 황제가 먼 곳으로 파친(播遷)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a. 행재(行在): 행재소(行在所): 천자가 (궁 밖에서) 소재(所在)하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b. 원(遠): ‘떠나다, 피하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파친(播遷: 임금이 도성을 떠나 피란하던 일)’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32) ① 장(將): 장수
 ② 견(見): …라고 생각하다
 ③ 구원(舊員): 세족관원(世族官員)의 수(數)
 a. 구(舊): ‘세족(世族: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을 가리킨다. 곧 세습(世襲)과 같은 말로 보면 되겠다.
 b. 원(員):
 ○인원(人員)의 수, 사람의 수효
 ○관원의 정원(定員)
- 33) 요추극(搖樞極): 천추(天樞: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와 북극성의 위치를 좌우로 흔들다는 뜻으로, 국가 중추권력의 균형을 깨뜨리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불충한 언행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였다.
 a. 요(搖): (좌우로) 흔들다
 b. 추극(樞極): 두추(斗樞: 천추天樞: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와 북극성, 국가의 중추 권력을 비유하는 말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㉔ 추(樞): 추성(樞星):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
 ㉕ 극(極): 북극성(北極星)을 가리킴
- 34) ① 거연(居然): ‘현연(顯然: 분명함, 명백함, 현저함)’함을 형용한 말
 ② 폐제충(蔽帝聰): 황제의 총명을 가려 막다
 a. 폐(蔽): 폐색(蔽塞: 가려 막음)하다, 덮다, 가리다, 막다
- 35) ① 구관(九關):
 ☆궁궐·조정을 가리키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구중천문(九重天門)이나 구천(九天)의 관문을 이르는 말이다.
 *구중천(九重天): 고대인은 하늘은 9층[아홉 겹]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하늘[天]을 ‘구중천(九重天: 아홉 겹으로 이루어진 하늘)’이라고 하였다. 『회남자(淮南子)·천문훈(天門訓)』에, “하늘은 9층으로 <아홉 겹으로> 이루어졌다(天有九重).”고 한 대목이 있다. 청나라 학자 전당(錢塘: 1735~1790)은 이 대목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9층천(九層天)’은 종동천(宗動天: 남북극과 적도위의 하늘)·항성천(恒星天: 28수二十八宿가 위치한 층의 하늘)·진성천(填[鎮]星天: 토성土星이 위치한 층의 하늘)·세성천(歲星天: 목성木星이 위치한 층의 하늘)·형혹천(熒惑天: 화성火星이 위치한 층의 하늘)·일륜천(日輪天: 해가 위치한 층의 하늘)·태백천(太白天: 금성金星이 위치한 층의 하늘)·진성천(辰星天: 수성水星이 위치한 층의 하늘)·월륜천(月輪天: 달이 위치한 층의 하늘)이다. 그 중에는 오성(五星: 태양계에서 지구에 가까운 다섯 개의 별로서, 수성·금

성·화성·복성·토성을 이룸)과 일월(日月)을 포괄하고 있다. 고대인이 이렇게 하늘을 확분하여 명명(命名)한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것이지만, 그들의 의식이 우주공간의 무한성에 이르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구중천(九重天)이라고 할 때의 ‘구(九)’는 ‘다수(多數)’를 이르는 말일 따름이지, 실수(實數)가 아니다.

*구천(九天): 하늘의 중앙[하늘의 가장 높은 곳]과 팔방(八方)을 이르는 말

- ② 호부달(呼不達): 큰 소리로 외쳐 봐도 뜻이 통하지 않다.
- 36) ① 중도(中道): 중도(中途: 반도半途: 일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와중(渦中: 일어나는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사무증(事無終): (외족 침략의) 전란이 끝없이 일어나다.
 - a. 사(事): 천자(天子)나 제후의 국가대사를 가리키는 말로서, 예를 들면, 제사(祭祀: 종묘제사), 회맹(會盟: 고대에 제후 간에 집회하여 결맹結盟하는 일), 병융(兵戎: 전쟁·전란) 등이 있다. 또한 외국인이 침범하는 전쟁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37) 운거(運去): 국운이 다하다
- 38) ① 시위(時危): 시국(時局)이 위태롭다
- ② 국시흥(國是訐): 국책(國策: 나라의 정책이나 시책施策)이 혼란에 빠지다
 - a. 국시(國是): 국책(國策), 국가대사
 - b. 흥(訐): (국사 등 어떤 일에 내홍(內訌: 내부의 분쟁)이 일어 실패함으로써) 혼란하다, 혼란되다
- 39) 지금 여의열(至今餘義烈: 〈하지만〉 이때까지 충의忠義 높고 지조 굳은 사람 남아 있어):
 - **역지주석: 항금(抗金) 장수 유기(劉錡)를 언급한 것임. 위의 주석 1)의 순창지전(順昌之戰)을 참조 바람
 - ① 지금(至今): 지금까지, 이때까지
 - ② 의열(義烈): 충의(忠義)가 뛰어나고 지조가 굳다
- 40) ① 응작(應作): 곧바로 활동하다
- ② 사천홍(射天虹): 반역행위를 궤멸하다
 - a. 사천(射天): 역사에 전하는 폭군들은 가족 주머니에 피를 가득 채워서 높이 매달아 놓고 활로 쏘아서, 권세와 무력을 과시하면서 하늘과 기량을 겨루는 방법을 상용하였다. ‘천제(天帝)에게 활쏘기 기량을 겨루다’는 이 말은 전(轉)하여, ‘포악함과 반역행위’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④ 사(射): 활을 쏜다. 여기서는 ‘활쏘기 기량을 겨루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⑤ 천(天): 천제(天帝)
 - b. 홍(虹): 궤패(潰敗)하다, 실패하다, 궤멸하다

시7. 한록당寒綠堂

詩7. 寒綠堂¹⁾ 한록당



騷人風味飽清涼²⁾,
소인풍미포청량

문인의 풍도는 청정清靜한
마음 한껏 품는데 있나니,

飲露餐英老一堂³⁾。
음로찬영노일당

이슬 마시고 꽃잎 먹으며
즐곤 한록당寒綠堂에서 머무네.

盤上慣看登杞菊⁴⁾,
반상관간등기국

밥상에 늘 구기자과 국화
싹 무침이 오르는데,

人間那復願膏粱⁵⁾。
인간나부원고량

민간에서 어찌 다시
더 미식을 원하겠는가?

籬邊晚採移專逕⁶⁾,
이변만채이전경

울타리 주변에서 저물녘에
그걸 채취하여 오솔길 거니는데

洞裏新携植滿場⁷⁾。
동리신휴식만장

골짜기는 청신하게 이어진
초목으로 가득 찼네.

已愛陶翁知泛酒⁸⁾,
기애도옹지범주

나와 우정 깊은 도옹陶翁이
탁주 한 잔 하자기에,

還同仙客解充腸⁹⁾。
환 동 선 객 해 충 장

되돌아가서 은자隱者와
함께 배를 채웠네.

春芽伏土金鉤碩¹⁰⁾，
춘 아 복 토 금 구 석

봄에 (구기자에) 싹이 틀 땀
새우만한 크기더니,

秋實團枝玉豆芳¹¹⁾。
추 실 단 지 옥 두 방

가을에 열매 맺자 홍옥紅玉같은
구슬 맺혀 향기롭네.

味抱天和芼正脆¹²⁾，
미 포 천 화 모 정 취

구기자 싹이 생기 품고 있는데다
한창 연해서,

氣含風露嚙猶香¹³⁾。
기 함 풍 로 연 유 향

날씨 차가와도 입안에 넣으니
여전히 감미롭네.

山窓晏日吟魂倦¹⁴⁾，
산 창 안 일 음 혼 권

산창山窓 밖의 날씨 화창하나
시상詩想에 잠기기엔 심드렁한데,

郡舍無人晝景長¹⁵⁾。
군 사 무 인 주 영 장

관사官舍에는 인적 없고 대낮이라
일광만 내리쬐네.

小鼎細烹仍汲井¹⁶⁾，
소 정 세 팽 잉 급 정

옹달솥에 살짝 데치려 해도
샘물은 길러 와야 하고,

荒原親掇動盈箱¹⁷⁾。
황 원 친 철 동 영 상

황야에서 거둔 작물도 상자에
담아놔야 쓸모 있네.

誰知眞味傾珍錯¹⁸⁾，
수 지 진 미 경 진 착

산해진미 먹다가 음식 맛 잃게 된단 걸
어찌 알겠는가,

說到奇功自後方¹⁹⁾。
설 도 기 공 자 후 방

뛰어난 공훈도 말로 하자면
미미한 것에서 비롯된다네!

從此先生寒綠衣²⁰⁾
종 차 선 생 한 록 의

이때부터 선생은 세한고절歲寒孤節의
 푸른 댓잎 옷 입고,

百年高臥謝羶羊²¹⁾。
백 년 고 와 사 진 양

종신토록 은거하며 육식과
 한가한 배회 사양했다네.

(이하는 결손 되었음<此下缺>)²²⁾

- 1) 한록당(寒綠堂) : 시문(詩文)의 시의(詩意)를 미루어볼 때, 본 시제(詩題)는 서애가 무술년(戊戌年 : 1598) 11월에 삭탈관직(削奪官爵)되어 낙향한 이후의 생활을 ‘한록당(寒綠堂)’이라는 청빈고절(淸貧高節)을 시사하는 시제(詩題)로써, 당시의 생활과 마음상태를 시사(示唆)했다고 보아진다. (『서애연보』 ‘무술년(戊戌年)’조항과 앞의 「시5」의 주석 28)의 역자주석을 참조 바람)

특히 본 시에는 구체적으로 화자의 주요밥반찬으로 ‘구기자와 국화 싹’을 언급하여, 당시 생활의 궁핍함을 전해주면서 동시에 이에 안분자족(安分自足)하는 화자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경계(境界)는 북송(北宋)의 대문호이며 정치가였던 동파(東坡) 소식(蘇軾)이 밀주태수(密州太守)로 재임 시절에 쓴 『동파전집(東坡全集) 권33·후기국부(後杞菊賦)』에 보인다.

- ① 한록(寒綠) : ‘한록’은 당호(堂號)이다. 본 시의 시제(詩題)에 내포된 뜻은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 푸른빛을 띄우는 대나무 잎의 물성(物性)에 군자의 고절(高節)한 기품을 함축하였다.

북송(北宋) 정치가 겸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구양수(歐陽脩 : 1007~1072)가 읊은 5언율시 「형부刑部에서, 대나무를 보고 맹고체孟郊體를 모방하여 읊다(刑部看竹效孟郊體)」에, ‘한록(寒綠)’이라는 두 자로써 대나무의 고절(高節)을 찬송하였다. 즉 “대나무 색깔은 군자의 덕이라, 아름답고 무성함이 날씨 추워지니 더욱 푸르구나(竹色君子德, 猗猗寒更綠)”라고 읊었다. 또한 당대(唐代)의 민중과 시인인 백거이(白居易 : 772-846)의 「양죽기(養竹記)」에는 “대나무를 기르는 것이 현자(賢者)를 기르는 것과 같다(竹似賢何哉).”라고 하면서, 대나무 뿌리의 견고함에서부터, 그 줄기의 곧음, 텅 빈 속, 일정한 간격으로 안배된 마디 등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를 모두 군자의 덕과 지조에 빗대어 칭송하였다. 심지어 동진(東晉)의 명필 왕희지(王羲之 : 303~361, 혹은 321~379)의 아들 왕희지(王徽之 : 338~386)는 새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집에 대나무를 심고 즐기기에 그 이유를 묻자, “어떻게 하루라도 차군이 없이 지낼 수 있겠는가(何可一日無此君耶)?”(『세설신어(世說新語)』)라고 대답했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역대(歷代)의 문인사대부들은 이 대나무의 덕을 흠모하고 또한 그의 덕을 닦고자 시·화(詩畵)에서도 가장 애호하는 주제가 되었으며, 마침내는 그들이 거처하는 집의 정원은 물론이고, 서원이나 서재 등에게까지 즐겨 이 대나무를 심어왔다. 그러다보니 그들이 거주하는 가옥이나 서재(書齋)에까지 이로써 당호(堂號)를 삼아 대나

무의 고매한 물성을 생활 속에서도 잊지 않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었다. 본 시의 한록당은 ‘한록헌(寒綠軒)’이라는 당호로도 쓰이는데, 시인의 청빈한 고절(高節)을 그대로 시사해주는 시적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당(堂): 본 시에 묘사된 시의(詩意)에 의하면, ‘한록당’은 굳이 서재라고 칭하기 보다는 일생생활의 주거 공간으로 이해하여도 될 것이다.
- 2) ① 소인(騷人): 시인 또는 문인
 ② 풍미(風味): 풍도(風度), 풍채(風采)
 ③ 포청량(飽淸涼): 청정한 마음을 한껏 품다.
- 3) ① 음로(飲露): 이슬을 마시다
 ② 찬영(餐英): 손영(滄莢)이라고도 쓰며 ‘꽃잎을 먹다’는 뜻이다.
 a. 찬(餐): 먹다, ‘철(啜)’과 같은 뜻이다.
 b. 영(英): 꽃. 본 시에서는 ‘꽃잎’으로 번역한다.
 ③ 노일당(老一堂): 이 늙은이 줄곧 한록당에 머무네.
 a. 로(老): 연로한 사람, 본 시에서는 자칭으로 쓰였다.
 b. 일(一): 줄곧, 시종(始終), 한결같이
 c. 당(堂): ‘한록당’의 약어로 보인다. 한록당의 약어로 ‘서재(書齋)’를 가리킨다.
- 4) ① 반상(盤上): 밥상에
 ② 관간(慣看): 늘 보이다
 ③ 등기국(登杞菊): 밥상에 구기자 싹이나 국화 싹이 반찬으로 오르다.
 a. 등(登): 올리다. 본 시에서는 ‘구기자 싹과 국화 싹을 야채로 간주하여, 이를 밥상위에 채소반찬으로 ‘올렸다’는 의미이다.
 b. 기·국(杞菊): 구기(枸杞)와 국화를 칭한다. 본 시에서는 ‘구기자와 국화싹의 무침’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구기와 국화의 새싹이나 잎은 식용할 수 있다. 소식(蘇軾)이 쓴 「후기국부(後杞菊賦)」의 서문(序文)에 보면, “당대唐代 천수생天隨生 육구몽陸龜蒙은 ‘항상 구기자 싹과 국화 싹을 야채로 식용한다(天隨生自言常食杞菊).’”라는 대목이 보인다. 또한 본 자료에는 동파가 신법당(新法黨)에 몰리어 밀주(密州) 태수로 임직할 때, 통판(通判) 유정식(劉廷式)과 성벽(城壁)을 따라 황폐한 채원(菜園)에서 구기자와 국화잎을 채취하여 배를 채웠다는 기록에서, “나는 이제 구기자를 양식으로 삼고(吾方以杞爲糧), 국화를 마른 양식으로 삼아(以菊爲糗), 봄에는 싹을 먹고(春食苗) 여름에는 잎을 먹으며(夏食葉) 가을에는 꽃과 열매를 먹고(秋食花實) 겨울에는 뿌리를 먹노라(冬食根).”라고 하였다.
- 5) ① 인간(人間): 인간(人間)으로도 쓰며, 본 시에서는 ‘민간’의 뜻으로 쓰였다.
 ② 나부(那復): 어찌 다시 ...하겠는가?
 a. 나(那): 내하(奈何)의 합음으로, ‘하(何: 어찌 ~하겠는가, 어찌하여 ~인가?)’의 뜻이다.
 b. 부(復): 부사로서, ‘다시, 또’의 뜻이다.
 ③ 고량(膏粱): 고량진미(膏粱珍味)의 준말이다.
 ☆기름진 고기와 차진 곡식. 전(轉)하여 맛있는 음식, 미식(美食)을 가리키기도 한다. 『국어(國語)·진어7(晉語七)』편에, “무릇 기름진 고기와 차진 곡식만 먹으면서 양성(養成)되는 성격은 개정(改正)하기 어렵소(夫膏粱之性 難正也).”라고

한 대목이 있다. 삼국시대 오(吳)나라의 학자 위소(韋昭 : 204~273)는 『국어주(國語注)』에서 말하기를, “고膏”는 고기가 살찐 것이고, ‘양(粱)’은 먹는 밥이 정미精米한 것이다(膏, 肉之肥者, 粱, 食之精者).”고 하였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6) ① 이변(籬邊) : 울타리 주변
- ② 만채(晩採) : 저물녘에 (구기자 열매와 국화 싹을) 채취하다
- ③ 이진경(移專逕) : 오솔길을 거닐다
 - a. 이(移) : 이동하다. 보행의 방향을 바꾸다.
 - b. 전경(專逕) : 오솔길, 소릿길
 - ④ 전(專) : 어떤 공간이나 영역이 좁고 작음을 형용하였다.
- 7) ① 동리(洞裏) : 골짜기마다, 골짜기에
 - a. 동(洞) : 골짜기, 움푹 들어간 빈터
 - b. 리(裏) : 명사 뒤에 붙어서 장소나 시간 또는 범위를 나타내는 말로서, 본 시에서는 ‘골짜기의 구간’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② 신희(新携) : 청신하게 연이어지다.
 - a. 신(新) : 청신하다, 신선하다, 산뜻하다. 본 시에서는 푸른 잎이 돌아난 초목의 색깔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휴(携) : ‘휴(攜)’와 같은 자로서 ‘연접하다, 연이어지다’는 뜻이다.
- ③ 식만장(植滿場) : 초목으로 가득 차다.
- 8) 기애도옹 지범주(己愛陶翁知泛酒 : 나와 우정 깊은 (은사隱士) 도옹陶翁이 탁주 한 잔 하자기에) :
 - ① 기애도옹(己愛陶翁) : 이 몸과 우애 깊은 도옹
 - a. 기(己) : 자기, 자신. 본 시에서는 일인칭 대명사로 쓰였다.
 - b. 애(愛) : 좋아하다, 양모하다. 본 시에서는 우애(友愛)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c. 도옹(陶翁) : 도씨(陶氏) 노인. 도(陶) 선생. 본 시에서의 ‘도옹(陶翁)’은 ‘은사(隱士) 도씨(陶氏)의 존칭어’로 쓰였다.
 - ② 지범주(知泛酒) : 탁주 한 잔 하자고 알려오다.
 - a. 지(知) : 알리다, 알려주다, 고지(告知)하다
 - b. 범주(泛酒) : 범제(泛齊) : ‘예전에 제사 지낼 때 쓰는 다섯 가지의 술, 즉 ‘오제(五齊)’의 하나인 ‘탁주’를 이르던 말이다.
 - *오제(五齊) : 오주(五酒)
 - 범제(泛齊) : 범주(泛舟) : 막걸리
 - 여제(醴齊) : 감주(甘酒)
 - 양제(盎齊) : 백차주(白醯酒) : 빛깔이 매우 옅고 푸르다
 - 제제(緹齊) : 붉은 색의 술
 - 침제(沈齊) : 찌꺼기가 가라앉은 술로서, 오제(五齊)를 만들 때, 맨 나중에 얻는 술로서 맑고 맛이 좋다.
- 9) ① 환동선객(還同仙客) : (골짜기로) 되돌아가서 은자(隱者)와 함께
 - a. 환(還) : 되돌아가다(오다). 본 시에서는 귀가하다가 골짜기의 개울가로 되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동(同) : 접속사로서, ‘...와 함께’의 뜻이다
 c. 선객(仙客) : 은자(隱者)나 도사(道士)에 대한 경칭(敬稱)
- ② 해충장(解充腸) : 주린 배 채울 수 있었다.
 a. 해(解) : 조동사로 쓰여, ...할 수 있다
 b. 충장(充腸) : (주린) 배를 채우다, 요기하다
- 10) ① 춘아(春芽) : 구기자의 싹을 말하다
 ② 복토(伏土) : 부복(俯伏) : 고개를 숙이고 엎드림)하듯 땅을 향해 고개 숙이고 돌아나는 새싹의 형상을 표현한 말이다. 여기서는 ‘구기(枸杞)’ 나무 가지에 움이 튼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
 ③ 금구석(金鉤碩) : 새우만큼 크다
 a. 금구(金鉤) : 해산(海産)의 새우. 본 시에서는 구기자 나뭇가지에 움이 튼 모양을 새우의 ‘구부정한 모양에 빗대어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b. 석(碩) : 크다, 대(大)와 같은 뜻이다. 머리만큼 크다. 이로부터 파생되어 ‘크다’라는 뜻이 생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11) 추실단지 옥두방(秋實團枝玉豆芳) : 가을에 열매 맺자 가지마다 홍옥 같은 옥구를 맺혀 향기롭네) :
 ① 추실(秋實) : 가을철에 맺는 열매. 여기서는 구기나무의 열매, 곧 구기자(枸杞子)를 칭한다.
 ② 단지(團枝) : 초목마다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 그 자체의 가지. 여기서는 구기나무 가지에 열매가 조롱조롱 맺혀서 어우러진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③ 옥두방(玉豆芳) : 옥구슬 같이 맺은 열매에 향내가 나다. 여기서는 구기자의 붉은 열매를 ‘옥두(玉頭)’로 표현하고 있다.
 a. 옥(玉) : 옥구슬과 같이 색이 곱고 아름다운 사물을 비유한 말이다.
 b. 두(豆) : ‘콩’이란 뜻이나, 본 시에서는 각종 열매를 비유한 말로 쓰였다.
 c. 방(芳) : 향내가 나다, 향기롭다
- 12) ① 미포(味抱) : (구기자 잎이) ...맛을 품고 있다
 ② 천화(天和) : 하늘의 기운, 곧 생생한 천지의 생기(生氣)를 말한다.
 ③ 모정취(毛正脆) : 야채가 한창 연하다
 a. 모(毛) : ‘모(毛)’와 통하며, ‘초(草 : 풀)’의 뜻이다. 이때의 ‘초(草)’는 식용할 수 있는 야채나 수초(水草)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구기자 새싹의 무침을 가리킨 뜻으로 쓰였다.
 b. 정(正) : 한창, 바야흐로
 c. 취(脆) : 연하다, 아삭아삭하다
- 13) ① 기함풍로(氣含風露) : 공기에는 찬바람과 한기를 품고 있다. 이는 바람에 한기 느끼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날씨가 한기를 품고 있다.
 a. 기함(氣含) : 공기는 ...을 품고 있다. 날씨는 ...을 품고 있다
 ④ 기(氣) : 공기, 날씨
 ⑤ 함(含) : 함유하다, 품다
 b. 풍로(風露) :
 ○풍한(風寒 : 찬바람과 추위).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찬바람과 이슬

- ② 연유향(嚙猶香) : 음식(본 시에서는 채소를 가리킴)을 씹으니 역시 감미롭다.
 a. 연(嚙) : (음식을) 삼키다, 넘기다. 본 시에서는 먹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유(猶) : 부사로서 ‘역시, 더욱, 여전히, 의외로’ 등의 뜻으로 쓰인다.
 c. 향(香) : 맛있다, 감미롭다, 향긋하다
- 14) ① 산창(山窓) : 산 쪽으로 낸 창
 ② 인일(晏日) : 맑은 날씨, 개인 하늘, 화창한 날씨
 ③ 음혼권(吟魂倦) : 시상(詩想)에 잠기는 것도 귀찮다. 시적인 정취에 잠기는 것이 심드렁하다.
 a. 음혼(吟魂) :
 ○ 시인의 영혼, 시인의 몽혼(夢魂)
 ○ 시정(詩情 : 시적인 정취), 시사(詩思 : 시적인 생각이나 상념)
 b. 권(倦) : 싫증나다, 귀찮아하다, 심드렁하다
- 15) ① 군사(郡舍) : 관사(官舍). 이는 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어 살도록 지은 집으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주경장(晝景長) : 대낮의 일광만 내리쬐다.
 a. 주경(晝景) : 대낮의 일광(日光)
 b. 장(長) : (정도가) 크다, 많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햇볕이 아주 따뜻하게 내리쬐는 것을 형용한 말이다.
- 16) ① 소정(小鼎) : 작은 솥. 작은 세발 솥, 곧 웅달솥이라고도 칭한다.
 a. 정(鼎) : 솥. 발이 셋, 귀가 둘 달린 쇠붙이 솥. 본 시에서는 작고 오목한 ‘웅솥 [웅달솥]’을 칭한다.
 ② 세팍(細烹) : 살짝(약간) 데치다
 a. 세(細) : 부사로 쓰여, ‘살짝 · 약간’의 뜻을 나타내다
 b. 팍(烹) : 삶다. 데치다
 ③ 잉급정(仍汲井) : 여전히 샘에서 물을 길러 와야 한다.
- 17) ① 황원(荒原) : 황야(荒野)
 ② 친철(親掇) : 친히 줍다(거두어들이다)
 a. 철(掇) : 줍다, 모으다, 거두어들이다, 수습하다
 ③ 동영상(動盈箱) : 일해서(움겨서) 상자에 담다(넣다).
 a. 동(動) : 일하다, 움직이다, 옮기다
 b. 영(盈) : 가득 차다(가득 채우다), 담다, 충만하다
 c. 상(箱) : 상자, 곳집
- 18) ① 수지(誰知) : 어찌(어찌해야) 알겠는가?
 ② 진미(眞味) : 음식의 참된 맛, 맛이 순수한 식품(어떤 식품 본래의 그 맛)을 가리키는 말
 ③ 경진착(傾珍錯) : 온갖 진기한 식품의 맛으로 인해 ...이 없어지게 되다.
 a. 경(傾) : 여기서는 ‘경(傾)’이 피동사로, ‘...에 의하여 없어지게 되다.’는 뜻으로 쓰였다.
 b. 진착(珍錯) : 산진해착(山珍海錯)의 준말로, 산야(山野)와 바다에서 생산된 각종 진기한 재료로 만든 풍성한 식품, 곧 산해진미(山海珍味)를 말하는 것이다.

㉔ 진(珍): ‘산진(山珍)’의 준말로, 여기서의 ‘진(珍)’은 보배롭다는 의미이며, 고로 ‘산진(山珍)’은 산야에서 생산되는 각종 진기한 재료로 만든 식품을 말한다.

㉕ 착(錯): 해작(海錯)의 준말로, 여기서의 ‘착(錯)’은 잡다하다는 뜻이며, 고로 ‘해작(海錯)’은 바다에서 생산되는 각종 잡다한 해산물로 만든 식품을 말한다.

19) ① 설도(說到): 언급하다, 말하다

② 기공(奇功): 남달리 특별하게 세운 공로, 공훈

③ 자후방(自後方): 미미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a. 자(自): 동사로 ‘비롯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b. 후방(後方): 뒷면, 뒤쪽, 뒤, 뒷부분, 후반,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 곧 미미한 곳을 말할.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20) 종차선생 한록의(從此先生寒綠衣: 이때부터 선생은 세한고절寒高節의 푸른 댓잎 옷 입고):

****역주주석:** 본 시구를 ‘이때부터 도선생은 한기 드는 미관말직에 있다가’로 해석할 수도 있다.

① 종차(從此): 이때부터

② 선생(先生): 벼슬한 사람을 칭하는 말. 벼슬하다가 은퇴한 사람. 역자는 본 시의 제7구에서 언급한 도옹(陶翁)으로 보고 해석했으나 이는 확실하지 않다. 작가의 사상(詩想) 속의 가상인물일 수도 있다.

③ 한록의(寒綠衣):

☆세한고절(歲寒高節: 추운 계절에도 혼자 푸르른 대나무)의 푸른 댓잎 옷을 입다.

a. 한록(寒綠): 세한고절(歲寒高節)의 푸른 대나무를 칭한다. 주석 1)의 ① ‘한록(寒綠)’조항을 참조 바람

b. 의(衣): 동사로 쓰여 옷을 입다

☆한록의(寒綠衣): 미관말직(微官末職: 지위가 낮은 벼슬)의 관복. 전(轉)하여, 그 관복을 입은 관원을 가리키는 말로도 쓸 수 있다.

a. 한(寒): 빈곤하다, (신분·지위가) 낮다

b. 녹의(綠衣): 당나라 제도에서는 6품(六品)과 7품 관료가 녹색 관복을 입고 은으로 장식하였다. 명나라 제도에서는 8품과 9품 관리가 녹포(綠袍)를 착용하였다. 그래서 ‘녹의’란 말을 지위가 낮은 미천한 관원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21) ① 백년(百年): 일생, 종신(終身)

② 고와(高臥):

☆은거하면서 벼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세설신어(世說新語)·배조(排調)』에, 세속을 떠나 초야에 은거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음을 비유하는 말에 ‘동산고와(東山高臥)’라는 전고(典故)가 보인다. 이는 동진(東晉)의 사안(謝安: 320~385)이란 사람이 재능이 있으면서도 조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회계(會稽)의 동산(東山: 절강성浙江省 회계會稽에 있는 산)에 집을 짓고 은둔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 환온(桓溫: 312~373)이 문벌세력을 평정한 후 사안에게 사마(司馬)의 직책을

제수하였다. 그리하여 사안이 신정(新亭)에서 출발하려고 하자 조정의 관리들이 모두 전송을 나왔다. 당시 중승(中丞)이었던 고령(高靈 : 본명 고송高崧) 역시 나와 전송을 했다. 술이 몇 순배 돌아 취하자 고령이 술값을 빌려 농담조로 말했다. “경은 자주 조정의 뜻을 어기고(卿屢違朝旨), 동산에서 높이 누워 있었소(高臥東山). 사람들이 매번 말하길(諸人每相與言), ‘안석安石 <사안의 자字임> 이 동산에서 나오려 하지 않으니(安石不肯出), 장차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將如蒼生何)?’라고 했소. 그런데 이제는 또한 백성들이 장차 그대를 어떻게 해야하오(今亦蒼生將如卿何)?’라고 하자, 사공은 웃기만 하고 답은 하지 않았다(謝笑而不答).”라는 이야기이다. 이후로, ‘동산고와’는 은거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편안하게 눕다, 유연하고(침착하고, 안정되고), 한적하게 걱정거리 없이 누워있다.

③ 사전양(謝羶羊) : 고기 먹고 한가하게 배회하며 (노니는) 것을 사양하다.

a. 사(謝) : 사양하다, 사절하다

b. 전(羶) : ‘육류식품’을 가리키는 말

c. 양(羊) : ‘양(佯)’ · ‘양(祥)’과 통하는 자로서, ‘배회하다, 노닐다, 한가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는 뜻이다.

22) 차하결(此下缺) : 이하는 결손 되었음

**역자주석 : 이 말은 『서애 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을 정리한 후인(後人)들이 이 시의 뒷부분이 산실(散失)되었음을 알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시8. (여럿이 모여) 시가詩歌를 읊다가 귀가歸家하다

詩8. 詠歸¹⁾ 영귀

人心存至樂²⁾,
인심존지락

인심은 지락至樂을 보존하고
싶어 하지만,

無欲是天機³⁾.
무욕시천기

무욕청정無欲淸靜한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일세.

着意知逾遠⁴⁾,
착의지유원

집착하는 마음은
(지락에서) 멀어짐을 알아야하니,

逢原自不違⁵⁾.
봉원자불위

(지락의) 원천을 만나려면
(무욕을) 멀리해선 아니 되네.

倘然私閉隔⁶⁾,
당연사폐격

(지락에 집착했나싶어) 놀라며
집안에서 세상과 거리 두기보다는,

寧與理幾希⁷⁾.
영여리기희

차라리 천리天理와 함께 하며
그걸 앙망하는 게 나을 것이네.

邈矣懷狂簡⁸⁾,
적의회광간

(무욕을) 멀리하면 어설픈 처사處事를
가슴에 품게 되고,

超然見道微⁹⁾。
초연현도미

(탐욕을) 벗어나면
도道の 은미함이 드러나네.

陳編留妙意¹⁰⁾，
진편유묘의

옛날 서책에는
(도道의) 심오한 뜻 보존되어 있고,

舍瑟尙遺輝¹¹⁾。
사슬상유휘

안치해 둔 거문고는 전인前人이
남긴 은택 여전하네.

合下英才秀¹²⁾，
합하영재수

이전부터 영재英才가
결출할 수 있었던 것은,

多年聖師依¹³⁾。
다년성사의

다년간 훌륭한 스승에게 순종해서였네.

從容遊理奧¹⁴⁾，
종용유리오

(마음이) 자유자재하면 이치의
오묘함 속에 노닐게 되고,

灑落出塵鞿¹⁵⁾。
새락출진기

(언행이) 소탈 대범 하면
세속글레에서 벗어나게 되네.

暇日羣賢俊¹⁶⁾，
가일군현준

한가한 날이면 재덕才德을
점비한 현자들이 모여서,

論懷驗是非¹⁷⁾。
논회험시비

심중의 생각을 토론하며
시비를 검증하네.

近功嬰志陋¹⁸⁾，
근공영지누

목전目前的 공리功利에
뜻을 두면 저속해지기에,

眞樂會心稀¹⁹⁾。
진락회심희

진정한 낙樂을 깨닫는 경우가 드물다네.

不讓那辭哂²⁰⁾，
불양나사신

사양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비웃더니,

爲謙亦見譏²¹⁾
위 겸 역 견 기

겸손하게 사양해도 역시 조롱당하네.

見高心自大²²⁾
견 고 심 자 대

견식이 뛰어나면 사려는 당연히 깊어지고

義勝道仍肥²³⁾
의 승 도 잉 비

의로움에 진력盡力하면 도의道義는
따라서 풍성해지네.

天氣和煦日²⁴⁾
천 기 화 후 일

일기日氣가 화창한 봄날인지라,

冠童單袷衣²⁵⁾
관 동 단 겹 의

어른이나 애들
모두 간편한 겹옷 입었네.

隨情尋勝地²⁶⁾
수 정 심 승 지

스며드는 정취 따라 명승지 찾아나서,

對景賞芳菲²⁷⁾
대 경 상 방 비

눈앞의 풍경 보며 향기로운 화초
감상하네.

胸次鳶魚動²⁸⁾
흉 차 연 어 동

마음속에 술개 날고 물고기 헤엄치니,

乾坤物色微²⁹⁾
건 곤 물 색 휘

천지자연 풍광이 참으로 아름답네.

午陰生碧樹³⁰⁾
오 음 생 벽 수

한낮의 푸른 나무 아래는
그늘이 졌는데,

春旭澹清沂³¹⁾
춘 옥 담 청 기

봄날 햇살은 맑은 기수沂水
물결 따라 일렁이네.

盥濯眞源潔³²⁾
관 탁 진 원 결

목욕을 하고나니
(세속에 오염된) 본성이 청결해지고,

乘涼逸興飛³³⁾
승 량 일 흥 비

서늘한 바람 쐬니 고상한 흥취 일어
날아갈 듯하네.

相隨和且樂³⁴⁾,
상 수 화 차 락

벗들과 동반하니 화목하고 즐거워서,

自適詠而歸³⁵⁾。
자 적 영 이 귀

유유자적하게 시가詩歌 읊다
집으로 돌아가네.

上下元同貫³⁶⁾,
상 하 원 동 관

하늘과 땅은 본래 근원이 동일하거늘,

天人豈異畿³⁷⁾。
천 인 기 이 기

하늘과 사람이라고 어찌
(2) 경계境界 달리하리.

聖門宜見許³⁸⁾,
성 문 의 견 허

공문孔門의 도道 전할 사람은
응당 존중돼야 할 것이나,

諸子誰能幾³⁹⁾。
제 자 수 능 기

문도門徒들 중에 누가 능히
그걸 달성하랴?

正學今無繼⁴⁰⁾,
정 학 금 무 계

공문孔門의 바른 학문
지금 이어지지 않는데,

高山仰自巍⁴¹⁾。
고 산 양 자 외

산 높다고 쳐다만 보면
당연히 높고 험준하지.

-
- 1) 영귀(詠歸) : 〈여럿이 모여〉 시가(詩歌)를 읊다가 귀가(歸家)하다 : 이 말의 출처는 『논어(論語)·선진편(先進篇)』에, (점〈點 : 중점중點 : 중점은 성씨이고 점點은 이름임. 공자의 제자인 증자曾子의 부친으로, 자字가 자식子皙임에 증석曾皙으로도 불림)이 말하기를) “늦봄〈모춘暮春 : 음력 3월〉이 되어〈莫春者〉, 이미 봄옷을 장만해서 입었으니〈春服既成〉, 성인成人〈관례冠禮를 치른 20세 이상의 남자〉 대여섯 명과〈冠者五六人〉, 아동 예닐곱 명과 함께〈童子六七人〉, 기수〈沂水 : 산동성 추현鄒縣 동북에서 발원하여 서류西流하다가 곡부현曲阜縣에 이르러 수수洙水와 합류한 다음 사수泗水로 유입됨〉에서 목욕하고〈浴乎沂〉, 무우대〈舞雩臺 : 노魯나라 도성都城 남쪽에 위치한 기수沂水 강변에 있던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 단壇〉에 올라가 바람을 쐬다가〈風乎舞雩〉, 창가唱歌를 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咏而歸〉.”라고 한 대목이 보인다.
- 2) 존지락(存至樂) : 지극한 즐거움을 보존하고 싶어 하다.
① 존(存) : 보존(保存)하다, 보전(保全)하다

- ② 지락(至樂) :
 ☆최고의 쾌락(유패함), 지극한 즐거움,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다. 지락(至樂)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자(莊子) · 지락(至樂) 장을 참조 바람.
- 3) ① 무욕(無欲) : ‘무욕(無慾)’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무욕청정한 마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시(是) : …이다
 ③ 천기(天機) : 하늘의 기밀, ‘천의(天意 : 하늘의 뜻)’와 같은 말이다.
- 4) ① 착의(着意) : 유의(留意 : 유심留心 : 유념留念 : 주의함, 조심함)하다, 재의(在意 : 재심在心 : 유념함, 마음에 새김, 주의함)하다, 착심(着心 :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겨둠)하다. 본 시에서는 ‘집착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지(知) : 분명하게 알다, 알게 되다
 ③ 유원(遡遠) : 유원(踰遠)으로도 쓴다. 더욱 더 멀어지게 되다.
- 5) ① 봉(逢) : (우연히) 만나다, 조우(遭遇)하다
 ② 원(原) : 본원, 근원, 원천
 ③ 자불위(自不違) : 당연히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옹당 멀리해서는 안 된다.
- 6) ① 당연(倘然) : 놀라며 의아해하는 모양, 경의(驚疑)하는 모양
 ② 사폐격(私閉隔) : 개인 거처에서 세상과 거리를 두다.
 a. 사(私) : 개인거처를 가리킨다
 b. 폐격(閉隔) : (문을) 닫다, 단절시키다, 차단하다. 본 시에서는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7) ① 영(寧) : 차라리 …하는 것이 낫다
 ② 여(與) : 함께 하다
 ③ 리(理) : 천리(天理)
 ④ 기희(幾希) : 조용히 양망(仰望)하다
 a. 기(幾) : 조용하고 공손하게, 조용히. 본 시에서는 ‘마음을 비우고’라고 번역하였다.
 b. 희(希) : 양망(仰望)하다
- 8) ① 적의(逖矣) :
 a. 적(逖) : 소원(疏遠 : 관계상, 감정상 거리가 있음. 친근하지 않음)하다, 또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거리가 멀다는 뜻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멀리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b. 의(矣) : (문장의 중간에 쓰여) 잠시 멈춤의 어기(語氣)를 나타내는 어조사로 쓰였다.
 ② 회광간(懷狂簡) :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생각을 가슴에 품다.
 a. 회(懷) : (생각을) 가슴에 품다
 b. 광간(狂簡) : 지향(志向)하는 바가 고원(高遠)하나 처사가 어설프다. 품은 뜻은 원대하나 실행은 소홀하고 거칠다. 뜻은 크나 실천력이 없고 조략(粗略 : 허술하여 보잘 것 없음)하다.
 ④ 광(狂) : 광분(狂奔)하다. 분방(奔放)하다. (규칙이나 규범 따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이다
 ⑤ 간(簡) : 조략(粗略 : 간략하여 보잘 것 없음)하다, 생략하다, 간단하다

- 9) 현도미(見道微) : 도(道)의 은미(隱微)함을 형이하(形而下)의 실천을 통해 드러나게 한다.
- a. 현(見) : 드러나다, 부각시키다
 - b. 도미(道微) : 도(道)의 은미함. 이 용어의 자세한 내용은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를 참조 바람.
- 10) 진편 유묘의(陳編留妙意) : 옛날 서책에는 <도道>의 심오한 뜻 보존되어 있고 :
- ① 진편(陳編) : 옛날의 서책 곧 고서(古書)로 유가의 경전(經典)을 가리킨다.
 - ② 유(留) : 심오한 의미가 보존하다(보존되다)
 - ③ 묘의(妙意) : 심오한 의미. 이 때의 '묘(妙)'는 '묘(眇 : 애꾸눈)'와 통하는 자로서, '심원(深遠)하다, 오묘하다'는 뜻이다.
- 11) ① 사슬(舍瑟) : 안치(安置)한 큰 거문고
- ② 상유휘(尙遺輝) : 오래된 선대(先代)의 은택. 오래 전에 남겨진 선친의 은택이다.
- 12) ① 합하(合下) : 당초에, 원래, 이전에, 본래
- ② 영재수(英才秀) : 영재가 걸출할 수 있었던 것
- 13) 성사의(聖師依) :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에 순종하다, 훌륭한 스승에게 순종하다
- a. 성사(聖師) : 공자를 존칭한 말이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의(依) : 순종하다
- 14) ① 증용(從容) : 유한자재(悠閑自在) : 유유하고 자유로움하다, 자유자재(自由自在) : 조급도 제한이나 속박이 없음 : 거침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로 하다.
- ② 유리오(遊理輿) : 이치의 오묘함 속에서 노닐다
- 15) ① 쇄락(灑落) :
- ☆쇄락(灑樂)으로도 쓴다. 쇄탈표일(灑脫飄逸) : 속기俗氣를 벗어나고 인품이 뛰어난. 언행이 소탈하고 인품이 뛰어나)하여 (예절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다. 호쾌하다.
 - ② 출진기(出塵機) : 세사(世事)에 얽매인 게 드러나다. 세속의 굴레에서 벗어나다.
 - a. 출(出) : 드러나다, 나타나다. 떠나다, 벗어나다
 - b. 진기(塵機) : 세상사(세속적인 일)에 얽매임. 세속의 굴레
- 16) ① 가일(暇日) : 한산한 날, 한가한 날
- ② 군(羣) : 모이다, 회합(會合)하다, 합군(合群)하다
 - ③ 존(賢俊) : 재덕이 출중한 사람
- 17) 논회 험사비(論懷驗是非) : 심중의 생각을 토론하며 시비를 검증하네) :
- ① 론(論) : 의논하다, 토론하다
 - ② 회(懷) : 정의(情意), 심의(心意) : 마음, 생각, 의사意思, 의향)
 - ③ 험사비(驗是非) : 시비를 검증하다
- 18) ① 근공(近功) : '목전의 공리(功利)'를 가리키는 말이다.
- ② 영지루(嬰志陋) : 관심 갖고 있어 저속하다.
 - a. 영지(嬰志) : '마음(뜻)을 두다, 관심을 갖고 있으면 저속해진다'는 뜻으로, '영의(嬰意 : 관심을 가짐) · 괘념(掛念 : 마음에 두고 잊지 않음) · 재의(在意 : 유념함)'와 비슷한 의미이다.
 - b. 루(陋) : 저속하다, 비속(卑俗)하다, 천하다
- 19) ① 진락(眞樂) :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이란, 인위를 가하지 않은 상생(相生)

- 의 자연이법(自然理法)을 말한다.
- a. 락(樂): 명사로 쓰여, ‘즐거움’을 의미한다.
 - ② 회심(會心): 깨닫다,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이 남의 속마음을) 이해하다
 - ④ 회(會): 깨닫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납득하다
 - ③ 희(稀): 드물다, 적다
 - 20) 나사신(那辭哂): 그 말을 비웃다
 - a. 나(那): 지시대명사로서 ‘그’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바로 앞에서 말한 ‘불양(不讓)’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사(辭): 말, 언사(言辭)
 - c. 신(哂): 비웃다, 조소하다
 - 21) ① 위겸(爲謙): 겸양(謙讓)하다
 - ② 역(亦): …도, 또한, 역시
 - ③ 견기(見讖): 조롱당하다
 - 22) ① 견고(見高): 견식이 고명(高明)하다(뛰어나다)
 - ② 심(心): 마음, 사상, 의념, 사려(思慮)
 - ③ 자(自): 부사로 쓰여, ‘자연히, 당연히’의 뜻이다.
 - ④ 대(大): 범위가 넓거나 정도가 깊은 것을 표시한다.
 - 23) ① 의승(義勝): 의로움에 진력(盡力)하다.
 - a. 의(義): 정의(正義) 혹은 공익(公益)에 부합하거나, 공정(公正)하여 사리(事理)에 부합하는 것을 뜻한다.
 - b. 승(勝): 진력하다
 - ② 도잉비(道仍肥): 도의(道義)는 따라서 풍성해진다.
 - a. 도(道): 이는 형이상(形而上)의 천도(天道), 곧 우주의 이법(理法)을 말한다. 본 시에서는 천지만물의 본체인 형이상의 ‘천도’가 발현하여 형이하의 덕(德)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고로 ‘도의 작용’이라고 한다.
 - b. 잉(仍):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 c. 비(肥): 풍성해지다
 - 24) ① 천기(天氣): 기후, 날씨
 - ② 화후일(和煦日): 화창한 날, 따뜻하고 맑은 날
 - a. 화후(和煦): 온난(溫暖)하다, 따뜻하다, 화창(和暢: 날씨가 온화하고 맑음)하다
 - b. 일(日): 날, 매일, 나날이. 본 시에서는 봄날을 뜻한다.
 - 25) ① 관동(冠童): 관례(冠禮: 옛날에 남자 20세가 되면 거행하던 가관加冠의 예로서, 성인이 됐음을 표시함)을 치른 사람과 관례를 행하지 않은 아이란 뜻으로, 성인남자와 남자 아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② 단겹의(單袷衣): 간편한 겹옷을 입었다. 이 “단겹의(單袷衣)”는 주희가 “늦은 봄은 온화하고 따뜻한 시절이다(莫春, 和煦之時).”라고 김주(集注)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또한 “춘복은 한 겹이나 두 겹의 천으로 지은 옷이다(春服單袷之衣).”라는 주석을 붙이고 있다. (위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서예의 시에서는 ‘간편한 겹옷’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a. 단겹(單袷):
 - 간편한 겹옷.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홀옷[단의單衣]과 겹옷[겹의袷衣 : 협의夾衣]

- 26) ① 수정(隨情) : 정취를 따라서
 ② 심승지(尋勝地) : 명승지를 찾아 나서다
- 27) ① 대경(對景) : 안전(眼前)의 경물(景物)을 마주하다, 눈앞의 풍경을 관상(觀賞)하다
 ② 상방비(賞芳菲) :
 a. 상(賞) : 완상(玩賞 : 즐겨 구경함)하다, 감상하다
 b. 방비(芳菲) : 향화방초(香花芳草 : 향기로운 화초). 본 시에서는 이러한 화초가 무성한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④ 방(芳) : 향기롭다
 ⑤ 비(菲) : 향기로운 화초가 무성하다, 우거지다
- 28) ① 흉차(胸次) : ‘흉회(胸懷 : 마음속, 생각, 포부, 도량,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가슴에 품다)’를 가리키기도 한다.
 ② 연어동(鰲魚動) : 솔개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수면(水面)을 차고 뛰놀다.
 a. 연어(鰲魚) : ‘연어비약(鰲魚飛躍 : 솔개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다)’의 약어(略語)로 쓰였다. 자세한 내용은 시경(詩經) · 대아(大雅) · 한록(旱麓)을 참조 바란다. 후세 사람들은 이 ‘연어비약(鰲魚飛躍)’이란 말을 ‘만물이 각자安居(安居)할 적합한 장소를 얻는 것(萬物各得其所)’을 이르는 말로 썼다.
- 29) ① 건곤(乾坤) :
 a. 건(乾) : 건괘(乾卦). 팔괘(八卦)의 하나로 상형(象形)은 ‘☰’으로 ‘하늘’을 상징한다.
 b. 곤(坤) : 곤괘(坤卦). 팔괘의 하나로 상형은 ‘☷’으로 땅을 상징한다.
 ② 물색휘(物色徽) : 풍광이 아름답다
 a. 물색(物色) : 경색(景色), 경상(景象), 풍경, 경치
 b. 휘(徽) : 아름답다, 좋다, 매우 훌륭하다
- 30) ① 오음(午陰) : 한낮의 그늘진 곳. 보통 ‘나무그늘 아래’를 가리킨다.
 ② 생벽수(生碧樹) : 푸른 나무아래 (그늘이) 지다.
 a. 생(生) : ‘생기다, 자라나다, 발생하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그늘이) 지다’는 뜻으로 쓰였다. 이때의 ‘지다’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는 뜻이다.
 b. 벽수(碧樹) : 녹색의 수목(樹木), 푸른 나무, 푸른 수목
- 31) ① 춘욱(春旭) : 봄날 햇살
 a. 욱(旭) : 빛, 밝다, 광명. 본 시에서는 ‘햇빛’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담청기(澹淸沂) : 기수(沂水) 물결 따라 일렁이다
 a. 담(澹) : 물결이 출렁이는 모양
 b. 청기(淸沂) :
 ④ 청기(淸沂) : 맑은 기수.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기(沂)’는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강의 이름. 주(周)나라 때 공자의 제자 증점(曾點)이 ‘관·동(冠童)’을 데리고 가서 놀았던 곳이다. 위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⑤ 청은(淸沂) : 청신한 산기슭. 이때의 은(沂)은 ‘애(崖 : 산기슭)’의 뜻으로도 쓰고 또 애(涯 : 물가)의 뜻으로도 쓴다.
- 32) ① 관탁(盥濯) : 목욕하다, 말끔히 씻다

- ② 진원결(眞源潔) : 속진(俗塵)에 더럽혀진 본성이 청결해지다.
 a. 진원(眞源) : 본원(本源), 본성(本性)을 이르는 말이다.
 b. 결(潔) : 깨끗해지다
- 33) ① 승량(乘涼) : 서늘한 바람을 쐬다. 더운 날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쉬다.
 ② 일흥비(逸興飛) : 일흥천비(逸興遄飛)의 약어(略語)로 쓰였다. ‘고상하고 호방한 흥취가 일어 하늘을 날아갈 듯하다.’는 뜻이다.
 a. 일흥(逸興) : 고상하고 호방한 흥취. 세속을 벗어난 흥취, 또는 남다른 흥미
 b. 비(飛) : 천비(遄飛)의 약어
 ○ 발발(勃發) : 갑자기 일어나다 하다
 ○ 빠르게 날다
- 34) ① 상수(相隨) : 동반하다, 수반하다, 뒤따르다
 ② 화차락(和且樂) : 화목하고 즐겁다(유쾌하다), 화목하고 안락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35) 자적 영이귀(自適詠而歸) : 유유자적하게 시가詩歌 읊다 집으로 돌아가네) : 위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① 자적(自適) : 한가하고 자유롭게 스스로 만족하며 즐긴다.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껏 즐긴다. 마음이 가는 대로 유유히 생활하다.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편안히 즐긴다.
 ② 영이귀(詠而歸) : 시가를 읊다 집으로 돌아가다
- 36) ① 상하(上下) : 천지를 가리킴
 ② 원동관(元同貫) : 본래 하나의 근원이다. 본래 근원이 동일하다
 a. 원(元) : 본래, 원래
 b. 동관(同貫) : 근원이 같다, 계통이 동일하다
 ④ 동(同) :
 ○ 한가지
 ○ 같다, 같이하다. 두 가지 모두 어느 것으로 번역해도 가능하다.
 ⑤ 관(貫) : 근원, 근본
- 37) ① 천인(天人) : 하늘과 사람
 ② 기이기(豈異畿) : 어찌 (근원의) 경계(境界)를 달리하겠는가! 어찌 (그 원기〈元氣〉 : 정신, 정기精氣) 경계가 다르겠는가?
 a. 기(豈) : 어찌(어떻게) …한 일이 있겠는가? 그래 …이란 말인가.
 b. 이(異) : 다르다, 달리하다
 c. 기(畿) :
 ○ 국경, 경계, 지계(地界). 본 시에서는 ‘경계’의 뜻으로 쓰였는데, ‘사람의 정신, 정기(精氣)의 경계’를 가리킨다.
 ○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간되는 한계
- 38) ① 성문(聖門) : ‘공자(孔子)의 문하(門下)’를 이르는 말이다. ‘공자의 도(道)를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② 의견허(宜見虛) : 옹당 다 같이 칭찬받아야 하다.
 a. 의(宜) : 당연히, 마땅히, 옹당
 b. 견허(見許) :

○ 존중받다, 칭찬받다

④ 견(見) : 조동사로 쓰여, 피동(被動)을 나타낸다. ‘피(被)’에 상당하다

⑤ 허(許) : 진실을 인정하다, 전(轉)하여 존중하다

39) ① 제자(諸子) : 공문(孔門)의 정학(正學)을 전하는 사람들을 칭한다.

② 수능기(誰能幾) : 누가 능히 달성하겠는가?

a. 수(誰) : 누가

b. 능(能) : 조동사로서 ‘…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을 잘하다, 능히 …해내다, 될 수 있다, …해도 좋다’는 뜻으로도 쓰고, 명사로서 ‘재능, 능력, 기능’의 뜻이나 ‘인재(人材), 재능이 있는 사람’의 뜻으로도 쓴다.

c. 기(幾) : 도달하다, 도착하다, 달성하다. 본 시에서는 ‘달성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40) ① 정학(正學) : 수사(洙泗)의 정학(正學) 곧 공문(孔門)의 바른 학문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권제10·제124장」에 보면, “수사정학이, 〈조선 태종의〉 성성에 밝으시매, 이단을 홀로 배척하시니(洙泗之正學 聖性自昭晰 異端獨能斥).”라는 대목이 보인다. 또한 “수·시는 모두 물 이름이다. 수수洙水是 태산에서 흘러 나와서 사수泗水로 들어간다. 공자가 가르침을 베푼 곳이다(洙泗 皆水名也 洙水 出泰山入泗 孔子設教處也).”라는 주석이 보인다.

② 금무계(今無繼) : 지금은 계승되지 않다, 지금은 계승되는 것이 없다

41) ① 고산(高山) : ‘높은 산, 고준(高峻 : 높고 험준한 산)’ 또는 ‘산이 높다’의 뜻인데, ‘승고한 덕행’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② 양자외(仰自巍) : 쳐다만 보면 당연히 높고 험준하게 느껴진다.



시9. 매화의 풍격을 본받으면서

(갑자년甲子年 : 1564년 : 서애 23세)

詩9. 孝梅甲子¹⁾
효 매 갑 자

梅兄標格異凡材²⁾,
매 형 표 격 이 범 재

매화 형의 풍도風度는
범인凡人과 다르나니,

歲晚端抱凌霜盟³⁾.
세 만 단 포 등 상 맹

세월에 오로지 마음에 품은 게
서리추위 전딜 맹세였네.

芳心不合擅南薰⁴⁾,
방 심 불 합 천 남 훈

매화의 뜻에 맞잖게
남풍이 제멋대로 불어와,

綠裏怪底開寒英⁵⁾.
녹 리 괴 저 개 한 영

녹엽은 숨겨두고
아직 चु거늘 꽃부터 피우네.

深誠所格物無微⁶⁾,
심 성 소 격 물 무 미

아무리 성실해도
바로 잡을게 적지 않지만,

主人純孝通神明⁷⁾.
주 인 순 효 통 신 명

주인의 극진한 효도는
천지신령에게 통했네.

多年膝下蘊深愛⁸⁾,
다 년 슬 하 온 심 애

다년간 부모 슬하膝下에서
깊은 사랑 쌓인데다,

肫肫至情由天成⁹⁾。
준 준 지 정 유 천 성

간절하게 우러나는 참된 정은
천성에 드러나네.

升堂長彩老萊衣¹⁰⁾，
승 당 장 채 노 래 의

대청에 오른 나는 색동저고리 입고
양친 모시고,

入廚幾舍封人羹¹¹⁾。
입 주 기 사 봉 인 쥬

부엌의 여인들은 관찰사께
국을 끓여 올리네.

南風六月景光長，
남 풍 유 월 경 광 장

남풍 부는 유월은
풍광이 아름답다 예찬하며,

一堂肆筵稱壽觥¹²⁾。
일 당 사 연 칭 수 쥬

대청에 모여 주연酒宴 열고
축수祝壽 기원하는 술잔 올리네.

萱花百年樂彌康¹³⁾，
훤 화 백 년 락 미 강

어머님 종신토록 즐겁고
더욱 편안하셔야 할 텐데,

愛日不禁輸深誠¹⁴⁾。
애 일 불 금 수 심 성

봉양할 세월의 흐름은 못 막지만
가진 정성 다하네.

婉容愉色樂且湛¹⁵⁾，
완 용 유 색 락 차 담

유순한 신관에 유쾌한 안색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니,

藹藹庭闈生光榮¹⁶⁾。
애 애 정 위 생 광 영

화기애애한 내실에 광영光榮의
빛이 감도네.

籩豆儋處樂事饒¹⁷⁾，
변 두 빈 처 락 사 요

변두籩豆에 성찬盛饌 담아 접대할 때
즐거운 일들이 점점 풍요해져,

一團和氣抽前楹¹⁸⁾。
일 단 화 기 추 전 영

온 집안에 화기 넘쳐
집 앞 기둥도 뻗을 듯하네.

天工既是感至誠¹⁹⁾，
천 공 기 시 감 지 성

자연스레 이뤄진 일
이 같으니 지성至誠에 감응했나,

造物有意彰休禎²⁰⁾。
조 물 유 의 창 휴 정

조물주도 뜻한 바 있어
내린 길조가 분명하네.

樽前忽覺異香惹²¹⁾，
준 전 홀 각 이 향 야

술잔 앞에 홀연히 별난 향내 풍긴다 싶더니,

樹頭驚却回春情²²⁾。
수 두 경 각 회 춘 정

놀랍게도 나뭇가지 끝에
봄이 도래한 정황이었네.

招魂不必歲暮天²³⁾，
초 혼 불 필 세 모 천

초혼招魂할 필요 없이
모친暮天 향해 풍년 기원하는데,

律外雪萼風前橫²⁴⁾。
율 외 설 악 풍 전 횡

담장 밖에는
설매雪梅가 바람에 훑날리네.

繁陰密邊點孤明²⁵⁾，
번 음 밀 변 점 고 명

산 주변에 그늘 짙어도
먼 곳은 석양이 밝아서,

一白可洗群芳腥²⁶⁾。
일 백 가 세 군 방 성

한잔 술로 군자들의
속된 품행 씻어내네.

孤芳表出孝子心²⁷⁾，
고 방 표 출 효 자 심

뛰어난 인품은 효심에서 드러나나니,

一場慶席騰歡聲²⁸⁾。
일 장 경 석 등 환 성

한바탕 경사스런 자리라서
환성이 높아지네.

奇觀剩得天借成²⁹⁾，
기 관 잉 득 천 차 성

기이한 풍경은 거둬 마주하며
종일 관상해도 좋지만,

異事傳播時人驚³⁰⁾。
이 사 전 파 시 인 경

기괴한 사건은 전파되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놀라네.

物我相感在須臾³¹⁾,
물 아 상 감 재 수 유

사물과 자아自我는 상호감응 해야
(사람은) 맘이 쾌적하여 만족하는데,

植物亦自專佳名³²⁾。

식물은 모두 자기 스스로
미명美名을 성취하네.

寒菰何但蒂氷崖³³⁾,
한 고 하 단 제 빙 에

겨울인데 줄풀을
하필 물가에 심을 필요 있겠나만,

凍笋堪比霜中萌³⁴⁾。

언 땅에 돋는 죽순이야 서리 맞고
튼 싹인데 어찌 비교할 수 있으랴.

從知誠孝格徹天³⁵⁾,
종 지 성 효 격 철 천

효성을 추구하며 행하니
하늘도 감동했는지,

一念隨處奇祥呈³⁶⁾。

한결같은 그 마음 도처에서
유달리 상서롭게 드러나네.

君不見、東閣瓊藥數枝斜³⁷⁾,
군 불 견 동 각 경 예 수 지 사

그대는 못 봤는가,
동각東閣 앞의 비껴 뺀
여러 가지에 핀 백매白梅와,

西湖玉英千株傾³⁸⁾。

서호西湖에 옥빛 연꽃 일천 그루
살짝 기울 멋진 모습을!

巡簷只是供騷人³⁹⁾,
순 첨 지 시 공 소 인

처마 밑 오가며
문인들을 접대하네 불과했지만,

照耀但遣詩料清⁴⁰⁾。

직접 서정抒情한게 빛났던 것은
시적 재료 청려해서였네.

爭似孤根標純心⁴¹⁾,
쟁 사 고 근 표 순 심

어찌 (매화의) 고고孤高한 근성根性 지닌
선비의 순수한 마음과 같으랴만,

永使末路人顏頰⁴²⁾。
영 사 말 로 인 안 정

언제나 궁지에 몰린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네!

安得詩人歌勿伐⁴³⁾，
안 득 시 인 가 물 벌

어찌 시인에게 시 읊으며
비평 말라 하겠는가?

高風千載留孤楨⁴⁴⁾。
고 풍 천 재 유 고 정

천년의 고상한 풍격은 (매화의)
고절孤節 지닌 정신楨臣에게 보존됐네!

1) 효매 갑자(孝梅甲子 : 매화의 품격을 본받으면서) :

① 효매(孝梅) : 매화를 본받다

a. 효(孝) : 본받다

② 갑자(甲子) : 갑자년(甲子年) : 1564년 : 서에 23세

2) ① 매형(梅兄) : 매형(梅兄)은 “매화에 대한 아칭(雅稱 : 미칭美稱)”이다. 직역하면, ‘매화 형’이란 뜻으로, 탈속하고 정다운 매화를 의인화하여 표현한 말이다.

② 표격(標格) : 풍도(風度), 풍범(風範 : 풍채, 풍모와 재능)

3) ① 세만(歲晚) : 세밑, 선달그믐께

② 단포(端抱) : 오로지 마음에 품다.

③ 능상맹(凌霜盟) : 서리추위를 견딜 맹세(를 하다). 서리추위에 저항하지는 맹세(를 하다).

a. 능상(凌霜) : 상한(霜寒 : 서리추위)에 저항하다.

b. 맹(盟) : 맹약, 맹세

4) ① 방심(芳心) : ‘화예(花蕊 : 꽃술)’를 가리킨다. 속칭 ‘화심(花心)’이라고 칭한다. 본 시에서는 ‘매화의 마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불합(不合) : 마음에 들지 않다, 뜻에 맞지 않다

③ 천남훈(擅南薰) : 남풍이 제멋대로 불어오다

a. 천(擅) : 제멋대로 하다

b. 남훈(南薰) : ‘남훈(南熏)’이라고도 쓴다. 본 시에서는 ‘남풍’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5) ① 녹리(綠裏) :

☆녹엽의 정돈, 이 때의 ‘리(裏)’는 리(理)와 통하는 자로서 정리하다는 뜻이다. 본 시에서는 ‘녹엽’이라고 축약해서 정리한다.

☆녹엽은 가지 내부에 마무리게 하다.

② 괴저(怪底) :

☆괴이하게 숨겨두다, 은밀히 숨겨두다

a. 괴(怪) : 괴이하다

b. 저(底) : 은장(隱藏)하다, 은밀히 숨겨두다(간직하다)

- ③ 개한영(開寒英): 추운 계절에 꽃을 피우다, 한기(寒氣)도는 꽃송이, 곧 매화를 피우다
- 6) ① 심성(深誠): 아무리 성실해도
 a. 심(深): 대단히, 심히, 아주, 극력(極力), 아무리(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냄)
 b. 성(誠): 성실하다
- ② 소격(所格): 바로 잡아야 하는, 고쳐야 하는, 광정(匡正)해야 하는, 규정(糾正)해야 하는
- ③ 물무미(物無微): ...하는 일이 적지 않다(없지 않다)
 a. 물(物): 일, 사무, 물건
 b. 무미(無微): 적지 않다
- 7) ① 순효(純孝): '극진한 효도'를 이르는 말로서, '지효(至孝)'와 같은 말이다.
 ② 통神明(通神明): 천지신령에게 통하다
- 8) ① 슬하(膝下):
 ☆'슬하'란 '어린아이의 키가 부모의 무릎아래 머물 때'란 뜻으로, 사람됨이 어릴 때는 늘 부모의 무릎 곁에서 자랐던 것을 가리키는데, 부모의 어린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의 출처는 『효경(孝經)·성치(聖治)』편에, 보인다.
 ☆부모의 신변(身邊)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② 온심애(蘊深愛): 깊은 사랑이 쌓이다
 a. 온(蘊): 간직해 두다, 모으다, 축적하다. 본 시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축적된 것'을 가리킨다.
- 9) ① 준준(肫肫):
 ☆성실하고 간절하다. 간곡하고 지극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중용(中庸)』 제32장에, “〈중니(仲尼) [공자]의 지성(至誠)스러운 모습은〉 간곡하고 지극하니 인仁 그 자체요, 깊고 고요하니 심연(深淵) 그 자체이며, 높고 넓으니 하늘 그 자체로다(肫肫其仁, 淵淵其淵, 浩浩其天).”고 한 대목이 있다.
- ② 지정(至情): 진정(眞情), 극히 진실한 사상 감정
- ③ 유천성(由天成): (지극한 정성은) 천성에 의해서 드러나다.
 a. 유(由): ...에 의해서, ...로써, ...로 말미암아
 b. 천(天): '천성(天性)'을 가리킨다
 c. 성(成):
 ○ 실현하다(되다), 완성하다(되다), 본 시에서는 피동의 뜻인 '이룩되다'의 의미로 여기서는 '드러나다'로 번역한다.
 ○ 갖추다, 구비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10) ① 승당(升堂): 대청에 오르다
 ② 장채(長彩): 언제나 광채를 띠다
 ③ 노래의(老萊衣): '노래자(老萊子)'가 입었던 어린애가 입는 오색 색동저고리'란 뜻으로 '양친에 대한 효행'을 표시하는 말이다.
 a. 노(老): 전철(前綴)로서 성씨 앞에 쓰여 타인을 칭하는 말로 쓰였다.
 b. 내의(萊衣): 노래자가 입었던 오색 색동저고리. 당나라의 서예가 구양순(歐陽詢)이 편찬한 유서(類書), 『예문류취(藝文類聚)』 권20에서 『열녀전(列女傳): 전

한前漢의 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책』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노래자는 양친을 효행으로 봉양하였는데(老萊子孝養二親), 당시 나이 일흔이었는데도(年行七十), 꺾먹이 아이 스스로가 즐겁다고 생각하며 놀 듯이(嬰兒自娛), 오색 색동 저고리를 입었었다(著五色彩衣). 늘 즈액汁液을 들고 마루에 올라가 놀다가(嘗取漿上堂, 넘어지기도 하는데(跌汁), 바닥에 누운 김에 어린이 놀이[사냥]을 하며 소리 내어 울거나(因臥地爲小兒啼), 양친 곁에서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늙은 어미 새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놀이’를 하였다(或弄鳥鳥於親側).”고 한 대목이 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노래의(老萊衣)’란 말을 가지고 ‘효행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뜻의 말로 썼다.

*래(萊): 춘추말엽 초나라의 은사(隱士) ‘노래자(老萊子)’의 성씨이다. ‘래씨(萊氏)’라고도 칭하고, ‘래자(萊子)’라고도 칭한다.

- 11) ① 입주(入廚): 부엌에 들어가다
- ② 기사(幾舍): ‘몇 사람의 젊은 여성 가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는데, 역자는 ‘여인들’이라고 번역하였다.
 - a. 기(幾): 수사(數詞)로서, ‘10’미만의 소수(少數)를 나타낸다. ‘몇’으로 번역된다.
 - b. 사(舍): 자기의 집이나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친족에 대한 겸칭으로 쓰는 말이다. 사친(舍親: 타인에 대해서 자기의 친척을 겸칭하는 말), 사간(舍間: 자기 집을 겸칭한 말), 사백(舍伯: 사형술兄: 형이 아우를 상대하여 자기를 겸칭하는 말) 등이 그 예이다. 본 시에서는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친족 중의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바, 서애의 부인과 형수 및 여동생들이 되겠다.
- ③ 봉인강(封人羹): 관찰사께 국을 끓여 드리다.
 - a. 봉인(封人): 주(周)나라 시대의 관명(官名)으로, 『주례(周禮)』에 의하면, ‘봉인(封人)’은 지관사도(地官司徒: 육경六卿 중의 하나로 국가의 토지와 백성교화를 관장하였음)의 속관(屬官)으로, 제왕의 사단(社壇: 고대에 토신土神에게 제사 올리는 단壇)과 경기(京畿)의 강계(疆界)지역 수비를 관장하였던 관직이다. 본 시에서의 ‘봉인(封人)’은 서애(西厓) 선생의 부친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1515~1573) 공의 관직인 ‘황해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를 대칭(代稱)한 말로 쓰였다. 왜냐하면, 본 시의 작시(作詩) 연대가 갑자년(甲子年: 1564)이었고 그 당시 입암 선생의 관직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본 시에서는 ‘관찰사 내외분’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강(羹): 육류나 채소 또는 생선 등으로 만든 걸쭉한 즙의 식물(食物)이다. 우리말로로는 ‘국’으로 번역되나, 실제 우리가 먹는 국처럼 ‘물을 많이 붓고 간을 맞추어 끓인 음식’이 아니라 국보다는 많이 걸쭉한 음식이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어갱(魚羹), ‘두부갱(豆腐羹), ‘수과갱(水果羹) 등을 먹고 있는데, 끓이거나 찌서 걸쭉하게 만들거나 풀 상태의 음식물로 조리한 것이다.
- 12) ① 일당(一堂): 만당(滿堂) 대청에 사람들로 가득 차다, 또는 그곳에 가득 찬 사람들
 - a. 일(一): ‘전(全: 전체의, 모든)’ 또는 ‘만(滿: 가득 참, 온통, 전부)’의 뜻으로 쓰였다.
 - b. 당(堂): 대청, 방
- ② 사연(肆筵): 설연(設宴: 주연을 베풀)
 - a. 사(肆): 배풀다, 퍼다, 진설(陳設)하다

b. 연(筵): ‘연(筵)’은 밑에 끼는 자리이고, ‘석(席)’은 그 위에 끼는 자리이다. 전(轉)하여 ‘연회(宴會)’의 자리’를 뜻한다. 연석(筵席: 자리)

③ 칭수굉(稱壽觥): 장수(長壽)를 축하하는 술잔을 들어 올린다.

a. 칭 ... 굉(稱觥): 술잔을 들어 올린다. ‘헌작(獻爵)’과 같은 의미이다

④ 칭(稱): 들어 올린다

⑤ 굉(觥): 술잔. ‘굉(觥)’으로도 쓴다.

○ 작은 항아리처럼 술을 담아 두거나 음주할 때 쓰는 술잔 같은 기구이다. 고대에는 짐승의 뿔로 만들었으나 후대에 와서 목제나 청동제로도 사용했다. 배는 타원형이거나 방형(方形)이고, 바닥에는 권족(圈足: 휘어진 다리)이나 사족(四足)을 달았고, 귀때(주전자의 부리같이 한 쪽에 바깥쪽으로 내밀어 만든 구멍)가 있고 손잡이도 있다. 뚜껑은 뿔이 달린 짐승머리 모양이다. 긴 코를 말아 올린 코끼리 두상(頭像)으로 만들었다. 어떤 것은 ‘굉(觥)’의 전체 형상이 짐승 모양을 한 것도 있다. 또 어떤 것은 ‘굉(觥)’안에 술을 떠내는데 쓰는 국자가 갖춰진 것도 있었다. 이 ‘굉(觥)’은 상(商)나라 시대와 서주(西周) 초에 성행했다. 주로 ‘술잔’으로 번역되었다.

b. 수굉(壽觥): 장수(長壽)를 기원하는 술잔

13) ① 흰화(萱花):

☆ 흰초(萱草)를 전(轉)하여 ‘모친’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모친의 거실을 ‘흰당(萱堂)’이라고 하였다. 본 시에서는 ‘모친’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흰초(萱草)의 꽃으로 우리말로 원추리(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초)라 한다.

② 백년(百年): 일생, 종신(終身)

③ 낙미강(樂彌康): 즐겁고 더 편안하셔야 할 텐데

a. 락(樂): 기쁘다, 즐겁다

b. 미(彌): 더욱더, 점점 더

c. 강(康): 편안하다, 건강하다

14) ① 애일(愛日):

☆ 전한(前漢)의 학자이자 문인인 양웅(楊雄: BC 53~AD 18)의 저서 『법언(法言)·효지(孝至)』에,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족했음을 안 사람은, 아마도 순임금이었으리라(事父母自知不足者, 其舜乎)! 은덕에 감사하지만, <세월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버이 모시는 것을 이른 말이니(不可得而久者, 事親之謂也), 효자는 <어버이 모시는> 나날의 세월을 아낀다(孝子愛日).” 고 한 대목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진(晉)나라의 학자 이궤(李軌: 생몰년 미상)가 ‘애일(愛日)’에 대한 주(注)를 달기를, “<어버이를 모심에 있어서> 잠시라도 마음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無須臾解於心).”는 뜻이라고 하였다. 후에 사람들은 이 ‘애일(愛日)’이란 말을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일을 가리키기는 말로 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애(愛): 아끼다, 소중히 하다

b. 일(日): 나날이, 때, 시기, 본 시에서는 ‘세월’로 번역 한다.

② 불금(不禁): 억제하지 못하다, 억누를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 본 시에서는 ‘세월의 흐름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수심성(輸深誠): 성심(誠心)을 다하다, 성심껏 …하다
 a. 수(輸): 헌납하다, 기부하다, 내다, 건네다
 b. 심성(深誠): 깊은 성심(誠心), 깊은 정성
- 15) ① 완용(婉容): 유순한 용모. 화순(和順: 온순하고 양순함)한 의용(儀容: 몸을 가지는 태도, 또는 차린 모습: 용모)
 ② 유색(愉色): 유쾌한 얼굴빛, 화기에애한 표정
 ③ 낙차담(樂且澹): 즐겁고 기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다
- 16) ① 애애(藹藹): 온화한 모양, 화기(和氣)가 감도는 모양
 ② 정위(庭闈): 부모가 거처하는 방. 전(轉)하여 ‘부모’의 뜻으로도 쓴다.
 a. 위(闈): 내실(內室)
 ③ 생광영(生光榮): 영광스런 빛이 감돌다
 a. 생(生): 생기다, 발생하다, 야기되다
- 17) ① 변두(籩豆): 제기(祭器). 고대에 제사를 지낼 때나 연회를 베풀 때 상용하던 예기(禮器)이다. ‘변(籩)’과 ‘두(豆)’의 모양을 가장 간략한 상형문자로 표현한다면, ‘공(工)’자의 형상을 생각하면 쉽겠다. 첫 번째의 ‘한일(一)’획을 양푼(음식을 담는릇그릇)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 획인 ‘뚫을 끈(丨)’ 획을 몸통으로 그 굽기는 위에 얹어놓은 양푼 지름의 삼분의 일 가량이라 생각하며, 밑에 있는 ‘한일(一)’획은 족반(足盤: 굽다리: 받침대)으로서 위의 양푼과 같은 크기의 양푼을 얹어놓은 듯한 모양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또한 위에 술을 담는 그릇이나 몸통 및 굽다리 모두가 원형이다. 게다가 술을 담는 양푼의 깊이와 몸통의 높이와 밑에 있는 받침대의 두께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이것이 ‘변(籩)’과 ‘두(豆)’의 형상이다. 이러한 모양의 죽기(竹器)를 ‘변(籩)’이라 하고 목기(木器)를 ‘두(豆)’라 하였으며, 형상은 ‘변(籩)’이나 ‘두(豆)’라 하였으며, 그 ‘변(籩)’이나 ‘두(豆)’가 모두 같은 모양이다. 크기는 네 되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고, 2촌(二寸)되는 손잡이가 있다. ‘변’에는 과일과 포 같은 음식을 담고, ‘두’에는 육류나 식혜 등 물기 있는 음식을 담았다. 본 시에서는 ‘변두에 음식을 담아 놓은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빈처(賓處): 손님 접대할 때
 a. 빈(賓): 손님을 인도하거나 영접하다.
 b. 처(處): …할 때
- ③ 낙사요(樂事饒): 즐거운 애깃거리가 점점 더 해가다
 a. 낙사(樂事): 즐거운 일. 본 시에서는 ‘즐거운 애깃거리’로 번역한다.
 b. 요(饒): 점점 더해 가다.
- 18) ① 일단화기(一團和氣): 온 집안에 화기(和氣)가 넘치다.
 a. 일단(一團): 한 집단이나 무리의 뜻이나, 본 시에서는 ‘온 집안’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화기(和氣): 화목한 분위기
- ② 추전영(抽前楹): 집앞 기둥을 뽑을 듯하다.
 a. 추(抽): 뽑다, 빼다
 b. 전영(前楹): 전당(殿堂) 앞의 기둥
- 19) ① 천공(天工): 천연적으로 형성된 기교, 자연의 기교, ‘인공(人工)’과 상반되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자연스레 이뤄진 일’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기시(既是): 접속사로서, ‘기연(既然)’과 같은 말이며, 그 뜻은 ‘이미 이렇게 된 바에야, 기왕 그렇게 된 이상’이다.
- ③ 감지성(感至誠): 지극정성에 감응하다.
- 20) ① 조물(造物): 조물주(造物主): 조물자(造物者): 만물을 창조한 신
- ② 유의(有意): 동사로서, ‘…(할) 생각이 있다. 뜻한 바 있다’이다.
- ③ 창휴정(彰休禎): 길조(吉兆)가 분명하다
- a. 창(彰): 현저하다, 분명하다
- b. 휴정(休禎): 길상(吉祥)의 징조
- 21) ① 준(樽): ‘준(尊)’으로도 쓰고, ‘준(罇)’으로도 쓴다. 일반적으로 ‘술잔[주잔酒盞]’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 시에서도 이 뜻으로 쓰였다. 그러나 상고시대의 ‘준(樽)’은 다양할 뿐 아니라 현대의 ‘술잔’과는 크기나 모양 그리고 용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기에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첫째, 고대에 술을 담는 기물(器物)이다. 제사 때나 향연을 베풀 때 쓰던 예기(禮器)이다. 초기(早期)에는 도제(陶製)를 썼으나 후기에 와서는 주로 청동(靑銅)으로 주조(鑄造)했다. 배가 볼록하고 구부(口部: 주둥이 부분)가 크며, 조금 높은 권족(圈足: 굽다리: 원통형圓筒型의 받침대)이 있고, 그 형체가 비교적 크다(현대에 발굴된 낙양종정 청동기洛陽鐘鼎靑銅器의 경우 높이가 58.3cm 무게가 34kg에 달함). 자주 보이는 것은 원형(圓形)과 방형(方形: 몸이 사각으로 각이 진 것)이 있으며, 상대(商代)와 서주시대(西周時代)에 성행했다.
- 둘째, ‘준(尊)’의 형체를 분류하면, ‘견대구준(肩大口尊)’과 ‘고형준(觚形尊)’ 등 몇 종류가 있다.
- ② 이향아(異香惹): 특이한 향내가 풍기다
- a. 이향(異香): 특이하게 좋은 향기, 특이하게 짙은 향내, 이상하게 좋은 향기
- b. 아(惹): (향기가) 배다, 스치다, 풍기다
- 22) ① 수두(樹頭): 나무의 꼭대기. ‘수간(樹幹: 나무의 줄기) 이상의 부분’이란 뜻으로 ‘나무가지의 끝부분’을 이르는 말이다.
- ② 경각(驚却): 놀랍게도
- a. 경(驚): 놀라다
- b. 각(却): 동사 뒤에 사용하여, ‘도(掉)’, ‘거(去)’에 상당하는 어조사(語助詞)이다.
- ③ 회춘정(回春情): 봄이 돌아오는 정황
- 23) ① 초혼(招魂):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돌아오게 하다.
- ② 불필(不必): …할 필요 없다
- ③ 세모천(歲暮天): 저물녘 하늘 향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 a. 세(歲): 제명(祭名)으로, ‘연말에 자내는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가리킨다. 곧 ‘기년(祈年: 풍년이 되기를 빌)’을 가리킨다. 『상서(尙書)·낙고(洛誥: 낙읍洛邑의 훈고)』편에, “무진일예, 주성왕周成王이 낙읍에서 동계冬祭를 거행하면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였는데, 문왕께 적색赤色 소 한 마리를 제물로 올리고, 무왕武王께서도 적색 소 한 마리를 제물로 올렸다(戊辰, 王在新邑烝, 祭歲, 文王騂牛一, 武王騂牛一).”고 한 대목이 있다.
- b. 모천(暮天): 저물녘의 하늘, 저녁때의 저무는 하늘

- 24) ① 율외(律外): 언덕 너머
 a. 율(律): ‘루(壘)’와 통하며, ‘군사용 보루(堡壘)’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담장[담]’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설악(雪嶽): 설화(雪花), 전(轉)하여 ‘백화(白花)’를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서 ‘설화’는 눈 속에서 꽃을 피운 매화, 곧 ‘설매(雪梅)’를 칭하는 것이다.
 a. 악(萼): 꽃받침
- ③ 풍전횡(風前橫): 바람에 훑날리다. (꽃잎이) 바람이 불어오는 앞 쪽에서 마구 종횡으로 날리어 가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a. 횡(橫): 종횡으로 어지럽다, 뒤섞이다, 혼란하다, 교차하다
- 25) ① 번음(繁陰): 번음(繁蔭)으로도 쓴다. 짙은(무성한) 나무그늘. 나무 그늘이 짙다.
 ② 밀변(密邊): 산의 주변
 a. 밀(密): 형상이 집과 같이 생긴 산. 『이아(爾雅: 13경(經)의 하나로 BC 2세기 경 주공周公이 지었다고 전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서(字書). 석산(釋山: 산명山名을 나열하여 설명한 것)』편에, “산의 형상이 집과 같이 생긴 산을 ‘밀(密)’이라고 한다(山如堂者密).”고 하였다.
 b. 변(邊): 부근, 주위, 주변, 옆, 겉
- ③ 점고명(點孤明): 불을 켜 듯 먼 곳은 석양이 밝다.
 a. 점(點): 점화(點火)하다, 불을 켜다
 b. 고(孤): 멀다, 먼 곳
 c. 명(明): 일월(日月)의 빛이 밝다. (환하다, 빛나다) 일광이 밝다. 본 시에서는 ‘석양이 밝다’로 해석한다.
- 26) ① 일백가세(一白可洗): 한 잔의 술로 …을 씻어내다(없애다, 제거하다)
 a. 백(白): 고대에는 벌주(罰酒)의 잔을 가리켰으나, 훗날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술’이나 ‘술잔’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 ② 군방성(群芳腥): 현사들의 (군자들의) 속된 품행
 a. 군방(群芳): 여러 현사(賢士)나 미인을 비유한 말. 본 시에서는 ‘군자들·못 현사들’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④ 방(芳): 화초. 전(轉)하여, ‘미덕, 덕행’을 가리킨다. 어진 덕행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성(腥): ‘(괴, 고기, 생선 등의) 비린내가 나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성덕(腥德: 추악한 품행)’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속된 품행으로 번역한다.
- 27) ① 고방(孤芳): 초군출중(超群出衆)한 향화(香花), 향내 유별난 향화, 또한 그 향화의 향내를 가리키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인품이 매우 고상(高尚)한 것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a. 고(孤): 독특하다, 특출하다
- ② 표출(表出): 겉으로 나타나다(드러나다), 표출되다
- 28) ① 일장(一場): 한바탕
 ② 경석(慶席): 경사스러운 자리
 ③ 등환성(騰歡聲): 환성이 높아지다
- 29) ① 기관(奇觀): 보기 드물고 기이한 광경, 기이한 자연의 풍경, 뛰어난 광경(경치)를 비유한 말로도 쓴다.

- ② 잉득(剩得): 거둬 마주하다
 a. 잉(剩): 게다가, 더욱 더, 다시, 거둬
 b. 득(得): 만나다, 마주치다, 맞이하다
- ③ 천차성(天借成): 진종일 관상(觀賞)해도 좋다.
 a. 천(天): 낮, 종일, 온종일(진종일)
 b. 차(借): 연석(憐惜)하다, 애호하다. 본 시에서는 ‘관상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c. 성(成): 되다, 좋다
- 30) ① 이사(異事): 기괴한 사정,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이상한 일. 인간 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일체현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특별한 사건, 평상적인 것이 아닌 일, 비상사(非常事)
- ② 전파(傳播): 전하여 널리 퍼뜨리다(퍼지다), 유포(流布)하다, 전파하다
- ③ 시인경(時人驚): 그때마다 (때때로) 사람들은 놀란다.
- 31) ① 물아(物我): 외물(外物: 바깥 세계의 사물)과 자아(自我: 기신己身). 사물과 나
- ② 상감(相感): 상호감응하다
- ③ 재수유(在須臾): 마음이 쾌적하여 스스로 만족하다.
 a. 재(在): 존재하다, 있다
 b. 수유(須臾): 우유자득(우유자득優遊自得: 우유자적優遊自適: 유한여의悠閑如意: 쾌적한 가운데 스스로 만족함)하다.
- 32) ① 역자(亦自): 모두 자기 스스로
- ② 전가명(專佳名): 미명(美名)을 성취하다
 a. 전(專): ‘만(滿: 성취하다, 완성하다, 충만하게 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b. 가명(佳名): 좋은 평판이나 명성, 미명(美名), 명성을 날리다(떨치다, 얻다, 높다)
- 33) ① 한고(寒菰): 한고(寒菰)로도 쓴다. 뜻은 ‘한겨울의 줄풀’이며, 벼과에 속하는 다년생의 초본식물로서 못과 늪에서 자란다.
- ② 하단(何但): 하필(何必: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는가, ...할 필요가 없다)
- ③ 체빙애(薜冰崖): 얼음이 언 물가에 십다
 a. 체(薜): 씨나 묘목을 땅에 십다
 b. 빙애(冰崖): 얼어붙은 물가, 얼음 어는 물가
- 34) ① 동순(凍筭): 동순(冬筭: 언 땅에 돋는 죽순竹筍): 늦겨울 이른 봄에 땅속줄기에서 돋아나는 어린 싹의 죽순(竹筍)
 a. 동(凍): 얼음(이 얼다)
 b. 순(筍): ‘순(筍)’과 동자(同字)로서, 죽순(竹筍)이다.
- ② 감비(堪比): 비교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는가?
 a. 감(堪): ...할 수 있다
 b. 비(比): 비교하다, 겨루다
- ③ 상중맹(霜中萌): 서리 내릴 때 돋은 싹
- 35) ① 증지(從知): 추구하며 행하다
 a. 증(從): 추구하다
 b. 지(知):
 ○행하다. 한자로는 ‘위(爲)’와 ‘작(作)’으로 해석된다.

- 주관(主管)하다, 처리하다, 시행하다
- ② 성효(誠孝):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효도와 공경
- ③ 격철천(格徹天): 하늘을 감동시킴에 이르다
- a. 격(格):
- 감동하여 통하다
- 이르다
- b. 철천(徹天): 하늘에 사무친다는 뜻으로 두고두고 잊을 수 없도록 마음에 사무침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철(徹): 통하다, 뚫다, 환하다, 밝다
- ⑤ 천(天): 하늘
- 36) ① 일념(一念): 한결같은 마음, 오직 한 가지 생각
- ② 수처(隨處): 도처에, 어느 곳을 막론하고
- ③ 기상정(奇祥呈): 유달리 상서롭게 드러나다. 기이한 상서로움이 드러나다
- 37) ① 군불견(君不見): ‘그대는 못 봤는가’라는 이 말은 악부시에서 상용되는 상투어이다.
- ② 동각(東閣):
- ☆지방수령의 관아(官衙)를 뜻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해석한다.
- 남조(南朝) 양대(梁代)의 하손(何遜)이 건안왕(建安王)의 수조관(水曹官)으로 양주(揚州)에 있을 때 관청 뜰에 매화 한 그루가 있어서 매일같이 그 나무 아래서 시를 읊곤 했다. 뒤에 낙양(洛陽)에 돌아갔다가 그 매화가 그리워서 다시 양주로 발령해 주길 청하여 양주에 오니 마침 매화가 한창 만개(滿開)하여 하루 종일 그 곁을 떠나지 못했다는 ‘동각관매(東閣觀梅)’ 고사(故事)가 전해 오는데 본 시에서의 ‘동각’은 바로 이 고사를 상기(想起)시키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 *하손(何遜: 466~519): 중국 남조(南朝)의 양대(梁代) 시인으로, 자는 중언(仲言)이고, 동해담(東海潭: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난릉현蘭陵縣 장성진長城鎮) 사람으로, 양주(揚州)에 임직시에 「영조매(咏早梅)」 시를 썼는데, 고로 두보는 그의 시로써 배적(裴迪: 당대唐代의 시인)에 비유했다
- ☆동쪽 겹채의 거실이나 누방(樓房: 층집). ‘동쪽 겹채의 거실’로도 해석할 수 있다.
- ③ 경예(瓊蕊): 경예(瓊蕊)로도 쓴다. 백화(白花)의 미칭으로 본 시에서는 ‘백매(白梅: 흰 매화)’의 뜻으로 쓰였다.
- ④ 수지사(數枝斜): 비껴 뻗은 여러 나뭇가지
- 38) ① 서호(西湖): 중국 영주(潁州: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부양시阜陽市)의 서호(西湖)를 가리킨다. 절강성(浙江省)의 항주(杭州)에 있는 서호와 함께 유명하다. 북송(北宋)의 정치가이고 문학가이며 사학자인 구양수(歐陽脩: 1007~1072)의 「채상자(采桑子: 荷花開後西湖好)」사(詞)에서, 서호(西湖)에 만개한 연꽃[荷花]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상편(上片)을 보면, “연꽃이 핀 후에 (청향淸香이 감돌아서) 서호는 아름답다(荷花開後西湖好). 화선(畵船)에 술을 싣고 주연(酒宴)을 베풀어 즐길 때(載酒來時), 의장(儀仗)의 깃발 따윈 필요 없으니(不用旌旗), 절로 붉은 연꽃잎 휘장과 푸른 연잎의 우산이 서호의 유선(遊船)을 수행하기 때문일세(前

後紅幢綠蓋隨).”

***구양수(歐陽脩)**: 1007~1072) : 중국 송나라 인종(仁宗)~신종(神宗)때의 정치가이며 역사학자이기도 한 그는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이다. 시사(詩詞) 각 체(體)에도 능했다. 자는 영숙(永叔)·취옹(醉翁)·육일거사(六一居士)이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채상자(采桑子)**: 사패(詞牌: 사조詞調의 명칭)의 명칭으로, ‘채상자령(采桑子令)’, ‘추노아(醜奴兒)’, ‘나부미가(羅敷媚歌)’라고도 불리며, 상인들의 노래로 한(漢)나라 시대 악부시(樂府詩) 맥상상(陌上桑)의 옛 이름을 딴 것으로 쌍조(雙調) 44자(字)로 되어 있다.

② 옥영(玉英): 연꽃의 미칭이다.

③ 천주경(千株傾): 수만 그루의 연꽃이 시야 밖으로 비스듬하게 허리를 굽히며 펼쳐져 있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39) ① 순침(巡檐): ‘순침(巡檐)’으로도 쓴다. 뜻은 ‘처마 앞을 왕래하다’이다.

② 지시(只是): 단지 …에 불과하다(뿐이다)

③ 공소인(供騷人): 시인들을 접대하다.

a. 공(供): 봉헌(奉獻): 봉건을 만들어 바침하다. 공급하다, 제공하다. 본 시에서는 ‘접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소인(騷人): 시인, 문인. 본 시에서는 관찰사의 생일축하연에 참석한 내방객(來訪客)들을 칭한다.

④ 소(騷): 시부(詩賦)

40) ① 조요(照耀): ‘조요(照耀)’로도 쓰고, ‘조요(照耀)’로도 쓴다. ‘오색(五色)이 빛나다, (빛이 휘황하게) 빛나다, (일광이나 월광이) 빛나다, (초목의 청신함이) 빛나다’ 등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서애 자신이 직접 읊은 시가 빛났던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단견(但遣): 곧장 (직접 시를) 읊다

a. 단(但): 직접, 곧장

b. 견(遣): 서발(抒發)하다. (감정을) 토로하다, (심정을) 나타내다. 본 시에서는 ‘서정(抒情: 자기의 정서를 그려냄)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③ 시료청(詩料淸): 시적 재료가 청려(淸麗: 맑고 고운)한 것

a. 시료(詩料): 시를 짓는 소재(素材), 시를 읊거나 짓는 재료, 일반적으로는 ‘산수풍광’ 등 ‘자연’을 소재로 하나, 본 시에서는 읊은 시어(詩語) 중에서 예를 든다면, 바로 앞의 “동각(東閣)의 경예(瓊藥)”나 “서호(西湖)의 옥영(玉英)” 등이다.

b. 청(淸): 청려(淸麗: 맑고 고운)하다(한 것)

41) ① 쟁사(爭似): 즈름(怎似): 어찌 …와 같으랴?(…보다 좋을 것은 없다. …할 필요 없다)

a. 쟁(爭): 의문대명사로 ‘즈름(怎)’의 뜻으로 쓰였다. ‘왜, 어째서, 어떻게’의 뜻이다.

b. 사(似): 닮다, 비슷하다, (…인) 것 같다

② 고근(孤根): 외파로 떨어져 자란 한 그루 나무의 뿌리란 말로서, 의지할 곳 없이 고독하거나 독립한 근기(根基) 또는 독특한 근저(根底)를 지닌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매화의 근성을 지닌 선비’

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표순심(標純心) : 순수한 마음을 표하다.

42) ① 영사(永使) : ‘늘 …에게 …하게 하다’는 뜻이다.

② 말로(末路) : 궁지(窮地)

③ 인안정(人顔頰) : 사람들의 안색을 붉게 하다

a. 정(頰) : 정(禎) : 정(經) : 붉다. 적색(赤色). 본 시에서는 ‘안색(顔色)을 붉히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43) ① 안득(安得) :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불가득(不可得)’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a. 안(安) : 의문부사로 ‘어찌, 어떻게’의 뜻이다.

b. 득(得) : 조동사로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② 가물벌(歌勿伐) : 시를 읊으면서 비평하지 말라.

a. 가(歌) : 시를 읊다

b. 물(勿) : …하지 말라

c. 벌(伐) : 비평하다, 힐책하다, 비난하다

44) ① 고평(高風) : 고상한 풍조(風操)

② 천재(千載) : 천 년. 세월이 장구(長久)함을 이르는 말

③ 유고정(留孤楨) : 매화의 고절(孤節)을 지닌 정신(楨臣)에게 보존되다.

a. 유(留) : 보존하다

b. 고(孤) : 매화의 고고(孤高)한 절개를 표현한 것이다.

c. 정(楨) : ‘정(楨)’은 여정목(如貞木 : 광나무)으로서, 가등으로 쓰는 까닭에 ‘정신(楨臣)’이란 말이 생겼는데, 그 뜻은 ‘동량지신(棟梁之臣 : 한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책임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본 시에서의 ‘정(楨)’은 ‘정신(楨臣)’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시10. 해하_{垓下} 땅의 고훈_{古訓}을 조사연구하면서

詩10. 垓下訪古¹⁾ 해 하 방 고



西風一夕駕尻輪²⁾,
서 풍 일 석 가 고 룬

서풍 부는 어느 날 저녁 수레 타고
신유_{神遊}하는데,

過眼乾坤愁殺人³⁾.
과 안 건 곤 수 살 인

눈앞에 스쳐가는 천하를 보노라니
깊은 수심 찢어드네.

千古英雄雲去盡⁴⁾,
천 고 영 용 운 거 진

천고_{千古}의 영웅들은
구름이 흘러간듯 다 사라졌는데,

百年興廢夢來頻⁵⁾.
백 년 흥 폐 몽 래 빈

그들 평생의 흥망은 꿈에
자주 나타나네.

悲涼垓下空遺鳥⁶⁾,
비 량 해 하 공 유 조

비통 처량한 해하_{垓下} 땅에는
허공에 유전_{遺傳}된 새들만 떠돌고,

黯漠城邊有宿榛⁷⁾.
암 막 성 변 유 숙 진

어둡고 광활한 성 주변에는
초목이 우거졌네.

虐焰燔蒼咸疾呂⁸⁾,
학焰번창함질려

잔학하게 백성을 화형에 처하니
모두 여후_{呂后}를 증오하는데,

享嘉孚默己非秦⁹⁾。
향가부묵기비진

향락하며 침묵하다 그녀 자신은
진시황을 비난하네.

宮中逸鹿追誰健¹⁰⁾，
궁중일록추수건

궁궐에서 도망친 사슴은 누굴 쫓아가야
건강하게 있을꼬?

沛上潛龍化未神¹¹⁾。
패상잠룡화미신

패현沛縣에 잠복한 용은 변화해도
아직 신령이 안됐는데.

學敵萬人懷壯略¹²⁾，
학적만인회장략

만인에게 저항을 호소하며
호방한 지략 품고서,

起從三戶挺孤身¹³⁾。
기종삼호정고신

기병起兵한 소수병력 인솔하고
홀몸 우뚝 세웠네.

橫行宇內威稜震¹⁴⁾，
횡행우내위릉진

온 천하를 횡행하고 위세를 떨치면서,

蹴蹴關中氣勢伸¹⁵⁾。
축축관중기세신

벌벌 떠는 관중關中 땅에
그 기세 펼쳤네.

一炬咸陽三月火¹⁶⁾，
일거함양삼월화

횃불 하나로 (도성都城) 함양咸陽이
석 달이나 불에 타고,

八年天下萬民顛¹⁷⁾。
팔년천하만민빈

팔년간의 천하 대란에 만민은
눈살을 찌푸렸네.

誇強不悟終無益¹⁸⁾，
과강불오종무익

위세 과시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무익하되,

拯溺從來自有眞¹⁹⁾。
증닉종래자유진

물에 빠진 사람 구하면
그 자신 바른 일 행한 걸세.

蓋世雄圖空武烈²⁰⁾，
개세웅도공무열

세상 덮을 응지품고서도 무공武功은 헛되었고

拔山才力竟²¹⁾ 迢迢。
발 산 재 력 경 전 둔

산을 뽑을 능력 지니고도
곤경에 처해 뜻을 못 이뤘네.

孤城半夜歌傳楚²²⁾，
고 성 반 야 가 전 초

고립무원의 성에서 밤중에
초가楚歌가 들려오니,

玉帳妖臣淚滿巾²³⁾。
옥 장 요 신 루 만 건

(항왕項王) 장막 안의 미녀와
신하들은 눈물로 수건 적셨네.

起舞指天心鬱屈²⁴⁾，
기 무 지 천 심 울 굴

검무劍舞 추며 하늘 탓한
그 심정 울적했거늘,

投杯倚馬膽輪囷²⁵⁾。
투 배 의 의 담 윤 군

술잔 내려놓고 말 잔등에 올라탄
그 담력 컸었네.

香魂隨刃餘青血²⁶⁾，
향 혼 수 인 여 청 혈

미인의 혼은 칼날에 묻은
선혈에 남아 있는데,

龍脊卷蹄泣白鱗²⁷⁾。
용 척 권 제 음 백 린

산마루에 말발굽 소리 단절되고
강에는 물고기 울고 있네.

手下兵騎同捲甲²⁸⁾，
수 하 병 기 동 권 갑

부하들은 병기兵器와 말이며
모두 무장을 풀었고,

江東咫尺未通津²⁹⁾。
강 동 지 척 미 통 진

강동江東이 지척인데도
나루터에 당도하지 않았네.

誰知神器難容力³⁰⁾，
수 지 신 기 난 용 력

누가 알았겠나 제위帝位에 올라서도
천세 허용이 어렵단걸,

自是天心眷有仁³¹⁾。
자 시 천 심 권 유 인

단지 군주 마음으로
(항씨項氏) 친족에게 인仁을 베풀었네.

漢國羣臣爭舞蹈³²⁾
한 국 군 신 쟁 무 도

한나라 군신群臣은
앞 다뒀 땡실땡실 춤췄지만,

魯城絃誦足悲辛³³⁾
노 성 현 송 족 비 신

노성魯城 학도의 송독誦讀하는
소리는 비통했네.

征衫暮濕彭城雨³⁴⁾
정 삼 모 습 팽 성 우

저물녘에 나그네 적삼 적시며
팽성彭城에 비 내리더니,

野草遙連楚塞春³⁵⁾
야 초 요 련 초 새 춘

들풀이 아득히 이어지며
초나라 요새에 봄이 왔네.

霸業坐看隨逝水³⁶⁾
패 업 좌 관 수 서 수

패업경쟁을 흘러가는 강물 따라가며
잠깐 신유神遊하는데,

山河尙帶舊戰塵³⁷⁾

강산에는 아직도 옛 전장의
먼지가 쌓여있네.

臺名戲馬基猶在³⁸⁾
대 명 희 마 기 유 재

희마대戲馬臺라 칭하는 축대築臺
아직도 남아 있건만,

社廢鳴狐迹已陳³⁹⁾
사 폐 명 호 적 이 진

폐기된 사직단社稷壇엔 여우 울어
(2) 자취 이미 과거사過去事 됐네.

萬事亡羊空指點⁴⁰⁾
만 사 망 양 공 지 점

만사는 양치기가 양을 잃는 것과
같단 걸 괜히 지적했겠나?

古來遺恨此時新⁴¹⁾
고 래 유 한 차 시 신

예로부터 전해오는 회한이
지금 이 순간 새로워지네.

1) 해하방고(垓下訪古) : 해하(垓下) 땅의 고훈(古訓)을 조사연구 하면서

① 해하(垓下) : 고지명(古地名)으로,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영벽현(靈璧縣) 동남쪽 타하(沱河) 북안(北岸)이다. 일설에는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녹읍현(鹿邑縣) 경계 부근 이라고도 한다.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 : BC 256~BC 195)과 서

초패왕(西楚霸王) 항우(項羽 : BC 232~202)가 이곳에서 결전(決戰)을 벌여 항우가 대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사기(史記)·항우본기(項羽本記)』를 참조 바람.

*유방(劉邦 : BC 256~BC 195) : 한고조(漢高祖) : 패현(沛縣 :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패현沛縣)사람으로, 자는 계(季)이며, 서한(西漢)의 건립자이다. 진말(秦末)에 사수정장(泗水亭長 : 사수정泗水亭의 정장亭長 : 사수정은 지명으로 지금의 강소성 패현 동쪽임. 정장은 관명官名으로, 진대秦代의 지방행정구역은 현縣아래 향鄉을 향 아래 정후를 설치했는데, 10리마다 1정을 두고 10정마다 1향을 두었음. 정장은 치안과 소송의 직무를 담당하는 관리였음)을 역임했다. 진2세 원년(秦二世元年 : BC 209)에 진승(陳勝 : ?~BC 208)이 무장봉기하자 유방도 기병(起兵)하여 호응하면서 패공(沛公)이라 칭해졌다. 처음에는 항량(項梁 : ?~BC 208 : 항우項羽의 숙부)에게 소속되었다가, 항우(項羽 : BC 232~202 : 서초패왕西楚霸王)의 부대장병들과 함께 반진(反秦) 세력의 주력이 되었다. 한왕 원년(漢王元年 : BC 206)에 도성 함양(咸陽 :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함양시 동북 20리)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진(秦)나라 왕자 자영(子嬰 : 진시황의 손자 영자영嬴子嬰 : ?~BC 206 : 진나라 제3대 황제)이 항복하자, 약법삼장(約法三章)을 시행하면서 진나라의 가혹한 법령을 폐기했다. 항우가 관중(關中 : 함곡관이서函谷關以西 지역인데, 통사적으로 전국시대 말엽 진나라의 고지故地를 가리킴) 지역에 진입한 뒤, 항우가 대규모로 제후왕들을 봉할 때, 유방은 한왕(漢王)에 봉해졌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항우와 격전이 벌어졌고 한왕 5년(漢王五年 : BC 202)에 항우에게 전승(戰勝)하고 황제로 즉위해서 한왕조(漢王祖)를 건립했다. 한왕조는 진나라 제도를 이어받아 중앙집권제를 실시하였다. 왕조 건립에 공이 컸던 한신(韓信 : ?~BC 196) · 팽월(彭越 : ?~BC 196) · 영포(英布 : ?~BC 195) 등 이성 제후왕(異姓諸侯王)들을 선후에 걸쳐 도태시키고, 황실일족으로 대체했다. 농업은 중시하고 상공업은 억제한다는 이른바 중본억말(重本抑末)의 정책을 실시했으며, 진율(秦律)에 의거하여 한율구장(漢律九章)을 제정하였다. 8년 동안 재위(在位)했다.

*항우(項羽 : BC 232~202) : 초패왕(楚霸王 : 서초패왕西楚霸王) : 진(秦)나라 말엽 사수군(泗水郡) 하상현(下相縣),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숙천시(宿遷市) 서남 고성(古城) 사람으로, 이름은 적(籍)이며, 자가 우(羽)이다. 전국시대(戰國時代) 말엽 초(楚)나라 장수 항연(項燕 : ?~BC 233)의 후예이다. 힘이 세어 술을 어깨에 멜 수 있었고 재기(才氣)가 남달랐다. 진승(陳勝 : ?~BC 208)이 거사를 일으키자 항우는 숙부 항량(項梁 : ?~BC 208)과 함께 기병(起兵)하여 오중현(吳中縣 : 지금의 강소성 소주시蘇州市)에서 호응하였다. 항량이 패하여 죽고 난 뒤, 항우가 그 군대의 장수가 되었으며, 초희왕(楚懷王 : ?~BC 296 : 성은 옹씨熊氏, 이름은 괴槐)을 옹립하고 초희왕에게 순종했다. 진(秦)나라 장수 장한(章邯 : ?~BC 205)이 조(趙)나라를 포위하자 희왕(懷王)이 송의(宋義 : ?~BC 207)를 상장군(上將軍), 항우를 차장(次將)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조나라를 구하도록 했다. 송의가 안양(安陽 :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조현曹縣의 동남쪽)에 이르러 머뭇거리며 진군하지 않자, 항우는 송의를 죽이고 진격하여 진군(秦軍) 주력 부대를 거록현(鉅鹿縣 : 현 공관은 지금의 하북성河北

省 평향현平鄉縣 서남 평향진平鄉鎭에 위치했음)에서 격파하였다. 그 후 계속 진격하여 관중(關中: 함곡관이서函谷關以西 지역인데, 통상적으로 전국시대 말엽 진秦나라의 고지故地를 가리킴)을 통과한 후 자영(子嬰: 영자영嬴子嬰: ?~BC 206: 진시황의 손자로 진나라 제3대 황제)을 죽이고, 궁실을 불태웠다. 진나라가 망한 뒤 자립하여 서초패왕(西楚霸王)이 되고 나서 여러 제후 왕을 봉했다. 이어서 유방과 패권을 다투다가 해하(垓下: 지금의 안휘성安徽省 영벽현靈璧縣 동남 타하沱河의 북안北岸)에서 한군(漢軍)에 의해 곤경에 처해지고, 군량미도 고갈되는데다,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에 몰리면서, 오강(烏江) 강변까지 포위망이 좁혀지자, 스스로 목을 찢러 자살했다.

- ② 방고(訪古): 고훈(古訓)을 고사(考査: 사고査考: 연구함, 심사함, 조사 연구함)하다
☆고훈(古訓: 옛사람의 교훈)을 고사(考査: 조사 연구함)하다.
- 2) ① 서풍(西風):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주로 ‘추풍(秋風)’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일석(一夕): 어느 날 저물녘
- ③ 가고륜(駕尻輪): 수레 타고 (자적自適하며 산천을) 유람하다.
- **역지주석:** 본 시에서는 신유(神遊: 정신적으로 하는 유람, 곧 명상유람을 말함)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a. 가(駕): 수레를 타다
- b. 고륜(尻輪): 고륜신마(尻輪神馬): 수레 타고 유람하다(가다). 조물주의 조화로 만든 거마(車馬)이다.
- ④ 고(尻): 둔부(臀部): 엉덩이
- ⑤ 륜(輪): 수레바퀴
- ⑥ 신(神): 정신

『장자(莊子)·대종사편(大宗師篇)』에, “만약 〈도도로써〉 내 엉덩이를 점차 변화시켜, 수레바퀴를 만들고, 내 정신을 가지고 말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곧 그 수레에 타지, 어찌 다른 수레로 바뀌 타겠는가(浸假而化予之尻, 以爲輪, 以神爲馬, 予因以乘之, 豈更駕哉)!”라고 한 대목이 있다. 당나라의 도사(道士) 성현영(成玄英: 약 601~690)이 『장자(莊子)』의 주석에서 이 문장에 대해 소(疏)를 달기를, “엉덩이는 〈도의 깨달음에 대해〉 무지無知하기에 수레바퀴로 만들고, 정신의식은 대오大悟할 수 있어 말을 만드는데, 이것을 점차 변화시켜, 이 수레바퀴를 단 수레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가령 자유로이 마음 내키는대로 〈노정을〉 안배한들, 또 어떻게 한들 부적당한 것이 있겠는가(尻無識而爲輪, 神有知而作馬, 因漸漬而變化, 乘輪馬以遨遊, 苟隨任以安排, 亦於何而不適者也)?”라고 하였다. 현대인은 이해하기 어렵겠으나, 둔부(臀部: 엉덩이)를 가지고 수레를 만드는 상상을 하고, 자신의 정신의식을 가지고 수레를 모는 준마로 가정하는 이것은 외물(外物)을 차용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신유(神遊: 신유神遊: 정신적인 유람)함을 강조한 것이다. 본 시에서도 작자 서에 선생이 진말한초(秦末漢初)의 역사서적을 정독하고 신유(神遊)하면서 본 시를 읊은 것이다. ‘신유’를 좀 더 자세히 언급하면, ‘신체를 통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동경하는 상상의

세계를 친히 유람하는 것처럼 느껴서 읊은 것'이라 할 것이다. 후세의 사람들은 이 '고륜(尻輪)', 즉 '고륜신마(尻輪神馬)'란 말을 '마음 내키는 대로 가고 싶은 곳의 자연을 유람하는 전고(典故)'로 삼았다.

- 3) ① 과안(過眼) : 안전(眼前)에 스쳐 지나가다, 눈앞에 언뜻 보인다(언뜻 눈에 스치다).
- ② 건곤(乾坤) : 건곤(乾 ☰)으로도 쓴다. 국가, 강산, 천하를 말한다.
- ③ 수살인(愁殺人) : '수심에 겨워 사람 죽겠네' 또는 '겹쳐 쌓이는 근심이 사람 죽이네' 등의 뜻인데, '몹시 근심 되거나 근심이 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a. 수살(愁殺) : '수살(愁煞)'로도 쓴다. 사람으로 하여금 극히 근심스럽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④ 살(殺) : 조사로서, 정도가 심한 것을 표시한 말이다.
- 4) 운거진(雲去盡) : 구름이 흘러간 듯 사라지다.
 - a. 진(盡) : 죽다, 사망하다. 본 시에서는 '사라지다'로 표현한다.
- 5) 몽래빈(夢來頻) : 꿈속에서 자주 나타난다.
- 6) ① 비량(悲涼) : 몹시 슬프고 처량하다, 비통하고 처량하다
- ② 해하(垓下) :

****역지주석 :** 이곳은 항우(項羽)가 대패한 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주석 1)의

① '해하(垓下)' 조항을 참조 바람.

- ③ 공유조(空遺鳥) : 허공에는 유전(遺傳)하여 내려온 새들만 떠돌다.

- a. 공(空) : 허공, 창공, 하늘, 공중
- b. 유조(遺鳥) : 유전(遺傳)되어 내려온 새들. 말하자면, 당시 해하전역(垓下戰役)에서 잔존한 새들의 유전인자를 받은 새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음을 말한다.

- 7) ① 임막(黯漠) : 어둡고 광활하다
- ② 유숙진(有宿榛) : 초목이 우거져 있다.
 - a. 유(有) : 있다, 많다, 풍부하다, 생기다
 - b. 숙(宿) : 숙초(宿草 : 여러해살이 풀: 다년초多年草)
 - c. 진(榛) : 초목덤불(잡목, 잡초가 우거진 곳), 총림(叢林 : 초목이 우거진 숲). 초목이 우거진 모양, 황폐하고 쇠퇴(衰敗)해진 모양을 형용하기도 한 말이다.
- 8) 학염반창 함질러(虐焰燐燐咸疾呂) : 잔학하게 백성을 화형에 처하니 모두 여후呂后를 증오하는데) :

****역지주석 :** 본 시구는 여후(呂后)에 관한 내용을 읊은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여후(呂后) 조항을 참조 바람.

- ① 학염(虐焰) : 학염(虐燄) : 잔학(殘虐 : 잔포殘暴)한 기염(氣焰 : 불꽃처럼 대단한 기세)
- ② 반창(燐燐) : 창생(蒼生 : 백성)을 화형(火刑)에 처하다.
- ③ 함질러(咸疾呂) : 모두 여후(呂后)를 증오하다.
 - a. 함(咸) : 모두, 전부
 - b. 질(疾) : 혐오하다, 증오하다
 - c. 려(呂) : 본 시에서는 성씨(姓氏)로 쓰였으며 여씨(呂氏)는 '여후(呂后)'를 가리킨다.

*여후(呂后 : BC 241 ~ 180) : 여태후(呂太后) : 고후(高后) : 서한(西漢) 선보현(單父縣 :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선현單縣 남쪽 1리) 사람이다. 이름은 치(雉)이고, 자(字)는 후야(姁娥)이며,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황후이다. 초

한(楚漢) 전쟁 초에 항우(項羽)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후에 석방되어 돌아왔다. 유방이 칭제(稱帝)한 후에 황후에 봉해졌다. 사람됨이 모략에 능하고 성격이 강직하고 포악하여 고조를 도와 한신(韓信 : ?~BC 196)과 팽원(彭越 : ?~BC 196) 등 이성(異姓)의 왕들을 죽였다. 아들 혜제(惠帝 : BC 210~BC 188 : 고조의 맏아들로 성명은 유영(劉盈)이)가 즉위하고 나서는 척부인(戚夫人 : 정도현定陶縣, 지금의 산둥성 정도현, 출신으로 한고조 유방의 부인이며, 조은왕 趙隱王 여의如意의 모친임)의 손발을 잘라 옥에 가뒀다가 학살하고, 그 아들 조왕(趙王) 여의도 독살했다. 혜제가 타계하고 황권을 대행(代行)하며,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유방이 임용했던 구신(舊臣)들을 모두 배척하고 여러 명의 여씨(呂氏)를 왕위에 봉하여 남북군(南北軍 : 서한시대의 수도와 황궁을 지키던 부대. 남쪽과 북쪽에 나누어 주둔했기에 ‘남북군’이라 칭한 것임)의 군권을 장악하게 하였다. 여후의 사후에 여씨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주발(周勃 : ?~BC 169)과 진평(陳平?~BC 178)에게 주벌(誅滅)되었다. 여후가 황권을 대행한 것이 9년이었고, 서한의 정권을 장악한 것이 16년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사기(史記)』·여태후본기(呂太后本紀)』와 『사기(史記)』·고조본기(高祖本紀)』 및 『사기(史記)』·항우본기(項羽本紀)』를 참조 바람)

- 9) 향기부묵 기비진(享嘉孚默己非秦 : 향락하며 침묵하다 그녀 자신은 진시황을 비난하네) :

****역주주석 :** 본 짓구는 여후(呂后)에 관한 내용을 읊은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주석 여후(呂后) 조항을 참조 바람.

- ① 향가(享嘉) : 향락하다
- ② 부묵(孚默) : 침묵으로 상응하다. 본 시에서는 ‘침묵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기비진(己非秦) : 그녀 자신은 진시황(秦始皇)을 비난하다.

- a. 기(己) : 자기, 자신. 본 시에서는 여후(呂后) 자신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비(非) : 책망하다, 비난하다
- c. 진(秦) : 왕조 명칭.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전제군주의 중앙집권적 봉건주의 왕조이다. BC 221년 진왕(秦王) 정(政)이 중원(中原)을 통일하고 자칭 시황제(始皇帝)라 칭하면서 함양(咸陽 :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함양시 동북25리 요점진鎭店鎭 일대)에 건도(建都)했다. BC 206년에 한(漢)에 멸망됐으며, 2대(二代)에 걸쳐 15년간 존속했다. 본 시에서는 진시황(秦始皇)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진시황(秦始皇) :** 진시황은 진(秦)의 초대황제로 장양왕(莊襄王 : BC 280~BC 247)의 아들이다. 장양왕이 질자(質子 : 타국에 인질로 보낸 왕이나 대신)로서 조(趙)나라에 있을 때 여불위(呂不韋 : ?~BC 235)의 첩을 보고 반하여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시황(始皇)을 낳았다. (그래서 시황의 성씨를 조趙라고 하고 이름을 정政이라 하여 성명을 조정趙政이라고도 함) 진왕조(秦王朝)의 성씨인 영(嬴)씨 성을 이어받아 영정(嬴政)이라고 한다. 나이 13세에 즉위했는데, 당시 태후(太后)와 여불위(呂不韋)가 섭정을 하였다. 재위(在位) 9년째 되던 해에 노애(嫪毐 : ?~BC 238 : 여불위가 후궁에 보낸 가짜 환관宦官으로 태후의 총애를 받아 세력이 커졌음)의 반란을 평정한 뒤에, 여불위를 축출하였다. 그런 후에 정치가 이사(李斯 : ?~BC 208)와 국위(國尉 : 진秦나

라의 최고 군사장관) 요(繆 : 생몰년과 성씨는 미상, 요繆는 이름임) 등 관리를 인
용했다. 재위 17년 되던 해부터 26년 사이, 전후에 걸쳐 6국(六國)을 멸하
고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였다. 이어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봉건 중앙집권
국가를 건립하였다. 역대(歷代) 왕의 대(代)를 기록함에 시호(諡號)를 추서
하던 방법을 폐지하고 세대(世代)의 차례를 순차적인 숫자로 계산하여, 스
스로 시황제(始皇帝)라 칭하고, 그 뒤부터는 2세(二世), 3세(三世)…로 전
해지도록 하였다. 분봉제(分封制)를 폐지하고, 군현제(郡縣制)를 설치하고,
중앙관제를 개정하고, 삼권분립의 정부를 건립하고, 장성(長城)을 축조하고,
수레가 왕래할 수 있는 너비의 치도(馳道 : 천자가 거동하는 길)를 보수하고
문자를 통일하고 도량형(度量衡)과 화폐를 통일하고, 남쪽으로 백월(百越)
을 평정하고, 북으로는 흉노(匈奴)를 정벌하고, 강역(疆域)을 확대했다. 민
간무기를 봉쇄하고, 진(秦)나라 기록 이외의 각국 사서(史書) 및 민간이 소
장한 유가(儒家)와 제자전적(諸子典籍)은 모조리 소각 처리했다. 법으로서
교육을 했고, 관리로써 스승을 삼도록 했다. 재위 35년 되던 해에는 자신을
비판하는 방사(方士) 및 유생(儒生) 460여명을 갱살(坑殺)했다. 형법이 지
나치게 가혹했고, 부역이 너무 과중한데다 빈번했으며, 연년이 이어지는 전
쟁에 백성들은 연명하기가 지극히 힘이 들었다. 수차례 순시(巡視)를 나갔
는데, 제5차 순행 중에 사구(沙丘 : 지금의 허북성河北省 광중현廣宗縣 서북 8
리 대평대大平臺)에서 병사했다. 재위는 37년이었다.

- 10) 궁중일록 추수건(宮中逸鹿追誰健 : 궁궐에서 도망친 사슴은 누구 쫓아가야 건강하게 있을꼬) :

****역자주석 :** 위의 짓구는 ‘궁궐에서 상실한 제위(帝位)는 무엇을 추구해야 권세 강
해질꼬?’의 뜻을 비유한 말로 표현한 것이다. 이하 네 구는 유방(劉邦)에 관한 내
용을 읊은 것이다.

① 일록(逸鹿) :

☆도망친 사슴

☆잃어버린 제위(帝位). (진시황秦始皇의 제위를 가리킴)

a. 일(逸) : 잃어버리다, 망실(亡失)하다

b. 록(鹿) : ‘록(祿 : 녹위祿位)’과 동음(同音)으로 ‘제위(帝位)’를 비유한 말로 쓰
였다.

『사기(史記) ·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진秦나라가 그 사슴을 잃어버
리자(진왕조秦王朝가 그 제위를 상실하자), 천하가 모두 그 사슴을 쫓았습니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그 제위를 추구하였습니다)(秦失其鹿, 天下共逐
之).”라고 한 대목이 있다.

② 추수건(追誰健) : 누구 쫓아가야 건강하게 있을꼬?

****역자주석 :** 본 짓구는 ‘무엇을 추구해야 권세가 강해질꼬?’의 뜻을 비유한 말로
표현한 것이다.

- 11) 패상잠룡 화미신(浦上潛龍化未神 : 패현浦縣에 잠복한 용은 변화해도 아직 신령 안
됐는데) :

****역자주석 :** 위의 짓구는 ‘패현 출신의 때를 못 만난 하급관료(유방劉邦을 가리킴)는

변화해도 아직 황제가 안됐는데'란 말을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① 패상잠룡(沛上潛龍) :

- a. 패상(沛上) : 패현(沛縣)에서, 혹은 패현(沛縣)에
 - ㉠ 패(沛) : 진대(秦代)의 지명으로 '패현(沛縣)'을 뜻하며,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패현이다.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의 출신지가 패현 풍읍(豐邑) 중양리(中陽里)이다.
 - ㉡ 상(上) : '명사+상(上)'의 형태로 쓰여, 범위 또는 장소를 나타낸 의미로 쓰였다. '…에서'의 뜻으로 보면 되겠다.
 - b. 잠룡(潛龍) :
 - '잠복한 용'이란 뜻으로, 현인(賢人)이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하였음을 비유한 말이다. 황제가 아직 즉위하지 아니한 때의 칭호로 쓰기도 한다.
- ② 화미신(化未神) : 변화해도 아직 신령(神靈)은 되지 않았다.
- **역자주석 :** 위의 식구는 '변화해도 아직은 황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을 비유하여 표현한 말이다.

12) ① 학적(學敵) : 저항을 호소하다

- a. 학(學) : 호소하다, 하소연하다, 간곡히 말하다
- b. 적(敵) : 저항(하다), 대항(하다)

② 회장략(懷壯略) : 호방한 지략(智略)을 가슴에 품다

13) ① 기증삼호(起從三戶) : 기병(起兵)했던 소수병력을 인솔하다.

- a. 기(起) : 흥병(興兵) : 군대를 일으킴, 군대를 출동시킴)하다, 기병(起兵)하다
- b. 증(從) : 인솔(통솔)하다, 따르게 하다
- c. 삼호(三戶) : '세 가구(家口 : 집안의 사람 수호), 삼호(三戶)의 인가(人家)란 뜻인데, '사람의 수호가 극히 적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기(史記)·항우본기(項羽本記)』에, “초희왕(楚懷王 : ?~BC 205)이 진(秦)나라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못한 이후(自懷王入秦不反 : BC 299 초희왕이 속아서 진나라에 입국한 뒤 진소왕(秦昭王)에게 억류됐다가 진나라에서 객사한 것을 이룸. 자세한 내용은 『초세가(楚世家)』를 참조 바람), 초나라 사람들은 오늘에 이르기 까지 희왕을 가련하게 여기고 있습니다(楚人憐之至今). 그런 까닭에 초남공(楚南公 : 전국시대 초나라의 음양가(陰陽家). 성명은 미상)이 말하기를(故楚南公曰) : ‘초나라에 설령 세 가구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楚雖三戶), 진을 멸망시킬 나라는 반드시 초나라이리라(亡秦必楚也).’”고 한 대목이 있다. 이 문장에 대해서 남조시대(南朝時代) 송(宋)나라 학자 배인(裴駰)은 『사기집해(史記集解)』에서 학자 신찬(臣瓚)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초나라 사람들은 진나라를 원망하면서(楚人怨秦), 비록 초나라에 세 가구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진나라를 멸망하기에 족하리라고 한 말이다(雖三戶猶足以亡秦也).” 고 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삼호(三戶)'란 이 말은 초나라의 '소(昭)', '굴(屈)', '경(景)'의 삼대(三大) 성씨를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하였는데, 당나라의 학자 사마정(司馬貞)이 『사기색은(史記索隱)』에서 삼국시대 오현(吳縣)의 학자 위소(韋昭 : 204~273)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삼호(三戶)'를 사람들 수호가 극히 적다는 의미의 '삼호인가(三戶人家 : 세 가구의 인가人家)'의 뜻으로 많이 썼다.

- ② 정고신(挺孤身) : 단신(單身)을 우뚝 세우다.
 a. 정(挺) : 우뚝 솟다, 걸출하다, 우뚝 세우다
 b. 고신(孤身) : 단신(單身), 홀몸

14) 횡행우내 위릉진(橫行宇內威稜震) : 온 천하를 횡행하고 위세를 떨치면서) :

****역자주석** : 이하 16구는 항우(項羽)와 관련된 내용을 읊은 것이다.

- ① 횡행(橫行) : ‘종횡치방(縱橫馳騁) : 거침없이 사방으로 내달림. 용감하여 가는 곳마다 대항할 적이 없음’과 같은 말이다. 대체로 정벌전 중에 무적상태임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우내(宇內) : 온 천하, 온 나라
 ③ 위릉진(威稜震) : 위세를 떨치다
 a. 위릉(威稜) : 위릉(威稜)으로도 쓴다. ‘위력(威力) · 위세(威勢)’의 뜻이다.
 ④ 위(威) : 위력, 위세, 기세
 ⑤ 림(稜) : 서늘, 위세, (강하고 날카로운) 기세

15) ① 축축(蹴蹴) : 축축(蹙蹙) : 축축연(蹙蹙然) : 축축연(蹙蹙然) : 심신(心神)이 불안한 모양, 안절부절 못하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본 시에서는 ‘(공포감을 줘서) 벌벌 떨게 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관중(關中) : 고(古) 지역 명칭이다. 이 지역이 가리키는 범위가 역사상 그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함곡관 이서(函谷關以西), 산관 이동(散關以東), 소관 이남(蕭關以南), 무관 이북(武關以北)을 관중(關中)이라고 한다. 주평왕(周平王 : 약 BC 781 ~ BC 720 : 성은 화姬, 이름은 의구宜臼 : 동주東周의 제1대 왕임)이 동천(東遷)한 이후, 진국(秦國)이 줄곧 이 지역을 점거해왔기에 통상적으로 진나라 땅을 관중(關中)이라 칭한다.
 ③ 기세(氣勢) : 기운차게 펼치는 형세
 ④ 신(伸) : 펼치다, 펼쳐지다

16) 일거함양 삼월화(一炬咸陽三月火 : 햇불 하나로 <도성都城> 함양咸陽이 석 달이나 불에 타고) :

****역자주석** : 패현(沛縣)을 출발한 유방(劉邦)은 관중(關中) 땅을 향해 진격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 수단으로 협상하며 진군(秦軍)의 투항을 받고 한편으로는 군사적 공세를 가했다. 그 과정에서 전투를 통한 살생을 최대한 피했다. 그동안 대중의 지지를 받아 군사력이 크게 증강하였다. 이렇게 득인심하며 마침내 패상(霸上 : 패수霸水 서쪽의 고원지대로, 지금의 섬서성 서안시西安市 동쪽 교외임. 이곳은 자고로 함양咸陽과 장안長安 부근의 군사적 요충지임)을 공격하면서 진왕(秦王) 자영(子嬰 : ? ~ BC 206 : 진秦나라 제3대 황제로 2세 황제 호해胡亥의 조카임)의 투항을 받아들이고 진나라 도성인 함양에 먼저 진입하였다. 이보다 앞서, 초희왕(楚懷王 : ? ~ BC 205 : 성은 옹씨熊氏 이름은 심심, 진시황에게 초나라가 멸망된 뒤, 민간에서 양수를 기르며 살다가, 항량項梁이 거병한 뒤 옹립되었음. 항량이 전사한 후 팽성(彭城 :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서주시徐州市)으로 천도하였음)은 팽성에서 여러 장수들과 약속하기를, 진나라를 공격하여 먼저 관중(關中) 땅을 평정하는 사람을 관중왕(關中王)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었다. 진도(秦都) 함양을 선점한 유방은 진나라의 가혹한 형벌 조항 폐지와 살인을 금하는 법 삼장(三章)을 선포한 뒤, 국보와 재물창고를 봉쇄시킨 후 패상(霸上)으로 회군하였다. 진나라에 항거하며 함께 봉기한 제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조

약제정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애초에 팽성에서 관중 땅을 공격하기로 의견을 모을 때, 조(趙)나라에서도 누차 구원병을 요청했었다. 당시 여러 원로 장수들은 항우(項羽)가 사람됨이 성급하고 사나워 남을 잘 해치는 까닭에 강력한 진군(秦軍)을 직접 공략하게 하면 살생량이 과대해진다 하여, 관대하고 인의를 베풀 수 있는 자를 서쪽으로 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진언했다. 그래서 초희왕은 항우로 하여금 조나라를 구원케 하고, 유방으로 하여금 관중으로 진격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항우는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관중 땅을 공략하였고 전투로만 일관하다가 유방보다 진격속도가 늦었다. 먼저 진입한 유방은 함곡관을 수비하였다. 함곡관 안에서 진입이 저지된 항우는 함곡관을 격파하고 진입한 뒤 크게 분노하며 유방에게 문죄(問罪)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항우가 홍문(鴻門 : 고지명으로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임동현臨潼縣 동쪽 70리의 지역임. 부근에 항우가 주둔했던 군사보루가 있음)에 도달하자, 유방은 항우를 면담하고 사죄하였다. 왜냐하면 군사력에 있어 쌍방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항우의 병력은 40만 명 이었고 유방의 병력은 10만에 불과했다. 항우는 유방을 초청하여 이곳 홍문(鴻門)에서 연회를 베풀며 유방을 격살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홍문지연(鴻門之宴)’이다. 다행스럽게도 항우의 숙부 항백(項伯 : ?~BC 192)은 유방의 책사 장량(張良 : ?~BC 186)과 절친한 벗이라, 항백이 항우를 자제시켰지만 항우의 모신(謀臣) 범증(范增 : BC 277~BC 204)은 끝까지 유방을 죽이려고 하였다. 유방은 거짓 핑계를 대고 탈주하여 간신히 죽음을 면했다. 홍문지연이 끝난 후, 항우는 대거의 병력을 이끌고 호호탕탕(浩浩蕩蕩 : 기세 있고 힘차게)하게 함양에 진입했다. 그 뒤 그의 조치는 유방과 현저히 달랐다. 화려한 진궁(秦宮) 아방궁(阿房宮)을 훔볼 하나로 모두 태워버렸으니, 일설에 의하면 석 달 동안이나 불에 탔다고 한다. 도성안의 주민을 도살(屠殺)하고 진왕(秦王) 자영(子嬰)을 시해(弑害)하고 진시황의 분묘를 파헤치고, 궁녀와 보물을 모두 자기 소유로 거두어들였으며, 자신은 서초패왕(西楚霸王)으로 자립하면서 팽성(彭城)에 도읍을 정했다. 초희왕(楚懷王)은 표면상 의제(義帝)로 받들고, 장강(長江 : 양자강揚子江) 상류에 위치한 침현(郴縣 :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침현)으로 천도하게 했으나, 장강으로 가던 회왕을 도중에서 암살했다. 항우는 또한 천하를 분할하여 18개국의 국왕을 분봉(分封)했는데, 진나라 관문을 격파하고 함양성에 진입한 공로가 가장 큰 유방은 죄인을 유배시키던 지역인 파(巴)·촉(蜀)·한중(漢中) 등 3개 군(郡)의 지역이었다. 이 3개 군의 대략적인 관할 구역은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대부분과 섬서성(陝西省) 진령 이남(秦嶺以南) 및 호북성(湖北省) 서북부 지역이다. 한왕(漢王) 유방은 항우의 이 위명(僞命)을 접수하고 싶지 않았지만, 항우의 군사적 위력에 어쩔 수 없었다. 소하(蕭何 : ?~BC 193)와 장량도 잠시 참고 장래의 기회를 보자고 권했다. 가까운 장래에 한초지전(漢楚之戰)은 불가피한 결과였다. (『사기(史記)·항우본기(項羽本記)』와 『고조본기(高祖本記)』 및 진치평(陳致平) 저 『중화통사(中華通史)』를 참조함)

① 일거(一炬) : 홑불 하나

② 함양(咸陽) : 진(秦)나라의 도읍지.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함양시(咸陽市) 동북 지방이다.

****역자주석** : 본 시에서는 홑불 하나로 불사른 것이 ‘함양(咸陽 : 진秦나라 도성都城)’이라고 과장된 표현을 했으나, 실제로 불사른 것은 ‘진궁(秦宮 : 아방궁阿房宮)’이라고

宮)’이었음.

③ 삼월화(三月火): 3개월 동안 불에 타다

17) 팔년천하 만민번(八年天下萬民蠻: 팔년간의 천하 대란에 만민은 눈살을 찌푸렸네):

① 팔년천하(八年天下): 8년간 지속된 천하대란

****역주석:** 본 시에서 말하는 ‘8년’은 천하의 대란이 일기 시작한 진2세(秦二世: BC 230~BC 207: 진나라 제2대 황제로 이름이 호해(胡亥)이며, 진시황의 차남임) 원년(元年)부터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 BC 256(247)~BC 195)가 천하를 재통일하기까지 분란이 지속된 8년간(BC 209~BC 202)을 말한다. 이 8년 대란의 과도시대(過渡時代)는 전후(前後)의 두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진승(陳勝: ?~BC 208)·오광(吳廣: ?~BC 208)이 일으킨 평민 혁명에서부터 6국이 부흥하기까지이다. 둘째 단락은 6국이 초(楚)·한(漢) 양대 세력으로 병합되고부터 이 양대 세력이 전후에 걸쳐 5년간의 고전(苦戰)을 거치면서 최후에 유방이 항우를 멸하고 중국을 통일하여, 한왕조를 건립하기까지인데, 이 단락을 사칭(史稱) ‘초한전쟁(楚漢之爭)’이라 한다. (진치평陳致平 저 『중화통사(中華通史)』를 참조함)

② 만민번(萬民蠻): 만민이 눈살을 찌푸리다

a. 만민(萬民): 모든 백성, 모든 사람

b. 번(蠻): (눈살을) 찌푸리다

18) ① 과강(誇強): 위세를 부리며 고강(高強: 뽐어남)함을 드러내 보이다, 위세를 과시하다, 강함을 자랑하다

② 불오(不悟): 깨닫지 못하다

19) ① 증닉(拯溺):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다(건져내다). 전(轉)하여, ‘위난(危難)에서 해방되다(구제되다)’는 뜻으로도 쓴다.

a. 증(拯): 구조하다, 구원하다

b. 익(溺):

◦ 물에 빠지다

◦ 위난(危難)을 당하다

② 증래(從來): 본래부터, 종래로, 여태까지, 예로부터, 역대로

③ 자(自): 자신

④ 유(有): 행하다(‘위(爲)’의 뜻임)

⑤ 진(眞): 바른 일(‘정(正)’의 뜻이며, ‘사(邪)’와 상반된 개념임)

20) ① 개세(蓋世): 세상을 뒤덮을 만하다, 재능이나 기개 및 공적(功績)이 당대의 으뜸이 될 만큼 뛰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② 웅도(雄圖): 원대한 포부, 웅대한(위대한) 모략이나 계획, 웅지(雄志)

③ 공(空): 공허하다, 실속 없다

④ 무열(武烈): 무공(武功)

21) ① 발산(拔山): 이 용어는 『사기(史記)·항우본기(項羽本記)』에서, 항우가 한군(漢軍)에게 포위되어 퇴로를 뚫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총희(寵姬) 우미인(虞美人)이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노래를 부르자, 항우 또한 비분강해 하여, 우미인을 향해 화답하는 노래 중에 보인다. 그 시를 보면, “힘은 산을 뺄 수 있고, 기개는 온 세상을 덮을만하건만, 시운이 불리함에 추마(騅馬)마저 전진하지 않는구나

(力拔山兮氣蓋世, 時不利兮騅不逝). 추마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꼬! 우虞여, 우虞여, 그대를 어찌할꼬(騅不逝兮可奈何! 虞兮虞兮奈若何!)”라고 노래했다.

*추(騅): 추마(騅馬): 오추마(烏騅馬): 검푸른 털에 흰털이 섞인 말 이름이다.

*서(逝): 가다

*내하(奈何): 약하(若何): 어찌 해야 하는가?

*우(虞): 우미인(虞美人): 항우(項羽)의 미인(美人) 우희(虞姬)를 가리킨다.

항우가 한군(漢軍)에 포위당하자 항우의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춘 뒤 자살하였다.

② 재력(才力): 재능, 능력

③ 경전둔(竟遭屯): 결국 곤경에 처해 뜻을 이루지 못하다.

a. 경(竟): 결국, 끝내, 드디어, 마침내

b. 전둔(遭屯): 전둔(遭屯)으로도 쓴다.

22) 고성반야 가전초(孤城半夜歌傳楚: 고립무원의 성에서 밤중에 초가楚歌 들려오니):

****역주석:** 『사기(史記)·항우본기(項羽本記)』에, “밤에 한군漢軍 사방에서 모두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니, 항왕이 이에 크게 놀라 말하기를(夜聞漢軍四面皆楚歌, 項王乃大驚曰: ‘한군이 이미 초나라 땅을 다 점령했다 말인가? 어찌하여 초나라 사람이 이리도 많은가(漢皆已得楚乎, 是何楚人之多也)’”라고 탄식한 대목이 있다. 주석 21)의 ① ‘발산(拔山)’ 항목을 참조 바람

① 고성(孤城):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성(城)

② 반야(半夜): 밤 12시 좌우로서, 주로 심야(深夜)를 가리킨다. 한밤중

③ 가전초(歌傳楚): (한군漢軍이 부르는)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다. 한군(漢軍)이 초가(楚歌: 초나라 노래)를 부른다.

a. 가전(歌傳): 노래소리가 들려오다.

b. 초(楚): 초나라. 본 시에서는 ‘초가(楚歌)’를 대칭한 말로 쓰였다.

23) 옥장오신 루만건(玉帳妖臣淚滿巾: 〈항왕項王〉 장막 안의 미녀와 신하들은 눈물로 수건 적셨네):

****역주석:** 『사기(史記)·항우본기(項羽本記)』에, “항왕이 몇 번이나 노래 부르자, 우미인도 함께 불렀다(歌數闕, 美人和之). 항왕의 볼에 몇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자, 좌우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項王泣數行下, 左右皆泣, 莫能仰視).”고 한 대목이 있다.

① 옥장(玉帳): 군주나 최고의 장수(將帥)가 거처하는 곳의 장막으로 옥과 같이 견고하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취하여 쓴 말이다. 본 시에서는 항왕(項王)의 장막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오신(妖臣): 요녀(妖女: 미인: 항우의 미인 우희虞姬를 가리킴)와 신하

③ 루만건(淚滿巾): 눈물이 흘러 수건을 흠뻑 적시다

24) 기무지전 심울굴(起舞指天心鬱屈: 검무 추며 하늘 닮은 그 심정 울적했거늘):

① 기무(起舞): ‘기무(起舞)’로도 쓴다.

☆‘문계기무(聞鷄起舞)’의 약어(略語)이다. 본 시에서는 ‘검무를 추다’는 뜻으로 쓰였다. 『진서(晉書)·조적전(祖逖傳)』에, “〈조적祖逖은 사공(司空: 관명으로, 군사상 공사를 관장하였으며 직급은 삼공三公 중의 하나임) 유곤劉琨과 함께 사

주(司州: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홍현洪縣 남부)의 주부(主簿: 관명으로, 각 주부州府의 기밀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고, 제주祭酒 및 사인술人과 함께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각 주부州府에 정원은 2명이었음)가 되었는데(〈祖述〉 與司空劉琨俱爲司州主簿), 두 사람은 우정이 아주 깊어(情好綢繆), 한 방에서 잠을 잤다(共被同寢). 한밤중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中夜聞荒鷄鳴), 〈조적은〉 유곤을 발로 툭툭 차 깨우면서 말하기를(蹴琨覺曰): ‘이것은 사악한 소리가 아닐세(此非惡聲也)’ 하고는, 일어나서 〈검을 뽑아들고〉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다(因起舞).”고 한 대목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이 ‘문계기무(聞鷄起舞)’란 말을, ‘지사(志士)나 인인(仁人)이 시기적절하게 분발하는 전고(典故)’로 삼았다.

② 지천(指天): 하늘을 닦다.

a. 지(指): 꾸짖다, 책망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닦하다(원망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역자주석:** 본 시구는 『사기(史記)·항우본기(項羽本記)』에 그 정황이 있다. 항왕(項王)이 초가(楚歌)를 듣고 한탄하고, 술을 마시며 시를 지어 읊자, 좌우가 모두 눈물을 흘리는데, 그가 바로 말을 타고 전장으로 나가면서 기병들에게 한 말이 있다. “내가 군사를 일으킨 지 지금까지 8년이 되었다(吾起兵至今八歲矣). 내 자신이 70여 차례의 전투를 벌였는데(身七十餘戰), 내게 맞선 적은 격파시켰고(所當者破), 나를 공격하던 적은 모두 굴복시키면서(所擊者服), 내 일찍이 패배한 적이 없었기에(未嘗敗北), 마침내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다(遂霸有天下). 그러나 지금 결국 이곳에서 곤경에 처했으니(然今卒困於此),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此天之亡我), 내가 싸움을 잘하지 못한 죄가 아니다(非戰之罪也). 오늘 필히 결사의 각오로 싸워서(今日固決死), …… 그대들로 하여금 하늘이 나를 망친 것이지(令諸君知天亡我), 내가 싸움을 잘못된 죄가 아님을 알게 하겠노라(非戰之罪也).”라고 한 대목이 있다. 본 시에서의 “지천(指天)”은 항왕(項王)의 이 격하고도 솔직한 심정으로 하늘을 향해 원망도 하고 다짐도 하는 정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심울굴(心鬱屈): 가슴이 답답하다, 마음이 울적하다

a. 울굴(鬱屈): 울적(鬱積: 울결鬱結: 울색鬱塞: 근심스럽고 답답함, 가슴이 답답함)하다

25) ① 투배(投杯): 술잔을 내려놓다

② 의미(倚馬): 말의 잔등에 몸을 기대다. 본 시에서는 ‘말 잔등에 몸을 의지하는 것’, 곧 ‘말에 올라탄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담륜군(膽輪困): 담력이 크디크다

a. 담(膽): 담력, 용기

b. 윤군(輪困):

○석대(碩大: 큰 모양, 굵고 큰 모양, 고대(高大: 높고 큼)한 모양, ‘나무가 높직 높직하게 자랐다’고 할 때의 ‘높직높직’이나, ‘굵직굵직한 참외(수박·호박 등 이)가 참 먹음직하네’라고 할 때의 ‘굵직굵직’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 그 예이다. 본 시에서는 ‘크디크다’는 뜻으로 쓰였다.

④ 윤(輪): 고대(高大)한 모양

⑥ 군(困): 한 곳에 모이다

26) 향훈수인 여청혈(香魂隨刀餘靑血: 미인의 혼은 칼날에 묻은 선혈에 남아 있는데):

① 향훈(香魂): 미인의 혼(魂)

****역지주석:** ‘미인의 혼’은 향우가 한군(漢軍)에 포위되자, 향우의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춘 뒤에 자살한 ‘우미인(虞美人)의 혼’을 가리킨다.

a. 향(香): ‘미묘(美妙)하다’는 말로서, 여자의 사물을 형용하는 뜻으로 많이 쓴다. 본 시에서는 ‘미인’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여기서의 ‘미인’은 향우(項羽)의 미인 우희(虞姬)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수(隨): 따르다, 쫓다

③ 인(刃): 칼날. 베다, 도검(刀劍)으로 죽이다

④ 여(餘): 남아 있다

⑤ 청혈(靑血): 선혈(鮮血), 생생한 피

27) ① 용척(龍脊): 산척(山脊: 산마루), 산등성마루

a. 용(龍): ‘룡(壟)’과 통하며, ‘언덕’의 뜻이다.

b. 척(脊): 등성마루, 지형(地形)이 등꼴 뼈 같이 된 곳

② 권제(卷蹄): 말발굽 소리가 단절되다

a. 권(卷): 단절되다(하다)

b. 제(蹄): 마소 따위의 짐승의 발굽.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말발굽 소리’의 뜻으로 쓰였다.

③ 읍백린(泣白鱗): (강에) 물고기가 흐느끼다

a. 읍(泣): 울다, 흐느끼다. 눈물

b. 백린(白鱗):

○물고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서신(書信)

28) ① 병기(兵騎): 말과 병기(兵器)

② 동권갑(同捲甲):

a. 동(同): 함께

b. 권(捲): 중지하다, 해제하다, 풀다

c. 갑(甲): 갑옷

29) ① 강동(江東): 장강(長江: 양자강揚子江)은 무호시(蕪湖市)와 남경시(南京市) 사이에서는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흐르는데, 수(隋)·당(唐) 이전에는 이곳에 남북을 왕래하는 주요 나루터가 있는 곳이어서, 습관상 이곳에서부터의 장강 남안지역(南岸地域)을 ‘강동(江東)’이라 칭한다.

『사기(史記)·향우본기(項羽本記)』에, 항왕(項王)이 오강(烏江: 지금의 안휘성 화현和縣 동북쪽의 강장)을 건너려고 하자 오강의 정장(亭長: 이는 진한秦漢 시기에 향鄉 이하에 둔 행정기구의 일종으로, 10리마다 정후를 설치하였고, 정마다 1인의 장수를 두었다)이 강을 건널 것을 권하자, 항왕이 말하기를,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데, 내가 건너서 무얼 하겠는가(天之亡我, 我何渡爲)? 게다가 내가 강동 젊은이 8,000명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었는데(且籍與江東子弟八千人渡江而西), 지금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거늘(今無一人還), 설사 강동의 부형父兄들이 불쌍히 여겨 나를 왕으로 삼아준다고 한들(縱江東父兄憐而王我), 내가 무

슨 면목으로 그들을 대하겠는가(我何面目見之)?”라고 한 대목이 있다.

② 미통진(未通津): 나루터에 당도하지 않다.

- 30) 수지신기 난용력(誰知神器難容力: 누가 알았겠나 제위에 올라서도 권세 허용이 어렵단걸):

****역자주석:** 이하 네 구는 유방(劉邦)에 관한 내용을 읊은 것이다.

① 수지(誰知): (...을) 누가 알겠는가

② 신기(神器): 국가 정권을 대표하는 보물로서 ‘옥새(玉璽) 또는 보정(寶鼎)’ 같은 것이다. 전(轉)하여, ‘제위(帝位)’나 ‘정권’의 뜻으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③ 난용력(難容力): 권세를 허용하기 어렵다(힘들다)

- 31) 자시천심 권유인(自是天心眷有仁: 단지 군주 마음으로 〈항씨項氏〉 친족에게 인心を 베풀었네):

****역자주석:** 『사기(史記)·항우본기(項羽本記)』에, “항왕項王의 여러 일족을, 한왕漢王은 모두 죽이지 않았다(諸項氏枝屬, 漢王皆不誅). 그러면서 항백(項伯: ? ~ BC 192: 항우의 숙부)을 사양후(射陽侯: 사양射陽은 지명으로,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회안현淮安縣 동남부임)에 봉하였다(乃封項伯爲射陽侯). 도후(桃侯: 항양項襄: BC 209 ~ BC 179: 항우의 셋째 숙부. 도桃는 지금의 산둥성 문상현汶上縣 동북부임)·평고후(平皐侯: 항타項佗: 항우의 족질. 평고平皐는 지금의 하남성 운현溫縣 동부임)·현무후(玄武侯: 미상)는 모두 항씨였으나, 그들에게 유씨劉氏 성을 하사하였다(桃侯、平皐侯、玄武侯皆項氏, 賜姓劉).”고 한 대목이 있다.

① 자시(自是): 단지(지시只是)

② 천심(天心): 군주의 생각(의사意思, 마음)

③ 권유인(眷有仁): (항씨項氏) 친족에게 인(仁)을 베풀다.

a. 권(眷): 친속(親屬), 가족(家屬), 가족, 친족

b. 유인(有仁): 인(仁)을 베풀다

④ 유(有): 사용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베풀다’는 뜻으로 쓰였다.

⑤ 인(仁): 어짐, 어진 마음

- 32) ① 한국(漢國): 한(漢)나라. 한조(漢朝: 한나라 왕조). BC 206년 유방(劉邦: 한고조漢高祖: BC 256(247) ~ BC 195)이 진(秦)을 멸하고 나서, BC 202년에 칭제(稱帝)하여 국호를 ‘한(漢)’이라고 했으며, 장안(長安: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서북부)에 도읍을 정했다. 사칭(史稱) 서한(西漢) 혹은 전한(前漢)이라고 한다. AD 8년에 외척 왕망(王莽: BC 45 ~ AD 23)이 일시 칭제하면서 국호를 ‘신(新)’이라고 했다. AD 25년에 유수(劉秀: 한광무제漢光武帝: BC 6 ~ AD 57)가 한왕조(漢王祖)를 중건(重建)하고 낙양(洛陽: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낙양시洛陽市 동북 한위고성漢魏故城) 혹은 후한(後漢)이라고 한다. AD 220년에 조비(曹丕: 위문제魏文帝: 187 ~ 226)가 칭제하면서 동한(東漢)은 멸망했다. 전체 한대(漢代)의 역사는 24제(二十四帝), 406년 동안 유지됐다. 본 시에서는 서한(西漢)의 왕조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군신(羣臣): ‘군신(群臣)’으로도 쓰며, ‘많은 신하’의 뜻이다.

③ 쟁무도(爭舞蹈): (너무 기뻐서) 앞 다투어 덩실덩실 춤을 추다.

a. 쟁(爭): (무엇을 획득하거나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투다, 경쟁하다

- b. 무도(舞蹈): (몹시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다. 기뻐가나 찬양(찬미)하는 것을 표하는 말이다. ‘무(舞)’는 손을 이리저리 놀리는 것이고, ‘도(蹈)’는 발을 이리저리 밟는 동작이다.

33) 노성현승 죽비신(魯城絃誦足悲辛: 노성魯城 학도의 송독誦讀하는 소리는 비통했네):

****역주석:** 『사기(史記)·항우본기(項羽本記)』에, “항왕(項王)이 죽자(項王已死), 초나라 지역 모든 사람들이 한나라에 투항했는데(楚地皆降漢), 유독 노현魯縣 사람들만은 항복하지 않았다(獨魯不下). 이에 한왕漢王(유방劉邦)은 천하의 병사들을 이끌고 노현을 도륙하고자 했으나(漢乃引天下兵欲屠之), 노현 백성들이 예의를 고수하며(爲其守禮義),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으므로(爲主死節), 한왕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항왕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노현 백성들에게 보여주자(乃持項王頭視魯), 노현의 부형들이 비로소 투항했다(魯父兄乃降). 처음에, 초희왕(楚懷王: ?~BC 296)이 항적(項籍: 항우項羽: 항왕項王: BC 232~BC 202: 이름이 ‘적籍’이고 자가 ‘우羽’임. 자립하여 ‘서초패왕西楚霸王’이라 하였기에 ‘항왕項王’이라 쓰는 것임)을 노공魯公으로 봉했고, 지금 그가 죽자, 비로소 노현이 함락되었으므로, 노공이라는 봉호에 대한 예우로 항왕을 곡성(穀城: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평음현平陰縣 서남쪽 동아진東阿鎮. 『일지록日知錄』에서는 산둥성 곡부현曲阜縣 서북쪽의 소곡성小穀城이라고 주장함)에 안장하였다(始, 楚懷王初封項籍爲魯公, 及其死, 魯最後下, 故而魯公禮葬項王穀聲).”고 한 대목이 있다.

- ① 노성(魯城): ‘곡부(曲阜: 지금의 산둥성 곡부시曲阜市 동북 20리 고성촌古城村)’의 별칭이다. ‘곡부’는 노(魯)나라의 도성(都城)이었던 까닭에 일컬어진 명칭이다.
- ② 현승(絃誦): 고대에 『시경(詩經)』의 학문을 전수하면서, 현악(絃樂: 현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을 연주하며 가영(歌咏: 노래)했던 까닭에, 이것을 ‘현가(絃歌: 현가絃歌)’라고 했다. 그런 까닭에 훗날 ‘예악(禮樂)으로 교화(教化)하고 ‘학습하면서 송독(誦讀)하는 것’을 ‘현가(絃歌)’라고 했다. 위에서 언급한 ‘현악(絃樂) 없이 낭독하는 것’을 ‘송(誦)’이라고 하는데, 현악(絃樂)의 ‘현(絃)’과 ‘송(誦)’을 합칭하여 ‘현송(絃誦)’이라고 한다. ‘현송’이라고 하는 이 말은 훗날 주로 ‘수업(授業: 학문을 가르쳐 줌·학문을 전수傳授함)과 송독(誦讀)하는 일’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 ③ 족(足): 충분히, 족히 (...할 만하다)
- ④ 비신(悲辛): 몹시 슬프고 괴롭다, 비통하다

34) 정삼모습 팽성우(征衫暮濕彭城雨: 저물녘에 나그네 적삼 적시며 팽성彭城에 비 내리더니):

****역주석:** 이하의 시 네구는 ‘신유(神遊)’로 읊은 것이다.

***신유(神遊):** 신체를 통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동경(憧憬)하여, 친히 그 경지를 유람하는 것과 같이 느끼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열자(列子)·황제편(黃帝篇)』에, “낮잠을 자며 꿈을 꾸었는데(晝寢而夢), 화서씨(華胥: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포희씨(庖犧氏), 즉 복희씨(伏羲氏)의 모친)의 나라를 유력(遊歷)하였다(遊於華胥氏之國). 화서씨의 나라는 엄주(棼州: 고대 중국의 서쪽에 있던 고을)의 서쪽(華胥之國在棼州之西), 태주(台州: 고대 중국의 서북쪽에 있던 고을)의 북쪽에 있어(台州之北), 중국에서 떨어진 거리가 몇 천만리 인지 알 수 없다(不知斯齊國幾千萬里). 대개 배나 수레나 걸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蓋非舟車足力之

所及), 정신적으로만 유람할 수 있을 따름이다(神遊而已).”라고 하였다. 앞의 주석 2)의 ③㉔의 ‘신(神)조항을 참조 바람.

- ① 정삼(征衫) : 나그네(여행자)의 옷
 - a. 정(征) : 원행(遠行)하다, 먼 곳에 여행하다
 - b. 삼(衫) : 적삼, 고대에 소매가 없고 옷깃이 열린 상의(上衣)를 가리킨다. 주로 홀옷[單衣]인데, 속적삼[夾衣]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 옷 모양과 명칭은 진(秦)나라 때부터 전해진다.
- ② 모습(暮濕) : 저물녘에 옷이 축축해지다
- ③ 팽성(彭城) :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서주시(徐州市)이다. 항우가 자립하여 서초 패왕(西楚霸王)이 된 후,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
- 35) ① 요련(遙連) : 아득히 이어지다
 - ② 초새춘(楚塞春) : 초나라 요새에도 봄이 오다
- 36) ① 패업(霸業) : 패업(霸業) : 제후(諸侯)들 중에 패권(霸權 : 제후들 중의 영수領袖의 지위(맹주盟主의 지위))을 잡은 제후나 패권을 유지하는 사업, 무력이나 권모술수로 서 천하를 다스리는 사업, 무력이나 권모술수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사업, 패권을 다투는 사업
 - ② 좌간(坐看) : “좌간(坐看 : 잠깐 봄)’은 ‘행간(行看 : 지나가며 언뜻 봄)하다’, 또는 ‘선견(旋見 : 잠시(잠깐) 보다)’는 뜻으로, ‘시간이 짧음을 형용하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서에 선생이 항우 생존시의 중국 역사서적을 읽고 감동하여, 신유(神遊)하는 동안의 짧은 시간을 표현한 말’로 쓰였다.
 - ③ 수(隨) : 따라가다
 - ④ 서수(逝水) : 서천(逝川) : 흘러가는 물
- 37) ① 산하(山河) : ‘강산, 국토’를 가리킨다
 - ② 상대(尙帶) : 아직도 …가 쌓여 있다
 - ☆상(尙) : 아직
 - ☆대(帶) : 붙어있다. 본 시에서는 ‘쌓여있다’는 말로 표현한다.
 - ③ 구전진(舊戰塵) : 옛 전장(戰場)의 먼지
- 38) ① 대명(臺名) : ‘대(臺)’의 명칭
 - a. 대(臺) : 흙이나 돌 따위로 높이 쌓아 올려 사방을 바라볼 수 있으며, 위쪽이 평평하도록 만든 축대(築臺)같은 건축물
 - ② 희마(戲馬) : 희마대(戲馬臺)의 약칭. 이것은 말놀음을 하는 누대이다. 이 고적(古跡)은 지금의 강소성 서주시(徐州市) 남부(동산현銅山縣 남부)에 있다. 『원화지(元和志)』 권9의 서주(徐州) 팽성현(彭城縣) 조항에, “(희마대는) 현縣 동남 2리에 있다(在縣東南二里). 항우가 건조한 것으로, 이곳에서 말놀음을 하였다(項羽所造, 戲馬於此). 송공(宋公 : 유유劉裕 : 363~422 : 남조南朝 송나라 초대황제)이 9월에 희마대에 올랐었다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宋公(劉裕)九月登戲馬臺, 卽此).”고 하였다.
 - ③ 기유재(基猶在) : 토대는 아직도 남아 있다.
- 39) ① 사폐(社廢) : 지신(地神)에 제사를 지내던 사단(社壇)은 폐기되다.
 - a. 사(社) : 사단(社壇 : 토지 신에 제사지내던 곳). 고대에 제왕과 제후가 지신(地神 : 토신土神)에게 제사 지내던 단(壇). 고대에는 봉토(封土)하여 ‘사단(社壇)’을

만들고 토질에 적합한 각종 나무를 심어, 지신(地神)이 머물 곳이 이곳이라 여기며 제사를 지냈다.

b. 폐(廢) : 폐기되다

② 명호(鳴狐) : 여우가 울다. 우는 여우

③ 적이진(迹已陳) : 자취는 이미 지나간 일이 되다

40) ① 망양(亡羊) :

☆양치기가 양을 잃다. 『장자(莊子)·변무(駢拇)』편에, “어떤 장(臧 : 남자가 여비奴婢를 아내로 맞아들인 사람을 장臧이라고 칭함)과 곡(穀 : 여자가 노예에게 시집간 사람을 곡穀이라고 함)이 있었는데(臧與穀), 두 사람은 함께 양을 방목하다가(二人相與牧羊), 양떼를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而俱亡其羊). 노예에게 당시 뭘 했었느냐고 물었더니(問臧奚事), 죽간竹簡을 들고 독서했었다고 하였다(則挾筴讀書). 여비奴婢에게 당시 뭘 했었느냐고 물었더니(問穀奚事), 도박을 하면서 놀았다고 하였다(則博塞以遊). 두 사람이 한 일은 달랐지만(二人者, 事業不同), 양을 잃어버린 것은 동일하다(其於亡羊, 均也).”고 한 대목이 있다. 이 예문에서의 ‘망양(亡羊)’은 ‘본직을 버려두고 좋아하는 것에 탐닉하였다는 것을 이룬 말’이다. 장자는 이 “망양”이란 말을 가지고, ‘외물(外物)을 추구하다가 심신을 해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② 공지점(空指點) : 공연히 지적하다

a. 공(空) : 헛되이, 부질없이, 공연히

b. 지점(指點) : 지적하다, 결점을 들춰내다

41) ① 고래(古來) : 자고이래(自古以來)로, 자고(自古)로, 예로부터 지금까지

② 유한(遺恨) : 죽을 때까지 느껴지는 회한(悔恨), 종신토록 생각나는 회한

③ 차시신(此時新) : 지금 새로워지다

시11. 시 「악왕묘岳王墓」를 차운次韻하여

詩11. 次岳王墓韻¹⁾
차 악 왕 묘 운



偃城金牌聯翩來²⁾,
언 성 금 패 연 편 래

언성偃城에서 퇴각하란金牌金牌 받고
속속 회군回軍하니,

百萬雄兵氣蕭瑟³⁾.
백 만 용 병 기 소 슬

백만의 용사들은 기세가 꺾였다네.

將軍萬死只爲國,
장 군 만 사 지 위 국

장군이야 만 번 죽어도
나라 위해서지만,

十載奇勳寧易擲⁴⁾.
십 재 기 훈 영 이 칙

십년 세운 공훈을
어찌 편케 내던졌겠나?

徘徊不忍回馬首,
배 회 불 인 회 마 수

배회하다 참지 못해
말머리 선회하는데도,

喋喋盜言終罔極⁵⁾.
喋喋 도 언 종 망 극

쭈근쭈근히는 참언讒言은 도대체 끝이 없네.

忠何爲罪虜何親⁶⁾,
충 하 위 죄 노 하 친

충성이 왜 죄가 되며
어찌 오랑캐와 화친하려 하는고!

萬事由天未人力⁷⁾.
만 사 유 천 미 인 력

만사가 천심天心에 달렸지
인력人力은 아니로세.

安危猶冀白吾君⁸⁾
안 위 유 기 백 오 군

안위安危는 희망대로 된다고
내 주군께 아꼈건만,

積慮戕賢心未直⁹⁾
적 려 장 현 심 미 직

장고長考 끝에 현신賢臣 죽이니
그 맘 곧지 못하셨네.

中原元是乃家事¹⁰⁾
중 원 원 시 내 가 사

증원中原의 치세治世는
원래 가사家事처럼 행했는데,

骨肉爲囚堪憤激¹¹⁾
골 육 위 수 감 분 격

친 골육을 죄수로 만들었으니
격노할 만 했었네.

長城一墜欲何爲¹²⁾
장 성 일 추 욕 하 위

장성長城이 결국 함락됐으니
어찌하려 하는가?

血汚蓮花光晦蝕¹³⁾
혈 오 연 화 광 회 식

핏자국이 연꽃처럼 피었건만
희망은 사그라졌네.

年年寒食西湖路¹⁴⁾
연 년 한 식 서 호 로

해마다 한식날이면
서호西湖 호숫가 길섰엔,

碧草東風行客泣¹⁵⁾
벽 초 동 풍 행 객 읍

청초靑草 돋고 춘풍 불어도
길손은 눈물을 흘리네.

英魂毅魄不可作¹⁶⁾
영 혼 의 백 불 가 작

영명靈明한 혼령과 용맹한 기백氣魄을
살아나게 할 수 없는데,

羊馬半沒莓苔石¹⁷⁾
양 마 반 물 메 테 석

양마성羊馬城 성 밖의 바위에는
푸른 이끼 끼었네.

1) 차악왕묘운(次岳王墓韻) : 시 「악왕묘(岳王墓)」를 차운하여 :

① 차운(次韻) : 차운은 바로 시를 지어 화답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보운(步韻)이라
고도 칭한다. 이는 화답(和答詩) 형식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경우로서, 화운하려는

작품의 원운(原韻)과 원자(原字)가 모두 동일해야 할뿐만 아니라 순차(順次)까지도 일치해야 한다. 차운의 종류에는 이외에도 대체로 3가지 방식이 더 있다. 첫째, 화시(和詩)로, 이는 시를 지어 화답함에, 오로지 시(詩)나 사(詞)로 응답한다. 시의 원운(原韻)을 차운(次韻)할 필요가 없다. 둘째, 의운(依韻)으로, 이는 동운(同韻)이라고도 칭한다. 타인의 시가(詩歌)의 운부(韻部)에 의거하여 시를 짓는다. 운각(韻脚: 시구詩句의 끝 부분에 다는 운자韻字)의 용자(用字)는 원시(原詩)와 동일한 운부(韻部)의 자(字)만 쓰면 되지 굳이 동자(同字)를 쓸 필요까지는 없다. 셋째, 용운(用韻), 원시(原詩)의 운각(韻脚)을 해당시의 운각으로 삼을 뿐, 그 순서까지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 ② 악왕묘(岳王墓): ‘악비(岳飛)의 묘’라는 시제(詩題)이다. 다만 서애(西厓) 선생이 누구의 시를 차운(次韻)해서 본 시를 지었는지 역자가 그 자료를 찾지 못했다. ‘악왕묘’는 ‘악비묘(岳飛廟)’가 위치한 곳에 있다. 아래의 주석을 참조하면 되겠다. 악비묘를 ‘악왕묘’라고 하는 것은 송대(宋代)의 명장인 악비를 존경하여 민간에서 습관상 칭해진 명칭이다.

*악비묘(岳飛廟): ‘악비묘(岳飛廟: 악비岳飛의 사당)’도 민간에서 ‘악왕묘’로 칭해진다. 악왕묘는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항주시(杭州市) 서호(西湖)의 호숫가 서하령(棲霞嶺) 남쪽 기슭에 있다. ‘악왕묘’도 이곳에 위치한다. 남송(南宋) 융흥원년(隆興元年: 1163)에 효종(孝宗)이 즉위하고 나서 악비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켜, 이곳에 그 유해(遺骸)를 개장(改葬)하였다. 가정14년(嘉定十四年: 1221)에, 산 북쪽에 지과원(智果院)을 짓고 이곳을 악비의 사당으로 삼았으니 바로 지금의 악왕묘이다. 이후, 수차 중건(重建)하여 지금은 ‘악비기념관’으로 쓰고 있다.

*악비(岳飛: 1103~1142): 남송(南宋) 위주(衛州) 탕음현(湯陰縣,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탕음현(湯陰縣) 동부 사람이다. 자는 봉거(鵬舉)이고, 농가(農家) 출신이다. 휘종(徽宗) 선화년간(宣和年間: 1119~1125)에 종군(從軍)한 공으로 병의랑(秉義郎)으로 승진됐고, 종택(宗澤: 1059~1128)의 부하로 예속되었다. 고종(高宗) 건염원년(建炎元年: 1127)에 상서(上書)를 올려 남쪽으로 천도하는 것을 반대했다가 관직이 삭탈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종(改從)하여 왕언(王彦: 1090~1139)을 따라 종군하면서 태행산(太行山: 지금의 하남성·산서성(山西省)·허북성(河北省) 등 3성三省의 경계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함)에서 금군(金軍: 금나라 군대)과 교전하였다. 그 후 다시 종택을 따라 종군하면서 개봉(開封: 지금의 하남성 개봉현開封縣 서남 46리 고성촌古城村)을 수비하고, 통제(統制)에 임명되었다. 종택이 실지회복을 못한 울분에 병사하자 두충(杜充: ?~1141)을 따라 남하하였다. 건염 4년(建炎四年: 1130)에 상주(相州: 관할 경계는 지금의 허북성 북자현北磁縣과 성안현 이남成安縣以南, 하남성 내황현 이서內黃縣以西, 탕음현 이북湯陰縣以北, 임주시 이동 林州市以東 지역)에 상당함)와 진강현(鎭江縣: 지금의 강소성 진강시鎭江市)에서 금군(金軍)을 격파하고 진강부(建康府: 지금의 강소성 남경시)를 수복하였다. 그 후에 이성(李成: 약 1091~약 1160)과 조성(曹成: 생몰년 미상) 등이 할거하는 세력을 평정하는데 참여하고 도통제(都統制)에 발탁되었다. 소흥 4년(紹興四年: 1134)에 금군과 위제(僞帝: 괴뢰황제: 금군이 침입하자 관직을 버리고 달아난 송나라 관료 유예(劉豫

: 1073~1146)를 금나라에서 황제로 책봉하고 국호를 ‘대제대齊’로 정한 다음, 금군을 유인해 송군을 공격토록 만든 조직의 비합리적인 황제)의 군대를 대파하고 양양군(襄陽郡: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양변시襄陽市 한수漢水 남쪽의 양양성襄陽城) 등 6개 군을 수복하고 청원군 절도사(淸遠軍節度使)에 임명되었다. 소흥 5년(紹興五年: 1135)에 양마(楊麼: ?~1135) 반란을 제압했다. 그 다음 해에는 양양에 병사를 주둔시키고 낙양(洛陽: 지금의 하남성 낙양시 동북쪽의 한위고성漢魏故城) 서남부의 주(州)·현(縣)을 수복하고, 태행산의 의군(義軍)과도 연락하였다. 소흥 10년(1140)에 군대를 이끌고 북벌(北伐)을 감행하여 금나라의 을출(兀朮: 완안종필完顔宗弼(완안은 여진족女眞族의 부족 명칭이고, 종필은 중문명中文名)): ?~1148: 금대조 아골타阿骨打의 넷째 아들. ‘을출’은 본명임)의 군대를 연파하면서 언성현(鄆城縣: 지금의 하남성 언성현 서남 5리)에서 대첩(大捷)을 거두고 주선진(朱仙鎮: 지금의 하남성 개봉현開封縣 서남 46리)으로 진군했다. 송고종(宋高宗)은 재상 진회(秦檜: 1090~1155)와 금(金)과의 화의(和議)를 주도하면서, 12개 도(道)에 금패(金牌: 금자패金字牌: 송대에 ‘긴급하게 발송해야 할 문건이니 빨리 발송하라방송하라’는 뜻의 ‘금각제急脚遞’란 금급제 문자를 쓴 주색朱色 목패木牌임. 자세한 것은 본 시의 주석 2)의 ② 금패 조항을 참조 바람)를 전해 퇴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악비는 임안(臨安: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항주시杭州市)으로 소환되어 갔다가 병권(兵權)을 박탈당하고 추밀부사(樞密副使)에 임명되었다. 당시 남송의 정국은 주화(主和: 금과 화친을 주장함)와 주전(主戰: 금과의 전투를 주장함) 견해의 대립이 긴박하던 순간인데, 금나라 장수 을출(兀朮)이 재상 진회(秦檜)에게 밀서를 보내서 말하기를, “당신은 조석으로 화친하려고 하지만(汝朝夕欲和), 악비는 바야흐로 하북河北 땅을 도모하고 있으니(岳飛方圖河北), 반드시 악비를 죽여만 비로소 화친이 성사 될 수 있다(必殺飛始可和).”고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악비에 대한 유감이 많았던 진회인저라, 그는 곧 악비의 아들 악운(岳雲: 1119~1142)과 악비의 부하인 부도통제(副都統制) 장헌(張憲: ?~1142)이 모의해서 병권을 박탈당한 악비에게 병권을 반환하여 악비를 옹호해서 항명하러 한다고 모함하여 악비를 비롯해 악운과 장헌을 형옥관서(刑獄官署)인 대리시(大理寺)에 구금했다. 죄인 악비를 심문하라고 진회의 명을 받은 어사중승(御史中丞) 하주(何鑄: 1088~1152)는 악비의 등에 ‘진충보국(盡忠報國)’이란 네 글자의 문신 외에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하주는 참지 못하고 악비의 무죄를 확신했다. 뿐만 아니라, 만홍 대신들이 악비의 억울함을 호소 했지만 고종과 진회는 무시했다. 마침내 대신들을 대표해서 한세충(韓世忠: 1089~1151)이 친히 진회를 면담해서 악비의 죄증(罪證)을 물으니, 진회는 더듬거리면서 말하기를, “악비의 아들 악운과 장헌의 밀서가(飛子雲與張憲書), 비록 분명하지는 않지만(雖不明), 그 〈모의를 꾸민〉 일이 아마도 있을 거요(但其事莫須有).”라고 했다. 한세충은 “‘막수유(莫須有: 아마도 있을 꺼야)’란 이 세 글자로(莫須有三字), 어찌 천하 사람들이 순종토록 할 수 있겠는가(何以服天下)?!”라고 탄식한 후에 두문불출했다. 악비는 처형됐다. 그 후, 악비는 효종(孝宗)때 무목(武穆)이란 시호(諡號)가 내려지고 영종(寧宗)때 악왕(鄂王)에 추봉(追封)되었다. 저서에 『악무목집(岳武穆集)』이 있다.

- 2) ① 언성(偃城): 언성현(郾城縣):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언성현(郾城縣) 서남 5리이다. 이곳에서 대규모 병력을 인솔하고 남정(南征)한 금(金)나라 장수 옴출(兀朮)의 군대를 명장 악비(岳飛)가 거느린 송군(宋軍)이 격파하고 대첩(大捷)을 거두었다. 그것을 중국역사에서는 ‘언성지첩(偃城之捷)’이라고 한다.

☆언성지첩(偃城之捷): 소흥 10년(紹興十年: 1140) 7월에 금나라 옴출(兀朮)은 정예부대 괴자마(拐子馬: 괴자진拐子陣이라고도 하며, 정예 기병騎兵을 선별해서 좌우익左右翼으로 진을 친 다음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기병진법騎兵陣法임. 이 부대의 장병은 철제갑옷으로 중무장하기에 ‘철부도鐵浮圖’라고도 칭함) 1만 5천기(一萬五千騎)를 이끌고 언성현을 대거 공격했다. 송군(宋軍)의 작전은, 대마(大麻: 삼)의 밭에 대마가 우거져 있듯이 보병들을 한 곳에 집결시키고 금군(金軍)의 기병(騎兵)을 절대로 쳐다보지 말고 창칼로 말의 발을 베도록 명하고는 금군의 진지 안으로 진입하였다. 금군의 괴자마는 말 세필을 한 조로 연결시켜왔기에 말 한 필의 다리가 잘려 넘어지면 세 필이 다 움직일 수 없었기에, 금군은 대패했다. 악비는 언성현에서 대승하고 북진하여 주선진(朱仙鎮: 지금의 하남성 개봉현開封縣 서남 46리)까지 진격하였다. 변경(汴京: 북송의 동경東京으로, 지금의 하남성 개봉시開封市)과 불과 45리 떨어진 지역이었다.

- ② 금패(金牌): 금자패(金字牌): 송대에 조정이나 관청의 문서를 전달하는 데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보체(步遞: 사람이 걸어서 문건을 송달送達하는 것)’와 ‘마체(馬遞: 역마驛馬를 타고 문건을 송달하는 것)’와 ‘급각체(急脚遞: 역마를 타고 가되 속달을 요하는 것이므로 긴급 송달하는 것)’가 그것이다. 또한 ‘금자패 금각체(金字牌急脚遞)’란 것이 있는데, 본 시에서 말하는 ‘금패’는 바로 이것의 약칭이다. 이것은 ‘역마를 이용해서 문건을 전하되, 처형장에 있는 죄인의 사면(赦免)이나 전쟁 또는 군사적 긴급한 연락을 요하는 것이므로, 급각체(急脚遞)라고 황금색 글자가 쓰인 주색(朱色: 붉은 색) 목패(木牌)를 말 잔등에 걸고 긴급 송달하는 것’이다. 주색 목패에 황금색 문자가 쓰인 까닭에, 사람들 눈에 잘 띄고, 나는 듯이 말을 타고 달리기에, 보는 사람은 길을 비켜 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며, 하루에 오백리를 갔다고 한다.

**역지주석: 언성현(郾城縣)에서 송군(宋軍)이 대첩(大捷)을 거둘 때, 송군은 전방에서 항전(抗戰)하며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정작 조정에서 고종(高宗)과 진회(秦檜)는 후방에서 화의(和議)에 대한 모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그들은 ‘송군이 우연히 승리를 거둔 것이지 군사력이 우월해서가 아니며, 악비의 급진적 군사 작전은 장차 금(金)과의 화의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악비의 드높은 위세 또한 정치적으로 몹시 부담스러운데다 진회는 개인적으로도 악비를 미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송군의 퇴각을 결정했다. 『송사(宋史)·악비전(岳飛傳)』을 보면, “진회는 악비의 〈국토수복에 대한〉 의지가 굳어 회군回軍 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檜知飛志銳不可回), 먼저 장준(張俊: 1094~1164)과 양기(楊沂: 생몰년 미상) 등 두 장수들에게 회군하라 청하고는(乃先請張俊楊沂等歸), 나중에 악비의 군대가 고립군이 되어 오래 체류할 수 없게 만들고 나서(以後言飛孤軍不可久留), 퇴각을 간절히 명했다(乞令班師). 〈주선진朱仙鎮, 지금의 하남성 개봉현開封縣 서남 46리까지 진군했던 악비〉는 송군의 퇴각명령이 기록된 금패金牌를 하룻동안 열두 통이나 받은 후에(一日十

二金字牌), 분하고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면서(飛憤惋泣下), 동향東向하여 <황제 고종에게> 재배하면서 말하기를(東向再拜曰): ‘십년 쫄은 노력이, 하루아침에 폐물이 됐습니다(‘十年之力, 廢於一旦’).’고 한 대목이 있다. ‘백성들은 통곡했고, 악비도 비통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이상은 『송사(宋史)』·악비전(岳飛傳)』과 진치평(陳致平) 저 『중화통사(中華通史)』를 참조함)

- ③ 연편래(聯翩來): 속속(연이어) 퇴각하다
- a. 연편(聯翩): 연속부단(連屬不斷)한 것을 비유한 말, 잇대어 끊어지지 않는 모양, ‘속속(續續)’으로 표현된다.
- ④ 련(聯): 연결하다
- ⑤ 편(翩): 아주 빨리 날다
- b. 래(來): 돌아오다, 본 시에서는 ‘송군이 회군하다’는 말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3) ① 웅병(雄兵): 전투력이 강한 군대, 용맹한 장병들
- ② 기(氣): 기세, 기개
- ③ 소슬(蕭瑟): 처량하다, 쓸쓸하다.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지다. ‘(노인이) 죽다’를 비유한 말
- 4) ① 십재(十載): 10년
- ② 기훈(奇勛): ‘기훈(奇勛)’으로도 쓰며, ‘탁월한 공훈’이란 뜻이다.
- ③ 영이척(寧易擲): 어찌 편안하게 내던졌겠는가?
- 5) ① 첩첩(喋喋): ‘다언(多言: 말을 연이어 많이 함)’, ‘노도(嘯叨: 수다스러움, 말이 많음)’의 뜻이다. 국어로 이 말의 모양을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어린이 일 경우 ‘재잘재잘’, 여러 사람일 경우 ‘웅성웅성’·‘쭈군쭈군’, 남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의 혼잣말은 ‘쭈얼쭈얼’,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하는 ‘주절주절’ 등이 있다. 본 시에서는 당시 진회(秦檜)를 추종하는 장준(張俊) 등 그 무리들이 악비(岳飛)를 참언하는 모양을 표현한 말이다. ‘쭈군쭈군’으로 번역한다.
- ② 도언(盜言): 비방하다, 참언하다. 본 시에서는 악비를 참언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종망극(終罔極): 도대체 끝이 없다
- a. 종(終): 도대체
- b. 망극(罔極):
-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한이 없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시경(詩經)』·소아(小雅)·하인사(何人斯)』에, “사람의 면목이 교활한 인상 지녔어도, 서로 대면해서 볼 기회는 끝이 없으리(有靦面目, 視人罔極).”라고 한 구절이 있다.
 - 『시경(詩經)』·소아(小雅)·육아(蓼莪: 더부룩한 다부쭈)』에,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셨네(父兮生我, 母兮鞠我). …… 이 은혜 갚고자 하나, 하늘같이 넓고 커서 끝이 없네(欲報之德, 昊天罔極).”라고 한 구절이 있다. 송나라 유학자 주희(朱熹: 1130~1200)는 『집전(集傳)』에서 말하기를, “부모의 은혜가, 하늘같이 무궁하여, 갚을 바를 알지 못하겠다는 말이다(言父母之恩, 如天無窮, 不知所以爲報也).”고 하였다. 그래서 후에 사람들은 이 ‘망극(罔極)’이란 말을 ‘부모의 은혜가 무궁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한

- 국에서는 ‘임금의 은덕이 무궁하다’는 뜻으로도 썼다. 또한 부모의 제사 때 축문(祝文)에 ‘부모에 대해서 무한히 애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 6) 노하친(虜何親) : 오락개와 어찌 화친하러 하는가?
 a. 로(虜) : 오락개. 본 시에서는 금(金)나라의 여진족(女眞族)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b. 친(親) : 친근하다, 접촉하다, 신임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화친(和親)’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7) 유천(由天) : 천심(天心)에 달렸다.
 a. 유(由) : 따르다, 말기다
 b. 천(天) : 천의(天意 : 천심天心 : 하늘의 뜻), 운명
- 8) ① 안위(安危) : 평안과 위험
 ② 유기(猶冀) : 바라는 것과 같다. 본 시에서는 ‘바라는 것과 같이 되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백오군(白吾君) : 내 주군께 아뢰었다.
 a. 백(白) : 진술하다, 보고하다, 말하다
 b. 오(吾) : 나, 우리. 본 시에서 악비(岳飛) 자신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c. 군(君) : 군주. 본 시에서는 송고종(宋高宗)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9) ① 적려(積慮) : 오랫동안 사려(思慮 : 숙고함)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② 장현(戕賢) : 현신(賢臣)을 죽이다. 여기서 ‘현(賢)’은 악비를 가리킨다.
 ③ 심미직(心未直) : (고종高宗의) 마음이 아직 공정[정직]하지 못하다, 그 마음이 울곧지 못하다.
- 10) ① 중원(中原) :
 ☆주로 ‘중국’을 칭하는 말로 쓰며, 본 시에서는 ‘중국의 치세방식’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역지주석 : 고대중국은 동일혈족의 제사조직으로 종(宗)의 내부는 다수의 족(族)으로 구성되어 있고, 혈통에 따라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구분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대종 적장자손(嫡長子孫)이 대대로 영원히 조상을 모시는 ‘백세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종(百世不遷宗)’을 말하며, 같은 시조를 둔 종족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이다. 이에 비하여 소종은 별자(別子)로서 고조(高祖) · 증조(曾祖) · 조부(祖父) · 부(父) · 자(子)의 5대를 일족으로 하여 ‘5세五世마다 바뀌는 종(五世而遷)’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종법제도(宗法制度)는 결국 가족단위가 국가단위의 기저(基底)가 됨을 말하는 것으로, 본 시구에서도, ‘중원[국가]의 경영이 본래 ‘한 집안의 가사(家事)’를 경영하는 것과 같다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명칭으로도 쓴다. 광의로는 황하유역 전체를 가리키고, 협의로는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일대를 가리킨다.
- ② 원시(元是) : ‘원시(原是)’와 같은 말로, ‘본디, 원래’라는 뜻으로 쓰였다.
 ③ 내(乃) : 이와 같다, 여차(如此)하다
 ④ 가사(家事) : 집안일. 본 시에서는 ‘집안일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11) 골육유수 김본격(骨肉爲囚堪憤激 : 친 골육을 죄수로 만들었으니 격노할만 했었네) :

****역지주석:** 재상 진회(秦檜)가 악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비의 아들 악운(岳雲)과 악비의 부하 장현(張憲)에 누명을 씌워, ‘병권(兵權)이 박탈당한 악비에게 병권을 반환하여 악비로 하여금 항명(抗命)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악비와 함께 처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시의 주석 1)의 ② ‘악비(岳飛)’ 조항을 참조 바람.

① 골육위수(骨肉爲囚) : 골육을 죄수로 만든다.

a. 골육(骨肉) : 혈통이 같은 부자(父子), 형제(兄弟)를 말함.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위(爲) : 만든다, 조작(造作)하다

c. 수(囚) : 죄수

② 감분격(堪憤激) : (그것은) 격노할 만하다

12) ① 장성(長城) : 만리장성(萬里長城)

☆방어용으로 건축한 끊임없이 이어진 성벽이다.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각국은 방어목적을 내놓고, 변방지역의 지형이 험준한 곳과 요처를 분별해서 장성을 수축(修築)하였다. 『좌전(左傳)·회공 4년(僖公四年 : BC 656)』의 기재에, “초나라는 방성(方城) : 산맥이 길게 이어진 산이름. 지금의 하남성 연현(豫南縣, 방성현方城縣 북쪽에 위치함)을 성벽으로 삼다(楚國方城以爲城).”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장성(長城)과 관계되는 최초의 기록이다.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제(齊)·조(楚)·위(魏)·연(燕)·진(秦)과中山(中山) 등 나라들은 연이어서 장성(長城)을 건축하였다. 진시황(秦始皇)은 6국을 멸하고 통일을 완성한 후에, 북방의 흉노족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秦)·조(趙)·연(燕) 등 3국의 북방 장성(長城)을 수축하여 하나로 연관(連貫)시켰다. 그래서 서쪽의 임조현(臨洮縣 : 지금의 감숙성甘肅省 민현岷縣)에서 시작하여, 북쪽 음산(陰山)에 잇닿은 다음, 동쪽으로는 요동(遼東)까지 이른 까닭에, 속칭 ‘만리장성(萬里長城)’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성의 유적은 잔존하고 있다. 이후에도 한(漢)·북위(北魏)·북제(北齊)·북주(北周)·수(隋) 등 나라들은 모두 북방과 유목민족 접경지역에 장성을 건축했었다. 명대(明代)에는 달단족(韃靼族 : 타타르Tatar : 북방 유목민족에 대한 총칭)과 와랄족(瓦剌族 : 오이라트Oirat : 명나라 때 몽골 서쪽에 있던 부족 명칭) 등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홍무초년(洪武初年 : 1368)부터 만력말년(萬曆末年 : 1619)까지 선후에 걸쳐 18차나 장성을 수축하면서, 서쪽의 가옥관(嘉峪關 : 감숙성 주천현酒泉縣 서쪽 가옥산 서쪽 기슭에 위치함. 자고로 동서교통 요충지임)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요동에 이르기까지의 장성을 ‘변장(邊牆 : 변방의 담장)’이라고 칭하였다. 또한 선화현(宣化縣 :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의빈현宜賓縣 서북 86리 궈계진蕪溪鎮 북쪽 선화페화宣化壩에 위치함)과 대동현(大同縣 :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대동시大同市에 관청이 있음)의 남쪽에 두 번째 장성을 건축하고, 직례(直隸 : 명대에 경도京都에서 직접 관할하던 지역 명칭임)와 산서(山西 : 태행산太行山 이서 황하黃河 이동 지역을 칭하는 말임) 지역의 경계에도 양 갈래의 두 번째 장성을 원래의 장성 남쪽에 건축해 놓고, 이를 ‘차변(次邊 : 제2의 변방담장)’이라고 불렀다. 장성은 총 길이가 약 6700km이며, 성벽의 건축물 대부분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일추(一墜): 결국 무너지다
 a. 일(一): 결국
 b. 추(墜): 파괴되다, 무너지다. 본 시에서는 ‘함락되는 것, 점령되는 것’을 비유한 말로 표현하였다.
- ③ 욕하위(欲何爲):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 13) ① 혈오연화(血汚蓮花): (병사들이 흘린) 핏자국이 연꽃처럼 피어오른다.
 a. 혈오(血汚): 피로 얼룩지다, 핏자국(이 스며들다)
 ㉔ 오(汚): 더럽다, 더럽하다. 본 시에서는 ‘얼룩진 것’, 곧 ‘혈흔(血痕)’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연화(蓮花): 연꽃. 본 시에서는 ‘핏자국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 ② 광(光): 일광(日光: 햇빛). 본 시에서는 ‘(국토 수복의) 희망’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a. 회(晦): 암담하다, 어둡다
 b. 식(蝕): 손상하다, (빛이) 가려지다
- 14) ① 연년(年年): 년(年)·가(家) 등의 단음절 명사는 중첩한 후 주어나 부사어로 쓰이며, ‘...마다’란 뜻을 갖는다. 인인(人人: 사람마다)·가가(家家: 집집마다)·연년(年年: 해마다) 등이 그 예이다.
- ② 한식(寒食): 명절 명칭이다. 동지(冬至)에서 105일째 되는 날로서, 청명(清明) 하루나 이틀 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은, ‘찬 음식을 먹고, 조상의 산소에 제사지내고, 묘를 돌보는 풍습이 있다.
- ③ 서호로(西湖路): 서호(西湖) 호숫가의 길. 여기의 서호는 항주(杭州)의 서호를 가리킨다. 서호(西湖) 호숫가에는 악왕묘(岳王墓)가 있다. 자세한 것은 ‘본 시의 주석 1)의 ② 악왕묘’ 및 ‘악비묘’ 조항을 참조 바람.
- 15) ① 벽초(碧草): 푸른 풀, 녹초(綠草), 청초(靑草)
 ② 동풍(東風): 봄바람, 춘풍을 가리킨다.
 ③ 행객읍(行客泣): 나그네들이 눈물을 흘리다.
- 16) ① 영혼(英魂):
 a. 영(英): 사물의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부분을 형용하는 말로 혼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악비의 맑고 충성스러운 영혼을 수식하였다.
 b. 혼(魂): 양신(陽神), 곧 정신을 주관하는 신령이다.
- ② 의백(毅魄):
 a. 의(懿): 용맹스럽다, 강인하다, 굳세다는 형용사로 ‘백(魄)’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악비의 용맹한 기백을 수식하였다.
 b. 백(魄): 음신(陰神), 곧 육신을 주관하는 신령이다.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정신에는 ‘혼’과 ‘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고 했다. 『회남자(淮南子)·설산훈(說山訓)』편에, “백(魄)이 ‘혼(魂)’에게 묻기를: ‘도도는 무엇을 본체로 하는가’(魄問於魂曰:道何以爲體)?”라고 한 대목이 있다. 후한의 학자 고유(高誘: 생몰년 미상)의 이 문장에 대한 주석(注釋)에 의하면, “백(魄)은 사람의 음신(陰神: 음陰의 정신)이고, ‘혼(魂)’은 사람의 양신(陽神: 양陽의 정신)이다(魄, 人陰神也. 魂, 人陽神也).”고 하였다. 말하자면, 양신(陽神)인 ‘혼(魂)’은 정신을 주관하는 신령(神령)이고, 음신(陰

神)인 ‘백(魄)’은 육신을 주관하는 신령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혼백이 인체(人體)에서 공존하지만, 죽게 되면, ‘혼’은 육신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고, ‘백’은 육신을 떠나 땅에 묻혀서 나중에는 형체도 없이 부서져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본 시에서 언급한 ‘악비(岳飛)’의 혼·백 양쪽의 신령은 모두 그의 정신과 육신을 대의(大義)를 위해 충성과 용맹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찬미하고 있다.

- ③ 불가(不可) : …할 수가 없다
- ④ 작(作) : 제작하다, 제조하다, 만들다
- 17) ① 양마(羊馬) : 양마성(羊馬城)의 약어로 쓰였다.
 - ☆양마성(羊馬城) : 양마원(羊馬垣) : 양마장(羊馬牆) : 민간의 양이나 말을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성(城) 밖에 건축한 성을 둘러싸는 듯한 공사(工事)를 말한다. 『통전(通典 : 당나라 재상 두우(杜佑 : 735~812년)가 편찬한 제도사(制度史) · 병5(兵五 : 군비軍備에 관한 제도 제5편)』에, “성 밖 사방의 호(壕 : 해자壕字 : 성 둘레에 판 도랑) 안(於城外四面壕內)에, 성벽으로부터 10보 떨어진 곳에(去城十步), 다시 작은 성을 건축하는데(更立小隔城), 성벽의 두께가 여섯 자(厚六尺), 높이가 다섯 자인데(高五尺), 여전히 여장(女牆 : 성벽 위에 올려 쌓은 요철형凹凸形의 작은 담장)을 축조해놓은 것을 양마성이라고 한다(仍立女牆).”고 하였다.
- ② 매태석(莓苔石) : 바위에 푸른 이끼가 끼다
 - a. 매태(莓苔) : 청태(靑苔), 녹태(綠苔), 푸른 이끼
 - ㉓ 매(莓) : 이끼류, 선태식물(藓苔植物)
 - ㉔ 태(苔) : 이끼. 은화식물(隱花植物)에 속하는 선류(蘚類) · 태류(苔類) · 지의류(地衣類) 등의 총칭임.
 - b. 석(石) : 바위

시12. 수심愁心

詩12. 愁¹⁾
수



人生有七情²⁾,
인 생 유 칠 정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일곱 가지 감정을 지녔기에,

外物來相讐³⁾.
외 물 래 상 수

세상사와 부딪치면서
서로 원한을 품게 되네.

勞心應萬變⁴⁾,
노 심 응 만 변

마음 쓰면 온갖 변고 대응할 수 있건만,

所爲或仇謀⁵⁾.
소 위 혹 구 모

혹자或者는 언행으로
원한 갚을 모의하네.

那無形迹拘⁶⁾,
나 무 형 적 구

어찌 예법과 법도에
구애받는 게 없었겠나만,

鬱結成百憂⁷⁾.
울 결 성 백 우

(인생사) 얹히고 설켜
갖가지 근심으로 변하네.

遂令曠然懷⁸⁾,
수 령 광 연 회

법령에 순응하여 도량 넓게 포용해도,

懔懔生戈矛⁹⁾.
늑 늑 생 과 모

오싹오싹 소름 끼치게
충돌이 일고마네.

厭俗青逃眼¹⁰⁾,
염 속 청 도 안

저속한 게 싫어서 시선 돌려
백안시白眼視 하며,

傷時白上頭¹¹⁾。
상 시 백 상 두

불여의한 시세時世에 슬퍼하다
백발만 늘어나네.

紛然觸所感¹²⁾,
분 연 촉 소 감

옥신각신하다 감정 상해
원한 갖게 되고,

入內同瘡疣¹³⁾。
입 내 동 창 우

(그 감정) 가슴 속에 스며들어
마음의 혹이 되네.

春閨遠思女¹⁴⁾,
춘 규 원 사 녀

유방에서 원행 떠난
임을 그리는 여인에겐,

一日爲三秋¹⁵⁾。
일 일 위 삼 추

하루가 마치 삼년 세월 같았으리!

良人去不廻¹⁶⁾,
양 인 거 불 회

부군夫君은 떠난 뒤로 돌아오지 않으니,

綠苔生粧樓¹⁷⁾。
녹 태 생 장 루

내실 구석에는 푸른 이끼 끼고 있다네.

忽見陌上柳¹⁸⁾,
홀 건 맥 상 류

홀연히 길옆에 버드나무가
눈앞에 보이니,

淚落不曾收¹⁹⁾。
누 락 불 중 수

눈물이 흘러내려 거들 수가 없었네.

有士久幽獨²⁰⁾,
유 사 구 유 독

어떤 선비 오래도록 조용히 홀로
지내다가,

恥去干公侯²¹⁾。
치 거 간 공 후

고위직 초치招致에
나가게 된 것을 부끄러워했다네.

徒歌白石爛²²⁾,
도 가 백 석 란

악기의 반주 없이 「백석란(白石爛)」을
노래한다길래,

不見下堂求²³⁾。
불 견 하 당 구

집을 나와 찾아봐도 보이지 아니하네.

匣裏時拂劍²⁴⁾,
갑 리 시 불 검

갑匣속에 검을 꺼내
수시로 먼지를 닦는데,

潛光蔽斗牛²⁵⁾。
잠 광 폐 두 우

검광劍光은 빛나지 않고
전우성과 북두성도 (구름에) 가려졌네.

孤臣棄海隅²⁶⁾,
고 신 기 해 우

고루孤陋하고 무지한 신하 변방에
버려졌으나,

歲月如急流。
세 월 여 급 류

세월은 급류처럼 빠르게도 흘러가네.

君恩不可恃²⁷⁾,
군 은 불 가 시

주군主君의 은혜에 의존해서는
안 되나니,

望斷思悠悠²⁸⁾。
망 단 사 유 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 시름만 줄줄이 이어지네.

青楓楚江岸²⁹⁾,
청 풍 조 강 안

청록색 단풍나무 강기슭에 빼곡한데,

白雪關外州³⁰⁾。
백 설 관 외 주

도성 밖 고을에는 흰 눈이 펄펄 내리네.

永夜耿孤枕³¹⁾,
영 야 경 고 침

긴긴 밤 홀로 잠자리서
시름에 젖었는데,

還朝愧遠郵³²⁾。
환 조 괴 원 우

환조還朝하며 부끄럽지만
먼 길을 역마 타고 왔네.

從古惱幾人³³⁾,
종 고 뇌 기 인

옛부터 하늘에 순종하며
고뇌했던 사람 몇이나 될꼬?

我今更綢繆³⁴⁾。
아 금 갱 주 무

나는 지금부터
더욱 꼼꼼히 준비해야겠네.

趨塵既非願³⁵⁾,
추 진 기 비 원

세속사世俗事 지향志向은
이미 바라는 바 아니거늘,

濟物亦乖猷³⁶⁾。
제 물 역 괴 유

사람을 구제하려는 것
역시 불여의한 계획일세.

踽踽歲苦晚³⁷⁾,
우 우 세 고 만

쓸쓸히 거니는데
연초부터 수심에 찬 이 저물녘에

晤言誰與儔³⁸⁾。
오 언 수 여 주

누가 이 벗과 만나
얘기 나눌 수 있을까?

何當辦一身³⁹⁾,
하 당 판 일 신

어찌 이 한 몸이 다 주관할 수 있으랴!

永作逍遙遊⁴⁰⁾。
영 작 소 요 유

오래도록 속박 없이 유유자적하려 하네.

- 1) 수(愁): 수심(愁心: 근심하는 마음)

****역주지석:** 본 시의 시제(詩題)인 ‘수(愁)’는 사부(思婦: 원행 중에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는 부인)의 원행나간 남편에 대한 그리움에 빗대어 서애의 주군(主君)에 대한 그리움을 시사하고 또한 자신의 생애에 대한 회한 등은 중국역대의 인물 중에 불여의한 삶을 살다간 인사들의 생애에 빗대어 읊고 있다.

- 2) 칠정(七情):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이나 정서. 희(喜: 기쁨) · 노(怒: 노여움) · 애(哀: 슬픔) · 구(懼: 두려움) · 애(愛: 사랑) · 오(惡: 미움) · 욕(欲: 욕심)을 가리킨다. 『예기(禮記) · 예운(禮運)』편에, “사람의 감정이란 어떤 것인가(何謂人情)? 그것은 기뻐하고 · 성내고 · 슬퍼하고 · 두려워하고 · 사랑하고 · 미워하고 · 욕심내는 심정이니, 이 일곱 가지는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이다(喜怒哀懼愛惡欲, 弗學而能).”고 한 대목이 있다. 이 ‘칠정’ 관련 자료는 퇴계 이황(李滉)이 쓴 「성학십도(聖學十圖)」 중 제6도의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에,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이발지정(已發之情: 칠정)과

미발지성(未發之性: 본성)의 관련이 도식(圖式)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 바람.

3) ① 외물(外物):

☆심신(心身) 밖의 사물, 즉 자연계나 인간계의 모든 현상을 가리키며, 특히 인간사회의 만사를 가리키며, 주로 이욕(利慾)과 공명(功名)같은 것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외(外): 외부(外部): 삼내(心內)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가리킨다.

b. 물(物): 만물, 만사

② 래상수(來相讐): (만사를 겪는 중에) 서로가 원한을 품다.

a. 래(來): (어떤 동작·행동)하다. 구체적인 동사 대신에 쓰인 것이다. 래(來) + 동사의 형태로 어떤 일을 하려함을 나타냄. ‘래(來)’가 없어도 뜻의 변화는 없음.

b. 상수(相讐): 하나의 품사인 ‘동사’로 쓰여, ‘서로 원망하다’는 뜻을 지닌다.

4) ① 노심(勞心): 마음을 쓰다, 마음으로 애를 쓰다, 머리를 쓰다, 마음에 두다

② 응만변(應萬變): 온갖 변고에 대응하다

5) ① 소위(所爲): 행위. 본 시에서는 ‘언행’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호구모(或仇謀): 혹자(或者)는 원한 값을 모의하다

a. 혹(或): 대명사로 쓰일 경우, 인칭대명사로 쓰이면, ‘어떤 사람(들), 아무개, 혹자(或者), 모인(某人)’ 등으로 해석되고, 사물에 쓰이면 ‘어떤 것(들), 어떤 때, 간혹’ 등으로 해석한다. 본 시에서는 인칭대명사로 쓰였다.

b. 구(仇): 적대시하다, 원수같이 보다(원수로 여기다), 해치다. 본 시에서는 ‘원한을 갚다’는 뜻으로 쓰였다.

c. 모(謀): 모의하다

6) ① 나무(那無): 어찌 없겠는가?

a. 나(那): ‘나하(奈何: 어찌 ...할 수 있겠는가)’의 합음(合音)이다.

② 형적(形迹): 예법, 규구(規矩: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할 규칙, 법도)

③ 구(拘): 얹매이다, 구속받다

7) ① 울결(鬱結): 반결(盤結: 뒤얽힘)하다. 서리서리 얹하다. 본 시에서는 인생사 얹히 고설킨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성(成): (...으로) 되다, (...으로) 변하다

③ 백우(百憂): 갖가지 근심(수십)

8) ① 수령(遂令): 법령에 순응하다

② 광연(曠然): 활달하다, 확 트이다, 도량이 넓다

③ 회(懷): 포용하다

9) ① 늠름(懷懷): ‘늠름(懷懷)’으로도 쓴다.

☆두려워하는 모양, 삼가는 모양. 본 시에서는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생과모(生戈矛): 충돌이 일다

a. 생(生): 일어나다

b. 과모(戈矛):

○ 전쟁, 충돌(衝突). 본 시에서는 ‘충돌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파(戈)와 모(矛). ‘파’나 ‘모’는 둘 다 창(槍)의 일종이지만, 모양이나 쓰임새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과모(戈矛)는 무사와 군대의 뜻으로도 쓴다.

- ④ **과(戈)**: 과(戈) : 고대의 주요 병기(兵器)로서 횡인(橫刃 : 짧은 검을 가로 놓은 듯한 모양의 칼날)이 있고, 청동제이며, 긴 나무자루에 장착했다. 상대(商代) 중기에 출현해서 상(商) · 주(周)시대에서 진 · 한시대(秦漢時代)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병기였다. 그 이후 점차 소실되었다.

과(戈)의 각 부위 형상 : 초기에는 편평한 곡척형(曲尺形 : 굽자골 : 기역자 꼴)이었으나, 후에 점차 발전하여 대략 ‘정(丁)’에 근사한 모양으로 제작되었다.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국어의 자모 ‘기역 ㄱ’뒤에, 조금 낮은 위치에서 짧은 모양의 가로획 ‘一’을 붙인 ‘ㄱ’모양이다. 단, 여기서의 ‘ㄱ’은 직각이 아니라 호곡선형(弧曲線形)으로 이어진다.

표준적인 ‘과(戈)’는 ‘과두(戈頭 : 과戈의 앞머리 전체 부분)’와 ‘병(柄 : 비秘 : 창자루)’과 ‘동준(銅鑕 : 창을 쓰지 않을 때는 세워두고 보관했는데, 이 때 창의 자루가 상하지 않도록 동제銅製 철판으로 창 자루의 끝 부분을 감싸서 만든 원추형圓錐形 싸개)’의 세 부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 ⑤ **모(矛)** : 고대에 가장 광범위하게 쓰인 병기이다. 긴 자루 끝에 ‘모두(矛頭 : 뾰족한 쇠 촉의 끝부분)’를 장착하여 적을 찔러 죽이는데 썼다. 이 창 의 끝 부분은 매우 뾰족하다. 쇠 촉 몸 통 부분이 각이 진 모형으로 된 것도 있고, 양쪽이 칼날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은(殷) · 주(周) 시대의 모두(矛頭)는 청동제로 만들었으며 한 대(漢代)에 와서는 철제(鐵製)로 사용했다. 창(槍)과 모(矛)는 그 모양이 거의 같다. 단지, 모두(矛頭)가 창보다 길었다. 그럼에도 한 대(漢代)에는 ‘극(戟)’과 모(矛)를 특히 중시했다. 후한시대에 와서도 모두(矛頭)의 형식은 변하지 않았으나, 모두의 형체가 너무 길어 사용하기 불편해지면서, 진대(晉代)에 와서는 점차 창(槍)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참고삼아 역시 창 의 일종인 ‘극(戟)’도 간략하게 정리한다.

***극(戟)** : 창 의 일종으로 고대 병기의 명칭이다. 과(戈)와 모(矛)의 기능을 합쳐 하나의 형체를 만든 것도 있고, 과(戈)와 도(刀)의 기능을 합쳐 하나의 형체로 만든 것도 있다. 과(戈)와 유사한 기능이 있기에 횡격(橫擊 : 옆으로 휘둘러 공격함)할 수도 있고, 모(矛)와 유사한 기능이 있어 직자(直刺 : 앞으로 찌름)할 수도 있어 과(戈)나 모(矛)보다 살상력이 높다. 상대(商代)에 출현해서 춘추전국시대까지 사용됐다. (이상의 ‘과戈’와 ‘모矛’ 조항은 ‘중국 인터넷 Baidu中國百度’ 참조)

- 10) ① **염속(厭俗)** : 저속한 것이 싫다. 저속한 것을 싫어하다.
 ② **청도안(靑逃眼)** : 시선을 돌려 흘려보다. 이 말은 ‘도청안(逃靑眼)’을 도치하여 표현한 말이다. ‘도(逃)’는 ‘피하다’는 뜻이고, ‘청안(靑眼)’은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신임하여 좋은 마음으로 보는 검은 눈동자의 눈’을 가리킨다. ‘청(靑)’은 색(色)을 표현한 것으로, ‘청색 · 백색 · 흑색’ 등의 뜻으로 쓰이는데, ‘청안’은 곧 ‘흑색 눈동자의 눈으로 정시(正視)하는 것’을 가리키고, ‘백안(白眼)’은 ‘흰자위로 보는 눈, 곧 흘려보는 것[白眼視]’으로 ‘남을 업신여기거나 혐오할 때의 시선’이다.
 a. **청(靑)** : 흑색
 b. **도(逃)** : 피하다

- c. 안(眼) : 시선
- 11) ① 상시(傷時) : 시세(時世)가 뜻한 바와 같지 않아 슬퍼하다, 불여의한 시세(時世)에 슬퍼하다
 ② 백상두(白上頭) : 머리털이 하얗게 세다, 백발이 성성해지다
 a. 백(白) : 희게 되다
 b. 상(上) : 동사 뒤에 보어로 쓰여 동작의 결과를 표시한 말이다.
 c. 두(頭) : 두발, 머리털
- 12) ① 분연(紛然) : 분규(紛糾)하는 모양, 쟁집(爭執) : 서로 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옥신각신 다툼 모양. ‘옥신각신하다’로 번역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분(紛) : 분규하다
 b. 연(然) : 그러한 모양
 ② 축소감(觸所感) : 감정을 해쳐 (성나게 하여) 유감스러운 것이 되다.
 a. 축(觸) : 감정을 해치다, 거슬리다, 성나게 하다, 실레하다, 무례하다
 b. 소(所) : 타동사 앞에 쓰여, ‘소(所) + 동사(動詞)’의 형태가 명사처럼 쓰이도록 한다.
 c. 감(感) : ‘감(憾)’과 통하며, ‘원한을 갖다, 유감스럽다, 유감이 있다’는 뜻이다.
- 13) ① 입내(入內) : 내심에 (어떤 감정이) 스며들다. ‘가슴속에 스며들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② 동창유(同瘡疣) : (마음의) 부스럼이나 혹과 같다(같이 되다).
- 14) ① 춘규(春閨) : 여자의 규방(閨房 : 침실·내실), 규중(閨中 :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의 여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② 원사녀(遠思女) : 원사부(遠思婦) : 원정(遠征) 나간 남군을 그리워하는 부녀자를 칭한다.
- 15) 위삼추(爲三秋) : 삼년 세월과 같다.
 a. 위(爲) : …과(와) 같다
 b. 삼추(三秋) :
 ○ 『시경(詩經) · 왕풍(王風) · 채갈(采芣 : 풀 캐러 가세)』에, “하루를 만나지 못하면, 흠사 세 해를 못 본 듯하네(一日不見, 如三秋兮).”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여기서 ‘삼추(三秋)’의 ‘추’는 운(韻)을 바꾼 지점으로 ‘그리움’의 간절한 정도를 언급한 것이며, 세 차례의 가을. 즉 ‘3년’을 의미한다. (왕정지王靜芝의 『시경통석(詩經通釋)』 참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16) ① 양인(良人) : 고대에 부인이 남편을 부르는 칭호이다.
 ② 거불회(去不廻) : 떠난 뒤로 돌아오지 않다.
- 17) ① 녹태(綠苔) : 푸른 이끼, 청태(靑苔), 벽태(碧苔), 취태(翠苔)
 ② 생장루(生粧樓) : 내실 구석에 …가 끼다(자라다)
 a. 생(生) : 나다, 자라다
 b. 장루(粧樓) : 옛날에 부녀자가 거주하던 층집[누방樓房]을 칭하던 말이다. 본 시에서는 ‘안방, 내실’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18) 홀견 맥상류(忽見陌上柳 : 홀연히 길옆에 버드나무가 눈앞에 보이니) :
 **역지주석 : 본 짓구는 사부(思婦 : 원행한 남편을 그리워하는 부인婦人)가 홀연히 길옆의 버드나무[陌上柳]를 목도하자 남편과의 별리(別離)의 상감(傷感)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정황을 대구(對句)에서 조응(照應)하게끔 하는 시문이 되겠다. ‘버드나무’는 고시(古詩)에서 석별(惜別)의 이미지를 지녔다하여 ‘이별’의 상징어로 쓰여 왔다.

- ① 맥상류(陌上柳) : 길옆의 버드나무
 - a. 맥상(陌上) : 길가에, 길옆에
 - b. 류(柳) : 버드나무
- 19) ① 누락(淚落) : 눈물이 흘러내리다
- ② 부증수(不曾收) : 거두어들이지 않다. 거둘 수가 없었다
 - a. 불증(不曾) :
 - 아직 …않다(않았다), 일찍이 …않다(않았다)
 - (일찍이) …한 적이 없다
 - b. 수(收) : 거두어들이다, 그만 두다

- 20) 유사 구유독(有士久幽獨) : 어떤 선비 오래도록 조용히 홀로 지내다가 :

****역주석 :** 본 시구에서 ‘유사(有士)’는 서진의 문학가 육기(陸機 : 261 ~ 303)의 생애에 빗대어 서에 자신의 출사(出仕) 생애를 함축하고 있다. 육기는 오(吳)나라 출신으로 오의 개국공신 가운데 한 사람인 육손(陸遜)의 손자이며 총사령관이었던 육항(陸抗)의 넷째 아들로, 오가 진(晉 : 265 ~ 317)에 의해 멸망하고 난 뒤 10년 동안 숨어 살았다. 290년에 수도인 낙양(洛陽)으로 가서 학자들의 환대를 받고 태학의 장(長)으로 임명되었다. 결국 진의 고위 관직에 오르고 귀족이 되었으나, 후에 황제를 폐하고 수도를 점령하려던 정치음모에 연루되어 303년에 처형되었다. 본 시에서는 그의 십년 은거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서(晉書) 권54 · 열전(列傳) 제24 육기(陸機)』를 참조 바람.)

- ① 유사(有士) : 어떤 선비
- ② 구유독(久幽獨) : 오래도록 조용히 홀로 지내다.
- 21) 치거 간공후(馳去干公侯) : 고위직 초치에 나가게 된 것을 부끄러워했다네 :

****역주석 :** 주석 20)의 역주석을 참조 바람.

- ① 치(馳) : 부끄러워하다
- ② 거(去) : 앞으로 나아가다, 다른 곳으로 가다(향하다). ‘오대[來]’와 상반되는 ‘가다[거(去)]’의 의미를 지닌다.
- ③ 간(干) : 초치(招致)되다
- ④ 공후(公侯) : 공작(公爵)과 후작(侯爵). 이는 ‘고관대작(高官大爵)’의 뜻이나 본 시에서는 ‘고관직(高官職)’으로 번역한다. 『예기(禮記) · 왕제(王制 : 천자의 제도)』편에, “왕자(王者 : 천자天子)가 녹작(祿爵)을 제정한 것은 공공 · 후侯 · 백伯 · 자子 · 남남 등 모두 5등급이다(王者制祿爵, 公侯伯子男, 凡五等).”고 한 대목이 있다. 후한(後漢)의 학자 반고(班固 : 32 ~ 92)가 편집한 『백호통의(白虎通義 : 학자들이 궁전 백호관白虎觀에서 오경五經의 이동異同을 토로한 것을 받고가 정리한 책)』에서 이르기를, “명칭을 ‘공후公侯’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所以名之爲公侯者何)? ‘공공’이란 것은 ‘막힘없이 통과하다’는 것으로, ‘공정무사’하다는 뜻이다(公者通, 公正無私之意也). ‘후侯’는 ‘출영(出迎 : 먼저 나가서 기다리며 맞이함)하다’는 ‘후候’의 뜻이니 <즉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란 뜻이니>, ‘공’과 ‘후’는 어순語順이 바뀌었다 <즉 ‘후侯’가 ‘공공’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공후公侯’라고 말하니

역순逆順이 된 것이다(侯者候也, 侯逆順也).”고 한 대목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이 ‘공후(公侯)’란 말을 주로 작위가 있는 귀족과 관직이 현격히 높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 22) ① 도가(徒歌) : 악기의 반주가 없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다)
 ② 백석란(白石爛) : 고시(古詩) 「반우가(飯牛歌 : 은사隱士가 소에게 풀을 먹이면서 부르던 노래)」의 가사(歌辭) 중에 한 구절을 노래한 말이다. ‘산의 바위가 희랍아 돋보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사기(史記)·노중련·추양열전(魯仲連鄒陽列傳)』에, “영척(甯戚 : 寧戚 : 생물년 미상 : 춘추시대 위衛나라 사람. 은거하여 상인이 되었으며 길에서 소에게 여물을 먹이며 노래하다가 제환공齊桓公이 그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를 객객客卿으로 삼았음)은 수레 아래쪽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으나, 제환공(齊桓公 : ?~BC 643년 : 춘추시대 제나라 군주. 성은 강姜 씨이고 이름은 소백小白임)은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에게 국정國政을 맡겼던 것임이다(甯戚疾擊其牛車下, 而桓公任之以國).”고 한 대목이 있다. 남조(南朝) 송(宋)나라 학자 배인(裴駟 : 생물년 미상)은 『사기집해(史記集解)』에서 후한(後漢)의 학자 응소(應劭 : 생물년 미상)의 말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제환공이 밤에 외출하여 손님을 영접한다고 하자, 영척은 재빨리 <그 길목에서> 소의 뿔을 두드리면서 상商나라 <여행객들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기를(齊桓公夜出迎客, 而甯戚疾擊其牛角而商歌曰 : ‘남산의 바위 희랍희랍, 백색 양반이 희랍아 돋보이네(南山矸, 白石爛). 이 몸 태어나서 요순 임금의 선위禪位 못 본데다(生不遭堯與舜禪), 짧은 홀바지 걸쳐 정강胫도 못 가리면서(短布單衣不掩胫), 새벽부터 밤중까지 소에게 풀만 먹이니(從昏飯牛薄夜半), 긴긴 이 밤 언제 밝아 아침될꼬(長夜漫漫何時旦)?’라고 했다. 제환공이 이 노래를 듣고 영척을 불러서(公召與語), 그와 이야기를 해보고는(說之), 그를 대부로 삼았다(以爲大夫).”고 하였다. 후에 사람들은 이 「반우가(飯牛歌)」를 대칭하는 말로 「백석란(白石爛)」이란 말을 썼다.

- 23) 불견하당구(不見下堂求 : 집을 나와 찾아봐도 보이지 아니하네) :

**역지주석 : 위의 주석 22)의 ② ‘백석란(白石爛)’ 조항을 참조 바람.

- ① 불견(不見) : 보이지 않다
 ② 하당(下堂) : 전당(殿堂 : 궁전)이나 당옥(堂屋 : 집)을 나오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집을 나오다’는 뜻으로 쓰였다.
 ③ 구(求) : 탐색하다, 찾다
 24) ① 갑리(匣裏) : 상자 속에서
 ② 시불검(時拂劍) : 검을 꺼내 늘 먼지를 떨다, 검을 꺼내 때때로 먼지를 닦다
 25) ① 잠광(潛光) : 광채가 빛나지 않다. 본 시에서는 ‘검광(劍光)이 빛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a. 잠(潛) : 잠복하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다, 은폐하다
 ② 폐두우(蔽斗牛) : 복두칠성과 견우성이 (구름에) 가려지다.
 a. 폐(蔽) : 가리다, 막다, 덮다, 은폐하다(되다)
 b. 두우(斗牛) :
 ○ 28수(二十八宿 : 천구天球를 황도黃道에 따라 28등분한 구획의 별자리) 중의 두성(斗星 : 복두칠성이 있는 별자리. 28수중의 8번째 별자리)과 우성(牛星 : 견우성牽牛星이 있는 별자리. 28수중의 9번째 별자리).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옛날부터 전설로도 전해졌지만, 서진(西晉) 초에 두성(斗星)과 우성(牛星) 사이에는 늘 자기(紫氣)가 서렸었는데, 당시의 점성가(占星家)인 뇌환(雷煥 : 생몰년 미상)은 생각하기를, 그 자기(紫氣)는 보검의 정기(精氣)가 하늘에 닿아 이뤄진 것으로 보고, 당시 재상직에 있었던 장화(張華 : 232~300년)의 도움을 받아 두(斗)·우(牛) 양성(兩星)의 아래쪽에 위치한 풍성현(豐城縣 :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풍성시豐城市 남쪽 11리)에 현령(縣令)으로 부임하여, 옥사(獄舍)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터의 바닥을 파면서, 지하 4장(四丈 : 약 13.3m) 남짓 되는 깊이에서 하나의 석함(石函)을 발굴했다. 그 석함 안에는 두 자루의 보검이 들어있었으니, 하나는 용천검(龍泉劍)이었고, 또 하나는 태아검(太阿劍)이었다. 그 이후 두성과 우성 사이의 자기(紫氣)는 다시 볼 수 없었다. 뇌환은 한 자루의 보검은 장화(張華)에게 주고 한 자루는 자신이 찼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후세 사람들은 ‘두우(斗牛)’란 용어를 가지고 보검을 대칭하는 말로 썼고, 일반적인 검(劍)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썼다. (자세한 내용은 『진서(晉書)·장화전(張華傳)』을 참조 바람. 또한 뒤의 「시114」, 주석 7)의 ② ‘회검(會劍)’조항을 참조 바람.)

- 26) ① 고신(孤臣) : 고루(孤陋)하고 무지한 신하. 본 시에서는 겸양의 어조로 표현 됐다.
 ② 기(棄) : 폐기하다(되다), 버리다. 본 시에서는 ‘좌천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해우(海隅) : 해우(海隅)로도 쓴다. ‘해각(海角 : 바다의 한 모퉁이, 해변)’의 뜻이다. ‘벽원(僻遠 : 외지고 요원한 곳)한 지방’을 가리키는 뜻으로 자주 쓴다. 본 시에서도 ‘외진 변방’의 뜻으로 쓰였다.
- 27) ① 불가(不可) :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② 시(恃) : 의존(의지)하다, 방자하다
- 28) ① 망단(望斷) :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처지가 딱하다.
 ② 사(思) : 애수(哀愁), 시름
 ③ 유유(悠悠) : 끊임없이 쭉 이어지는 모양을 형용한 말이다.
- 29) ① 청풍(靑楓) : 청록색 단풍나무
 ② 초(楚) : 우거지다, 군생(群生)하다, 떼지어 자라다, 총생(叢生)하다
 ③ 강안(江岸) : 강기슭
- 30) ① 관외(關外) : 경성 밖, 도성 밖
 ② 주(州) : 신라에서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지방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그 아래 많은 군(郡)·현(縣)을 거느린 상부단위였으나 갑오개혁(甲午改革 : 고종 31년(1894) 二十三府制 : 종래의 8도八道를 폐하고 확정한 지방행정구역) 실시와 광무개혁(光武改革) 때의 13도제(十三道制)의 실시로 행정구역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본 시에서는 개혁이전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31) ① 영야(永夜) : 긴긴 밤
 ② 경(耿) : 심정이 불안하다, 상심하다, 몹시 슬퍼하다, 비탄에 젖다
 ③ 고침(孤枕) : 독침(獨枕 : 홀로 자는 외로운 베개 뻐)하고, 독면(獨眠 : 홀로 잠자는)하는 쓸쓸한 잠자리. 홀로 외롭게 자다.
- 32) ① 환조(還朝) : 조정(朝廷)으로 돌아오다

- ② 괴(愧) : 부끄럽다
 ③ 원(遠) : 먼 곳에서
 ④ 우(郵) : 역마(驛馬)
- 33) ① 종고(從古) : 하늘에 순종하다
 a. 종(從) : 순종하다
 b. 고(古) : 하늘. 『일주서(逸周書)·주축해(周祝解)』에, “하늘은 ‘고(古)’이고, 땅은 ‘구(久)’이다(天爲古, 地爲久).”라고 한 대목이 있다.
 ② 뇌기인(惱幾人) : 고뇌했던 사람은 몇이나 될꼬?
- 34) 갱주무(更綢繆) :
 ① 갱(更) : 더욱, 한층 더
 ② 주무(綢繆) : 빈틈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a. 주(綢) : 동여매다, 싸다, 엮다, 촘촘하다
 b. 무(繆) : 동여매다, 엮다
- 35) ① 추진(趁塵) : 세속사(世俗事)에 뜻을 두다, 세속사를 지향(志向)하다
 ② 기비원(既非願) : 이미 바라는 바가 아니다.
- 36) ① 제물(濟物) : ‘제인(濟人 : 다른 사람을 구조함)’과 같은 말이다.
 ② 역(亦) : 또한
 ③ 괴(乖) : 불여의하다, 불순리(不順利)하다, 이익을 쫓지 않다
 ④ 유(猷) : 계획, 계략, 모략(謀略)
- 37) ① 우우(踽踽) :
 ☆독행(獨行)하는 모양, 홀로 걷는 모양, ‘쓸쓸히 거닐다’로 표현된다.
 ☆보폭을 좁게 하여 서행하는 모양. ‘천천히 걷다’로 표현된다.
 ② 세(歲) : 연초(年初 : 새해의 첫머리)
 ③ 고(苦) : 상심하다, 수심에 차다
 ④ 만(晩) : 해질녘, 저물녘
- 38) ① 오언(晤言) : 만나서 담화하다, 면담하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다
 ② 수(誰) : 누가 (…하겠는가? …인가?)
 ③ 여(與) : …와(과)
 ④ 주(儔) : 벗, 동무, 친구. 본 시에서는 서애(西厓) 선생 자신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39) 허당 판일신(何當辦一身 : 어찌 이 한 몸이 다 주관할 수 있으랴) :
 **역자주석 : 본 시구와 동일한 시구를 북송(北宋)의 문인 동파(東坡) 소식(蘇軾 : 1037~1101)의 시 「이씨원(李氏園 : 이씨의 정원 : 이무정李茂貞 공공의 정원)」에서도 읊었다. 소동파의 시에, “사람은 살아서 거주지를 경영하지만, 결국은 누구에겐가 남겨주게 되는구나(人生營居止, 竟爲何人卜). 어찌 한 몸에 지닐 수 있으랴! 오래도록 친해온 청려한 풍경이나 쫓아가려네(何當辦一身, 永與清景遂).”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이무정(李茂貞 : 856~924) : 당나라 심주(深州) 박야현(搏野縣), 지금의 허북성(河北省) 여현(蠡縣) 사람이다. 자는 정신(正臣)이고, 본성은 송씨이며, 이름은 문통(文通)이다. 향오(行伍) 출신이다. 황소(黃巢)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신책군지휘사(神策軍指揮使)에 올랐다. 화종(僖宗)을 호종한 공으로 성명을 하사받았

- 다. 광계(光啓) 3년(887) 봉상절도사(鳳翔節度使)가 되어 농서군왕(隴西郡王)에 봉해졌다. 소종(昭宗 : 867 ~ 904) 때 조종에서 병권을 장악했다. 일찍이 환관 양복공(楊復恭) 등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군사를 이끌고 경사(京師)에 들어와 재상 위소도(韋昭度) 등을 살해하고 궁실과 시장에 불을 질렀다. 천복(天復) 원년(901) 소종이 환관 한전해(韓全海)에 의해 봉상으로 가자 소종을 끼고 주온(朱溫 : 852 ~ 912, 후량태조後梁太祖)에 대항했다. 3년(903) 산남(山南)의 여러 고을을 다 잃고 고립되자 한전해를 죽이고 주온과 화해했다. 후량이 건국되자 기왕(岐王)이라 자칭하며 한 지역에서 할거했다. 후당(後唐) 장종(莊宗) 동광(同光) 2년(924) 후당을 향해 표를 올려 신하라 칭하면서 진왕(秦王)에 봉해졌다.
- ① 하당(何當) : 어디서(어떻게) …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찌(어떻게) …일 수 있겠는가? 어찌 …할 수 있으랴.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판일신(辦一身) : (자기) 한 몸이 다 주관하다
- 40) ① 영작(永作) : 영원히(오래도록) …하다
- ② 소요유(逍遙遊) :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고 유유자적하다.
- a. 소요(逍遙) : 유유자적(悠悠自適) :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하다.
- b. 유(遊) : 속박 받지 않고 즐기며 노닐다. 「소요유(逍遙遊)」는 『장자(莊子)』의 편명이다. 이 편(篇)에서는 대붕(大鵬 : 큰 봉새. 봉鵬은 한 번에 구만리를 난다는 전설상의 큰 새임)과 소구(小鳩 : 작은 비둘기)를 비롯해서, 대춘(大椿 : 큰 가죽나무)과 조균(朝菌 : 햇빛이 닿지 않는 습지에서 생겨나 햇빛을 보면 곧 말라 죽는 버섯)의 비유를 차용하여, 그 어떤 사물도 자기의 본능과 객관적인 환경을 초월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각자의 본성에 맡겨야 함을 주장하면서, 일체의 대소(大小)와 영욕(榮辱)과 생사(生死)와 수요(壽夭)와 요절(夭折 : 오래 삶과 일찍 죽음) 등의 차별관념을 방치하고, 곧 바로 소요자재(逍遙自在 :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유유자적함)해야 가는 곳마다 편안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후에 사람들은 이 ‘소요자재’함을 가리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유유자적함’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시13. 한적閑寂한 정취

詩13. 閑情¹⁾ 한 정



半壁青燈翳復明²⁾, 벽에 걸어 둔 청등은 가물가물하는데,
 夜深寒雨滿空庭。 심야에 내리는 찬비가 빈 뜰을 가득 채우네.
 秋風無限相思意³⁾, 추풍이 끊임없이 불어
 秋風無限相思意³⁾, 그리운 정취 자아내는데,
 何處吹殘玉簫聲⁴⁾. 어디선가 들릴 듯 말 듯
 何處吹殘玉簫聲⁴⁾. 옥피리 소리 들려오네.

1) 한정(閑情): 한정(間情): 고적(孤寂)한 심정, 한산(閑散): 유한자재悠閑自在: 유유하고 자유로운)한 심정, 한적(閑適: 한가하고 매인 데가 없어 마음에 맞음)한 심정. 본 시에서는 ‘한적(閑適)한 심정’의 뜻으로 쓰였다.

① 한(閑): ‘한(閒)’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시적 공간의 공적(空寂)함, 곧 ‘한적(閑寂)’함을 표현하였다.

② 정(情): 정취, 심정. 본 시에서는 ‘정취’로 쓰였다.

****역자주석:** 본 시는 줄역 『국역 류성룡시』 권3의 「시126」에서 이미 번역되었던 시이다. 다만, 권4 「시13」에서는 시제(詩題)의 제1자(字)가 ‘한(閒)’에서 ‘한(閑)’으로 바뀌어졌을 뿐이나 그 ‘자의(字意)’는 동일하고, 시의 전문(全文)도 모두 같다. 권3에서는 시제가 「한정(間情)」이고, 본 시에서는 「한정(閑情)」으로 되어 있다. 뜻은 동일하나, 권3에서는 역자가 ‘고적(孤寂)한 심정’으로 번역하였는데, ‘한적(閑適)한 정취’가 더 타당할듯하여 본 시에서는 이와 같이 정정

한다. 왜냐하면, 권3에서는 ‘고적(孤寂)한 심정’으로 번역하여, 시인의 마음속 감정을 강조했던 바, 시인의 ‘깊은 정서를 자아내는 흥취’를 간과했다. 그래서 ‘고적(孤寂)한 심정’을 ‘한적(閑寂)한 정취’로 수정한다.

- 2) 예부명(翳復明) : 청등의 불빛이 명멸(明滅 : 밝았다 흐려졌다 하는 곧 가물가물 거리는 상태를 말함)하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 a. 예(翳) : 불빛이 거의 꺼져가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 b. 부명(復明) : 다시 밝아져 오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 3) 상사의(相思意) : 정취를 자아내다, 정취가 베어들다
 - a. 상사(相思) : 그리워하다, 사모하다
 - b. 의(意) : 의미, 정취, 사람이나 사물이 드러내는 정태(情態), 생각, 기분
- 4) ① 취잔(吹殘) : 들릴 듯 말듯하다. 역자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의역(意譯)을 한 것이다. ‘취(吹)’는 ‘관악기의 소리 또는 그 악기를 불다’는 뜻이고, ‘잔(殘)’은 ‘소멸하다,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뜻이다. 본 시에서의 ‘취잔(吹殘)’이 뜻하는 피리소리가 ‘불다 끊기고 불다 끊기면서 여음(餘音)이 남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번역하였다.
 - ② 옥적성(玉簫聲) : 옥피리 소리, 피리소리
 - a. 옥적(玉簫) : ‘옥적(玉笛)’으로도 쓴다. ‘적(簫)’과 ‘적(笛)’은 같은 자이다.
 - 옥제(玉製)의 피리, ‘옥피리’로 번역된다.
 - ‘피리의 미칭(美稱)’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적성(笛聲 : 피리소리)’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쓴다.
 - b. 성(聲) : 소리

시14. 화폭에 쓴 제시題詩

詩14. 題畫¹⁾ 제 화



亂山松檜路高低²⁾,
난 산 송 회 노 고 저

산봉마다 소나무와 편백나무 우거지고
오르락내리락 산길 났는데,

茅店蕭條石橋西³⁾。
모 점 소 조 석 교 서

모옥茅屋의 여관 한 채
쓸쓸하게 돌다리 서쪽에 있네.

醉後携琴乘晚興⁴⁾,
취 후 휴 금 승 만 흥

얼큰히 술에 취해서 거문고 타며
저물녘의 흥취 돋우는데,

月華風露滿前溪⁵⁾。
월 화 풍 로 만 전 계

풍한風寒 서린 월광이
앞쪽 계곡에 가득하네.

1) 제화(題畫): (산수화나 인물화의) 화폭에 (그 내용과 어울리는 글씨) 쓴 시문

2) ① 난산(亂山): 난봉(亂峯): 산줄기를 이루지 않고 높낮이가 고르지 않게 불쑥불쑥 어지러이 솟은 산

② 송회(松檜): 소나무와 편백

③ 노고저(路高低): 오르락내리락 산길이 나 있다.

3) ① 모점(茅店): 모초(茅草: 락. 벼과의 여러해살이풀)를 엮어 지붕을 덮은 여사(旅舍: 여관), 모옥(茅屋)의 여사(旅舍), (가옥이나 설비 등이) 초라하다(누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② 소조(蕭條): 분위기가 매우 쓸쓸함

③ 석교서(石橋西): 돌다리의 서쪽

- 4) ① 취후(醉後) : 술이 취한 뒤
 ② 휴금(携琴) : 거문고를 (손으로) 잡다. 본 시에서는 ‘거문고를 타다’로 번역한다.
 ③ 승(乘) : ‘등(登 : 위로 오름)’ 또는 ‘승(升 : 높이 올림)’인데,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흥취를) 돌우다’는 뜻으로 쓰였다.
 ④ 만흥(晚興) : 저물녘의 흥취
- 5) ① 월화(月華) : 월광(月光), 달빛
 ② 풍로(風露) : 찬바람과 한기(寒氣)
 ☆풍한(風寒) : 냉풍에 실린 한기(寒氣).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바람과 이슬

시15. 병인년 丙寅年 이월 말, 서행 西行 하던 중에
저복원 貯福院에 도착하여, 잠시 쉬어
가는데 느낀 바 있어

詩15. 丙寅二月末 西行過貯福院 小歇有感¹⁾
병인 이월 말 서행 과 저복원 소 쉴 유 감



下馬入古驛²⁾,
하 마 입 고 역

하마下馬하여 오래된 역원驛院으로
들어가는데,

天寒風色烈³⁾.
천 한 풍 색 열

날씨 한랭하고 바람기가 몹시 맵구나.

如何二月暮⁴⁾,
여 하 이 월 모

이월 말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陽德猶未徹⁵⁾.
양 덕 유 미 철

춘광春光 약해 아직 양기陽氣가
퍼지지 못한 듯하네.

寒梅尙憔悴⁶⁾,
한 매 상 조 켜

매화꽃이 벌써부터 시들어 가자,

弱柳先弄色⁷⁾.
약 류 선 농 색

연약한 버들가지가
재빨리 엷은 미색微色 드러내네.

觸物感懷長⁸⁾,
촉 물 감 회 장

경물景物을 가까이 대하니
감회에 젖어들어,

一坐三嘆息⁹⁾
일 좌 삼 탄 식

홀로 앉아 여러 차례 탄식을 거듭하네.

- 1) ① 병인 이월말(丙寅二月末) : 병인년(丙寅年) 2월 말
a. 병인(丙寅) : 병인년(丙寅年) 곧 1566년, 서애(西厓) 25세 때이다.
- ② 서행(西行) : 서쪽으로 가다
- ③ 과(過) : 도달하다, 경과(經過 : 거쳐 감)하다
- ④ 저복원(貯福院) : 저복역원(貯福驛院) : 황해도(黃海道) 황주군(黃州郡)에 있었던 역원(驛院)의 명칭이다. 고려시대에는 ‘저복지원(貯卜只院)’으로 칭했었다.
*원(院) : 역원(驛院) : 조선시대에 역로(驛路)에 세워 국가가 경영하던 역관의 하나이다. 역제(驛制)와 같이 각 도에 통하는 길 옆에 세우는 것과 인가가 드문 곳에 행려(行旅)의 편의를 위하여 세운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 ⑤ 소혈(小歇) : 잠시 쉬다
- ⑥ 유감(有感) : 느낀 바 있다
- 2) 입고역(入古驛) : 오래된 역원(驛院)에 들어가다.
- 3) ① 풍색(風色) : 바람
- ② 열(烈) : 한랭하다
- 4) ① 여하(如何) : 어떻게(어째서, 왜)일까?
- ② 이월모(二月暮) : 이월 말
- 5) ① 양덕(陽德) : 만물을 생장 발육시키는 기운을 말한다. 『주역(周易) · 건괘 소(乾卦 疏)』에, “94, 양덕陽德이 점점 상해진다(九四, 陽氣漸進).”라는 소(疏)가 보인다. 본 시에서는 양기(陽氣)가 아직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춘광(春光 : 양광陽光)이 미약한 것을 시사한 것이다.
- ② 유(猶) : …와 같다
- ③ 미(未) : 아직 …이 아니다
- ④ 철(徹) : 이르다, 도달하다, 관통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햇살이) 퍼지다’는 뜻으로 쓰였다.
- 6) ① 한매(寒梅) : 매화.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일컬어진 칭호이다.
- ② 상(尙) : ‘상(嘗)’과 통하며, ‘일찍이, 벌써, 이미, 이전에’의 뜻이다.
- ③ 초체(憔悴) : (식물 등이) 시들어지다
- 7) ① 약류(弱柳) : 버들, 버드나무. 버드나무의 가지가 가늘고 길게 늘어진 까닭에 ‘약류(弱柳)’라고 칭해진 것이다.
- ② 선(先) : 미리, 먼저, 일찌감치, 신속히, 재빨리
- ③ 농(弄) : 드러내다, 드러나다, 나타내다, 나타나다, 보이다
- ④ 색(色) : 미세(微色)
- 8) ① 촉물(觸物) : 경물(景物 :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이나 사물을 접촉하다.
- ② 감회(感懷) : 지난 일을 돌이켜볼 때 느껴지는 회포(懷抱)
- ③ 장(長) : ‘많다, 흥성하다, 크다(세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감회가) 깊다, 잠기다, 젖어들다, 빠지다’로 표현된다.
- 9) ① 일좌(一坐) : 홀로 앉아
- ② 삼탄식(三嘆息) : ‘삼탄식(三歎息)’으로도 쓰며, ‘세 번 탄식하다’는 뜻이다. 이 말은 ‘여러 번 탄식하다’는 뜻이며, 개탄(慨嘆)함이 깊은 것을 형용한 말이다.

시16. 공강정^{控江亭}에서 이인언^{李仁彦}을 유별^{留別}하면서

(무진년^{戊辰年}: 1568년, 서애^{西厓}, 27세)

詩16. 控江亭 留別 李仁彦¹⁾ 戊辰

내가 정주^{定州}에서 경성^{京城}으로 돌아오는데 아버님께서 가산군^{嘉山郡} 경계까지 나를 전송해주셨다. 이군^{李君}은 경성^{京城} 사람으로, 가산군에 기거하였는데, 공손하게 아버님의 명을 받고 나를 (대정강^{大定江}: 대령강^{大寧江}) 강변까지 와서 전송해주고 돌아갔다.

余自定州還京²⁾ 父君送至嘉山³⁾ 李君京中⁴⁾人 寓居⁵⁾嘉山 又⁶⁾以父君命
여 자 정 주 환 경 부 군 송 지 가 산 이 군 중 인 우 거 가 산 차 이 부 군 명
送余于江上⁷⁾而去.
송 여 두 강 상 이 거

春江漠漠動蒲芽⁸⁾,
춘 강 막 막 동 포 아

봄날 강물 잔잔하고
넋버들 하늘거리는데,

極目雲山道路賒⁹⁾.
극 목 운 산 도 로 사

아득히 구름 낀 산 바라보니
노정^{路程}이 멀기만 하구나.

日暮孤亭相送罷¹⁰⁾,
일 모 고 정 상 송 파

해질 무렵 외딴 역참^{驛站} 정자에서
서로 송별한 뒤인지라,

撐舟欲去意如何¹¹⁾.
撐 주 욕 거 의 어 하

삿대로 배질하며 떠나려는
내 마음이 어떨겠는고!

1) 공강정유별 이인언(控江亭留別李仁彦: 공강정에서 이인언을 유별하면서):

**역주석: 본 시의 작시연대(作詩年代)가 ‘무진년(戊辰年: 1568년: 서애 27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는 서애 선생의 부친인 입암(立巖) 류중영(柳仲英: 1515~1573)이 정주목사(定州牧使)로 부임한 당시였다. 그럼에도 본 시의 서문(序文)에 서는 서애 자신의 부친을 ‘선군(先君: 선친先親: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편집과정에서 ‘부군(父君: 아버지의 높임말)’을 ‘선군(先君)’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로 『서애연보』의 무진년 2월 조항

에 보면, “휴가를 얻어 정주定州에 가서 관찰공(觀察公 :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했기로 칭한 존칭)을 찾아뵈었다(二月乞假往省定州)”고 한 대목이 있다. 이것은 본 시를 지은 해와 시적내용의 계절에 부합된다. 따라서 역자는 ‘선군(先君)’을 ‘부군(父君)’으로 바로 잡아 번역한다.

- ① 공강정(控江亭) : 평안북도 박천군(博川郡) 관내에 있는 정자 명칭이다. 이 정자의 구체적인 소재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조선 중기의 문신 최현(崔暉 : 1563~1640)의 사신일기(使臣日記) 『조천일록(朝天日錄)』의 무신년(戊申年 : 1608) 8월 18일자 기록을 참조하면 되겠다.
- ② 유별(留別) : 떠나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작별하다. 이 말의 반의어(反義語)는 ‘송별(送別)’로서, 이는 떠나는 사람을 이별하여 보내는 것을 말한다.
- ③ 이인언(李仁彦) : 이력미상
- 2) ① 정주(定州) : 정주목(定州牧) : 조선시대 평안도 정주목(定州牧) 지역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이다. 정주목은 고려시대에 강감찬(姜邯贊 : 948~1031)의 구주대첩(龜州大捷)이 벌어진 곳이며, 지형상 평안도 서해안 지역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도호부(都護府)를 거쳐 정주목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에 의주부(義州府) 정주군이 되었다. 지금의 평안북도 서남부 해안에 위치한 군으로, 동쪽으로는 박천군(博川郡)·태천군(泰川郡), 서쪽으로는 선천군(宣川郡), 남쪽으로는 황해, 북쪽으로는 구성군(龜城郡)과 접하고 있다.
- ② 환경(還京) : 경성(京城 : 도성都城 : 서울)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가다. 본 시에서는 ‘경성으로 돌아오다’는 뜻으로 쓰였다.
- 3) ① 부군(父君) : 가친(家親). 본 시에서는 서애의 부군,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 1515~1573)을 가리킨다.
- ② 송(送) : 전송하다
- ③ 지(至) : …까지 이르다. 본 시에서는 ‘… 장소에 이르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④ 가산(嘉山) : 가산군(嘉山郡).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가산군(嘉山郡)』 조항에, “서쪽으로 정주定州 경계까지 25리이다(西至定州界二十五里).”라고 한 대목이 있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정주에서 동쪽으로 25리를 가면 가산군 경계이다’라는 말이 된다. 곧 서애(西厓) 부친 류중영(柳仲郢)은 아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25리를 간 것이다.
- 4) 경중(京中) : 경성(京城) 관내(管內), 경성지역
- 5) 우거(寓居) : 기거(寄居)하다, 교거(僑居)하다
- 6) 차(叉) : 두 손을 모아 각지를 끼다. (옛날의 경례敬禮이다) ‘공손하게’로 번역한다.
- 7) 강상(江上) : 강변
- 8) ① 막막(漠漠) : 정적(靜寂)이 감돌아 소리가 없는 모양. 본 시에서는 물결이 가라앉아 잠잠한 것을 표현한 말로 쓰였기로 ‘잔잔하다’로 표현한다.
- ② 동(動) : (바람에) 흔들리다, 하늘거리다
- ③ 포아(蒲芽) : ‘냇바들 줄기에 돋은 싹’이란 말이나, 본 시에서는 ‘냇바들의 줄기’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a. 포(蒲) : ‘부들’의 뜻으로 쓰이기도 하나, 본 시에서는 ‘냇바들’의 뜻으로 쓰였다.
 - b. 아(芽) : 새싹, 갓 돋은 잎.
- 9) ① 극목(極目) : 아득히 먼 곳을 보다

- ② 운산(雲山): 구름이 낀 산
- ③ 도로(道路): 노정(路程). 본 시에서는 ‘경성(京城)에 돌아갈 길’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④ 사(賒): (거리가, 길이) 멀다
- 10) ① 일모(日暮): 날이 (해가) 저물다. 해질 무렵, 저녁 무렵
- ② 고정(孤亭): 외딴 역참(驛站: 역마를 바꾸어 타던 곳)의 정자(亭子)
- ③ 상송(相送): 배웅하다, 진송하다, 바라다주다
- ④ 파(罷): 완료하다, 끝나다
- 11) ① 탕(撐): 고(篙): 삿대, 상앗대. 배질을 할 때 쓰는 장대이다. 이 삿대로 강바닥을 짚고 밀어서 배를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또한 배질할 때 자주 쓰이는 것으로 ‘노(櫓)’가 있다. ‘노’는 보통 선미(船尾: 뱃고물)나 선방(船旁: 뱃전)에 앉아 물을 저어서 배를 앞으로 가게 한다. 물속에 들어가는 하단부는 납작하고 상단부인 손잡이 부분은 가늘게 만들어진 원주형(圓柱形)이다. 큰 것을 노(櫓)라 하고 작은 것을 장(槳: 상앗대)이라고 한다.
 - a. 주(舟): 일반적으로 작은 배를 ‘주(舟)’라 하고, 큰 배를 ‘선(船)’이라 한다.
- ② 의여하(意如何): 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시17. 저물녘에 낙동강 동쪽 산봉에 올라 정주定州를 바라보면서

詩17. 洛河東峯暮登望定州¹⁾
낙 하 동 봉 모 등 망 정 주

回首日落處²⁾,
회 수 일 낙 처

고개 돌려 해지는 서쪽을 바라보니,

蒼茫海氣昏³⁾.
창 망 해 기 혼

흐릿흐릿 강상江上에
안개 끼어 침침하네.

望雲千里隔⁴⁾,
망 운 천 리 격

백운을 바라보니 천리나 떨어졌길래,

陟岵到黃昏⁵⁾.
척 호 도 황 혼

청산靑山 산등성에 올라보니
황혼이 깃드네.

1) 낙하동봉 모든 망정주(洛河東峯 暮登 望定州) : 저물녘 낙동강 동쪽 산봉에 올라 정주定州를 바라보며) :

**역지주석: 본 시는 부친 입암(立巖)공이 정주목사(定州牧使)에 임직할 당시로 보인다. 입암 공은 병인년(丙寅年: 1566년, 명종 21년, 입암 52세, 서에 25세) 2월부터 무진년(戊辰年: 1568년, 선조 1년, 입암 54세, 서에 27세) 8월까지 정주목사로 임직하였다.

① 낙하(洛河) : 낙수(洛水) : 낙동강

② 동봉(東峯) : 동쪽 산봉(山峯: 산봉우리). 본 시에서는 ‘하회마을의 동쪽 산봉’이란 의미이며, ‘화산(花山)의 산봉’을 가리킨다. 화산은 하회마을의 동쪽에 위치한다.

③ 정주(定州) : 평안도 정주목(定州牧), 지금의 평안북도 정주군(定州郡)을 가리킨다. (자세한 것은 앞의 「시16」에 주석) 2의 ① 정주(定州) 조항을 참조 바람)

****역지주석**: 서애(西厓)의 부친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1515~1573)은 병인년(丙寅年) 1566년에 정주목사(定州牧使)로 부임했다.

2) ① 회수(回首): 회두(回頭): 고개(머리)를 돌리다. 되돌아 보다.

② 일낙처(日落處): 해가 지는 곳(서쪽)

****역지주석**: 본 시구의 “일낙처(一落處)”는 서쪽에 위치한 정주(定州)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3) ① 창망(蒼茫): 모호하여 분명하지 않는 모양, 본 시에서는 ‘흐릿하다’로 번역한다.

a. 창(蒼): 어슴푸레하다

b. 망(茫): 모호하여 분명하지 않다, 어두워서 분명하게 보이지 않다

② 해기(海氣): 해상이나 강상(江上)의 무기(霧氣: 안개). 본 시에서는 ‘강상(江上)의 안개’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혼(昏): 어둑어둑하다, 침침하다, 어두컴컴하다

4) ① 망운(望雲): ‘백운(白雲)을 앙망(仰望: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봄: 양시仰視)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은 말하는 사람의 소감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의 상이한 뜻으로 쓰인다.

첫째,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부모를 그리워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부모를 그리워하는 뜻으로 쓰였다. 둘째, 군왕을 앙모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② 천리격(千里隔):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다.

5) ① 척호(陟岵):

a. 척(陟):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다. ‘강(降: 내려감)’과 상반되는 뜻이다.

b. 호(岵): 초목이 많은 산등성, 청산강(靑山崗)

○ 『시경(詩經)·위풍(魏風)·척호(陟岵: 청산靑山 산등성에 올라서)』에, “그 청산靑山 산등성에 올라(陟彼岵兮), 아득히 먼 곳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봤네(瞻望*父兮).”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이 글귀로 인해서 후세 사람들은 ‘척호(陟岵)’란 말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전고(典故: 전례典例와 고사故事)’로 삼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전(轉)하여 ‘부친의 별세(別世: 세상을 떠남)’를 가리키는 뜻으로 쓴다.

② 도황혼(到黃昏): 황혼이 깃들다(드러우다)



시18. 실록교정청^{實錄校正廳}에 선온^{宣醕}하는 날이라 동료에게 부친 시 두 수

詩18. 實錄校正廳 宣醕日¹⁾ 寄同僚 二首
실록교정청 선온일 기동료 이수

其一
기 일

[1]

古文今說諧難合²⁾,
고문금설해난합

고문경학古文經學과 금문경학今文經學의
논설 일치하기 어렵고,

瓦缶黃鍾辨未詳³⁾.
와부황종변미상

와부瓦缶와 황종黃鍾의 악률은
구별이 분명찮지요.

濫把丹鉛研灝噩⁴⁾,
남과단연연호악

부실한 곳 교정校正하며
광범하게 검토하려면,

難將螢燭助輝光⁵⁾.
난장형작조휘광

반딧불로 광채
돋구려는 것처럼 어렵겠지요.

青藜禁直年華晚⁶⁾,
청려금직년화만

지팡이 짚고 당직 서기에는
연세가 늙지만,

白首恩霑御醕香⁷⁾.
백수은젖어온향

백발 되어 왕은王恩 받으니
어사주御賜酒가 향기롭겠소.

昭代右文多盛事⁸⁾,
조 대 우 문 다 성 사

당조當朝의 문치승상文治崇尚은
좋은 일 많을지니,

儒風從此倘恢張⁹⁾。
유 풍 종 차 당 회 장

유가儒家 기풍 이제부터
활달豁達하게 발전하겠지요.

其二
기 이

[2]

經說編成歲載陽¹⁰⁾,
경 설 편 성 세 재 양

유가儒家 경설經說의 편성은
매년 시월에 완성돼야 하니,

蘭臺今始解看詳¹¹⁾。
난 대 금 시 해 간 상

실록청實錄廳에서는 지금부터
심사한 것을 주석注釋 해야겠지요.

得心舊識難傳斲¹²⁾,
득 심 구 식 난 전 착

지인知人 작품의 일부구절
맘대로 교정하기 곤란하나,

喻日空慙却混光¹³⁾。
유 일 공 참 각 혼 광

(그걸) 선도先導할 때 부끄럼 없다면
오히려 다 같이 영예로우시다.

恩出九天饒雨露¹⁴⁾,
은 출 구 천 요 우 로

하늘에서 은택 베풀면 풍족하게
비 내리는데,

禮宣三爵醉薰香¹⁵⁾。
예 선 삼 작 취 훈 향

(궁전) 대청에서 예우하는
식 잔 술 훈향에 도취됐겠소.

周南自昔傷留滯¹⁶⁾,
주 남 자 석 상 유 체

이전부터 거듭 남방에서
체류함에 상심하지만,

臥病空聞勝會張¹⁷⁾。
와 병 공 문 승 회 장

(나의) 와병은 헛소문이니
성회盛會 개최 바라겠소.

1) 실록교정청 선온일(實錄校正廳 宣醞日 : 실록교정청에 선온하는 날이라) :

① 실록교정청(實錄校正廳) : 조선시대 실록을 편찬할 때 오류를 교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임시관청의 명칭이다. 이 관청은 ‘실록청(實錄廳 : 실록찬수청實錄纂修廳의 약칭으로, 실록편찬을 위해 설치된 임시관청)’이 설치된 뒤 그 실록을 교정·보완하는 단계의 임시관청을 이르는 말이다.

② 선온일(宣醞日) : 선온하는 날

a. 선온(宣醞) : 임금이 신하에게 궁중의 사온서(司醞署)에서 빚은 술을 사송(賜送)하던 일. 또는 그 술을 이르는 말이다.

㉠ 선(宣) : 은덕을 베푸다

㉡ 온(醞) : 술

b. 선온일(宣醞日) : 상황에 따라 선온(宣醞)했으므로 정해진 날짜는 없었다.

2) ① 고문(古文) : 본 시에서는 ‘고문경학(古文經學)’의 약칭으로 쓰였다.

☆고문경학(古文經學) : 한(漢)나라 경학(經學 :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연구하는 학문)의 일파(一派)이다. 고문경학은 경학 중에서도 고문경(古文經)을 연구하는 하나의 학파이다. 서한(西漢) 조정에서는 금문경서(今文經書 : 진·한泰漢 시대에 통행하던 예서隸書로 기재된 경서)를 중시하여 학관(學官 : 학무學務를 주관하는 관원과 관학교사官學敎師)을 설치하고 학문을 전수하였으나, 공자(孔子)가 살던 집의 벽에서 나온 서적과 민간에서 발견된 고문경서(古文經書)가 장기간 민간에서 전수되었다. 왕망(王莽 : BC 45 ~ AD 23)이 복고사상(復古思想)을 품고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주관(周官 : 주나라의 관례官禮)를 기록한 책』을 중시하면서 마침내 학관(學官)이 설립되었으나, 동한(東漢) 초에 취소되었다. 한장제(漢章帝 : 57 ~ 88 : 후한의 3대 황제. 성명은 유담(劉坦) 시에, 학자인 가규(賈逵 : 30 ~ 101 : 자는 경백景伯임)가 고문경(古文經)을 연구하면서, 고문경서(古文經書) 또한 유행하였고 고문경학(古文經學)에 대한 지위도 높아졌다. 그 후 역시 후한의 학자 마융(馬融 : 79 ~ 166 : 자는 계장季長임)과 복건(服虔 : 생몰년 미상. 자는 자신子慎임) 그리고 정현(鄭玄 : 127 ~ 200. 자는 강성康成임) 등이 경의(經義)를 강해(講解) 함으로써 훈고(訓詁) 문학 방면의 성취가 아주 컸으며, 고문경학이 흥성하여, 위(魏) · 진(晉) · 육조(六朝) · 수(隋) · 당(唐)이 경학을 연구하는 주류가 되었다. 현존하는 『13경(十三經 : 역경易經 · 서경書經 · 시경詩經 · 주례周禮 · 의례儀禮 · 예기禮記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 공양전公羊傳 · 곡량전穀梁傳 · 논어論語 · 맹자孟子 · 효경孝經 · 이아爾雅)』도 고대경학의 논조를 많이 채용하여 저술하면서, 참위(讖緯 : 도참圖讖과 위서緯書 : 점술의 책)의 논리를 반대하였으며, 미신迷信의 성분이 적었다. 청대(清代)의 학자들도 고문경학의 훈고(訓詁) 방법을 계승한데다가 더욱 조리 있는 설명을 하였기로, 고적(古籍) 정리와 언어문자 연구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고문경(古文經) : 전서체(篆書體)로 쓰여진 고대 유가경전(儒家經典)을 가리킨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고문경학’의 내용을 참조 바란다. ‘금문경(今文經)’과 상반되는 말이다.

*고문(古文) : 춘추전국시대에 쓰였던 전문(篆文)을 가리킨다.

② 금설(今說) : 본 시에서는 ‘금문경학(今文經學)’의 논설(論說)’의 약칭의 뜻으로

쓰였다.

☆ **금문경학(今文經學)**: 경학중에 금문경학을 연구하는 학파이다. ‘금문경(今文經)’은 서한시대(西漢時代) 학자들이 당시에 통행하던 예서(隸書)로 전수(傳授)한 유가경전이다. 전한의 유학자 동중서(董仲舒: BC 179~BC 104)가 금문경학의 창시인이다.

* **금문경(今文經)**: 진한시대(秦漢時代)에 통행하던 예서(隸書)로 기재한 경서(經書)이다. 예를 들면, 서한시대(西漢時代) 노(魯)나라의 학자 신공(申公: 신배申培: 신배공申培公: 생몰년 미상)과 서한시대 제(齊)나라의 학자 원고(轅固: 원고생轅固生: 생몰년 미상) 및 연(燕)나라의 학자 한생(韓生: 한영韓嬰: 생몰년 미상) 등 3개 학파가 전수한 『시경(詩經)』이 있다. 또한 전한(前漢)의 학자 공양(公羊: 공양수公羊壽: 생몰년 미상)이 전수한 『춘추(春秋: 공양전公羊傳)』와 곡양(穀梁: 곡양적穀梁赤: 생몰년 미상)이 전한 『춘추(春秋: 곡양전穀梁傳)』 등이 있다.

③ **해난합(諧難合)**: 대조하면 일치하기 어렵다.

3) ① **외부황중(瓦缶黃鍾)**: 황중외부(黃鍾瓦缶): 황중외부(黃鍾瓦釜): 외부(瓦缶)와 황중(黃鍾) 악률: 예술성이 비교적 높은 문예 작품과 비교적 수준이 낮은 문예작품을 비유한 말이다.

a. **외부(瓦缶)**: 고대에 찰흙으로 빚어 만든 타악기(질장군: 질것, 즉 찰흙으로 구워 만든 장군將軍)

㉠ **와(瓦)**: 도제기물(陶製器物)의 총칭

㉡ **부(缶)**: 질장군: 진(秦)나라 사람들은 이 장군을 장구 치듯이 쳐서 노래의 장단을 맞추는데 악기로 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황중(黃鍾)**: 황중(黃鍾): 악률(樂律: 음을 음률의 높낮이에 따라 이론적으로 정돈한 체계)로 이는 십이율(十二律) 중의 제일률(第一律)이다. 고대 사람들은 간지력(干地曆)에 맞춰 율려(律呂)를 12음(音)으로 제정했다. 24절기의 계절의 변화를 12등분하여 각각의 절후에 상응하도록 배합하여 소리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였으니 아래와 같다.

* **십이율(十二律)**: 동양음악에서 열두 음의 이름으로 율률과 율려가 있다.

○ **육율(六律)**: 십이율 가운데 양성(陽聲: 양陽의 기운이 차 있는 소리)에 속하는 여섯 가지 소리로 황중(黃鍾) · 태주(太簇) · 고선(姑洗) · 유빈(蕤賓) · 이칙(夷則) · 무역(無射)을 이른다.

○ **육려(六呂)**: 십이율 가운데 음성(陰聲: 음기陰氣의 기운이 차 있는 소리)에 속하는 여섯 가지 소리로 대려(大呂) · 협중(夾鍾) · 중려(中呂) · 임종(林鍾) · 남려(南呂) · 응중(應鍾)을 이른다.

② **변미상(辨未詳)**: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4) ① **남파단연(濫把丹鉛)**: 부실한 곳을 집어내어 교정(校正)하다.

a. **남(濫)**: 허망부실(虛妄不實)하다, 내용이 없다

b. **파(把)**: 결점을 집어내다

c. **단연(丹鉛)**: 교정(校正)을 하다. 교정을 하는 일

○ 서적을 교정하면서 결점을 지적할 때나 지시할 때 쓰는 주사(朱砂: 단사丹砂: 진사辰砂: 적색 채료彩料의 원료로 수은水銀과 유황硫黃의 화합물임)와 연분(鉛

粉 : 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백색 안료(顔料)인데, 나중에는 전(轉)하여, 교정(校正)을 하는 일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본 시에서도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연호악(研灝噩) : 끝없이 광범하고 엄숙한 내용을 검토하다
- a. 연(研) : 논의(검토)하다
 - b. 호악(灝噩) : (고문古文의 뜻은) 광범하고도 엄숙하다.
 - ㉔ 호(灝) : 끝없이 넓다
 - ㉕ 악(噩) : 엄숙하다
- 5) ① 난장형작(難將螢燭) : ‘반딧불로는 어렵다’는 말로서, ‘능력이 부족하면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 a. 난(難) : 어렵다, 위난(危難)하다
 - b. 장(將) : 개사(介詞) ‘이(以)’의 기능인 ‘…로써’의 뜻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후치사(後置詞)로 쓰였다.
 - c. 형작(螢燭) : 반딧불. ‘미약한 빛’을 이르는 말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겸사(謙詞)’로도 자주 쓰는 말이다.
 - ㉔ 형(螢) : 형화(螢火 : 형광螢光 : 반딧불)
 - ㉕ 작(燭) : 촉광(燭光 : 촛불)
- ② 조휘광(助輝光) : 광채를 보태다
- 6) ① 청려(靑藜) :

☆여장(藜杖 : 명아주 줄기로 만든 지팡이)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삼보황도(三輔黃圖)·각(閣)』편에, “유향(劉向 : BC 77?~BC 6 : 전한 말기의 학자로, 본명은 갱생更生이고 자는 자정子政임)이 한성제(漢成帝 : BC 52~BC 7 : 성명은 유오劉鰹, 전한의 제11대 황제임) 말년에(劉向於成帝之末), 천록각(天祿閣 :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미양향未央鄉 소유채촌小劉寨村에 위치한 서한 왕조의 장서각藏書閣임)에서 서적을 교감校勘하면서(校書天祿閣), 전심전력으로 몰두하고 있는 중이었다(專精覃思). 어느 날 밤에 어떤 노인이(夜有老人), 황색 옷을 입고, 청려靑藜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면서(著黃衣, 植靑藜杖), 장서각 쪽에서 머리를 조아리고는 안으로 들어왔다(叩閣而進). <그는> 유향을 보고 어둠속에 홀로 앉아 어떤 서적을 암송하다가(見向暗中獨坐誦書), 노인은 마침내 지팡이 끝을 입으로 붙여서(老父乃吹杖端), 불을 붙였고(煙然), 그래서 유향이 보이자(因以見向), 『오행홍범(五行洪範)』의 문장을 전수해 주었다(授『五行洪範』之文). 그 글의 내용은 놀랍고 뜻이 번잡한데다 <다 기억하지 못하고> 많이 잊어버리는지라(恐詞說繁廣忘之), 마침내 도포 자락과 허리에 들렀던 큰 띠를 찢어 그 노인의 말을 기록했다(乃裂裳及紳以記其言). 새벽이 되어 서야 그 노인이 떠나는데(至曙而去), 삼가 성명을 물으니(請問姓名), 말하기를(曰) : ‘나는 태을궁(太乙宮 : 태일궁太一宮 : 천궁天宮의 명칭)의 정령精靈인데(我是太乙之精), 천제께서 유씨劉氏의 아들 중에 박학한 자가 있다고 들으신지라(天帝聞卯金之子有博學者), 하계下界하여 자네를 만나왔다(下而觀焉).’고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이 ‘청려(靑藜)’란 말을 ‘청려등(靑藜燈)’이란 말로 표현하여, ‘밤에 독서하는데 불을 밝히는 등불’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또한 ‘청려학사(靑藜學士)’란 말을 써서 ‘박학지사(博學之士 : 박학한 선

- 비)’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기도 했다.
- ② 금직(禁直): 궁정내의 관서(官署)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當直: 숙직宿直), 당직인(當直人: 숙직인宿直人)을 가리키기도 한다.
- a. 금(禁): 궁전(宮殿)
- b. 직(直): 당직(當直), 당직을 서다(하다)
- ③ 연화만(年華晩): 연세가 높다
- 7) ① 백수(白首): 백발
- ② 은점(恩霑): 제왕의 은혜를 입다(받다), 왕은(王恩)이 풍성하다
- a. 점(霑): 젖다, 적시다. 전(轉)하여 ‘은혜를 입다, 은혜를 베풀다’는 뜻으로 쓴다.
- ③ 어운향(御醞香): 어사주(御賜酒)가 향기롭다
- 8) ① 조대(昭代): 정치가 청명한 시대, 밝게 다스리는 시대. 이 말은 본 왕조나 당시에 재위(在位)하고 있는 제왕의 시대를 칭송할 때 상용하는 말이다. 즉 당조(當朝: 지금의 조정)나 당대(當代)의 미칭(美稱)이다.
- ② 우문(右文): 문치(文治)를 숭상하다
- a. 우(右): 숭상하다, 존숭(尊崇)하다
- b. 문(文): 문치(文治)
- ③ 다성사(多盛事): 좋은 일이 많다.
- 9) 당회장(尙恢張): 활발하게 발전되다
- a. 당(尙): ‘당(儻: 기개가 있음. 활발함)’과 동자(同字)이다.
- b. 회장(恢張): (확장) 발전하다
- 10) ① 경설(經說): 유가 경전의 학설 혹은 해설
- ② 세재양(歲載陽): 매년 시월에 완성돼야 한다.
- a. 세(歲): 해. 년. 본 시에서는 ‘매년, 해마다’의 뜻으로 쓰였다.
- b. 재(載): 완성하다, 갈무리하다. 본 시에서는 ‘완성되어야 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c. 양(陽): 음력 10월의 별칭이다.
- 11) ① 난대(蘭臺): 당대(唐代)의 비서성(秘書省: 국사國史의 수찬修撰과 관리를 관장하던 관서였음)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나, ‘조선시대의 실록교정청(實錄校正廳)’을 대칭(代稱)하는 말로 쓰였다.
- ② 금시(今始): 이제 시작하다
- ③ 해간상(解看詳): 심사하고 연구한 것을 주석(注釋)하다.
- a. 해(解): 해석하다, 주석(注釋)하다, 주해(註解)하다
- b. 간상(看詳): 심사하며 읽고 연구하다. 심사·열독(審査閱讀)하면서 연구하다.
- 12) ① 득심(得心): 마음먹은 대로 하다, 뜻을 이루다, 마음에 들다
- ② 구식(舊識): 구면(舊面), 구지(舊知: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아는 사이, 지인(知人). 본 시에서는 ‘지인(知人) 작품의 일부구절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난전작(難傳斲): 교정(校正)을 기록하기가 곤란하다.
- a. 난(難): 어렵다, 곤란하다. (…하기가) 괴롭다
- b. 전(傳): 기록하다, 기재하다
- c. 착(斲): 본 시에서는 ‘삭제하다. 제거하다.’는 뜻으로 쓰였으며, 전(轉)하여, ‘교정(校正)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13) ① 유일공참(喻日空慙): (…을) 고지(告知)할 때 부끄러움이 없다면

- a. 유(喻) : 고지(告知)하다, 설명하다, 이야기하다, 선도(先導)하다, 이끌다, 훈시하다. 본 시에서는 ‘선도(先導)’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b. 일(日) : 때, 시기
- c. 공(空) : 공허하다, (텅)비다, 없다
- d. 참(慙) :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럽게 생각하다
- ② 각혼광(却混光) : 오히려 다 같이 영예롭다.
- 14) ① 은출구천(恩出九天) : 하늘에서 은택을 베풀다.
- a. 은(恩) : 은택(恩澤 : 은혜와 덕택)
- b. 출(出) : 나오다, 내놓다. 본 시에서는 ‘베풀다’는 뜻으로 쓰였다.
- c. 구천(九天) : 하늘의 중앙과 팔방(八方 : 사방四方과 사우四隅의 여덟 방위)을 이르는 말인데 ‘하늘’로 번역한다.
- ② 요우로(饒雨露) : 비가 풍족하게 내리다.
- a. 요(饒) : 풍족(풍부)하다
- b. 우로(雨露) : 비와 이슬, 우수(雨水)를 가리키기도 한다.
- 15) ① 예선삼작(禮宣三爵) : 궁전대청에서 술 석 잔을 예우하다.
- a. 례(禮) : 예우하다, 후대하다
- b. 선(宣) : 제왕이 거주하는 정실(正室 : 집의 몸체), 대청
- c. 삼작(三爵) : 석 잔의 술
- ④ 작(爵) : 고대에 술을 담아 두는 술잔으로 예기(禮器)이며, 그 모양은 작형(雀形 : 술잔 윗부분이 참새 부리모양을 한 것임)이고, 옥제(玉製)도 있었고 청동제(靑銅製)도 있다. 역시 고대 술잔인 준이(尊彝) 보다는 작았고, 세 발이 달렸으며 용량은 1승(一升 : 1되)이다. 후세에 와서는 그 크기가 작아졌고 주로 ‘술잔’의 뜻으로 자주 썼다.
- ② 취훈향(醉薰香) : 훈향에 도취되다.
- 16) ① 주남(周南) : 반복해서 남쪽(남방)으로 가다. 본 시에서는 ‘반복해서 남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 ‘주남(周南)’이란 말을, ‘모 지역에 체류하면서 조금도 공헌하지 못한 전고(典故)’의 뜻으로 쓰기도 했다.
- a. 주(周) : 반복하다, 순환하다
- b. 남(南) : 남방(南方), 남방으로 가다
- ② 자석(自昔) : 옛날부터, 이전부터
- ③ 상유체(傷留滯) : 체류하는 것이 슬프다
- a. 상(傷) : 근심하다, 슬퍼하다, 애처롭다
- b. 유체(留滯) : 유대(留蹕)로도 쓴다. 정류(停留)하다, 머물다, (외지에서) 기거하다
- 17) ① 공문(空聞) : 헛소문
- ② 승회장(勝會張) : 성회(盛會)를 개최하다
- a. 승회(勝會) : ‘성회(盛會)’와 같은 말이다.
- b. 장(張) : (연회를) 베풀다, 전개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개최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시19. 호수_{湖叟} 박태수_{朴台壽} 공공의 회갑연
연석에서 그 분의 시운_{詩韻}을
보운_{步韻}하여

詩19. 朴湖叟台壽 晬筵步其韻¹⁾
박 호 수 태 수 수 연 보 기 운



蔡公以後此開筵²⁾,
채 공 이 후 차 개 연

채공蔡公 이후에 이 같은
회갑연을 개최하니,

賀客爭稱地上僊³⁾.
하 객 쟁 칭 지 상 선

하객들은 앞 다튀
(박공을) 이 세상 신선이라 칭하네.

嘉祥筍束如期到⁴⁾,
가 상 순 속 여 기 도

길조가 즉순 수확하듯 때맞춰 도래하니,

毓慶名門積累然⁵⁾.
육 경 명 문 적 누 연

명문에서 경사 겹침이 이와 같으네.

- 1) ① 박호수 태수(朴湖叟 台壽) : 호수(湖叟) 박태수(朴台壽) : 인물 미상
② 수연(晬宴) : 회갑연(回甲宴)의 연석(宴席)
a. 수(晬) : ‘생일’이란 뜻이나 본 시에서는 회갑(回甲)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연(筵) : 연석(宴席). 주연(酒宴)
③ 보기운(步其韻)
a. 보운(步韻) : ‘차운(次韻)’이라고도 하며, 타인이 지은 시의 운각(韻脚 : 시부詩賦 따위에서 글귀 끝부분에 다는 운자韻字, 즉 짝수구의 마지막 자가 운자임)의 원자(原字 : 본디의 글자)를 쓰는 동시에 그 순차에 따라 시를 지어 화답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 ‘차운’ 조항을 참조

바람.

b. 기(其) : 대명사로 '3인칭의 종속관계를 나타내는데, 본 시에서는 '그'의 뜻으로 쓰였으며, '그는 '박태수(朴台壽)'를 가리킨다.

- 2) ① 채공(蔡公) :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다.
② 차(此) : 이와 같다. 이렇하다
③ 개연(開筵) : 주연(酒宴)을 베풀다
- 3) ① 쟁칭(爭稱) : 앞 다튀 칭하다(말하다, 일컫다)
② 지상선(地上仙) : 이 세상의 신선
a. 선(僊) : 신선
- 4) ① 가상(嘉祥) : '상서(祥瑞 : 길조吉兆)'와 같은 말이다.
② 순(筍) : 죽순(竹筍)
③ 속(束) : 수렴(收斂)하다, 수확하다
④ 여기(如期) : 약정(約定)한 기한에 맞추어 (따라서), 기한이 되다
⑤ 도(到) : 래도(來到)하다, 도래(到來)하다, 오다
- 5) ① 육경(毓慶) : 경사가 나다
a. 육(毓) : 잉육(孕育 : 낳아 기를)하다, 낳다, 생기다, 발생하다, 나타나다. 본 시에서는 '나다(발생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b. 경(慶) : 경사(慶事)
② 적누(積累) : 쌓이다, 누적하다, 축적되다. 전(轉)하여, '겹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연(然) : 이와 같다, 그와 같다

시20. 퇴계 이황 선생을 애도하면서

신미년(辛未年: 1571년: 서애 30세)에 두 수를 읊다

詩20. 退溪先生挽 二首 辛未¹⁾

퇴 계 선 생 만 이 수 신 미



其一 기 일

[1]

抱道幽居不計年²⁾,
포 도 유 거 불 계 년

도심道心 품고 은거하신 세월
셀 수 없이 길어선가,

洛江雲物攄悠然³⁾.
낙 강 운 물 총 유 연

낙동강 강변 풍경 언제나 한적閑適 하네.

煙霞逸想中投紱⁴⁾,
연 하 일 상 중 투 불

홍진정계紅塵政界 털고 은둔하려
증년에 관인官印 포기하셨지만,

廊廟深憂晚奏篇⁵⁾.
낭 묘 심 우 만 주 편

국사國事に 걱정 깊어 만년에도
주상主上께 상소문 올리셨네.

千古淵源真有屬⁶⁾,
천 고 연 원 진 유 속

천고千古에 사승師承된
유도儒道를 찬술한 저서 많았으니,

一般風月自無邊⁷⁾.
일 반 풍 월 자 무 변

일반적인 시문詩文이야
당연히 무수했었네.

如何遽作山頽夢⁸⁾,
여 하 거 작 산 퇴 몽

(그런데) 어찌 창졸간에
산이 무너지는 꿈을 꾸게 되고,

忍使瑤琴又絕絃⁹⁾。
인 사 요 금 우 절 현

(하늘은) 모질게 거문고 현絃마저
끊어지게 하시고!

其二
가 이

[2]

聖門墜緒竟誰傳¹⁰⁾,
성 문 추 서 경 수 전

성문聖門의 도맥道脈이 끊어졌으니
도체 누가 전수傳授할 것인가!

天上文星怪氣纏¹¹⁾。
천 상 문 성 괴 기 전

하늘의 문성文星에
괴이한 기운이 서렸네!

千里夢魂今寂寞¹²⁾,
천 리 몽 혼 금 적 막

천리를 오가던
(내) 몽혼이 이제 적막해졌으니,

一生函丈更無緣¹³⁾。
일 생 함 장 경 무 연

평생 모시던 스승인데
(하늘이) 무연無緣으로 바뀌셨네.

空將濟世憂民意¹⁴⁾,
공 장 제 세 우 민 의

틈만 나면 구세救世하며
백성의 뜻 걱정하셨는데,

遽值崩山拔木年¹⁵⁾。
거 치 붕 산 발 목 년

창졸간에 산 무너지고 수목 뽑힌
변고의 해를 맞게 됐네.

庭草春來還自綠¹⁶⁾,
정 초 춘 래 환 자 록

뜨락의 풀은 봄이 오면
다시 푸르러지겠지만,

不堪殘日照新阡¹⁷⁾。
불 감 잔 일 조 신 천

석양이 새로 쏜 묘소를 비추고 있으니
전더기 힘드네.

1) 퇴계선생만(退溪先生挽: 퇴계 이황선생을 애도하면서) …… 신미(辛未: 신미년辛未年: 1571년, 선조 4, 서애 30세):

① 퇴계선생만(退溪先生挽: 퇴계 선생을 애도하면서):

a. 퇴계선생(退溪先生):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

② 퇴계(退溪):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李滉)의 호(號)

*이황(李滉: 1501~1570): 조선시대의 유학자로서 자는 경호(景浩)이며 호는 도옹(陶翁)·퇴계(退溪)이다. 벼슬은 예조판서, 양관대제학(兩館大提學) 등을 역임했다.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정호(程顥: 1032~1085)·정이(程頤: 1033~1107) 형제와 주희(朱熹: 1130~1200)의 성리학 체계를 집대성하여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을 주장하였다. 작품에는 시조(時調)·「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과 저서에 『퇴계전서(退溪全書)』 등이 있다.

b. 만(挽): 애도하다

② 신미(辛未: 신미년辛未年: 1571년 선조 4, 서애 30세): 「서애연보(西厓年譜)」의 신미년(辛未年) 조항을 보면, “3월에, 예안禮安에 가서 퇴계선생 장례식에 참석하였다(三月, 會葬退溪先生于禮安).”고 하였다.

2) ① 포도(抱道): 유도(儒道: 유학의 도)를 고수(固守)하다.

a. 포(抱): 안다, 포옹하다, 견지하다, 고수(固守)하다

b. 도(道): 본 시에서는 도가(道家)의 무위자연의 ‘도(道)’가 아닌, 유가의 ‘성즉리(性即理)’의 도(道), 곧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도를 의미한다. 송대(宋代)의 신유학(新儒學)시대에 이르러서는, 만유를 생성하고 운행하는 ‘이(理)’를 사람의 본성[性]과 동일시하는 쪽으로 전화(轉化)시켰다. 일찍이 『주역(周易)』의 ‘단전(彖傳)’ 역시 모두 의리의 하늘[義理之天]이라는 철학으로 『주역』을 해석하였다. 본 시에서 ‘포도(抱道)’는 바로 이러한 도맥(道脈)을 지닌 ‘천인합일’의 ‘도’를 의미한다.

② 유거(幽居): 은거하여 벼슬길에 나가지 않다.

③ 불계년(不計年): 햇수를 셀 수 없다. 세월이 오래됐음을 형용한 말이다.

3) ① 낙강(洛江): 낙동강

② 운물(雲物): 경물(景物: 경치), 풍경, 경색(景色: 경치)

③ 총유연(攄悠然): 언제나 유연(悠然)하다, 언제나 한적(閑適)하다

a. 총(攄): 총(總)과 동자(同字)이며, ‘늘, 언제나, 줄곧, 내내’의 뜻이다.

b. 유연(悠然): 한적(閑適: 한가하고 매인 데가 없이 마음에 맞음)한 모양

4) ① 연하(煙霞): 연하(煙霞)로도 쓴다. 홍진속세(紅塵俗世: 번잡하고 속된 인간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어지러운 정계(政界)’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일상(逸想):

☆세상에서 출세하려는 것을 초탈한 사상, 은둔할 생각

☆속세에 물들지 않은 고매한 사상

a. 일(逸): 은둔하다, 은거하다

③ 중투불(中投絃): 중년에 관인(官印)을 포기하다, 중년에 관직에서 물러나다

****역주주석**: 퇴계 선생은 1543년(퇴계 43세) 이후, 이때까지 관직을 사퇴하였거나 임관에 응하지 않은 일이 20여회에 이른다. 1545년 을사사화(乙巳士禍)이후 다시 사직하고 환향(還鄕)하여 학문에 몰두하였다.

- a. 중(中): 중년(中年)
- b. 투불(投紱): 인수(印綬: 관인官印의 끈)에 맨 끈)를 포기하다. 관인(官印)을 포기하다.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④ 투(投): 내던지다, 포기하다
 - ⑤ 불(紱): 인수(印綬), 관인(官印) 끈지에 맨 끈, ‘관인(官印)’을 대칭(代稱)하는 말로도 쓰는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5) ① 낭묘(廊廟): 낭묘(廊廟): ‘궁전(宮殿)과 태묘(太廟)’의 뜻으로 ‘조정(朝廷)’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국사(國事)’로 번역하였다.
 - a. 랑(廊): 대청(大廳) 주위의 집, 겹채
 - b. 묘(廟): ‘묘(廟)’의 약자로서, ‘태묘(太廟: 태조의 종묘)’란 뜻이다.
- ② 심우(深憂): 몹시 걱정하다(근심하다). 깊은 근심, 심중(深重)한 우수(憂愁)
- ③ 만주편(晩奏篇): 만년(晩年)에 제왕께 저작물(著作物)을 올린다.
 - a. 편(篇): 시가(詩歌)나 사부(辭賦) 등 문예저작을 이르는 말인데, 본 시에서는 퇴계가 68세의 노령에 연소(年少)한 국왕 선조(宣祖: 당시 17세)에게 올린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를 비롯하여 심혈을 기울여 저작한 「성학십도(聖學十圖)」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6) ① 연원(淵源): 학문상 또는 기예상의 사승(師承: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이어받음)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유도(儒道: 유학의 도道)의 사승(師承)’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진유축(眞有屬): 유도(儒道)를 찬술한 것이(저서著書가) 참으로 많다.
 - a. 축(屬): 찬술(撰述)하다, 저술하다. 본 시에서는 ‘찬술한 것’, 곧 저서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7) ① 풍월(風月):
 - ☆시문(詩文)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청풍명월(淸風明月)을 가리키는 말로, 본 시에서는 퇴계선생의 학생을 향한 교화(教化)를 ‘바람의 맑음이나 명월의 밝음’이 천지만물에 끼치는 영향력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② 자무변(自無邊): 당연히 무수하다. 진실로 끝이 없다.
 - a. 자(自): 당연히
 - b. 무변(無邊): 무수하다, 끝이 없다
- 8) ① 여하(如何): 어찌하여, 왜, 어째서
- ② 거(遽): 창졸간에, 총망중에
- ③ 작(作): 발생하다, 본 시에서는 ‘(꿈을) 꾸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④ 산퇴몽(山頽夢): 산이 무너지는 꿈(퇴계선생이 타계하신 꿈을 비유한 말)
- 9) ① 인(忍): 잔인하다, 모질게 …하다
- ② 사(使): …로 하여금 …하게 하다
- ③ 요금(瑤琴): ‘요금(瑤琴)’으로도 쓰며, ‘옥장식을 한 거문고’의 뜻이다.
 - a. 요(瑤): 옥과 같은 미석(美石: 아름다운 돌), 일반적으로 미옥(美玉: 빛이 곱고

모양이 아름다운 옥)을 가리킨다.

b. 금(琴): 거문고

④ 절현(絕絃): ‘절현(絕弦)’으로도 쓰며, ‘거문고 현(弦)이 끊어지다’는 뜻이다.

10) ① 성문(聖門): 성인(聖人)의 도(道)에 들어가는 문

② 추서(隆緒): 도맥(道脈)이 끊어지다

a. 추(隆): 분실하다, 상실하다, 파괴되다, 퇴폐하다, 잃다, 끊어지다

b. 서(緒): ‘업(業)’의 뜻으로, ‘조종(祖宗)으로부터 전해지는 사업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나, 본 시에서는 ‘공도(孔道)’를 전하는 사업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도맥(道脈)’으로 번역하였다.

③ 경수전(竟誰傳): 도체 누가 전수(傳授)하겠는가?

11) ① 문성(文星): 별 이름으로 ‘문창성(文昌星: 북두칠성의 여섯 번째 별인 개양開陽을 달리 이르는 말로서, 학문을 맡아 다스린다고 함)’이며, 문곡성(文曲星: 문성文星으로도 불리며 문운文運을 주관하는 별이라고 전해짐. 중요 문관文官이나 문재文才가 탁월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함)은 문재(文才: 학문의 탁월한 재능이나 글 또는 글씨를 잘 쓰는 재능)를 주관하는 별이라고 하며, 후세에는 ‘문재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기도 하였다.

② 괴기전(怪氣纏): 괴이한 기운이 서리다(엷혀있다).

a. 괴기(怪氣): 괴이한 운기(運氣: 운명, 운세, 운수), 괴이한 기운

b. 전(纏): 감다, 싸매다, 엮다(엷혀다)

12) 천리몽혼 금적막(千里夢魂今寂寞: 천리를 오가던 <내> 몽혼이 이제 적막해졌으니):

**역자주석: 본 시구는 퇴계의 별세로 이제 다시는 서에 자신의 몽혼이 찾아갈 곳을 잃었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① 천리(千里): 길이 멀거나 면적이 광활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② 몽혼(夢魂): 꿈속의 넋

☆고대인은 ‘사람의 영혼은 잠자면서 꿈을 꾸는 가운데 육신을 떠난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몽혼’이라고 칭하였다. 전(轉)하여, ‘꿈’이란 뜻으로도 쓴다.

13) ① 함장(函丈): ‘함장(函丈)’으로도 쓴다. 『예기(禮記)·곡례상편8(曲禮上篇八)』에, “만약 음식을 대접하려고 초청한 손님이 아니라면(若非飲食之客), 좌석을 펼칠 때(則布席), 강론자와의 좌석 간격(席間)이, 일장정도의 사이를 뒤야 한다(函丈).”고 한 대목이 있다. 이 문장에 대하여 후한(後漢)의 학자 정현(鄭玄: 127~200)은 주해(註解)하기를, “(여기서의 손님은) 강문(講問: 강설講說하고 토론함)하는 손님을 말한다(謂講問之客也). ‘함함’은 ‘용납하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函, 猶容也), 강설하고 토론하는 손님과는 마땅히 1장一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마주 대하기를 허용해야(講問宜相對容丈), 손짓을 해가며 의사를 표현하기에 족하다(足以指畫也).”고 하였다. 이처럼 ‘함장(函丈)’이란 말은 원래 ‘강론을 하는 사람과 청강(聽講)하는 사람과의 좌석 간격이 일장(一丈)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이 ‘함장(函丈)’이란 말을 다음의 두 가지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선배 학자나 스승에 대한 경칭(敬稱).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강학(講學: 공개적으로 자신의 학술이론을 강설함)의 좌석

② 경무연(更無緣): (하늘이) 무연(無緣)으로 바뀌었다.

- a. 경(更): 바꾸다, 변경하다. 본 시에서는 ‘(하늘이) 바뀌 났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무연(無緣): 인연이 없다
- 14) ① 공(空): 텅, 여가, 겨를
- ② 장(將): 바로, 곧
- ③ 제세(濟世): 구세(救世)하다, 세인(世人)을 구조하다
- ④ 우민의(憂民意): 백성의 뜻을 걱정하다.
- 15) 거치붕산 발목년(遽值崩山拔木年: 창졸간에 산 무너지고 수목 뽑힌 변고의 해를 맞게 됐네):
- **역지주석:** 본 시구는 ‘퇴계 선생의 별세를 비유한 뜻’으로 쓰였다.
- ① 거치붕산(遽值崩山): 창졸간에 산이 무너진 변고에 직면하다.
- a. 거(遽): 창졸간에
- b. 치(值): 만나다, 마주치다. 본 시에서는 ‘(어떤 난관이나 사건에) 봉착하다, 직면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c. 붕산(崩山): 산이 무너지다. 특징인(본 시에서는 퇴계 선생을 가리킴)이 별세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② 붕(崩): 고대에 제왕이나 황후의 사망을 칭하는 말인데 ‘일반인의 사망을 특별히 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본 시에서는 퇴계 선생의 사망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발목년(拔木年): 수목이 뽑힌 재이(災異)가 발생한 해
- a. 발목(拔木): 거센 바람이 불어 수목이 넘어지며 뽑히다. 고인(古人)은 이 경우를 ‘재이(災異: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의 변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본 시에서는 ‘퇴계 선생의 별세’를 비유한 뜻으로 쓰였다.
- ③ 발(拔): 뽑다, 뽑히다
- ④ 년(年): 본 시에서의 ‘년(年)’은 ‘경오년(庚午年: 1570년: 서예 29세)’을 가리킨다. 퇴계 이황 선생이 타계하던 그 해를 말한다. 「서애연보」의 경오년 12월 조항에, “퇴계선생의 부고를 받고 통곡했다(退溪先生訃之哭之).”고 한 대목이 있다.
- 16) ① 정초(庭草): 뜰에 난 풀
- ② 환자록(還自綠): 여전히 절로 푸르러지다.
- 17) ① 불감(不堪): 주로 문어(文語)에 쓰여, ‘견디어내지 못하다. 즉 견딜 수 없다, 참을 수 없다.’는 뜻이다.
- a. 감(堪): 참다, 견디다
- ② 잔일(殘日): ‘석양(夕陽)’을 이르는 말이다.
- a. 잔(殘): 잔존(殘存)하다.
- ③ 조신천(照新阡): 새로 쓴 묘소를 비추다.
- a. 천(阡): 무덤, 묘소

시21. 장증^{章仲} 권호문^{權好文} 공^公께 부치다

詩21. 寄^寄權^權章^章仲^仲好^好文^文¹⁾
기 권 장 증 호 문



幽居空遠思²⁾,
유 거 공 원 사

(공공은) 은거하시는데 (저는) 공연히
멀리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다보니,

佳節又重陽³⁾。
가 절 우 중 양

(지금은) 좋은 계절인데다
중양절을 맞기도 했네요.

霧積江渾色⁴⁾,
무 적 강 혼 색

안개 질어 강물은
탁한 색깔로 보일테고,

風高鴈斷行⁵⁾。
풍 고 안 단 행

바람이 세차서 기러기 행렬도
끊어졌겠네요.

同心猶自隔⁶⁾,
동 심 유 자 격

(공공은 국화와) 심사心思 같아
여전히 세속과 거리 두고 계신데,

寒菊⁷⁾爲誰香。
한 국 위 수 향

국화는 누구를 위하여
향기 풍기던가요?

幾日能相枉⁸⁾,
기 일 능 상 왕

며칠 후 (국화 지고나면)
서로가 억울하다 할 것이니,

- 1) 권장중 호문(權章仲好文) :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 :
 - ① 장중(章仲) : 권호문의 자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字)나 호(號) 또는 직함을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 ② 권호문(權好文 : 1532~1587) : 조선 중기의 문인, 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이름은 호문(好文), 자는 장중(章仲), 호는 송암(松巖). 안주교수(安州教授) 권륙(權陸)의 아들이다. 1549년 부친을 여의고, 1561년 30세에 진사에 합격했으나 1564년 모친상을 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청성산(靑城山) 아래에 무민재(無悶齋)를 짓고, 그 곳에 은거하였다. 이황(李滉 : 1501~1570)의 문인(門人)이며 류성룡(柳成龍 : 1542~1607), 김성일(金誠一 : 1538~1593) 등과 교분이 두터웠고 이들로부터 학행(學行)을 높이 평가 받았으며, 말년에는 덕망이 높아 찾아오는 문인이 많았다. 집경전 참봉(集慶殿 參奉), 내시교관(內侍敎官) 등에 재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으며, 56세로 일생을 마쳤으며, 묘지는 안동부 서쪽 마감산(麻甘山)에 있다. 안동(安東) 송암서원(松巖書院 : 청성서원靑城書院)에 제향되었다. 이황(李滉)은 그를 기운이 맑고 깨끗한 산림(山林)의 풍격(瀟灑山林之風)이 있다 하였고, 몇 류성룡(柳成龍)도 그를 강호지사(江湖之士)라 하였다. 시가로는 경기체가를 본뜬 「독락팔곡(獨樂八曲)」과 연시조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등이 있고, 저서로는 『송암집(松巖集)』이 전한다.
- 2) ① 유거(幽居) : 은거하며 출사(出仕)하지 않다.
- ② 공(空) : 공연히, 부질없이
- ③ 원사(遠思) : 먼 곳에서 고려(考慮 : 생각하고 헤아려 봄)하다.
- 3) ① 가절(佳節) : 좋은 계절
- ② 우중양(又重陽) : 게다가 중양절이다.
 - a. 중양(重陽) : 명절 명칭이다. 옛사람들은 숫자 ‘구(九)’를 음양철학적인 면에서, 양수(陽數 : ‘0’보다 큰 수로서 ‘홀수’를 말함)의 극(極 : 절정, 최고,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음력 구월 구일(九月九日)’을 ‘양수 구(九) 자가 겹친 날’이라는 뜻에서, ‘중구(重九)’라고 칭하기도 했고, ‘양수의 극(極)인 숫자가 겹친 날’이라는 뜻에서, ‘중양(重陽)’이라 칭하기도 했다. 한대(漢代) 이래로 이 날은 상국(賞菊 : 국화를 감상함)과 등고(登高 : 산언덕에 올라가 경치를 감상함) 및 시주(詩酒 : 시를 짓고 술을 마심)로 즐겨온 날이었다. 당송대(唐宋代)에도 관리들은 이 휴가일을 즐겨온 날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부터 안압지(雁鴨池)의 임해전(臨海殿)이나 월상루(月上樓)에서 군신이 모여 시가(詩歌)를 지으며 즐겼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세종 때 중구(重九)를 명절로 공인했다. 중구가 단풍이 곱게 물들고 등고(登高)와 상국(霜菊)에 알맞은 계절이었기 때 문이다. 다만 일반 농어민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농번기였으므로 이 명절을 즐길 겨를이 없었으나, 선비들이 중시한 명절이었다. 현대에는 ‘중양절’에 대한 명절의식은 보이지 않으나 이때가 되면 단풍구경꾼이 매우 많다.

- 4) ① 무(霧): 안개
 ② 적(積): ‘모으다, 쌓이다’는 말인데, 본 시에서는 ‘(안개가) 끼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강흔색(江渾色): 강물이 탁한 색깔로 보인다.
 a. 혼(渾): (물이나 색이) 탁하다
- 5) ① 풍고(風高): 바람이 세다
 ② 안(雁): ‘안(鴈)’으로도 쓰며, ‘기러기’이다.
 ③ 단행(斷行): 행렬이 끊어지다.
- 6) ① 동심(同心): 공동의 염원(소원). 심사상동(心思相同). 본 시에서는 ‘국화와 심사(心思)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마음을 같이 하다, 뜻을 합치다
 ② 유자(猶自): 부사로, ‘아직, 여전히, 의연히’의 뜻이 있다. 본 시에서는 ‘여전히’의 뜻으로 쓰였다.
 ③ 격(隔): 막다, 막히다. 본 시에서는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 선생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표현한 말로 쓰였다.
- 7) 한국(寒菊): 국화(菊花). 심추(深秋: 늦가을. 만추晩秋)에 꽃이 피는 까닭에 칭해진 명칭이다.
- 8) 기일(幾日能相枉): 며칠 후 (국화 지고나면) 서로가 억울하다 할 것이니):
****역지주석:** 며칠 후 국화가 지고나면, 권공(權公)은 국화를 향해, ‘국화야 왜 너의 향기를 좀 더 오래 풍기면서, 내가 상징하는 고고한 기품과 절개를 지키는 군자의 그 모습을 좀 더 오래 보여 주지 않는가’라고 원망할 것이고, 국화는 ‘권공은 국화에게 왜 그동안 나를 멀리하면서 내 모습을 관상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며 ‘서로가 억울했다는 심정을 표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읊은 것이다. 이는 곧 중앙절을 맞아 서에 선생은 권공에게 국화감상을 권고하는 말이다. 동시에 서에 자신이 국화를 감상하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① 기일(幾日): 며칠, 몇 날. 본 시에서는 ‘며칠 후’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능상왕(能相枉): 서로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할 수 있다.
 a. 능(能): …할 수 있다
 b. 상(相): 서로. 본 시에서는 ‘국화와 권공’이 서로 상대를 향해 이르는 말로 쓰였다.
 c. 왕(枉): 괴로움(원통함)을 당하다, 원굴(冤屈)하다
- 9) ① 촌료(村醪): 촌주(村酒: 촌락에서 만든 탁주), 촌탁(村濁: 시골에서 만든 막걸리)
 a. 촌(村): 시골
 b. 료(醪): ‘료(醪)’자는 본래 ‘술을 빚다’는 뜻으로, 본래 감주(甘酒)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전(轉)하여 ‘탁주(濁酒)’의 뜻으로 쓴 것이다.
 ② 과단장(過短牆): ‘담장 아래 (국화를) 방문하다’는 뜻인데, 이는 ‘국화를 감상하리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a. 과(過): ‘방문하다, 내방(來訪)하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국화 앞에 다가가서) 감상하시라’는 의미로 쓰였다.
 b. 단장(短牆): 단장(短牆)으로도 쓰며, ‘낮은 담장[왜(矮牆)]’의 뜻이다.



시22. 장증^{章仲} 권호문^{權好文} 공^公의 시
세 수를 차운하여

詩22. 次權^{章仲}韻^{三首}¹⁾
차 권 장 증 운 삼 수

其一
기 일

[1]

松巖居士臥雲岑²⁾,
송 암 거 사 와 운 잠

송암거사는 운무 짙
고산 기슭에 은거하시는데,

一室蕭然靜裏心³⁾.
일 실 소 연 정 리 심

온 방은 적막해도
마음 안정^{安靜}시키는 곳이라네.

盡日巖前門獨閉⁴⁾,
전 일 암 전 문 독 폐

종일토록 산기슭의 은거처 사립문
줄곧 닫혔더니,

滿山秋草客來尋⁵⁾.
만 산 추 초 객 내 심

만산^{滿山}에 가을 풀이 성성할 때
손님이 찾아왔네.

其二
기 이

[2]

獨抱閒愁對遠岑⁶⁾,
독 포 한 수 대 원 잠

나 홀로 무단히 밀려오는 근심 안고
먼 산 마주하는데,

十年江海未歸心⁷⁾。
십 년 강 해 미 귀 심

(권공은) 십년을 은거했지만
아직 그 마음 바뀌지 않으시네.

咫尺松巖難再過⁸⁾，
지 척 송 암 난 재 과

지척에 송암거사 계시지만
또 방문하기 어려우니，

白雲明月夢中尋。
백 운 명 월 몽 중 심

명월아래 백운 흘러갈 때
꿈속에서나 찾아가려네.

其三 기 삼

[3]

誰傳一札下遙岑⁹⁾，
수 전 일 찰 하 요 감

어찌 서신 한 통 전하려
그 먼 산봉^山峰 내려오셨나요?

滿幅清詩起我心¹⁰⁾。
만 폭 청 시 기 아 심

서찰^書札 전폭에 채운 청신한 시편에
내 마음 감동했소이다.

病後閒功唯靜臥¹¹⁾，
병 후 한 공 유 정 와

병 앓고 난 뒤 휴양 효과 보려
누워만 있다가，

安排拙業已難尋¹²⁾。
안 배 졸 업 이 난 심

서툰 작시^作詩 해보지만
(여의찰아) 계속하긴 어렵네요.

1) 차권장중운(次權章仲韻) : 장중 권호문 공의 시운을 차운하여) :

① 차운(次韻) :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 차운 조항을 참조 바람.

② 권장중(權章仲) :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21」의 주석 1), 「권호문(權好文)」 조항을 참조 바람.

2) ① 송암(松巖) :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학자인 권호문의 호이다.

② 거사(居士) : 옛날에 재덕(才德)이 있으면서도 은거하며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거나 아직 벼슬길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에 대한 칭호이다. 본 시에서는 ‘은사(隱士)’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와(臥) : ‘은거(隱居)’를 가리키는 말이다.

- ④ 운잡(雲岑): ‘운무가 피어오른 산봉우리’ 또는 ‘고산(高山)’이란 뜻인데, 권호문 선생이 은거한 곳이 ‘경북 안동시 풍산읍(豊山邑) 막곡리(幕谷里)’에 위치한 청성산(靑城山: 해발 252m) 기슭이다. 이 산은 고산(高山)이 아니지만, 시어(詩語)로 쓰인 ‘운잡’이란 말을 고려하여, ‘고산 기슭’으로 번역한다.
- a. 잡(岑): 작으면서도 높은 산
- 3) ① 일실(一室): 온 방안
- ② 소연(蕭然): 적막하다, 조용하다, 쓸쓸하다.
- ③ 정리심(靜裏心): 내심(內心)은 안정되어 있다.
- a. 정(靜): 안정(安靜)되다, 안정하다
- b. 리심(裏心): 내심(內心), 속마음
- 4) ① 진일(盡日): ‘종일(終日)’과 같은 말로서 ‘온종일, 진종일’의 뜻이다.
- ② 암전(巖前): ‘고산(高山) 앞’ 또는 ‘바위가 많이 솟아 있는 험준한 산전(山前)’이란 말인데, 본 시에서는 ‘장중(章仲) 권호문(權好文) 선생의 은거처’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산기슭 은거처로’로 번역한다.
- ③ 문독폐(門獨閉): 사립문이 줄곧 닫혀 있다.
- 5) ① 만산(滿山): 온 산에
- ② 추초(秋草): 가을철의 풀
- 6) ① 독(獨): 홀로, 단독
- ② 포(抱): (가슴에) 안다, (생각이나 의견을) 마음에 품다
- ③ 한수(閑愁): ‘한수(閑愁)’로도 쓰며, ‘무단히 (이유 없이) 밀려오는 의미 없는 우수(憂愁)’의 뜻이다.
- ④ 대(對): (마주) 하다
- ⑤ 원잡(遠岑): 먼 산, 먼 곳의 산
- 7) ① 강해(江海): ‘은사(隱士)의 거처’를 가리키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그 은거처에서 은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② 미귀심(未歸心): 아직 (은거하려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 a. 미(未): 아직 …하지 않다
- b. 귀심(歸心): 귀순하려는 마음
- ***역지주석: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회심(回心: 생각이 변함) 또는 전의(轉意: 마음이 바뀌)’의 뜻으로 쓰였다. 곧 ‘은거하는 생각이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8) ① 송암(松巖): ‘송암(松巖)거사’를 가리킨다. 앞의 「시21」의 주석 1)의 ② ‘권호문(權好文)’조항을 참조 바람.
- ② 난재과(難再過): 거듭 방문하기 어렵다.
- 9) ① 수전일찰(誰傳一札): 어찌 서신 한 통 전하려고
- a. 수(誰): 의문대명사로서, ‘어찌, 어째서’의 뜻으로 쓰였다.
- b. 일찰(一札): 한 통의 서신
- ② 하(下): 내려오다
- ③ 요점(遙岑): ‘원잡(遠岑)’과 같은 뜻으로,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 먼 곳에 가파르게 솟아오른 작은 벼랑(절벽)’의 뜻이다.
- 10) ① 만폭(滿幅):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는 종이나 천 조각의) 폭에 꽉 차다. 폭 전체.

본 시에서는 ‘한 폭 전체에 (기득) 쓴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기아심(起我心): 내 마음이 감동하다

a. 기심(起心): (마음이) 동(動)하다, 생각이 떠오르다, 생각이 일어난다. 본 시에서는 ‘감동했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11) ① 병후(病後): 병을 앓고 난 뒤

② 한공(閒功): 휴양을 취하는 효과를 보려하다

12) ① 안배(安排): 준비하다, 계획하다

② 졸업(拙業): 서툴고 보잘 것 없는 학업. 본 시에서는 ‘작시(作詩)’하는 작업을 칭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자겸(自謙: 스스로 겸손함)하는 말로 쓰였다.

③ 이난심(已難尋): 이미 계속하기 어렵다.

****역지주석:** 병을 앓고 난 후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 써내려가기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a. 심(尋): 연속하다, 계속하다



시23. 임보任甫 김홍민金弘敏 형제를 작별하면서 증여하다

詩23. 贈別金任甫兄弟弘敏弘微¹⁾ 증 별 김 임 보 형 제 홍 민 홍 미

내가 을해년(乙亥年: 1575년: 서해 34세) 가을에 탈상脫喪을 하고나서, (곧바로) 성은聖恩을 입어 홍문관 부교리로 부름을 받았으나, 청병稱病하고 그 직을 사양했다. (그리고 나서) 그해 겨울에 다시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임명되었으나 가지 않자, 병자년(丙子年: 1576년: 서해 35세) 정월에 또다시 교리敎理로 소환됨에 따라, 부득이 병을 무릅쓰고 한성漢城으로 갈 때, 임보任甫 김홍민金弘敏 형제가 상주尙州에 있었던 지라 바로 그들을 방문하러 갔는데, 작별에 즈음하여 이 시를 지어 그들에게 증여하였다.

余於乙亥秋 免喪²⁾, 蒙恩 卽以弘文館副校理召, 病辭³⁾. 其冬又拜吏曹正郎不赴⁴⁾, 丙子正月 再以校理⁵⁾召, 不得已扶病西時⁶⁾, 任甫兄弟 在尙州就⁷⁾訪而去, 臨別⁸⁾書此爲贈.

여 어 을 해 추 면 상²⁾, 몽 은 즉 이 홍 문 관 부 교 리 소 병 사³⁾. 기 동 우 배 이 조 정 랑 부 불 거⁴⁾, 병 자 정 월 재 이 교 리 소 부 득 이 부 병 서 시 임 보 형 제 재 상 주 취⁷⁾방 이 거, 임 별⁸⁾서 차 위 증.

見君聊復一開顏⁹⁾,
견 군 료 복 일 개 안

자네들 만나 한담閑談하니
병이 낫는 듯해 활짝 웃었는데,

今我胡爲驛路間¹⁰⁾.
금 아 호 위 역 로 간

지금 내가 왜 역참驛站으로
가는 도중에 머물렀겠는고?

更向長程愁日暮¹¹⁾,
갱 향 장 정 수 일 모

다시 먼 길 가려하니
날 저물어 시름겨운데,

朔雲飛雪滿前山¹²⁾.
삭운비설만전산

북방의 구름이 눈발 되어 날리더니
앞산이 온통 백설로 덮였네.

1) 김임보 형제(金任甫兄弟) : 임보(任甫) 김홍민(金弘敏) 형제

****역자주석** : 성씨 다음에 자(字)나 호(號) 또는 직함을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① 김홍민(金弘敏 : 1540~1594) :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임보(任甫 : 임보任父로도 씀)이고 호는 사담(沙潭)이다. 옥과현감(玉果縣監) 범(範 : 1512~1566)의 아들임. 1570년(선조 3)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과 삼사(三司)를 거쳐, 1584년 이조좌랑으로서 삼사와 같이 울곡(栗谷) 이이(李珥 : 1536~1584)와 사암(思菴) 박순(朴淳 : 1523~1589)을 탄핵하였다. 사인(舍人)에 이어 1590년 전한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을 규합하여 충보군(忠報軍)이라 칭하고 상주에서 적의 통로를 막아 적군이 부득이 호서지역으로 피해 가게 하는 공을 세웠다. 중년 이후로 주자서(朱子書)와 『심경(心經)』 및 『근사록(近思錄)』을 탐독하였고 역학(易學)에도 뜻을 두었으며, 역사서로는 주로 『통감강목(通鑑綱目)』을 읽었다.

② 김홍미(金弘微 : 1577~1604)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상주(尙州)이다. 자는 창원(昌遠), 호는 성극당(省克堂)이다. 아버지는 옥과현감 범이다. 남명(南冥) 조식(曹植 : 1501~1572)과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의 문인이다. 그의 빙부(聘父)는 서애의 백형인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 1539~1601)이다. 1585년(선조 18)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에 관련되어 한때 파직되었다가 교리 등을 거쳐 사간(司諫), 사성(司成) 등을 역임하였다. 1597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재직하였다. 1598년 형조참의(刑曹參議)를 거쳐 1605년 강릉부사(江陵府使) 때, 큰 비가 내려 백성이 많은 재난을 당하였다. 이에 수재로 죽은 자의 조문과 굶주린 자의 진휼(賑恤)에 힘쓰다가 병고로 면직되었다. 경상북도 상주(尙州) 봉산서원(鳳山書院)에 배향되었고, 문집 5권이 전한다.

2) 면상(免喪) : 상중(喪中)에 지키는 예절에서, 상복(喪服)을 입는 기간이 끝나 상복을 벗는 것을 말한다. 본 시에서는 1575년(을해년乙亥年 서애 34세)에 부친인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 1515~1573) 선생의 탈상을 말하는 것이다.

3) 몽은(蒙恩) : 성은을 입고 즉이홍문관부교리소(則以弘文館副校理召 : 홍문관 부교리로 부름을 받았으나) 병사(病辭) : 칭병하고 사양했다) :

① 몽은(蒙恩) : 은혜를 입다. 본 시에서는 성은(聖恩 : 임금의 큰 은혜)을 입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a. 몽(蒙) : 받다, (웃이나 은혜를) 입다

② 즉(卽) : 바로 ...이다

③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里) : 홍문관의 부교리

a. 홍문관(弘文館) : 조선시대에 삼사(三司 : 임금에게 직언하던 세 관아로, 사헌부司憲府 · 사간원司諫院 · 홍문관을 이룸) 가운데 궁중의 경서(經書)와 문서 따위를

- 관리하고 임금의 자문(諮問)에 응하던 일을 맡아보던 관아(官衙)이다.
- b. 부교리(副校理) : 홍문관의 중5품(從五品) 관직 명칭이다.
- ④ 소(召) : 부르다, 소집하다, 소환하다
- ⑤ 병사(病辭) : 칭병(稱病)하고 사양하다
- 4) 우배이조정랑(又拜吏曹正郎 : 다시 이조정랑에 임명되었으나), 불부(不赴 : 가지 않았다) :
- ① 배(拜) : (관직에) 임명하다
- ② 이조정랑(吏曹正郎) :
- a. 이조(吏曹) : 조선시대에 6조(六曹 : 국가 정무政務를 나누어 맡아보던 여섯 관부로, 이조吏曹 · 호조戶曹 · 예조禮曹 · 병조兵曹 · 형조刑曹 · 공조工曹를 이름) 가운데 문관의 선임과 훈봉, 관원의 성적 고사(考査), 포폄(褒貶)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 b. 정랑(正郎) : 6조에 속했던 관리로 정5품(正五品)의 품계(品階)를 가진 직위의 관직이다.
- 5) 교리(校理) : 조선시대에 홍문관, 승문원(承文院 : 외교에 관한 문서를 맡아보던 관아), 교서관(校書館 : 경서經書의 인쇄나 교정, 향축齎祝, 인전印篆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등에 설치되었던 문翰(文翰 : 글씨도 잘 쓰고 글을 잘 짓는 사람)의 관직으로 정5품직이다.
- 6) 부병서시(扶病西時) : 병을 무릅쓰고 서쪽으로(한성漢城으로) 갈 때
- ① 부병(扶病) : 병을 무릅쓰다(버티다).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 ② 서시(西時) : 서쪽으로(도성都城으로) 갈 때
- a. 서(西) : 본 시에서는 동사로서 ‘서쪽을 향하여 가다’는 뜻으로 쓰였다. 여기서의 ‘서(西)’는 경성(京城)인 한성(漢城)쪽을 가리킨다. 한성(漢城) 곧 서울은 서애(西厓) 선생의 고향인 안동보다 서북쪽에 위치하였으므로 이른 말이다.
- 7) 취(就) : 즉시, 바로, 곧, 당장
- 8) 임별(臨別) : 막 헤어지려고 하다, 이별에 임하다, 작별에 즈음하여
- 9) ① 요복(聊復) : 한담하니 병이 낫는 듯하다
- a. 료(聊) : 한담(閑談)하다
- b. 복(復) : 강복(康復 : 건강이 회복됨. 병이 나음)하다, 회복하다
- ② 일개안(一開顏) : 그래서 활짝 웃다
- a. 일(一) : 이에, 그래서
- b. 개안(開顏) : 활짝 웃다, 만면에 웃음이 감돌다, 희색이 만면하다
- 10) ① 호위(胡爲) :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왜, 어째서
- ② 역로간(驛路間) : 역참(驛站)으로 가는 도중에
- 11) ① 갱(更) : 다시, 또
- ② 향(向) : 가다, ...를 향해 가다
- ③ 장정(長程) : 거리가 먼 노정(路程), 매우 먼 길
- 12) ① 삭운(朔雲) : 북방의 운기(雲氣 : 기상氣象이 달라짐에 따라 구름이 움직이는 모양)
- a. 삭(朔) : 북방
- ② 비설(飛雪) : 바람에 흩날리며 내리는 눈. 눈발이 날리다

시24. 한식날 금계촌^{金溪村}의 선친 묘소에
성묘하고 돌아오는 길에 감회를 쓰다

詩24. 寒食 拜掃金溪¹⁾ 還路感懷
한 식 배 소 금 계 환 로 감 회



愁來獨向古原行²⁾,
수 레 독 향 고 원 행

수심 겹지만 혼자 선영^{先塋}에
성묘하러 가는데,

惻惻春寒雨乍晴³⁾.
측 측 춘 한 우 사 청

쌀쌀한 봄 날씨에 비까지 오더니
마침 날이 개네.

夾道兩溪方泐泐⁴⁾,
협 도 양 계 방 획 획

오솔길 양변^{兩邊}에
개울물 한창 찰찰 흘러가니,

饒山千樹自冥冥⁵⁾.
요 산 천 수 자 명 명

산에 우거진 수목도 절로 그윽해지네.

人隨世變尋無迹⁶⁾,
인 수 세 변 심 무 적

사람은 세상 따라 변하건만
마음 쓴 흔적 없는데,

物感年華倍有情⁷⁾.
물 감 년 화 배 유 정

외물^{外物}에 미혹되어
나이 들수록 욕심은 곱절로 늘어나네.

想起但知成一慟⁸⁾,
상 기 단 지 성 일 통

돌이쳐보면 오직 한바탕 통곡으로
변했음을 알겠는데,

放聲誰復畏人驚⁹⁾。
 방 성 수 부 외 인 경

소리 질러놓고 어찌
 또 타인이 놀랄 걸 두려워하는고?

(서예주석: 韋詩臨風一長嘯, 誰畏行路驚)¹⁰⁾
 위 시 임 풍 일 장 호 수 의 행 로 경

1) 한식 배소금계(寒食拜掃金溪: 한식날 금계촌金溪村의 선친묘소를 성묘하다):

- ① 한식(寒食):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서, 4월 5일이나 6일쯤이 되며, 민간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사초(莎草)하는 등 묘를 돌아본다.
- ② 배소(拜掃): 조상의 묘를 깨끗이 하고 돌보다. 삼가 소분(掃墳)하다, 배묘(拜墓)하다, 성묘(省墓)하다
- ③ 금계(金溪): ‘금계촌(金溪村)’이란 촌명(村名)인데, 본 시에서는 ‘금계촌에 있는 선친(先親)의 묘소’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안동지방의 지방지(地方誌)인 『영가지(永嘉誌)·각리(各里: 각 마을)·부서(府西: 안동부의 서쪽 마을)·금지촌(金地村)』 조항에, “금지촌은 속칭 금음지(音知)라고도 칭하고, ‘금계(金溪)’라고도 칭하며(金地村俗名音知又名金溪), 안동부安東府의 서쪽 20리에 위치한다(府西二十里).”고 한 대목이 있다. 『류성룡 시』에 나오는 ‘금계(金溪)’는 촌명으로 쓸 수도 있고, ‘금계재사(金溪齋寺)’를 가리키는 뜻으로도 쓸 수 있으니 앞 뒤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

*금계재사(金溪齋寺): 서예 류성룡의 부친 풍산부원군(豊山府院君) 류중영(柳仲郢) 선생(1515~1573)을 기리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여기서 말한 ‘재사(齋寺)’란, 처음에는 능침(陵寢)을 수호하기 위한 곳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능(陵) 주변에 세운 원당(願堂: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던 법당)을 재사(齋寺)라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오면서 재사(齋寺)가 재사(齋舍: 서재로도 쓰이고 학사學舍나 향교의 기숙사로도 쓰이던 곳)로 바뀌면서 재사(齋寺)는 능 주변에서 탈피하여 원지(遠地: 전국의 명산대찰名山大刹)에까지 이르렀다. 본 명칭은 이전까지는 ‘숭실재(崇室齋)’라고 칭했으나, 경상북도 문화재과에서 2011년 11월 16일자로 다시 ‘안동 풍산류씨(安東豊山柳氏) 금계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곳은 풍산부원군 류중영 선생의 묘제(墓祭)를 위한 재사(齋舍)로 몸체인 숭실재(崇室齋)는 영모루(永慕樓)와 부속사로 연이어져 장방형의 ‘ㄷ’자형 집을 이루고 있다. 몸체는 1987년 보수 때 발견된 영조(英祖) 12년(1736)의 상량문(上樑文)에 의하면, 본래 능효사(陵孝寺)의 한 전각(殿閣)이었는데, 풍산(豊山) 류씨의 재사(齋舍)로 인수하여 명종(明宗) 13년(1558)에 중수(重修)하고, 광해군(光海君) 14년(1622)에 보수(補修)하였다고 한다. 몸체의 건축양식은 전면에서는 내외일출목(内外一出目)의 양설(仰舌)로 된 이익공식(二翼工式)이고 후면에는 초익공식(初翼工式)인데, 그 양식이 고격(古格)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1994년과 1995년에 보수했음) 이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소유지는 풍산 류씨 문중이고, 소재지는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886이다. (이상은 안동시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하고 인터넷상의 ‘서후면 문화재

소개 코너에서 참조하였음)

- 2) ① 수래(愁來): 수심에 싸이다, 수심에 차다, 수심이 밀려오다, 수심에 겹다
 - ② 독(獨): 홀로
 - ③ 향(向): …쪽으로, …를 향하여
 - ④ 고원행(古原行): 선영(先塋)에 성묘하러 가다.
 - a. 고원(古原): 본 시에서 가리키는 ‘고원’이란, 서에 선친의 묘소가 있는 묘역일대 곧 금계촌(金溪村)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만당시인 이상온(李商隱: 812 ~ 858)이 지은 「낙유원에 올라서(登樂遊原)」에서도, “날 저물어 마음 울적하면(向晚意不適), 수레 몰아 고원古原의 언덕에 오르네(驅車登古原).”라는 시구(詩句)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고원(古原)’은 ‘낙유원(樂遊原)’을 가리킨다. 이 ‘고원’에 내포된 의미는 ‘낙유원’이라는 명칭이 발생된 유래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인용시의 시제(詩題)에서 언급된 ‘낙유원’의 명칭은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 이곳에 낙유묘(樂遊廟: 서진西晉의 문인 반악潘岳이 쓴 『관중기(關中記)』에, “선제의 비妃인 허황후를 장안현 낙유리에 매장하고, 곡강지 북쪽에 사당을 세워서, 낙유묘라고 불렀는데, 낙유원樂遊苑의 ‘원苑’을 따라서 지어진 이름 “宣帝許后葬長安縣樂遊里, 立廟于曲江池北, 曰樂遊廟, 因苑为名)이라고 한 기록이 있음.”)를 세웠기 때문에 붙여진 진 명칭이다. 한선제는 낙유묘라는 사당을 세워놓고, 낙유원(樂遊苑) 또는 낙유원(樂遊原)으로 불렀다. 그런데 이 낙유원은 본래는 ‘낙유원(樂遊苑)’이었는데, 한선제의 첫 번째 황후 허씨가 출산을 한 후 죽어서 이곳에 묻혔기 때문에, ‘원(苑)’과 ‘원(原)’이 해음(諧音: 동음同音)인 관계로 낙유원은 곧 ‘낙유원(樂遊原)’으로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에 역시 위의 시에서 금계는 선친의 묘소가 있는 곳이므로 ‘고원(古原)’으로 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b. 행(行): 가다
- 3) ① 측측(惻惻): 본 시에서는 ‘한랭한 모양’의 뜻으로 쓰였으며, ‘쌀쌀하다’로 번역한다.
 - ② 우사청(雨乍晴): 비 오더니 때마침 날이 개다.
 - a. 사(乍): 때마침, 바로
- 4) ① 협도(夾道): 큰 길에서 갈린 좁은 길, 오솔길
 - ② 방(方): 이제 한창, 바야흐로, 방금, 막
 - ③ 획획(灑灑): 물이 흐르는 소리, ‘칼칼(剌剌)’로 표현된다.
- 5) ① 요산천수(饒山千樹): 산에 수목이 울창하다. 산을 에워싼 일천 그루 수목
 - ② 자명명(自冥冥): 절로 그윽해지다
 - a. 자(自): 절로
 - b. 명명(冥冥): 유심(幽深)한 모양, (산수山水, 수림樹林, 궁실宮室 등이) 깊고 고요하다, 아득하고 그윽하다.
- 6) ① 수(隨): …을 따르다
 - ② 세(世): 세상, 세상사
 - ③ 변(變): 변화
 - ④ 심무적(尋無迹): (변화의 단서를) 찾아봐도 흔적이 없다. 본 시에서는 마음을 쓴 흔적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7) ① 물감(物感): 외물(外物: 외부세계의 사물)의 유혹. 외물에 미혹되다

- ② 연화(年華) : 연세(年歲), 연령, 나이
 ③ 배(倍) : 배가(倍加)하다, 갑절로 늘다
 ④ 유정(有情) : 욕심(욕망)이 발생하다
- 8) ① 상기(想起) : 돌이켜 생각해 보다
 ② 단지(但知) : 오직 알겠다
 ③ 성일통(成一慟) : 한바탕 통곡으로 변하게 되다.
 a. 성(成) : (...이) 되다, (...으로) 변하다.
 b. 일통(一慟) : 한바탕의 통곡
- 9) ① 방성(放聲) : 소리를 크게 지르다.
 ② 수(誰) : 어찌, 어째서, ‘하(何)’의 뜻으로 쓰였다.
 ③ 부(復) : 다시, 또, ‘우(又), 재(再)’의 뜻으로 쓰였다.
- 10) 서애주석 : 위응물(韋應物)의 시(韋詩)에, “바람을 마주하고 한바탕 통곡을 했나니(臨風一長慟), 어찌 세로세로에서의 놀람을 두려워하겠는가(誰畏行路驚).”라고 읊은 두 구절이 있다:
- ① 위시(韋詩) : 위응물(韋應物)의 시(詩) :
 a. 위응물(韋應物) : 737~792 혹은 793 : 중국의 섬서성(陝西省) 장안(長安)출생. 젊어서 임협(任俠)을 좋아하여 현종(玄宗)의 경호책임자가 되어 총애를 받았다. 현종 사후에는 학문에 정진하여 관계에 진출, 좌사낭중(左司郎中) · 소주자사(蘇州刺史) 등을 역임했다. 그의 시에는 전원산림(田園山林)의 고요한 정취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다. 당(唐)나라의 자연파시인의 대표자로서 왕유(王維) · 맹호연(孟浩然) · 유종원(柳宗元) 등과 함께 왕 · 맹 · 위 · 유(王孟韋柳)로 병칭되었다.
- b. 위시(韋詩) : 위응물이 쓴 시(詩)의 시제(詩題)는 곧 「사선정사(四禪精舍)에 올라가 수려한 풍경을 관상하고 옛친구를 그리워하며, 조종(朝宗) 원주(元注)와 거천(巨川) 원홍(元洪) 형제에게 부차다(四禪精舍登覽悲舊, 寄朝宗、巨川兄弟)」이다.
 *사선정사(四禪精舍) : 소재지 미상
 *등람(登覽) : 높은 곳에 올라가 수려한 풍경을 관상하다.
 *비구(悲舊) : ‘비(悲)’는 ‘사념(思念 : 그리워함)’하다는 뜻이고, ‘구(舊)’는 ‘구교(舊交 : 옛 친구)’의 뜻이다. ‘옛 친구를 그리워하다’는 말이다.
 *조종(朝宗) : 원주(元注 : 이력미상)의 자(字)이다.
 *거천(巨川) : 원홍(元洪)의 자(字)이다. 원주와 원홍은 형제지간이고, 원읍(元揆 : 생몰년 미상)의 아들이며 위응물(韋應物)의 친구이다.
- ② 임풍 일장통(臨風一長慟 : 바람을 마주하고 한바탕 통곡을 했나니) :
 a. 임풍(臨風) : 당풍(當風) : 바람을 쐬다(맞다, 마주하다)
 b. 장통(長慟) : 극도로 비통해 하다, 대곡(大哭)하다, 통곡하다
- ③ 수의 행로경(誰畏行路驚 : 어찌 세로세로에서의 놀람을 두려워하겠는가) :
 a. 수(誰) : ‘하(何 : 어째서)’의 뜻으로 쓰였음
 b. 행로(行路) : 도로, 한길, 세로세로(世路)의 뜻이 있고, 행인(行人)의 뜻도 있는데, 본 시에서는 ‘세로(世路)’의 뜻으로 쓰였다.

시25. 무제 無題

詩25. 無題 무제



倖門如鼠穴¹⁾,
행 문 어 서 혈

요행의 문이란 쥐구멍과 같지만,

也須留一箇²⁾.
야 수 유 일 개

그래도 한 개는 남겨두어야 한다네.

若還都塞了³⁾,
약 환 도 색 료

만약 아직까지 모두 막혀 있다면,

好處還穿破⁴⁾.
호 처 환 천 파

(타인파) 사귀기 쉽게

그 통로 다시 뚫어놔야 하네.

1) 행문 어서혈(倖門如鼠穴 : 요행의 문이란 쥐구멍과 같지만) :

① 행문(倖門) :

☆ '요행의 문'으로 번역되는 말로서 간사한 소인이나 요행한 자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즉 입조入朝하는 관원이 되는) 문호(門戶 : 통로나 경로 및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를 가리킨다.

☆ 『속자치통감(續資治通鑑) 권35 송태조 순화 5년(宋太祖淳化五年)』 조항에, “황제가 중신重臣들에게 말하기를(帝謂宰臣曰) : 요행의 문은 쥐구멍 같지만(倖門如鼠穴), 어찌 마음가는대로 다 막아버릴 수 있겠소(何可盡塞)! 단지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엄중한 자라면 이것을 막을 수 있다(但去其甚者斯可矣). 근래에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곳에서(近來綱運之上), 사공들 중에 죽을 판매하는 무리가 일부 있지만(篙工、楫師有少販鬻), 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라(但不妨公), 일체를 불문에 붙였으니(一切不問), 기주冀州에서 거둔 공물公物을 경성京城까지 운반하는데 손해를 끼치지 않아서였소(冀得官物至京

無侵損耳).’라고 하자, 재상 여몽정呂蒙正이 아뢰기를(呂蒙正對曰):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고(水至清則無魚), 사람이 지나치게 결백하면 무리[동아리가] 없소이다(人至察則無徒). 소인의 정서가 위선적이라는 것을, 군자가 어찌 모르리이까(小人情僞, 君子豈不知), 그것을 너그럽게 용인해줌으로써(以大度容之), 서민들의 업무처리에 모두 쓸모가 있으리이다(則庶事俱濟).’”고 한 대목이 있다.

*여몽정(呂蒙正: 944 혹은 946~1011): 북송 때 하남(河南) 사람으로, 자는 성공(聖功)이다. 단공원년(端拱元年: 989)에 중서시랑(中書侍郎) 겸 호부상서(戶部尙書)에 오르고 평장사(平章事)가 되었으나, 순화 2년(淳化二年: 991)에 파직되고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다. 2년 뒤 다시 재상에 올랐다. 진종(眞宗) 함평 4년(咸平四年: 1001)에 세 번째로 재상에 올랐지만 2년 뒤 파직되었다. 태자태부(太子太傅)에 오르고 내국공(萊國公)에 봉해졌다가 허국공(許國公)으로 고쳐 봉해졌다. 인물됨이 중망(重望)이 있었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 ② 서혈(鼠穴): 쥐구멍
- 2) ① 야수(也須): 또한 마땅히 ...해야 한다
- ② 유일개(留一箇): 한 개(하나)는 남겨두다
- 3) ① 약(若): 만약(가령) ...이라면, 만일
- ② 환(還): 여전히, 아직도, 또 다시
- ③ 도(都): 모두, 다
- ④ 료(了): ‘동사+ 료(了)’의 형식으로 동사의 완성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조사(助詞)이다.
- 4) 호처(好處): 쉽게 교제하다, 교제하기 용이하다
 - a. 호(好): ...하기 쉽다(용이하다)
 - b. 처(處): 교제하다, 사귀다



시26. 성백^{成伯} 안경로^{安景老} 공공^{公公}의 시
「남강에서 노닐며^{遊南江}」의 시운^{詩韻}을
차운^{次韻}하여

- 이 두 수를 을해년(乙亥年: 1575년: 서애 34세)에 짓다 -

詩26. 次安成伯 遊南江韻 二首 乙亥¹⁾
차 안 성 백 유 남 강 운 이 수 을 해

其一
기 일

[1]

聞道諸君共賞春²⁾,
문 도 제 군 공 상 춘

듣자하니 서원書院 생도들과
봄 경치 완상玩賞 한다던데,

南江清景可澄神³⁾.
남 강 청 경 가 청 신

남강의 청려한 풍경이
정신을 맑게 해 주겠네요.

白鷗洲畔猶堪伴⁴⁾,
백 구 주 반 유 감 반

모래톱 물가에 갈매기도
벗 삼기에 족하리니,

莫向風波枉問津⁵⁾.
막 향 풍 파 왕 문 진

풍랑 이는 강에 배를 타지 마시고
나루터에서 문후나 받으시죠.

三年不見鳳城春⁶⁾,
삼 년 불 견 봉 성 춘

삼년이나 연경燕京의
봄 풍경을 못 본대다,

清渭終南費夢神⁷⁾.
청 위 종 남 비 몽 신

위하渭河와 종남산終南山은
꿈에라도 보고 싶어 맘 쓰네요.

賴有同心隱君子⁸⁾,
뢰 유 동 심 은 군 자

다행히 마음을 같이하는
은사隱士들이 있어,

晚來分占一江津⁹⁾.
만 래 분 점 일 강 진

저물녘에 헤어지며
나루터에서 시를 읊네요.

- 1) 차안성백유남강운(次安成伯遊南江韻) : 안성백의 시 「남강에서 노닐며」의 시운을 차운하여, 을해(乙亥) :

① 차운(次韻) :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 차운 조항을 참조 바람.

② 안성백(安成伯) : 성백(成伯) 안경로(安景老 : 1527~1592)로,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안동(安東)의 지방지(地方誌)인 『영가지(永嘉誌) 권7·현행편(見行篇 : 뛰어난 행실을 남긴 이들을 기록한 단락)』에, “(안경로는) 자는 성백이고(字成伯), 풍산현 서쪽 여자지동女子池洞에 살았다(居豊山縣西 女子池洞中). 신유년(辛酉年 : 1561)에 사마시(司馬試 : 소과小科)에 합격했다(申西司馬). 성품이 순실純實하고 근신謹愼하였으며(性純實謹愼), 사람을 대하고 처신함에 교만하거나 거짓이 없었으므로(處事接人無驕飾), 향린鄉隣에서 모두 그를 숭양하였다(鄉隣推重).”고 한 기록이 있다. 안공(安公)은 순흥안씨(順興安氏) 15세손(十五世孫)이며, 부친 안순(安洵 : 1504~1578)의 아들이다. 병산서원(屏山書院) 초대원장을 역임했다. (『안동향교지(安東鄉校誌)·제1절 인물(人物)』과 영남대 출판의 『영남향약자료집성(嶺南鄉約資料集成)』에 해당 자료가 보인다.)

③ 유남강(遊南江) :

- a. 남강(南江) : 본 시에서의 ‘남강(南江)’은 병산서원 앞을 흐르는 낙동강을 칭한 것으로 보인다.

**역자주석 : 위의 주석 1)의 ② ‘안성백(安成伯)’ 조항에 의하면, 그는 안동출신이고, 병산서당(屏山書堂) 초대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니, 그의 시제(詩題)에서 언급한 ‘남강’이란, 바로 병산서원 앞을 흐르는 낙동강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병산서원은 안동시 서남쪽에 있는 하회마을의 주산(主山)

인 화산(花山)의 동남쪽 경사지에 남향하여 낙동강 건너의 병산절벽을 바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병산서당(屏山書堂) : 병산서원은 1572년(선조 5, 서애 31세)에, 서애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이 지금의 풍천면 병산리로 옮겨오면서 병산서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본 서원[서당]은 하회마을의 주산(主山)인 화산(花山) 동남 산자락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원 앞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강 건너편에는 병산(屏山)이 있다. 이 산이 ‘병풍을 처 놓은 듯 절벽으로 이어진 산’이라는 뜻에서 ‘병산(屏山)’이라 칭해진 것인데, 당시에 풍악서당(豐岳書堂)을 병산 앞 화산(花山) 자락에 옮겨놓고 그 명칭도 ‘병산’의 형상을 본 따 ‘병산서당’이라 개칭한 것이다. 그 후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불타버린 병산서당을 1607년(선조 40, 서애는 이 해 5월에 타계함)에 중건하였다. 그 해에 서애 선생이 타계하자, 문하생인 정경세(鄭經世 : 1563~1633)와 이준(李堧 : 1560~1635) 등 문인들과 지방유림의 공론으로 서애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존덕사(尊德祠 : 신위神位를 모신 집)를 창건하고 위패(位牌)를 봉안한 후에 서원으로서의 위상이 섰다. 1614년 병산서원으로 개칭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줄역 『국역 류성룡 시 III』에 「시34」의 주석 1) ‘병산서원(屏山書院)’ 조항을 참조 바람.

- ④ 을해(乙亥) : 1575년으로 선조 8년, 서애의 나이 34세가 되는 해이다. 서애는 계유년(癸酉年 : 1573년, 선조 6년, 서애 32세) 7월에 관찰공 류중영(柳仲郢 : 1515~1573)의 상을 당한 이래, 이 해 9월에서야 상복(喪服)을 벗었다. 상복을 벗고 나자 홍문관 부교리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겨울에는 이조 정랑에 제수되었으나 또다시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작시(作詩) 장소는 하회마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① 문도(聞道) :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다. 즉 듣자하니 …라고 한다.
- ② 제군(諸君) : 본 시에서 칭하는 ‘제군(諸君)’이란 병산서당에서 공부하는 생원(生員)들을 칭한 것이다.
- ③ 상춘(賞春) : 봄 경치를 완상(玩賞 : 노닐며 감상함. 보고 즐김)하다.
- 3) ① 남강(南江) : 여기에서 언급한 ‘남강’ 역시 병산서원 앞을 흐르는 ‘낙동강’을 칭한 것이다.
- ② 가(可) : 본 시에서는 어기를 강조하는 뜻으로 쓰였다.
- ③ 징심(澄神) : 정신을 맑게 함. ‘징심(澄心 : 마음을 가라앉혀 맑게 함)’과 유사한 말이다.
- 4) ① 백구(白鷗) : 갈매기
- ② 반(畔) : 물가, 물기슭, 물녘, 수변(水邊)
- ③ 유(猶) : 또한, 역시
- ④ 감(堪) : …할 수 있다, …하기에 족하다
- ⑤ 반(伴) : 동반자, 친구, 벗
- 5) ① 막(莫) :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 ② 향(向) : 동사로 쓰였으며, 뜻은 ‘나아가다’이다. 본 시에서는 ‘강상(江上)에 나아가는 것’ 곧 ‘승선(乘船)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풍파(風波) : 풍랑(風浪 : 바람과 물결 · 곤란하고 위험한 처지를 비유한 말). 본 시에서는 ‘풍랑 이는 강’을 가리키는 뜻이다.

- ④ 왕문진(枉問津) : 나루터에서 문후를 받잡다(받다).
- a. 왕문(枉問) : 경사(敬辭)로서, 문후(問候)를 받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문후를 받잡다(받다)’로 해석된다. 본 시 첫 구에 쓰인 ‘제군(諸君)’은 ‘젊은 생도’ 뿐만 아니라 ‘향리의 선비들’이 포괄되어 있는 까닭에 ‘왕문(枉問)’이란 용어를 쓴 것으로 보인다.
 - b. 진(津) : 나루터
- 6) 봉성(鳳城) : ‘경도(京都)’의 미칭(美稱)으로 본 시에서는 명(明)나라의 도성인 ‘연경(燕京)’ 즉 지금의 북경(北京)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명왕조(明王朝)는 주원장(朱元璋 : 1328 ~ 1398 : 명태조明太祖)이 건국. 초기에는 도성을 남경(南京 : 명나라 건국초의 응천부應天府로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남경시南京市임)으로 정했다가, 1420년에 북경(北京 : 이곳은 명초明初의 순천부順天府였으며, 이곳이 옛날 연燕나라의 도성이었으므로 조선에서는 ‘연경’으로 불렸으며, 지금의 북경시임)으로 천도(遷都)하였다. 역지는 조선시대에 쓰던 명칭대로 ‘연경’으로 번역한다.
- **역자주석 :** 「서애연보」에 의하면, 서애(西厓) 선생은 기사년(己巳年 : 서애 28세) 10월에 ‘성절사 서장관 겸 사헌부 감찰(聖節使 書狀官 兼 司憲府 監察)’ 자격으로 연경에 갔다가 그 이듬해인 경오년(庚午年 : 1570 : 서애 29세) 3월에 연경에서 돌아왔다고 하였다. 본 시를 지은 해가 을해년(乙亥年 : 1575 : 서애 34세)이니, 햇수로 5년이 넘었지만, 본 시에서 “삼년이나 연경의 봄 풍경을 못본데다 (三年不見鳳城春)”라고 읊은 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봐야할 것 같다.
- 7) ① 청위중남(淸渭中南) : ‘청위(淸渭)’는 중국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곁을 흐르는 위하(渭河)로 물이 맑다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중남(終南)은 역시 서안시 남쪽에 있는 산 이름이다. 서안시는 한·당(漢唐)을 비롯한 역대 많은 왕조의 도읍지인 장안(長安)으로, 흔히 우리나라의 한양과 비유된다. 본 시에서는 시적화자인 서애가 근래 3년을 선친의 작고로 인해 시종 고향 하회마을을 떠나지 않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위의 주석 1)의 ④ ‘을해(乙亥)’ 조항을 참조 바람.
- a. 청위(淸渭) : 물 맑은 위하(渭河) : 위수(渭水) : 황하(黃河)의 최대 지류로서, 감숙성(甘肅省) 위원현(渭源縣) 남쪽의 조서산(鳥鼠山)에서 발원하여 섬서성(陝西省) 중부를 가로 질러潼關현(潼關縣)에서 황하로 유입된다. 길이가 787km이다. 옛날부터 이 위수는 물 맑기로 저명했는데 탁한 경수(涇水)가 위수에 유입되면서 위수의 하류가 탁해진다고 한다.
 - b. 중남(終南) : 종남산(終南山) : 이 산은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남쪽에 위치한 진령산맥(秦嶺山脈)의 주봉(主峰) 중의 하나이며, 일명 남산이라고도 칭하는데, 이는 곧 협의(狹義)의 진령(秦嶺)이다. 고대의 명칭으로는 태일산(太一山)이라고도 했고 지폐산(地肺山)이라고도 했으며 중남산(中南山) 또는 주남산(周南山)이라고도 했다. 높이는 해발 2000 ~ 3000m이다. 이 산은 금(金)·원(元)나라 때 세력을 떨쳤던 도교(道教) 진진파(全眞派)의 발상지이며 역대로 이름난 은사(隱士)들, 이를테면, 노자 이담(老子李聃)에서부터, 서주(西周)의 공신 강자아(姜子牙 : 강태공)·서역(西域)의 고승 구마라습(鳩摩羅什)·선가(仙家) 여동빈(呂洞賓)·시불(詩佛) 왕유(王維)·진진교(全眞敎)의 성조(聖祖) 왕중양(王重陽) 등 지명도가 높은 수많은 은사(隱

士)들이 은거했던 곳이다.

- ② 비몽신(費夢神): 비심몽(費心夢): 꿈에라도 보고 싶어 마음 쓰다. 본 시에서는
‘꿈에라도 보고 싶다’로 번역한다.

****역지주석:** 못가 봤지만 그리워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a. 비신(費神): 비심(費心): 마음(신경)을 쓰다, 걱정하다

b. 몽(夢): 꿈(에라도)

- 8) 뢰유동심 은군자(賴有同心隱君子: 다행히 마음을 같이하는 은사隱士들이 있어):

****역지주석:** 여기 하회 일대, 즉 낙동강 상류 안동부(安東府) 주위에는 마음을 함께
나눌 은사들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① 뢰(賴): 다행히, 요행히

② 동심(同心): 마음을 같이하다. 뜻을 합치다

- 9) ① 만래(晩來): 저물녘, 해질 무렵

② 분점(分占): 헤어지면서 시사(詩詞)를 읊조리다.

a. 분(分): 이별하다, 헤어지다, 분산하다

b. 점(占): 소리 내어 (시사詩詞를) 읊조리다

③ 일강진(一江津): 모두들 강변의 나루터에서

a. 일(一): ‘모두, 전부, 다’의 뜻으로 쓰였다.

b. 강진(江津): 강변의 나루터



시27. 병자년(丙子年: 1576년: 서애 35세) 봄에

詩27. 丙子春¹⁾
병 자 춘

萬事雲無迹,
만 사 운 무 적

만사는 구름처럼 오갔던 종적이 없는데,

三年淚有痕。
삼 년 누 유 흔

지난 삼년 흘렸던 눈물엔
(애통했던) 흔적이 있네.

人多新面目²⁾,
인 다 신 면 목

사람은 무척 새로워진 면목面目を
하고 사는데,

門對舊山原³⁾。
문 대 구 산 원

문련門聯과 선영先塋은
옛 모습 그대로세.

未死重經過⁴⁾,
미 사 중 경 과

(나는) 아직 살아있어
다시 (벚들과) 내왕하면서도,

銜悲强笑言⁵⁾。
함 비 강 소 언

심회는 비통하나 억지로
미소 띠며 한담하네.

春風吹客路⁶⁾,
춘 풍 취 객 로

춘풍은 나그네 가는 길에 불어오건만,

依馬獨銷魂⁷⁾。
의 마 독 소 혼

말 잔등에 의지한 채
여전히 뉘 나간 상태로세.

1) 병자춘(丙子春) :

병자(丙子) : 1576년, 선조 9년, 서애 35세 되는 해이다. 선친 관찰공 류중영(柳仲郢 : 1515~1573)의 상복을 벗은 다음 해가 된다. 앞의 「시26」의 주석 1)의 ④ ‘을해(乙亥)’조항을 참조 바람.

2) 신면목(新面目) : 아주 달라진 새로운 모양새, 새롭게 바꾼 태도나 입장. 본 시에서는 탈상(脫喪)한 후의 화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3) ① 문대(門對) : 문련(門聯) : 문에 종이나 천에 써서 붙여놓은 대련(對聯), 문에 (또는 가등에) 붙여 놓은 시문 등의 대구(對句)

② 구산원(舊山原) : 선영(先塋)은 원래의 모양 그대로이다.

a. 구산(舊山) : 구영(舊塋), 즉 선영(先塋). 본 시에서는 서애의 선친(先親)인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선생의 묘소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원(原) : 옛 모습(그대로이다), 여전히 그대로이다, 원래의 모양(그대로이다)

4) ① 중(重) : 거듭, 다시

② 경과(經過) : 왕래하다, 내왕하다, 오고가다

5) ① 함비(銜悲) : 심회(心懷 : 마음속의 생각이나 슬픔)가 슬프다(비통하다).

a. 함(銜) : 마음속에 품고 있다(생각하다, 느끼다, 자니고 있다).

② 강소(強笑) : 억지로 즐겁고 기쁜 듯한 얼굴을 하고 웃다. 쓴웃음을 짓다

③ 언(言) : 말하다, 이야기하다, 한답하다

6) 취객로(吹客路) : 나그네 가는 길에 (바람이) 불어오다.

7) ① 의미(依馬) : 말 잔등에 몸을 의지하다(말기다). ‘말을 타고 오가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② 독소혼(獨銷魂) : 여전히 넋이 나갔다(넋 나간 상태였다).

a. 독(獨) : 여전히

b. 소혼(銷魂) : (몸이 슬프거나 자극히 기쁘거나 극도로 놀란 것을 형용할 때 쓰는 말로서) 넋이 나가다, 혼을 뺏기다, 넋을 잃다, 정신(넋)이 빠지다

④ 소(銷) : 없어지다, 사라지고 소실되다, 소산(消散)되다



시28. 가을날 서루西樓에서 즉흥시를 쓰다

기묘년(己卯年 : 1579년 : 서애 38세)

詩28. 秋日西樓卽事¹⁾ 己卯
추 일 서 루 즉 사 기 묘

年華日已晚²⁾,
연 화 일 이 만

세월이 흘러 시절이
벌써 가을로 바뀌니,

霜露感深情³⁾.
상 로 감 심 정

서리 앓고 이슬 맺혀
깊은 정취에 감응되네.

秋思知何許⁴⁾,
추 사 지 하 허

가을철의 처량한 정서
어디에서 오는지 아는가?

殘蟬⁵⁾遠樹聲。
잔 선 원 수 성

만추晩秋의 매미 멀찍한
수림樹林에서 울고 있네.

1) 서루즉사(西樓卽事) :

- ① 서루(西樓) : 서쪽에 있는 누각. 본 시에서는 원지정사(遠志精舍)의 경내에 지어 놓은 연좌루(燕坐樓)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서애가 32세 7월(1573년, 선조 6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잠시 조정에서 물러나 있을 때(32~34세), 고향으로 돌아와 지은 건물들이다(35세 1월에 완성됨). 하회마을 북촌 쪽의 화천(花川)과 부용대(芙蓉臺)를 감상할 수 있도록 북쪽을 향하여 정사(精舍)와 누정(樓亭)을 지었다. 누정인 연좌루(燕坐樓)는 정사(精舍 : 원지정사遠志精舍)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누각에 오르면 강가의 소나무 숲과 건너편 부용대(芙蓉臺)의 옥연정사(玉淵精舍)가 한 눈에 들어온다. 곡선이 제비를

닭았다하여 연좌루라고 한다.

② 즉사(卽事):

☆먼전에 직면한 사물을 제재(題材)로 지은 시. 또는 그렇게 시를 짓다. 환언하면, 눈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느낀 대로 즉석에서 지은 시나 그렇게 시를 짓는 것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즉(卽): (그 자리에서) 즉각, 당장, 바로

b. 사(事): 일에 관계하다, 또는 그렇게 하는 일, 종사하다. 본 시에서는 시사(詩詞)를 쓰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2) ① 연화(年華): 세월, 광음(光陰), 시간

② 일(日): 시절(時節), 계절

③ 이(已): 이미, 벌써

④ 만(晩): 추계(秋季). 본 시에서는 동사로 쓰여 ‘가을이 되다’로 번역한다.

3) 감심정(感深情): 깊은 정취에 감응되다.

4) ① 추사(秋思): 가을날의 적막하고 처량한 정서(기분, 생각)

② 지(知): 알다

③ 하허(何許): 어디, 어느 곳, 하처(何處)

5) 잔선(殘蟬): 만추(晩秋)에 우는 매미, 가을철의 매미



시29. 김 생원을 애도하며

詩29. 輓金生員¹⁾
만 김 생 원

大老應傾世²⁾,
대 로 응 경 세

덕성과 명망 높은 어르신 별세하셨는데,

吾鄉有達尊³⁾,
오 향 유 달 존

우리 향리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사셨었네.

詩書潤庭戶⁴⁾,
시 서 윤 정 호

시사詩詞 작품과 서도書道로
가문을 훈도하고,

禮義範兒孫⁵⁾,
예 의 범 아 손

예법과 도의道義로
자손에게 모범 보였다네.

洛社芝生席⁶⁾,
낙 사 지 생 석

낙사洛社에서는
존중받는 지생석芝生席이셨는데,

寧山彩暎樽⁷⁾,
영 산 채 영 준

지금은 유택幽宅에서 문채 고운
제주잔祭酒盞을 받으시네.

今宵望南極⁸⁾,
금 소 망 남 극

오늘 밤 아득히 먼 곳의
남극성南極星을 바라보는데,

長痛瑞星昏⁹⁾,
장 통 서 성 혼

상서로운 그 별이 지고 말아
너무나 애통하네.

- 1) 만(輓): 사자(死者)를 애도하다, 망자(亡者)를 애도하다
- 2) ① 대로(大老): 덕성과 명망이 높은 노인
 - ② 응경세(應傾世): 세상을 떠남에 순응하다, 곧 ‘별세(別世)하다’는 말이다.
 - a. 응(應): 순응하다 b. 경세(傾世): 사망, 별세(別世)
- 3) ① 오향(吾鄉): 우리 향리(鄉里)
 - ② 유(有): 있다, 존재하다. 전(轉)하여 ‘살아있다’는 뜻으로도 쓰는데, 본 시에서는 ‘살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달존(達尊): 세상사람 모두가 존경할만한 사람
- 4) ① 시서(詩書): 시사(詩詞) 작품과 서도(書道)
 - ② 윤(潤): 교화(教化)하다, 훈도(薰陶: 덕으로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치고 길러 선하게 함)하다
 - ③ 정호(庭戶): 가문, 문벌, 집안
- 5) ① 범(範): 모범을 보이다
 - ② 이손(兒孫): 자손, 후대(後代)를 가리키는 말로도 쓴다.
- 6) ① 낙사(洛社): 낙동강 시사(詩社: 시인들이 조직한 문학 단체)
 - a. 낙(洛): 낙동강 b. 사(社): 집단적 조직, 단체
 - ② 지(芝): 지초(芝草): 모균류(帽菌類)에 속하는 버섯 종류의 식물로서, 고목(枯木)에 살며,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 등의 색이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이 풀을 서초(瑞草: 상서로운 풀)로 여겼으며, 복용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영지(靈芝)’라고도 칭했다. 본 시에서는 ‘으뜸가는 사람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 ③ 생(生): 나다, 낳다, 살다, 자라다
 - ④ 석(席): 자리, 좌석
- 7) ① 영산(寧山): 편안한 산, 본 시에서는 망자(亡者) 김생원의 유택(幽宅)을 대신하고 있다.
 - ② 채영(彩暎): 무늬, 문채(文彩)가 아름답게 빛나다. 본 시에서는 망자가 받는 술잔을 형용한 관형사로 쓰였다.
 - ③ 준(樽): 단지 비슷한 술 그릇(술 단지), 본 시에서는 제주잔(祭酒盞)을 칭한다.
- 8) ① 금소(今宵): 금야(今夜), 오늘 밤
 - ② 망(望): (멀리) 바라보다
 - ③ 남극(南極): 성명(星名), 곧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을 가리킨다. 이 별은 천구(天球)의 남극 부근에 있어 2월 무렵에 남쪽 지평선 가까이에 잠시 보이는 별이다. 용골자리의 알파성으로 밝기는 -0.7등급이다. 중국 고대 천문학에서는 사람의 수명을 맡아보는 별이라 하여 이 별을 보면 오래 산다고 믿었다. 남극성(南極星)이라고도 하고 노인성(老人星)이라고도 하며 수성(壽星)이라고도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9) ① 장통(長痛): 오랫동안 고통스럽다, 몹시 괴롭다, 너무나 애통하다
 - ② 서성(瑞星): 옛 사람들이 가리키던 ‘상서로운 별’이다. 위의 ‘남극성(南極星)’을 가리킨다.
 - ③ 혼(昏): ‘몰(沒)’의 뜻으로 사라지다. 소멸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또한 ‘사(死)’의 뜻으로도 쓰는데, 이는 김생원의 사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시30. 한덕재韓德載 형이 연경燕京으로 가는 것을 봉별奉別하면서

병자년(丙子年: 1576년: 서애 35세) 8월에

詩30. 奉別韓德載年兄赴燕 丙子仲秋¹⁾

봉 별 한 덕 재 년 형 부 연 병 자 중 추

抱病離羣日²⁾,
포 병 리 군 일

신병身病 앓으면서도
벗들을 떠나시는 날이기에,

關河送遠情³⁾。
관 하 송 원 정

국경 강변에서
(각별히) 깊은 정으로 배웅했소.

海程⁴⁾遙萬里,
해 정 요 만 리

바닷길의 노정路程은 아득히 먼
만 리 길이건만,

吾子獨遐征⁵⁾。
오 자 독 하 정

나와 한형韓兄은 오로지
(육로로만) 원행해 왔구려.

積雨連秋暗⁶⁾,
적 우 연 추 암

장맛비가 연일連日 내려
가을 날씨 음산하더니,

殘蟬已塞清⁷⁾。
잔 선 이 색 청

늦가을 매미의 울음소리 사라졌네요.

經過莫惆悵⁸⁾,
경 과 막 추 장

(이 역시 지나가는) 과정이니
낙담하며 슬퍼하지 마시구려,

- 1) 봉별 한덕재연형 부연(奉別韓德載年兄赴燕 : 한덕재 형이 연경燕京으로 가는 것을 봉별하다) 병자중추(丙子仲秋 : 병자년 8월에) :
 - ① 봉별(奉別) : 경사(敬詞)로서 '윗사람과 헤어짐'을 이르는 말이며, '고별(告別)'과 같은 말이다.
 - ② 한덕재(韓德載) : 이력미상. 조선 중기의 은사(隱士)로 추정된다.
 - ③ 연형(年兄) : 과거제도를 시행하던 시절에 동방(同榜 : 같은 방문榜文)에 성명이 기록된 등과자(登科者)를 '동년(同年)'이라 칭했는데, 이들은 상호간에 '연형(年兄)'이라 불렀다. 본 시에서는 '형'이라고 번역한다.
 - ④ 부연(赴燕) : 연경(燕京)으로 가다
 - a. 부(赴) : (...로) 가다
 - b. 연(燕) : '연경(燕京)'의 약칭으로, 명나라 도성이며, 지금의 북경(北京)이다. 당시에는 경성(京城)을 미칭(美稱)하여 봉성(鳳城)이라 칭했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26」의 주석 6)의 ② a '봉성(鳳城)' 조항을 참조 바람.
- ⑤ 병자중추(丙子仲秋) : 병자년 8월
 - a. 병자(丙子) : 병자년(丙子年) : 1576년, 선조 9년, 서예 35세 되는 해이다.
 - b. 중추(仲秋) : 추계(秋季) : 가을철의 두 번째 달로서, 곧 음력 8월을 이른다. 추계의 중간인 까닭에 일컬어진 명칭이다.
- 2) ① 포병(抱病) : 신병(身病)이 있다, 신병을 앓다
 - ② 이군(離羣) : 벗들을 떠나다, 벗들과 헤어지다
 - ③ 일(日) : 하루, 날
- 3) ① 관하(關河) : 조명(朝明)의 국경관문과 압록강. 본 시에서는 국경관문이 있는 압록강변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송(送) : 송별하다, 배웅하다, 전송하다
 - ③ 원정(遠情) : 심정(深情), 깊은 정, 두터운 정
- 4) 해정(海程) : 해상(海上)의 이정(里程 : 노정路程)
- 5) ① 오자(吾子) : 동년배의 상대방에 대하여 경애(敬愛)하는 칭호, 또는 친숙하여 부르는 칭호로서, 일반적으로 남자지간 또는 친숙하여 부르는 칭호로서, (남자들 사이에서만)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a. 오(吾) : 나
 - b. 자(子) : 남자의 미칭(美稱)으로 '그대, 당신' 등으로 번역된다. 본 시에서는 '한덕재(韓德載)'를 가리킨다.
- ② 독(獨) : 오로지, 단지
- ③ 하정(遐征) : 원행(遠行)하다
 - a. 하(遐) : 멀리 가다, 원거(遠去 : 원행하다)하다
 - b. 정(征) : 원행하다
- 6) ① 적우(積雨) : 오랫동안 비가 내리다. 장마, 장맛비

- ② 연추암(連秋暗) : (장맛비가) 연일 내려서 가을 날씨가 음산하다.
 a. 련(連) : 연일(連日) 계속하다. 본 시에서는 장맛비[積雨]가 연일 내리는 것을 말한다.
 b. 추암(秋暗) : 가을 날씨가 음산하다.
- 7) ① 잔선(殘蟬) : 가을철의 매미, 만추에 우는 매미
 a. 잔(殘) : 잔존(殘存) : 남아 있음)하다
 b. 선(蟬) : 매미
- ② 이색청(已塞淸) : 맑은 울음소리 이미 사라지다
 a. 이(已) : 이미
 b. 색(塞) : 틀어 막히다, 막다, 막히다
 c. 청(淸) : 오음(五音) 중의 상음(商音)에 속하는데, 본 시에서는 청음(淸音 : 맑고 깨끗한 소리)으로 번역한다.
- 8) ① 경과(經過) : 경력, 과정. 본 시에서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임’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막추창(莫惆悵) : 실망하며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a. 막(莫) :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
 b. 추창(惆悵) : 실망하다, 낙담하다, 슬퍼하다, 실망하거나 낙담하며 슬퍼하고 오뇌(懊惱)하다.
- 9) 혼경(魂驚) : 혼이 나갈 정도로 놀라다.

시31. 공직公直 심충겸沈忠謙의 시를 차운하여

詩31. 次沈公直忠謙韻¹⁾ 차 심 공 직 충 겸 윤



三秋孤客夢²⁾,
삼 추 고 객 몽

구월에 객지의
외로운 나그네가 꿈을 꿔는데,

萬事一漁船。
만 사 일 어 선

만사가 (그저) 한척의 어선漁船을
배짊하는 격이었네.

風雨重陽日³⁾,
풍 우 중 양 일

바람 불고 비 오던 금년 중양절重陽節은,

江湖臥病年⁴⁾.
강 호 와 병 년

각지를 유랑하다 와병하던 시기였네.

故人遙住鳥⁵⁾,
고 인 요 주 석

(내) 옛 친구가 멀리
개펄 가에 사는데,

清韻似逢仙⁶⁾.
청 윤 사 봉 선

청아한 그의 시문詩文은
신선을 만난 것과 같았네.

滿把東籬菊⁷⁾,
만 파 동 리 국

(그는) 혼자서 동쪽 울타리 아래
국화를 재배했는데,

村醪可獨賢⁸⁾.
촌 료 가 독 현

(국화로 담근) 시골탁주
특별히 현량한 선비에게 어울렸다네.

- 1) 차심공직충겸운(次沈公直忠謙韻 : 공직(公直) 심충겸(沈忠謙)의 시를 차운하여) :
- ① 차운(次韻) :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을 참조 바람.
 - ② 심공직 충겸(沈公直忠謙) : 공직(公直) 심충겸(沈忠謙),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字)나 호(號)를 쓰고 이름을 뒤에 쓴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 a. 심충겸(沈忠謙 : 1545~1594)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靑松)이고, 자는 공직(公直)이며 호는 사양당(四養堂)이다. 서인의 영수인 의겸(義謙 : 1535~1587)의 아우이며 인순황후(仁順王后 : 明宗妃)의 동생이다. 홍문관 수찬·성균관 직강을 거쳐 예조좌랑이 되었다. 1575년 이조정랑에 천거되었으나 일찍이 그의 형인 의겸에 의해 이조정랑이 되지 못한 동인(東人) 김효원(金孝元 : 1532~1590)이 이조의 중요한 정랑(正郎)자리가 척신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반대를 제기함으로써 그 자리에 등용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서분당이 더욱 심하여졌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조참판 겸 비변사제조(備邊司提調)가 되어 선조를 호종하였고, 세자 호위의 명을 받아 왜적방비에 힘썼다. 1593년에 호조와 병조의 참판으로 군량미 조달에 공헌하였고, 이듬해 병조판서에 특진되었다. 그는 글씨에도 능했다. 1604년에 좌찬성·대제학에 추증되고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 청림군(靑林君)으로 추봉되었다. 저서로는 『사양당집(四養堂集)』이 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 2) ① 삼추(三秋) : 본 시에서는 ‘추계(秋季)의 세 번째 달, 즉 음력 9월’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고객(孤客) : 단신(單身)으로 객지에 머무는 사람
 - ③ 몽(夢) : 꿈(을 꾸다). (객지에서) 꿈을 꾸다
- 3) ① 풍우(風雨) : 바람 불고 비 내리다.
- ② 중양일(重陽日) : 중양절(重陽節) : 중구(重九) : 음력 9월 9일인 명절 명칭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21」 주석 3)의 ② ‘중양(重陽)’조항을 참조 바람.
- 4) ① 강호(江湖) : 옛날에 ‘사방각지를 유랑하는 것’을 가리켰다.
- ② 와병년(臥病年) : 와병하던 시기이다.
- 5) ① 고인(故人) : 본 시에서는 ‘옛 친구’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요(遙) : 멀다, 요원하다
 - ③ 주(住) : 살다, 거주하다
 - ④ 석(鳥) : 석로(鳥鹵 : 석로潟鹵 : 염밭 : 소금기가 있어 경작에 부적당한 땅). 이때의 ‘석(鳥)’은 ‘석(潟 : 개펄 : 조수가 드나들어 염분이 많이 섞인 땅)’과 통하는 자이다. 본 시에서는 ‘개펄부근’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6) ① 청(淸) : 청아(淸雅)하다
- ② 운(韻) : 잘 어울리는 소리, 정취, 운문(韻文)
 - ③ 사봉선(似逢仙) : 신선을 만난 것 같다.
- 7) ① 만파(滿把) : ‘일수(一手 : 한 손으로 혼자)’와 같은 말로서, ‘일인지력(一人之力)에 의지한다’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혼자서 (국화를) 재배하다.’로 번역한다.
- ② 동리국(東籬菊) :
 - a. 동리(東籬) : 동진(東晉)의 시인 도잠(陶潛 : 도연명陶淵明 : 365~427)의 시

「음주(飲酒)」의 제5수에,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다보니(采菊東籬下), 아득히 먼 곳에 남산이 보이네(悠然見南山).”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이 시를 보고 난 후에 사람들은 ‘동리(東籬)’란 말을 ‘국화를 심은 곳, 즉 국포(菊圃)’를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b. 국(菊) : 국화

8) ① 촌료(村醪) : 촌주(村酒 : 시골의 술, 막걸리를 이룸)

a. 촌(村) : 시골

b. 료(醪) : ‘탁주(濁酒)’를 가리킨다. 자세한 뜻은 앞의 「시21」의 주석 9)의 ① ‘료(醪)’ 조항을 참조 바람.

② 가(可) : 부합하다, 적합하다, 어울리다

③ 독(獨) : 특별히, 유독히

④ 현(賢) : 현량한 선비



시32. 세월에 은거하며 세월의 흐름이 몹시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 감개한 나머지,
두 수의 율시를 지어 내 마음을
표현한다 두 수

詩32. 歲暮潛居 念時序流邁 感慨之餘 以二律見意¹⁾ 二首
세 모 잠 거 념 시 서 유 매 감 개 지 여 이 이 율 전 의 이 수

其一 自悼²⁾
기 일 자 도

[1] 스스로 감상感傷에 젖어

明珠容易落泥塵³⁾,
명 주 용 이 낙 니 진

빛 고운 진주도
진흙땅에 떨어뜨리기 쉬운데,

枯木何緣更發春⁴⁾.
고 목 하 연 갱 발 춘

고목이야 뭘 근거로
다시 활기活氣 찾을 수 있으랴

縱有寸心時警惕⁵⁾,
종 유 촌 심 시 경惕

방종하여 걱정거리 생길까
이따금 경계해 왔지만,

不堪千累坐沈淪⁶⁾.
불 감 천 루 좌 침 룬

갖은 시름 감당 못하면서
공연히 생각에 잠기네.

深思器敗難成道⁷⁾,
심 사 기 패 난 성 도

깊이 생각해도 도량度量 못 미쳐
득도得道하기 어렵고,

絶恨才凡未近眞⁸⁾。
절 한 재 범 미 근 진

한恨은 품지 않았으나 자질 평범해
아직 선인仙人에 근접하지 못하네.

三十五年頭欲雪，
삼 십 오 년 두 욕 설

서른다섯 되고 보니 머리에
백설이 내리려하는데,

靜中料理獨傷神⁹⁾。
정 중 요 리 독 상 신

정좌靜坐하여 (만물) 이치 살피며
특별히 신경쓰네.

其二 呈伯氏¹⁰⁾
기 이 정 백 씨

[2] 형님께 올림

經訓昭昭開我人¹¹⁾，
경 훈 소 소 개 아 인

경서經書의 훈고訓誥 명쾌하여
자타自他를 다 일깨우는데,

片言隻字摠關身¹²⁾。
편 언 칙 자 총 관 신

그 간략한 말과 글이
늘 제게 영향을 미치네요.

誠能百讀又千讀¹³⁾，
성 능 백 독 우 천 독

정성들여 백 번 읽고
천 번도 읽을 수 있다면,

自有精神通鬼神¹⁴⁾。
자 유 정 신 통 귀 신

절로 정신이 깨어나서
귀신과도 통할 수 있겠지요.

勤似寶珠搜海底¹⁵⁾，
근 사 보 주 수 해 저

근면하면 진주 같은
보배도 해저에서 찾아낼 수 있고,

煥若白日騰秋旻¹⁶⁾。
환 약 백 일 등 추 민

(재질을) 빛내면 태양처럼
가을 하늘도 비출 수 있겠지요.

儒生事業斯爲美¹⁷⁾，
유 생 사 업 사 위 미

유생儒生의 학업연마
이런 자세를 훌륭하다 여기니,

然後方言席上珍¹⁸⁾。
연 후 방 언 석 상 진

그런 수행 후에야 비로소
'유학의 보배'라 할 수 있겠지요.

- 1) 세모잠거(歲暮潛居): 세모에 은거하며, 념시서유매(念時序流邁: 세월의 흐름이 몹시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 감개지여(感慨之餘: 감개한 나머지), 이이율견의(以二律見意: 두 수의 율시를 지어 내 마음을 표현한다):

****역주석:** 본 시 두 수는 1794년 정조어제(正祖御製)의 자료 속에 보이는 데, 이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거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문서 집성(古文書集成)』 16·하회풍산유씨편 시문류(詩文類)에 들어있다. 여기에는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에 기록된 것과는 다른 점이 몇 군데 보인다. ① 하회본 시제(詩題)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 자신 참으로 마음에 슬프다 여기는 것이 있어(而吾身極有大可傷嘆者)”라는 구절이 “념시서유매(念時序流邁)”와 “감개지여(感慨之餘)” 사이에 더 들어있다. ② 첫 번째 시인 「스스로를 애도함(自悼)」의 수련(首聯)의 출구(出句)에 네 번째 글자가 하회본에서는 ‘이(易)’로 되어있는데, 정조어제에는 ‘이(異)’로 나와 있다. 또한 그 대구(對句)의, 첫 번째 글자는 하회본에서는 ‘고(枯)’자로 되어있는데, 정조어제에서는 ‘고(姑)’로 나와 있다. ③ 두 번째 시인 「형님께 올림(呈伯氏)」이라는 시제(詩題)는 정조어제에서는 「문兄主(형님께 올림)」로 표기되어 있고, ‘경사(經史)’라는 두 글자가 더 첨가되어 있다. 위의 ①은 첨가된 구절이 있으면 내용이 더 상세하나, 없다고 하여도 ‘시제(詩題)’의 의미 전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는 어제본(御製本)의 ‘이(異)’와 ‘고(姑)’는 해당시어와 연결할 경우, 의미가 통순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발음이 동일하여, 이기(移記)하는 과정에서 오타(誤打)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③에서는 ‘백씨(伯氏)’와 ‘형주(兄主)’는 의미가 동일하니 문제될 것이 없고, 첨가된 ‘경사(經史)’ 역시, 두 번째 시는 바로 ‘경사(經史)’와 관련한 내용을 읊은 것이므로, 굳이 이를 첨가하지 않아도, 하자(何者)가 없다. 그러므로 본 시에서는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에 기재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① 세모(歲暮): 세말(歲末), 세밑, 설달그믐께
- ② 잠거(潛居): 잠거(潛居)로도 쓴다. 은거(隱居)하다
- ③ 시서(時序): 시간, 광음(光陰: 세월)
- ④ 유매(流邁): 유수(流水)같이 흘러가다, 세불가당(勢不可當: 세찬 기세를 막을 수 없음)이나 세월(시간)이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을 형용하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⑤ 감개(感慨): 어떤 감동이나 느낌이 마음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다.
- ⑥ 이률(二律): 두 수의 율시(律詩)
 - a. 율(律): 원래의 ‘율(律)’은 ‘시의 격률(格律)’을 이른다.
*격률(格律): ‘시·사·곡·부(詩詞曲賦)’등에 관한 자수(字數), 평측(平仄), 압운(押韻) 등 방면의 격식과 규율’을 이른다. 본 시에서의 ‘율’은 ‘율시(律詩)’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⑦ 견의(見意): 심의(心意: 마음)를 표시하다

- 2) 지도(自悼) : 스스로 감상(感傷)에 젖다. 스스로를 애도하다
- 3) ① 명주(明珠) : 광택이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珍珠). 빛이 고운 아름다운 구슬
 ② 용이(容易) : ...하기 쉽다
 ③ 낙나진(落泥塵) : 진토(塵土)에 (진흙땅에) 떨어뜨려 있다.
- 4) ① 고목(枯木) : 고목, 말라 죽은 나무
 ② 하연(何緣) : 무엇에 의거하여, 무엇을 근거로 하여
 ③ 갱발춘(更發春) : 다시 생기(生氣) 혹은 활기를 발동하게 하다
- 5) ① 종유촌심(縱有寸心) : 방종 하는 마음이 생길까 하여
 a. 종(縱) : 방종(放縱)하다
 b. 유(有) : 드러나다. 모종의 정황이 발생하다. 본 시에서는 ‘생기다’로 번역한다.
 c. 촌심(寸心) : 걱정거리, 시름, 심사(心事)
 ② 시(時) : 이따금
 ③ 경척(警惕) : 경계하다, 경계심(을 가지다)
- 6) ① 불감(不堪) : 감당할 수 없다.
 ② 천루(千累) : 갖은 우환(시름)
 a. 천(千) : ‘매우 많음’을 표시하는 말이다.
 b. 루(累) : 우환, 근심과 환난
 ③ 좌침륜(坐沈淪) : 공연히 생각에 잠기다.
 a. 좌(坐) : 공연히, 괜스레
 b. 침륜(沈淪) : 침륜(沉淪)으로도 쓴다.
 ○ 몰입하다, 몰두하다. 본 시에서는 ‘생각에 몰두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잠겼
 다’로 번역하다.
- 7) ① 심사(深思) : 깊이 생각하다.
 ② 기패(器敗) : 재능이 부족하다. 도량(度量 : 일을 알고 잘 다루는 품성)이 미치지 못
 하다.
 a. 기(器) : 도량(度量), 생각, 마음속, 포부
 b. 패(敗) : 쇠퇴하다, 시들다, 쇠락(衰落)하다. 본 시에서는 ‘미치지 못하다’로 번
 역한다.
 ③ 난성도(難成道) : 득도(得道)하기 어렵다
- 8) ① 절(絕) : 끊다. 본 시에서는 ‘품지 않다’로 번역한다.
 ② 한(恨) : 원한, 정한(情恨)
 ③ 재범(才凡) : 타고난 자질이 범상하다.
 ④ 미근진(未近眞) : 아직 선인(仙人)에 근접하지 못하다.
 a. 진(眞) : 옛날에 이른바 선인(仙人)을 말한다. 「설문(說文)·비수비 부(匕部)」
 에 “진眞은 선인仙人이 변형하여 등천하는 것이다(眞, 僊人變形登天也).”라
 고 풀이하였다.
- 9) ① 정중(靜中) : 정좌(靜坐)하는 가운데, 정좌 중에
 ☆도학에서의 정좌(靜坐)는 심신(心身)의 수렴(收斂)을 통해 의식의 각성(覺醒)
 을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본 수련법은 나의 의식이 대상에 대하여 발동하기
 이전인 ‘미발시(未發時)의 경(敬)’인 거경함양(居敬涵養)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거경성찰(居敬省察) 단계에서 궁리(窮理)[知]와 성의(誠意 : 정심正心)[行]를

제대로 하도록 하여 ‘지·행(知行)’을 병진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으로 쓰인다. (손병욱, 『퇴계 이황의 거경궁리 사상에서 본 靜坐修練의 위상』을 참조 바람)

☆이는 주돈이(周敦頤)의 주정(主靜)에서 시작하여 정호(程顥)에게 계승되었으며, 정호는 ‘흠으로 빛은 인형’처럼 종일토록 정좌하였고, 문생(門生)에게도 항상 정좌를 권했다고 한다. 주희는 이 정좌법을 스승 연평(延平)에게 배웠는데 훗날 단순히 정좌하는 것만으로는 변화하는 일상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동·정(動靜)을 관통하는 것으로서의 정이(程頤)의 ‘경(敬)’을 존심양성(存心養性)의 방법으로 강조하였다. (정은해, 『유교명상론』 253쪽 주석 1) 참조)

- ② 요리(料理): 천리(天理)를 세심히 살피다.
 - a. 료(料): 세심히 살피다
 - b. 리(理): 천리(天理)
- ③ 독(獨): 별나게, 특별히
- ④ 상신(傷神): 신경을 쓰다
- 10) 정백씨(呈伯氏): 형님께 올립니다.

****역주주석:**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16·하회풍산유씨편』에는 ‘정형주(呈兄主) 경사(經史)’로 수록되어 있다. 본 시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① 정(呈): 드리다, 올리다, 봉정(奉呈)하다
 - ② 백씨(伯氏): 만형. 본 시에서는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선생을 가리킨다.
- 11) ① 경훈(經訓): 경적(經籍: 경서經書) 내용과 이치의 해설, 경적의 훈고(訓誥: 자구字句의 해석)
 - ② 소소(昭昭): (소리, 말, 글 등이) 명쾌하고 생동적이다.
 - ③ 개이인(開我人): 나와 남(사람들)을 일깨우다.
- 12) ① 편언척자(片言隻字): 편언척어(片言隻語): 소량의 문자, 간단한 문장, 몇 마디 말
 - ② 총(摠): ‘총(總)’과 동자(同字)로서, 부사로 쓰였으며, 뜻은 ‘늘, 언제나, 반드시, 필히’이다.
 - ③ 관(關): 파급되다, 영향을 미치다
 - ④ 신(身): 나 자신, 자기. 본 시에서는 ‘서애 선생 자산’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13) 성능백독 우천독(誠能百讀又千讀: 정성들여 백 번 읽고 천 번도 읽을 수 있다면):

****역주주석:** 하회본(河回本) 『서애전서(西厓全書)』에서는 ‘우(又)’자가 ‘차(叉)’자로 인쇄되어 있다. 이는 인쇄과정에서의 오류인 것으로 보고 바로 잡는다.

 - ① 백독(百讀): ‘백번 읽는다’는 말인데, 반복해서 송독(誦讀)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a. 백(百): 개략적인 숫자로서 ‘많다’는 뜻이다.
 - ② 우천독(又千讀): 거듭하여 천 번도 읽다.
 - a. 우(又): 중복이나 계속을 표시하는 말로서, ‘또, 다시, 거듭’으로 해석된다.
 - b. 천독(千讀): ‘천 번 읽다’는 말로서, ‘반복하여 송독(誦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④ 천(千): 개략적인 숫자로서 ‘많다’는 뜻이다.
- 14) ① 자유(自有): 저절로 …이 있다. 본 시에서는 ‘절로 …이 살아나다 혹은 절로 …이

깨어나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정신(精神):

☆우주의 근원을 이루는 비물질적 실재(實在). 만물의 이성적인 근원력이라고 생각하는 절대적 정신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 마음이나 생각

☆사람의 의식, 곧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 또는 그런 작용을 말한다.

③ 통귀신(通鬼神): 귀신과 소통한다.

a. 통(通): 막힘이 없이 들고 나다

b. 귀신(鬼神):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혼백(魂魄)이라고도 칭한다.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정신에는 ‘혼’과 ‘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포괄되어 있다고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11」의 주석 16)의 ‘영혼(英魂)’과 ‘의백(毅魄)’의 조항을 참조 바람.

15) ① 근사보주(勤似寶珠): 근면함은 귀한 진주 같다.

② 수해저(搜海底): 해저에서 찾다.

16) ① 환(煥): 빛나다, 밝다. 본 시에서는 ‘재질(才質)을 빛내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약(若): …와 같다

③ 백일(白日): 태양, 햇빛

④ 등(騰): 빛을 뿌리다, 비추다, 섬사(閃射)하다

⑤ 추민(秋旻): 가을 하늘

17) ① 유생(儒生):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 유도(儒道)를 닦는 사람, 선비, 유사(儒士: 유학을 닦는 선비)로서 유가경전에 통달한 사람을 말한다.

② 사업(事業): 일, 하는 일. 본 시에서는 유생(儒生)이 유학을 연마하며 수신(修身)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사(斯): 지시대명사로서 ‘차(此: 이, 이것)’의 뜻이다

④ 위(爲): …로(…라고) 생각하다

⑤ 미(美): 좋다, 아름답다, 만족하다, 훌륭하다

18) ① 방언(方言): 비로소 말하다

a. 방(方): 비로소

② 석상진(席上珍): 석상지진(席上之珍): 유학의 보배

☆유자(儒者)의 훌륭하고 보배로운 덕행과 학문

☆덕행과 학문을 갖추고 등용을 기다리는 훌륭한 인물로, ‘석상(席上)’은 유학(儒學)의 별칭이기도 하다.

『예기(禮記)·유행(儒行: 유학자의 행실)』편에, “유학자儒學者는 석상席上의 진귀한 보배처럼 자신의 덕을 갈고 닦으면서 〈임금에〉 불러주기를 기다립니다(儒有席上之珍以待聘).”고 한테서 유래한다. 그리하여 ‘좌중坐中에서의 보배(席上之珍)’라는 이 말은 ‘유학자의 훌륭한 재탁’을 비유한 말이다.



시33. 봉원逢原 이안도李安道 공公이 부모님께
문안차 남쪽(고향)에 내려와 있는 증인데
〈내가〉 병증이라 외출을 할 수 없어
별리別離의 시로써 그 정회情懷를 읊어
본다

詩33. 李逢原安道 省覲南中 病未出別詩以寫懷¹⁾
이 봉 원 안 도 성 근 남 중 병 미 출 별 시 이 사 회

其一
기 일

[1]

悠悠遊宦同爲客²⁾,
유 유 유 환 동 위 객

머나먼 객지에서 벼슬하는
다 같은 과객이니,

黯黯羈愁各自知³⁾.
암 암 기 수 각 자 지

울울하게 밀려오는
나그네 시름 각자가 알지요.

天末白雲長入夢⁴⁾,
천 말 백 운 장 입 몽

하늘 끝의 백운白雲이
늘 꿈결에만 보이니,

不堪今日更臨歧⁵⁾.
불 감 금 일 갱 립 기

오늘은 참을 수 없어
다시 증별贈別의 시를 쓰네요.

其二
기 이

[2]

寒衾獨擁坐空廊⁶⁾,
한 금 독 움 좌 공 랑

찬 이불로 이 한 몸 감싸고
빈 방에 앉았는데,

白髮朝來箇箇長⁷⁾.
백 발 조 래 개 개 장

아침에 보니
백발은 울울이 더 성해졌네요.

行路正難須慎涉⁸⁾,
행 로 정 난 수 신 섭

인생행로 참으로 힘들지만
반드시 삼가며 다녀야하는데,

北風殘雪意涼涼⁹⁾.
북 풍 잔 설 의 랑 랑

잔설위로 불어오는
북풍에 마음이 쓸쓸하네요.

- 1) ① 이봉원 안도(李逢原安道) : 봉원(逢原) 이안도(李安道) :

****역지주석:** 성씨 다음에 자(字)나 호(號)를 쓰고 이름을 그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a. 이안도(李安道 : 1541~1584) : 조선 중기의 학자로 본관은 진성(眞城)이다. 자는 봉원(逢原)이고 호는 몽재(蒙齋)이며 이황(李滉 : 1501~1570)의 장손으로,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준(雋)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봉화금씨(奉化琴氏)로 훈도 재(梓)의 딸이다. 할아버지에게서 학문을 배워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퇴계문하의 명유(名儒)들과 교유하였다. 1561년(명종 16)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574년(선조 7) 이황의 적손이라 하여 음서(蔭敍 : 공신이나 전·현직의 당상관堂上官 자제를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에 채용하던 일 : 음관蔭官 : 남행관南行官)로 목청진참봉(穆淸殿參奉)에 임명되고, 그 뒤 저장부봉사(儲倉副奉事)와 상서원부직장(尙書院副直長)을 거쳐 사온직장(司醢直長)에 올랐다. 아버지의 병으로 귀향하였다가 상을 당한 뒤 다음해 44세로 죽었다. 예안의 동계서원(東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몽재문집(蒙齋文集)』 2권이 있다.

- ② 성근(省覲) : 부모나 기타 존장(尊長)께 문안드리다.

a. 성(省) : (부모나 존장의) 안부를 묻다, 찾아뵙다
b. 근(覲) : 회견(會見)하다, 배견(拜見)하다

- ③ 남중(南中) :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중이다.

a. 남(南) : (남쪽으로) 가다
b. 중(中) : 일부 한자가 된 명사다음에 붙이어 그 명사의 뜻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나타냄.

- ④ 병미출 별시이사회(病未出別詩以寫懷):
- a. 병(病): 병으로 앓는 가운데에 있다. 병중이다
 - b. 미출(未出): 아직 바깥출입을 못하다
 - c. 별시(別詩): 석별의 시, 이별의 시
 - d. 이(以): 후치사(後置詞)로 쓰여, ‘…로써’라는 뜻이다.
 - e. 사회(寫懷): 정회(情懷)를 읊다(짓다).
- 2) ① 유유(悠悠): 요원하다, 아득히 멀어(넓고 넓어) 끝이 보이지 않다. 본 시에서는 멀고 멀다는 뜻의 ‘먼먼’ 또는 ‘머나먼’으로 번역된다.
- ② 유흥(遊宦): ‘집을 떠나 객지에서 벼슬하는(관리가 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③ 동위객(同爲客): 다 같은 (동일한) 과객(過客)이다.
- 3) ① 암암(黯黯): 기가 꺾여 근심 걱정하는 모양, 속이 상해 시무룩하다. 본 시에서는 ‘울울(鬱鬱): 마음이 상쾌하지 않고 답답함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기수(羈愁): 기수(羈愁)로도 쓰며, 나그네의 근심(걱정)이라는 뜻이다.
- a. 기(羈): 객지에서 기거(寄居)하다, 객지에 머무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 4) ① 천말(天末): 하늘의 끝, 지극히 먼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② 장(長): 늘, 자주
- ③ 입몽(入夢): 꿈속에 나타나다, 꿈결에 보이다(들어오다)
- 5) ① 불감(不堪): 참을 수 없다.
- ② 갱임기(更臨歧): 다시 증별(贈別)의 시를 쓰다.
- a. 갱(更): 다시, 또
 - b. 임기(臨歧): 임기(臨歧)로도 쓴다. 본래는 ‘기로(歧路)에 직면하다’는 뜻이었
는데, 후에는 ‘증별(贈別: 멀리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시문詩文이나 예물)의 사
(辭)’, 즉 ‘증별지사(贈別之辭)’로도 많이 썼다.
- 6) ① 한금(寒衾): 얼음같이 찬 이불
- ② 독옹(獨擁): 혼자 (몸을) 감싸다.
- ③ 좌공랑(坐空廊): 빈 방에 앉아 있다.
- a. 랑(廊): 대청 주변의 방
- 7) ① 조래(朝來): 이른 아침, 새벽
- ② 개개장(箇箇長): 울울이 더 늘어나다
- a. 개개(箇箇): 매개(每個), 울울이
 - b. 장(長): 많다(많아지다), 늘어나다, 불어나다, 생기다
- 8) ① 행로(行路): 세상에서 살아 나아가는 길, 곧 인생행로를 말한다.
- ② 정난(正難): 참으로 고달프다
- ③ 수신십(須慎涉): 필히 삼가며 다녀야 한다.
- 9) ① 잔설(殘雪): 녹다가 남은 눈
- ② 의(意): 마음
- ③ 양망(涼涼): 적막하고 쓸쓸한 모양

****서애주석:** 와병중이라 시적정취가 소진된 때(病裏詩意掃盡), 창졸간에 쓴 표
현이어서(造次之言), 거칠고 촌스럽기 그지없다(荒陋甚矣), 오직 그 우의友誼
만을 취하여 읽어보기 바랄뿐이다(只望採其情). 그 후(무인년戊寅年: 1578, 서애
37세, 10월)에 홍문관 응교에 제수되고 응답을 하였는데(後來和教), 〈사실은

이미〉 정축년〈丁丑年 : 1577, 서애 36세에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모친께 문안드리기 위해〉에 남쪽으로 내려온 후에〈丁丑南至後〉, 서애는 와병하고 있었던 터라(西厓病), 한성漢城 동촌東村에 있는 벗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다(友書于漢城之東村), 시 두 수를 동봉함(二首).

*조차지언(造次之言) : 창졸간의 표현



시34. 극부克夫 서인원徐仁元 공公에게 부치다

詩34. 寄徐克夫仁元¹⁾ 二首
기 서 극 부 인 원 이 수

其一
기 일

[1]

仙界冷風吹石壇²⁾,
선 계 냉 풍 취 석 단

선경仙境에서 인 찬바람 석단石壇에
불어오는데,

桂花零落白雲寒³⁾.
계 화 영 락 백 운 한

계화桂花 꽃잎은 떨어지고
백운白雲은 적적하네.

遙怜宿客關心事⁴⁾,
요 련 숙 객 관 심 사

멀리서 객지의 나그네를 걱정하며
정회情懷를 읊다가,

聽盡城東玉漏殘⁵⁾.
청 진 성 동 옥 루 잔

성동城東에서 옥루玉漏의 종소리
여음餘音까지 다 들었네.

其二
기 이

[2]

來何容易去何難,
내 하 용 이 기 하 난

오는 것이 어찌 쉬웠으며
가는 겐들 얼마나 어렵겠나?

醉向江南一夢闌⁶⁾。
취향강남일몽난

취중에 강남이라고 갔더니
난간 옆에서의 일몽—夢이었네.

天際美人⁷⁾消息斷,
천제미인소식단

먼 하늘가 미인한테서 소식 단절되고
보니,

憶來時自倚闌干⁸⁾。
억래시자의난간

그리워서 나 자신 수시로
난간에 기대앉네.

- 1) 서극부 인원(徐克夫仁元) : 극부(克夫) 서인원(徐仁元),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字)나 호(號)를 쓰고 이름을 그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서인원(徐仁元 : 1544~1604) : 이름은 인원(仁元), 자(字)는 극부(克夫), 호(號)는 명암(鳴巖)이고, 본관은 이천(利川)이다. 명종 19년(1564) 사마시(司馬試)에 서애와 동방(同榜)으로 합격하였다. 단양(丹陽)·금화(金化)·부여(扶餘)·춘천(春川) 등지에 부·목·군·현(府牧郡縣)을 두루 역임했으며 갑자사마시(甲子司馬試)에 급제하여 학행(學行 : 학문과 덕행)으로 이름이 났다. 임인년(壬寅年 : 1602, 선조 35년)에 호조참의가 되고 원주부사를 거쳐서 그 이듬해인 계묘년(癸卯年 : 1603)에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갑진년(甲辰年 : 1604)에 벼슬을 그만두고 명암촌(鳴巖村)으로 퇴거하니 지금의 봉명면(鳳鳴面) 및 조양리(朝陽里)이다. 일찍이 춘천에 있을 때, 명암의 수석(水石)의 아름다움을 취하여 조그마한 정사(精舍)를 짓고 전약재(傳約齋)라고 현판을 부치고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성리학(性理學)을 깨우치는 근원을 만들었다. 관직 생활 중에 청렴했으며 평소에 인의(仁義)에 힘썼다고 한다.

- 2) ① 선계(仙界) :仙境(仙境). 선인(仙人 : 신선. 전설상의 불로장생하고 종종神通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생활하는 곳. 전(轉)하여, 경물(景物)이 극히 아름다운 곳을 비유한 말이다. 본 시에서는 극부 서인원 공의 근무지인 강원도를 비유한 말로 쓰였다.
② 취석단(吹石壇) : 석단(石壇)에 바람이 불다
3) ① 계화(桂花) : 계화(桂華)로도 쓴다. 본 시에서 ‘계화(桂花)’는 ‘계수나무의 꽃’을 말하나, 일반적으로 ‘계수나무’를 칭한다. 계수나무는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엽관목(常綠葉灌木)이다. 학술명은 목서(木犀 : Osmanthus fragrans Lour.)이다. 잎은 마주나고 긴 타원형 또는 넓은 피침형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자리에 잔 톱니가 있거나 밋밋하다. 꽃은 10월에 피고 황백색으로 잎겨드랑이에 모여 달리며 금목서(金木犀)보다 향기가 약하다. 열매는 핵과(核果)로 다음 해 5월에 익고 타원형이며 길이 2cm 정도이고 털이 있다. 중국이 원산지이며 학명은 Osmanthus fragrans이다. 이는 꽃나무로, 그 향이 무척 향기롭고 강해 만 리까지 퍼진다 해서 영남 지역 외 일부 지역에서는 금목서(金木犀), 은목서(銀木犀)를 통틀어 만리향이라고도 한다. 꽃이 귀한 늦가을에 피는 덕에 옛날엔 사랑

채 앞에 심고 선비의 꽃이라 부르며 사랑받기도 했다. (뒤의 「시94」의 주석 6)의 ① ‘계수(桂樹)’조항을 참조 바람)

② 영락(零落): (초목, 꽃잎이) 시들어 떨어지다

③ 백운한(白雲寒): 백운이 쓸쓸하다, 백운이 적적하다

- 4) 요련숙객 관심사(遙怜宿客關心事: 멀리서 객지의 나그네를 걱정하며 정회情懷를 읊다가)

****역주석:** 본 시에서의 ‘관심사(關心事)’는 서극부 공의 관직에 대한 서애의 걱정을 표현한 것이다. 즉 임인년(壬寅年: 1602, 선조 35, 서애 61세)에 서애가 서극부(徐克夫)에게 회답한 편지에 보면, “요즈음 우연히 조보朝報를 보았더니, 주상의 의사가 관찰시觀察使의 임무를 맡기시고자 한다는데, 매우 특이한 은총입니다. 다만 신하된 자가 임금의 은혜를 입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내가 일찍이 겪었던 바와 같습니다(頃日 偶見朝報, 天意欲處以方面之任, 尤是異恩. 但人臣受恩非難, 而報恩爲難, 此鄙人曾所折臂者).”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본 시의 작시(作詩) 시기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서애전서(西厓全書)·본집(本集)·서(書)·답徐克夫(壬寅)』 참조) 서인원(徐仁元)은 1603년 11월 7일에서 1604년 10월 1일까지 강원도 관찰사로 재임(在任)하였다.

① 요련(遙怜): 멀리서 연민하다, 멀리서 걱정하다

a. 요(遙): 멀리서

b. 련(怜): 기본 의미는 ‘불쌍히(가엾게) 여기다, 가여이 여기다’인데, 본 시에서는 ‘걱정하다’로 번역한다. 그 이유는 다음의 역주석을 참조 바람.

② 숙객(宿客): 투숙(投宿)한 여객(旅客) 나그네. 여기서 ‘여객(旅客)’은 극부(克夫) 서인원(徐仁元)을 가리킨다.

③ 관심사(關心事): 정회(情懷)를 읊다.

- 5) ① 청진(聽盡): (옥루에서 울리는 종소리의 여음餘音이 사라질 때까지) 다 듣다, 곧 밤을 꼬박 새웠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a. 청(聽): 듣다

b. 진(盡): ‘청(聽)’의 결과보어로 쓰였으며, 이는 ‘다하다, 전부 다 쓰다, 모두 사용하다’의 뜻이므로, ‘청진(聽盡)’은 ‘끝까지 다 들었다’는 의미이다.

② 성동(城東): 이는 화자의 거처지가 한성(漢城)의 동쪽 지역임을 가리킨다.

③ 옥루(玉漏): 옛날에 시간을 재던 물시계로, 이는 밤 시각을 재던 기구(器具)이다. 조선시대에는 오늘 날과 같은 시계가 없었으므로, 밤에는 물시계로 낮에는 해시계로 시각을 재었다. 이 ‘옥루(玉漏)’란, 그 밑바닥에 작은 구멍 한 개를 뚫어놓고 일정량의 물을 담은 누호(漏壺)에 부표(浮漂)인 각도전(刻度箭: 물시계의 눈금 바늘)을 세워놓고는 물이 빠져나간 양만큼 각도전이 들어나는 것을 계산하여 흘러간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器具)이다. 이 때, 그 도수(度數)에 의거하여 시간을 계산해서, 북을 쳐 시각을 알렸다.

조선시대에는 1438년(세종 20)에, 장영실(蔣英實: 1390~?)이 만든 천상(天象) 자동물시계가 있다. 이 시계를 또한 옥루(玉漏)라고 하는데, 이는 경복궁 천추전(千秋殿) 서쪽에 흠경각(欽敬閣)을 지어 설치하였다. 이는 물이 흘러 자동으로 움직이는 천문시계로 옥녀(玉女) 넷과 방위신 넷이 시각에 정확히 맞게 움직이고

다른 인형이 때에 맞춰 종이나 북 또는 징을 쳐 시각을 알렸다. 이의 구조는 김
돈(金墩)이 쓴 「흙경각기(欽敬閣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본 시에서 ‘옥
루(玉漏)’는 옥루에서 울리는 북소리 또는 종소리 또는 징소리를 가리키는 뜻으
로 쓰였다.

- ④ 잔(殘): 기본의미는 ‘잔존(殘存)하다 혹은 남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옥루(玉
漏)의 여음(餘音)’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6) 일몽난(一夢闌): 난간 옆에서 꾸 한바탕의 꿈이었다.
- 7) ① 천제(天際): 천변(天邊): 하늘 가, 하늘의 끝
② 미인(美人): 품덕이 좋은 사람을 비유한 말. 본 시에서는 인원(仁元) 서극부(徐
克夫)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8) ① 억(憶): 그리워하다
② 래(來): 조사(助詞)로 쓰였으며, 의미 없이 어조를 고르게 하는 용도로 쓰였다.
③ 시(時): 수시로, 때때로, 늘, 자주
④ 자(自): 나 자신
⑤ 의난간(倚闌干): 난간에 기대다. 본 시에서는 ‘난간에 기대앉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시35. 무인년(戊寅年: 1578년: 선조 11년, 서애 37세) 겨울,
서부 지방에 갈 때,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
공공의 별세 소식을 처음으로 듣고,
삼가 (애도의) 감정을 글로 표현한다

詩35. 戊寅冬 西行時 初聞靑蓮公訃 有作情見于辭¹⁾
무인동 서행시 초문청련공부 유작정현우사

望裏南雲駐²⁾,
망 리 남 운 주

바라보는 남녘 하늘엔
구름이 머물러 있는데,

愁邊北路長³⁾。
수 변 북 로 장

시름 속에서 북방의 노정(路程)
멀게만 느껴지네요.

如何搖落後⁴⁾,
여 하 요 락 후

어째서 초목의 잎 시들어
떨어진 후인데도,

又此逆旅傍⁵⁾。
우 차 역 여 방

(저는) 또다시 이곳 객사(客舍)에
머물러야 하는지요!

水闊琴臺小⁶⁾,
수 활 금 대 소

하류(河流)의 강폭은 넓은데
(이공(李公의) 묘소는) 협소(狹小)하니,

天寒劍石荒⁷⁾。
천 한 검 석 황

날씨 한랭한데 암석(암석) 푸고 있을
그 모습 황량하리다.

年來歌殄瘁⁸⁾,
연 레 가 진 채

은년 이래 생기 없는
시기詩歌 읊고 있는데,

世事劇茫茫⁹⁾.
세 사 극 망 망

세상사는 지극히 번잡하고도
번잡하네요.

-
- 1) ① 무인동(戊寅冬) : 무인년(戊寅年 : 1578 : 선조 11년, 서에 37세) 겨울
② 청련공부(靑蓮公訃) :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 공(公)의 별세를 알린다.
a. 청련(靑蓮) : 이후백(李後白)의 호(號)이다.
○ 이후백(李後白 : 1520~1578) :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계진(季眞), 호는 청련(靑蓮)이다. 관찰사 숙함(淑咸)의 증손으로, 현감 원례(元禮)의 손자이며 국형(國衡)의 아들이다. 또한 서에 선생 조모(祖母)의 종질(從姪)이기도 하다. 1535년(중종 30) 향시(鄕試)에 장원(壯元)하고 곧 상경하여 의중(宜中) 이의건(李義健 : 1533~1621) · 고죽(孤竹) 최경창(崔慶昌 : 1539~1583) ·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 1537~1582) 등에게서 배웠다. 1546년(명종 1)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55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兵科)로 급제하여 승문원 주서(承文院 注書)를 거쳐, 1558년 승문원 박사(博士)로 사가독서(賜暇讀書) 하였다. 그 뒤 전한(典翰)이 되고, 이어 시강원 설서(侍講院 說書) · 사서(司書) · 정언(正言) · 사간(司諫) · 병조좌랑(兵曹佐郎 : 병조의 정5품 벼슬) · 이조정랑(吏曹正郎) 등을 역임했다. 1567년(선조 즉위년)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명나라 사신을 맞았고, 그 해에 동부승지(同副承旨)에 발탁되었으며, 이어 대사간(大司諫) · 병조참의(兵曹參議)를 거쳐 도승지(都承)를 역임하였다. 1569년(선조 2년)에는 이후백이 정사(正使)가 되어 연경(燕京)에 가다. 이때 서에 선생이 28세의 나이로 성절사 서장관 겸 사헌부 감찰(聖節使書狀官兼司憲府監察)로 따라갔다. (『서에연보』에 의한 역사 주석 추가) 1571년 예조참의(禮曹參議) ·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역임했으며, 1573년 변무사(辨誣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74년 형조판서(刑曹判書)가 되고 다음 해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그 뒤 이조판서(吏曹判書)와 양관(兩館)의 제학(提學)을 지내고,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있을 때에 휴가를 얻어 함안(咸安)에 성묘를 갔다가 그곳에서 타계하였다. 청백리(淸白吏)에 선발 기록되었고, 앞서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1590년 광국공신(光國功臣) 2등으로 연양군(延陽君)에 추봉되었다. 문장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사림(士林)의 추앙을 받았다. 함안의 문회서원(文會書院)에 제향(祭享)되었고, 저서로는 『청련집(靑蓮集)』이 있다.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b. 부(訃) : 상(喪)을 당했음을 알린다, 사망을 알린다
③ 유(有) : 동사 앞에서 '겪은'을 표시하는 말로 쓰였다. '삼가'로 번역한다.

- ④ 작(作): 글을 쓰다
- ⑤ 정현우사(情見于辭): (슬픈) 감정을 글로 표현하다.
- 2) 망리 남운주(望裏南雲駐: 바라보는 남녘 하늘엔 구름이 머물러 있는데):
- **역지주석:** 본 시구는 서애가 타향에서(西行時)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 공의 별세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그리움을 ‘망운지정(望雲之情)’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서애연보」에는 본 시와 관련한 직접적인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주석 1)의 ② ‘이후백’ 조항을 보면,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재직시에 휴가를 얻어 경남 중남부에 위치한 ‘함안(咸安)’에 성묘를 갔다가 그곳에서 타계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또한 이후백 공은 서애 조모의 종질이기도 하거니와 서애가 28세 때 성절사(聖節使)의 일원으로 서장관 겸 사헌부 감찰(聖節使書狀官兼司憲府監察)로 정사(正使) 이후백을 수행하기도 했었다. 그러므로 청련 이후백 공은 서애와는 12년이나 연장자인 인척(姻戚)인 동시에 사도(仕途)에서도 상하관계였던 것이다. 줄역 『국역 류성룡 시 Ⅲ』에 수록된 「시22」의 시 「만이청련(輓李靑蓮)」은 바로 청련 이후백 공의 타계를 애도한 만사(輓詞)이니, 이것도 참조 바란다.
- ① 망리(望裏): 바라보는 쪽
- ② 남운주(南雲駐): 남쪽 하늘 구름이 머무는 곳
- a. 남운(南雲): 남쪽으로 흘러가는 구름, 남쪽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이 뜻은 사친(思親)을 기탁(寄託)한 뜻으로 쓰거나, 회향(懷鄉)의 정을 기탁한 뜻으로 자주 쓰인다. 본 시에서는 이후백 공에 대한 정(情)을 비유한 뜻으로 쓰였다.
- b. 주(駐): 머무르다
- 3) ① 수변(愁邊): 시름 속에
- **역지주석:** ‘수(愁)’라는 감정이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변(邊)’이 추가되어 ‘수삼’이라는 감정을 장소화 시켰다. ‘시름 속’이라고 번역한다.
- a. 수(愁): 시름
- b. 변(邊): 모퉁이, 구석
- ② 북로장(北路長): 북방지역으로 가는 길이 멀다.
- 4) ① 여하(如何): 왜, 어째서
- ② 요락(搖落): (초목의 잎과 꽃이) 시들어 떨어지다. 본 시에서는 이후백 공의 별세를 비유한 뜻으로 쓰였다.
- 5) ① 우차(又此): 다시 이곳
- ② 역려방(逆旅傍): 객사에 의탁하여 머물다.
- a. 역려(逆旅):
- 객사(客舍), 여관.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객지에 머물다. 이 뜻으로는 ‘인생이 총거단축(恩遽短促: 삶이 분주하고 시간이 촉박함)하다는 것’을 비유한 말로 자주 쓰인다.
- b. 방(傍): 의탁하다. 본 시에서는 ‘머무르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6) ① 수활(水闊): 하류(河流)의 강폭은 넓다.
- ② 금대소(琴臺小): 묘소는 협소하다.
- a. 금대(琴臺): 거문고를 연주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대(臺: 높고 평평한 건축물: 단壇)이다. 본 시에서는 묘지를 비유한 미칭(美稱)으로 쓰였다.
- 7) ① 천한(天寒): 날씨가 한랭하다.

- ② 검(劍) : 감싸다, 품다, 안다. 즉 본 시에서는 ‘협(挾) 또는 포(抱)’의 뜻으로 쓰였으며, 묘지가 위치한 형상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석(石) : 암석
- ④ 황(荒) : 황량하다
- 8) ① 연래(年來) : 근년(近年 : 요 몇 해) 이래, 혹은 일 년 이래
- ② 가(歌) : 시가를 짓다
- ③ 진체(殄瘁) : 진체(盡瘁) 또는 진체(殄賴)로도 쓰며, ‘병들어 시들다, (꽃·잎이) 시들어 떨어지다(마르다), 메말라 있다(생기가 없다)’는 뜻으로 쓰였다.
- 9) 극망망(極茫茫) : 지극히 번잡하고 번잡하다.
- a. 극(劇) : 심히, 극히
- b. 망망(茫茫) : 번잡하다, 매우 많다



시36. 독서

詩36. 讀書 독서

管寧一榻穿將盡¹⁾,
관녕일타천장진

관녕(管寧)은 걸상에만 앉아 있어
구멍이 뚫릴 지경이었고,

董子三年不窺園²⁾.
동자삼년불규원

동중서(董仲舒)는 삼년간 자택 정원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는.

欲了人間一大事³⁾,
욕료인간일대사

인간사회 이해하려는 것은
하나의 증대사이니,

工夫須向此中論⁴⁾.
공부수향차중론

공부하며 필히 향할 곳은
이런 가치 있는 연구일세.

- 1) 관녕일타(管寧一榻): 관녕(管寧)이 앉던 것과 같은 걸상. 본 시에서는 ‘관녕타(管寧榻)’으로 축약하여 번역한다.

*관녕타(管寧榻): 관녕이 앉던 걸상. 서진(西晉)의 학자 황보밀(皇甫謐: 215~282)이 편집한 『고사전(高士傳)·관녕(管寧)』편에, “〈관녕은〉 늘 하나의 걸상에 앉았는데(常坐一木榻上), 55년 동안 한 번도 다리를 뻗고 앉은 적이 없었기로(積五十五年未嘗箕踞), 걸상에 〈꿇어앉았던〉 무릎이 닿은 부분이 완전히 뚫어졌다(榻上當膝皆穿).”고 한 대목이 있다. 이 말은 훗날, ‘행사단정(行事端正: 일을 함에 단정함)’의 전고(典故)로 썼다.

- a. 관녕(管寧: 158~241): 삼국시대 위(魏)나라 북해군(北海郡) 주허현(朱虛縣),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임구현(臨朐縣) 사람으로, 자는 유안(幼安)이며 춘추

시대 제(齊)나라 재상 관중(管仲: ?~BC 645)의 후손이다. 어려서 고아가 되어 어렵게 공부했고, 여러 번 조정의 부름이 있었지만 끝내 나가지 않았다. 화흠(華歆: 화자어華子魚: 생몰년 미상)과 병원(邴原: 생몰년 미상) 등이 모두 친근한 벗으로 가깝게 지냈다. 남조시대(南祖時代) 송(宋)나라 학자 유의경(劉義慶: 403~444)이 편집한 『세설신어(世說新語)·덕행편(德行篇)』를 살펴보면, “또 일찍이 한 번은 〈화흠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책을 읽고 있던 중에(又嘗同席讀書), 멋진 마차를 타고 면류관을 쓴 채 지나가는 고관대작이 있었는데(有乘軒冕過門者), 그때 관녕은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지만(寧讀書如故), 화흠은 책을 덮고 나가서 구경했다(歆廢書出看). 그러자 관녕은 같이 쓰던 방식을 갈라 따로 앉으면서 말하기를(寧割席分坐曰): ‘자네는 〈이제〉 내 친구가 아닐세(子非吾友也).’”라고 한 대목이 있다. 이 고사에서 나온 “관녕할석(管寧割席)”이란 말은, 후세에 ‘자동도합(志同道合: 서로의 뜻이 같고 신념이 일치함)하지 않으면 벗이 될 수 없다’는 전고로 쓴 것으로 유명하다. 후한 말에 관녕은 전란을 피해 요동(遼東) 땅에 가서 30여년을 살았는데, 평상에 꿰어앉아 글을 읽어 무릎에 닿은 상(床)의 바닥이 뚫어졌다고 한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중에 귀향했다. 위문제(魏文帝) 황초년간(黃初年間: 220~226)에 태중대부(太中大夫)로 초빙되고, 명제(明帝) 때는 광록훈(光祿勳)으로 불렸지만, 모두 나가지 않았다. 제왕(齊王) 조방(曹芳) 정시년간(正始年間: 240~248) 초에 조정에서 정중하게 안거(安車)와 포륜(蒲輪)을 보내 초빙했지만, 때마침 그는 죽었다. 저서에 『씨성론(氏姓論)』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b. 일(一): 부사로 쓰여, ‘오직, 오로지, 단지’의 뜻을 지닌다.

c. 탐(榻): 조금 좁고 길며 비교적 낮은 탐상(榻床: 걸상과 와상臥床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 ‘탐(榻)’은 걸상과 침상의 겸용으로 쓰는 가구이다. 본 시에서는 ‘걸상의 용도로 쓴 것’을 가리키며, 구문 상으로는 명사에서 동사로 전환되어 쓰였다.

① 천장진(穿將盡): 구멍이 뚫릴 지경이다.

a. 천(穿): 구멍이 뚫어지다

b. 장(將): 동사인 ‘천(穿)’과 방향보어인 ‘진(盡)’의 가운데 쓰여, 동작의 시작이나 지속을 나타내는 조사(助詞)의 역할을 하고 있다.

c. 진(盡): 극치에 달하다, 최고에 달하다. 본 시에서는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하여 독서하는 것’을 가리키는 보어로 쓰였다.

2) ① 동자(董子): 동중서(董仲舒)를 가리킨다.

☆동중서(董仲舒: BC 179?~BC 104): 전한(前漢)의 유학자로, 호는 계암자(桂巖子)이다. 그는 신도국(信都國) 광천현(廣川縣: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경현景縣 광천진廣川鎮, 대동고장촌大董故庄村) 출신이다. 젊어서 『춘추(春秋)』를 연구했으며, 경제(景帝) 재위시기에 박사가 되었다.

무제(武帝)가 즉위하면서 인재를 구하고자 현량대책(賢良對策: 덕과 재능이 갖추어진 훌륭한 선비를 임용하는 대책)을 건의하자, 동중서는 백가(百家: 제자백가諸子百: 선진시대先秦時代부터 한漢나라 초엽까지 학술사상의 각종 유파流派의 총칭)를 배척하고 오로지 유학(儒學)만 존치할 것을 주장하여 그것이 무제(武帝)에게 채택(採納)되었다. 이로써 유학이 2천여 년 동안 정통학술(正統學術)의 위치

를 확보한 발단이 되었다. 그의 학문은 유학을 중심체계로 삼은 다음, 여기에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이론을 혼입(混入)하여 “천인감응(天人感應)”의 신학적 체계를 형성하였다. ‘천인감응’은 천의(天意)와 인사(人事)가 교감하고 상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하늘이 인간사(人間事)에 간여하여 재앙의 조짐을 예시(豫示)할 수 있으며, 사람의 행위도 능히 하늘을 감동시켜 이에 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천의(天意)와 인간사(人間事)를 부합시켜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의 도리는 모두 천의(天意)에서 나온다고 하여, “하늘이 변하지 않으면, 인간의 도리 역시 변하지 않는다(天不變, 道亦不變, 道亦不變).”고 주장하였다. 저서에 『동자문집(董子文集)』 외에 『춘추번로(春秋繁露)』 등이 있다.

- ② **삼년 불규원(三年不窺園)**: 삼년동안 자택의 정원을 관상(觀賞)하지 않다. 이는 학문에 대한 동중서의 태도가 얼마나 진지했단가를 나타낸 말이다. 『사기(史記)·유림열전(儒林列傳)』에 보면, “장막을 쳐놓고 강론하고 암송하였는데(下帷講誦), 제자들은 입문한지 오래된 순서대로 서로 수업하는 방법으로써 전수하였으므로(弟子傳以久次相受業), 어떤 제자는 스승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였고(或莫見其面), 동중서는 3년 동안 자택의 정원을 관상(觀賞)하지 않을 정도로(蓋三年董仲舒不觀于舍園), 전심전력을 기울였다(其精如此).”라는 기록이 보인다.
- 3) ① **욕(欲)**: 조동사로, ‘…하고 싶어 하다’는 뜻이다.
 ② **료(了)**: 본동사로, ‘이해하다, 분명히 알다’의 의미이다.
 ③ **인간(人間)**: 인간 사회
 ④ **일대사(一大事)**: 중대한 일, 아주 큰 일
- 4) ① **공부수향(工夫須向)**: 공부하며 반드시 향할 곳
 ② **차중론(此中論)**: 이런 가치 있는 연구
 a. **차(此)**: 이와 같이, 여차(如此)하계, 이처럼, 이런. 본 시에서는 ‘인간사를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중(中)**: …할 만한 가치가 있다
 c. **론(論)**: 연구하다

시37. 미숙 허봉^{許篈}에게 부치다

詩37. 寄^기許^허美^미叔^숙篈^봉¹⁾



世事本多岐²⁾,
세사 본다기

세상사가 본래 갈림길이 많다더니,

吾生亦無住³⁾。
오생 역무주

내 생활 역시
한 곳에 머문 적이 없었네.

平生江海志⁴⁾,
평생 강해지

평생을 은거에 뜻을 두고 살았거늘,

歲晚紅塵路⁵⁾。
세만 홍진로

세밑인데도 거마車馬의
흙먼지 이는 노상에 있다네.

驅馬水中沚⁶⁾,
구마수중지

(때로는) 강물 가운데 모래섬으로
말을 몰아 달렸고,

繫船⁷⁾山上樹。
계선 산상수

(때로는) 산상의 수목에 배를 묶어
두려고도 했다네.

人間行路難⁸⁾,
인간행로난

인간세상 사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데,

辛苦⁹⁾不可語。
신고 불가어

고생하며 괴로워도
말조차 할 수 없다네.

家鄉杳無極¹⁰⁾,
가 향 묘 무 극

(그래) 고향 땅 아득히 멀어
보이지 않는데,

落日迷雲□¹¹⁾。
낙 일 미 운

지는 해는 구름마저
□하여 미혹되게 하네.

有客¹²⁾在南方,
유 객 재 남 방

게다가 이 나그네 남방에서
머물고 있으니,

同心不同處¹³⁾。
동 심 부 동 처

신념은 같이하나 사는 곳은
각자가 다르네 그려.

昨者忽相見¹⁴⁾,
작 자 홀 상 견

지난번에 홀연히
우리 서로 만났을 적엔,

清論得披霧¹⁵⁾。
청 론 득 피 무

함께 나눈 청담清談에
머릿속 운무雲霧 걷어낼 수 있었지.

慇懃謝毛皮¹⁶⁾,
은 근 사 모 피

정의情意 은근하게
사례하는 것도 사양하며,

爛漫陳情素¹⁷⁾。
난 만 진 정 소

진지하게 털어놓은 그 내심은 소박했네.

□知別後思¹⁸⁾,
지 별 후 사

□을 알고 나서 작별 후에 걱정되어,

永日愁邊度¹⁹⁾。
영 일 수 변 도

여러 날을 수심의 언저리에서 지냈었네.

1) 기허미숙봉(寄許美叔筇): 미숙(美叔) 허봉(許筇)에게 부치다.

**역자주석: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字)나 호(號) 또는 직함을 먼저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① 허봉(許筇: 1551~1588):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본관은 양천(陽川)이고, 자는 미숙(美叔)이며, 호는 하곡(荷谷)이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겸(曄: 1517~1580)의 아들이며, 난설헌(蘭雪軒: 1563~1589)의 오빠이자 균(筠: 1569~

1618)의 형이다. 류희춘(柳希春 : 1513~1577)의 문인이다. 1568년(선조 1)에 생원과, 1572년에 친시문과(親試文科)에 병과로 급제했고, 이듬해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으며, 1574년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자청하여 명나라에 가서 기행문 「하곡조천기(荷谷朝天記)」를 썼다. 이듬해 이조좌랑이 되었고, 1577년 교리(郊理)가 되었으며, 1583년 창원부사를 역임했다. 그는 김효원(金孝元 : 1532~1590) 등과 동인의 선봉이 되어 서인들과 대립하였다. 1584년 병조판서 이이(李珣 : 1536~1584)의 직무상 과실을 들어 탄핵하였다가 종성(鍾城)에 유배되었고 이듬해 풀려났으나 정치에 뜻을 버리고 방랑생활을 하다 38세의 나이로 금강산에서 죽었다. 「조천기(朝天記 : 허봉이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기록한 사행일기使行日記)」에서 그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바, 뚜렷이 도통사상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성학집요(聖學輯要)』에 큰 관심을 두었고, 양명학(陽明學)으로 무장된 중국학자들과의 담론에서도 주체적 인식으로 그들의 논리를 배척하고 있다. 특히 시인으로 유명하였는데, 그의 시는 청신완려(淸新婉麗)하다는 평을 들었다. 저서로 『하곡집(荷谷集)』·『하곡수어(荷谷粹語)』, 편서로 『해동야언(海東野言)』·『이산잡술(伊山雜述)』 등이 있다.

- 2) 본다기(本多岐) : 본래 갈림길이 많다
 - ① 기(岐) : 갈림길
- 3) ① 생(生) : 생활, 작위(作爲)
 - ② 주(住) : 정류(停留)하다
- 4) 강해지(江海志) : 은거에 뜻을 두다.
 - ① 강해(江海) : 은사(隱士)의 거처를 가리키는 말인데,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은거(隱居)’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5) ① 세만(歲晩) : 연말, 세밑
 - ② 홍진로(紅塵路) : 거마(車馬)의 흙먼지가 일어나는 노상(路上)에 있다.
 - a. 홍진(紅塵) : 거마가 일으키는 흙먼지
- 6) ① 구마(驅馬) : 말을 몰아 달리다, 말을 몰다
 - ② 수중지(水中沚) : 강 가운데 있는 모래섬으로, 이는 강물 가운데에 있으므로 거리 상으로는 멀지 않지만 직접 이를 수 없는 곳임을 의미한다. (『시경(詩經)·진풍(秦風)·겸가(蒹葭)』를 참조 바람.)
 - a. 수중(水中) : 물의 가운데, 곧 강물의 중간을 말한다.
 - b. 지(沚) : 모래톱, 작은 섬
- 7) 계선(繫船) : 배를 매다
- 8) ① 인간(人間) : 사람이 사는 세상
 - ② 행로난(行路難) : 가는 길 곧 인생길이 어렵다(힘들다). 이것은 처세가 쉽지 않음을 비유한 말이다.
- 9) 신고(辛苦) : 고생(수고)하다, 고생스럽다, 수고롭다
- 10) ① 가향(家鄉) : 고향
 - ② 묘(杳) : 아득하다, 아득히 멀다
 - a. 무극(無極) : 무궁하다, 끝이 없다
- 11) 낙일 미운□(落日迷雲□) : 지는 해는 구름마저 □하여 미혹되게 하네) :
 - ① 낙일(落日) : 석양. 석양의 햇빛을 가리키기도 한다.

- ② 미운□(迷雲□):
 a. 미(迷): 분별력을 흐리게 하다, 도취시키다, 미혹시키다
 b. 운□(雲□):
- 12) 유객(有客): 게다가 이 사람은
 ① 유객(有客): 게다가 이 나그네는
 a. 유(有): ‘우(又: 또한, 게다가)’와 통하는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객(客):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겸양겸손을 표하는 칭호’의 뜻으로 쓰였다. ‘이 사람’으로 번역한다.
 **역자주석: 본 시에서의 ‘객(客)’은 ‘서애 자산’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으며, 그 상대방은 본 시를 받는 ‘허봉(許篈)’을 가리킨다.
- 13) 동심 부동처(同心不同處: 신념은 같이 하나 사는 곳은 각자가 다르네그려):
 **역자주석: 본 시의 이 구절은 1584년(서애 42세)에 서애는 모친을 찾아뵈러 안동에 머물 때이고, 허봉(許篈)은 이이(李珣)를 탄핵하다가 귀양 갔을 때의 사정을 읊은 것으로 보인다.
 ① 동심(同心): 서로 뜻이 같고 신념이 일치하다, 배짱이 맞다
 ② 부동처(不同處): 다른 곳에 거주하다.
- 14) ① 작자(作者): 전번, 지난 번, 일전(日前)
 a. 작(昨): 어제, 이전에, 과거에
 ② 홀상견(忽相見): 홀연히 만나다
- 15) ① 청론(淸論): 청아(淸雅: 명리名利를 떠난 맑고 고상한 이야기)한 언담(言談), 청담(淸談)
 ② 득(得): 조동사로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였다.
 ③ 피무(披霧): 피운무(披雲霧): 운무가 걷혀서 청천(靑天)을 볼 수 있다. 사람의 정신이 맑은 것을 비유한 말이다.
 a. 피(披): 분산하다, 흩어지다, 걷히다(걸어내다)
- 16) 은근 사모피(慇懃謝毛皮: 정의情意 은근하게 사레하는 것도 사양하며):
 **역자주석: 본 시의 상·하구는 미숙(美叔) 허봉(許篈)이 간쟁(諫爭) 사건에 연루되어 함경도로 귀양갔다가 돌아온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서애연보」 계미년(癸未年: 1583, 선조 16, 서애 42세) 10월 조항에 보면, 서애가 영의정 박순(朴淳)과 나눈 대화에서, “우리나라가 일찍이 간쟁한 일 때문에 연관을 처벌한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허봉(許篈) 등 세 사람이 죄는 가벼운데 처벌은 무거워 온 나라가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 대감께서는 해결책을 잘 생각하십시오.”라는 대목이 보인다. 당시 허봉은 선조 16년 9월에 박근원(朴謹元)·송응개(宋應溉) 등과 간쟁(諫爭) 사건에 연루되어 함경도 갑산(甲山)으로 귀양간 일이 있었다. 허봉은 1585년에 유배에서 풀려났다.
 ① 은근(慇懃): 은근(慇懃)으로도 쓰며, ‘은근하다, 정성스럽다, 정의(情意)가 간절하다’는 뜻이다.
 ② 사모피(謝毛皮): 인사치레 말인데도 (정중히) 사양하다.
 a. 사(謝): ‘사레하다, 보답하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사양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b. 모피(毛皮): ‘사양, 겸손, 허례, 인사치레 말’을 비유한 말이다.
 **역자주석: 본 시구의 ‘모피(毛皮)’는 「모피지부(毛皮之附)」라는 사자성어(四

字成語)에서 유래한 말로, ‘근본적인 일이나 중요한 일은 처리하지 않고 부차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비유하는 데 쓰고 있다. 이 성어(成語)는 『좌씨전(左氏傳)·희공 14년(僖公十四年)』 조항에 보이니 참조 바란다. 본 시에서는 아마도 유배에서 돌아온 허미숙을 만난 자리에서 그간에 겪은 고초에 대한 안부를 묻는 말을 본 성어에 빗대어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17) ① 난만(爛漫): ‘난만(爛漫)’으로도 쓰고, ‘난만(爛縵)’으로도 쓰며, 본 시에서는 ‘정감이 진지하고 솔직하다(시원시원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진정(陳情): 실정을 진술하고 청원하다. 충정(衷情: 내심)을 호소하다(털어놓다).
 ③ 소(素): 소박하다
- 18) □지 별후사(□知別後思: □ 알고 나서 작별 후에 걱정되어):
 ① □지(□知): …게(을) 알고 나서, …을 알기에
 ② 별후사(別後思): 작별 후에 생각이 나다, 작별 후에 걱정이 되다
 a. 사(思): 생각하다, 걱정하다
- 19) ① 영일(永日): 여러 날, 오랫동안
 ② 수(愁): 수심, 근심
 ③ 변(邊): 언저리, 변두리. 기타의 자세한 뜻은 앞의 「시35」, 주석 3)의 ① ‘수변(愁邊)’조항을 참조 바람.
 ④ 도(度): (시간을) 보내다, 지내다



시38. 경진년(庚辰年: 1580년: 서애 39세) 봄에

詩38. 庚辰春
경진춘

道人三笑虎溪傍¹⁾,
도인삼소호계방

도인道人 세 사람 (방금 건너온)
호계虎溪 옆에서 대소大笑하고는,

共起寒齋倚碧岡²⁾.
공기한재의벽강

(법사에게 작별의) 읊揖을 하고
한재寒齋를 떠나 벽강碧岡쪽에 이르렀네.

啼鳥落花春欲暮³⁾,
제조낙화춘욕모

새 지저귀고 꽃잎 지니
봄철도 저물어 가거늘,

山雲何日更徜徉⁴⁾.
산운하일경상양

산에 머문 저 구름도
어느 날 또 다시 두등실 배회하겠지?

- 1) ① 도인삼소(道人三笑): 도덕적 경지가 극히 높은 고사(高士)가 (도를 논하며) 대소(大笑)했던 곳. 이 고사(故事)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계삼소(虎溪三笑)’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호계삼소(虎溪三笑): ‘호계(虎溪: 범이 울부짖는 계곡이라고 해서 칭해진 명칭)에서 도(道)를 논하며 세 명의 고사(高士)가 대소(大笑)했던 곳’이라는 뜻의 이야기는 불문(佛門)의 전설이다. 호계(虎溪)는 ‘계곡명칭’으로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구강시(九江市) 남쪽의 여산(廬山)에 위치한 동림사(東林寺) 앞에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노장학(老莊學)에도 정통하였던 동진(東晉)의 승려 혜원법사(慧遠法師: 335~417)가 이곳에 거주하였는데, 그는 이 동림사에서 수도(修道)하며 일찍이 맹세하기를, ‘입산한 이상 불법(佛法)에 통달하기 전

에는 결코 다시 호계를 건너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어느 날 유가(儒家)의 시인 도연명(陶淵明: 도잠陶潛: 약 365~427년 추정)과 도교의 도사 육수정(陸修靜: 406~477)이 내방(來訪)하여 유·불·도의 분별경계를 넘어선 무심(無心)과 무위(無爲)의 도(道)를 논하며, 이들 세 사람은 서로의 뜻이 크게 통했다. 두 방문객이 돌아가려하자 배웅하는 길에도 논도(論道)를 하느라 정신이 팔려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수행(修行)을 마치기 전까지는 호계의 개울을 건너지 않겠다는 자기맹서도 잊고 말았다. 이 계곡을 건너면 언제나 호랑이가 포효(咆哮)했다. 세 사람은 대소(大笑)하며 헤어졌다. 후에 사람들은 이들 세 고사(高士)의 고사(故事)를 제재(題材)로 이곳에 ‘삼소정(三笑亭)’을 짓고, ‘호계삼소도(虎溪三笑圖: 삼소도三笑圖)’도 그렸다. 단, 그 그림은 이미 전해지지 않는다.

a. 도인(道人):

- 도덕적 경지가 극히 높은 사람
- 불교도(佛教徒), 승려
- 도교도(道教徒), 도사(道士). 본 시에서는 위의 세 가지 뜻을 다 포괄하는 뜻으로 쓰였다.

② 호계(虎溪): 위의 ‘호계삼소(虎溪三笑)’ 조항을 참조 바람.

③ 방(傍): 옆, 근처

2) ① 공기(共起): 작별의 읊(擷)을 하고 출발하다(떠나다).

- a. 공(共): 공(拱)의 본자(本字)이다. 왼손을 오른 손 위에 놓고 두 손을 마주 잡아,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예(禮)를 나타낸 시어(詩語)이다.
- b. 기(起): 가다, 걷다. 본 시에서는 ‘출발하다’의 뜻으로 쓰였으며, ‘떠나다’로 번역한다.

② 한재(寒齋): 적막한 재사(齋舍)

③ 의벽강(倚碧岡): 벽강 쪽에 이른다.

a. 의(倚): 다가가다, 근접하다. 본 시에서는 ‘이르다’로 번역하였다.

****역자주석:** 본 시의 위 두 구는 서애 선생이 ‘신유(神遊)하는 것’을 읊은 것이다.

3) 춘욕모(春欲暮): 봄이 곧 끝나가려 하다. 봄철이 저물어 가다.

① 묘(暮): 늦다, 끝이 가깝다. 본 시에서는 ‘끝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4) ① 산운(山雲): 산 중턱에 걸친 구름, 산상(山上)에 뜬 구름

② 하일(何日): 어느 날

③ 갱상양(更徜徉): 다시 한가로이 배회하다. 다시 두들실 한가롭게 배회할 것이다.

a. 갱(更): 다시, 또

b. 상양(徜徉): 편안하고 한가로운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시39. 무제 無題

詩39. 無題
무 제

其一
기 일

[1]

春深芳草滿江南¹⁾,
춘 심 방 초 만 강 남

봄기운 짙어져
방초芳草가 온 강남땅에 짙 깔려도,

抱病懷人兩不堪²⁾。
포 병 회 인 양 불 감

병 앓는 것과 사람 그리는
두 가지는 감내하기 어렵네.

萬事看來眞夢幻³⁾,
만 사 간 래 진 몽 환

만사를 보아하니
(인생은) 진실로 몽환인 것을,

十年何苦困青衫⁴⁾。
십 년 하 고통 끈 청 삼

십년이나 뒷 때문에
청삼靑衫 착용을 곤란해 했던고!

其二
기 이

[2]

少年辛苦辨危微⁵⁾,
소 년 신 고통 변 위 미

젊은 시절엔 인심人心의 위태함과
도심道心의 은미함을 분별하느라 고생했는데,

老隔眞源尙幾重⁶⁾.
노 격 진 원 상 기 중

늙어서는 도심의 근원 멀리할까
또 얼마나 주의하는가!

偶向高臺⁷⁾坐終日,
우 향 고 대 좌 종 일

때마침 누대에 올라 온종일 앉아있는데,

楊花無數度和風⁸⁾.
양 화 무 수 도 화 풍

넋버들 꽃이 무수히 춘풍에 날려
강 건너로 사라지네.

-
- 1) ① 춘심(春深): 봄기운이 짙어짐을 이르는 말이다.
② 방초(芳草): 향기롭고 꽃다운 풀, 향기 좋은 풀, 향초
- 2) ① 포병(抱病): 신병(身病)이 있다, 환병(患病: 병을 앓고 있음)하다
a. 포(抱): (가슴에) 품다, 가지다
② 회인(懷人): 멀리 간 사람을 그리워하다.
③ 불감(不堪):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 3) ① 간래(看來): 보건대, 보아하니, 보노라니
② 몽환(夢幻): 꿈과 환상, 몽환, 몽상. 본 시에서는 명사형 술어로 쓰였다.
- 4) ① 하고(何苦): 무엇 때문에, 무슨 고충이 있어서
② 곤청삼(困靑衫): 청삼(靑衫) 착용을 곤란해 하다.
*청삼(靑衫)은 조선시대에 조복(朝服) 안에 받쳐 입던 옷. 남색 바탕에 검은 빛
갈로 가를 꾸미고 큰 소매를 달았다.
- 5) ① 소년(少年): 젊은이, 젊은 시절, 청년시절
② 신고(辛苦): 고생스럽다, 수고롭다
③ 변위미(辨危微): (인심人心의) 위태함과 (도심道心の) 은미(隱微: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함)함을 분별하다.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에,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人
心惟危), 도심은 오로지 은미하기만 하니(道心惟微),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한결
같아야(惟精惟一), 진실로 그 중도를 잡으리라(允執厥中).”고 한 대목이 보인다.
a. 변(辨): 분별하다
b. 위(危): (인심人心은) 위태롭다
c. 미(微): 도심(道心)은 은미하다.
- 6) ① 노격진원(老隔眞源): 늙어서 본성[도심]의 근원을 멀리하다.
a. 격(隔): 간격을 두다, 멀리하다
b. 진원(眞源): 도심(道心)의 근원, 곧 하늘로부터 품부 받은 본연지성(本然之
性)을 말한다.
② 상(尙): 또한
③ 기(幾): 얼마나
④ 중(重): 주의하다, 조심하다
- 7) ① 우(偶): 우연히, 때마침, 공교롭게

- ② 향(向) : 가다
- ③ 고대(高臺) : 높게 건축한 누대
- 8) ① 양화(楊花) : 냇버들의 꽃
- ② 도(度) : ‘도(渡)’와 통하는 자로서 ‘강을 건너가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바람에 꽃잎이) 강 건너로 날려가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화풍(和風) : 온화한 바람, 주로 춘풍(春風)을 가리킨다.

시40. 백씨(伯氏)의 환조(還朝)를 봉별(奉別)하면서

詩40. 奉別伯氏還朝¹⁾
 봉 별 백 씨 환 조



碧樹²⁾蟬聲滿,
 벽 수 선 성 만

푸른 수목에는
 매미 우는 소리로 요란한데,

西關³⁾道路長。
 서 관 도 로 장

서도(西道)로 가실 길은
 아득히 멀기만 하네.

分携今日意⁴⁾,
 분 휴 금 일 의

헤어지는 게 오늘이란 걸
 예상은 했지만,

雙淚不禁滂⁵⁾。
 쌍 루 불 금 방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금할 길이 없네.

-
- 1) ① 봉별(奉別): 경사(敬詞)로서, ‘고별(告別)’과 같은 말이다. ‘윗사람과 헤어지다’는 뜻이다.
 ② 백씨(伯氏): 만형을 높여 이르는 말로서,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1539~1601) 선생을 가리킨다.
 ③ 환조(還朝): 조정으로 되돌아가다. 환조(還朝)하다.
 2) 벽수(碧樹): 푸른 수목
 3) 서관(西關): 서도(西道: 서로西路), 즉 황해도와 평안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본 시에서의 이 “서관(西關)”은 한성(漢城: 지금의 서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가 첫째, 본 시의 시제(詩題)가 “조정으로 돌아가시는 백씨를 봉별한다(奉別伯氏還朝).”고 했음이니, 환조(還朝)하면 도성(都城)으로 돌아감을 뜻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한성(漢城)은 경상도의 서북쪽에 위치하므로 경상도에서는 한성 쪽

을 서관(西關)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당시(1580년[庚辰年]) 겸암 류운룡 선생은 도산서원(陶山書院)에서 퇴계선생의 문집을 교정하다가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 왕명을 받들어 추국推鞠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의 종5품 벼슬)에 재배(再配)되어 환조(還朝) 중이었고, 서애 선생은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재직 중이었다. 겸암 공이 상경하는 길에 상주에 들러 동생을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 4) ① 분휴(分携) : 이별하며 손을 잡다.
 ② 의(意) : 예상하다
- 5) 불금방(不禁滂) :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시41. 남계정사南溪精舍 편액扁額

詩41. 南溪扁額¹⁾



魚鳥南溪怪篆痕²⁾,
어 조 남 계 괴 천 흔

남계南溪에는 물고기와 새 노닐고
기슭 암벽에 전서篆書 흔적 기묘한데,

碧簷金榜映朝暉³⁾.
벽 첨 금 방 영 조 혼

녹색 기와 처마 아래 금색 편액이
아침햇살에 빛나네.

仙家不許遊人識⁴⁾,
선 가 불 허 유 인 식

신선도 유람객이
이곳 감상感賞하는 것을 불허할지니,

琪樹千重鎖洞門⁵⁾.
기 수 천 중 쇠 동 문

왜나무가 겹겹이 동구 밖을 에워쌌네.

1) 남계편액(南溪扁額) : 남계정사(南溪精舍)의 편액

① 남계(南溪) : 남계정사(南溪精舍) :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이 정사(精舍) : 학문 연구와 정신 수양을 하던 곳으로, 곧 서당임)는 서애의 부친 관찰공(觀察公 :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 1515~1573)이 재실(齋室)을 지으려다 짓지 못하고 있다가 1581년(병술년, 선조 14, 서애 45세) 3월에 서애가 비로소 완성하였다. 서당의 위치는 경북 군위를 대북2리(서원리라고도 함)에 있는 산기슭(솔티)에 있다. 서애도 영의정 재직시에 여러 번 이곳에 와서 성묘도 하고 강학(講學)도 하였다. 당(堂)은 상로당(霜露堂), 재(齋)는 영모재(永慕齋)라 하여 재실로 삼고 동쪽에는 완심재(玩心齋), 연어헌(鰲魚軒)을 만들어 학생들을 거처하게 하고, 북쪽에는 삼정재(三靜齋)를 만들어 도사(道士)를 데려다가 거처케 하였다. 상로당 앞에는 애련당(愛蓮堂), 양어지(養魚池)가 있으며, 서쪽 산기슭 아래에는 바위 초은대

(招隱臺)가 있고, 동쪽 산기슭에는 바위 영귀대(詠歸臺)가 있다. 그 아래로 탄서천(歎逝川)과 의공계(倚筇溪)라 불리는 두 줄기의 냇물이 흐르는데, 이 두 줄기의 냇물을 합쳐 남계(南溪)라 하는 까닭에 남계정사(南溪精舍)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서애 사후에 1621년 후진들이 이 서당을 중수(重修)하여, 서애의 위패를 모시고 서원(書院)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훗날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서당으로 격하되었다. 그 후 6·25때 소실되었으나 후손들이 복원하였다. 현재 남계정사는 외삼문(外三門)과 중정당(中正堂)인 존성당(尊性堂), 내삼문(內三門)과 원사(院祠)인 경덕사(景德祠)가 있어서 밖에서 보면 높은 기와집 네 채가 한 줄로 서 있는 형국이다. 중정당 양쪽 방에는 수약재(守約齋)와 지지재(知止齋)라는 편액이 달려 있다. 원생들의 기숙사로 쓰이던 동서재(東西齋)는 소실(消失)되었다.

- ② 편액(扁額) : 종이나 비단 또는 널빤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써서 방안이나 문 위에 걸어놓는 현관(懸板)
- a. 편(扁) : 납작하다, 편평하고 얇다
- b. 액(額) : 액자(額子)로 문 위 또는 방안에 걸어놓은 현판이다.
- 2) ① 어조(魚鳥) :
- ☆물고기와 새는 자주 지목되는 은일(隱逸)의 경물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몽경(夢境) : 꿈속에서 겪은 정경(情景)을 가리킨다. 『장자(莊子)·大宗師篇(大宗師篇)』에, “예컨대 자네가 꿈속에서 새가 된 꿈을 꾸서 하늘을 선회하고(且汝夢爲鳥而屬乎天), 물고기가 된 꿈을 꾸서 심연深淵에 잠입潛入하는 것이다(夢爲魚而沒於淵).”고 한 대목이 있다.
- ② 남계(南溪) : 남계정사의 아래쪽에는 탄서천(歎逝川)과 의공계(倚筇溪)라 칭하는 두 줄기 하천이 있는데, 이 두 줄기의 냇물을 합칭하여 ‘남계(南溪)’라고 부른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주석 1)의 ① ‘남계(南溪)’ 조항을 참조 바란다.
- ③ 괴(怪) : 기이하다, 경이롭다. 본 시에서는 시적 정취를 감안하여 ‘기묘하다’로 번역한다.
- ④ 전흔(篆痕) : 전서체(篆書體)로 쓴 글씨의 흔적
- 3) ① 벽첨(碧簷) : 벽첨(碧檐) : 녹색의 처마이다. ‘유리와(琉璃瓦)’를 사용해서 건축한 기와집 처마를 말한다. ‘유리와(琉璃瓦)’란 고대 중국에서 제조한 기와로서 내부는 양질의 점토(粘土)를 쓰고, 표면은 유리를 녹여서 만든 것으로서, 그 형상은 보통 기와와 비슷하나 길이가 약간 더 길며, 외부는 대체로 녹색이나 황색으로 비치며 광채가 선명하게 빛나, 주로 궁전 지붕을 덮을 때 썼다. 본 시에서 이 ‘벽첨(碧簷)’이란 말을 쓴 것은 ‘조선식 기와집 처마의 미칭(美稱)’으로 쓴 것이다.
- ② 금방(金榜) : 금방(金榜)으로도 쓰며, 금색(金色)의 편액(匾額 : 편액扁額)이나 성명방(姓名榜)의 뜻으로 쓴다.
- ③ 영(映) : 비치다
- ④ 조돈(朝暾) :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이른 아침의 양광(陽光)을 가리키기도 한다.
- 4) ① 선가(仙家) : 선인(仙人)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② 유인식(遊人識) : 유람객이 (이곳을) 감상(感賞)하다.
- a. 식(識) : 상식(賞識)하다, 감상(感賞)하다

- 5) ① 기수(琪樹): 화나무: 기수는 화나무의 별칭이다. 화나무의 유의어에는, 괴목(槐木), 회화나무(槐花나무), 옥수(玉樹) 등이 있다.

☆화나무: 회화나무:

첫째, 이 나무는 악귀를 물리치는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8월에 흰색의 꽃을 피운다. 학명은 'Sophora japonicum'이다. 한자로는 괴화(槐花)나무로 표기하는데 발음은 중국발음과 유사한 회화로 부르게 되었다. 화나무를 뜻하는 한자인 '괴(槐)'자는 귀신과 나무를 합쳐서 만든 글자이다. 회화나무가 사람이 사는 집에 많이 심은 것은 잡귀를 물리치는 나무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궁궐의 마당이나 출입구 부근에 많이 심었다. 그리고 서원이나 향교 등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당에도 회화나무를 심어 악귀를 물리치는 염원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상은 『두산백과』 참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둘째, 이 나무를 중국 주(周)나라에서는 관직에 비유했다. 즉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를 삼공(三公)이라 부르고, 삼공을 '삼괴(三槐)'라 불렀다. 조선시대에 이러한 관례를 모방하여 삼괴정(三槐亭)과 같은 이름이 등장했다. 셋째, 이 나무는 흔히 '학자수(學者樹)'라 부른다. 이 나무의 기상이 학자의 기상처럼 자유롭게 뻗었을 뿐 아니라 주나라 사(士)의 무덤에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교 관련 유적지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회화나무를 볼 수 있다. (강관권 저, 세상을 바꾼 나무, 2011)

- ② 천중(千重): 여러 겹, 겹겹으로 (둘러싸다)
 ③ 쇠동문(鎖洞門): 동구(洞口) 밖을 에워싸다.



시42. 길옆의 난초

詩42. 路邊蘭 노 변 란

衰病那堪苦憶家¹⁾,
쇠 병 나 감 고 억 가

노쇠하여 병드니
간절한 집 생각 어찌 견딜 수 있겠나,

驛亭鞍馬送年華²⁾.
역 정 안 마 송 년 화

역정驛亭에서 말안장鞍裝 지우는데
(주변은) 송년送年하느라 떠들썩하네.

雲灘日暮³⁾行人少,
운 탄 일 모 행 인 소

운탄리雲灘里에서 날이 저물자
행인이 적어지는데,

風動蘭香處處花。
풍 동 난 향 처 처 화

바람 불자 난향이 풍겨 와서
곳곳이 난화蘭花로세.

-
- 1) ① 쇠병(衰病): 노쇠하여 생긴 병
 ② 나감(那堪): 어찌 견딜 수 있으랴(있겠나)
 ③ 고억가(苦憶家): 집이 그리워 괴롭다. 간절하게 집을 그리워하다.
 a. 고(苦): 부사로 쓰여, ‘매우, 간절하게’의 의미를 지닌다.
 b. 억(憶):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c. 가(家): 집, 가정
- 2) ① 역정(驛亭): 역참(驛站: 역마驛馬를 교대하던 곳)에 마련된 정자
 ② 안마(鞍馬): 말에 안장을 지우다
 ③ 송년화(送年華): 송년(送年)을 하느라 시끌시끌하다(떠들썩하다).
 a. 송년(送年): 묵은 한 해를 보냄

b. 화(華) : ‘화(譚)’와 통하는 자이며, ‘떠들썩하다, 시끌시끌하다’는 뜻이다.

3) 운탄일모(雲灘日暮) : 운탄리(雲灘里)에 당도하니 날이 저물다.

① 운탄(雲灘) : 본 시에서의 ‘운탄’은 ‘마을 이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운탄리(雲灘里) : 평안남도 덕천시 남양리 영역에 있던 옛 지명이다. 본래 덕천군 금성방의 지역으로서 마탄강의 구름안개 끼는 여울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운탄리라 하였는데, 1896년에 금성면 운탄리로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성양면 운탄리로 되었다가 1952년 군면리 대폐합에 따라 덕천군 수하리에 편입되면서 폐지되었다.

② 일모(日暮) : 날이 저물다



시43. 우증雨中에 남계정사南溪精舍의 여러 벗들에게 부치다

詩43. 雨中寄南溪諸友¹⁾
우 증 기 남 계 제 우

堂前一鑑月中明²⁾,
당 전 일 감 월 중 명

정사精舍 앞 거울 같은
넋물에 달이 잠겨 빛나면,

爽氣凝軒渾舍清³⁾.
상 기 응 현 혼 사 청

상쾌한 기분 난간에
영져 온 정사精舍가 맑아지리.

幸賴主人占勝地⁴⁾,
행 려 주 인 점 승 지

때마침 주인에게 의뢰한 시를
명승지에서 낭송한다니,

留連數日洗塵情⁵⁾.
유 련 수 일 세 진 정

머칠간 머무르며
속념이나 씻어내시게 들!

-
- 1) 남계(南溪): 남계정사(南溪精舍): 앞의 「시41」의 주석 1)의 ① ‘남계(南溪)’ 조항을 참조 바람.
- 2) ① 당전(堂前): 정사(精舍) 앞에는, 정사(精舍) 대청마루의 전면(前面)에는
a. 당(堂): 청사(廳事: 관아官衙)나 서재(書齋) 또는 전각(殿閣: 궁궐 또는 관아)이
나 사당(祠堂) 등의 건물 이름에 붙이는 말인데, 본 시에서는 남계정사 또는
그 대청(大廳: 대청마루)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일(一): 하나, 본 시에서는 ‘한줄기’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감(鑑): 맑은 거울 같은 수면(水面)을 비유한 말이다.
- ④ 월중명(月中明): 달이 그 가운데서 (수중에서) 빛나다(밝다).

- 3) ① 상기(爽氣) : 시원한 공기(느낌), 상쾌한 기분
 ② 응(凝) : 엉기다
 ③ 헌(軒) : 난간
 ④ 혼사(渾舍) : 온 집안
 a. 혼(渾) : 전체의, 전부의, 온
 b. 사(舍) : 집, 본 시에서는 ‘남계정사’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⑤ 청(淸) : 맑다, 청결하다(청결해지다)
- 4) ① 행뢰(行賴) : 때마침 …에게 의뢰하다
 ② 주인(主人) : 본 시에서는 서애 선생의 벗들이 서애 선생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점(占) : 구두(口頭)로 시사(詩詞)를 읊다. 본 시에서는 서애 선생의 시를 낭송하는 뜻으로 쓰였다.
 ④ 승지(勝地) : 명승지, 경치가 좋은 곳, 지세(地勢)가 훌륭한 땅. 본 시에서는 ‘남계정사’가 있는 곳을 가리킨다.
- 5) ① 유련(留連) : 유련(留聯)으로도 쓰며, 본 시에서는 ‘(객지에서) 머무르다’로 쓰였다.
 ② 세(洗) : 씻다
 ③ 진정(塵情) : 범심속정(凡心俗情), 깨끗하지 못한 속된 마음, 속념(俗念)



시44. 상주^{商州}에 계신 연로한 어르신들께
증정하다

詩44. 贈^증商^상山^산耆^기老^로¹⁾

數曲笙歌夕照邊²⁾,
수 곡 생 가 석 조 변

해 질 무렵 생황^{笙簧}에 맞춰
노래 몇 곡 하고 나서,

驛亭相送意悠然³⁾。
역 정 상 송 의 유 연

역정驛亭에서 송별하자니
마음이 쓰리네요.

春添別恨迷芳草⁴⁾,
춘 첨 별 한 미 방 초

봄에 이별의 한이 더해지니
(길섣의) 방초에도 미혹되는데,

雪映金花入舞筵⁵⁾。
설 영 금 화 입 무 연

잔설殘雪이 석양에 금화金花처럼 비쳐
무도장舞蹈場에 들어선 듯하네요.

千里銅章虛惠澤⁶⁾,
천 리 동 장 허 혜택

천리 밖의 관료는
(임금의) 은택을 헛되게 하였고,

一方民物負顛連⁷⁾。
일 방 민 물 부颠 연

일부 지방 백성들은 곤궁해졌네요.

慙慙愧謝桐鄉老⁸⁾,
은 은 괴 사 동 향 로

은근한 정의情意에 부끄럽고
감사하나 동향桐鄉의 노인들이시여,

莫說當年有二天⁹⁾。
막 설 당 년 유 이 천

당년^{當年}에 현량한 관리 없었다고
말씀하진 마소서.

- 1) 증상산기로(贈商山耆老 : 상주商州에 계신 연로한 어르신들께 증정하다) :

****역주주석 :** 본 시는 시제(詩題)와 시의(詩意)를 통해 볼 때, 서애가 상주목사(尙州牧使)로 1년 임직기간(경진년庚辰年 : 1580년 봄, 서애 39세~신사년辛巳年 : 1581년, 1월, 서애 40세)을 마치고 떠나면서, 상주의 기로들(耆老)에게 증정했던 시로 보인다.

① 증(贈) : 주다, 증정하다

② 상산(商山) : 상주(商州 : 지금의 경북 상주군)의 옛 지명이다. 상주의 옛 지명은 이 밖에도 상주(上州) · 상락(上洛) · 사량벌(沙梁伐) · 사벌(沙伐) 등이 있다.

③ 기로(耆老) : 60세 이상의 노인을 칭한다.

- 2) ① 생가(笙歌) :

☆생황(笙簧)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다. 생황을 불고 노래하다. 전(轉)하여, ‘악기를 타며 노래하다’는 뜻으로도 쓴다.

☆생황을 불고 나서 부른 노래 혹은 생황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a. 생(笙) : 생황(笙簧) : 아악(雅樂)에 쓰는 관악기의 하나이다. 가느다란 대나무 관대가 통에 둥글게 박혀있는 다관식 악기이다. 13관의 ‘화(和)’, 17관의 ‘생(笙)’, 36관의 ‘우(竽)’로 구분되었으나 이를 통틀어 ‘생황(笙簧)’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이미 생황이 수입되어 연주되었으며, 조선후기에 와서 17관의 ‘생(笙)’이 생황의 주류를 이루었다. 순차상 ‘아악(雅樂)’에 대한 뜻을 먼저 주석하고, ‘생(笙)’과 ‘황(簧)’의 뜻을 정리한다.

*아악(雅樂) : 고대 제왕이 천지(天地)와 선조(先祖)에게 제사 지내거나 조정의 하례(賀禮) 및 연향(宴享)을 베풀 때 쓰던 무악(舞樂)이다. 주대(周代)에 종묘(宗廟)의 무악(舞樂)인 “육무(六舞 : 여섯 종류의 무악舞樂)으로 운문무(雲門舞 : 황제黃帝의 춤인 ‘운문雲門’과 그 율동에 맞춰 연주된 음악) · 함지무(咸池舞 : 요철 임금의 춤인 ‘함지咸池’와 그 율동에 맞춰 연주된 음악) · 대소무(大韶舞 : 순씨 임금의 춤인 ‘대소大韶’와 그 율동에 맞춰 연주된 음악) · 대하무(大夏舞 : 우유 임금의 춤인 ‘대하大夏’와 그 율동에 맞춰 연주된 음악) · 대호무(大濩舞 : 탕湯 임금의 춤인 ‘대호大濩’와 그 율동에 맞춰 연주된 음악) · 대무무(大武舞 : 무왕武王의 춤인 ‘대무大武’와 그 율동에 맞춰 연주된 음악)”를 사용했는데, 유가는 그 음악이 ‘중정화평(中正和平 : 치우치지 않고 평화로움)’하고, 그 가사가 ‘전아순정(典雅純正 : 우아하고 순수함)’하다고 생각하며, ‘우아한 음악(아악雅樂)’의 본보기로 삼았다. ‘아악(雅樂)’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역대 제왕들은 관례에 따라 아악을 제정하여, 본조(本朝)의 공덕(功德)을 가송(歌頌)하였다.

*생(笙) : 관악기의 일종으로 생(笙)의 구조는 몸통(공명통 : 두자斗子)과 죽관(竹管 : 생관笙管) 및 취구(吹口 : 떨림판, 즉 황편簧片이 있어 불면 소리가

나는 컵)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몸통은 옛날에는 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습기에 약하고 잘 깨지는 성질 때문에, 박 대신 나무로 만들기도 했고 구리로 만들기도 했다. 모양은 원형도 있고 방형(方形)도 있으며 다양하다. 생관(笙管)은 길이가 다른 죽관(竹管)으로, 오죽(烏竹)의 속을 파내 만들고 관대는 두석(豆錫: 놋쇠)으로 따를 만들어 한데 묶는다. 통에 꽂은 관대의 길이는 대개 음높이에 따라 들쭉날쭉한데, 관의 길이가 같은 경우에는 지공(指空: 생笙이나 통소 따위에 뚫은 구멍으로 손가락으로 이 구멍을 막으면 소리가 다르게 남)을 뚫는 위치를 달리한다. 취구(吹口: 황편黃片이 붙어있는 곳으로 입으로 부는 부분임)는 죽관의 상단부에 위치하며, 바로 그 하단부에 구멍을 뚫어 목질(木質)로 생각(笙角: 황편黃片, 즉 떨림판을 꽂아놓을 수 있는 빨 모양의 틀)을 붙여 넣고 그 앞부분에 황편을 꽂아 놓는다. 취구로 숨을 들이쉬거나 불면 그 황편이 떨려 진동하면서 소리를 낸다.

*황(簧): 황편(簧片). 쇠청이라고도 하고 떨림판이라고도 한다. 관악기 속의 단성(彈性)을 지닌 얇은 조각으로 죽제(竹製)와 동제(銅製)가 있으며, 발성(發聲)의 진동체(振動體)이다. 황편이 진동하여 발성(發聲)하는 소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 ② 석조(夕照): ‘석양(夕陽)’과 같은 말
- ③ 변(邊): 때, 무렵, 명사 뒤에 붙어 시간사를 만든다.
- 3) ① 역정(驛亭): 예전에 역참(驛站)에 마련되어 있는 정자를 이르는 말이다.
- ② 상송(相送): 서로 송별하다
- ③ 의(意): 생각, 의사, 마음
- ④ 유연(悠然):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모양, 근심하고 슬퍼하는 모양
- 4) ① 춘첨(春添): 봄에 ...이 더해지다
- ② 미방초(迷芳草): 방초에 미혹되다, 방초에 매혹되다
- 5) ① 금화(金花): 금색으로 채색된 듯이 곱고 아름다우며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듯한 꽃송이를 가리키는 말. 본 시에서는 녹다 남은 눈이 석양에 꽃잎처럼 울긋불긋 비치는 것을 읊은 것이다.
- ② 입무연(入舞筵): (여기가 마치) 무연(舞筵: 춤추는 자리)에 들어선 듯하다.
- 6) ① 동장(銅章): 고대 동제(銅製)의 관인(官印)
- ② 허혜택(虛惠澤): 헛된 혜택일 따름이다. 혜택을 헛되게 하다
- 7) ① 일방(一方): 한쪽, 한편, 저쪽. 일부 지방을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쓴다.
- ② 민(民): 백성. 본 시에서는 시제(詩題)에서 밝힌 ‘상산(商山)의 노인’을 비롯한 그곳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③ 물(物): 사람, 중인(衆人)
- ④ 부(負): 짊어지다, 임무를 맡다, 책임을 지다
- ⑤ 전연(連連): 곤궁함. 극도의 곤궁함. 본 시에서는 명사형으로 쓰였다.
- 8) ① 은근(慇懃): 은근(慇懃)으로도 쓰며, ‘은근하다, 정성스럽다, 정의(情意)가 간절하다’는 뜻이다.
- ② 괴사(愧謝): 타인이 보살펴줌에(배려함에) 부끄럽게 느끼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 ③ 동향로(桐鄉老): 동향(桐鄉)의 노인

a. 동향(桐鄉) : 향리(鄉里)의 명칭이다. 그러나 이곳이 지금의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본 시의 시제(詩題)에서는 “상산(商山 : 지금의 상주尙州)의 노인”이라 칭해놓고, 본 구에서는 “동향(桐鄉)의 노인”이라 했다. 상산(商山) 관내에는 ‘동향(桐鄉)’이란 지명이 없다. 상산(商山)은 지금의 경북에 있었던 지명이고, 동향(桐鄉)은 ‘담양도호부(潭陽都護府) 용담현(龍潭縣) 관내’에 있었던 향리의 명칭으로, 이곳은 지금의 전북관내에 위치했던 까닭에 ‘동향(桐鄉)’의 위치가 분명하지 않다.

b. 로(老) : 노인, 어른, 어르신

9) ① 막설(莫說) : …라고 말하지 말라

② 당년(當年) : 그때, 당시, 그 해

③ 유(有) : 있다

④ 이천(二天) : ‘정직하고 현명한 관리’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당대(唐代)의 시인 두보(杜甫 : 712~770)의 시 「강변의 정자에서 낭주자사閬州刺史 왕공王公이 수주자사遂州刺史 소공蕭公에게 송별연을 베풀다(江亭王閬州筵餞蕭遂州)」에, “현량賢良한 낭주자사 왕공께서 송별연을 베푸시니(二天開龍餞), 수주자사遂州刺史 소공蕭公의 거마車馬에 찬란한 빛이 발하네(五馬燦生光).”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오마(五馬) : 한 대(漢代)의 태수가 타던 수레는 다섯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뒀다. 본 예문에서는 소주자사(蕭州刺史)의 거가(車駕)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이상은 한성무韓成武·장지민張志民선생이 편저한 『두보시전역(杜甫詩全譯)』을 참고하였음)



시45. 탄홍의 시집에 쓰다

임오년壬午年 1582년 서애 41세

詩45. 書誕弘詩卷 壬午¹⁾
서 탄 홍 시 권 임 오

七年僅起十間屋²⁾,
칠 년 근 기 십 간 옥

칠 년 만에 열 칸의 집 겨우 지었으나,

上雨傍風四壁虛³⁾.
상 우 방 풍 사 벽 허

세상살이 풍우 드세고
(재물 없는) 방안은 사방 벽뿐 텅 비었네.

計同畫餅⁴⁾難爲食,
계 동 화 병 난 위 식

회계장부는 그려놓은 떡 같아
먹을 수가 없고,

身似驚禽未定居⁵⁾.
신 사 경 금 미 정 거

이 몸은 활시위 소리에 놀란 새처럼
거처를 못 정했네.

每說當年白蓮社⁶⁾,
매 설 당 년 백 련 사

(그대는) 매 번 당년의
백련사白蓮社를 논했으나,

誰能斷我靑雲裾⁷⁾.
수 능 단 아 청 운 거

누가 내 청운靑雲의
옷자락을 자를 수 있겠는가?

秋風颯颯吹崖菊⁸⁾,
추 풍 샵 샵 취 에 국

추풍이 쇄쇄 벼랑에
핀 국화 쪽으로 부는데,

落葉蕭蕭下村墟⁹⁾。 낙엽은 우수수 이랫마을 쪽으로 떨어지네.
낙엽소소하촌허

弘乎弘乎勿歎息¹⁰⁾， 탄흥이여 탄흥법사여!
홍호홍호물탄식
탄식하지 마시게나,

東里山人欲資渠¹¹⁾。 동쪽마을 산중 은사도
동리산인욕자거
정사精舍 건축 돕겠다네.

(서애주석: 時余 以大司諫 被召西行, 安汝止欲, 以斗粟資弘, 故戲云)¹²⁾
시여 이대사간 피소서행 안여지욕 이두속자홍 고희운

1) 서탄흥시권(書誕弘詩卷) 임오(壬午):

- ① 탄흥(誕弘): 승려의 법호로서, 본명과 생몰년 및 이력은 미상이다. 그는 옥연서당(玉淵書堂)의 건축을 주관하고, 곡식과 피륙으로 물자를 대었던 장본인이다. 관련 자료는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에 보인다. 본 시의 내용을 놓고 볼 때, 탄흥은 정토종(淨土宗)에 소속된 승려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주석 6)을 참조 바람.
- 2) ① 근기(僅起): 겨우 건축하다
② 십간옥(十間屋): 열 간(칸)의 집
- 3) ① 상우방풍(上雨傍風): 직역하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측면에서는 바람이 불다’는 말인데, 간략히 표현하면, ‘비오고 바람 불다’는 뜻이 되고, 과장하면 ‘비바람 몰아치다(드세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이 되겠다. 본 시에서는 ‘위난(危難)’과 ‘세상살이 풍우 드세다’로 번역한다.
② 사벽허(四壁虛): 사벽공(四壁空): (쌓아둔 재물 없이 혹은 가재구(家財器具 없이) 방 안은 사방이 텅 빈 벽 뿐이다.
- 4) ① 계(計): 계부(計簿: 회계를 적는 장부), 회계장(會計帳: 회계장부)
② 동(同): ...와 같다
③ 화병(畫餅): 그려 놓은 (그림으로 된) 떡, 유명무실하여 실용할 수 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한 말이다.
- 5) ① 신(身): 일인칭 대명사로 ‘아(我)’에 상당하는 뜻으로 쓰였다.
② 사(似): 닮다. 비슷하다. ...인 것 같다
③ 경금(驚禽): 활시위가 튕겨져 나가는 소리에 놀란 새
④ 미정거(未定居): 아직 거처를 정하지 못하다.
- 6) ① 매설(每說): 매년 논하다(언급하다)
② 당년(當年): 그 때, 그 당시, 그 해
③ 백련사(白蓮社): 동진(東晉)의 승려 혜원법사(慧遠法師: 335~417: 염불결사會 佛結社인 백련사의 개조開祖)는 여산(廬山)에 있는 동림사(東林寺)에서 혜영법사(慧永法師: 332~414)와 혜지법사(慧持法師: 337~412) 및 명유(名儒) 유유

민(劉遺民)·뇌차중(雷次宗) 등 백 여 명이 함께 결사(結社: 단체를 조직함)하여
 염불삼매(念佛三昧: 안정된 마음으로 염불에 전념하는 것)에서 정수(精修)하면서 서
 방정토(西方淨土: 대승불교에서 성불成佛한 부처님 아미타불阿彌陀佛이 건국한 이상국
 인 극락정토)에서 왕생(往生: 다시 태어남)할 것을 서원(誓願: 소원)하였다. 동시에
 이들은 연못을 파고 백련(白蓮)을 많이 심었기에 이들의 결사(結社)를 백련사
 (白蓮社)라 칭한 것이다. 이 결사로 말미암아 정토종(淨土宗: 정토교의 실현을 이
 상으로 하는 종파)이 융성하게 되었다. ‘정토교(淨土教: 정토문淨土門)’는 자기의
 수행을 주로 하는 성도(聖道)의 여러 교(敎)와는 반대로, 아미타불의 구제를 믿
 고 극락세계에 왕생(往生)하여 아미타불을 뵈고, 여러 성인들과 사귀는 동시에,
 다시 사바세계(娑婆世界: 인간이 사는 세상)로 돌아와서 다른 중생들을 교화 구제
 하기를 원하는 불교종파이다.

- 7) ① 단(斷): 끊다, 절단하다
- ② 청운(靑雲): 은거(隱居)를 이르는 말. 서애시의 여러 곳에서 보이는 서애의 내심
 취지와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를 참고해 볼 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
 였다.
- ③ 거(裾): 의복의 옷자락
- 8) 샅샅(颯颯): 의성어로서, 추풍(秋風)의 표현으로 자주 쓰이며, ‘飒飒’로 형용된다.
- 9) ① 소소(蕭蕭): 의성어로서, 말 울음 소리·비바람 소리·물 흐르는 소리·초목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악기 소리 등을 형용한 말로 쓰이는
 데, 본 시에서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형용한 뜻으로 쓰였다. ‘우수수 떨어지
 다’로 번역한다.
- ② 하(下): 아랫 쪽(에 있는),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
- ③ 촌허(村墟): 촌장(村莊), 마을, 부락, 촌락
- 10) ① 홍(弘): 탄홍(誕弘) 승려의 약칭으로 쓰였다.
- ② 호(乎): 어기조사로서 감탄의 뜻을 표하는 뜻으로 쓰였다. ‘... 아! ...이예! ...구
 나! ...도다!’ 등으로 해석된다.
- 11) ① 동리(東里): 동쪽 마을,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입구에 위치한 마을
 을 가리킨다. 하회마을의 입구는 하회마을의 동쪽에 위치하므로 칭하는 말이다.
- ② 산인(山人): 산중에 은거하는 선비
- ③ 욕자거(欲資渠): 정사 건축에 자재(資財)의 보조를 희망하다.
- 12) **서애주석: 이때 내가(時余), 대사간(大司諫: 사간원司諫院의 최고직으로 충간忠諫을
 맡아보는 동시에 타인의 언론도 왕에게 상주上奏하는 일을 관장하였음)으로 소환되어 서
 행西行하였는데(以大司諫被召西行), 그대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건축>
 욕심을 멈춰야 했으나(安汝止欲), 탄홍이 곡식과 피료으로 물자를 대했다고 했기
 에(以斗粟資弘), 농심아 한 수 읊는다(故戲云).

시46. 죽연정 竹淵亭에서 고서 古書를
교감 校勘하시는 군자 君子 여러분께 올림

詩46. 奉呈竹淵亭校書諸君子¹⁾
봉 정 죽 연 정 교 서 제 군 자



已聞履鳥集新亭²⁾,
이 문 리 석 집 신 정

귀공 貴公들이 신정 新亭에 모인다는
소식 들었거니와,

更喜虫魚上汗青³⁾.
갱 희 중 어 상 한 청

더욱 기쁜 것은 훈고 訓詁 문장도
문집에 수록하는 것이요.

拙藁方將資潤筆⁴⁾,
졸 고 방 장 자 윤 필

미흡한 저의 졸고 拙稿에도
장차 稿料를 주신다니,

英才久已嘆遊研⁵⁾.
영 재 구 이 탄 유 현

영재들은 벌써부터 유람을
시재 詩材로 시가 읊네요.

事同東觀羣仙會⁶⁾,
사 동 동 관 군 선 회

동관 東觀에서 사서 史書 편찬했듯이
비범한 군자들이 모였지만,

功在西山一部經⁷⁾.
공 제 서 산 일 부 경

훈공은 서산 西山에서 보존하는데
(그곳엔) 줄곧 경서만 분석하네요.

欲借扁舟參盛舉⁸⁾,
욕 차 편 주 참 성 거

편주 扁舟라도 빌려 성대한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데,

滿江風雨恨冥冥⁹⁾。
만 강 풍 우 한 명 명

강상江上에 풍우 몰아치니
한이 서려 답답하네요.

1) ① 봉정(奉呈) : 봉헌하다, 헌상(獻上 : 받들어 올림)하다

② 죽연정(竹淵亭) : 조선 전기(前期)에 죽연(竹淵) 박윤(朴潤 : 1517~1572 :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계조繼祖의 아들이며,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힘썼으며,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문인이었기 때문이다. 위치는 지금의 경북 고령군(高靈郡) 우곡면(牛谷面) 도진리(桃津里)에 있다. 우곡면의 면사무소와 우곡면 보건진료소 사이에 있는 셋길로 200여m 지난 마을 끝 야산 자락에 위치한다. 원래는 우곡면의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여 흐르는 회천(會川) 냇가에 세워진 목루각(木樓閣)으로 지어진 ‘죽연정(竹淵亭)’이란 명칭이 누각이었으나, 경신년(庚申年 : 1920)과 병신년(丙申年 : 1956)의 대홍수로 도괴(倒壞 : 무너짐)되어, 후손들이 그 자리에 팔각지붕의 정사각형 건물로 중건(重建)한 뒤, ‘죽연정사(竹淵精舍)’라 명명(命名)하였다. 박윤 선생이 ‘죽연정(竹淵亭)’을 건립한 뒤에 그의 삼형제가 이곳에서 심성(心性)을 도야하였고, 남명 조식(曹植 : 1501~1572) 선생과 낙천(洛川) 배신(裴紳 : 1520~1573) 선생을 비롯하여, 송계(松溪) 신계성(申季誠 : 1499~1562) 선생과 황강(黃江) 이희안(李希顔 : 1504~1559) 선생 및 월오(月塢) 윤규(尹奎 : 생몰년 미상) 선생 등이 이곳에서 도의(道義)를 강마(講磨 : 학문을 강론하고 연마함)하며 음풍농월(吟風弄月 : 청풍과 명월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놀)하였다.

지금은 고령(高靈) 박씨 소윤공파와 장파의 재실로 우기에는 묘제나 문중회합, 신년 배례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죽연은 문연서원(文淵書院)에 배향되어 있었으나 서원 훼손로 마련한 모현정(慕賢亭)에서 매년 3월 첫 정일(丁日)에 석채(釋菜 :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하여 신위를 모시고 있는 4성(聖) 10철(哲) 18현(賢)을 제사지내는 의식)를 올리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오용원의 「고령高靈 누정樓亭의 문학적文學的 해석解釋과 공간空間 기능機能」 참조)

*박윤(朴潤 : 1517~1572) : 조선 전기 고령출신의 효자로,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자는 덕부(德夫)이며, 호는 죽연(竹淵)이다. 아버지는 양산 군수를 지낸 박계조(朴繼祖)이다. 박윤은 ‘죽연정’을 건립한 뒤에, 그의 삼형제가 이곳에서 심성(心性)을 도야하였고, 그의 스승이었던 남명(南冥) 조식(曹植 : 1501~1572)을 비롯하여, 합천 조계 출신이며 고령 현감을 지냈던 황강(黃江) 이희안(李希顔 : 1504~1559), 낙천(洛川) 배신(裴紳 : 1520~1573), 송계(松溪) 신계성(申季誠 : 1499~1562), 월오(月塢) 윤규(尹奎 : 1500~1560), 성곡당(省克堂) 김홍미(金弘微 : 1557~1604 : 남명 조식과 서예 류성룡의 문인門人)이며, 또한 서에 자신의 질서姪壻, 즉 백씨인 겸암謙菴 류운룡의 만사위임) 등과 교유하며 이곳에서 도의를 강마(講磨)하고, 음풍농월(吟風弄月)을 하였다.

아홉 살 때 아버지 상을 당하였고, 홀로 된 어머니를 지극한 정성으로 모셨다. 특히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네 형제가 한집에 살았는데, 사사

로이 재물을 쌓지 않아 다투는 일이 없었고 부인들 또한 화목하게 지냈다. 어머니가 병들자 인분을 맛보며 병세를 살폈고, 82세에 세상을 뜨자 묘소 옆에 여막을 짓고 예제(禮制)를 다하였다. 묘소는 고령군 개진면 오사2리에 있다. 1576년(선조 9)에 효자로 정려복호(旌閭復戶)가 되었으며, 박윤의 행적이 『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에 실렸다. 1700년(숙종 27)에 문연서원(文淵書院)에 배향되었다. (고령향도문화백과 · 오용원의 논문 참조)

③ 교서(校書): 서적을 교감(校勘: 고서古書의 탈자·오자·저자·연대 등을 바로 잡음)하다.

④ 제군자(諸君子): 여러 군자

2) 이문리석 집신정(已聞履鳥集新亭): 귀공貴公들이 신정新亭에 모인다는 소식 이미 들었거니와):

****역주석:** 본 시는 역자의 텍스트인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 외에도,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16 - 하회풍산유씨편 - / 8. 시문류 / (1) 정조어제正祖御製』(한국국학진흥원(지금의 한국학중앙연구원), 1994)에도 수록되어있다. 그런데 본 시의 첫구의 제1, 2자가 하회본에는 ‘이문(已聞)’으로,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에는 ‘기묘(己卯)’로 표기되어 있다.

① 이석(履鳥):

☆경칭(敬稱)으로 쓰는 말로서, ‘족하(足下: 귀하)’의 뜻이며, 서신에 상응하는 말이다. ‘귀공(貴公)’으로 번역하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옛사람들은 신은 신의 바닥이 홀 바닥으로 된 신을 ‘리(履)’라고 했고, 겹바닥으로 된 신을 ‘석(鳥)’이라 했던 까닭에, ‘이석(履鳥)’을 합칭하여 ‘산’의 뜻으로 썼다.

② 신정(新亭): 새로 지은 정자, 죽연정(竹淵亭)을 가리킨다.

여기서 ‘신정(新亭)’이라 함은 ‘죽연정(竹淵亭)’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지역에는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까지 건립된 현존하는 누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문헌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16세기 초에 이르러 일정한 경제적 여력과 학문적 교양을 갖춘 토착 재지사족(在地士族)들이 등장하면서 누정이 건립되기 시작했다. 당시에 건립된 누정은 대부분 장수(藏修: 학문을 전심으로 닦음)와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이들은 환로(宦路)에 나아가거나 시류에 편승하여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주로 은거하며 학문에 몰두하는 사족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의 누정건립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들은 토성(土姓)으로서 집성촌을 이루어 당대의 명유들과 교유하며 향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하게 하였다. 이 시기에 건립된 누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박연이 건립한 죽연정이었는데, 서애 시대에는 아마도 이를 ‘신정’이라고 일컬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용원의 논문 ‘3. 고령 누정의 공간적 기능’을 참조 바람)

3) ① 충어(虫魚): 충어(蟲魚): 공자(孔子)는 『시경(詩經)』을 읽으면 초목과 조수(鳥獸) 및 충어(虫魚: 풀벌레와 물고기)의 명칭을 많이 알게 된다고 생각하고, 한대(漢代)의 고문 경학자들은 유학경전을 주석하면서, 전장제도(典章制度) 및 명물(名物)의 훈석(訓釋)을 중시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훗날 ‘충어(蟲魚)’란 말을 가지고 ‘명물(名物)과 전장제도’를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또한 때로는 ‘문장

이나 말 따위가) 번거로운 것(장황한 것)을 빈정대는 것을 내포한 뜻'으로도 썼다. 그런가하면 사람들은 이 '충어(蟲魚)'란 말을, '훈고학(訓詁學)'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썼다. '훈고(訓詁)'하는 내용자체가 매우 번잡하기 때문에 일컬어진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훈고'는 '고문(古文)의 자구(字句)를 해석하거나, 경서(經書)의 문자나 어구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② 상한청(上汗靑) : 문집에 수록하다(실다).

a. 상(上) : (문집이나 책에) 수록하다(실리다). 본 시에서는 동인지(同人誌)에 수록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한청(汗靑) :

○ 죽간(竹簡) :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대나무 조각을 엮어 만든 책)을 가리킨다. 옛날에는 죽간에 기사(記事)했는데, 그 죽간을 만드는 과정이 먼저 청죽(靑竹)을 불에 그슬려 진을 빼서 글씨를 쓰기에 편하도록 하는 한편, 좀이 먹지 않도록 했던 까닭에 일컬어진 명칭이다. 일설에는 청죽을 쪼개서 땀이 흐르는 것처럼 진을 빼야 (글자를) 지우고 고쳐 쓰기가 편하다고 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이 '청죽'이란 말을 '저술로 완성하다'는 뜻으로도 썼다.

○ 전(轉)하여 '문서'·'서적'·'사책(史冊)'의 뜻으로도 썼다. 본 시에서는 '서적(書籍)'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으며, 이는 '죽연장'에 모인 인사들의 '문집(文集) : 시사詩詞를 모아 엮은 책)'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서적 : 서책(書冊)'을 에스레하게 표현하여 '청죽 : 죽간'이란 말을 썼다.

4) ① 졸고(拙稿) : 졸고(拙稿) : 자기의 시문(詩文)이나 서화(書畵)에 대한 겸사(謙詞)

② 방장(方將) :

☆막 ...하려고 하다

☆장래, 미래

③ 자윤풀(資潤筆) : 고료(稿料)를 지급하다.

a. 자(資) : 자조(資助 : 재물로 도움)하다, 제공하다

b. 윤풀(潤筆) : 시문서화(詩文書畵)를 작성한 사람에 대하여 주던 보수(報酬), 원고료(原稿料)

5) ① 구이(久已) : 이미, 벌써, 일찍이, 진작

② 탄(嘆) : 음송(吟誦)하다. 본 시에서는 '시가를 읊다'로 번역한다.

③ 유(遊) : 유람가다

④ 형(硯) : 형(型), 양식(樣式), 방식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모양새 · 차림새'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6) ① 사(事) : '종사구학(從師求學 : 스승을 따라 학문을 추구함)'을 이르는 말이다. 업무

② 동(同) : ...와 같이. ...와 같다.

③ 동관(東觀) : 동한(東漢)의 낙양성(洛陽城) 남궁(南宮)의 관명(觀名 : 누각명칭. 이때의 '관觀'은 '누대樓臺'의 뜻임)이다. 한명제(漢明帝 : 동한 제2대 황제. 성명은 유강劉莊. 28~75년) 때에 사가史家이자 문인인 반고班固 : 32~92)가 이곳에서 『한기(漢記)』를 수찬(修撰)하고 나서 그 책명을 『동관한기(東觀漢記)』라고 했다. 또한 한 장제(漢章帝 : 동한 제3대 황제, 성명은 유달劉烜 : 56~88)와 한화제(漢和帝 : 후한 제4대 황제, 성명은 유조劉肇 : 79~105)는 이곳을 황궁장서지부(皇宮藏書之府 : 황궁의 도서관)로 썼다. 그래서 훗날 '동관(東觀)'이란 이 말을 '국사(國史)를 편찬하는 곳'

이란 뜻으로 칭했고, 다시 후대에 와서는 이 ‘동관’이란 말을 문인들이 시사(詩詞)로 표현해서 ‘궁중장서고(宮中藏書庫)’의 뜻으로 옮기기도 했다. 본 시에서는 유학(儒學)을 논하고 시사(詩詞)를 읊는 동시에 교감(校勘)도 하는 곳인 ‘죽연정’을 대칭(代稱)한 말로 쓰였다.

④ 군선회(羣仙會): 비범한 군자들이 많이 모이다.

7) ① 공재서산(功在西山): ‘훈공(勳功)은 서산(西山), 곧 경성(京城)에서 보존하다.’는 말이지만, ‘훈공은 경성의 저명한 문인들이 차지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a. 공(功): 공적(功績), 훈공(勳功), 공로. 이는 죽연정에서 편찬한 책에 작품이 수록되어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b. 재(在): 존재하다, 보존하다

c. 서산(西山): 본 시에서는 ‘경성(京城)’을 대칭하는 말로 쓰였다. ‘서산(西山)의 문인들’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죽연정’에서 볼 때 궁궐조정이 있는 한성(漢城)은 위도 상 서쪽에 위치하므로 본 시어를 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죽연정에서 교감(校勘)하는 작품의 저자들은 대부분 경성에 거주하는 저명한 문인들이기 때문이다.

② 일(一): 시종(始終), 줄곧, 한결같이

③ 부(部): ‘부(剖)’와 통하며, ‘분석하다’는 뜻이다.

④ 경(經): 전범저작(典範著作: 본보기가 되는 저작)과 종교전적에 대한 존칭이다.

8) 참성거(參盛舉): 성대한 모임에 참여하다.

9) ① 만강(滿江): 강상(江上)에는

② 한(恨): 유감(遺憾), 곧 생각대로 되지 않아 이렇거나 한스러운 것. 언짢게 여기는 마음.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③ 명명(冥冥): 몰래, 비공개로, 암중(暗中)에. 본 시에서는 ‘뜻대로 되지 않아 애타는 모양을 표현한 말’로 쓰였기에, (가슴이) ‘답답하다’로 번역한다.



시47. 시 「제천정 濟川亭」의 운韻을 차운次韻하여
지는 시를 (명명의) 현귀顯貴한 사신에게
증정하다

詩47. 濟川亭次贈華使¹⁾
제 천 정 차 증 화 사

澄湖晴景媚高樓²⁾,
정 호 청 경 미 고 루

맑은 호수 수려한 풍광에다
누각이 매혹적이라,

玉節東來偶此遊³⁾.
옥 절 동 래 우 차 유

옥절玉節 지니고 해동국海東國에 오서
마침 여기서 노니네요.

雲際露青華岳出⁴⁾,
운 제 노 청 화 악 출

먼 하늘 구름 걷히며
높은 산이 드러나고,

天涯浮碧海門悠⁵⁾.
천 에 부 벽 해 문 유

하늘가는 푸르고 해구海口는
아득히 멀기만 하네요.

百年勝跡知難再⁶⁾,
백 년 승 적 지 난 재

평생에 명승고적 다시 감상하기
어렵단 걸 아시는지,

一日仙舟爲少留⁷⁾.
일 일 선 주 위 소 유

하루 낮을 선주仙舟 타고
잠깐이라도 머무시나 보군요.

別後音書⁸⁾何處寄,
별 후 음 서 하 처 기

이별 후 서신은 어디로 부쳐야 하리이까?

謾憑魂夢刮昏眸⁹⁾。
만 빙 혼 몽 괄 혼 모

(귀국貴國은) 너무 멀어

(공의 모습) 몽혼夢魂에 의지하려니

눈앞이 흐려져 비비네요.

1) ① 제천정(濟川亭):

☆시제(詩題)로서의 ‘제천정’

서애 선생이 차운(次韻)한 시 「제천정」의 원시(原詩)는 고윤(高潤: 이력미상) 선생이 지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한성부(漢城府)·누정(樓亭)』 조항에 수록된 것을 옮긴다.

詩句清新墨跡留,	숫구는 청신하게 친필 흔적 그대로 남았는데,
登臨人已去悠悠.	이곳에 올랐던 그 분 가신 세월 이미 아득아득하네.
樓中勝景非如昨,	누대에서 보는 좋은 경치 옛날 같진 않으련만,
欄外長江空自流.	누대 밖의 긴 강물 유정(幽靜)하게 흘러가네.
丹詔臨時會止鳳,	제왕 조서(詔書) 받을 때는 봉황새들 모여들더니,
畫舫遇處每驚鷗.	장식한 유람선 만나는 곳마다 갈매기들 놀라 나네.
凭欄極目懷千古,	난간에 기대어 멀리 바라보며 옛 일 생각하는데,
風送白雲來樹頭.	바람 불며 구름 흘러와 나무 위에 머무네.

*묵적(墨跡):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 진적(眞迹). 본 예시(例詩)에서는 ‘친필흔적’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유유(悠悠): 세월이 아주 오래된 모양

*승경(勝景): 뛰어난 (좋은) 경치

*단조(丹詔): 제왕의 조서(詔書). 주필(朱筆)로 글이 쓰여진 까닭에 일컬어진 말이다.

*화선(畫舫): 화려하게 장식한 유람선

☆정자명칭으로서의 ‘제천정(濟川亭)’

제천정은 서울 보광동(普光洞) 강변, 즉 한남대교(漢南大橋) 북쪽어귀에서 서쪽으로 바라보이는 용산구(龍山區) 한남동(漢南洞) 541번지 일대에 있었던 정자였다. 세조 2년(1456)에 세워졌으며, 명종 18년(1563)에 이르기까지 한강변의 정자 가운데 왕이 가장 자주 찾은 곳이다. 이곳은 경치가 뛰어나게 좋았던 곳으로, 광희문(光熙門)을 빠져나와 남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 나루터 옆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선릉(宣陵: 성종成宗과 계비繼妃 정현왕후貞顯王后의 능)이나 정릉(靖陵: 중종中宗의 능)에 친사(親祀)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러 쉬기도 하였으며, 중국 사신이 오면 으레 이 정자에 초청하여 풍류를 즐기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곳을 지나가는 선비들이 날마다 많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이 정자는 월산대군(月山大君: 1454~1488: 성종의 형으로 휘는 정婷, 자는

자미子美, 호는 풍월정風月亭印)의 소유였으며, 월산대군의 사후에 정자를 확장 중건(重建)하였다고 한다. 명종 13년(1558)에는 왕이 이 정자에 올라 수전(水戰)을 관망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후의 내력에 대해 『궁궐지(宮闕志)』에, “인조(仁祖) 2년(1624)에 이괄(李适 : 1587~1624 : 인조 때의 무신으로,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음)이 서울을 범함에, 임금이 왕대비와 종묘宗廟 및 사직단社稷壇 신주神主를 받들고 공주公州로 피난길을 떠나던 날 밤, 한강을 건널 때 제천정에 불을 질러 그 불빛에 의지하여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제천정은 이때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서울 6백년사六百年史 · 제4장 · 제8절 · 누정樓亭 · 제천정지濟川亭址』 조항을 참조함)

- ② 차(次) : 차운(次韻) : 화답하는 시에서 남의 시운(詩韻)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본 시에서는 의운(依韻)에 의거하여 차운하였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 바람.
- ③ 증(贈) : 증여하다, 증정하다
- ④ 화사(華使) : ‘현귀(顯貴 : 지위가 높고 귀함)한 관리’란 뜻인데, 본 시에서는 ‘명나라 사신’에 대한 미칭(美稱)으로 쓰였다.
 - a. 화(華) : 미칭의 말이다. 통상적으로 상대방과 관계있는 사물에 대해서 쓴다. 예를 들면, ‘타인의 서산’을 ‘화환(華翰)’이라 하고, ‘상대방의 생일’을 ‘화탄(華誕)’이라 하는 것 등이다.
 - b. 사(使) : 사신(使臣)
- 2) ① 징호(澄湖) : 물이 맑은 호수
 - ② 청경(晴景) : 개인 날 좋은 경치, 청명한 날 좋은 경치. ‘수려한 풍광’을 뜻한다.
 - ③ 미고루(媚高樓) : 높은 누각이 매력적이다.
- 3) ① 옥절(玉節) : 옥제(玉製)의 부절(符節). 고대에 천자(天子)와 왕후(王侯)의 사자(使者)가 지니고 다니며 증거로 삼던 신표(信標)이다.
 - a. 절(節) : 부절(符節) 혹은 부신(符信)의 뜻이다. 목편(木片)이나 죽편(竹片) 또는 옥편(玉片)에 글을 쓰고 증인(證印)을 찍은 후에 두 쪽으로 쪼개어, 한 조각은 상대방에게 주고 다른 한 조각은 자기가 보관하였다가 후일에 서로 맞추어 증거로 삼은 것이다.
- ② 동래(東來) : 해동국(海東國 : 조선)에 오다.
 - a. 동(東)을 본 시에서는 ‘해동(海東)의 동쪽’이란 뜻으로 예전에 해동은 ‘발해(渤海)의 동쪽’이란 뜻으로,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르던 말인데, 본 시에서는 ‘조선’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우차유(偶此遊) : 마침 이곳에 와 노닐다.
- 4) ① 운제(雲際) : 먼 하늘 · 높은 하늘 · 운중(雲中 : 구름 속) 또는 높은 산. 이 말은 고원(高遠 : 높고 넓)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 ② 노청(露靑) : (구름이) 걷히면서 푸른 하늘이 드러나다.
 - ③ 화악출(華岳出) : 높은 산이 드러나다.
 - a. 화(華) : 중국의 ‘오악(五嶽)’의 하나인 화산(華山)과 같다는 뜻으로 쓰였으며, ‘고대(高大)한 것’을 형용한 말이다.
 - b. 악(岳) : 악(嶽) : 높은 산

- ④ 출(出) : 나타나다, 드러나다
- 5) ① 천애(天涯) : 천변(天邊). 하늘가. 하늘 끝. 아득히 먼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② 부벽(浮碧) : 얇은 남색, 푸르스레하다
 a. 부(浮) : ‘박(薄) · 천(淺)’과 같은 말로 ‘(색이) 얇다’는 뜻이다.
 b. 벽(碧) : 청록색, 푸른색, 푸릇하다
 ③ 해문유(海門悠) : 해구(海口)가 아득히 멀다.
 a. 해문(海門) : 해구(海口 : 바다로 통하는 문어귀<출구>, 육지의 강과 바다가 통하는 곳).
 ④ 유(悠) : (거리가) 멀다, 아득하다
- 6) ① 백년(百年) : 일생, 종신
 ② 승적(勝跡) : 승적(勝迹)으로도 쓴다. ‘유명한 고적(古迹)이나 유적(遺迹)’이란 뜻이다. ‘명승고적(名勝古跡)’의 약어(略語)이다.
 ③ 지난재(知難再) : 거듭 감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다.
- 7) ① 일일(一日) : 하루 낮
 ② 선주(仙舟) : 주선(舟船 : 배)의 미칭(美稱)
 ③ 위소유(爲少留) : 잠시 머물게 되다.
- 8) 음서(音書) : 서신, 음신(音訊 : 소식, 편지)
- 9) ① 만(漫) : ‘만(漫)’과 통하는 자로서, ‘(명나라와) 거리가 매우 멀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빙(憑) : …에 의존하다, 의거하다, 의지하다
 ③ 혼몽(魂夢) : 꿈, 몽혼(夢魂 : 꿈속의 님). 본 시에서는 ‘꿈속의 님’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④ 곽혼모(刮昏眸) : (눈물이 앞을 가려) 흐려지는 눈을 비비다.



시48. 충주忠州 노상路上에서

이때는 부제학副提學에 임용되고 나서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던 때였다

詩48. 忠州道中時以副提學乞暇還鄉¹⁾

충 주 도 중 시 이 부 제 학 길 가 환 향

閱盡年華遠客悲²⁾,
열진연화원객비

봄 풍경 다 봤다 싶어 원행 길
나그네 슬펐는데,

東風吹動柳絲絲³⁾.
동풍취동유사사

동풍이 솔솔 불어 버들가지 흔들한들 하네.

江南舊隱經年別⁴⁾,
강남구은경년별

강남의 옛 은사隱士와는 작별한지
여러 해 됐고,

漢北清遊入夢遲⁵⁾.
한북청유입몽지

강북의 속진俗塵 떠난 유람
꿈에서 본지도 오래됐네.

鳥道孤裝侵曉露⁶⁾,
조도고장침효로

단출한 행장으로 새재鳥道 넘는데
(바지자락에) 새벽이슬 젖어들고,

龍沙十里下寒澌⁷⁾.
용사십리하한시

긴긴 십리의 백사장 옆에
해동기 강물이 쇄쇄 흘러가네.

令人却憶陶靖節⁸⁾,
영인각억도정절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도정절陶靖節을 생각나게 하다니,

未老歸田是我師⁹⁾。
미로귀전시아사

(그가) 늙기 전에 귀전歸田한 건
분명 나의 본보기일세.

- 1) 충주도중(忠州道中) : 충주 노상에서) 시이 부제학 걸가환향(是以副提學乞暇還鄉) : 이때는 부제학에 임용되고 나서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가던 때였다) :
- ① 도중(道中) : 노상(路上)
- ② 시이 부제학 걸가환향(是以副提學乞暇還鄉) : 이때는 부제학에 임용되고 나서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가던 때였다) :
- **역지주석** : 서애가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된 회수는 모두 다섯 번이었다. 첫번째는 '기묘년(己卯年 : 1579, 서애 38세) 7월'이었고, 두 번째는 '경진년(庚辰年 : 1580, 서애 39세) 봄'이었고, 세 번째는 '신사년(辛巳年 : 1581, 서애 40세) 정월'이었고, 네 번째는 '계미년(1583, 서애42세) 정월'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갑신년(1584, 서애43세) 7월'이었다. 본 시는 두 번째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고 나서 읊은 것이다. 연보에서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된 시기가 봄이라고 기록한 점과 본 시에서 읊은 봄 풍경의 '봄'이란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서애연보」 경진년(庚辰年) 조항에 “봄에,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었으나(春, 拜弘文館副提學), 또다시 상소하여 노모의 봉양을 간청하자(又上疏乞養), 특별으로 상주목사에 제수되었다(特拜尙州牧使).”고 한 내용이 있다.
- a. 이(以) : 임용(任用)되다
- b. 부제학(副提學) : 홍문관(弘文館)의 정3품 당상관(堂上官) 관직으로, 제학(提學 : 종2품관)의 하급직이고 직제학(直提學 : 정4품관)의 상급직이며, 정원은 1명이다.
- c. 걸가(乞暇) : 휴가를 받다, 휴가를 신청하다
- 2) ① 열진(閱盡) : 남김없이 모두 다 관람하다.
- ② 연화(年華) : ‘춘광(春光 : 봄 경치, 봄 풍경)’을 이르는 말, 일 년 중 호시절을 가리키기도 한다.
- ③ 원객비(遠客悲) : 먼 길 가는 나그네 슬프다.
- 3) ① 동풍(東風) : 춘풍, 봄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
- ② 취동(吹動) : 바람이 불어와 …를 흔들다(…이 흔들리다)
- ③ 유사사(柳絲絲) :
- a. 류(柳) : 버드나무, 본 시에서는 버들가지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사사(絲絲) : 미소(微小)하거나 실처럼 가는 것을 형용한 말이다. 본 시에서는 ‘실처럼 가는 것’을 형용한 말로 쓰였고, 그것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형용한 말로 쓰였다. ‘울울이 한들한들 흔들리다’는 뜻으로 쓰였다.
- 4) ① 강남(江南) : 한강 남쪽 지역
- ② 구은(舊隱) : 예전의 은거처, 지난날의 은사
- ③ 경년별(經年別) : 이별한 지 여러 해 되다.
- 5) ① 한북(漢北) : 한강 북쪽의 땅
- ② 청유(淸遊) : 청유(淸游)로도 쓴다. 청아(淸雅 : 맑고 우아함, 깨끗하고 아담함, 속되지

얕음)하게 유상(遊賞: 노닐며 구경함)하다. 청아한 유람, 속진(俗塵)을 떠난 깨끗한 놀이

- ③ 입몽지(入夢遲): 꿈에 나타난 지 오래되다.
- 6) ① 조도(鳥道): (새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험준하고 좁은 산길, 새도 넘기 어려울 만큼 험한 산속의 좁은 길, 험한 산길. 본 시에서는 ‘조령(鳥嶺: 새재: 문경새재)’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고장(孤裝): 간단한 행장(行裝), 단출한 차림
- ③ 침효로(侵曉露): (옷자락이) 아침 이슬에 젖어들다.
- 7) ① 용사십리(龍沙十里): 사룡십리(沙壠十里): 길게 뻗은 백사장
 **역자주석: 충주에서 ‘용사십리’가 있는 곳은 충주를 통과하는 남한강의 상류를 가리킨다.
- a. 용사(龍沙): ‘사룡(沙壠: 곧고 긴 백사장)’의 도치된 말로 쓰였다. ‘용(龍)’은 ‘룡(壠: 룡壟)’과 통한다. ‘언덕’이란 뜻이다. 본 시에서는 ‘모래언덕’을 가리킨다.
- b. 십리(十里): ‘길다’ 또는 ‘멀다’를 개략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② 하한시(下寒漸): 해동기의 강물이 쇠와 흘러가다.
- 8) ① 영인(令人):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다.
- ② 각(却): 역시, 다시
- ③ 억(憶): 상기하다, 회상하다
- ④ 도정절(陶靖節): 도정절 선생, 도연명(陶淵明)
- a. 도(陶): 성씨이다
- b. 정절(靖節): 정절징사(靖節徵士): 정절선생: 즉 동진(東晉)의 시인 도잠(陶潛: 도연명陶淵明: 365, 혹은 376~427년)이다. 성은 도(陶)씨이고, 이름은 ‘잠(潛)’이며 자는 연명(淵明)이다. 일설에 의하면, ‘연명’은 이름이고, 자는 ‘원량(元亮)’이라고도 한다. 도연명은 자호(自號: 스스로 칭한 호)를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고 칭했으며, 그의 ‘사시(私諡: 사시私諡: 옛날에 문장이 뛰어나고 덕성이 높아 저명한 사람의 사후死後의 친족이나 나라에서 시호諡號가 내려지지 않을 때 친족이나 문인들이 올린 시호諡號)’가 ‘정절징사’이다. ‘정절선생(靖節先生)’이라고 한다.
- 9) ① 귀전(歸田): 사직하고 귀향하여 농사짓다
- ② 시아사(是我師): 나의 본보기이다

시49. 원지정사를 읊다

계미년(癸未年: 1583년: 서애 42세)

詩49. 題遠志精舍 癸未¹⁾

제 원 지 정 사 계 미



花枝清露濕團團²⁾,
화 지 청 로 습 단 단

꽃가지에 맑은 이슬 송골송골 맺혀
촉촉한데,

半夜江樓月色寒³⁾.
반 야 강 루 월 색 한

심야 강변 누각에는 달빛이 차갑구나.

靜裏誰知百感集⁴⁾,
정 리 수 지 백 감 집

정적 감도는데 만감이 교차함을
누가 알리오,

悄然無語倚欄干⁵⁾.
조 연 무 어 의 난 간

시름에 젖어서 말없이 난간에 기대앉네.

1) 제원지정사(題遠志精舍: 원지정사를 읊다) 계미(癸未: 1583년, 선조 16년, 서애 42세):

****역자주석:** 계미년간(癸未: 1583, 선조 16년, 서애 42세)에는 동서당론(東西黨論)의 심화로 귀향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던 때이다. 그리하여 하회로 내려와서 거의 반년을 어머니 간병 중에 있었다. 위의 시는 바로 이 시기에 작시(作詩)한 것이다.

① 제(題): 쓰다, 적다, 읊다

② 원지정사(遠志精舍): 중요민속자료 85호이다.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이 정사(精舍)는 서애(西厓)가 32세 때(선조 6, 1573), 부친상을 당하여, 낙향해서, 은거할 때에 착공하여 3년 뒤인 1576년(서애 35세)에 완공한 건축물로 하회 마을 안에 있다. 이는 마을 안의 북촌(北村) 쪽에 부용대를 향해 정사(精舍: 遠志亭)와 누정(樓亭: 燕坐樓)이 모두 북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을 향해 자리 잡고 있다. 원지정의 우측에 연좌루가 있다. 누(樓)마루 사방에는 난간을 둘렀으며 강의 소나무 숲과 강 건너편 부용대(芙蓉臺), 옥연정사(玉淵精舍, 중요민속자료 제

88호) 일대가 바라다 보인다.

원지정의 ‘원지(遠志)’에는 다음의 두 가지 뜻이 있다.

1578년(무인년戊寅年: 서해 37세)에 서해가 쓴 「원지정사기(遠志精舍記)」에 의하면, “집을 다 짓고 나서, 편액을 ‘원지遠志’라고 내거니, …… 어떤 손님이 그 뜻을 이상하게 여기길래,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원지遠志’는 본래 약초 명칭으로서, 일명 ‘소초小草’라고도 한다(既成, 扁其額曰遠志, …… 客疑其義, 余告之曰: ‘遠志本藥名’, 一名小草). 옛날에 진짚나라 사람(桓溫桓溫: 312~393: 동진東晉의 정치가이자 장군으로 자는 子元, 시호는 선무후宣武侯)이 <동진의 정치가인> 사안謝安(320~385: 자는 안석安石, 시호는 문정文靖)에게 묻기를, ‘원지와 소초는 동일한 종류인데, 어찌 두 가지의 명칭을 쓰느고?’라고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은거할 때는 원지遠志(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음)라 하고, 출사出仕하면 소초小草라 한다고 하자, 사안은 안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띠었다고 하였다. 내가 산 속에 은거할 때는 근본적으로 원대한 포부(원지遠志)가 없었으니, 출사해서 약소弱小한 초목(즉 소초를 가리킴: 미관말직을 비유한 말로 자신의 관직에 대한 겸칭으로 쓰였음)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런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昔晉人間謝安曰, ‘遠志小草一物, 而何爲二名’, 或曰, ‘處爲遠志, 出爲小草’, 安有愧色. 余在山, 固無遠志, 出而爲小草則固也. 是有相類者).”고 하였다. “또한 의술가는 ‘원지’로써 심기心氣를 집중치로 하여, 능히 정신의 혼탁과 번민을 풀어줄 수 있다.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심기가 맑지 못함을 우려하여, 매번 약을 쓸 때마다, 이 ‘원지’를 복용하니, 그 효력을 감히 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유추해서 그 원 뜻을 확대해보면, 마음을 다스린다는 설說은 유학자들 역시 늘 하는 말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뜻만 하더라도, 모두 서재의 명칭으로 쓸 만하다(又醫家, 以遠志, 專治心氣, 能撥昏鑄煩. 余年來, 患心氣, 每餌藥, 輒用遠志, 其功不敢忘. 因推類而引其義, 治心之說, 亦儒者, 常談. 如此數義, 皆可爲齋號).”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에서 볼 때, ‘원지’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으니, 첫째는 ‘원대한 포부’란 뜻이고, 둘째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뜻이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 2) ① 화지(花枝): 꽃가지
- ② 청로(淸露): 청결한 이슬
- ③ 습(濕): 축축하다, 축축하다, 젖어있다
- ④ 단단(團團): 떼 지어 모인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송골송골하다(땀하다)’로 번역한다.
- 3) ① 반야(半夜): 한밤중, 심야, 오밤중, 야반(夜半)
- ② 강루(江樓): 강가의(강변의) 누각(樓閣)
- ③ 월색한(月色寒): 달빛이 차갑다
- 4) ① 정리(靜裏): ‘정적(靜寂) 속’을 뜻한다. 이는 화자의 마음이 외물(外物)에 대하여 동요가 없는 상태임을 말하는 것이다.
- ② 수지(誰知): 누가 알리오?
- ③ 백감집(百感集): 백감교집(百感交集)의 약어(略語)로, 온갖 생각이 떠오르다, 만감이 교차하다, 감개무량함을 형용한 말이다.
- 5) ① 초연(悄然): (낙심하여) 근심하고 슬퍼하는 모양,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는 모양
- ② 의난간(依欄干): 난간에 기대다. 난간에 기대어 앉아있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시50. 계미년(1583년, 서애 42세) 가을의

정사잡영精舍雜詠 두 수二首

(〈본 시제의 시詩가〉 두 수 더 있는데 〈한 수는〉 별집別集에 실려 있고, 한 수는 누락되었다)

詩50. 癸未秋精舍雜詠¹⁾二首(又有二首載別集一首缺)²⁾

계 미 추 정 사 잡 영 이 수

其一
기 일

[1]

樗散知無用³⁾,
저 산 지 무 용

무능한 사람은 쓸모없단 걸 깨달았기에,

田園且卜居⁴⁾。
전 원 차 복 거

전원에 돌아가 장차 택지 선정하려하네.

主恩⁵⁾深未報,
주 은 심 미 보

주군主君의 은혜 깊으나 아직 보답 못한지라,

心計老多疎⁶⁾。
심 계 노 다 소

지모智謀 다해 줄곧 상소上疏 많이 올린다네.

欲上籌邊策⁷⁾,
욕 상 주 변 책

변방의 군비 계획이야
마땅히 올려야 하는 것이지만,

其如遇遯書⁸⁾。
기 여 우 문 서

은거를 칭하는 글월이야
어찌 올릴 수 있겠는가?

危樓望北眼⁹⁾,
위 루 망 북 안

衰淚自泫如¹⁰⁾。
쇠 루 자 현 여

其二
기 이

一雨連三日,
일 우 연 삼 일

江湖水欲生¹¹⁾。
강 호 수 욕 생

沈吟愁獨坐¹²⁾,
침 음 수 독 좌

牢落抱幽情¹³⁾。
뇌 락 포 유 정

白髮傷遲暮¹⁴⁾,
백 발 상 지 모

浮雲飽變更¹⁵⁾。
부 운 포 변 경

思君復臥病,
사 군 부 와 병

誰遣我懷乎¹⁶⁾。
수 견 아 회 호

높은 누각에서 멀리 북쪽을 바라보자니,

쇠잔한 이 사람 눈에서 눈물이 절로
뚝뚝 떨어지네.

[2]

한 번 비오기 시작하여 연 삼일을 내렸으니,

강물과 호숫물이 곧 불어나겠네.

깊은 생각으로 수심에 차 홀로 앉았자니,

외롭고 쓸쓸하여 울적한 감정이 스며드네.

백발은 늙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뜬 구름은 맘대로 변신하는
자신에게 만족하네.

주군主君을 그리워하다 다시 와병중인데,

누가 내 마음을 달래 줄 수 있을까?

1) 정사잡영(精舍雜詠):

- a. 정사(精舍): 여기의 '정사(精舍)'는 원지정사(遠志精舍)를 가리킨다. 원지정사 자료는 앞의 「시49」의 주석 1)의 ② '원지정사(遠志精舍)' 조항을 참조 바람.
- b. 잡영(雜詠): 제사(題辭)로 쓰인 것이다. 이는 시제(詩題)로 상용되었다. 본 의미는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을 근거로 하여 읊은 시가라는 뜻이다.

- 2) 별집(別集) :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 권1, 간본편(刊本篇)에 있는 분류항목 중의 하나이다. 이 간본편은 본집·별집·연보·정비록 등으로 분류가 되어있다. 본 집에는 시부(詩部)1.2가 수록되어 있고, 별집에는 시부1이 수록되어 있다. 전자는 각각 줄역, 『국역 류성룡시 I』과 『국역 류성룡시 II』로 출간되었으며, 별집은 역시 줄역, 『국역 류성룡시 III』으로 출간되었다.
- 3) ① 저산(樗散) : ‘저산(樗散)’은 주술구조로 되어 ‘가죽나무는 재목으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저산’이란 말은 ‘무능한 사람·쓸모없는 사람·무용지물(無用之物)’을 비유한 말로 쓰인다. 본 시에서는 서애자신의 겸칭(謙稱)으로 쓰였다.
 *저력(樗櫟) : 저력(樗櫟)은 저산(樗散)과 동의어이다. ‘저력’이란 명칭의 생성원인은 ‘저산’의 ‘저(樗)’는 재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라는 뜻인데, 이 하나의 글자로 단어를 만들기 불편했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역시 재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인 ‘력(櫟)’자를 첨가하여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 ‘저력(樗櫟)’이라고 칭하여, 이를 ‘저산(樗散)’과 같은 뜻으로 썼다.
 이 저산과 저력은 모두 ‘저력용재(樗櫟庸材 : 저력산목樗櫟散木 : 저력지재樗櫟之材 : 가죽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재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라는 뜻으로, 무능한 사람·쓸모없는 인간·무용지물을 비유한 말임)’의 약어이다.
- ② 지무용(知無用) :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다.
- 4) ① 전원(田園) : 주로 ‘농촌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전원으로 돌아가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차(且) : 부사로 쓰여, ‘장차 …하러 하다’는 뜻이다.
 ③ 복거(卜居) : 거주지를 가려서(골라서) 선택하다, 택지(宅地)를 선정(選定)하다
- 5) 주은(主恩) : 주군(主君 : 주상主上 : 임금)의 은혜
- 6) ① 심계(心計) : 지모(智謀), 모략(謀略), 계략, 책략
 ② 노(老) : 줄곧
 ③ 다(多) : 많이
 ④ 소(疎) : 소(疏) : 상소(上疏 : 조목별로 써서 군주에게 아뢰) : 상소문(上疏文) : 주장(奏章 : 상소上疏)
- 7) ① 욕(欲) : 반드시 …하여야 하다
 ② 상(上) : 올리다, 보고하다
 ③ 주변책(籌邊策) : 변방의 군비에 관한 계책
- 8) ① 기여(其如) : 어찌 …할 수 있겠는가?
 ② 우둔(遇頓) : 시초점(蓍草占)을 쳐서 돈괘(遯卦 : 64괘의 33번째 괘)를 얻었다는 뜻으로, 난세를 피하기 위해 은둔함을 이르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설령 시초점(蓍草占)을 쳐서 돈괘를 얻었다고 할지언정 둔세(遁世)는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충정(忠情)을 언외(言外)에 함축하고 있다.
 ③ 서(書) : 서신, 문서, 글월
- 9) ① 위루(危樓) : 고루(高樓), 높은 누각. 본 시에서는 원지정사(遠志精舍)와 한 담안에 있는 ‘연좌루(燕坐樓)’를 ‘위루(危樓)’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② 망북안(望北眼) : 멀리 북쪽을 바라보다
- 10) ① 쇠루(衰淚) : 쇠약한 사람의 눈물
 ② 자현여(自茲如) : 절로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다.

- 11) ① 강호(江湖) : 강과 호수
 ② 수욕생(水欲生) : 물이 곧 불어나겠다.
- 12) ① 침음(沈吟) : 침음(沉吟)으로도 쓰며, 이는 ‘속으로 깊이 생각하다, 속으로 깊이 골똘히 생각하다’의 뜻으로 쓰였다.
 ② 수독좌(愁獨坐) : 수심에 겨워서 홀로 앉아 있다.
- 13) ① 뇌락(牢落) : 고적(孤寂 : 외롭고 쓸쓸함)하다, 무료(無聊 : 지루함. 심심함)하다.
 ② 포(抱) : (생각, 의견을) 마음에 품다, (…한 감정이) 배어들다(스며들다)
 ③ 유정(幽情) : 울적(울꺠)하고 은밀한 감정
- 14) ① 상(傷) : 상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② 지모(遲暮) : ‘지모(遲莫)’로도 쓰고, ‘지모(遲暮)’로도 쓰며, 만년(晩年)을 비유한 말이다. 본 시에서는 ‘만년(晩年)의 마음, 노경(老境)에 접어든 마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15) ① 포(飽) : 만족하다, 만족하게 여기다
 ② 변경(變更) : 자기변신(自己變身) 혹은 자기변화(自己變化)로 의역(意譯)한다.
- 16) ① 수(誰) : 의문대명사로 뜻은 ‘누구’이다.
 ② 견(遣) : 풀다, 달래다
 ③ 회(懷) : 생각, 마음
 ④ 호(乎) : 의문조사로서, ‘…는가? …일까?’의 뜻으로도 쓰고, 감탄사로서 ‘…구나, …도다’의 뜻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전자(前者)의 뜻으로 쓰였다.

시51. 계미년(癸未年: 1583년 서애 42세)

칠월 열 여드렛날에 우연히 짓다

詩51. 癸未七月十八日偶題¹⁾

계 미 칠 월 십 팔 일 우 제



世事元無定²⁾,
세 사 원 무 정

세상사 원래부터 정해진 것이 없기에,

浮生可自由³⁾.
부 생 가 자 유

덧없는 인생이로되 참으로 자유스럽네.

秋風萬里道⁴⁾,
추 풍 만 리 도

만 리 길 먼 서쪽에서 불어온
이 추풍이,

又作穆陵遊⁵⁾.
우 작 목 능 유

또 다른 목릉관穆陵關 유람을 하는 듯
여저지네.

- 1) ① 계미(癸未): 선조 16년, 공원(公元) 1583년으로 서애 나이 42세가 되던 해이다.
이 해 7월에 선조의 특명으로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되었지만 어머니 병환으로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인다. 아마도 본 시는 함경도 관찰사 사양 건으로 변방 관련 내용을 주제로 하여 작시(作詩)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② 우제(偶題): 우연히 쓰다

- 2) ① 세사(世事): 세상사

② 원무정(元無定): 원래부터 정해진 것이 없다.

- 3) ① 부생(浮生): 덧없는 인생

『장자(莊子)·각의편(刻意篇)』에, “사람이 생존할 때에는 〈부평초나 뜬 구름처럼〉 세상에 〈이리저리〉 떠다니고(其生若浮), 사망하면 휴식하는 것처럼 정적靜寂 속에 잠긴다(其死若休).”고 한 대목에 보인다.

- ② 가자유(可自由) : 참으로 자유롭다.
- 4) ① 추풍(秋風) : 가을바람, 서풍을 이른다.
- ② 만리도(萬里道) : 만리 먼 길. 여기서 ‘만리 길’이란, 목릉(穆陵) 곧 목릉관(穆陵關 : 목릉 요새要塞)으로 가는 길을 칭한 것이다.
- 5) 우작 목릉유(又作穆陵遊 : 또 다른 목릉관穆陵關 유람을 하는 듯 여겨지네) :
****역주석 :** 본 시에서 ‘추풍’을 가지고, ‘목릉관을 유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 것은, ‘추풍은 서풍이고, 목릉관은 조선의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추풍이 목릉관을 거쳐 불어 왔을 것이기에, 추풍을 목릉관을 유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 ① 우작(又作) : 다시 또 감동하여 떠올리다, 또한 (목릉관 유람으로) 간주하여 떠올리다.
- ② 목릉유(穆陵遊) : 목릉관(穆陵關)의 유람
- a. 목릉(穆陵) : 목릉관(穆陵關)을 가리킨다.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기수현(沂水縣) 북쪽 대현산(大峴山) 산상에 있다. 길이 좁고 가팔라 일명 과거현(破車峴 : 길이 험해 수레가 부서지는 산고개)이라고도 한다. 이 목릉관은 중국 서주(西周)시기에 세워진 이래, 춘추전국시대에 와서 제(齊)나라에서 다시 중건(重建)하여 길이도 연장을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역대로 제(齊)의 장성(長城)으로 이름이 나 있으며, 당시 천하에서 제일가는 요충지였다.
- 『좌전(左傳) · 회공 4년(僖公四年 : BC 656)』 조항에, “관중(管仲 : ? ~ BC 645)이 대답하기를(管仲對曰) : <이곳은 제(齊)나라 땅으로서> 남쪽은 목릉(穆陵)에 닿았다(南至于穆陵).”고 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 목릉관은 춘추전국시대부터 당(唐) · 송(宋) · 청(淸)대에 이르기까지 관문(關門)을 유지했다.
- 그런데 당말(唐末)에 와서는 우리의 고구려 출신 유민들이 당(唐)나라 땅에 ‘제(齊)나라’라는 국명으로 독자적인 소왕국을 건설하여 산둥성(山東省) 전역을 지배하였다. 고구려 출신인 이정기(李正己 : 732 ~ 781 : 본명 희옥懷玉)가 이 왕국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의 아들 이납(李納 : 758 ~ 792)이 아버지를 이어 절도사(節度使)를 지내면서 군사력을 키워 당나라에 대응하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782년에 나라이름을 ‘제(齊)’라 칭하며 독립국임을 선포했다.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사고(李師古 : ? ~ 806)는 이 지역 남쪽에 있던 군사적 요충지인 ‘목릉관(穆陵關)’을 다시 수축(修築)하여, 험준한 요새에 의거하여 자신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복동생인 이사도(李師道 : ? ~ 819)에 와서, 이정기(李正己)를 시조로 한 4대 55년간의 독자세력을 마감한다. (이상은 중국의 『구당서(舊唐書) 권124 · 열전(列傳) 제74』, 바이두Baidu백과(百科) ‘목릉관(穆陵關)’등을 참조함)

시52. 북방 오랑캐 여진족女眞族이 종성鍾城을 포위했다는 소식 듣고

詩52. 聞北虜圍鍾城¹⁾
문 북 로 위 종 성



聞道天山北²⁾,
문 도 천 산 북

듣자하니 백두산 북방의 변경지역에는,

干戈夏未休³⁾.
간 과 하 미 휴

국지전局地戰이 발발해 여름이 돼도
휴전이 안 됐다네.

廟謨殊落落⁴⁾,
묘 모 수 낙 낙

조정의 계책이 유달리 대범해서인지,

江水謾悠悠⁵⁾.
강 수 만 유 유

강물은 이를 업신여기듯 유유히 흘러가네.

飛輓功難就⁶⁾,
비 만 공 난 쥬

신속히 군량 마초 운송한대도 직무
완수는 어렵고,

屯田事亦憂⁷⁾.
둔 전 사 역 우

둔전 경작 관리하는 것도 걱정스럽네.

房生車戰法⁸⁾,
방 생 거 전 법

여진족 밀집지역에 병거전투兵車戰鬪
방법을 적용해,

一試擬防秋⁹⁾.
일 시 의 방 추

처음으로 추계방어전秋季防禦戰을
운용하려 한다네.

- 1) 문북로위증성(聞北虜圍鍾城: 북방 오랑캐 여진족女眞族이 종성鍾城을 포위했다는 소식 듣다):

****역지주석:** 본 시제는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의 선조(宣祖) 16년 5월 1일 조항과 「서애연보·계미년(癸未年: 1583, 서애 42세)」 2월 조항에 의거하면, ‘이탕개(尼湯介)의 난(亂)을 주요 제재(題材)로 하여 쓴 시로 추정된다. 이 변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이탕개(尼湯介) 난

조선 선조 때인 1583년 함경도의 육진(六鎭) 지역에서 여진족이 일으킨 반란이다. 당시 회령(會寧)일대의 여진족 수장인 이탕개의 세력이 가장 컸으므로 그의 이름을 따서 ‘이탕개의 난’이라고 칭한다. 이 변란은 무려 7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경원(慶源)과 종성(鍾城) 지역에서만 발발한 국지전(局地戰)이었다.

㉡ 배경과 발생원인

조선은 건국초기부터 동북방면의 여진족에 대비해 압록강 상류에는 사군(四郡)을, 두만강 하류 남안에는 육진(六鎭)을 설치해 방위를 강화하고, 종성(鍾城)과 경원(慶源)에는 무역소를 설치해 교역을 허용하면서 귀화를 장려하는 등 여진족(女眞族)에 대한 회유책도 동시에 펼쳤다.

당시 조선에서는 여진족을 야인(野人)이라고 불렀는데, 그들 가운데 조선에 귀부(歸附)한 여진족을 ‘번호(藩胡)’,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여진족을 ‘심처호(深處胡)’라고 구분했다. 조선은 번호가 국내로 들어와 살 수 있게 허용했으며, 족장들에게는 만호(萬戶)·천호(千戶)·백호(百戶) 등의 관직을 주어 심처호의 침입을 막는 번병(藩兵)의 역할도 하게 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관리들이 번호를 수탈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 여진족의 불만이 커져갔다. 또한 만주지역에 대한 명(明)나라의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여진족의 세력이 커져갔던 것도 국경지역의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했다.

㉢ 발발과 전개과정

본 변란은 선조 16년(1583) 1월~7월(음력으로 표기한 것임. 이하 모두 음력 표기함)에 걸쳐 두 차례나 일어났었다.

1차 전역(戰役)은 경원진(慶源鎭) 전역으로 1월 28일~2월 6일까지 벌어졌었다. 이때 경원부(慶源府) 번호의 족장인 우을지(迂乙知)가 전 아산만호(阿山萬戶)인 최몽린(崔夢麟)의 포악함을 비판하는 격문을 인근 번호들에게 보내고 아산보(阿山堡)를 공격하면서 이탕개의 난은 시작되었다. 경원부사 김수(金璽)와 관관 양사의(梁士毅)가 아산보 지원에 나섰으나 패하고 경원부의 부성(府城)으로 물러났다. 종성(鍾城)과 회령의 번호들이 우을지에게 합류하면서 변란에 참여한 여진족의 규모는 더욱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 회령 지역의 여진족 수장이던 이탕개의 세력이 가장 컸다. 이탕개의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조정은 오운(吳溫)과 박선(朴宣)을 조방장(助防將)으로 삼아 80명의 용사와 함께 6진 지역으로 먼저 보냈다. 그리고 남병사(南兵使) 김우서(金禹瑞)를 방어사로 임명해 토벌군을 파견했다.

2차 전역은 종성진(鍾城鎭) 전역으로 5월 5일~7월 19일까지 벌어졌다. 조선군

의 토벌이후 한동안 잠잠해졌던 여진족의 공격은 5월 이당개와 읍보리(粟甫里)를 중심으로 1만여 명(수정실록)에서 2만여 명(선조실록)의 병력을 이끌고 종성부(鍾城府)의 부성을 에워싸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당개가 출정한 사이에 그와 대립하고 있던 변호 효정(孝汀)이 근거지를 공격해오는 일이 발생하자, 여진족은 포위를 풀고 퇴각하였다. 이당개는 5월 13일 1천여 명의 여진족을 이끌고 다시 종성의 부성을 공격했고, 5월 16일에는 종성의 동관진(潼關鎭)·방원보(防垣堡) 등지를 포위했다가 물러났다.

결과와 영향

이후 경원 일대의 변호들이 투항해오면서 여진족의 변란은 점차 진정되었다. 이당개는 7월 19일에 2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방원보(防垣堡)를 포위하며 공격해왔지만, 함락시키지 못하자 세력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물러나 공격을 멈추었다.

이당개의 난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이 겪은 가장 큰 규모의 군사적 변란이었다. 조선은 여진족의 대규모 공격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방어체계의 허점을 드러냈으며, 한때 경원부의 부성마저 함락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조정은 북방의 방위체제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다. 이는 조선의 방위체계가 진관체제(鎭管體制)에서 제승방략체제(制勝方略體制)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은 『두산백과』를 참조함)

*진관체제(鎭管體制) : 조선전기에, 진관(鎭管)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방위체제. 해당 지역의 수령이 군직(軍職)을 겸하며 서로 호응할 수 있도록 만든 방위 체제이다.

*제승방략체제(制勝方略體制) : 유사시에 필요한 방어처에 병력을 동원하는 방어체제로, 수령휘하의 병력이 자기의 진을 떠나 배정된 지역으로 가서 중앙에서 파견되는 도원수(都元帥)·순변사(巡邊使)·방어사(防禦使) 등의 지휘를 받게 되는 체제이다.

- ① 북로(北虜) : 북방의 오랑캐를 말하는 것으로, 본 시에서는 여진족을 칭한다. 위의 역자주석을 참조 바람.
- ② 종성(鍾城) : 오늘날 함경북도 종성군(鍾城郡) 일대로 만주(滿洲)의 간도(間島)와 맞닿아 있는 국경도시이다. 본래 고구려의 영토였는데, 고구려가 멸망하자 발해의 동경(東京)인 용원부(龍原府)에 속해 있었으며, 발해가 멸망하자 여진(女眞)의 땅이 되었고, 여진은 이 지역을 ‘수주(愁州)’라고 칭했다. 고려 말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를 혁파하고 복진하여 두만강 최하류 지방까지 수복한 뒤 동북면(東北面)이라고 불렀다. 조선이 건국한 뒤에 원(元)의 지배아래 있었다. 조선시대 세종조(1441, 세종 23)에 와서 종성부(鍾城府)를 설치하고 함경도 종성 지방을 관할하였다. 이 종성부는 1895년(고종 32년)에 지방제도 개편에 따라 종성군으로 변경되기 까지 함경도 북부 지방의 행정과 군사상의 요지로 기능하였다. 육진(六鎭)의 개척과정에서 설치되어 두만강을 사이에 둔 동북 지역 국경선을 확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http://cafe.daum.net/jangdalsoo> 참조)
- 2) ① 문도(聞道) : 듣자니, 듣건대, …(라고) 들었다. 듣자니 …라고 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천산(天山) : 대종교(大敎宗 : 단군숭배의 사상을 기초로 한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종교)

에서 칭하는 ‘백두산’인데, 본 시에서는 ‘백두산’의 대칭으로 쓰였다.

- ③ 북(北): 북방, 북쪽. 본 시에서는 ‘북쪽 변경지역’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3) ① 간과(干戈): 싸움 또는 전쟁 혹은 전투. 본 시에서는 ‘국지전(局地戰)’의 뜻으로 쓰였다.
- ② 하미휴(夏未休): 여름이 되었는데도 아직 휴전이 되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본 시의 주석 1)의 역사주석 조항과 주석 1)의 ② ‘종성(鍾城)’ 조항을 참조 바람.
- 4) ① 묘모(廟謨):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방략(方略)
 ☆조정에서 세우는 국가 대상에 관한 계획
- ② 수(殊): 특히, 유달리
- ③ 낙락(落落):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대범함.
- 5) ① 강수(江水): 본 시의 시제(詩題)에서 제시한 ‘종성(鍾城)’은 바로 두만강 하류에 설치된 진(鎭)이므로, 본 시구의 강수(江水)는 두만강수를 칭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 ② 만(謾): 엽신여가다
- ③ 유유(悠悠): ‘움직임이 한가하고 여유가 있는 모양·한적한 모양’의 뜻으로, ‘유유하다, 유유히’로 표현된다.
- 6) ① 비만(飛輓): ‘비추만숙(飛翽輓粟)’의 약어로서, ‘군량미와 마초(馬草: 말뭩: 말을 먹이기 위한 풀)를 신속하게 운송하다’는 뜻이다. 『한서(漢書)·주보언전(主父偃傳)』에, “또한 천하 백성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말뭩과 군량미를 운송하도록 하였다(又使天下飛翽輓粟).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연해구역沿海區域인〉 황현黃縣·수현睡縣·낭야현琅邪縣 등 바다에 인접한 제군諸郡에서 출발하여(起于黃、睡縣、琅邪負海之郡), 〈지금의 황하黃河의〉 북하北河까지 운송토록 하였는데(轉輸北河)…….”라고 한 대목이 있다. 〈이하의 문장은 아래의 주석 ②의 예문에 이어짐〉 이 말에 대해서 당나라 초기의 학자 안사고(顏師古: 581~645)가 주(注)를 달아 말하기를, “〈이 말은〉 마초馬草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데(運載芻藁), 그것이 신속하게 도달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까닭에(令其疾至), ‘비추(飛翽)’라고 한 것이다(故曰飛翽也). ‘만(輓)’은 수레나 배를 이끌다는 말이다(輓謂引車船也).”고 하였다.
- ② 공난취(功難就): 직무를 완수하기는 어렵다. 위의 예문에 이어서 “〈출발 당시 양곡糧穀이〉 30종(三十鍾: 192斛料: 1920말[斗])을 징수했으나, 〈소비된 양곡이 있어〉 도착된 군량미는 겨우 한 섬(일석一石)이었다(率三十鍾而致一石).”고 한 대목에서, 안사고(顏師古)는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육곡(六穀: 여섯 휘: 육십 말(60두斗) 사두(四斗: 네 말)을 ‘종鍾’이라고 하는데(六穀四斗爲鍾), 그 양곡을 운송하는 도중에 소비되는 것이 있어서(計其道路所費), 대략 192곡(斛)을 소비해버리고(凡用百九十二斛), 겨우 한 섬만 도달하였다(乃得一石至).”는 말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본 시에 ‘직무를 완수하기 어렵다(功難就).’고 한 말은 ‘운송하는 도중에 부득불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양곡으로 인하여, 군량미의 전부를 운송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음’을 이르는 말이다.
- *종(鍾): 곡식의 분량을 헤아리는데 쓰는 그릇으로 ‘1종’은 6곡4두(六斛四斗)이다.

*곡(斛) : 곡식의 분량을 헤아리는데 쓰는 그릇으로 당시 중국의 형제(衡制)로는 '10말(十斗)'이다.

- 7) ① 둔전(屯田) : 변경이나 군사요충지에 설치해 군량미를 충당하던 토지이다. 그러나 후대에는 관청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설치한 토지도 '둔전'이라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전자(前者)를 '국둔전(國屯田)'이라 하고, 후자를 '관둔전(官屯田)'이라 하여 서로 구별하였다. 둔전은 중국 한(漢)나라에서 처음 설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존 기록에 나타난 바로는 고려시대에 처음 보인다. 이 둔전은 군인을 직접 사역시켜 경작하는 경우와 '둔전군(屯田軍)'이라는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 주어 수확량의 4분의 1 정도를 수취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또한 '둔전사(屯田司)'라는 기구를 두어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고려 후기에 이르러, 경작자인 수졸(戍卒)은 과중한 부담으로 도망치고, 일반농민도 둔전경작에 사역되어 가호둔전(家戶屯田 : 둔전을 경작하지 않는 농가에도 씨앗을 나누어 주고 가을에 몇 배를 거두어들인 일)의 피해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둔전이 권세가에 점병(兼併)되자 둔전 전체가 소멸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태조 연간에는 모든 국둔전이 폐지되었다. 그러다가 정종 때에 포진(浦鎭)의 군인에 의해 경작되는 둔수군(屯戍軍) 둔전만이 복설(復設)되었다. 그러나 국방문제가 제기되고 군자금(軍資金) 확보가 요구됨으로써 세조 때에 국둔전이 전국에 걸쳐 다시 설치되었으나, 민전(民田)의 침탈과 농민 노동력의 강제동원 등 폐단도 거듭되었다. 세조 이후 국둔전과 관둔전이 모두 설치되어 운영됨으로써 조선의 둔전제도 제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둔전제는 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많은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첫째, 경영형태상의 문제였다. 국둔전은 주로 진수군(鎭守軍)에 의해 경작되고, 관둔전은 관노비로 경작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지인 민전(民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농민기에 둔전 경작에 동원됨으로써 민전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경작자의 부담과 반발이 커졌으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재정확보의 중요한 자원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농민의 반발을 무마하고 둔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병작경영(並作經營 : 농민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고 국가와 경작자가 수확을 나누어 가지는 경영방법)을 실시했으나 농민이 이를 꺼려 폐기된 곳이 많았다. 둘째, 관둔전의 사점현상(私占現象)이었다. 관둔전은 지방관청의 소유지로서 규정한 액수가 있었지만, 수령은 불법적으로 일부를 권세가에게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관노비와 농민의 부담은 가중되었고, 부족한 관둔전의 확보를 위한 민전침탈만 반복되었다. 결국 권세가에 의한 토지집중과 세수감소(稅收減少) 및 국가지배체제의 악화만 초래하였다.

- ② 사역우(事亦憂) : (전투지역의 둔전경작을) 관리하자면 또한 걱정스럽다.

a. 사(事) : 종사(從事)하다, 관리하다

- 8) ① 방생(房生) : 꽃밭기가 (뻥뻥하게 모여) 자라다, 식물이 꽃 피고, 꽃가루받이 하고 열매를 맺는 일종의 형태이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여진족이 집단 거주하는 곳'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a. 방(房) : 원래의 뜻은 '꽃송이, 꽃떨기, 씨방'이었으나,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여진족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생(生) : 자라다, 살다

- ② 거전법(車戰法) : 병차(兵車)를 이용한 작전 방법
- 9) 의방추(擬防秋) : 추계방어전(秋季防禦戰)을 (실행) 하려 하다.
- a. 의(擬) : …할 생각이다, …하려고 하다
 - b. 방추(防秋) : 가을이 되어 오랑캐가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병역(兵役)을 말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가을이 되면 변방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북쪽 오랑캐가 많았으므로, 그 오랑캐를 막기 위한 당시의 수자리[국경을 지키던 일. 또는 그런 병사] 차출을 말한 것이다. (주희朱熹 · 여동래呂東萊가 지은 『근사록(近思錄) 제9권 · 치법(治法)』에 보임)

시53.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어은정漁隱亭에서
함께 놀았던 분들에게 부치다

(본 시제詩題의 시 세 수 중에 한 수는 별집別集에 수록되어 있음)

詩53. 次韻寄漁隱亭同遊諸君子¹⁾(三首內一首 載別集)²⁾
차운기어은정동유제군자



其一
기 일

[1]

古寺僧亡不記春³⁾,
고사승망불기춘

고찰古刹은 승려 없어
봄을 의식하지 못하고,

巖前石佛未能神⁴⁾.
암전석불미능신

암벽 앞 돌부처는
영묘靈妙한 감응 못하네.

流轉更落幽人手⁵⁾,
유전경락유인수

세로世路에서 전전轉轉하다
대를 이어 은사隱士됐는데,

華棟何時映水津⁶⁾.
화동하시영수진

단청 누각 언제라야
강변 기슭에 드러날꼬?

野草青青⁷⁾江水流,
야 초 청 청 강 수 류

야초野草는 청청靑靑하고
강물은 유유히 흐르는데,

芳洲隨處艤蘭舟⁸⁾.
방 주 수 처 의 란 주

모래톱 곳곳에 방초 자라고
나룻배는 정박했네.

酒醒客散前山雨,
주 성 객 산 전 산 우

술 깨면서 손님들 흩어지고
앞산에 비 내리는데,

悵望烟波不自由⁹⁾.
창 망 연 파 부 자 유

연무 낀 강 하염없이 바라보니
마음이 울적하네.

1) ① 차운(次韻): 남이 사용한 운자(韻字)를 같은 순서로 써서 시를 지음. 또는 그런 방법.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 ‘차운’ 조항을 참조 바람.

② 어은정(漁隱亭):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亭上洞)에 있는 조선시대의 누정(樓亭)이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2호이다. 본래 월곡면(月谷面) 도곡리(道谷里)에 세워졌으나 1974년 안동댐으로 인한 수몰을 피하여 현 위치로 옮겼다. 이 누정(樓亭)은 1570년(선조 3)에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하로서 후릉(厚陵: 조선 시대 2대 정종定宗과 정종비 정안왕후定安王后의 능. 경기도 개풍군 홍교면 홍교리 소재) 참봉(參奉)을 지낸 어은(漁隱) 이용(李容: 1505~1554: 서애의 백형伯兄 겸암謙菴의 장인丈人)이 건축한 것이다. 이 누정은 모서리를 튼 □자형의 재사(齋舍)와 별당인 어은정, 그리고 부속건물 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중 어은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서 각주(角柱)를 사용한 홑처마집이다. 옆에 있는 재사는 남도리의 4량(樑)집으로 정면 5칸, 측면 6칸의 □자형 건물이다. 안방·대청·건넌방을 하나로 구성하고, 부엌·헛간과 맞은편 아래채에 온돌방·마루·대청·외양간·대문·서고를 갖추고 있다. 현재 고성이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좋으나 자리가 옮겨진 탓으로 경관적으로는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어은정’이라는 당호는 어은(漁隱) 이용(李容)의 호에서 따온 것이다. ‘어은’이라는 아호에는 이용의 할아버지인 이명(李溟)과 그의 아버지인 이굉(李肱)이 벼슬을 버리고 경상북도 안동의 낙동강가에 임청각(臨淸閣: 보물 182호)과 반구정(伴鵠亭)을 지어 은거하였듯이, 이용이 건축한 이 누정도 세념(世念)을 끊고 강호에 자적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하겠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및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참조)

- ② 군자(君子) : 사람들에 대한(남에 대한) 존칭. ‘선생(先生)’과 같은 말
- 2) 시제(詩題)가 동일한 시(詩)가 줄역 『국역 류성룡 시 III』의 「시40」에 한 수 더 보인다. 고로 본 시제로 지은 시는 ‘총 3수’이다.
- 3) ① 고사(古寺) : 오래된 절, 고찰(古刹)이라고도 칭한다. 본 시에서는 ‘폐사(廢寺 : 폐하여져 종이 없는 절)’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승망(僧亡) : 승려가 없다.
- ③ 불기춘(不記春) : 봄을 의식하지 못하다.
- a. 기(記) : ‘기억하다’는 뜻이나, 역지는 전(轉)하여, ‘의식하다’로 해석한다.
- 4) 신(神) : 영험(靈驗 : 신불神佛의 영묘한 감응, 신기한 효능)을 발휘하다.
- 5) 유전강락 유인수(流轉更落幽人手 : 세로世路에서 전전轉轉하다 대를 이어 은사隱士 됐는데) :
- **역지주석** : 본 시에서 ‘유인(幽人)’은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의 장인인 이용(李容)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유전(流轉) : 사방을 전전(轉轉 : 이리저리 옮겨 다님)하다, 본 시에서는 여러 곳을 ‘전직(轉職)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경(更) : 연속하다, 접속하다. 본 시에서는 ‘대를 잇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낙…수(落…手) : 착수하다. 본 시에서는 ‘은사(隱士)의 길로 접어든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④ 유인(幽人) : 세속을 피해 조용히 사는 사람
- 6) ① 화동(華棟) : 주란화동(朱欄華棟 : 붉은 난간과 단청을 입힌 마루대) : 단청을 입힌 마루대. 본 시에서는 ‘단청을 한 누각’의 뜻으로 표현하였지만, ‘이곳에 모이는 은사들의 인물됨이 훌륭한 것’을 비유하는 뜻으로 쓰였다.
- a. 동(棟) : 마루대(집의 용마루 밑에 서까래가 걸치게 된 나무). 전(轉)하여 중요한 인물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누각’을 가리키는 뜻으로 표현하였다.
- ② 영(映) : 햇빛이 비쳐 ‘드러나다, 나타나다, 반영되다’는 뜻이다.
- ③ 수진(水津) : 강변 산기슭. 본 시에서는 ‘세상, 곧 관계(官界)’를 비유한 뜻으로 쓰였다.
- 7) 청청(靑靑) : 청청하다, 푸릇푸릇하다, 싱싱하게 푸르다
- 8) ① 방주(芳洲) : 방초가 무더기로 자란 모래톱
- ② 수처(隨處) : 도처에, 어디서나, 여기저기
- ③ 의(艤) : 배를 나루터 혹은 물가에 대다, 정박(碇泊)하다
- ④ 난주(蘭舟) : 목란주(木蘭舟 : 백목련 나무로 만든 배). 소주(小舟 : 나룻 배, 조각배 등 작은 배)의 미칭(美稱)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기타 내용은 앞의 「시1」의 주석 3)의 ① ‘난장(蘭漿)’ 조항을 참조 바람.
- 9) ① 창망(悵望) : 하염없이 바라보다
- a. 창(悵) : 실의에 빠지다, 섭섭하다, 아쉽다 서운하다, 하염없다
- ② 연파(烟波) : 연무(煙霧)가 낀 수면, 안개 따위가 자욱한 수면
- ③ 부자유(不自由) : (무엇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하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시54. 삼가 어은漁隱 이용李容 공公의 시운詩韻을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거듭 증명하다

詩54. 謹次漁隱韻仍呈¹⁾
근 차 어 은 윤 일 정

孤村一臥近秋期²⁾,
고 촌 일 와 근 추 기

즐곧 은거하는 외딴 촌에
가을이 다가오니,

想盡寒花滿古池³⁾.
상 건 한 화 만 고 지

너무나 그림던 국화
고색 짙은 연못가에 가득 하네.

更有同人難會面⁴⁾,
갱 유 동 인 난 회 면

신념 일치하는 벗이 있어도
만나기 어려운데,

不堪梧雨打窓時⁵⁾.
불 감 오 우 타 창 시

벽오동 잎에 빗소리
창밖에 들릴 때는 (더) 난감하네.

-
- 1) ① 근(謹): 삼가, 정중히, 공손히 등의 뜻을 지니며, 경의(敬意)를 표시하는 말이다.
 ② 차운(次韻): 이는 바로 시를 지어 화답(和答)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보운(步韻)이라고도 칭한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의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 바람.
 ③ 어은(漁隱): 조선 중기 참봉(參奉: 종9품 벼슬)을 역임한 이용(李容: 1505 ~ 1554) 공(公)의 호(號)이다. 서애의 백형(伯兄)인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1539 ~ 1601)의 장인(丈人)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53」의 주석 1)의 ② 어은정(漁隱亭) 조항을 참조 바람.
 ④ 임정(仍呈): 거듭 증명하다

- 2) 고촌일와(孤村一臥) : 외딴 마을에서 줄곧 은거하다.
 a. 고촌(孤村) : 외딴 마을, 외딴 촌
 b. 일와(一臥) : 줄곧 은거하다
- 3) ① 상진(想盡) : ‘상진(想盡)’의 ‘진(盡)’은 결과보어로, 그리움의 극한까지 이르다. 지극히(몹시) 그림다, 혹은 너무나 그리워하다로 해석된다.
 ② 한화(寒花) : 한랭한 시절에 피는 꽃, 곧 국화를 칭한다.
 ③ 만(滿) : 가득하다, 꽉 차다
 ④ 고지(古池) : 고색(古色) 짙은 지당(池塘) 혹은 연당(蓮塘 : 연못)
- 4) ① 갱(更) : 역점으로 쓰여, ‘하지만’의 뜻으로 번역한다.
 ② 유(有) : 있다
 ③ 동인(同人) :志同道合(志同道合 : 서로 뜻이 같고 신념이 일치함)하는 벗들
 ④ 난(難) : …하기 어렵다
 ⑤ 회면(會面) : 만나다, 대면하다
- 5) ① 불감(不堪) : 견딜 수 없다, 난감하다
 ② 오우(梧雨) : 벽오동(碧梧桐) 잎에 비가 내리다. 본 시에서는 ‘벽오동 잎에 빗소라’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a. 오(梧) :
 ○ 본 시에서는 목재의 용도로 쓰이는 백오동(白梧桐)이 아니고, 고시문(古詩文)에서 애용되는 영수(靈樹) 벽오동(碧梧桐 : 청동靑桐)을 칭한다.
 ○ 우리나라에서 칭하는 ‘벽오동’을 중국에서는 ‘오동(梧桐)’이라고 칭하고, 우리가 ‘오동나무’라고 칭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동목(桐木)’이라 칭한다. 벽오동나무는 벽오동과(碧梧桐科) 벽오동속(碧梧桐屬)에 속하는 갈잎큰키나무이다. 벽오동속은 전세계에 약 10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종이 있다. 높이는 15m 정도까지 자란다. 원산지는 중국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관상수로 많이 심으며 일부는 야생 상태가 되어 산에서도 자란다. 줄기는 늘 푸른빛을 띤다. 잎은 어긋나는데 끝에서는 모여난다. 잎 끝이 3~5개로 갈라지고 심장저(心臟底 : 식물기관의 아래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써 식물기관의 아랫부분이 심장의 윗부분처럼 둥글고 중간이 들어간 형태임)이며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뒷면에 짧은 털이 있다. 암·수 한 그루로 가지 끝의 원추꽃차례에 자갈한 연노란색 꽃이 피는데 암꽃과 수꽃이 섞여 있다. 열매는 익기 전에 벌어지며 껍질 심피 가장자리에 둥근 씨가 4~5개 정도 붙어 있다. 개화기는 6~7월이고 결실기는 10월이다. 벽오동 종자를 오동자(梧桐子), 뿌리를 오동근(梧桐根), 나무껍질을 오동백피(梧桐白皮), 잎을 오동엽(梧桐葉), 꽃을 오동화(梧桐花)라고 하여 모두 약용한다. 최영전이 지은, 『한국민속식물』에 보면, “중국 전설에서는 벽오동을 영수(靈樹), 군서가목(群瑞嘉木)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길조인 봉황새는 벽오동나무에서만 살면서 대나무 열매만 먹었다고 하여 군왕을 축복하는 서금가목(瑞禽嘉木)으로 존중하고 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다.

****역지주석 :** 역대의 시문(詩文)에 의하면, ‘벽오동’에 함축된 우의(寓意 :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함)는 변천을 거듭했다. 첫째, ‘이별의 정서’를 기탁하기도 하고, 둘째, ‘고결한 품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셋째, ‘충정과 애정’이 함축된 뜻을 풍자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넷째, ‘고독과 우수’를 함축한 의미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다섯째, 벽오동은 회화나무(앞의 「시41」의 주석 5)의 ① ‘기수(琪樹)’ 조항 참조 바람)와 같이 ‘출세수(出世樹)’로 알려진 나무이기도 하여, 경향각지의 서원이나 향교 및 개인 주택 정원 등 여러 곳에 심었다. 본 시에서의 ‘벽오동’은 첫 번째의 뜻으로 쓰여 ‘신념이 일치하는 벗과의 이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b. 우(雨): …에 비가 내리다. 본 시에서는 ‘빗소리’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타창시(打窓時): … 소리가 창밖에 들릴 때

a. 타(打): ‘때리다, 치다, 두드리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타(打)’가 ‘청(聽)’의 대동사(代動詞)로 쓰여, ‘…소리가 들리다’는 것을 표현한 말로 쓰였다.

b. 창문, 본 시에서는 ‘창밖’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c. 시(時): …할 때

시55. 방금 벗과 북호北湖로 나갔다가, 삼가
벗이 지은 시를 읊으며 재사齋舍에
돌아와서, (내가 그 자리에서) 즉시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보면서 웃는다



詩55. 將與友人出北湖 惠詩到門 走次睹笑¹⁾
장 여 우 인 출 북 호 혜 시 도 문 주 차 도 소

晴窓點易聽山泉²⁾,
청 창 점 역 청 산 천

창밖이 맑아 시문詩文 수정하는데
개울물 소리 들려서,

更向清池憶惠連³⁾.
경 향 청 지 역 혜 련

즐근 북창 가에서 지당池塘 바라보며
혜련惠連을 회상했네.

一夜山齋高枕臥⁴⁾,
일 야 산 재 고 침 와

하룻밤 내내 산중 재사齋舍에서
편안히 자면서도,

不管風雪亂回旋⁵⁾.
불 관 풍 설 난 회 선

세상 풍설과 무관커늘 내 마음
어지럽게 선회했네.

又
우

또

身經險夷終成幻⁶⁾,
신 경 험 이 종 성 환

몸소 고난이며 순리 다 겪지만
필경은 공허해지나니,

道貫窮通了卽休⁷⁾.
도관궁통료즉휴

역경에 처하든 출세하든
도道로써 일관하면 결국 편해지네.

堪羨竹淵觀物子⁸⁾,
감선죽연관물자

족히 탐낼만한 죽연竹淵이라
그 경물景物 완상玩賞하는데,

一江烟月老漁舟⁹⁾.
일강연월노어주

연무烟霧서린 달빛 아래 강에는
낡은 어선 대어졌네.

(서애주석: 老漁舟三字用來詩語)¹⁰⁾
노어주삼자용래시어

1) ① 장(將): 방금, 막, 지금

② 북호(北湖): 북담(北潭)으로 추정함. 풍산류씨(豊山柳氏) 후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회마을 북쪽 강 건너편에 위치하는 부용대(芙蓉臺) 앞을 흐르는 낙동강은 바로 부용대 앞에서 수심(水深)이 깊어지면서 소(沼)를 형성하는데, 이곳을 하회마을 사람들은 ‘북담’ 혹은 ‘옥연소(玉淵沼)’라 칭했다고 한다. 줄역 『국역류성룡 시 III』에 나오는 「시79」의 주석 5)를 참조함.

③ 혜시도문(惠詩到門): 삼가 벗이 지은 시를 읊으며 집에 돌아오다.

- a. 혜(惠): 상대를 공경하는 뜻의 말이다. 경사(敬詞)이다
- b. 시(詩): 송시(誦詩: 시를 읊다)하다
- c. 도문(到門): 집에 오다. 재사(齋舍)에 돌아오다

④ 주차도소(走次睹笑): (내가 그 자리에서) 즉시 차운(次韻)하여 지었던 시를 보면서 웃는다.

****역자주석:**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에는 이렇게 “주차도소(走次睹笑)”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1794년 정조어제(正祖御製)와 류성화(柳聖和: 1668 ~ 1748: 서애 류성룡의 5세손이자 적장손이며, 류원지의 3세손임)가 성책(成冊)한 출재(拙齋) 류원지(柳元之: 1598 ~ 1674)의 간찰집(簡札集) 중 곤책(坤冊: 표지의 제목이 증조부수간曾祖父手簡으로 되어 있음)에는 모두 “초차도소(草次睹笑)”로 되어있다. (현재 충효당 종가문적들은 모두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이관하여 보존하고 있음)

‘주차도소(走次睹笑)’의 ‘도(睹)’는 ‘도(賭)’의 편집오류로 사료(史料)되어, 역자는 ‘도(賭)’를 ‘도(睹)’로 교정하여 번역한다. 그 뜻은 아래의 주석을 참조 바람.

*초차도소(草次睹笑): (내가) 초서(草書)로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를 보면서 웃었다.

④ 초(草): 초서(草書). (글자를) 흘려 쓰다. (글자가) 어설피다

- a. 주(走): (그 자리에서) 즉시, 당장, 곧바로
- b. 차(次): 본 시에서는 차운(次韻)의 약어로 쓰였으며, 차운하여 지은 시를 가

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자세한 설명은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 바람.

c. 도(賭): 살펴보다

d. 소(笑): 웃다

2) ① 청침(晴窓): 날이 갠 (밝은) 창, 쾌청해진 밝은 창. 본 시에서는 ‘창밖이 쾌청하여’로 번역했다.

② 점역(點易): 주묵(朱墨)을 갈아두고 지은 글의 일부를 붓으로 지우고서 새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a. 점(點): (주서朱書로) 칠해서 지우다

b. 역(易): 바꾸다, 고치다, 변경하다. 본 시에서는 ‘수정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③ 산천(山泉): 산중의 천수(泉水: 샘물). 본 시에서는 ‘골짜기 시냇물’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3) ① 갱(更): 줄곧

② 향(向): 북향한 창(窓)

③ 청지(淸池): 물이 맑은 연못. 본 시에서는 부용대(芙蓉臺) 앞을 흐르는 북담(北潭)을 대칭(代稱)한 말로 보인다.

④ 억혜련(憶惠連): 혜련(惠連)을 회상하다

a. 억(憶): 회상하다, 떠올리다

b. 혜련(惠連):

○유하혜(柳下惠)와 소련(少連)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 두 사람 모두 ‘언행에 세속을 벗어난 고상한 절조(節操)가 있는 선비’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논어(論語)·미자편(微子篇)』에, “공자가 말씀하기를(子曰): 유하혜(柳下惠)와 소련(少連)은 뜻을 굳히고 몸을 욕되게 했으나(柳下惠·少連降志辱身矣), 말이 조리에 맞고(言中倫), 행동이 깊은 생각에 맞으니(行中慮), 그 점에서 옳았다(其斯而已矣).”라고 한 대목이 있다.

*유하혜(柳下惠: 생물년 미상): 전금(展禽)이다.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대부(大夫)를 지냈다. 성은 전씨(展氏)이고, 이름은 획(獲)이며, 자는 금(禽)이다. 그래서 전금(展禽)이라고도 부른다. 유하(柳下)는 식읍(食邑)의 이름이고, 혜(惠)는 시호(諡號)이다. 유하계(柳下季) 또는 유사사(柳士師) 등으로 불린다. 일찍이 사사(士師)라는 관직을 지내면서 형옥(刑獄)을 맡았는데, 세 번 쫓겨나자 사람들이 떠나기를 권했다. 그러자 바른 도리로 남을 섬긴다면 어디를 간들 쫓겨나지 않겠으며, 도를 굽혀 남을 섬길 바에는 하필 부모님의 나라를 떠나겠느냐고 대답했다. 노나라 회공(僖公) 26년 제(齊)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자 회공이 전희(展喜)를 보내 호군(犒軍)을 명분으로 삼아 제나라에 철군을 설득하라고 했다. 전희가 먼저 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물어보았다. 어질고 덕이 있어 공자로부터 청송을 받았다. 동생이 유명한 도적 도적(盜跖)이었다. 낯선 여자와 하룻밤을 지내고도 음란하지 않아 조행(操行)이 있는 남자로 불린다.

*소련(少連: 생물년 미상): 『공자가어(孔子家語) 권10』에 소련(少連)과 대련(大連) 형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자가 말씀하기를(孔子曰): 부모의 상쟁을 당하여(父母之喪), 지극히 애통함을 사흘 동안 게을

리 하지 않았고(三日不怠), 석 달 동안 해이하지 않았고(三月不解), 일 년 동안 슬퍼하고 애통해 했으며(期悲哀), 삼년동안 슬픔에 젖어있었다(三年憂). 동이東夷의 자손(단군의 자손)으로(東夷之子), 예禮에 지극하였다(達於禮者也).”라고 한 대목이 있다.

- 4) 고침와(高枕臥) : 고침(高枕) : 고침이와(高枕而臥) : 고침안와(高枕安臥) : ‘베개를 높이 하여 편안하게 자다’는 뜻으로, 아무런 근심걱정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 5) ① 난(亂) : 어지러이, 어지럽게
② 회선(回旋) : 선회하다. 본 시에서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 6) 신경험이 종성환(身經險夷終成幻) : 몸소 고난이며 순리 다 겪지만 필경은 공허해지 나니) :

****역지주석 :** 정조대왕(正祖大王) 어제(御製)와 하회본 서예전서(西厓全書)에는 모두 ‘험이(險夷)’로 수록되어있으나, 류원지(柳元之) 증조부수간(曾祖父手簡)에는 ‘험이(驗夷)’로 수록되어 있다.

- ① 신경(身經) : 몸으로(몸이) …을 겪다
- ② 험이(險夷) : 간난(艱難) : 곤란함, 어려움과 순리(順利)
- ③ 종성환(終成幻) : 결국 공허한 것이 되다.
- 7) ① 도관궁통(道貫窮通) : 매사를 ‘도(道)’로써 일관하면 사리(事理)에 의거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역경에 처하든 현달(顯達)한 입장에 있든 매사가 순조로워지게 된다는 뜻이다.
 - a. 도(道) : 본 시에서 말하는 ‘도’는 ‘유가의 도’로서, 이는 성리학(性理學)의 천명(天命)을 바탕으로 한 신유학(新儒學) 사상이다(『중용(中庸) 1장 - 총론』에서, “하늘이 명한 것을 성성이라 하고(天命之謂性), 성을 따르는 것을 도도라 한다(率性之謂道).”라고 말하고 있음). 말하자면, 천명(天命)을 품수(稟受)하여 태어난 인간은 천성(天性)을 지닌 도덕적 존재인데, 여기서 말하는 천성(天性)이란 중국 송나라의 철학자 정이(程頤)가 처음으로 주장하고 주희(朱熹)가 계승한 ‘성즉리(性即理)’에 근거한 것으로, 이때의 ‘성(性)’은 만유(萬有)의 근원이 되는 ‘이(理)’이며, 만인(萬人)에 내재하는 보편적인 인간성이다. 따라서 인간이 만사(萬事)를 ‘이(理)’에 의거해 언행하면, 바로 ‘도’에 부합되는 행위가 됨으로 어떤 일을 하여도 순조롭게 관통이 된다는 것이다.
 - b. 관(貫) : 일관하다, 관철하다, 통하다
 - c. 궁통(窮通) :
 - 역경에 처함(곤궁함)과 현달(顯達 : 입신출세)함.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장자(莊子) · 양왕편(讓王篇)』에, “옛적의 도도를 체득한 자는(古之得道者), 곤궁해도 (역경에 처해서도) 즐거워하고(窮亦樂), 현달顯達해도 즐거워했던 것이다(通亦樂). 그들이 즐거워한 것 곤궁함과 현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所樂非窮通也), 도덕수양이 이 수준에 이르려고 하는 것에 있었으니(道德於此), 역경과 현달은 한서寒暑와 풍우風雨 같은 계절변화의 순차였을 뿐이었다(則窮通爲寒暑風雨之序矣).”고 한 대목이 있다.
 - ② 료(了) : 필경, 결국
 - ③ 즉(卽) : …이다
 - ④ 휴(休) : 편안해지다

- 8) ① 감선(堪羨) : 부러워할만하다
 ② 죽연(竹淵) :
 ☆대나무가 우거진 심연(深淵)
 ☆대나무와 심연(深淵)
 ③ 관물자(觀物子) : 경물을 완상하다
- 9) ① 일강연월(一江烟月) : 온 강에 피어난 안개와 달빛. 강변에 가득한 안개와 달빛
 ② 노어주(老漁舟) : 낡은 어선이 대어졌다(정박했다).
- 10) ****서애주석** : ‘노어주老漁舟’ 세 자는 시어(詩語)로 쓴 것이다(老漁舟三字用來詩語).



시56. 어젯밤 겸암정 謙菴亭에서 (여러 선비들과)
 하룻밤을 묵으며 북담 北潭에서
 노닐었던 까닭에 홀연 시운 詩韻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삼가) (그분들의 시운을) 차운하여
 (본 시를) 읊는다

- 계미년(1583년 서애 42세) 10월 그믐에 세 수를 쓰다 -

詩56. 昨宿謙巖亭 因遊北潭 忽披來韻 謹次¹⁾
 작 숙 겸 암 정 인 유 북 담 홀 피 래 운 근 차
 三首 癸未陽月晦²⁾
 삼 수 계 미 양 월 회

其一
 기 일

[1]

洗耳山齋聽石泉³⁾,
 세 이 산 재 청 석 권

속된 소리 들은 귀를 씻은 산재 山齋에
 개울물소리 들리는데,

白雲青竹暫留連⁴⁾.
 백 운 청 죽 잠 유 련

백운도 푸른 대나무 상공에서
 잠시 머무르네.

無端更上危樓望⁵⁾,
 무 단 갱 상 위 루 망

무심결에 누각에 또 올라가
 먼 하늘 바라보며,

看盡中宵斗柄旋⁶⁾.
 간 건 중 소 두 병 선

한밤중에 북두명 北斗柄의
 선회 끝까지 지켜봤네.

其二
기 이

[2]

西湖木落露沙洲⁷⁾,
서 호 목 락 노 사 주

서호西湖 강변에 낙엽지고
모래섬 드러났으니,

塵世悲歡一笑休⁸⁾.
진 세 비 환 일 소 휴

세속의 애환쯤은
일소一笑에 부치고 말리라.

古渡寒天人去盡⁹⁾,
고 도 한 천 인 거 진

오래된 나루터에 날이 차고
인적人跡은 없는데,

夕陽江口自孤舟¹⁰⁾.
석 양 강 구 자 고 주

강나루에 석양지고
외로운 배 한 척만 떠 있네.

其三
기 삼

[3]

離羣更識知音貴¹¹⁾,
이 군 갱 식 지 음 귀

‘(뜻이 같은) 무리 떠나와야 지기知己의
소중함 더 잘 알게 된다’는데,

隻字眞成抵萬金¹²⁾.
척 자 진 성 저 만 금

한 마디 짧은 말이나 실로 만금
같은 격언일세.

從此山翁與溪友,
종 차 산 웅 여 계 우

지금부터라도 이 산중 늙은이
개울물과 벗하며,

百年相倚共幽襟¹³⁾.
백 년 상 의 공 유 금

종신토록 서로 의지하여
회포를 함께 풀려하네.

1) 직숙겸암정(昨宿謙菴亭: 어젯밤 겸암정에서 〈여러 선비들과〉 하룻밤 묵으며) 인유 북담(因遊北潭: 북담에서 노닐었던 까닭에) 홀피래운(忽披來韻: 홀연히 시운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근차(謹次 삼가 〈그분들의 시운을〉 차운해 〈본 시를〉 읊다):

- ① 작숙 겸암정(昨宿謙巖亭) : 어젯밤 겸암정에서 〈여러 선비들과〉 하룻밤을 묵다) :
****역주주석** : ‘겸암정(謙巖亭)’의 ‘암(巖)’자는 ‘암(菴)’으로 바로 잡는다. 이 겸암정(謙菴亭)의 편액은 퇴계 이황이 제자 류운룡을 위해 써 준 것이다.

a. 작숙(昨宿) : 지난밤에 묵다. 어젯밤에 …에서 묵다

b. 겸암정(謙巖亭) : 겸암정(謙菴亭)으로 바로 잡는다. 겸암정(謙菴亭)은 겸암정사(謙巖精舍)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이 역시 ‘겸암정사(謙菴精舍)’로 바로 잡는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37[풍일로 181]에 있는 조선 중기 정사. 본 정사는 겸암 류운룡(柳雲龍 : 1539~1601 :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의 백형임)이 학문 정진과 제자 양성을 위해서 지은 정사이다. 류운룡은 15세에 퇴계(退溪) 이황(李滉 : 1501~1570)의 문하에 나아가 학문에 힘썼다. 이 정사는 겸암이 29세 때(명종 22) 건립하였다. 본 정사는 화회마을 북쪽의 화천(花川) 건너편 부용대(芙蓉臺) 서쪽 끝 강물이 크게 감돌아 굽이치는 절벽 위에 동남향으로 터를 잡고 있다. 정사가 자리 잡은 절벽 아래로는 화천(花川 : 낙동강)이 깊은 소(沼)를 이루며 굽이돌아 흘러나가고, 뒤로는 숲이 있다. 조용하고 그윽한 정취가 감도는 곳이다.

겸암정의 현판은 퇴계선생(退溪先生)이 썼으며, 후면의 겸암정사는 조선 중기의 명필이었던 원진해(元振海 : 1594~1651)의 글씨라고 한다. 겸암은 그의 스승인 퇴계선생이 손수 쓴 현판이름을 ‘호(號)’로 쓴 것이라고 한다.

(이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및 사진 황현만 글 이상해 · 정승모 『하회마을』 참조)

- ② 북담(北潭) : 앞의 「시55」의 주석 1)을 참조 바람.

- ③ 흘피래운(忽披來韻) : 흘연 시운(詩韻)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그분들의 시운을) 차운하여

****역주주석** : 동일한 시제(詩題)하에 쓴 시는 일반적으로 동운(同韻)을 사용한다. 그러나 본 시는 동일한 시제 아래 세 수를 읊으며 각각 다른 운으로 압운(押韻)하였다. 제1수의 운자(韻字)는 연(連)과 선(旋)자로서 운미(韻尾)가 -n으로 끝나는 양성운(陽聲韻)이고, 제2수의 운자(韻字)는 휴(休)와 주(舟)로서 운미(韻尾)가 없는 음성운(陰聲韻)이며, 제3수는 금(金)과 금(襟)자로서 -m으로 끝나는 양성운이다. 이는 북담에서 노닐고 난 선비들이 저녁에 모여 시를 읊는데, 서애 선생은 이 선비들과 함께 시를 읊으며 우의를 다지는 과정에서 그 선비들 중에 대표적인 시운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본 시에서 이를 차운하여 읊은 것이다.

- ④ 근차(謹次) : 삼가 차운(次韻)하다

- 2) ① 양월(陽月) : 음력 10월의 별칭이다.

- ② 회(晦) : 음력 그믐날(음력으로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 3) 세이(洗耳) :

☆ ‘귀를 씻다’는 뜻으로, 오탁(汚濁) : 더럽고 탁함)한 소리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표시한 말이다. 세속에 오염된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은사(隱士)의 심정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서진(西晉)의 학자 황보밀(皇甫謐 : 215~282)의 저서 『고사전(高士傳) · 허유(許由)』편에, “요堯임금이 허유許由에게 천하를 물려주려고 하자(要讓天下於許由), …… 허유는 중악(中嶽 : 오악五嶽의 하나로,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등

봉시봉封市 북쪽에 위치한 숭산嵩山임) 산 아래 영수潁水의 북쪽 강변에서 농사를 짓고(……由於是通耕於中嶽潁水之陽), 기산(箕山: 하남성 등봉시 동남쪽에 위치함), 아래서(箕山之下), 은둔하며 종신토록 천하를 다스릴 기색이 없었다(終身無經天下色). 요임금은 다시 그 〈허유〉를 소환하여 구주九州의 장長으로 임명하려하자(堯又召爲九州長), 허유는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말을 들은 것이 싫어서(由不欲聞之), 영수潁水강변에 가서 귀를 씻었다(洗耳於潁水濱).”고 한 대목이 있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허유(許由): 전설상의 고대 사람으로, 요임금시대의 은사(隱士)였다.

- 4) 잠유련(暫留連): 잠시 머무르다
- 5) 위루망(危樓望): 높은 누각에 올라가 먼 하늘을 바라보다.
- 6) 긴진중소 두병선(看盡中宵斗柄旋: 한밤중에 북두별北斗柄의 선회 끝까지 지켜봤네):
****역지주석:** 본 시에서의 ‘두병(斗柄)’은 위정자의 경영에 대한 관찰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① 긴진(看盡): 끝까지 다 보다, 끝까지 지켜보다
 - ② 중소(中宵): 중석(中夕, 중야中夜), 야반(夜半), 한밤중
 - ③ 두병(斗柄): 북두별(北斗柄): 북두칠성(北斗七星) 중 자루 쪽의 세 별, 곧 북두칠성의 다섯 번째 별부터 일곱 번째 별까지를 말한다. 북두칠성의 개별 명칭은 천추(天樞), 천선(天璇), 천기(天璣), 천권(天權), 옥형(玉衡), 개양(開陽), 요광(搖光)인데, 그 중에서 자루 쪽에 위치한 ‘옥형’과 ‘개양’ 및 ‘요광’을 가리킨다. 북두성(北斗星: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부터 네 번째 별까지는 ‘두(斗: 열 되들이의 말)’ 모양을 하고 있고, 다섯 번째 별부터 일곱 번째 별까지는 ‘병(柄: 자루)’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두병(斗柄)’이라 일컬어진 것이다.
 북두칠성의 위치는 천구(天球)의 북쪽에서 약 30도 떨어져 있으며 천추와 천기를 연결한 곳에 북극성이 있다. 국자의 자루 끝에 있는 요광은 하루에 열두 방위를 가리키므로, 옛날에는 시각(時刻)의 측정이나 항해의 지침으로 잡았다.
- 7) ① 서호(西湖): 서쪽 호수. ‘서호’는 하회마을 서쪽에 위치한 겸암정사(謙菴精舍) 앞을 흐르는 낙동강을 가리키며, 본 시에서는 ‘그 강변’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노사주(露沙洲): 모래섬이 드러나다
- 8) ① 진세(塵世): 세속사회, 속세
- ② 비환(悲歡): ‘비환(悲懼)’으로도 쓰고 ‘비환(悲懼)’으로도 쓴다. 비애(悲哀)와 환락(歡樂), 즉 애환(哀歡)의 뜻이다.
- ③ 일소휴(一笑休): 일소에 부치고 말다.
- 9) ① 고도(古渡): 오래된 나루터
- ② 인거진(人去盡): 사람들이 다 가버리다. 본 시에서는 인적(人跡)이 없는 것을 표현한 말로 쓰였다.
- 10) ① 강구(江口): 강나루, 강변, 강어귀
- ② 자고주(自孤舟): 외로운 배 한 척
- 11) ① 이군(離群): 자기의 무리와 헤어지다, (뜻을 같이한) 못사람을 떠나다
- ② 갱식(更識): 더 잘 알게 되다
- ③ 지음(知音):
 ‘백아절현(伯牙絕絃)’의 전고(典故)에 관련 비유가 보인다. 이는 『열자(列子) ·

탕문편(湯問篇)』에 기재된 우화(寓話) 중의 하나이다. ‘백야(伯牙 : 생몰년 미상. 춘추시대 초나라의 악사)는 거문고를 잘 뜯었고, 종자기(鍾子期 : 생몰년 미상. 춘추시대 초나라의 사람으로 음률을 잘 구별한 사람)는 그 음을 잘 들었다’고 한다. 백야가 뜯는 거문고 음의 뜻이 고산(高山)에 있으면, 종자기는 “드높고 웅장함이어! 태산과 같구나(峩峩兮若泰山)!”라고 말하고, 거문고의 음의 의도가 유수(流水)에 있으면, “드넓고 망망함이어! 장강長江과 황하黃河 같구나(洋洋兮若江河)”라고 말하였다. 백야가 거문고 소리에 기탁한 것을 종자기는 틀림없이 알았던 것이다. 후세의 사람들은 위 내용에서 나오는 ‘지음(知音 : 음률에 통달함)’을 가지고 ‘지기(知己) 또는 동지(同志)’에 비유하는 말로도 썼다. 본 시에서는 이 지기(知己)의 뜻으로 쓰였다. (줄역, 『국역 류성룡 시 Ⅲ·시29』의 주석 8)의 ② ‘지음(知音)’ 항목 참조)

- 12) ① 척자(隻字) : 한 글자,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척어(隻語 : 한 마디의 말)’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진성(眞成) : 정말로, 확실히, 사실상
 ③ 저만금(抵萬金) : 일만 금에 상당하다(맞먹다).
- 13) ① 상의(相倚) : 서로 기대다, 서로 의지하다
 ② 공유금(共幽襟) : 회포를 함께 풀다



시57. (승정원承政院의 관원이) 어명御命을 받잡고
 (제수除授한 관직에) 응락하라며 (나를)
 방문하신 분이, (내가) 우연히 지은 시에
 감탄하셨으나, 단지 아직은 배를
 어디에 대야 좋을지 모르면서

詩57. 承許枉訪 感歎偶題 第未知艤舟何處爲佳也¹⁾
 승 허 왕 방 감 탄 우 제 제 미 지 의 주 하 처 위 가 야

山北諸君有好音²⁾,
 산 북 제 군 유 호 음

산북山北 지역의 여러분께
 좋은 소식 있음에,

一樽相就要同斟³⁾.
 일 준 상 취 요 동斟

술 한 통 마련했으니 만나서
 함께 마시고 싶소.

應憐花鳥時將晚⁴⁾,
 응 련 화 조 시 장 만

화조花鳥의 시절이 끝나 감을 애뜻하게
 여져서인지

綠水青山處處心⁵⁾.
 녹 수 청 산 처 처 심

녹수청산綠水靑山도
 곳곳이 수심에 잠겨있네요.

1) ① 승허왕방(承許枉訪): <승정원承政院의 관원이> 어명을 받들고 <제수한 관직에>
 응락하라며 방문하신 분이):

a. 승(承): 경봉(敬奉: <웃사람의 서신이나 상급기관의 공문을> 삼가 받음)하다. 본 시
 에서는 ‘어명을 받들’과 동시에 ‘그 명을 받든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허(許) : 응락하다. 본 시에서는 ‘(제수한 관직에) 응락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c. 왕방(枉訪) : ‘몸을 낮춰(남을) 방문하다’는 뜻으로, 타인이 자기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경사(敬辭)이다.
- ② 제미지(第未知) : 단지 아직은 모른다.
- ③ 의주(義舟) : 배를 대다
- ④ 위가야(爲佳也) : 좋다
- 2) ① 산북(山北) : ‘산북(山北) 지역’이라고 번역한다. 이 지역은 지금의 경북 문경군(聞慶郡) 산북면(山北面)의 속칭이다. ‘산북’이란 지명이 생긴 유래는 비조산(飛鳥山, 300m)과 오봉산(五峯山, 220m) 그리고 왕의산(王衣山, 339m)으로 이어지는 산맥의 북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얻어진 지명이다. 이 일련의 산맥은 소백산 편마암(小白山 片麻巖)의 지질로 되어 있는 소백산맥의 지맥(支脈)이다. ‘산북지역’은 조선시대에 ‘현(縣)’이란 행정구역으로 정해지기에는 지나치게 좁았고, ‘동리’로 보기에는 여러 개의 동리가 겹쳐 과도하게 넓은 곳이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산북지역’이란 뜻의 ‘산북(山北)’으로 부른 것이다. (『산북면지(山北面誌)』에 관한 자료는 산북면의 행정직원인 허세정씨로부터 받았음)
- ② 제군(諸君) : 경사(敬辭)로서 ‘여러분’의 뜻이다.
- ③ 호음(好音) : 좋은 소식
- 3) ① 일준(一樽) : 한통(한잔)의 술. 본 시에서는 ‘술 한통을 준비해서, 혹은 술 한통을 가지고’라는 부사구로 번역한다.
- a. 준(樽) : 술통, 술잔, 술그릇. ‘준(樽)’에 대한 기타의 뜻은 앞의 「시9」의 주석 22)의 ① ‘준(樽)’조항을 참조 바람.
- ② 상취(相就) : 만나다
- a. 취(就) : 만나다
- ③ 요(要) : …하려하다
- ④ 짐(斟) : (술이나 차 등을 술잔이나 찻잔에) 따르다, 붓다
- 4) ① 응(應) : 부사로 쓰여, ‘아마도’의 뜻이다.
- ② 련(隣) : 애뜻하다, 안타까워하다
- ③ 화조(花鳥) : 꽃과 새, 본 시에서는 ‘봄날의 꽃과 새’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④ 시장만(時將晚) : 한 철이 곧 끝나다.
- 5) ① 처처(處處) : 여기저기, 곳곳에
- ② 심(心) : 근심하다, 염려하다, 마음을 쓰다, 관심을 갖다(두다)

시58. 화산華山の 옥정玉井 샘물

詩58. 華山玉井靈源¹⁾
화 산 옥 정 영 원



誰向華山欲問田²⁾,
수 향 화 산 욕 문 전

어째서 (은사隱士들은) 화산華山에서
경작하러 탐문할꼬?

仙源從此有因緣³⁾.
선 원 종 차 유 인 연

신선神仙 거주지가
이곳에서 인연이 있어서라네.

諸君借我梯雲路⁴⁾,
제 군 차 아 제 운 로

여러분이 내게 천상天上에 오를
사다리 빌려주면,

玉井秋風採碧蓮⁵⁾.
옥 정 추 풍 채 벽 련

옥정玉井에 추풍 부니
푸른 연蓮잎 따오리다.

- 1) ① 화산(華山) : 경북 군위군(軍威郡) 고로면(古老面)과 영천시(永川市) 신령면(新寧面) 화남리(華南里)의 경계에 있는 해발 828m의 산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신령현 산천조에 “현의 북쪽 5리에 있고, 청송계(靑松界) 보현산에서 뻗어 나왔으며, 현의 주봉이고 형상은 규화(葵花)와 같고 중앙은 광활하고 샘물이 솟아나며, 길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 산에는 600~800m의 급사면에 둘러싸여 있는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이 있다. 평탄면의 기반암은 하양층군(河陽層群)으로 북쪽에 화강암이 관입하면서 접촉성변질을 받아 침식에 강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평탄면에서 발원한 위천(渭川)의 한 작은 지류가 개석하여 평탄면은 서쪽으로 열려있는 ‘口’자 모양의 와지(窪池 : 움푹 패인 웅덩이가 된 땅)를 형성한다. 이 평탄면은 2단으로 되어있으며, 중앙의 면은 700~800m, 주변의 면은

500~600m의 높이다. 평탄면 안에는 조선 숙종 때 축조된 화산성(華山城)과 약수탕이 있다.

- ② 옥정영원(玉井靈源) : 옥정(玉井) : 벽옥 같은 색깔의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이란 뜻이다. 고로면(古老面) 화산산성(華山山城 : 지방문화재 47호)안에 위치한 샘물. 샘물은 지름이 5cm 정도의 바위구멍에서 솟아나오며,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고, 여름에도 10°C 이하의 시원한 물로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온다. ‘옥정영원’이란 명칭이 16세기 전부터 불리고 있었음은 류성룡(柳成龍) 선생의 위의 시에서 알 수 있겠다. 샘물 옆에 새겨져 있는 ‘옥정영원’이란 글자는 이곳에 살았던 한학자 한덕련(韓德鍊 : 1881~1956 : 경북 영천지역 출신의 문인이며, 본관은 청주淸州, 호는 송계疎溪隱. 한일합방 후 군위군 고로면에 소재한 화산華山의 산중으로 들어가서 후진양성에 전념하였음) 선생이 ‘옥(玉)’자를 쓰고, 나머지 글자는 그의 제자들이 한자씩 썼다고 한다. 오랫동안 산성내의 식수원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약수로 알려져 있다.

위의 「화산 옥정영원(華山玉井靈源)」이라는 시제(詩題)의 ‘칠언절구시’는 바로 이곳 괴헌정(槐軒亭) 앞 자그마한 연못 안의 바위 위에 새겨져 있다.

*괴헌정(槐軒亭) : 조선시대 숙종 35년(1709) 병마절도사인 윤숙(尹淑) 장군이 왜구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화산 산성(지방문화재 47호)을 건립할 당시, 지휘·통제했던 장소로 추측되는 분지중앙의 6평 규모 5각 정자이다. 괴헌은 장군의 호를 따서 붙여진 이름으로, 내부 상단에 태극호와 팔괘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우주·자연·음양의 원리를 포함하는 조선국기 형태인 조선태극팔괘도가 있으며, 장군의 일대기와 화산의 지리·역사·군사적 소개를 다룬 글씨 현판이 안쪽에 부착되어 있다.

- 2) ① 수(誰) : 왜,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어째서)
 ② 향(向) : 개사(介詞)로서, 동작의 지점을 표시하는 말로 쓰였으며, ‘…에서’로 해석된다.
 ③ 욕(欲) : …하고 싶어 하다, …하려하다, 희망하다
 ④ 문(問) : 탐문하다, 문의하다
 ⑤ 전(田) : 경종(耕種) : 땅을 갈아 파종함)하다, 농사짓다, 경작하다
 3) ① 선원(仙源) :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의 거주지’
 ② 종차(從此) : 이곳에서, 여기서
 ③ 유(有) : 모종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드러남’을 이르는 말이다. ‘있다, 생기다’는 뜻이기도 하다. 본 시에서는 ‘인연’이란 말에 맞추어 ‘당다’로 해석한다.
 ④ 인연(因緣) : 어떤 사물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내력
 4) ① 제군(諸君) : 여러분
 ② 제운로(梯雲路) : 천상(天上)에 올라가는 사다리. 본 시에서는 평측률(平仄律)을 맞추기 위해, ‘운로제(雲路梯)’가 도치된 형태로 쓰였다.
 5) 채벽련(採碧蓮) : 푸른 연(蓮)잎을 따오다.

시59. 신녕현新寧縣의 현판

갑신년甲申年(1584년 : 서애 43세)

詩59. 新寧縣懸板 甲申¹⁾

신녕현현판갑신



風樹驚懷歲月流²⁾
풍수경회세월류

불효자가 한탄하며
놀란 심정이나 세월은 흘러가는데,

壁間詩句爲誰留³⁾
벽간시구위수류

벽에 써 붙인 저 시구詩句는
누굴 위해 남겨뒀을까?

山窓一夜孤眠處⁴⁾
산창일야고면처

산골 집 창 아래서 부친 여윈 자식이
하룻밤 묵을 때,

脩竹寒溪共客愁⁵⁾
수죽한계공객수

대숲과 한랭한 계류溪流가
나그네 시름을 함께 해주네.

1) 신녕현의 현판(新寧縣懸板) 갑신(甲申) :

****역자주석 :** 「서애연보」에 의하면, 선생은 계미년(癸未年 : 1583, 선조 16년, 서애 42세) 10월에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다음 해인 갑신년(甲申年 : 1584, 선조 17년, 서애 43세) 9월까지의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시기로 보아야 한다. 위의 시는 갑신년에 지어진 것이다. 「서애연보」에 의하면, 이 해의 8월 조항에 “각처에서 향약鄉約을 반포하여, 효도와 공경을 철저히 하고, 예의를 숭상하도록 강조하여, 그것으로써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바로잡는 기본을 삼았다(又頒鄉約于八方, 惓惓以敦孝悌, 興禮讓, 爲化民, 成俗之本).”라고 하는 내용이 보이는데, 위의 시제(詩題)인 「신녕현의 현판」은 바로 선생의 본 현에 대한 관리의 차

원을 시적경계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① **신녕현(新寧縣)**: 경상북도 영천(永川) 지역에 설치되었던 조선 시대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바다의 풍파를 막아 평안히 지나게 한다는 뜻으로 명명하였다고 한다. 이 신녕현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백제·고구려 지역의 유민을 흡수한 후 효율적 통치를 위해 685년(신분왕神文王 5)에 행정구역을 9주 5소경 117군 293현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때 신녕 지역을 사정화현(史丁火縣)으로 삼았다가 이후 757년(경덕왕景德王 16)에 신녕현으로 개편되었다. 고려조에 들어와 1018년(현종顯宗 9)에 경주부(慶州府)의 경내(境內)가 되었다가 1390년(공양왕恭讓王 2)에 감무(監務)를 두었다. 조선 왕조 개국 후 1394년(태조 3)에 영주(永州) 경내(境內) 이지현(梨旨縣)을 이곳으로 이속하였으며, 1413년(태종 13)에 현감으로 고치고 치소(治所)를 14개 속역(屬驛)을 거느린 장수역(長壽驛)으로 옮겨 현의 소재지로 삼았다. 1497년(연산군 3)에는 현을 폐하고 영천군에 소속시켰다가 1503년(연산군 9)에 다시 복현을 하였다. (이상은 『삼국사기·잡지·지리지』, 『고려사 제57권·경상도조』,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등에 보임)
- ② **현판(懸板)**: 글자나 그림을 새겨 문 위나 벽에 다는 널조각. 흔히 절·누각·사당(祠堂)·정자 등에 들어가는 문 위, 처마 아래에 걸여놓는다.
- 2) **풍수경회(風樹驚懷)**: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부모를 여윈 자식이 슬퍼하고 한탄하며 놀라는 심경(心境). 풍수지탄(風樹之嘆)하며 놀라는 심정
 - a. **풍수(風樹)**: 전한(前漢)의 학자 한영(韓嬰: 생물년 미상)이 쓴 『시경(詩經)』 해설서인 『한시외전(韓詩外傳)·권9』에, 춘추시대(春秋時代) 초(楚)나라의 효자였던 “고어(鰥魚: 생물년 미상: 공자의 제자 고시高柴라고 함)가 말하기를(鰥魚曰: ‘나무가 고요해지려 해도 바람이 멎지 않고(樹欲靜而風不止), 자식이 어버이를 봉양하려 해도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子欲養而親不待也).’고 한 말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이 ‘풍수(楓樹)’란 말을 ‘부모가 별세함으로 인해 봉양할 수 없는 전고(典故)’로 삼았다. 본 시에서는 ‘풍수지탄(風樹之嘆: 돌아가신 어버이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자식의 한탄)’의 약어로 쓰였다.
 - b. **경회(驚懷)**: 경심(驚心: 놀란 심경·놀란 마음·또는 내심 놀라거나 충격을 느낌)과 같은 말이다. 본 시에서는 ‘내심 한탄스럽고 놀라는 심정’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3) ① **벽간(壁間)**: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벽면을 칭한다. 본 시에서는 ‘벽’에로 번역한다.
- ② **위수유(爲誰留)**: 누구를 위해 남겨두는가!
- 4) ① **산창(山窓)**: 산중에 있는 집의 창. 산 쪽을 향해 낸 창
- ② **일야(一夜)**: 하룻밤
- ③ **고면처(孤眠處)**: 부친 여윈 자식이 하룻밤 묵을 때
 **역지주석: 서애선생의 부친 입암(立巖) 류중영(柳仲郢) 공(公)의 생물년대는 1515~1573년이다.
- 5) ① **수죽(脩竹)**: 가늘고 길게 자란 대나무. 본 시에서는 ‘대숲’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한계(寒溪)**: 한랭한 계류(溪流), 차가운 시냇물
- ③ **공객수(共客愁)**: 나그네의 수심을 함께 하다.

시60. 성현역^{省峴驛}에서 묵으며

詩60. 宿省峴驛¹⁾



南來歲月疾²⁾如飛,
남 레 세 월 질 여 비

남으로 오는 동안에도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가고,

驛路黃塵上客衣³⁾.
역 로 황 진 상 객 의

역로驛路에는 황진黃塵 일어
나그네 옷에 잔뜩 묻었네.

暫借幽軒成小睡⁴⁾,
잠 차 유 현 성 소 수

잠시 한적한 집 빌려
잠깐 눈을 붙였는데,

一庭疎影淡忘歸⁵⁾.
일 정 소 영 담 망 귀

뜰 가득 청량한 나무그늘이
귀경歸京조차 잊게 하네.

- 1) 성현역(省峴驛) : 조선시대 경상북도 청도 관내에 있던 역참(驛站)의 하나이다. 삼국 시대 이래 육상 교통로에 설치되었던 역은 고려를 이어 조선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 고, 군사적인 목적도 컸기 때문에 병조에서 관할하였다. 1535년(중종 30)에는 예전 고려 때의 역승(驛乘 : 고려·조선시대 역驛·관官 등을 관장한 관직. 고려는 역제驛制를 두 면서 전국을 22도道 525역驛으로 연결하여 22도에 역승을 두고, 각 역에는 역장驛長·역리驛吏·역졸驛卒·역정驛丁을 두어 공문전달, 관물官物 운송, 공무출장 관리의 숙박 편의 등의 일을 맡게 하였다. 조선은 1457년(세조 3) 전국의 58개 역을 40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마다 찰방(察訪 : 종6품)을 두어 소관역을 관장하게 했으며, 따로 역승(종9품)을 두어 찰방을 돕게 하였다. 조선 전기의 역승은 취재取才로서 임명되는 서리胥吏가 많았으며, 찰방과 함께 무록관 無祿官이었다)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찰방(察訪 : 조선시대, 각 도의 역참驛站을 관리하 는 일을 맡아보던 종6품의 외직문관 벼슬) 체제로 바뀌었다. 성현역 역시 고려부터 설치

되었다가 조선으로 이어졌다. 조선 시대 역 운영은 41개의 역도(驛道)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당시의 역도는 행정 구역상의 도와 구분되는 교통 통신 기관을 지역 단위로 아우르는 별도의 도였다. 이 중에서 종9품 역승(驛丞)을 파견하는 역승도와 종6품 찰방을 파견하는 찰방도로 구분되었는데, 성현역은 찰방이 파견되던 곳이었다. 찰방이 파견되는 성현도(省峴道)의 관할 범위는 청도(淸道) - 밀양(密陽), 청도 - 경주(慶州), 청도 - 창녕(昌寧), 현풍(玄風) - 창녕 - 영산(靈山) 등에 이어지는 역로(驛路)였다. 전통사회에서 역참제도는 교통 통신만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이 매우 컸다. 그리하여 병조에서 관할하게 하였는데, 청도의 성현역은 인근 10개의 역을 관할 통솔하는 종6품의 찰방이 파견된 역이란 점에서 교통 통신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전통은 근대 개화기에도 적용되어 경부선이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다.

- 2) ① 남래(南來): 남쪽으로 내려오다. 본 시에서는 그 동안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세월(歲月): 연월(年月), 주로 시간을 가리킨다.
- ③ 질(疾): 빠르다
- ④ 여비(如飛): 나는 것 같다.
- 3) ① 역로(驛路): 역마(驛馬)를 바꿔 타는 곳과 통하는 길
- ② 황진(黃塵): 황색 진토(塵土), 누런 흙먼지
- ③ 상객의(上客衣): 나그네의 옷에 흙먼지가 (잔뜩) 묻다.
- 4) ① 잠차(暫借): 잠시 빌리다
- ② 유현(幽軒): 한적한(조용한) 집
- ③ 성소수(成小睡): 잠깐 눈을 붙이다.
- 5) ① 일정(一庭): 온 정원(뜰)
- ② 소영(疎影): 소영(疏影)으로도 쓰며, ‘산뜻한(청명한) 그림자(그늘)’의 뜻이다.
- ③ 담망(淡忘): 기억이 흐려져 잊혀지다, 인상(印象)이 점차 떨어져 잊혀지다.
- ④ 귀(歸): 돌아가다(오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귀경(歸京) 혹은 환조(還朝)’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시61. 봄비 와서 밭갈이들 하는데

詩61. 春雨向田耕
춘 우 향 전 경



山村犁雨夜添春¹⁾,
산 촌 여 우 야 첨 춘

산촌에 밭갈이 할 비 내리자
 밤새 춘색 짙어지고,

一氣潛回萬物新²⁾.
일 기 잠 회 만 물 신

한 절기가 잠복했다 돌아오니
 만물이 청신해지네.

南畝曉聞催饁婦³⁾,
남 묘 효 문 최 엽 부

남쪽 밭둑엔 새벽부터
 들밥 재촉하는 아낙들 소리 들리고,

北隣朝出賽田神⁴⁾.
북 린 조 출 세 전 신

북쪽마을엔 아침에 나와서
 전답제田畓祭를 올리네.

霑簑霰霰占年好⁵⁾,
점 사 맥 맥 점 년 호

도롱이 젖도록 가랑비 보슬보슬
 작황 좋다 점쳐지고,

滿目畇畇合力均⁶⁾.
만 목 윤 윤 합 력 균

시아에 가득 찬 넓디넓은 논밭에서
 협력하여 김매네.

更祝君王施惠澤⁷⁾,
경 축 군 왕 시 혜 택

군왕께 다시 바라옵건대
 은택을 베푸소서,

四方同樂太平民⁸⁾。
사 방 동 락 태 평 민

사방천하가 함께 즐기도록
백성들 태평케 하소서.

- 1) ① 산촌(山村) : 산속에 있는 마을
 ② 여우(犁雨) : 밭갈이 할 만큼 비가 오다(내리다)
 ③ 야침춘(夜添春) : 밤새 춘색이 짙어지다
- 2) ① 일기(一氣) : 한 절기(節氣) : 절후(節候) : 한 해를 스물넷으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잠회(潛回) : 숨어 있다가(숨겨졌다가) 돌아오다, 잠복했다 돌아오다
- 3) ① 남묘(南畝) : 남쪽 밭둑
 - a. 묘(畝) : ‘묘(畝)’로도 쓴다. 논밭 넓이의 단위로서 고대에는 사방 백보(百步)를 일묘(一畝)라고 했으나, 진(秦)나라 이후에는 사방 240보를 ‘일 묘’라고 하였다. 시대마다 그 넓이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30평을 일 묘라고 했다. ‘묘(畝)’는 또한 밭의 두둑을 가리키기도 했으며, 전(轉)하여, 전답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썼다. 본 시에서는 밭둑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효문(曉聞) : 새벽에 듣다(들리다)
- ③ 최(催) : 재촉하다, 촉구하다
- ④ 엽부(飮婦) : 들밥을 내어오는 주부, 들밥을 가지고 들판에 가는 부녀자
 - a. 엽(飮) : 들밥. 들일을 하다가 들에서 먹는 밥
- 4) ① 북린(北隣) : 북쪽 마을
 ② 조출(朝出) : 아침에 집을 나오다.
 ③ 새전신(賽田神) : 이 말은 전답제(田畓祭)와 같은 말이다. 전답제는 6월 유두(流頭)에 지내던 제사의 하나로 농촌에서 논·밭의 물고나 밭 가운데 음식을 차려놓고 농신(農神)에게 풍년이 들기를 빌면서 지내던 제사이다.
- 5) ① 점(霽) : 젖다
 ② 사(簑) : ‘사(蓑)’와 같은 자이며, ‘도롱이(따나 짚 따위로 엮어 만든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의 뜻이다.
 ③ 맥맥(霖霖) : 가랑비가 오는 모양으로, ‘보슬보슬(부슬부슬)’로 표현된다.
 - a. 맥(霖) : ‘맥(霖)’과 동자(同字)이며, 가랑비, 세우(細雨), 맥목(霖霖). 가랑비가 오는 모양, ‘부슬부슬(보슬보슬)’로 표현된다.
- ④ 점년(占年) : 일 년 작황(作況)을 점치다.
- ⑤ 호(好) : 좋다
- 6) ① 만목(滿目) : 만목. 눈에 보이는 것 모두
 ② 윤윤(眇眇) : 경지가 넓은 모양으로, ‘넓디넓다’로 표현한다.
 - a. 윤(眇) : 땅을 개간하다, 경지가 넓은 모양
- ③ 합력균(合力均) : 협력하여 힘을 매다
- 7) ① 갱(更) : 다시, 또
 ② 축(祝) : 기원하다, 바라다
 ③ 시혜택(施惠澤) : 혜택을 베풀다

- 8) ① 사방(四方) : 천하, 각처(各處), 도처(到處)
② 동락(同樂) : 같이 즐기다, 함께 즐기다, 동락하다
③ 태평민(太平民) : 백성을 태평하게 하다



시62. 가뭄을 걱정하면서

詩62. 悶旱¹⁾
민 한

嶺外年年旱作災²⁾,
영 외 연 년 한 작 재

청산 이외 들판은
연년이 가뭄 드는 재난으로,

河流深處欲生埃³⁾。
하 류 심 처 욕 생 애

강바닥조차 메말라
먼지가 이려하네.

龍藏古壑雲無事⁴⁾,
용 장 고 학 운 무 사

용이 심연深淵에 잠복하니
구름이 짙 리 없고,

人殫微誠帝未懷⁵⁾。
인 탄 미 성 제 미 회

사람은 정성 적었나 걱정하는데
천제天帝는 아직 위로하지 않네.

麥禾已乾田畝淨⁶⁾,
맥 화 이 건 전 묘 정

보리와 조는 벌써 말라버려
수확할 게 없는데,

稻花零盡蒺藜開⁷⁾。
도 화 영 진 질 러 개

벼꽃마저 다 시들고
남가새 꽃만 피고 있네.

樓中日日雲霓望⁸⁾,
루 중 일 일 운 예 망

누각에서 날마다 (비를 빌며)
하늘만 바라보는데,

九萬蒼蒼詎念哉⁹⁾
구 만 창 창 거 녘 재

구만리 하늘이 창창하니
어찌 비 바랄 생각 하겠는고!

- 1) 민한(閔旱): 가뭄을 걱정하면서
 - 2) ① 영외(嶺外): 청산(靑山) 이외의 들판
② 연년(年年): 해마다
③ 한작재(旱作災): 가뭄이 들어 재난을 당하다.
 - 3) ① 하류심처(河流深處): 강바닥, 강의 밑바닥
② 욕생애(欲生挨): 먼지가 생기려고 하다.
 - 4) ① 용장고학(龍藏古壑): 용이 오래된 웅덩이에 숨어있다. 용이 수중에 잠복하다.
 - a. 용장(龍藏): ‘용장(龍藏)’으로도 쓴다. 『역경(易經)·건괘(乾卦)』에, “수중수中에 잠복한 용은 잠시 재능을 발휘하지 않나니(潛龍勿用), 양기가 잠복해있기 때문이다(陽氣潛藏).”고 한 대목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이 ‘용잠’의 뜻을 ‘잠용물용(潛龍勿用)’이란 말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본 시에서도 ‘용잠’은 ‘비룡(飛龍)이 되어 구름을 끌고 와서 비를 내리는 재능을 발휘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고학(古壑): 오래된 (산골짜기의) 물웅덩이. 본 시에서는 ‘오래된 심연(深淵)’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운무사(雲無事): 구름이 끼지 않다.
**역지주석: 구름을 타고 나는 비룡(飛龍)이 출현해야 구름이 깔텐데, 용이 물속에 잠복해 있으니 ‘구름이 깔 수가 없다(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구름이 끼지 않음’을 이른 말이다.
 - a. 무사(無事): ‘아무 일도 하지 않다, …할 필요가 없다,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인데, 본 시에서는 ‘(구름이) 끼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5) ① 인탄(人殫): 사람은(…을) 두려워하다
② 미성(微誠): 들인 정성이 작았다, 작은 정성, 겸사(謙詞)로 자주 쓰는 말이다.
③ 제미회(帝未懷): 천제(天帝)는 아직 위로해 주지 않다.
 - 6) ① 맥화(麥禾): 보리와 조. 본 시에서는 발작물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a. 맥(麥): 보리
 - b. 화(禾): 속(粟: 조)
 - ② 전묘(田畝): 전지(田地). 본 시에서는 ‘전지(田地)에서 수확할 곡물’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정(淨): 조금도 남지 않다, 남김 없다(남은 것이 없다). 본 시에서는 전지에서 수확할 곡물이 없음을 표현한 말로 쓰였다.
- 7) ① 도화(稻花): 벼꽃
② 영진(零盡): 모조리 말라 떨어지다(시들다).
 - ③ 질려(蒺藜): 남가새. 남가새의 한해살이 풀이다. 줄기는 높이가 1m 정도이며, 잎은 마주나고 깃모양 겹잎이다. 여름에 노란 꽃이 일겨드랑이에서 하나씩 핀다. 꽃과 뿌리, 그리고 씨는 약용한다. 혈압강하와 안과질환 등에 치료용으로 쓴다.

바닷가 모래땅에 자란다.

④ 개(開) : (꽃이) 피다

8) ① 누중(樓中) : 누각에서

② 운예(雲霓) :

☆무지개[虹]. 무지개는 흔히 비가 그친 뒤에 태양의 반대쪽에 나타난다. 본 시에서는 가뭄이 연속되는 상황을 읊은 것이므로 ‘무지개’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
☆전(轉)하여, ‘고공(高空)’을 가리키는 뜻으로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③ 망(望) : (멀리) 바라보다

9) ① 구만(九萬) : 구만리(九萬里)의 약어로 쓰였으며, 본 시에서는 ‘거리가 대단히 먼 아득한 하늘’을 칭한 것이다.

② 창창(蒼蒼) : 푸르디푸르다, 창창(蒼蒼)하다

③ 거(詎) : 어찌, 어떻게. 반문(反問)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④ 념(念) : 그리워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두다

⑤ 재(哉) : 의문 또는 반문 혹은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 뜻으로 쓰였다.

시63. 기정岐亭에서 노닐다가 봉원逢原
이안도李安道 공공이 그리워서

- 을유년(乙酉年: 1585년, 서애 44세) -

詩63. 遊岐亭憶逢原¹⁾ 乙酉
유 기 정 역 봉 원 을 유



梅花零落²⁾柳花飛,
매 화 영 락 유 화 비

매화 꽃잎 떨어지니
버들 꽃 흩날리는데,

湖上孤亭客又歸³⁾。
호 상 고 정 객 우 귀

호숫가 외딴 정자에过客만 왔다가네.

山帶碧雲人去遠⁴⁾,
산 대 벽 운 인 거 원

산은 벽운碧雲에 싸였는데
그 분은 먼 길 떠났고,

水連青草鴈來稀⁵⁾。
수 연 청 초 안 래 희

호반湖畔에 청초 돋자
날아오는 기러기도 드무네.

登臨病後憐衰鬢⁶⁾,
등 림 병 후 연 쇠 빈

병 앓은 뒤 유람하는데
늘어난 백발이 가여워서,

悵望愁來倚夕暉⁷⁾。
창 망 수 래 의 석 휘

수심에 저워 먼 곳 바라보며
석양빛에 의지하네.

泉路祇今⁸⁾消息斷,
천 로 지 금 소 식 단

(그 분이) 저승 가고
지금은 소식이 단절됐음에,

東風回首淚沾衣⁹⁾。
동 풍 회 수 누 절 의

춘풍 씌며 회상하니
눈물이 옷깃을 적시네.

- 1) ① 기정(岐亭) : 기정의 소재지는 공검지(恭檢池 : 경상북도 기념물 제12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경북 상주시尙州市 공검면恭檢面 양정리楊亭里 199-7번지)에 있던 정자의 명칭이다. 상주의 이 공검지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없으나, 『상주지(尙州誌)』에, “공갈 못은 제천(堤川)의 의림지, 김제(金堤)의 벽골지와 같은 시대인 삼한(三韓)시대에 축조된 저수지로 여러 차례 보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말을 타고 못을 한 바퀴 도는데 한나절이 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주 북쪽 27리에 있다. 고려 명종 25년(1195)에 상주 사록(司錄) 최정빈(崔正份)이 옛터를 따라서 쌓았는데, 독의 길이가 860보이고 못 둘레는 1만6천6백47척이다. 그 못이 실상은 함창(咸昌)에 있는데, 상주 백성들이 관개(灌漑)의 이익을 독차지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천 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못은 대부분 전답으로 변하고 1959년 인근의 오대(五台) 저수지가 완공됨으로써 이 못은 관개(灌漑) 가치가 없어지자, 1964년에는 2천여평의 흔적만 남게 되었다. 1993년에 상주시에 이를 3,938평으로 확장해 수심 3.4m의 연못을 조성하여 연꽃을 심고 옛날의 영화로웠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갈 못은 예부터 서쪽 못가로 연꽃이 조성되었는데 연꽃이 만발할 때면 중국의 전당호(錢塘湖)와 방불하다 하여 시인묵객들이 이를 읊은 한시가 많으며, 민요·설화 등도 있다. 퇴계 이황도 공갈 못에 있던 기정(岐亭)을 찾아 「함창 공검지 주변에 있는 기정의 10가지 경물을 읊다(岐亭十詠在咸昌公檢池上)」라는 시편을 남겼다.

*공갈못: 이 못의 이름이 공갈 못으로 불리게 된 것은 못을 축조할 당시 못 독이 자주 무너져 ‘공갈’이라는 아이를 못 독에 생매장 시킨 뒤 못 독을 쌓았다는 매아(埋兒) 설화에서 유래하고 있다.

- ② 억봉원(億逢原) : 봉원(逢原) 이안도(李安道) 공(公)을 그리워하다.

- a. 봉원(逢原) : 봉원(逢原) 이안도(李安道). 봉원(逢原)은 이안도(李安道)의 자(字)이다.

*이안도(李安道 : 1541 ~ 1584) : 조선 중기의 학자로서, 본관은 진성(眞城)이다. 자는 봉원(逢原), 호는 몽재(蒙齋)이다. 퇴계 이황(李滉 : 1501 ~ 1570)의 장손으로,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 이준(李鵠)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봉화공씨(奉化琴氏)로 훈도 금재(琴梓)의 딸이다. 할아버지에게 학문을 배워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퇴계문하의 명유(名儒)들과 교유하였다. 1561년(명종 16)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574년(선조 7)에 이황의 적손이라 하여 음서(蔭叙)로 목청전참봉(穆淸殿參奉)에 임명되고, 그 뒤 저장부봉사(儲倉副奉事)와 상서원부직장(尙書院副直長)을 거쳐 사온직장(司醢直長)에 올랐다. 아버지의 병으로 귀향하였다가 상을 당한 뒤 44세로 사망했다. 예안(禮安)의 동계서원(東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몽재

문집(蒙齋文集)』 두 권이 있다.

- 2) 영락(零落) : (꽃이나 잎이) 말라 떨어지다, 시들다
- 3) ① 호상(湖上) : 호숫가
② 고정(孤亭) : 고립된 정자(亭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정자, ‘외딴 정자’로 표현되었다.
③ 객우귀(客又歸) : 객(過客)이 왔다가 돌아가다.
- 4) ① 산대벽운(山帶碧雲) : 산은 벽운(碧雲)에 감싸였다.
② 인거원(人去遠) : 그 사람은 먼 곳에 가다(먼 길 떠나다).
**역주주석 : 본 시구(詩句)의 뜻은 봉원(逢原) 이안도(李安道) 공이 저승에 갔음을 표현한 말이다.
a. 인(人) : 그 사람, 본 시에서는 봉원 이안도 공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b. 원(遠) : 먼 곳, 본 시에서는 저승을 비유한 뜻으로 쓰였다.
- 5) ① 수연청초(水連青草) : 직역하면, ‘호수가 푸른 풀과 잇닿았다’는 말인데, 이 뜻은 ‘호반(湖畔 : 호숫가)에 푸른 풀이 돋았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② 인래희(鴈來稀) : (날아오는) 기러기가 드물다, 기러기가 날아오는 게 드물다.
- 6) ① 등림(登臨) : ‘등산임수(登山臨水)’의 뜻이다. ‘유람(遊覽)’을 가리키기도 한다.
② 병후(病後) : 병을 앓고 난 뒤
③ 연쇠빈(憐衰鬢) : 늘어난 백발이 가엾다. (당시 서에 나이 44세임)
- 7) ① 창망(悵望) : 실망하며(낙담하며, 슬퍼하며) 먼 곳을 바라보다.
② 수래(愁來) : 수심(愁心)이 밀려오다, 수심에 차다
③ 의석휘(倚夕暉) : 석양빛에 의지하다
- 8) ① 천로(泉路) : 천하(泉下 : 황천黃泉의 아래), 지하(地下 : 사후에 매장되는 곳), 음간(陰間 : 저승)을 가리킨다.
② 지금(祗今) : 지금
- 9) ① 동풍(東風) : 춘풍(春風)
② 회수(回首) : 회상하다, 돌이켜보다, 되돌아보다
③ 점의(沾衣) : 옷을 적시다. 본 시에서는 옷깃을 적시다로 번역한다.



시64. 농부 김천민_{金天民} 존장께서 봄에,
내가 거주하는 하회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시집을 보여주면서, 시가_{詩歌}로
화답하며 한담하자기에 (그 시집 중에)
첫 번째 시의 운자에 차운하여 짓다

- 을유년(乙酉年: 1585년: 서애 44세) 2월에 -

詩64. 金天民丈農於春日 訪余河庄 示以詩卷求和聊
김 천 민 장 농 어 춘 일 방 여 하 장 시 이 시 권 구 화 료
次首韻¹⁾ 乙酉仲春
차 수 윤 을 유 경 춘

淨掃茅簷亂樹間²⁾, 초가집을 청소한 뒤 우거진 숲속에서,
정 소 모 첨 난 수 간

端居日日好看山³⁾. 평소에 날마다
단 거 일 일 호 관 산
산을 관상_{觀賞}하기 좋아합니다.

身多歷閱神方倦⁴⁾, 독서 많이 하다 보니
신 다 역 열 신 방 권
정신이 피곤해지기도 하나,

道貫窮通意自閒⁵⁾. 수도_{修道}로 일관해서 깊이 통찰하면
도 관 궁 통 의 자 한
마음이 질로 쾌적해지지요.

採藥有時忘遠近⁶⁾, 약초 채집하다
채 약 유 시 망 원 근
돌아다닌 거리조차 간혹 잊고서,

倚筇隨處弄潺湲⁷⁾。
의 공 수 처 농 잔 원

어디서나 죽장竹杖에 의지한 채
계곡물을 완상玩賞 하지요.

從君共說林居興⁸⁾，
종 군 공 설 임 거 흥

공의 뜻 쫓아 하향한거下鄉閑居하는
흥취 화답하다보니,

世事都無可解顏⁹⁾，
세 사 도 무 가 해 안

저속한 세상사 전혀 없어
웃음 떨 수 있으리다.

농부 김천민 金天民 존장 尊長의 시운 詩韻에 또 차운하여

又次金天民韻
우 차 김 천 민 운

山村寥落掩柴荆¹⁰⁾, 산촌은 적막하고 사립문도 닫혔는데,
산 촌 요 락 엄 시 형

別後相思更惱情¹¹⁾。 이별 후 그리움에
별 후 상 사 갱 녀 정
심정은 더욱 괴롭소이다.

臥病不知林葉盡¹²⁾, 와병중이라 낙엽이 지는 줄도 몰랐는데,
와 병 부 지 일 엽 진

半隨寒雨滿空庭¹³⁾。 절반은 찬비 탓에
반 수 한 우 만 공 정
텅 빈 뜰에 짝 깔렸네요.

-
- 1) ① 김천민장농어춘일(金天民丈農於春日 : 농부 김천민金天民 존장尊長께서 봄에) :
a. 김천민(金天民) : 인물이력 미상
b. 장농(丈農) : 존장농부(尊長農夫)
④ 장(丈) : 연장자에 대한 존칭. 존장(尊長)
⑤ 농(農) : 농민, 농부
- ② 방여하장(訪余河庄) : 내가 거주하는 하회의 집을 방문했다.
a. 하장(河庄) : 하회(河回)의 집
④ 하(河) : 하회(河回)의 약칭으로 쓰였다. 이외에, 하상(河上) · 하회(河回) · 물돌이동 · 곡강(曲江) · 강촌(江村) · 하외(河隈) 등으로 불리어졌다. 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河回里)의 옛마을 이름이다.
⑤ 장(庄) : ‘장(莊)’의 속자(俗字)로서, 촌장(村莊), 교외에 있는 주택, 별서(別

墅 : 별장)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촌집, 촌가(村家)’의 뜻으로 ‘하회에 있는 서애의 본가’를 가리킨다. (줄역 『국역 류성룡 시 III』의 「시71」의 주석 2)의 ② ‘하장(河庄)조항 참조)

- ③ 시이시권구회료(示以詩卷求和聊) : 시집을 보여주면서 시가로 화답하며 한답하기를 바라다.
- ④ 차수운(次首韻) : 첫 번째 시(詩)의 운자(韻字)에 차운(次韻)하여 짓다.
- 2) ① 정소(淨掃) : 깨끗하게 청소하다
- ② 모첨(茅簷) : 초가자붕의 처마, 본 시에서는 초옥(草屋), 즉 초가집을 대칭하는 말로 쓰였다.
- ③ 난수간(亂樹間) : 우거진 숲속에서
 - a. 난수(亂樹) : 우거진 수림(樹林)
 - b. 간(間) : 중간, 가운데, 안에, 속에
- 3) ① 단거(端居) : 평소, 평상시
- ② 일일(日日) : 날마다
- ③ 호(好) : ...하기를 즐기다(좋아하다)
- ④ 간산(看山) : 산을 관상(觀賞)하다.
- 4) ① 신(身) : 일인칭 대명사로서 ‘아(我)’에 상당하는 말이다. 번역에서 생략해도 무방하다.
- ② 다(多) : 많이, 지나치게
- ③ 역열(歷閱) : 독서를 많이(장시간, 오랫동안)하다.
- ④ 신방권(神方倦) : 정신이 바야흐로 피곤해지다.
- 5) ① 도관궁통(道貫窮通) : 매사를 ‘도(道)’로써 일관하면 사리(事理)에 의거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역경에 처하든 현달(顯達)한 입장에 있든 매사가 순조로워지게 된다는 뜻이다.
- **역자주석 : ‘도관궁통(道貫窮通)’은 앞의 「시55」의 주석 7)의 ① ‘도관궁통(道貫窮通)’ 조항을 참조 바람.
- a. 도관(道貫) : ‘도’로 일관하다
- b. 궁통(窮通) : 깊이 통찰하다, 깊이 탐구하여 통달하다
- ② 의(意) : 마음
- ③ 자한(自閑) : 자한(自閑)으로도 쓰며, ‘유한자득(悠閑自得)’는 뜻이다. ‘평온하고 쾌적해지다’는 말로서 표현할 수도 있는 이 말은 자태가 (기색이) 한적(閑適)하고, 심정이 편안한 것을 형용한 말로서, 자유롭고 한가하며, 심정이 쾌적한 것을 표현한 말이다.
- 6) ① 채약(採藥) : (산중에서) 약초를 채집하다
- ② 유시(有時) : 때로는, 어떤 때는, 간혹
- ③ 망원근(忘遠近) : (약초 채집에 정신이 팔려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거리조차 잊어버리다.
- 7) ① 의궁(倚筇) : 지팡이에 의지하다
- ② 수처(隨處) : 도처에, 어디서나, 가는 곳마다
- ③ 룡(弄) : 완상(玩賞) : 즐겨 구경함)하다
- ④ 잔원(潺湲) : 물이 흐르는 모양, 졸졸, 찰찰 등으로 표현된다. 한문(漢文)으로는 ‘잔잔(潺潺)’으로 표현 한다.

- 8) 임거흥(林居興) : 하향한거(下鄉閑居) 하는 흥취. 본 시에서는 시의 객체인 김천민
존장과 인야의 흥취를 서로 화답하다는 의미를 뜻한다.
a. 임거(林居) : ‘하향(下鄉)해서 한거(閑居)함’을 이룬 말이다.
b. 흥(興) : 흥취
- 9) ① 세사(世事) : 말 많은 세상사, 본 시에서는 ‘용숙(庸俗)’ 즉 저속한 세상사를 가리
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도무(都無) : 전채 부정에 쓰였으며, ‘모두 사라지다’로 번역하였다.
③ 가(可) : …할 수 있다
④ 해인(解顏) :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웃음을 띠다. 기뻐서 활짝 웃다, 얼굴에 웃음
을 띠다.
- 10) ① 요락(蓼落) : 쓸쓸(조용)하다, 쓸렁(적막, 적적)하다
② 엄(掩) : 닫다, 닫혀있다
③ 시형(柴荊) : 시형(柴荊) : 앞나무(쑤 : 땀나무)와 가시나무)으로 만든 문호(門戶 : 출입
문), 사립문
- 11) ① 별후(別後) : 이별 후
② 상사(相思) : 그리워하다
③ 갱뇌정(更惱情) : 더욱 번민하는 실정이다
- 12) 임엽진(林葉盡) : 숲속에 낙엽이 지다.
a. 임엽(林葉) : 숲속의 나뭇잎
b. 진(盡) : ‘락진(落盡)’의 약어(略語)로서, ‘사(死 : 죽음)’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낙
엽이 지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13) ① 반(半) : 절반. 본 시에서는 ‘낙엽의 절반’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수(隨) : …를 따라서, …에 의거하여, ‘…탓에’로 해석한다.
③ 한우(寒雨) : 찬 비
④ 만공정(滿空庭) : 텅 빈 뜰에 가득하다. 공적(空寂)한 뜰에 가득하다.

시65. 노자암 鷗鷺巖 주인에게 부치다

을유년 乙酉年(1585, 서애 44세)

詩65. 寄鷗鷺巖主人¹⁾ 乙酉
기 노 자 암 주 인 을 유



仙區閱過太恩恩²⁾,
선 구 열 과 태 총 총

선경仙境을 대충 보고 지나오는
노정路程이 너무 총총했기에,

回首中流思不窮³⁾.
회 수 중 류 사 불 궁

강 중류에서 돌아보니
(그 풍경) 한없이 그림네.

數疊丹崖相映帶⁴⁾,
수 첩 단 애 상 영 대

몇 겹의 아름다운 암벽
묘하게 어울린 데다,

千章碧樹正玲瓏⁵⁾.
천 장 벽 수 정 영 룡

수 천 그루 녹수綠樹가
유달리 아름다웠네.

蘭舟去後山雲合⁶⁾,
난 주 기 후 산 운 합

목란주木蘭舟 타고 출발한 후
산에 먹구름 끼더니,

江燕飛時野雨濃⁷⁾.
강 연 비 시 야 우 농

강상江上에 제비 날 때
들판에 우기雨氣 짙어지네.

歲月閒消魚鳥裏⁸⁾,
세 월 간 소 어 조 리

세월은 소리 없이
어조魚鳥의 꿈을 꾸 듯 흘러가는데,

百年形役愧塵蹤⁹⁾。
백 년 형 역 괴 진 종

평생名利에 얽매었던
지난 이력 부끄럽네.

- 1) ① 노자암(鷓鴣巖) : 노자(鷓鴣) 곧 가마우지가 노닐다가는 절벽암반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역자주석 :** ‘노자암(鷓鴣巖)’은 ‘노자(鷓鴣 : 가마우지과에 속하는 물새 가우지의 명칭)’가 많이 날아와 노닐다 가는 암반이라 하여 붙여진 절벽암반의 명칭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된 ‘노자암(鷓鴣巖)’이란 암반의 명칭은 두 곳이 있다. 그 첫째는 「선산도호부(善山都護府) · 산천(山川)」 조항에 기록된 것이고, 그 둘째는 「나주목(羅州牧) · 산천(山川)」 조항에 기록된 것이다. ‘선산도호부’ 관내에 있는 이 절벽암반의 소재지는 지금의 ‘경북 선산군(善山郡) 옥성면(玉城面) 농소리(農所里)’에 위치하고, ‘나주목’ 관내에 있는 이 절벽암반의 소재지는 지금의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忠孝洞)’에 위치한다.

서애가 본 시를 지은 때가 을유년(乙酉年 : 1585 : 서애 44세)인데, 「서애연보」를 보면, 한 해 전인 갑신년(甲申年 : 1584 : 서애 43세)에 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판서 겸 동지경연춘추관사(禮曹判書兼同知經筵春秋館事)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에 제수된 뒤 근무하다가, 그 이듬해인 을유년에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어머니를 가 뵈었다(乞假歸覲安東).” 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기록은 없다. 전라도를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기에, 역자는 본 시에서 읊은 ‘노자암’이 선산군에 위치한 ‘노자암’으로 보고 해석한다.

일찍이 1363년(공민왕 12)에 주아리(注兒里) 출신으로 일선김씨(一善金氏) 김제(金濟)와 김주(金澍) 형제(고려 두문동 72현에 들어가는 인물)가 이 노자암 절벽의 아름다움을 연구시(聯句詩)로써 남기고 있다. 즉, 형(11세)은 “바위는 물굽이에 깎이고 깎여 천 층이나 희어지고(巖磨水府千層白),”라고 읊으니, 동생(8세)은 “노을은 물에 떨어져 한 단의 붉은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네(錦落天機一段紅).”라고 읊었다. 조선시대에도 수령과 시인묵객들이 배를 타고 유람하며 이 절경을 감상하였다고 한다. 그 후 조선후기에 청송심씨 심치현(沈致賢 : 1690~1740)이란 선비가 이 바위 위쪽에 노자정(鷓鴣亭)이란 정자를 지었다고 한다. 지금 현재는 양수장으로 변해있어 옛날의 영화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낙동강 구마구간에 정자로는 월파정 · 송당 · 창암정 · 녹야정 · 쇠연정 · 영귀정 · 노자정 · 매학정 · 낙서정 등이 문헌상에 보인다. (다음넷, 이택용의 e야기 참조)

- a. 노자(鷓鴣) : 가마우지. 가마우지과에 속하는 바닷새. 집단으로 번식하고 이동하는 사회성이 높은 새이다. 이 노자(鷓鴣 : 鷓鴣)는 더펄새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가마우지, 민물가마우지, 쇠가마우지 등 3종이 알려져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30종이 보고되어 있다. 번식기에는 수컷이 짙은 재료를 모으고 암컷이 집을 짓는데, 주로 바위 위에 지으며 마른풀이나 해초를 주재료로 쓴다. 산란기는 5월 하순에서 7월로 한배의 산란수는 4~5개이다. 먹이는 주

로 물고기인데, 어미가 먹이를 집에 가져오면 새끼는 어미의 입속에 머리를
깊이 박고 꺼내 먹는다. 우리나라, 일본, 대만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울릉도와 제주도 많이 분포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는 가마
우지의 성(性)이 냉하고 유독하므로 뜨거운 물이나 불에 덴 데에 약으로 쓴
다고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② 주인(主人): 노자암(鷗鵲巖)을 의인화하여 ‘주인’이라고 칭하고 있다.
- 2) ① 선구(仙區): 신선이 산다는 곳.仙境(仙境), 선역(仙域), 선계(仙界)와 같은 뜻이
다. 본 시에서는 ‘노자암(鷗鵲巖)의 경물’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열과(閱過): 지나가는 길에 보다. 한 번 훑어보며 지나가다(지나오다)
- ③ 태총충(太恩寵): ‘너무 바쁘게, 혹은 너무 서둘러서’라는 뜻이다.
- 3) ① 회수(回首): 머리를 돌리다, 돌아보다
- ② 중류(中流): 강하(江河)의 중간 부분
- ③ 사(思):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 ④ 불궁(不窮): 끝(마지막, 최종)이 없다. ‘한없다(끝이 없다)’로 해석한다.
- 4) ① 수첩(數疊): 몇 겹
- ② 단애(丹崖): 아름다운 암벽, 기려綺麗한 암벽
- ③ 상(相): 서로, 상호(相互)
- ④ 영대(映帶): 경물(景物: 풍경)이 서로 잘 어울리다.
- 5) ① 천장벽수(千章碧樹): 천 그루의 푸른 나무
 - a. 장(章): 대목재(大木材). 후세에 와서 전(轉)하여, 큰 나무를 세는 양사로
쓰였다.
- ② 정(正): 유달리, 유독
- ③ 영릉(玲瓏):
 - ☆찬란하다, 아름답다
 - ☆정교한 모양, 뾰뾰이 우거지다.
- 6) ① 난주(蘭舟): 목란주(木蘭舟: 목련주木蓮舟). ‘목련 나무로 만든 배’라는 말이나
실제로 목련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소선(小船: 거룻
배: 돛이 없는 작은 배)’의 미칭(美稱)으로 쓰는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로써 유선
적(遊仙的) 분위기를 부각시켰다.
- ② 거후(去後): 노자암(鷗鵲巖)에서 승선(乘船)하여 출발한 이후를 가리킨다.
- ③ 산운합(山雲合): 산에 먹구름이 끼인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 7) ① 강(江): 본 시에서는 ‘강상(江上: 강물 위쪽, 곧 상공)’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야우농(野雨濃): 들관에 우기(雨氣)가 짙어지다.
- 8) ① 한소(閑消): ‘한소(閑消)’로도 쓰며, ‘청한(淸閑)한 모양’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세일이) 묵묵(默默)히 흘러가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어조리(魚鳥裏): (꿈결에) 어조(魚鳥: 물고기와 새)의 꿈을 쓴 뜻
 - a. 어조(魚鳥): 몽경(夢境)을 가리키는 말이다. 『장자(莊子)·대종사(大宗師)』에
서, “가령 그대가 <잠결에> 새가 된 꿈을 꾸면 하늘을 선회할 것이고(且汝夢
爲鳥而厲乎天), 물고기가 된 꿈을 꾸면 심연深淵에 잠입하여 헤엄칠 것이다
(夢爲魚而沒於淵).”고 한 대목이 있다.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으니,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참되게 깨달아야 정신세

제가 도(道)의 경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로 든 말이다.
본 시에서의 “어조리(魚鳥裏)”는 ‘세월이 꿈결에 물고기나 새가 된 꿈을 꿔듯
이 소리 없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의미를 지닌 뜻으로 쓰였다.

b. 리(裏) : 속, 안

- 9) ① 형역(形役) : ‘형해(形骸 : 육신, 몸) 때문에 구속되고 사역(使役)당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공명(功名 : 공을 세워 명성을 떨침)과 이록(利祿 : 이득과 녹봉祿俸) 때문에,
처신이 견제(牽制)되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즉 ‘명리(名利)에 얽매이다’는 말
이다.

a. 형(形) : 형해(形骸), 육신, 몸

b. 역(役) : 사역(使役)(하다), 부역(賦役)(하다)

- ② 괴진종(愧塵蹤) : 지난 이력(履歷)이 부끄럽다. 즉 세속을 좇은 지난날의 이력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이다.

a. 괴(愧) : 부끄럽다, 부끄러워하다

b. 진(塵) : 속세, 인간세상

c. 종(蹤) : 발자취

****역지주석 :** 본 시에서 쓰인 ‘진종(塵蹤)’은 ‘경력(經歷) 또는 이력(履歷)’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시66. 방금 피꼬리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서

詩66. 聞新鷺¹⁾
문 신 앵



上林花雨曉新晴²⁾,
상 립 화 우 효 신 청

상림원上林苑에 봄비 내리다
새벽에야 날 개는데,

夢斷金衣三兩聲³⁾。
몽 단 금 의 삼 양 성

피꼬리 두세 마리 지저귀는 소리에
단꿈에서 잤네.

京洛一年春欲暮⁴⁾,
경 락 일 년 춘 욱 모

한성漢城 생활 일 년에
봄도 저물어가고 있는데,

不堪搔首動鄉情⁵⁾。
불 감 소 수 동 향 정

참지 못해 머리 긁적임은
망향심정 간절해서네.

1) 문신앵(聞新鷺): 방금 피꼬리 지저귀는 소리를 듣다.

2) ① 상림(上林): 상림원(上林苑): 창덕궁 요금문(耀金門) 밖에 있는 대궐 안의 동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화우(花雨): 꽃 피는 계절에 내리는 비, '봄비'로 풀이 된다.

③ 효신청(曉新晴): 새벽에 날(날씨)이 개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날이 개다.

3) ① 몽단(夢斷): '몽각(夢覺)'과 같은 말로서, 본 시에서는 '잠이 깨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금의(金衣): 황금색의 새털을 가리킨다. 피꼬리의 털이 노랗기 때문에 본 시에서는 이를 피꼬리를 가리키는 말로 보았다.

③ 삼양성(三兩聲): 피꼬리 두세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 혹은 피꼬리가 두세 번 지

저귀는 소리

- a. 삼량(三兩): 대략의 숫자로서, 소량을 표시하는 말이다. ‘이삼(二三), 두세(두셋)’과 같은 말이다.
- b. 성(聲): 소리. 본 시에서는 ‘(찌꼬리가) 지저귀는 소리’의 뜻으로 쓰였다.
- 4) ① 경락(京洛): ‘경락(京雒)’으로도 쓰며, ‘낙양(洛陽)’의 별칭이다. 중국의 동주(東周)·동한(東漢)이 모두 이곳에 도읍을 정했던 까닭에 일컬어진 명칭이다.
본 시에 쓰인 이 ‘경락(京洛)’이란 말은 조선의 도성(都城: 경성京城)인 한성(漢城: 한양漢陽: 서울)을 대칭한 말로 쓰였다. 또한 본 시에서는 ‘한성에서의 생활’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춘욕모(春欲暮): 봄이 저물려 (끝나가려) 하다, 봄이 저물어가고 있다.
- 5) ① 불감(不堪): 차마 ...할 수 없다, 참을 수(견딜 수) 없다
- ② 소수(搔首): 머리를 긁적이다. ‘초조하거나 생각하는 바가 있는 모양’을 이르는 말이다. ‘(머리를) 긁적긁적하다’로 표현된다.
- ③ 동향정(動鄉情): 향정(鄉情: 망향望鄉: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동요하다. 망향심정이 간절함을 표현한 말이다.

시67. 강변에서 사문_{斯文} 이경울_{李景嶸} 공_公을 송별하면서

詩67. 江上送李斯文_{景嶸}¹⁾
강 상 송 이 사 문 경 울



江上春風吹柳絮²⁾, 강변에 춘풍불어 버들개지 흩날리는데,
강 상 춘 풍 취 류 서

離歌一曲送歸舟³⁾。 이별가 한 곡조로 거룻배 타고
이 가 일 곡 송 귀 주
귀가하는 분 전송하네.

天涯芳草年年恨⁴⁾, 하늘가의 방초_{芳草}가 해마다
천 에 방 초 연 년 한
한스러워하는 것은,

日暮烟波不自由⁵⁾。 해질녘 연파_{烟波} 자욱하여
일 모 연 파 부 자 유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일세.

1) ① 강상(江上): 강변

② 이사문(李斯文) 경울(景嶸): 사문(斯文) 이경울(李景嶸): 사문(斯文)은 이경울 공(公)의 호(號)로 보인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자(字)나 호를 앞에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③ 경률(景嶸): 이경률(李景嶸)

☆이경률(李景嶸: 1537~?):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숙침(叔瞻)이며,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부친은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안음현감(行安陰縣監) 이효언(李孝彦)과 모친 한승정(韓承貞)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인은 홍인우(洪仁祐)의 딸이다. 1568년(선조 1) 증광시에서 진사 3등 29위로 합격하였고, 1573년(선조 6) 알성시 문과에서 병과 3위로 급제하였다. 1583년(선조 16)에는 지평

(持平)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자신의 상소문에서 이이(李珣)에 대해 지나친 언사를 구사하였음을 밝히며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였으나, 언관(言官)으로서 잘못이 없다는 하교를 받았다. 또한 유학(幼學) 박추(朴樞)로부터 편당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탄핵을 받았다. 이들은 이심(李愼)이다.

*유학(幼學): 유학은 『예기(禮記)』에서 “인생십년유학(人生十年幼學)”이라 하고, 유(幼)는 15세 혹은 19세 이전의 남자를 가리킨다고 한 것처럼, 동양의 유교권 내에서 신분이 아니라 교육의 입문 단계에 있는 10세부터 20세 이전까지의 초학 유생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이것이 조선시대에는 학교에 적을 둔 관학생으로서, 군역을 면제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역종(役種)을 밝히게 되어 있는 호적 및 각종 공사 문서에 기재된 직역이었다.

- 2) ① 취(吹): 전파(傳播): 널리 퍼뜨림, 뿌림)하다, 유포(流布)하다. 본 시에서는 ‘흠날리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유서(柳絮): 버들개지(버들강아지), 버드나무의 꽃으로, 솜처럼 바람에 날려 흩어진다.
- 3) ① 이가(離歌): 이별할 때 부르는 노래, 이별가
- ② 송(送): 전송하다
- ③ 귀주(歸舟): 거룻배 타고 귀가하는 손님
- 4) ① 천애(天涯): 천변(天邊), 하늘가, 지극히 먼 곳을 이르는 말이다.
- ② 방초(芳草): 향기롭고 꽃다운 풀, 충정(忠貞)이나 현덕(賢德)을 지닌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 ③ 연년한(年年恨): 해마다 한스럽게 생각하다, 해마다 한하다, 해마다 한을 품다.
- 5) ① 일모(日暮): 날이 저물다, 해질녘
- ② 연파(煙波): 연파(煙波)로도 쓴다.
☆연무창창(煙霧蒼蒼): 연기와 안개가 길게(푸르게) 깔림): 한 수면을 가리킨다.
☆시문(詩文) 문장의 기복(起伏)과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 ③ 부자유(不自由):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시68. 승려 탄홍^{誕弘}이 강변에 안식처를
 헌납하겠다고며, 재물을 내놓고 집을
 짓는다가에, 농 삼아 시를 써서
 증여하다



詩68. 僧誕弘將入海鳩 資作舍 戲書以贈¹⁾
 승 탄 홍 장 입 해 구 자 작 사 희 서 이 증

手中無一物²⁾,
 수 중 무 일 물

(그대) 수중에 금전 한 푼 없으면서,

爲我結茅茨³⁾.
 위 아 결 모 자

나를 위해 초가집을 짓겠다하네.

好意誠難得⁴⁾,
 호 의 성 난 득

그 호의 진실로 받아드리기 어려웠는데,

鳩謀孰爾資⁵⁾.
 구 모 숙 이 자

(아마도) 상의했겠으나 누가 그대에게
 재물로 돕겠다던고?

春風二月末,
 춘 풍 이 월 말

(지금이) 춘풍 부는 이월 그믐께라,

芳草滿江湄⁶⁾.
 방 초 만 강 미

방초芳草가 강변에 가득 깔렸으리.

抱布東南去⁷⁾,
 포 포 동 남 거

(듣자하니) 베를 안고 동남쪽으로 갔다는데,

還期間幾時。
 환 기 문 기 시

돌아올 시기가 언제인지 묻고 싶네.

- 1) ① 승 탄홍 장입해구(僧誕弘將入海鳩: 승려 탄홍이 강변에 안식처를 헌납하겠다고):
- a. 승(僧): 승려
 - b. 탄홍(誕弘): 서에 류성룡(1542~1607)이 평소애 가깝게 지내던 승려로, 안동 하회마을 앞에 옥연정사를 짓는데 재력을 부담하겠다고 자원했으며 이를 완공했던 사람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45」를 참조 바람.
 - c. 장입해구(將入海鳩): 강변의 (호숫가의) 안식처를 헌납하려 하다.
 - ㉠ 장(將): ...하려고 하다, 계획하다
 - ㉡ 입(入): 헌납하다
 - ㉢ 해구(海鳩): 호숫가의 안식처. 본 시에서는 ‘강변의 안식처’로 번역한다.
 - 해(海): 대호(大湖)나 대지(大池)를 가리킨다(指大湖或大池). 본 시에 서는 하회 부용대 앞 낙동강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풍산류씨 후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하회마을의 건너편에 있는 부용대 앞을 흐르는 낙동강을 ‘북담(北潭) 혹은 옥연소(玉淵沼)’라고 하였다. 강물이 이곳에 이르러 별나게 깊어진 탓에 이른 말이다. ‘해(海)’란 결국 온갖 하천의 물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호수나 큰 못을 ‘해(海)’라고도 하는 것이다. 본 시에서는 북담을 과장해서 ‘강변’의 뜻으로 표현한 말이다.
 - 구(鳩): 안정시키다, 안정되게 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안정되게 하는 곳’ 즉 ‘안식처’의 뜻으로 쓰였다. ‘구(鳩)’가 안정되게 하다는 뜻으로 쓰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국어(國語)·진어(晉語) 구(九)』에, “〈이렇게 하면〉 당신 일평생의 교훈이 될 만한 본보기로 거의 삼을 수 있고, 게다가 조씨(趙氏: 조간자趙簡子: 조양趙鞅: 춘추시대 진나라 正卿을 역임한 사람)의 종실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庶曰可以鑒而鳩趙宗乎)”라고 한 대목이 있다.
- ② 자(資): 재물을 내놓다, 재물로 돕다
- ③ 작사(作畵): 집을 짓다
- ④ 희서(戲畵): 장난삼아 쓰다
- ⑤ 이증(以贈): 증여하다. 여기서 ‘이(以)’는 순접으로, ‘이(而)’와 같은 용도로 쓰였다.
- 2) 무일물(無一物): 한 톨의 금전도 없다.
- 3) ① 위아(爲我): 나를 위하여
- ② 결모자(結茅茨): 초가집을 짓다.
- a. 결(結): 건조(建造)하다, 짓다. 본 시에서는 ‘띠를 묶어 지붕을 덮은 집을 짓다’는 뜻으로 쓰였다.
 - b. 모자(茅茨): 모자(茅茨)로도 쓴다. 띠 풀로 지붕을 덮은 집. 띠 집을 가리킨다. 『묵자(墨子)·삼변(三變)』에서 “옛날에 요와 순은 띠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것을 예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여겼다(昔者堯舜有茅茨者, 且以爲樂),”고 한 대목이 있다.
- 4) ① 호의(好意): 호의,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 친절함 마음씨, 선량한 마음씨
- ② 성(誠): 참으로, 진실로
- ③ 난득(難得):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① 구모(鳩謀) : ‘구수모의(鳩首謀議)’의 약어(略語)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다’는 뜻이다. 이는 비둘기 무리가 모이를 향해 들이밀 듯이 여러 사람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하는 회의를 말한다. 본 시에서는 화자가 탄홍 승려에게 ‘그가 집을 짓겠다는 것’과 관련하여 ‘이미 그 누구와 상의 했겠다 는 것’을 표현한 말로 쓰였다.
- a. 구(鳩) : 본의는 ‘비둘기’이나, 여기서는 ‘서로 머리를 마주 댄다’는 동사로 쓰였다.
- b. 모(謀) : 의논하다, 상의하다
- ② 숙(孰) : 누구
- ③ 이(爾) : 그대
- ④ 자(資) : 재력의 도움을 주다, 재물로 돕다
- 6) ① 방초(芳草) : 꽃다운 풀, 향기로운 풀
- ② 만(滿) : 가득하다, 꽉 차다
- ③ 강미(江湄) : 강안(江岸 : 강기슭), 강변
- 7) ① 포(抱) : 안다
- ② 포(布) : 베, 천, 무명, 포목(布木)
- ③ 동남거(東南去) : 동남쪽으로 가다



시69. 가을날 원지정사^{遠志精舍} 남쪽 처마
 밑에서 등에 햇별을 쫓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시로 지어서 벽에
 붙이다

詩69. 遠志精舍 秋日 負暄南簷 偶吟書壁¹⁾
 원 지 정 사 추 일 부 환 남 첨 우 음 서 벽

卜築西林已數年²⁾,
 북 축 서 름 이 수 년

서림西林에 (정자 지을) 택지 선정한지
 이미 여러 해,

秋風落葉又紛然³⁾.
 추 풍 낙 엽 우 분 연

추풍에 지는 낙엽
 다시 또 분분이 흩날리네.

幽居日日無人到⁴⁾,
 유 거 일 일 무 인 도

은거하는 나날이라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簷下朝陽正可憐⁵⁾.
 첨 하 조 양 정 가 련

처마 아래 아침 햇살
 참으로 사랑스럽네.

1) ① 원지정사(遠志精舍): 하회(河回) 마을 안에 있는 정사(精舍)를 가리킨다. 중요 민속자료 85호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이 정사는 서애가 32세(선조 6년, 1573년)에 부친상을 당하여 낙향해서 은거할 때에 지은 건축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49」의 주석 1)의 ② ‘원지정사(遠志精舍)’ 조항을 참조 바람.

② 추일(秋日): 가을 날

③ 부환남첨(負暄南簷): 남쪽 처마 밑에서 등에 햇별을 쫓다.

a. 부훤(負暄): 양지에서 등에 햇볕을 쬔다.

㉔ 부(負): ‘등에 지다’는 말이나 본 시에서는 ‘등에 (햇볕을) 쬔다’는 뜻으로 쓰였다.

㉕ 훤(暄): 햇볕

『열자(列子)·양주편(楊朱篇)』에, “옛날에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昔者宋國有田夫), 늘 남루한 배옷을 입고서(常衣糲糲), 가까스로 겨울을 넘겼다(僅以過冬). 그러다가 봄이 되어 농사일을 시작하게 되어서야(暨春東作), 절로 따뜻한 햇볕을 쬔게 되는데(自曝於日), 천하에 크고 넓은 지택과 깊은 곳의 따뜻한 방이 있다는 것도, 솜옷이나 가죽 털옷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不知天下之有廣廈陰室, 綿纈狐貉). 그 농부는 자기 아내를 돌아보고 말하기를(顧謂其妻曰): ‘햇볕을 등에 받는 그 따뜻함을(負日之暄),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이요(人莫知者). 이 따뜻함을 우리 주군께 바친다면(以獻吾君), 장차 후한 상을 내릴 것이요(將有重賞).’”라고 한 대목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이 글에 나오는 ‘부훤(負暄)’이란 말을, 군왕을 존경하여 충심을 바치는 전실(典實: 몸가짐이 도리에 맞고 성실함)로 삼았다.

*온본(糲糲): 남루한 배옷(삼의 겹질로 만든 솜을 두어서 지은 옷)

*동작(東作): 봄철이 되면서 시작하는 농사

*오실(陰室): 깊은 곳의 따뜻한 방

*면광(綿纈: 면광(絨纈)): 솜옷

*호학(狐貉): 여우나 너구리 따위의 가죽으로 만든 털옷

b. 남침(南簷): 남쪽 처마

㉔ 우음서벽(偶吟書壁): 문득 떠오른 생각을 벽에 써 붙이다.

2) 북축서림 이수년(卜築西林已數年: 서림西林에 <정자 지을> 택지 선정할지 이미 여러 해):

****역지주석:** 본 시구(詩句)의 ‘서림(西林)’은 줄역 『국역 류성룡 시 II』의 「시7」에 병기(併記)된 서문(序文)에 그 단서가 보인다. 본 시의 서문에, 서애는 30세[신미년(辛未年: 1571)] 겨울에, 택지(宅地)로 선정한 이곳 낙동강 서쪽 언덕[西厓] 곧 서림(西林)을 장차 집[西林亭]을 지어 학습에 전념할 요량으로 산을 파내고 기초를 다진 다음, 강변을 따라서 좁은 길도 뚫었다는 기록과 선친 류중영(柳仲郢) 선생을 모시고 그곳을 돌아다니며 감상하기도 했다는 것, 또한 그 후에 그 터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북쪽 강가[北潭]로 택지를 바꾸어 정사[遠志精舍]를 지은 후에는 이곳[서애: 西林]에 와보지 않았다는 등의 기록이 보인다. 선생은 이로 말미암아 택지로 선정하고자 했던 그 서쪽언덕을 ‘서애(西厓)’로 호를 삼았으며, 그 후에 그 곳을 ‘상봉대(翔鳳臺)’라 이름하였다.

㉔ 북축(卜築): 살만한 땅을 가려서 집을 짓다.

㉕ 서림(西林): 이곳 서림에 ‘서림정(西林亭)’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을 위의 역지주석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서림’은 하회마을 서쪽 뚝에 조성되었던 숲으로, 지금은 느티나무 세 그루만 남아 있다. 위의 주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자를 지으려고 계획만 세웠던 곳인데도 후손들은 그 터를 ‘서림정’이라고 칭하였다. 서림정 맞은 편으로는 돌고지와 상봉대(翔鳳臺: 현재 상봉정上鳳亭이 남아 있음) 그리고

원지산(遠志山)이 보인다. 서수용 저, 『안동하화마을』(2000년, 안동문화원발행)의 책자에 보면, ‘하화마을의 서원과 누대정사’를 소개하는 항목에서, 서림정(西林亭)을 언급하고 있다.

*류중영(柳仲郢 : 1515 ~ 1573) : 본관은 풍산(豐山)이며, 자(字)는 언우(彦遇), 호는 입암(立巖)이다. 아버지 류공작(柳公綽)은 간성군수(杆城郡守)를 지냈으며, 어머니는 증 이조참의 이형례(李亨禮)의 딸이다. 선조 때 영의정 류성룡(柳成龍)의 아버지이다. 1540년(중종 3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지성군교수(知成均教授)가 되었다. 이어 황주·상주·양주·안동의 훈도(訓導)를 역임하면서 지방교육에 큰 힘을 기울였다. 1546년(명종 1) 양현고직장(養賢庫直長)을 겸하였으며, 이듬해 박사가 되었으나 파직되었다. 1549년에 전적(典籍)·감찰·공조좌랑을 거쳐, 1553년에는 장령(掌令)·사복시정·사간·장악원정이 되었다. 이듬해 의주목사로 나가, 국경지방의 밀수행위를 조절하고 생산을 권장하여 크게 치적이 있었다. 1564년에 황해도관찰사로 나아가 민폐를 제거하고 교육을 진흥하는 등 선정으로 알려졌다. 1560년에 정주목사로 부임해서도 교육의 진흥과 민생의 안정에 힘썼다. 1572년(선조 5)에 승지를 거쳐 예조참의·경연관 등을 역임하였다. 천성이 충신(忠信)스러우며 모든 일에 성의를 다하고, 대소공사에는 힘을 다하며 명예와 지위에 뜻을 두지 않았다. 저서로는 『입암집(立巖集)』이 있다.

- ③ 이수년(已數年) : 이미 몇 년이 되었다.
- 3) 분연(紛然) : 뒤섞여 어지럽다, 뒤섞여 (어지러이) 떨어지는 모양
- 4) ① 유거(幽居) : 은거하며, 出仕하지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원지정사’를 가리킨다.
- ② 일일(日日) : 날마다, 매일, 나날이
- ③ 무인도(無人到) :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 5) ① 참하(簷下) : 처마 아래
- ② 조양(朝陽) : 아침햇살이 들다
- ③ 정가련(正可憐) : 부사로 ‘바로, 막, 정말로, 참으로’ 등을 의미한다.
- ④ 가련(可憐) : 어여뻐 여길만하다, 은혜롭게 여길만하다

시70. 정사精舍 벽에 써 붙이다

詩70. 書精舍壁間¹⁾
서 정 사 벽 간



早歲屠龍計未成²⁾,
조 세 도 룡 계 미 성

젊은 시절 학문성취 애썼으나
아직 뜻 못 이루고,

晚來孤臥白雲亭³⁾。
만 래 고 와 백 운 정

만년이 되어 백운정白雲亭에
홀로 누워있네.

眼看世事紛朝暮⁴⁾,
안 간 세 사 분 조 모

눈앞에 보이는 세상사 조석으로
어수선하기에,

坐對青樽獨醉醒⁵⁾。
좌 대 청 준 독 취 성

가득 따른 술잔 마주하고 앉아
홀로 취했다 깨네.

山擁碧嵐排蕞戶⁶⁾,
산 옹 벽 랴 배 궤 호

산에 남기爐氣 싸이더니
누추한 이 집에도 깔리는데,

水滢秋素爽襟靈⁷⁾。
수 영 추 소 상 금 영

강물은 흰 비단 두른 듯
급이돌아 맘이 상쾌하네.

荒原盡日無塵事⁸⁾,
황 원 진 일 무 진 사

황량한 벌판은 종일토록 세속사가 없으니,

且把餘年付聖經⁹⁾。
차 파 여 년 부 성 경

장차 남은 생을 경전經典 독서로 보낼까 하네.

- 1) ① 서(書): 쓰다
- ② 정사(精舍): ‘학문을 닦기 위해 마련한 집’이 정사이다. 다만 본 시의 내용상 원지정사(遠志精舍)를 말하는지 옥연정사(玉淵精舍)를 가리키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만년에 되어서 …라는 구절/장차 남은 생애 … 등으로 보면 이는 서애만년의 생애를 기탁한 곳인 옥연정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③ 벽간(壁間):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벽면을 말한다.
a. 간(間): ‘…와 …의 사이’에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 2) ① 조세(早歲): 조년(早年). 한창 젊은 시절, 젊은 나이. ‘만년’에 반대되는 말이다.
- ② 도룡(屠龍): 용을 사로잡다. 이는 용을 잡는 기술이라는 뜻으로, 아무리 교묘해도 실용적 가치가 없는 기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장자(莊子)·열어구(列御寇)』편에 나오는 말이다. “주평만朱泚漫은 지리익支離益을 쫓아내며 용을 잡는 기술을 배우느라(朱泚漫學屠龍於支離益), 천금의 가산을 탕진했는데(單千金之家), 3년이 지나서 그 기술을 다 배웠으나(三年技成), 실제로 그 기술을 쓸 곳이 없었다(而無所用其巧).”고 한 대목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이 ‘도룡(屠龍: 용을 잡는 기술)’이란 말을, ‘출중한 기예(技藝)를 가리키거나 출중한 기예를 지녔지만 쓸모없는 기예’를 가리키는 말로 썼다. 본 시에서는 ‘출중한 학문, 곧 학문성취(學文成就)’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주평만(朱泚漫): 성(姓)은 주(朱), 명(名)은 평만(泚漫), 이력은 미상이다.
*지리익(支離益): 성은 ‘지리(支離)’, 이름은 ‘익(益)’, 이력은 미상이다.
*단(單): ‘탄(彈)’과 동자(同字)이며, 뜻은 ‘다 써버리다, 탕진하다’이다.
- ③ 계(計): 계책. 본 시에서는 ‘뜻’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④ 미성(未成): 아직 이루지 못하다
- 3) ① 만래(晚來): 만년(晩年)이 되다.
- ② 고와(孤臥): 홀로 누워 있다.
- ③ 백운정(白雲亭): ‘옥연정사’의 대칭으로 보인다. ‘백운’이란 말은 ‘귀은(歸隱)’을 비유한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운정’은 곧 ‘은사(隱士)의 정자’란 뜻이 되겠다.
- 4) ① 안간(眼看): 눈앞에 보이다.
- ② 세사(世事): 세무(世務):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일, 진속지사(塵俗之事: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세상사). 본 시에서는 ‘저급한 세상사’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분(紛): 뒤섞이어 어지럽다, 난잡하다. 본 시에서는 ‘어수선하다’로 번역한다.
- ④ 조모(朝暮): 아침과 저녁, 조석(朝夕)
- 5) ① 좌대(坐對): …을 마주하고 있다
- ② 청준(淸樽): 가득히 따른 술잔을 말한다. 술의 별명이 ‘녹의(綠蟻)’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녹의(綠蟻): 술독에서 술이 잘 익어가고 있을 때 뽕글거리며 술 위에 떠오르는 연녹색 거품을 말하는데 거품 두 방울이 서로 연결되면 마치 허리가 잘록한 개미[蟻] 모양과 같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잘 익은 술’을 뜻한다. 나중에 뜻이 확대되어 맛 좋은 술의 별칭이 되었다.
a. 청(淸): 술의 색깔을 말한 것이다.
b. 준(樽): 술통(술을 담아 두는 큰 통) 혹은 술 단지(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

아리)를 칭하는 것이나, 본 시에서는 ‘술잔’으로 쓰였다.

- ③ 독취성(獨醉醒) : 혼자 취했다 깨다.
- 6) ① 웅(擁) : 에워싸다, 에워싸이다
- ② 벽람(碧嵐) : 푸릇한 남기(嵐氣), 푸릇한 아내
- ③ 배(排) : 배열하다, 늘어서다. 본 시에서는 깔리다.
- ④ 필호(葦戶) : 봉문필호(蓬門葦戶 : 쉼대나 싸리로 만든 문)의 약칭으로, 빈천한 자의 오막살이를 비유하는데, 여기서는 선생자신의 거처지를 낮추어 이른 말이다.
 - a. 필(葦) : 가시나무. ‘필(篲)’과 동자(同字)로서 사립작을 뜻한다.
 - b. 호(戶) : 집
- 7) ① 수영(水縈) : 하류가 굽이 돌아.
- ② 추소(秋素) : 결백(潔白)한 비단, 새하얀 명주. 본 시에서는 굽이도는 강물의 물줄기를 흰 비단결에 비유하였다.
 - a. 추(秋) : 옛날에 오색(五色 : 청·적·백·흑·황靑赤白黑黃)과 오행(五行 : 수·화·목·금·토水火木金土)의 다섯 가지로 만물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원소元素라고 칭했으며, 이것으로 우주 만물의 기원과 변화를 설명했음)으로 사시(四時 : 사계절)를 배열할 때, ‘추(秋)’는 ‘금(金)’에 해당되고 그 색은 ‘백(白)’이라고 했던 까닭에 ‘추(秋)’는 ‘백색(白色)’을 가리킨다.
 - b. 소(素) : 백색의 생견(生絹 : 삶지 아니한 생사生絲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
- ③ 상(爽) : 상쾌하다
- ④ 금영(襟靈) : 흉금, 생각, 마음, 정신, 심령
- 8) ① 황원(荒原) : 황량한 원야(原野 : 개척하지 아니한 인가가 없는 벌판과 들)
- ② 진일(盡日) : 종일, 온종일
- ③ 무진사(無塵事) : 세상이 없다
- 9) ① 차(且) : 장차
- ② 파(把) : ‘파(把)자 문장’은 전치사 ‘파(把)’ 다음에 목적어가 와서, 이것이 부사어로 쓰인 동사 술어문이 되는데, 그 동작을 통해 모종의 변화·영향·결과 등이 나타나도록 강조하는 문장이다. 본 시의 ‘파(把)’자 뒤에 온 명사가 목적어이므로 ‘을(를)’로 해석하면 되겠다.
- ③ 부(付) : ‘(비용을) 지불하다’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세월을) 보내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④ 성경(聖經) : 유가경전(儒家經典)을 비롯하여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경전도 ‘성경’이라 하는데, 본 시에서는 ‘유가경전의 독서’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시71. 이전에 벽에 써 붙인 시의 운韻을 차운하여, 그 아래 써 붙이다

詩71. 次前日壁上韻 題其下¹⁾
차 전 일 벽 상 운 제 기 하

寒齋獨宿夜如年²⁾,
한 재 독 숙 야 여 년

쓸렁한 재사齋舍에
홀로 묵으니 하룻밤이 일 년 같은데,

月落江空意渺然³⁾.
월 락 강 공 의 묘 연

달이 저서 강변이
어두워지니 정취마저 사그라지네.

舊學商量如夢裏⁴⁾,
구 학 상 량 여 몽 리

예전에 수학修學하며 토론하던 게
꿈만 같은데,

一生辛苦正堪憐⁵⁾.
일 생 신 고 정 감 련

평생 고생한대도 그 고생
참으로 애호할만하네.

-
- 1) ① 차·운(次韻): 차운은 바로 시를 지어 화답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보운(步韻)이라고도 칭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11」 주석 1)의 ① ‘차운(次韻)’조항을 참조 바람.
- ② 전일(前日): 그제개의 의미와는 다른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 시기,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③ 제기하(題其下): 그 아래 써 붙이다.
- 2) ① 한재(寒齋): 한기(寒氣)가 감도는 쓸렁한 재사(齋舍). 본 시에서 칭한 ‘재사(齋舍)’는 원지정사(遠志精舍) 아니면 옥연정사(玉淵精舍), 아니면 병산서당 등 어느 곳을 칭하는지 불분명하다.

- ② 독숙(獨宿) : 홀로 숙박하다
- ③ 아여년(夜如年) : 하룻밤이 일 년 같다.
- 3) ① 월락(月落) : 달이 지다
- ② 강(江) : 강변일대
- ③ 공(空) : 텅비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어두워지다’로 표현한다. 즉 달이 지자, 강변일대의 경물(景物)이 ‘어둠 속에 묻히면서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④ 의(意) : 정취(情趣 : 정을 자아내는 흥취), 풍정(風情)
- ⑤ 묘연(渺然) : 아득해지다. 본 시에서는 ‘사그라지는 것’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4) ① 구학(舊學) : 예전에 수학(修學)한 것, 예전의 학문, 구학문
- ② 상량(商量) : 토론하다, 상의(협의)하다
- ③ 여몽리(如夢裏) : 꿈결 같다, 꿈속이었던 것 같다
- 5) ① 일생신고(一生辛苦) : 한평생의 고생
- ② 정감련(正堪憐) : 참으로 좋아할만 하다.



시72. 승려 명열明閱의 시운詩韻을 차운次韻하여

- 을유년(乙酉年: 1585년, 서애44세) 봄에 -

詩72. 次僧明閱韻¹⁾ 乙酉春
차 승 명 열 운 을 유 춘

來無所逐去無牽²⁾,
내 무 소 추 거 무 건

(그대는) 와도 막는 이 없고
가도 잡는 이 없으니,

一錫行穿萬壑烟³⁾.
일 석 행 천 만 학 연

석장 하나 짚고 가는 길
일 만 골짜기에 운무만 끼었겠소.

落葉跣趺山北寺⁴⁾,
낙엽 가 부 산 북 사

(지난 가을) 낙엽 질 때
산북山北지역 절에서 좌선坐禪한다더니,

春雲飄蕩⁵⁾海南天。
춘운 표 탕 해 남 천

(지금은) 봄 구름 따라
남해의 하늘아래서 떠돌고 있구려.

浮休到處誰非妄⁶⁾,
부휴 도 처 수 비 망

부휴선사浮休禪師 이르는 곳마다
누구도 망동하지 못한다니,

儒釋相從定孰賢⁷⁾.
유 석 상 종 정 숙 현

유·불양가儒佛兩家 상종하면
그 어떤 덕행 완성할 수 있겠지요?

欲問安心究竟法⁸⁾,
욕 문 안 심 구 경 법

(그대에게) 마음 안정시킬
구경법究竟法을 묻고자 하는데,

松風江月總玄玄⁹⁾
송 풍 강 월 총 현 현

(마침) 솔바람과 강에 비친 달그림자
현묘하고 현묘하네요.

- 1) ① 차·운(次韻): 차운은 바로 시를 지어 화답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보운(步韻)이라고도 칭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11」 주석 1)의 ① ‘차운’조항을 참조 바람
- ② 승명월(僧明闕): 명월 스님, 승려 명월(明闕)
 - a. 명월(明闕): 모 승려의 법호(法號·법명)이다. 속명(俗名)과 이력은 미상이다.
- 2) ① 내무소축(來無所逐): 오면 못 오게 막는 사람이 없다.
 - a. 래(來): 오다
 - b. 무소(無所): (…할) 곳이 없다, 처소가 없다
 - c. 축(逐): 쫓아내다, 몰아내다. 본 시에서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막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거(去): 가다, 떠나다
- ③ 무견(無牽): 견제(牽制)하는 이가 없다. 말리는 사람이 없다.
- 3) ① 일석(一錫): 석장(錫杖) 하나, 하나의 석장(錫杖). 본 시에서는 ‘석장(錫杖)을 잡다’는 뜻으로 쓰였다.
 - a. 석(錫): 석장(錫杖). 승려나 수행자(修行者)가 갖고 있는 고리가 달린 지팡이다. 원래 인도의 승려가 산야를 편력(遍歷)할 때, 혼들어 울려서 독사나 해충을 쫓았던 것을 말한다. 머리 부분은 석제(錫製)의 탑파형(塔婆形)으로 여러 개의 금속 고리를 달아냈으며, 가운데는 나무 지팡이 이고, 그 아래부분은 어금니 뿔을 장착하여 나무가 상하지 않게 만들었다.
- ② 행천(行穿): …을(를) 지나가다. 본 시에서는 ‘가는 길’로 번역하였다.
 - a. 천(穿): 통과하다, 지나가다
- ③ 만학(萬壑): 많은 산골짜기, 첩첩이 겹쳐진 많은 산골짜기, 중첩한 산골짜기
- ④ 연(烟): ‘연(煙)’으로도 쓰며, ‘운무(雲霧)’의 뜻으로 쓰였다.
- 4) ① 낙엽(落葉): 본 시에서는 ‘지난 해 가을 낙엽이 질 때’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가부좌(跏趺): 가부좌(跏趺坐), 즉 결가부좌(結跏趺坐)의 약어이다. 이는 정좌법(靜坐法)의 일종으로 양발을 꼬아 모아서 앉는 것이다. 그 자세의 방법은 오른 쪽 발을 우선 왼쪽 허벅지 위에 얹고 다음에 왼쪽 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얹어서 앉는 법이다. 이 결가부좌는 앉는 자세가 가장 안온하여 피로하지 않으며, 좌선(坐禪: 조용히 앉아 참선參禪)하는 사람의 좌법(坐法)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본 시에서는 ‘가부좌(跏趺坐)하고 참선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산북사(山北寺): ‘산북사’는 사찰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산북 지역에 위치한 사찰’이란 뜻이다. ‘산북지역’은 지금의 경북 문경군 산북면의 속칭이다. 이 지역에 있는 고찰은 ‘봉암사(鳳巖寺)·김룡사(金龍寺)·대승사(大乘寺)·화장사(花莊寺)’ 등이 있는데, 본 시에서 말하는 ‘산북사(山北寺)’가 어느 고찰을 지칭하는지

는 분명하지 않다. ‘산북(山北)’에 관한 지명의 유래는 앞의 「시57」의 주석 2)의

① ‘산북(山北)’조항을 참조 바람.

5) 표탕(飄蕩): 정처 없이 흩어져 떠돌다.

6) ① 부휴(浮休): 부휴 선사(禪師: 1543~1615)의 법호. 조선 중기의 고승. 휘(諱)는 선수(善修), 호는 부휴(浮休)이다. 속성은 김씨이며 전북 계수(契樹) 출신으로 아버지는 적산(積山), 어머니는 이씨이다. 20세에 부모의 허락을 얻어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신명(信明)의 제자가 되었고, 그 뒤 부용(芙蓉)의 밑에서 수도하여 심요(心要)를 얻었다. 그 뒤 덕유산·가야산·속리산·금강산 등의 이름 있는 사찰에서 더욱 수행 정진하다가 서울로 가서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의 장서를 7년 동안 읽었다. 그의 필법은 왕희지체를 익혔는데, 사명당(四溟堂)과 함께 당대의 2난(二難)이라 불렸다.

그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 덕유산 초암에 은신하고 있던 중 왜적 수십 명을 만났다. 차수(叉手)를 하고 선 그의 앞에서 왜적이 칼날을 휘두르는 자세를 취하였으나, 그가 태연 부동하게 있었으므로 왜적들이 대기(大奇)하여 절한 뒤 물러갔다. 그 뒤 가야산 해인사에 머물렀을 때 명나라 장수 이종성(李宗城)이 찾아와서 법문을 듣고 며칠 동안 옆에서 모셨다. 광해군 때는 두류산에 있었는데 어떤 승려의 무고로 투옥되었다가 무죄가 관명되어, 광해군이 내전으로 그를 초빙하여 설법을 청해듣고, 가사 한 벌과 푸른 비단장삼 한 벌, 푸른 비단바지 한 벌 및 금강석 염주 하나와 진완(珍玩)을 주었다. 1614년에 입적했으며, 선사의 나이 72세, 법랍(法臘) 57세였다. 저서로는 『부휴당대사집(浮休堂大師集)』이 있다.

② 수비망(誰非妄): 누구라도 망령된 행동을 하지 못 한다

7) ① 유석(儒釋): 유교와 불교. 유가(儒家)와 승려

② 정(定): 완성하다, 전정(奠定): 안정시킴, 다짐)하다, 확정(규정)하다

③ 속(執): 의문대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누가, 무엇·무슨·어떤’ 등의 의미가 있다. 본 시에서는 후자의 것으로 쓰였다.

④ 현(賢): 현명하다, 덕행이 있다, 재능이 있다. 본 시에서는 그러한 것, 곧 ‘덕행(德行)’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8) 욕문 안심구경법(欲問安心究竟法: <그대에게> 마음 안정시킬 구경법究竟法을 묻고 자하는데):

**역주주석: 본 시에서의 ‘안심구경법’은 선가(禪家)의 안심법문(安心法門)의 구경법(究竟法)을 언급한 것이다.

① 안심구경법(安心究竟法): 마음을 안정시키는 안심법문(安心法門)의 구경법(究竟法).

a. 안심(安心): 달마(達磨)와 혜가(慧可)가 나눈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는 『조당집(祖堂集)』 제2권 「제28조(祖) 보리달마와 상(菩提達磨和尚)」의 법문에 보인다. 이 법문은 중국 선종불교(禪宗佛教)의 초조(初祖)인 달마대사(達磨大師)의 제자(二祖) 혜가(慧可)가 달마를 찾아가서 안심법문(安心法門)을 청한 선문답(禪問答)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달마의 안심법문의 선법(禪法)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문헌인 돈황본(敦煌本) 「약변 대승입도 사행관(略辯大乘入道四行觀)」에,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이라는 핵심어로 정리되어 전한다. 본 자료는 『경덕 전등록

(景德傳燈錄)』 권제30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 제51책 No. 2076에 실려 있다. 뒤의 「시103」의 ① ‘안심(安心)’조항도 참조 바람.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 :

❶ 이입(二入) : 이입(理入)과 행입(行入)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전자는 경전(經典)에 의해 근본정신을 파악하는 것으로, 중생(衆生)의 본성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믿고 스스로의 마음을 관(觀)해 자타(自他)가 둘이 아님[自他不二]을 깨닫고, 진실의 도리와 명합(冥合 : 그윽이 부합함)하게 되면, 자타와 차별이 없는 적연무위(寂然無爲)의 경지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후자의 ‘행입’은 부처의 근본 뜻을 깨닫기 위한 수행으로 수행자에게 4가지 실천[四行]을 제시한 것이다.

❷ 사행(四行) : 사행은 구체적인 실천형태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첫째는 보원행(報怨行)이다. 이는 현세의 고통과 번뇌는 과거의 업보이니, 참고 수용하며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수연행(隨緣行)으로, 이는 인연에 의한 업보(業報)로 고락(苦樂)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 인연이 다 하면 ‘무(無)’가 되므로, 순·역(順逆)에 따른 인연의 도리를 깨닫도록 수행을 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무소구행(無所求行)이니, 이는 밖에서 구하거나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존재가 ‘공(空)’한 것임을 깨달아 탐욕과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다. 넷째는 칭법행(稱法行)으로, 일체 중생의 당체(當體)가 본래 청정(淸淨)한 이법(理法)임을 믿고, 6바라밀(六波羅蜜)을 수행하며, 무소득의 공관(空觀)을 터득하면서 실천에 임하라는 것이다.

- b. 구경법(究竟法 : 빠라마타, paramattha) : 이는 궁극적 실재로서 최상의 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팔리어(巴利語 : 팔리Pali, 성전어聖典語인 산스크리트어에 견주어 속어俗語, 또는 지역어라고 불리는 프라크리트의 하나로 중기中期 인도 아리아어에 속하는 언어)로, ‘빠라마타paramattha’라고 한다. 이는 ‘진실법(眞實法 : 실재하는 법)’ 혹은 ‘승의법(勝義法 : 자성自性이 선함과 상주불변常住不變하며 실체實體가 있는 것임)’이라고도 칭한다. 말하자면, 이것은 바로 각자의 자성(自性 : 본성)에 바탕을 두고 존재하는 법이므로, 직접 체험하고 현장에서 분석하여 알게 되는 진실법(眞實法)이라는 것이다. 고로 이 명칭은 발리어의 ‘빠라마parama[구경究竟 : 최상最上 혹은 최종]’와 ‘아타attha[진실법眞實法 : 사물事物]’의 합성어에서 왔다고 한다. 이를 본체학적(本體學的) 측면에서 보면, 최종적으로 진실이 존재하는 실질(實質)이며, 지리학적(智理學的) 측면에서는, 정지(正智)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경법은 대단히 은미(隱微)하고 심오하여, 수심(修心)이 결핍된 사람은 이를 깨우칠 수 없다. 또한, 세속의 현상적인 개념, 이를테면, 인습(因襲)이나 습癖(習癖)에 방치된 자신을 마음으로 잡도리[여리작의如理作意] 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개념을 초월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상은 상좌부불교백과上座部佛教百科를 참조함)

- 9) 총현현(總玄玄) : 모두 현묘하고 심원하다.



시73. 잠계潛溪 이전인李全仁 공公의 시
「봉림대鳳臨臺」를 차운하여

(본 시제詩題는 『서애전서(西厓全書)』에 「제미상題未詳」
으로 수록된 시임)¹⁾

詩73. 次鳳臨臺韻
차 봉림대운

臺邊五色今誰見²⁾,
대 변 오 색 금 수 견

누대樓臺 주변 오색경물
지금도 누군가 보고 있겠지,

臺上和聲此夕遲³⁾.
대 상 화 성 차 석 지

누대 상공의 새소리를
이 저물녘에도 들리기 바라리라.

自是文章應瑞世⁴⁾,
자 시 문 장 응 서 세

문장은 응당 상서祥瑞로울
세상에 부합해야 하기에,

非緣鷄鶩共爭時⁵⁾.
비 연 계 목 공 쟁 시

닭과 오리 같은 소인배와
시속時俗을 논쟁하는 건 잘못일세.

空山竹實⁶⁾風吹盡,
공 산 죽 실 풍 취 진

인적 없는 산중에
죽실竹實조차 바람에 다 떨어졌는데,

故國烟霞夢獨期⁷⁾.
고 국 연 하 몽 독 기

고향의 산수풍광
꿈에라도 보이기를 바라네.

顯晦從知關運化⁸⁾,
현 회 종 지 관 운 화

출사出仕와 은일隱逸을 거치면서
깨우친 운명의 변화를,

一千年後倘儀之⁹⁾. 천 년 후에는 혹시 예측할 수 있으려나?
일 천 년 후 당 의 지

1) 제미상(題未詳):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에는 ‘제미상(題未詳)’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진인(李全仁)의 유고집(遺稿集)인 『잠계이선생유고(潛溪李先生遺稿)』에 보면, 본 시의 시제(詩題)가 「차봉림대운(次鳳臨臺韻)」이라고 실려 있다. 이 시제(詩題)는 잠계 이진인(李全仁)의 7언율시(七言律詩)인 「봉림대(鳳臨臺)」 시에 차운(次韻)한 것이다. 고로 본 시에서는 이를 「차봉림대운(次鳳臨臺韻)」으로 바로 잡는다.

① 잠계 이선생유고(潛溪李先生遺稿):

a. 잠계(潛溪) 이선생(李先生): 잠계(潛溪)는 이진인(李全仁)의 호(號)이고, ‘이선생(李先生)’은 이진인(李全仁)을 존칭한 것이다.

*이진인(李全仁: 1516~1568): 이진인의 자는 경부(敬夫)이고, 호는 잠계(潛溪)이다. 본관은 여강(驪江)이며,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서자(庶子)이다. 어려서부터 기질이 온아(溫雅)하고 효성이 자극하여 잠시도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받들었다고 한다. 1539년(중종 34)에 부친 이언적이 전주부윤(全州府尹)으로 있을 때 중종(中宗)의 구언(求言)으로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 이언적이 49세이던 1539년(중종 34) 10월에 전주부윤으로 있으면서 올린 응지상소應旨上疏’로, 원문 글자 수가 총 1만 1,302자에 달하는 장문長文의 상소인)를 올렸는데, 그가 부친의 명으로 소장(疏章)을 직접 임금께 올렸다. 1547년(명종明宗 2)에는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 조선전기 명종 때의 정치적 옥사獄事로 당시 외척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던 윤원형尹元衡 세력이 반대파 인물을 숙청한 사건이며, 정미사화丁未士禍라고도 불림) 등에 피해를 당할 때 이언적 또한 이에 연루되어 강계(江界)로 유배되었는데, 그는 부친을 따라 유배지에 가서 함께 생활하였다. 그 후 1553년(명종 8) 부친이 강계에서 세상을 떠나자, 고향으로 시신을 모셔 안장하였다. 1566년(명종 21)에는 부친의 못 이룬 뜻을 이어 명종에게 애군우국(愛君憂國)의 상소문(上疏文)을 올렸으며, 부친의 문집(文集)을 가지고 이황(李滉)을 찾아가 행장(行狀)을 받았다. 그때 이황의 권유로 호를 잠계(潛溪)라 하고, 평생을 잠거(潛居)하여 자적(自適)하였다. ‘잠계(潛溪)가 없으면 회재(晦齋)가 없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저술로는 유배지 강계에서 부친과 학문에 관하여 문답한 『관서문답(關西問答)』이 있으며, 그 밖의 저술은 대부분 유실되고 시(詩)·소(疏)·서(序)·잡(箴) 약간편이 남아 유고(遺稿) 1책으로 옥산(玉山)에 보관되어 전해 내려왔다. 그 후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0여 년 후인 1847년(헌종 13)에 후손 이질(李耄)이 유고(遺稿)에 부록을 첨가하고, 여기에 『관서문

답(關西問答)』을 별도의 1책으로 편집하여 함께 간행하였다. 『잠계 이선생 유고(潛溪李先生遺稿)』는 권수의 구분 없이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회 본 『서예전서(西厓全書)』에서는 「제미상(題未詳)」으로 표기하고 있는 본 시의 시제가 이전인의 『잠계 이선생유고(潛溪李先生遺稿)』에서는 잠계의 시인 「봉림대(鳳臨臺)」에 차운한 시, 곧 「차봉림대운(次鳳臨臺韻)」이라는 시제(詩題)로 명기되어 있다. 고로 여기에서 이를 바로 잡는다. 잠계의 원시(原詩)는 아래와 같다.

脩然一室繞容膝,	세상사 초탈하여 방안에 책상다리 하고 앉았는데,
窓戶微薰夏日遲.	창밖에 미향 풍기며 여름날이 더디 가네.
簷燕雙飛閒自適,	처마 밑에 제비 쌍쌍이 날며 유유자적하는데,
盤蠅羣撲亦乘時.	밥상에 날아드는 파리 때도 제철 만난듯하네.
塵埃留滯從何意,	부정不正한 세속만 남았으니 어찌 순종하겠는가?
湖海飄飄恨未期.	호해湖海에 좌좌 부는 바람 같은 한은 기한이 없네.
已卜滄浪遺訓在,	이미 회득회득 반백 머리에 유훈遺訓만 남았는데,
茅茨舍此復奚之.	초가집 여기에서 또 다시 어디로 가겠는가?

- ② 차봉림대운(次鳳臨臺韻): 잠계潛溪 이전인李奎仁 공공의 「봉림대(鳳臨臺)」시를 차운次韻하여):
- 차운(次韻):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 ‘차운(次韻)’조향을 참조 바람.
 - 봉림대(鳳臨臺): 봉림대는 민주면(閔周冕)등 편저, 『동경잡기(東京雜記) 권1 · 경주지계(慶州地界) · 승지(勝地)』에, “안강현 동쪽 굴연(堀淵)의 하류에 있다(在安康縣東堀淵下流). 끊어진 기슭이 우뚝 솟아 물을 마주보고 있다(斷麓斗起臨水).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이 명명(命名)하였다(晦齋先生命名焉).”라고 기록되어 있다.
- 2) ① 대변(臺邊): 봉림대(鳳臨臺) 주변을 말한다. 위의 주석 1)의 ① ‘봉림대(鳳臨臺)’조향을 참조 바람.
- 대(臺): 봉림대(鳳臨臺)의 약어(略語)이다.
 - 오색(五色): 청·황·적·백·흑(靑黃赤白黑)의 다섯 종류의 색깔을 ‘오색(五色)’이라고 한다. 고대인은 이 ‘오색’을 ‘정색(正色: 섞임이 없이 순수한 빛깔)’이라고 하였다. 본 시에서 쓴 ‘오색’은 누대주변의 단풍 든 수목과 강물이며 운무(雲霧) 등 자연경관의 색깔을 표현한 것이다. ‘오색경물(五色景物)’로 번역한다.
- 3) ① 대상(臺上): 봉림대의 위쪽, 곧 상공을 칭한다.
- 화성(和聲): 가락이 잘 어울리는 악음(樂音: 고른 음). 본 시에서는 ‘재잘거리는 새 소리’를 은유하였다.
 - 차석지(此夕遲): 오늘 저물녘에도 들리기 바라다. 오늘 저물녘에도 기대하다.
 - a. 지(遲): 희망하다, 기대하다. 본 시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4) ① 자시(自是): 당연히, 마땅히, 자연히, 원래
- 응(應): 호응하다, 순응하다, 적응하다, 부합하다
 - 서세(瑞世): ‘상서로운 세상’이란 뜻으로 ‘성세(盛世)’와 같은 말이다.
- 5) ① 비연(非緣): 계목(鷄鶩, 즉 소인)과 연루(緣累: 관련)되는 것은 옳지 않다.

② 계목(鷄鶩): 계목쟁식(鷄鶩爭食): 계목상쟁(鷄鶩相爭): 닭과 집오리가 먹이를 서로 먼저 먹으려고 다투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 즉 소인들이 명리(名利)를 두고 서로 다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성어(成語)는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초나라 굴원(屈原: BC 340~BC 278)의 『초사(楚辭)·복거(卜居)』에, 보인다. “고니랑 나란히 청천을 날으리까(寧與黃鵠比翼乎)? 닭과 오리랑 먹이를 다투며 살으리까(將與鷄鶩爭食乎)?”라고 하여, 굴원이 권력과 이익을 다투는 간신배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는 속마음을 표현하였다.

③ 공(共): 함께, 서로

④ 쟁(爭): 논쟁하다

⑤ 시(時): 시속(時俗)

- 6) 죽실(竹實): 대나무 열매. 옛사람들은 대나무에 대한 인식이 특별하다. 대나무의 물성(物性)에 준하는 의인화적 표현이 많다. 이를테면, 포절군(抱節君: 절도를 갖추고 있음)·원통거사(圓通居士: 속이 비고 둥글다는 의미)·직형(直兄: 성품이 곧다는 뜻)·차군(此君: 대나무의 덕성에 대한 찬미) 등의 이름을 붙이며 칭송해왔다.

대나무 중 왕대는 개화해도 결실치 못하고, 조릿대, 잣대, 이대 등 산죽(山竹)은 개화 후 열매를 맺는데, 산죽의 씨를 죽미(竹米)라고 하며, 맛이 달고 강장제(强壯劑)로 쓰인다. 봉황은 예천(醴泉)의 물만 마시고 죽실(竹實)만 먹으며 산다고 한다. 이렇듯 『시경(詩經)』에도 죽미(竹米)는 봉황이 먹는다고 나오지만, 죽미와 땀쌀을 섞어 지은 죽실밥(竹實飯)을 조선에서는 구황음식(救荒飮食)으로 먹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7월 1일자에 강릉부(江陵府) 관찰사 송인(宋因)이 아뢰기를 “강릉부 대령산의 대나무에 열매가 열어 보리와 함께 익었는데, 이삭은 기장[黍]과 같고, 열매는 보리[麥]와 같고, 차지기는 율무[薺苳]와 같고, 그 맛은 당서(唐黍)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따서 먹이를 삼고 혹은 술을 만드는데, 오곡(五穀)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5, 6두(斗) 혹은 10두를 수확하여, 백성들이 모두 7, 8석(石)씩 저축하여 조석(朝夕)끼니를 마련하였습니다.”고 나온다. 당시 죽실(竹實)로 밥을 해먹고 술[酒]을 담가 먹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의(漢醫)에서는 강장제(强壯劑)로 쓰인다.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이 편찬한 『지봉유설(芝峰類說)』에는 “죽실이 마음과 폐를 맑고 서늘하게 해준다.”고 했다.

- 7) ① 고국(故國): 고향

② 연하(烟霞): 산수(山水), 산수풍경, 산림을 가리키는 말이다.

③ 몽독기(夢獨期): 꿈이나 꾸기를 (꿈에나 보기를) 겨우 바라다.

- 8) ① 현회(顯晦): 사환(仕宦: 출사出仕)과 은일(隱逸)을 비유한 말

② 종(從): 경유(經由)하다, 경과(經過)하다, 거치다

③ 지(知): 깨닫다, 알다

④ 관운화(關運化): 명운(命運)의 변화에 관계있다.

- 9) ① 당(尙): 혹시

② 의(儀): 헤아리다, 추측하다, 짐작하다. 본 시에서는 ‘예측하다’로 번역한다.

③ 지(之): 그, 그것. 대명사로서 본 시에서는 ‘운화(運化: 명운命運이 변한다는 것)의 이치’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시74. 경임_{景任} 이보_{李輔}에게 부치다

詩74. 寄李景任輔¹⁾ 기 이 경 임 보

青松怪石亂瓊絲²⁾,
청 송 괴 석 난 경 사

푸른 솔숲의 괴석_{怪石}이
비단에 옥장식한 듯 솟았는데,

雪後林巒更絕奇³⁾.
설 후 름 만 갱 절 기

눈 온 뒤 수림_{樹林}과 산봉_{山峰}은
더더욱 절묘하네.

忽憶南溪人似玉⁴⁾,
홀憶 남 계 인 사 옥

홀연 남계_{南溪} 자네의
옥 같은 품성이 생각나서,

竹窓殘夢遠相思⁵⁾.
죽 창 잔 몽 원 상 사

죽창_{竹窓} 아래서 설편 꿈결에
멀리 있는 자네가 그리웠네.

1) 이경임(李景任) 보(輔) :

① 이경임(李景任) : 경임(景任) 이보(李輔)

☆이보(李輔 : 1545~1608)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자는 경임(景任)이며 호는 남계(南溪)이다. 성리학자 진(軫 : 1536~1610)의 아우이다. 경상도 군위(軍威)에 살면서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으로부터 학문을 전수받아 경전(經典)과 성리(性理)에 밝았다. 1580년(선조 13)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김해(金垓 : 1555~1593)의 종사관(從事官)으로 크게 활약하였다. 전란으로 피폐해진 인동(仁同)을 임시로 맡아 다스리면서 모속관(募粟官)을 겸하여 군량미 조달에 공이 많았다. 뒤에 김응남(金應南 : 1546~1598) · 정근수(鄭崑壽 : 1538~

1602) 등의 천거로 당진현감(唐津縣監)에 임명되었으나, 인동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인동현감으로 부임하였으며, 선정을 베풀어 크게 명망이 있었다.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 : 1547~1634)이 천생산성(天生山城)을 쌓을 때, 그 역사(役事)를 책임 맡아 수개월 만에 준공을 보았으며, 1604년 거창현감(居昌縣監)으로 전직되었으나 노쇠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

- 2) 난경사(亂瓊絲) : …이 뒤섞여 비단에 미옥(美玉)을 장식한 듯하다.
 - ① 난(亂) : 뒤섞이다. 본 시에서는 비단에 미옥(美玉)을 장식한 모양, 즉 술쥬에 괴석이 산포된 모양을 표현한 뜻으로 쓰였다.
 - ② 경사(瓊絲) : 영결(瑩潔 : 윤나고 깨끗함)한 미옥(美玉)이 장식된 사직물(絲織物). 본 시에서는 ‘술쥬에 기암괴석이 보기 좋게 산포된 모양’을 비유한 뜻으로 쓰였다.
- 3) ① 임만(林巒) : 수림(樹林)과 산봉(山峰)
 - ② 갱(更) : 더욱, 훨씬, 더더욱, 한층
 - ③ 절기(絕奇) : 매우 기묘하다
- 4) ① 흘(忽) : 문득, 홀연히
 - ② 억(憶) : 회상하다, 상기하다
 - ③ 남계(南溪) : 남계 군(南溪君). 본 시에서의 남계(南溪)는 이보(李輔)의 호(號)이다. 위의 주석 1)의 ①을 참조 바람.
 - ④ 인사옥(人似玉) : 품성이 옥과 같다.
- 5) ① 잔몽(殘夢) : 잠이 깨 무렵에 꾸는 꿈. 본 시에서는 ‘설겜 꿈결’로 번역한다.
 - ② 원상사(遠相思) : 멀리 있는 (…를) 그리워하다.



시75. 제목 미상

詩75. 題未詳 제 미 상

坐到中宵壹氣清¹⁾,
좌 도 중 소 일 기 청

밤중까지 정좌靜坐하니
원기元氣가 생생해진지라,

微風時送遠江聲²⁾.
미 풍 시 송 원 강 성

이따금 미풍에 물어온
심오한 강물소리 들리네.

人間萬慮都消盡³⁾,
인 간 만 려 도 소 진

진세塵世의 온갖 생각
모두 제거하고 나니,

只有靈眞一點明⁴⁾.
지 유 영 진 일 점 명

정기精氣서린 본성만 남아
마음이 좀 밝아지네.

1) 좌도중소 일기청(坐到中宵壹氣清 : 한밤중까지 정좌靜坐하니 원기元氣가 생생해진 지라) :

****역주주석:** 낮 종일 원기가 탁해져 있다가 한밤중이 되면서 다시 맑은 청기(淸氣)로 환원이 되고 있음을 말한다.

① 좌(坐) : 본 시에서는 ‘정좌(靜坐)’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a. 정좌(靜坐) : 마음을 평정(平靜)하게 갖고 단좌(端坐)하여, 잡념을 배제하고 눈을 감은 채 안좌(安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학도학불(學道學佛)하는 사람의 일종의 수양방법이다. 그리하여, 이미 당시에는 ‘정좌(靜坐)’와 ‘좌선(坐禪)’의 개념이 크게 구별 없이 사용되었다. 관련 내용은 앞의 「시32」의 주석 9)의 ① ‘정중(靜中)’조항을 참조 바람.

② 중소(中宵): 깊은 밤중, 한밤중

③ 일기청(壹氣淸):

a. 일기(壹氣): 만물의 원기(元氣)로, 이는 전혀 잡된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의 에너지이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천적인 기운을 뜻한다. 복송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태극도설(太極圖說)」 가운데 나오는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 무극이면서 태극이다)”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여기서 ‘무극’이란, 말은 ‘무형(無形), 무상(無象)한 우주의 원시상태’를 말한다. 또, ‘태극’이란 말은 ‘최고무상(最高無上)의 본원(本源)’을 가리킨다.

고로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도(道: 우주만물의 근본원리·근원) 역시 도가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무(虛無)가 근본이고, 일기(一氣)가 생(生)하여, 형(形: 형상을 갖추어)이 있게 되니, ‘일기(一氣)’는 형(形)이전의 혼돈상태, 즉 천지가 분화되기 이전의 기운인 ‘원기(元氣)’를 가리킨다. 고로 본 시에서의 ‘일기(一氣)’는 바로 이러한 ‘천지만물을 낳고 구성하는 근본원리’인 ‘원기(元氣)’를 가리킨다. (이상의 태극설은 풍우란(馮友蘭: 1895~1990) 저, 박성규 역의 『중국철학사』㉔를 인용 참조함)

b. 청(淸): 낮에 세상의 번뇌에 오염되었던 양기(陽氣)가 음기(陰氣)로 전환되는 한밤중이면 본래의 순일부잡(純一不雜)한 원기(元氣)를 회복함으로, ‘청(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청’이라 함은 정화된 원기, 곧 원기의 회복으로 정신이 맑아졌음을 표현한 시어(詩語)이다.

2) ① 미풍시송(微風時送): 직역하면, ‘미풍에 이따금 실려 오다’는 뜻인데, 본 시의 의미상 ‘이따금 미풍에 물어오다’로 의역한다.

② 원(遠):

○ 심오(深奧)하다, 심원(深遠)하다

○ 거리의 원근(遠近)을 표현한 것으로 ‘멀리서부터 강물이 흘러오면서 수반하는 소리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③ 강성(江聲):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들리다)

3) ① 인간(人間): 진세(塵世), 세속사회

② 만려(萬慮): 갖가지(온갖) 생각, 온갖(갖가지) 심려(心慮)

③ 도소진(都消盡): 모두 제거하다

4) ① 지유(只有): 부사로 쓰여, ‘오직·오로지’ 혹은 ‘오직 …만 있다.’로 표현된다.

② 영진(靈眞): 이는 도교 용어로, ‘본성을 닦아 오묘한 도를 깨닫는 것(修真得道)’을 ‘영진(靈眞)’이라고 한다. 본 시에서는 ‘정기(精氣)서린 본성’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a. 영(靈): 영기(靈氣), 정기(精氣), 정신을 이른다

b. 진(眞):

○ 도가(道家)에서는 ‘진(眞)’을 인위적인 것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이를 ‘본원(本源)’ 혹은 ‘본성(本性)’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본 시에서는 ‘본성’에 해당한다. 도가에서 말하는 이 본성은 인위적인 것을 멀리하는 관계로 ‘자연스럽고 소박한 것’을 중심에 두고 있다. 도교는 도가의 이러한 본성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 본성의 함양이 아닌 ‘생명수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장생불사하는 선인(仙人)이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유가에서 말하는 ‘본성’은 ‘만유의 근원이 되는 이치이며, 이는 시종 변함이 없으므로 어떤 신령함이 깃든 것’이라 보고 있다. 『역경』에서는 “건(乾 : 모든 효갓가 양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음陰으로만 이루어진 곤坤과 서로 반대이면서도 짝을 이루어 나머지 62괘의 부모노릇을 한다. 원元 · 형亨 · 이례 · 정貞과 강건함을 의리로 삼고, 천天 · 군君 · 마馬 · 수首 · 부父 · 옥玉 · 금金 · 한寒 · 령冷 등을 상정함)의 이치가 변화하여 각각의 본성과 생명이 바르게 된다.”고 하였고, 또한 『중용(中庸)』에서는 “하늘이 명(命)한 것을 본성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유가에서 말하는 본성은 도덕적 본성이며, 이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성인군자에 두었다. (이상은 퇴계 이황 편저 · 이윤희 역해, 『활인심방』 참조)

③ 일점명(一點明) : 마음이 조금 밝아진다.

시76. 농 삼아 한 수 읊다

詩76. 戲成¹⁾
희 성



君如欲解天下事 ²⁾ , 군 여 욕 해 천 하 사	그대가 만약 세상사를 이해하고 싶으면,
十日靜聽西江水 ³⁾ . 십 일 정 청 서 강 수	단 열흘이라도 서강西江의 강물소리 조용히 들어보게나.
西江日夜流滔滔 ⁴⁾ , 서 강 일 야 유 도 도	서강의 강물이 밤낮없이 도도히 흘러가는지라,
此心與之相終始 ⁵⁾ . 차 심 여 지 상 종 시	이 맘은 그 강물과 더불어 시종 함께 하네.
試看纖塵不起處 ⁶⁾ , 시 간 섬 진 불 기 처	티끌 일지 않는 곳을 잠시나마 살펴보니,
萬象出沒空明裏 ⁷⁾ . 만 상 출沒 공 명 리	만물의 출몰은 바로 통철洞徹하고 명결明潔한 마음에 있었네.

1) 희성(戲成): 농 삼아 한 수 읊다.

a. 성(成): ‘한 곡(曲)의 악곡 연주를 끝내다(마치다)’ 또는 ‘한 수의 악곡’이란 뜻이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시 한 수를 읊다’는 뜻으로 쓰였다.

2) ① 군(君): 상대방에 대한 존칭으로 쓰였으며, 본 시에서는 ‘그대’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여(如): 가정(假定)의 관계를 표시하는 말로서, ‘만약 …한다면’의 뜻으로 쓰였다.
- ③ 욕(欲): …하고 싶어하다, 바라다
- ④ 해(解): 이해하다
- 3) ① 정청(靜聽): ‘조용히 (강물 흘러가는 소리를) 듣다’는 이 말은 시적객체(詩的客體)에게 던지는 말로, 서방으로 흘러가는 번뇌의 강물 소리와 낮은 데로 길을 터우는 겸손한 몸짓에 빗대어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는 인심(人心)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뜻이다.
- ② 서강수(西江水): 본 시어의 출전은 북송대의 승려 작가 석도원(釋道原)이 편찬한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선종동사禪宗燈史(역대 조사祖師의 순으로 엮은 역사)·거사방온(居士龐蘊)』 중에 마조도일(馬祖道一)과 방온(龐蘊)의 선기(禪機: 선문설법禪問說法의 날카로운 표현) 대화에 보인다.
- 이 고사(故事)의 주인공은 재가불자(在家佛者)의 대표적인 인물인 방온거사(龐蘊居士)이다. 그는 당시의 유명한 선사(禪師)인 마조(馬祖)를 찾아가서 “만법과 더불어 짝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不與萬法爲侶者是什麼人)?”라고 참문(參問: 만나서 묻는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제자가 스승에게 법을 묻는 것을 말한다) 하여, “그대가 한입에 서강수西江水를 다 들이키고 오면(待汝一口吸盡西江水), 그때에 가서 말해주겠소(即向汝道).”라고 하는 답을 듣게 된다. 그때 방온은 일순간에 그 것의 선지(禪旨)를 깨닫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무명(無明)의 겹질을 벗는 것, 즉 분별조작이 없고 시비선악이 없어 상대적 개념을 초월한 본래심[平常心]을 회복하는 그 것이 바로 번뇌의 강물[西江水]을 마르게 하는 것임을 깨우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 선문답에서 마조가 인생이 고탐(苦海)라는 것을 특별히 ‘서강수(西江水)’로 지칭한 것은 또한 다른 아닌 당시에 마조가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강서성(江西省)의 홍주(洪州) 지방이어서 이곳은 서강(西江)이라고 불리우는 강물이 강남(江南)의 서부(西部)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하나의 방편으로 이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번뇌’라는 선의(禪意)가 갖는 불교용어와도 부합되어 쌍관의(雙關意)의 효과를 드러내게 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 또한 ‘서강수(西江水)’를 직역하면, ‘서강(西江)의 강물’이란 뜻이나, 본 시에서는 ‘서강의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조선시대의 ‘서강’은 ‘마포강(麻浦江)의 하류’를 지칭한 것이다. 그러나 본 시에서 쓰인 ‘서강’이 ‘조선의 서강’이든 ‘중국의 서강’이든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강의 이면에 내포된 뜻인 것’이다. 서애의 위의 시에서 언급한 ‘서강수(西江水)’는 선종불교의 선의(禪意)가 내포된 ‘번뇌의 강물’을 극복하고자하는 목표의식과 동시에 성리학(性理學)에서 천·인(天人)의 관계를 궁구하는 ‘격물(格物)사상, 즉 강물의 물성(物性)은 낮은 곳을 지향하는 관계로 이를 인간의 본성인 겸손과 평화로 연계하여 이해(利害)와 명리(名利)에 얽매이지 않고 도심(道心)에 이르코자 하는 도학적 목표가 함축된 시의(詩意)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법호(法號)가 도일(道一)이다. 속성이 마(馬)씨여서, 세칭(世稱) 마조(馬祖)라고 칭하며, 당나라의 승려로서 사천성(四川省) 출신이고 강서성(江西省)에서 살았다. 남악회양(南岳懷讓: 677~744)의 법을 이었고, 나한사(羅漢寺)에서 출가하여 회양 선사에 의해 마음

의 눈을 뜬 뒤로는 남창(南昌 : 홍주洪州)에서 교화를 폈다. ‘평상심이 곧 도’라고 주장하여 생활 속의 선(禪)의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가장 많은 제자를 길렀다고 한다. 마조록(馬祖錄)에는 『능가경(楞伽經)』, 『유마경(維摩經)』을 비롯하여 『금강경(金剛經)』, 『화엄경(華嚴經)』, 『불설법구경(佛說法句經)』 등의 경전이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다. 또한 어록에 보이는 “즉심즉불(卽心卽佛)”은 마조선사 법문의 특색이기도 하다.

*방은(龐蘊 : 740~808) : 호남성(湖南省) 형주(衡州)의 형양현(衡陽縣)에서 태어났다. 자는 도현(道玄)이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유학을 업(業)으로 하였지만, 세속적인 노고를 싫어하여 호북성(湖北省) 양양(襄陽)으로 이사한 후 대바구니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출가한 후 석두희천(石頭希遷)을 방문하여 선지(先知)를 얻은 다음, 마조도일(馬祖道一)에게 2년 동안 사사(師事)한 후 법을 이었다. 300여 편의 시를 남겼는데 그 일부가 『방거사어록(龐居士語錄)』에 전한다. 세간에서는 그를 일러 비야리(毘耶離)의 유마거사(維摩居士)가 다시 온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중국에서 선문거사(禪門居士)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 4) 도도(滔滔) : 큰 물이 막임 없이 흘러가는 모양
- 5) ① 차심여지(此心與之) : 이 마음도 그 강물과 더불어
 - a. 지(之) : 대명사로서 ‘그것’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강물’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상종시(相終始) : 시종 함께 하다. 평생 함께 할 내용은 위의 주석 3)의 ③ ‘서강수(西江水)’ 조항을 참조 바람.
- 6) 시간섬진 불기처(試看纖塵不起處 : 티끌 일지 않는 곳 잠시나마 살펴보다) :

****역자주석 :** 본 시구 역시 선불교적 색채가 농후하다. 여기서 섬진불기처(纖塵不起處)는 일념불기처(一念不起處)와 유사한 뜻이다. 즉 약간의 속념(俗念)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 곧 본래마음 자리인 ‘자성(自性 : 제법諸法이 각자 구비하고 있는 불변불멸의 성性)’을 말한다. 이는 또한 성리학에서 말하는 도심(道心)이 일어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시적화자는 선악과 시비의 분별을 초월한 절대적 세계, 곧 이치[진리]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① 시간(試看) : 잠시 살펴보다
 - ② 섬진(纖塵) : 아주 자디잔 티끌로 미세한 속념(俗念)을 비유한 것이다.
 - ③ 불기처(不起處) : 먼지가 일지 않는 곳, 즉 일체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
- 7) 만상출몰 공명리(萬象出沒空明裏 : 만물의 출몰은 바로 통철洞徹하고 명결明潔한 마음에 있었네) :

****역자주석 :** 서에는 본고(本稿)의 텍스트인 『서예전서(西厓全書) 권1 · 간본편(刊本篇) · 본집(本集) · 잡저(雜著) 권15』의,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 있다萬物皆備於我」라는 글에서, “만물은 밖에 있는데 어찌하여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는가(萬物在外, 何以言皆備於我)? 물(物 : 사물)은 비록 밖에 있으나(物雖在外), 이(理 : 하늘의 이치)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而理在吾心), 생각하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思之則無所不通),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可知萬物皆備於我也).”라고 하였다. 이는 곧 본 시에서 언급한 ‘만물의 출몰’이란, ‘천리(天理)의 작용으로 생성 · 소멸하는 것’이라는 성리학적 우주론[생성론]

에 기인한 이념(理念)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진다.

- ① 만상(萬象): 우주 공간의 모든 사물이나 경상(景象: 경치), 온갖 사물의 현상, 온갖 사물, 만물
- ② 출몰(出沒): 출몰하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다. 이는 곧 만물의 ‘생성·소멸’을 말한 것이다.
- ③ 공명(空明): 심성(心性)이 통철(洞徹: 깊이 살펴어 환하게 깨달음)하고 총명하며 생각이 명결(明潔: 맑고 깨끗함)한 사람을 형용한 말. 본 시에서는 사람의 심성(心性)에 만물의 실체(實體)인 통철하고 명결한 천리(天理)가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示唆)한 말로 쓰였다.
- ④ 리(裏): ‘속, 안, 가운데’의 뜻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다.

시77. 제목 미상

詩77. 題未詳
제 미 상



遠林花盡落¹⁾,
원 립 화 진 락

심원한 수림에 꽃잎이 다 저버려서,

清夜首空搔²⁾.
청 야 수 공 소

청정한 밤에 공연히 머리를 긁적이네.

鄉國思千里³⁾,
향 국 사 천 리

천리 밖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風埃長二毛⁴⁾.
풍 에 장 이 모

출사出仕의 길 걷다보니
검은 머리 반백이 됐네.

獨眠山澗響⁵⁾,
독 면 산 간 향

홀로 잠을 청하는데
산골짜기에 개울물 소리 나길래,

愁坐月輪高⁶⁾.
수 좌 월 윤 고

시름겨워 묵좌默坐하는데
등근 달이 높이 떴네.

多事悠悠裏⁷⁾,
다 사 유 유 리

면면綿綿히 이어지는 세월 속에
사변事變이 많아서인지,

騎曹又馬曹⁸⁾.
기 조 차 마 조

기조騎曹가 마조馬曹에 뒤섞여
군무軍務가 어긋나네.

- 1) ① 원림(遠林) : 심원한 수림
② 화진락(花盡落) : 꽃잎이 다 떨어지다, 꽃이 다 지다
- 2) ① 청야(淸夜) : 청정(淸靜)한 밤
② 수공소(首空搔) : 머리를 공연히 긁적이다.
- 3) ① 향국(鄉國) : 고향
② 사천리(思千里) : 천리 밖에서 그리워하다.
- 4) ① 품애(風埃) : 사환(仕宦 : 임관任官함), 출사(出仕 : 벼슬 함)와 같은 말
② 장(長) : 자라다, 길어지다
③ 이모(二毛) : 반백(斑白 : 화끗화끗함)의 머리털. 노년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는 말이다.
『좌전(左傳)·회공 22년(僖公二十二年)』 조항에, “군자는 부상당한 사람에게 다시 상처를 입히지 않고(君子不重傷), 반백이 된 연로한 사람을 포로로 생포하지 않는다(不禽二毛).”고 한 대목이 있다. 서진(西晉)의 학자 두예(杜預 : 222 ~ 284)는 윗글에 대해 주석(註釋)하기를, “‘이모二毛’는 두발이 반백(半白 : 반백斑白)이란 말이다(二毛, 頭白有二色).”고 하였다.
*금(禽) : 이는 ‘금(擒)’의 고자(古字)로서 ‘포로로 잡다’는 뜻이다.
- 5) ① 독면(獨眠) : 홀로 잠자리에 들다, 독숙(獨宿)하다
② 산간(山澗) : ‘산간(山澗)’으로도 쓰며, 산간(山間 : 산골짜기)의 개울, 산골짜기로 흐르는 물
③ 향(響) : 소리가 나다, 음향
- 6) ① 수좌(愁坐) : 시름겨워 말없이 앉아있다. 함우(含憂)하고 묵좌(默坐)하다
② 월륜(月輪) : 원월(圓月 : 보름달), 둥근달. 주로 ‘달’을 가리킨다.
③ 고(高) : (높이가) 높다
- 7) ① 다사(多事) : 쓸데없는 일을 하다, 필요 이상의 일거리를 만들다.
② 유유리(悠悠裏) : 면면(綿綿)히 이어지는 세월 속에
- 8) ① 기조(騎曹) : 중국에서는 ‘기조참군(騎曹參軍 : 병조兵曹의 참군參軍)’류의 소관(小官 : 미관微官 : 하급관리)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진서(晉書)·왕희지열전(王徽之列傳)』에 “왕희지(王徽之 : ? ~ 388 : 서예가 왕희지王羲之의 아들임)의 자字는 자유子猷이다(徽之字子猷). 그는 성격이 초연超然하여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았는데(性卓犖不羈), 대사마(大司馬 : 삼공三公 중의 으뜸 벼슬로 대장군大將軍에 해당하는 벼슬 명칭임) 환온(桓溫 : 312 ~ 373)의 참군(參軍 : 하급군관)이 되어서도(爲大司馬桓溫參軍), 쑥대머리를 하고 의대衣帶는 풀어헤친 채 갖추어 입지 않았으며(蓬首散帶), 관부官府의 업무는 처리하지 않았다(不綜府事). 동시에 거기장군車騎將軍 환충(桓沖 : 328 ~ 384 : 환온桓溫의 동생)의 기병참군騎兵參軍도 됐는데(又爲車騎將軍桓沖騎兵參軍), 장군 환충이 묻기를(沖問), ‘그대는 어느 부서에 배치되었는고(卿署何曹)?’라고 하니, 대답하기를(對曰), ‘마조(馬曹 : 말을 관리하는 관아官衙)인 듯 합니다(似是馬曹).’라고 하였다. 그러자 또 묻기를(又問), ‘몇 마리 말을 관리하는고(管幾馬)?’라고 하니, 대답하기를(曰), ‘말을 살펴보니 알아 모르겠는데(不知馬), 무슨 까닭으로 마리 수를 물으십니까(何由如數)?’라고 하였다. 그러자 장

군이 다시 묻기를(又問), ‘말 가운데 근래에 죽은 것이 몇 마리이고(馬比死多少)?’하니, 답하기를(曰), ‘살아있는 말도 아직 다 알지 못하는데(未知生), 어찌 죽은 말의 숫자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焉知死)!’”라고 한 대목이 있다. 위의 인용문은 ‘말을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하급군관 기조참군(騎曹參軍)이 말의 숫자조차 기억하지 못하다(騎曹不記馬).’는 제목하의 왕휘지(王徽之)의 고사(故事)이다.

후에 사람들은 이 ‘기조불기마(騎曹不記馬)’란 이 말을, ‘명사(名士)에게는 나쁜 습성이 있어, 사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썼다. 본 시에서는 기조(騎曹)와 마조(馬曹)가 다 직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무(軍務)에 차질을 준다는 뜻으로 쓰였다.

☆참군(參軍): ‘참모군사(參謀軍事: 모 군사적 업무에 참여하여 계책을 상의하는 군직軍職)’의 약칭으로, 동한(東漢) 말부터 명·청대(明清代)까지 썼던 ‘하급군직(下級軍職)’을 가리키는 말이다. ‘참군(參軍)’은 조선시대 군직(軍職)이기도 했다. 관계(官階)는 정7품(正七品)이었다.

② 차(叉): 교착(交錯: 이리저리 엇갈려 뒤섞임)하다. 서로 뒤섞여 어긋나다. 본 시에서는 기조참군(騎曹參軍)이 마조(馬曹)에 뒤섞여 군무(軍務)가 어긋난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마조(馬曹): 관마(管馬: 군마軍馬나 역마驛馬 등 말을 관리함)하던 관서(官署: 관아官衙)이다. 주로 한직(閑職)이나 미천한 말단관리를 가리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주석 ① 기조(騎曹)’ 조항에서의 ‘「왕휘지열전(王徽之列傳)」의 인용문’을 참고하면 되겠다.



시78. 승려에게 증여하다

(을유년乙酉年 : 1585년, 서애 44세, 가을에)

詩78. 贈僧 乙酉秋
증 승 을 유 추

雲外峩峩俯晚臺¹⁾,
운 외 조 요 부 만 대

우뚝 솟은 산봉山峯에서
만대루晚對樓를 굽어보니,

高秋無處不傷懷²⁾.
고 추 무 처 불 상 회

가을이라
어느 곳도 비통하지 않는 산이 없네.

江流滾滾今成古³⁾,
강 류 곤 곤 금 성 고

강물의 흐름은 도도하여
고금古今이 한결 같은데,

人事悠悠去又來⁴⁾.
인 사 유 유 거 우 래

인생사는 유유하여 (한 가지) 지나가면
또 (한 가지) 다가오네.

山月半窓窺嫵媚⁵⁾,
산 월 반 창 규 무 미

산상山上의 달이 반창半窓가에 들어와
그 고운자래 엿보는데,

杜鵑終夜怨徘徊⁶⁾.
두 견 종 야 원 배 회

두견은 밤새도록 슬피 울며 배회하네.

何方學得安心法⁷⁾,
하 방 학 득 안 심 법

어디서 안심법安心法 배워
깨우칠 수 있을꼬!

一洗煩襟似木灰⁸⁾。
일 세 번 금 사 목 회

번민의 심회 단번에 제거하여
재로 만들텐데.

- 1) ① 운외(雲外) : 고산(高山)의 산상(山上)을 가리킨다. 진세(塵世)의 밖, 세속(世俗)의 밖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산봉(山峯)’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초요(峯嶠) : ‘초요(峯嶠)’로도 쓰고, ‘초요(峯嶠)’로도 쓴다. 고준(高峻 : 높고 험준함)하다, 산이 높은 모양. 높이 솟다, (높게) 세우다, 돌기(突起)하다. 본 시에서는 ‘우뚝 솟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부(俯) : 구부리다, (고개를) 숙이다, 굽하다, 아래로 향하다
- ④ 만대(晩臺) : 병산서원의 만대루(晩對樓)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면 일곱 칸 측면 두 칸의 팔작 기와집에 처마는 홀처마로 건축된 건물로서, 휴식과 강학의 복합공간으로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누각이다. 서원은 이 누각 밑을 지나 강당인 입교당으로 들어서게 되어있다. 만대루(晩對樓)의 “만대(晩對)”라는 명칭은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 : 712~770)의 시 「백제성루(白帝城樓)」에, “비취색 병풍을 친 듯한 산봉우리는 황혼녘에 관상하기 아주 적합하고(翠屏宜晩對), 백제산(白帝山) 깊은 계곡은 마음껏 유람하기에 으뜸일세(白谷會深游)”라고 읊은 시구에서 따왔다고 한다. 누각의 명칭처럼 만대루의 전경은 가히 시적이다.
- 2) ① 고추(高秋) : 늦가을, 만추(晩秋)
- ② 무처(無處) : …할 곳이 없다, 한 곳도 없다
- ③ 상회(傷懷) : 마음으로 애통하게 여기다, 상심(傷心)하다
- 3) ① 강류(江流) : 하류(河流), 강물의 흐름
- ② 곤곤(滾滾) : 큰물이 세차게 흐르는 모양. 본 시에서는 ‘도도(滔滔)히 흐르다’로 표현한다.
- ③ 금성고(今成古) : 고금(古今)이 한결 같다.
a. 성(成) : ‘…와 같다, 비슷하다’는 뜻으로, ‘사(似)’나 ‘상(像)’의 뜻으로 쓰였다.
- 4) ① 인사(人事) : 인간의 세상사, 인생, 인생살이
- ② 유유(悠悠) : ‘끝없이 이어지는 모양’의 뜻으로, ‘면면(綿綿)히 이어지다’로 표현한다.
- ③ 거우래(去又來) : (한 가지 일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일이) 다가오다.
- 5) ① 산월(山月) : 산위에 뜬 달
- ② 반창(半窓) : 반쪽짜리 창문, 반쯤 열린 창문
- ③ 규(窺) : 엿보다
- ④ 무미(嫵媚) : 아리따다, 예쁘다
- 6) 두견종야 원배회(杜鵑終夜怨徘徊) : 두견은 밤새도록 슬피 울며 배회하네) :
**역주주석 : 본 시구(詩句)의 두견새는 본래 늦봄과 초여름에 걸쳐서 지주 밤새도록 우는 새이다. 그런데 본 시의 시적배경은 가을인데, 느닷없이 두견새의 울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시의(詩意)에 중점을 둔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인간사의 번뇌 또한 그렇게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한다는 것을 이에 함축시킨 듯하다.
- ① 두견(杜鵑) :

우리말로는 ‘두견이’라고 하고, 두견이의 사투리로 ‘집동새’라고도 하며 두우(杜宇)라고도 하며, 두견새의 별명으로 자규(子規)라고도 한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두견새의 울음소리가 사람들에게 ‘불여귀(不如歸[bù rú guī] : 불여귀거不如歸去[bù rú guī qù] :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하다고 말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한 까닭에, 사람들에게 ‘귀가(歸家)할 것을 독촉하는 말로 썼다. 『촉왕본기(蜀王本紀)』에, “촉왕 망제는 그의 신하 별령靈의 처에게 음심淫心을 갖고 대하였음에, 마침내 선위하고 도주했는데, 그 때 이 두견새가 마침 울었던 까닭에, 촉나라 사람들은 그 두견새의 울음소리는 망제를 슬퍼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울음소리는 돌아가는 것만 못함을 이룬 것’이라고 여겼다(蜀望帝淫其臣鰲靈之妻, 乃禪位而逃, 時此鳥適鳴, 故蜀人以杜鵑鳴爲悲望帝, 其鳴爲不如歸去云).”라는 내용이 전해진다.

두견이는 대체로 그 울음소리가 구슬퍼서 한(恨)이나 슬픔의 정서를 표출시키는 시가문학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였다.

- ② 종야(終夜) : 하룻밤 동안, 또는 밤이 새는 동안
 - ③ 원(怨) : 슬퍼하다. 한탄하다. 본 시에서는 ‘슬피 울다’로 번역한다.
 - ④ 배회(徘徊) : ‘배회하다(아무 목적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님)’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이리저리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7) ① 하방(何方) : 어디, 어느 곳
- ② 학득(學得) : 배워서 알다, 배워서 깨우치다
 - ③ 안심법(安心法) : 본 시에서 간구(懇求)하는 안심법은 선종불교의 안심법을 칭하는 것이다. 성리학의 ‘수심양성(修心養性)으로 성인군자가 되고자하는 차원’이 아닌 번뇌의 소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자하는데서 그 효용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의 「시72」의 주석 8)의 ①의 ‘안심(安心)’ 조항을 참조 바람.
- 8) ① 일세(一洗) : 일거(一擧)에 씻어내다
- ② 번금(煩襟) : 마음속의 번뇌와 번민, 즉 번거로운 속사(俗事)에 시달리는 마음을 말한다.
 - ③ 사목회(似木灰) : 나뭇재. 본 시에서는 ‘번민하는 마음을 지운 결과’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시79. 을유년 乙酉年(1585년, 서애 44세) 가을에

詩79. 乙酉秋 을 유 추



江上秋深一鴈飛¹⁾,
강 상 추 심 일 안 비

강변에秋色 秋色 짙어지고
기러기 떼 날아드는데,

平蕪極目見人稀²⁾.
평 무 극 목 견 인 희

잡초 무성한 들판 멀리 봐도
인적이 드무네.

孤魂一去無消息³⁾,
고 혼 일 거 무 소 식

고독한 혼령은 한 번 떠나더니
소식 없는데,

信馬天涯獨自歸⁴⁾.
신 마 천 에 독 자 귀

멀리서 말 가는대로 나뉘도
저 스스로 귀가하네.

1) ① 강상(江上): 강변

② 추심(秋深):秋色(秋色)이 짙어지다.

③ 일안비(一鴈飛): 기러기가 날아오기 시작하다. 한 무리 기러기 떼가 날아오다.

2) ① 평무(平蕪): 잡초가 무성한 들판, 들판에 잡초가 무성하다.

② 극목(極目): 시력이 미치는 곳까지 멀리 바라보다.

③ 견인희(見人稀): 보이는 사람이 드물다.

3) ① 고혼(孤魂): 문상할 사람이 없는 외로운 넋. 본 시에서는 아마도 조졸(早卒)한
찾아들 위(緯)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일거(一去): 한 번 떠나다

4) ① 신마(信馬): 말 가는대로 놔두다.

② 천애(天涯): 천변(天邊), 하늘가, 아주 먼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③ 독자귀(獨自歸): 저 스스로 귀가하다.



시80. 남계南溪에서 출발하여 산행하던 도중에 짓다

- 을유년(乙酉年 : 1585년, 서애 44세) -

詩80. 自南溪山行路中作 乙酉
자 남 계 산 행 로 중 작 을 유

立馬高峯望眼通¹⁾,
입 마 고 봉 망 안 통

말 세워놓고 산정山頂에 올라보니
눈앞이 탁 트이는데,

平蕪落照半邊紅²⁾.
평 무 낙 조 반 변 홍

석양빛에 벌판 절반이 붉게 물들었네.

山河遠勢紆還曲³⁾,
산 하 원 세 우 환 곡

산하山河의 형세形勢가
구불구불 굽이도는데,

村店疎烟淡又濃⁴⁾.
촌 점 소 연 담 우 농

먼 촌락 점포의
글썽 연기 연해졌다 짙어졌다 하네.

不分流光催鬢髮⁵⁾,
불 분 유 광催 빈 발

유수流水같은 세월이 백발을 재촉하는데,

尙餘豪氣倚秋風⁶⁾.
상 여 호 기 의 추 풍

아직은 호기豪氣 남아
싸늘한 추풍에도 버티고 섰네.

書來愧謝丁寧意⁷⁾,
서 래 괴 사 정 념 의

서신 보내 간곡한 맘 전해주시
부끄럽고 감사한데,

斗覺吾衰在夢中⁸⁾
두 각 오 쇠 재 몽 중

내가 노쇠한 걸
꿈에서 홀연히 깨달았네.

(서애주석: 時成泳寄書勸西行)⁹⁾
시 성 영 기 서 권 서 행

- 1) ① 입마(立馬): 말을 세워놓다.
② 고봉(高峯): 높은 산봉(山峯), 산정(山頂)
③ 망안통(望眼通): 눈앞이 탁 트이다.
- 2) ① 평무(平蕪):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진 벌판(들판)
② 낙조(落照): 석양, 저녁햇빛. 본 시에서는 동사로 쓰였다.
③ 반변(半邊): 반쪽, 절반
- 3) ① 원세(遠勢): 산하(山河)의 원경(遠景)의 형세(形勢)
② 우(紆): 구불구불하다, 구부러지다
③ 환(還): 돌아가다, 돌아오다
④ 곡(曲): 굽다, 구부러지다
- 4) ① 촌점(村店): 촌락의 점포
② 소연(疎煙): 소연(疎煙)으로도 쓰며, ‘멀리 보이는 굴뚝 연기’를 가리킨다.
③ 담우농(淡又濃): 연해졌다 짙어졌다 하다
- 5) ① 불분(不分): 구분(分別)하지 않다, 본 시에서는 ‘...와 같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유광(流光):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세월이 흘러가다.
③ 최(催): 재촉하다. 본 시에서는 ‘백발이 빨리 되도록 재촉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④ 빈발(鬢髮): 빈발(鬢髮)로도 쓴다. ‘살쩍, (뺨의 귀 앞에 난 머리털) 귀밑머리’의 뜻이다. 본 시에서 ‘백발’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6) ① 상(尙): 아직
② 여(餘): 남다
③ 의추풍(倚秋風): (쌀쌀한) 추풍을 압도하고 서 있다.
a. 의(倚): 압도하다, 평정(平靜)하다
- 7) ① 서(書): ‘서신(書信)’을 가리킨다.
② 래(來): 오다, 보내오다
③ 과사(愧謝): 부끄럽고(송구스럽고) 감사하다
④ 정녕(丁寧): 말이 간곡한 모양
⑤ 의(意): 생각, 의사, 마음
- 8) ① 두(斗): 홀연히, 갑자기
② 각(覺): 깨닫다
③ 오쇠(吾衰): 내가 노쇠(老衰)하다
④ 재몽중(在夢中): 몽중(夢中)에, 꿈속에서
- 9) **서애주석: 시성영(時成泳: 당시 성영이) 기서권서행(寄書勸西行: 편지를 부쳐 서

행西行을 권하였다) :

- ① 시(時) : 당시 곧 을유년(乙酉年 : 1585, 선조 18년, 선생 44세)을 가리킨다.
- ② 성영(成泳 : 1547~1623) :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자는 사함(士涵)이며, 호는 태정(苔庭)이다. 성완(成琬)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성희주(成希周)이고, 아버지는 강원감사 성세평(成世平)이며 어머니는 노공좌(盧公佐)의 딸이다. 1573년(선조 6)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병조좌랑·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 사헌부의 장령(掌令)·집의(執義) 등을 거쳐, 1592년에 여주목사가 되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기도순찰사로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였고, 이듬해 경기좌도관찰사가 되었다. 다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호조참판에 재직 중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 때는 남정양향사(南征糧餉使)로 군량미 조달을 맡아보았다. 1599년 공조참판·한성부좌윤·대사헌·예조참판·대사간 등을 역임하고, 이듬해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1601년 한성부판윤이 되고, 이듬해 지중추부사로 진하사(進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대사헌·충청감사·호조판서·병조판서를 역임하고, 1605년 좌우참찬을 거쳐, 1607년 이조판서를 지냈다. 이듬해 광해군이 즉위하자 정인홍(鄭仁弘) 등에 의하여 유영경(柳永慶)의 당인으로 몰려 파직되었다가, 1616년(광해군 8) 연일(延日)에 유배되어 1623년 배소에서 죽었다.
- ③ 기서권서행(寄書勸西行) : 서신을 보내와 서행(西行)할 것을 권하였다.
- a. 서행(西行) : 관서지방(關西地方)으로 가다. 여기서 관서지방(關西地方)은 한반도 북서부지역을 일컫는 지방명칭이다. 현재의 평양특별시·평양남도·평양북도·자강도(慈江道) 일대를 포함한다.

****역자주석 :** 아마도 당시 정여립(鄭汝立) 모반사건과 관련하여, 의주 목사(義州牧使) 서익(徐益)의 상소(“정여립(鄭汝立)이 이이(李珣)에게 보낸 글에서, ‘3인은 유배시켰으나 거간(巨奸)은 아직도 있다.’ 하였는데, 거간은 류성룡을 가리킨 것입니다.”)를 염두에 두고 서애선생에게 서북변방으로 가서 은신(隱身)하기를 권유했던 것 같다.

시81. 임무년 林茂年 공公에게 증여하다

詩81. 贈林茂年¹⁾
증 임 무 년



薄俗何由易返淳²⁾,
박 속 하 유 이 반 순

천박한 풍속이
어찌 순박해지기 쉽겠소만,

南郵高節足驚人³⁾.
남 우 고 절 족 경 인

남부에서 전해온 고상한
그 절조節操 사람을 놀라게 하네요.

徒聞雀鼠能穿穴⁴⁾,
도 문 작 서 능 천 혈

쓸데없이 작서모雀鼠耗 징수하고도
전강부회 잘도 하는데,

豈有門闌可庇身⁵⁾.
기 유 문 란 가 비 신

(그런 관리가) 어찌 가문을 보유하고
일신一身을 보호할 수 있겠소!

褒典未加還相勸⁶⁾,
포 전 미 가 환 상 권

표창 의식儀式 치르지 않았건만
그 악습 아직도 권장한다니,

民彝猶自更看眞⁷⁾.
민 이 유 자 갱 간 진

인륜의 도리는 여전하기에
더욱 진실을 살피려하오.

楣間揭記存心意⁸⁾,
미 간 계 기 존 심 의

문틀 위 현판에 게시한 게
‘본심 보존하라’는 뜻이거늘,

惻悵如今久掩塵⁹⁾。 아하! 지금은 먼지에 뒤덮인지
조 장 여 금 구 업 진
 오래 됐구려.

- 1) 임무년(林茂年) : 인물미상
- 2) ① 박속(薄俗) : 가볍고 천박한 풍속
 ② 하유(何由) : 어찌 ...할 수 있으랴.
 ③ 이(易) : ...하기 쉽다
 ④ 반순(返淳) : 순박함으로 돌아가다
- 3) ① 남우(南郵) : 남쪽에서 전해오다
 a. 우(郵) : 전해오다
 ② 고절(高節) : 높은 절개, 고상한 절조(節操)
 ③ 족경인(足驚人) : 족히 사람을 놀라게 하다. 사람을 놀라게 하기에 족하다.
- 4) ① 도문(徒聞) : 쓸데없이
 ② 문(聞) : (소문을) 전파(傳播)하다. 본 시에서는 부당한 세금을 많은 지역에서 징수하도록 유리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징수하다'로 번역한다.
 ③ 작서(雀鼠) : 작서모(雀鼠耗) : 이는 모곡(耗穀)을 달리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는 곡식을 사창(社倉) : 각 고을의 환곡還穀을 저장하여 두던 곳집)에 저장하였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어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을 '환곡(還穀)'이라 하는데, 이 '환곡'을 받을 때, 곡식을 쌓아두는 동안 축이 날 것을 미리 셈하여 한 섬에 몇 되씩 덧붙여 받던 곡식을 '환곡'이라고 했다. 이렇게 관아에서 '환곡'을 받으면서 부과한 이자를 덧붙여 받던 이유가 '보관했던 곡식을 참새와 쥐가 먹어서 생긴 손실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전해진 말이 '작서모(雀鼠耗)'이다. 이 '작서모'의 풍속은 오래전에 중국에서 이미 시행됐던 악습이다. 『양서(梁書)·장술전(張率傳)』에, “〈남조南朝 양량나라 문인이자 문신이었던〉 장술〈張率 : 475~527〉이 신안현(新安縣 :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의마시義馬市 서석하촌西石河村)에 있을 때(張率在新安), 집의 동복童僕에게 쌀 3000석(石 : 1석은 4근 鈞, 1근은 30근斤이었음)을 싣고 오롯씨 데에 돌려주라고 보냈는데(遣家僮載米三千石還吳宅),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既至), 결국 곡식의 태반이 없어졌다(遂耗太半) 〈‘수漕’는 ‘결국’의 뜻이고, ‘모耗’는 ‘모耗’자와 같은 자로도 쓰는데 ‘무無’의 뜻으로 쓰였음〉 장술이 그 까닭을 묻자(率問其故), 대답하기를(答曰) : ‘참새와 쥐가 그 곡식을 먹었습니다(雀鼠耗也).’고 하였다. 장술은 〈매사에 너그러웠던 사람인지라〉 웃으면서 말하기를(率笑而言曰) : ‘대단하구나 참새와 쥐여(壯哉雀鼠)!’라고 하면서, 결국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다(竟不研問).”고 한 대목이 있다. 후에 중국 사람들은 ‘작서모(雀鼠耗)’란 말을 ‘정규적인 세금 외에 덧붙여 징수하는 양곡’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 ④ 능천혈(能穿穴) : 간강부회(牽強附會)를 잘도 하다.
 a. 능(能) : ...을 잘하다, 능히 ...해내다
 b. 천혈(穿穴) : 천착(穿鑿) : 구멍을 뚫어 억지로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함)과

- 5) ① 기(豈): 어찌 ...할 수 있겠나
② 유(有): 보유(保有)하다
③ 문란(門闌): 가문, 문호(門戶)
④ 가(可): ...할 수 있다
⑤ 비신(庇身): 몸을 기탁(보호)하다.
- 6) ① 포(褒): ‘포(褒)’자와 동자(同字)로서, ‘칭찬하다, 표창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전(典): 예(禮), 의식(儀式)
③ 미가(未加): 아직 늘어나지(증가하지) 않았다.
④ 환상권(還相勸): 여전히 (그 악습) 서로 권장하다, 여전히 악습을 권장하다
- 7) ① 민이(民彝): 사람으로서 늘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② 유자(猶自): 여전히. 여전히하다
③ 갱(更): 더욱
④ 간진(看眞): 사실(진실)을 살피다, 간수(看守)하다
- 8) ① 미간(楣間): 문틀 위쪽
② 제기(揭記): (여러 사람이 보도록) 기록하여 높직하게 붙이다.
③ 존심의(存心意): 이는 ‘본심을 보존하라’는 뜻이다.
a. 존심(存心): 본심을 보존하다.

『맹자(孟子)·진심 상(盡心上)』에서, “자기의 본심을 간직하고 자기의 본성을 기르는 것이 바로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라고 한 데서 비롯한다. 여기서 ‘심(心)’은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의 4가지 마음으로 사단(四端)이라 하며, ‘심’은 결국 사단의 보존을 통해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회복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맹자(孟子)·이루 하(離婁下)』에서는 “군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본심을 보존하는 데 있다. 군자는 인(仁)으로 마음을 보존하고, 예(禮)로써 마음을 보존한다(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라고 하였다.

本末具舉，而內外交相養矣.”라고 말하였다.

b. 의(意) : 뜻, 의미

- 9) ① 초창(惴惴) : 실의하는 모양
② 여금(如今) : 지금, 또는 현재
③ 구엄진(久掩塵) : 오랫동안 먼지에 덮여 있다.

시82. 산증의 승려에게 증여하다

詩82. 贈山僧 증 산 승



山僧來贈白芒鞋¹⁾,
산 승 내 증 백 망혜

산승山僧이 오셔서
정갈한 짚신 한 켤레 주시며,

勸我莫踏紅塵土。
권 아 막 답 홍 진 토

내게 권하기를
진흙 땅 딛지 말라 하시네.

秋風颯颯吹青衫²⁾,
추 풍 샵 샵 취 청 샵

추풍이 쇠쇠 불어
청삼靑衫 자락 날리는데,

萬壑千巖起雲霧³⁾.
만 학 천 암 기 운 무

골짜기며 산봉마다 운무가 일고 있네.

1) 백망혜(白芒鞋): 정갈한 짚신 한 켤레

① 백(白): 정갈하다

② 망혜(芒鞋): 망리(芒履): 짚신: 벧짚으로 삼아 만든 신. 새끼를 꼬아 날을 삼고
총과 돌기총으로 울을 삼아 만듦다.

2) ① 샵샵(颯颯): 의성어로서 바람이 쌀쌀하게 부는 소리이다. 추풍이 ‘솔솔’ 불다. 추
풍이 ‘쇠쇠’ 불다 등으로 표현된다.

② 취(吹): 바람이 불다. 본 시에서는 바람에 옷자락이 날리는 것을 표현한 말이다.

③ 청삼(靑衫): 화자(話者) 자신의 옷자락을 칭하는 것으로 본 시에서는 관복(官服)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의 자세한 뜻은 앞의 「시39」의 주석 4)의 ②
‘청삼(靑衫)’조항을 참조 바람.

3) ① 만학천암(萬壑千巖): 만학천봉(萬壑千峰)과 같은 말이다. ‘겹겹이 겹쳐진 큰 골
짜기와 수많은 산봉우리’의 뜻이다.

② 기운무(起雲霧): 운무가 일고 있다.



시83. 노종원 盧從元 정랑 正郎 께 화답하여 부치다

詩83. 寄答盧正郎從元¹⁾
기 답 노 정 랑 종 원

故人久京洛²⁾,
고 인 구 경 락

사귀지 오랜 벗이 긴 세월
한성漢城에 살고 있기에,

湖山生遠思³⁾。
호 산 생 원 사

(공공의 향리에 있는) 호수와 산은
멀리 계시는 공소를 생각나게 하네요.

贈我白蓮花⁴⁾,
증 아 백 련 화

내게 하얀 연꽃 같은 서신을 부치면서,

裁以瓊琚詞⁵⁾。
재 이 경 거 사

옥같이 아름다운 시사詩詞를
다듬어 보내셨네요.

折來已憔悴⁶⁾,
절 래 이 초 채

(연꽃을) 따 보내셨으면 이미 시들었으련만,

清香猶未沫⁷⁾。
청 향 유 미 말

(이 서신의) 맑은 향기는
아직 가시지 않네요.

誰將木蘭舟⁸⁾,
수 장 목 란 주

누군가 목란 나룻배에
(공공과 벗들을) 안내하여,

採採湖西曲⁹⁾。
채 채 호 서 곡

딩동딩동 (악곡에 맞춰)
호수에서 서곡가西曲歌 부르겠지요?

裋裳欲往從¹⁰⁾,
진 상 욕 왕 종

(나도) 바지 걷고 달려가서
어울리고 싶지만,

雲樹杳無極¹¹⁾。
운 수 묘 무 극

부운浮雲과 수림樹林만큼
거리 멀어 갈 수가 없네요.

1) 노정랑 증원(盧正郎從元): 노종원(盧從元) 정랑(正郎).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a. 노정랑(盧正郎): 정랑(正郎) 노종원(盧從元). 이렇게 성씨 다음에 직함을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④ 정랑(正郎): 조선시대 육조(六曹)의 정5품 관직 명칭이며, 육조의 중견 실무 책임자였다.

⑤ 노종원(盧從元: 1535~1583): 자는 순백(順伯), 호는 매헌(梅軒)이다. 노공(盧公)은 매우 총명하고, 학문을 깊이 닦았으며, 실천력이 강할 뿐 아니라 효심이 지극했고 우애심도 남달랐다고 한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상고 이래 대한제국까지의 우리나라 문물제도의 전고典故를 총망라하여 16고考로 수록한 책임)』의 기록에 의하면 서애(西厓)가 매헌 노공원 4형제(송헌松軒 노계원<盧繼元, 1529~1586> · 국헌菊軒 노후원<盧後元, 1533~1592> · 매헌梅軒 노종원<盧從元, 1535~1583> · 죽헌竹軒 노일원<盧一元, 1539~1611>)의 남다른 우애를 보고나서 이를 선조(宣祖)에게 아뢰어 선조가 친히 ‘체화당(槎華堂)’이란 어필을 써서 그 집에 걸도록 하여 당호(堂號)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편액(扁額)과 당사(堂舍)가 불탔으나, 숙종 27년(1701)에 다시 세우고, 후에 체화당은 이들의 사당(祠堂)으로 개편되어 체화당사(槎華堂祠)가 되었다. 이는 현재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남일면(南一面) 신송리(新松里)에 소재(所在)하며, 여기에는 체화당사 사적비(槎華堂祠事蹟碑)도 함께 있다. 이 둘은 모두 충청북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상은 충북 청원군 남일면 신송리에 위치한 체화서원槎華書院에 배향配享된 인물의 사적事蹟을 참조하였음. 체화서원의 당조 명칭은 ‘체화당槎華堂’이었는데, 이는 서애 선생이 선조宣祖께 상주上奏하여 현관을 달도록 하였고 이에 선조의 어필御筆을 하사했다고 함.)

2) ① 고인(故人): 옛 친구, 오래 사귄 친구, 사귄지 오랜 벗

② 구(久): 오래 머무르다, ...에 머물다

③ 경락(京洛): 한성(漢城: 서울의 옛이름)을 뜻하는 말로 쓰였다.

☆‘경락(京洛)’을 ‘수도(首都)’의 뜻으로 쓴 유래는 중국에 있다. ‘경락’은 ‘경궐(京雒)’으로도 쓰며, ‘낙양(洛陽)’의 별칭이다. 동주(東周)와 동한(東漢)이 모두 이곳에 도읍을 정했기 때문에, 수도의 명칭으로 습관상 ‘경락(京洛)’을 썼던 것이다.

☆서울: 조선시대에 ‘서울’을 뜻하는 명칭으로 제일 먼저 쓰인 것은 ‘한양(漢陽)’이었다. 1308년(고려 충렬왕 34년)에 당시 남경(南京: 지금의 서울)이었던 명칭을 ‘한양부(漢陽府)’로 개칭하고, 1390년(고려 공양왕 2년)에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이후 조선이 건국되고 ‘한양’은 조선의 수도가 되었다. 1395년(조선 태조 4년)에 ‘한양부’를 ‘한성부(漢城府)’로 개칭하였다. 이후, 서울을 ‘한성’으로 칭했다. 그 후, 근대에 이르러 1910년에 한성부를 ‘경성부(京城府)’로 개칭하였고, 1945년에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하였다.

- 3) ① 호산(湖山): 호수와 연이어진 산. 산수(山水)나 강산(江山)을 가리키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노공(盧公)이 머무는 곳의 강산’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생(生): 생기다, 발생하다. 본 시에서는 ‘생기게 하다, 자아내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원사(遠思):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깊은 상념
- 4) 백련화(白蓮花): 흰 빛깔의 연꽃. 본 시에서는 ‘서신을 비유한 뜻’으로 쓰였다.
- 5) ① 재(裁): 마름하다. 재단하다. 본 시에서는 시문을 다듬는 것을 비유한 뜻으로 쓰였다.
- ② 이(以): (給…以의 형식으로) …에게 …을 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본 시구는 ‘〈저에게〉 아름다운 시사를 다듬어 보내시다’라고 해석하였다.
- ③ 경거(瓊瑤): 아름다운 시문(詩文)을 비유한 말.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④ 사(詞): 시사(詩詞)
- 6) ① 절(折): 꺾다
- ② 래(來): 어조를 고르게 하기 위해 의미 없이 쓰인 조사(助詞)이다.
- ③ 이(已): 이미
- ④ 초체(憔悴): 초체(憔悴)로도 쓰며, 본 시에서는 ‘(초목이) 시들어 떨어지다. (꽃잎이) 시들어 마르다. 생기가 없다.’ 등의 의미로 쓰였다.
- 7) ① 청향(清香): 맑은(상쾌한) 향기
- ② 유(猶): 부사로 쓰여, ‘아직도, 여전히’의 의미이다.
- ③ 말(沫): 끝나다. 정지하다. 본 시에서는 ‘(향기가) 다 날리어 없어지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이므로, ‘가시다’로 번역한다.
- 8) ① 수(誰): 누가
- ② 장(將): 안내하다. 인솔하다
- ③ 목란주(木蘭舟): ‘목란(木蘭: 백목련)나무로 만든 배’란 뜻인데, 실제 목란 나무로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배의 미칭(美稱)’으로 자주 쓰는 말이다.
 - a. 목란(木蘭): 이 난목(蘭木)의 재질(材質)은 그 결이 단단하고 향기까지 지닌 탓에 표리가 없는 정결함을 강조한다. 중국 남조(南朝)의 양(梁)나라 사람 임방(任昉)이 지은 『술이기(述異記)』 권하(卷下)에, “목란주木蘭洲는 심양강瀋陽江 가운데 있는 섬으로, 목란수木蘭樹가 많다. 옛적에 오왕 합려가 여기에 목란을 심었으며, 목란목재를 사용하여 궁전을 지었다(木蘭洲在瀋陽江中, 多木蘭樹. 昔吳王闔閭木蘭于此, 用構宮殿也). 칠리주七里洲 가운데에는, 노반魯般이라는 장인이 있어 목란을 깎아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한다(七里洲中, 有魯般刻木蘭爲舟, 舟至今在舟中). 시를 짓는 사람들이 일컫는 ‘목란주’는 여기에서 나왔다(詩家云木蘭舟, 出于此).” 그 후 항상 배의 미칭(美稱)으로 사용하였다. 꼭 목란(木蘭)으로 만든 배를 가리키

지는 않는다. (앞의 「시1」의 주석 3)의 ① ‘난장(蘭漿)’조항을 참조바람)

- 9) ① 채채(採採): 채채(采采): ‘채(採)’는 ‘채(采)’의 속자(俗字)이다.

****역지주석:** ‘채(採)’지는 원래 ‘채(采)’자였는데, 후세 사람들이 ‘채(采)’자에 ‘재방면[打]’을 붙여, ‘채(採)’자로 썼다고 하였다. 이는 강희자전(康熙字典)의 ‘채(採)’자 조항에 기록되어 있다. ‘채채(採採)’의 뜻을 본 시에서는 ‘미묘(美妙)’한 악곡소리를 형용한 말로 쓰였으며, ‘딩동딩동’으로 표현한다.

- ② 서곡(西曲): 이는 악부(樂府)로 청상곡(淸商曲)의 일부이다. 서곡가(西曲歌)라고도 칭한다. 대체로 형(荊: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강릉현江陵縣), 영(郢: 지금의 호북성 강릉현 북부로 장강長江 중류지역), 빈(樊: 지금의 호북성 양양현襄陽縣 일대), 등(鄧: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등현鄧縣) 지역으로, 요약하면 장강(長江) 중류와 한수(漢水) 연안지역에서 생성되었던 까닭에 ‘서부에서 생성된 악곡’이란 뜻에서 ‘서곡(西曲)’이라고 칭한 것이다. 원래는 민가(民歌)였으나, 훗날 귀족에 의해서 악부시집에 기입되었고, 문인이 제작한 것도 있다. 현존하는 가사는 140수이며, 대부분이 상인(商人)들의 수상(水上) 생활 및 부인과 송별하는 정회를 묘사한 것이다. 형식은 오언사구(五言四句)가 많으며, 가사는 자연스럽고 진솔하다. 본 시에서의 ‘서곡(西曲)’은 이를 칭한 것이다.

***악부(樂府):** 중국 한시(漢詩)의 시체(詩體)의 명칭이다. 처음에는 악부(樂府: 중국 고대 음악을 주관하던 관서)에서 채집하여 만든 시가(詩歌)를 ‘악부’라고 했으나, 후에는 위(魏)·진(晉)·당(唐) 시대까지 악부시집에 기입된 시가(詩歌) 및 악부를 모방한 고제(古題)의 작품까지를 통칭하여 ‘악부’라고 했다.

***청상곡(淸商曲):** 청상곡은 삼국(三國), 양진(兩晉),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걸쳐 흥기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음악생활에 주도적 지위를 누린 일종의 전통 음악이다. 청상곡은 동진(東晉)이 남진(南遷)한 후에, 전부터 있던 상화가(相和歌)와 당시 남방주민들이 민가(民歌)를 발전시켜 만든 ‘오성(吳聲)’과 ‘서곡(西曲)’을 결합한 산물로서, 상화가를 이어받는 동시에 발전시킨 것이다. 그 성조(聲調)가 청월(淸越: 소리가 맑고 가락이 높음)하기 때문에 붙여진 칭호이다.

- 10) ① 건(褰): (바지, 치마, 소매) 등을 걷어 올리다.
 ② 상(裳): (치마, 바지 등) 아랫도리 옷, 하의(下衣)
 ③ 욕(欲): …하고 싶다
 ④ 왕(往): 가다
 ⑤ 증(從): 취합하다. 한데 모이다
 11) ① 운수(雲樹): 벗과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비유한 말로서, ‘운수(雲樹)’라는 이 말은 곧 ‘부운(浮雲)과 수목(樹木)의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음을 표현한 말’이다.
 ② 묘(杳): 아득히 먼 모양
 ③ 무극(無極): 다다를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a. 극(極): 이르다, 다다르다. 본 시에서는 ‘가다’로 번역한다.



시84. 중수^{仲綏} 남연^{南延祿} 선비^{선비}께
화답하여 부치다

詩84. 奉酬^{奉酬}寄南^{寄南}仲綏^{仲綏}延祿^{延祿}¹⁾
봉 수 기 남 중 수 연 륵

寒山居士老清真²⁾, 한산거사^{寒山居士}는 늘 순수 소박하셔서,
한 산 거 사 노 청 진

茅屋蕭然一畝貧³⁾。 뗏집에서 궁한 형편에도
모 옥 소 연 일 묘 빈
유한^{悠閑}하게 지내네요.

腹裏有書雖萬卷⁴⁾, 가슴속에 품은 책이 만 권이나 되거늘,
복 리 유 서 수 만 권

室中無酒度三春⁵⁾。 방안에 술 한 병 없이
실 중 무 주 도 삼 춘
봄철을 넘겼다지요.

東床自擇風流子⁶⁾, 사위도 소탈하고 재학^{才學} 있는
동 상 자 택 풍 류 자
청년으로 택했지만,

市犬寧慙節操人⁷⁾。 시정배^{市井輩}에게도 오히려 부끄러워한
시 견 영 참 절 조 인
절조^{節操} 있는 분이였다지요.

病臥未能趨盛禮⁸⁾, 외병중이라 그 성대한
병 와 미 능 추 성 례
예식에도 못 가웁고,

惡詩⁹⁾遙寄愧鄉隣。
악 시 요 기 괴 향 린

졸렬한 이 시만 보내니
향리 이웃에 부끄럽소.

- 1) ① 봉수(奉酬) : 답례(하다). 화답(和答)하다
- ② 남중수 연록(南仲綬延祿) : 중수(仲綬) 남연록(南延祿)
 - a. 중수(仲綬) : 남연록의 호 아니면 자이다. 이렇게 성씨 다음에 호 또는 자를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예이다.
 - b. 남연록(南延祿) : 생몰년 미상) : 남연록의 이력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다만 규장각 한국 연구원이 편집한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에 의하면, 남연록은 본관이 영양(英陽)이고 예조좌랑(禮曹佐郎 : 예조의 정5품 벼슬)을 지낸 남지망(南之望 : 생몰년 미상)의 조부라고 하였다. 또한 서애(西厓)의 문인(門人)인 숙평(叔平) 이준(李埈 : 1560~1635)이 쓴 「병산존덕사복향기(屏山尊德祠復享記)」에, “풍악서원(豊嶽書院은 대로大路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곳이라, 유생들이 공부하기에 부적합한 곳이었다(且以豊嶽書院在官道傍車馬喧囂, 不合於藏修). 그래서 선생께서는 시를 지어 여러 유생들에게 보이시면서, 이곳 병산마을로 이전하라고 하셨다(以詩諭諸生, 移卜于此). 그 때 선비 남연록을 비롯한 여러분이 이전移轉 사업을 주관하였다(舍人南延祿諸公實幹其事).”고 한 대목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남연록은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지방의 유력한 선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① 한산거사(寒山居士) : 중수(仲綬) 남연록(南延祿) 선비에 대한 별호(別號)로 보인다.
- ② 노(老) : 줄곧, 늘, 항상
- ③ 청진(淸眞) : 순진소박하다
- 3) ① 모옥(茅屋) : 떠나 이영 따위로 지붕을 인 멋진. ‘초가(草家)’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소연(蕭然) : 유한(悠閑 : 유연하고 근심걱정 없음)하고, 소쇄(蕭灑 : 탈속하여 구속받음이 없음)하다.
- ③ 일묘빈(一畝貧) : 일묘(一畝)의 땅을 지닌 궁한 형편(의 선비). ‘한사(寒士)의 빈곤한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한사의 누추한 거처’를 이르는 뜻으로 ‘일묘궁(一畝宮)’이란 말이 있다.
 - a. 일묘(一畝) : 묘(畝)는 ‘묘(畝)’와 동자(同字)이다. 일묘(一畝)는 30평으로 99.17m²이다. 앞의 「시61」의 주석 3)의 ① ‘남묘(南畝)’조항을 참조 바람.
 - b. 빈(貧) : 빈민(貧民), 빈가(貧家)
- 4) ① 복(腹) : 본 시에서는 ‘회포(懷抱 : 품, 가슴)’의 뜻으로 쓰였다. 본 시에서는 ‘복(腹)’자의 뜻을 ‘배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내심을 비유한 말로도 쓴다.
- ② 리(裏) : …의 속(안)에
- ③ 유(有) : 보유하다, 품고 있다, 가지다
- ④ 수만권(雖萬卷) : 본래 만권이다.
 - a. 수(雖) : ‘수(須)’와 통하며, 부사로서 ‘본래, 본래부터’의 뜻으로 쓰였다.

- 5) 도삼춘(度三春): 봄절을 넘기다. 봄철 석 달을 지나다(보내다).
- ① 도(度): (시간을) 보내다, 지나다, 건너다
 - ② 삼춘(三春): ‘춘계 3개월’을 이르는 말이다. 음력 정월을 맹춘(孟春)이라 하고, 2월을 중춘(仲春)이라 하며, 3월은 계춘(季春: 만춘晩春이라고도 함)이라고 한다.
- 6) ① 동상(東床): ‘동상(東牀)’으로도 쓰고, ‘동상(東廂)’으로도 쓰며, ‘남의 사위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동상(東床)’에는 ‘손님을 접대하는 침상’이란 뜻도 있다. ‘백년지객(百年之客)’인 사위가 쓰는 침상이란 뜻에서 ‘동상(東床)’을 ‘사위’를 가리키는 뜻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 ② 풍류자(風流子): 풍류재자(風流才子: 풍도風도가 소탈하고 재학才學이 출중한 사람)의 약칭이며, 풍류인(風流人: 초범탈속超凡脫俗하고 풍도가 우아한 사람)의 뜻으로 쓰였다.
- 7) ① 시견(市犬): 시정배(市井輩), 시정아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무리
- a. 시(市): 시정(市井). 고대에 성읍(城邑)에서 상품을 매매하던 장소
 - b. 견(犬): 고대에 자겸(自謙)하거나 타인을 비척(鄙斥)하던 말로서, 본 시에서는 ‘타인을 지칭하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영참(寧慙): 오히려 부끄러워하다.
 - ③ 절조인(節操人): 절개와 지조가 있는 사람. 본 시에서는 중수(仲綏) 남연록(南延祿) 공(公)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8) ① 추(趨): 빨리 가다
- ② 성례(盛禮): 성대한 예식(禮式: 결혼식)
- 9) 악시(惡詩): 졸렬하거나 비천한 시. 본 시에서는 자기의 시에 대한 겸칭으로 쓰였다.

시85. 강변 누각에서 중수^{仲綏} 남연^{南延祿}이 불러주는 운자^{韻字}를 따라서

詩85. 江閣與南仲綏呼韻¹⁾
강 각 여 남 중 수 호 운



烈士終非畏喪元²⁾,
열사^烈종^終비^非외^畏상^喪원^元,

열사^烈사는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高人避世欲踰垣³⁾.
고인^高피^避세^世욕^欲유^踰원^垣.

고사^高사는 진세^塵피하려고
관서^{官署}를 멀리하네.

平生壯志期前哲⁴⁾,
평생^平장^壯지^志기^期전^前철^哲,

평생^平 장한 뜻 지니고
전철^{前哲}에게 희망 걸어 봐도,

至理難逢庶草蕃⁵⁾.
지리^至난^難봉^逢서^庶초^草번^蕃.

사방이 풀숲이라
진리와 부합^符하기 어렵다네.

1) 강각여남중수호운(江閣與南仲綏呼韻 : 강변 누각에서 중수^{仲綏} 남연^{南延祿}이
불러주는 운자^{韻字}를 따라서) :

**역자주석: 서애가 남연^{南延祿}이 불러주는 ‘운자(韻字)’를 따라서 시를 읊었다. 이는 당
시 문인사대부들의 아취(雅趣)의 일면이다.

① 강각(江閣): 강변 누각

② 여(與): …를 따르다(쫓다)

③ 남중수(南仲綏): 중수(仲綏) 남연^{南延祿}. 자세한 내용은 위의 「시85」의 주
석 1)의 ② ‘남중수(南仲綏) 연록(延祿)’조항을 참조 바람

④ 호운(呼韻): 운자(韻字)를 부르다. 본 시에서는 ‘불러주는 운자(韻字)’로 앞의 ‘여

(輿)’의 목적으로 쓰였다.

2) ① 열사(烈士) :

☆절기(節氣)가 있고 장지(壯志)가 있는 사람

☆나라를 위해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싸운 사람

☆절의(節義)를 굳게 지키는 선비

② 증비(終非) : 끝내 …하지 않다

③ 외(畏) : 두려워하다

④ 상원(喪元) : 머리가 떨어지다, 목이 잘리다, 목숨을 바치는 것을 가리키다

3) ① 고인(高人) : 지행(志行)이 고상한 사람

② 피세(避世) : 진세(塵世)를 도피하다, 난세(亂世)를 도피하다

③ 욕(欲) : …하려 하다

④ 유(踰) : ‘원(遠)’, 즉 ‘멀리하다’는 뜻이다.

⑤ 원(垣) : 관서(官署)의 대칭(代稱)이다

4) ① 기(期) : 희망을 걸다, 기구(企求)하다

② 전철(前哲) : ‘전철(前喆)’로도 쓰며, 전대(前代)의 현철(賢哲)을 가리킨다. 선철(先哲 : 옛날의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 예전의 철인(哲人)

5) ① 지리(至理) : ‘진리(眞理)’와 같은 말. 정상적인 도리(道理). 아주 지당한 도덕

② 난봉(難逢) : 부합(符合)하기 어렵다.

③ 서초번(庶草蕃) : 사방이 풀숲이다. 난관이 많음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시86. 행정_{行正} 승려에게 증여하다

詩86. 贈行正僧¹⁾
증행정승



小白山僧名行正,
소백산승명행정

소백산에 수도하는
승려 법명_{法名}이 행정_{行正}인데,

春風訪我金溪曲²⁾.
춘풍방아금계곡

춘풍 불 때 금계촌_{金溪村}으로
나를 방문했네.

金溪溪水咽不流³⁾,
금계계수열불류

금계촌 계곡물 말라서 흐르지 않는데도,

芳草萋萋山日黑⁴⁾.
방초처처산일흑

방초는 무덤무덤 자라고
산중에 날 저무네.

1) ① 행정(行正): 어떤 승려의 법호(法號)이다.

② 승(僧): 승려

2) ① 금계(金溪): 금계촌(金溪村)이란 촌명(村名)으로, 여기에 서애의 선친묘소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24」 주석 1)의 ③ ‘금계(金溪)’와 ‘금계재사(金溪齋寺)’조항을 참조 바람.

② 곡(曲): ‘편벽(偏僻)한 곳’으로, ‘향리(鄉里)’의 뜻이다.

3) 열불류(咽不流): 말라서 흐르지 않다.

① 열(咽): 막히다. 본 시에서는 ‘가뭄 탓에 졸졸 흐르던 냇물이 중간의 웅덩이에 고이고 그 흐름이 단절된 것을 표현한 말로 쓰였다. ‘마르다’로 번역한다.

4) ① 방초(芳草): 방초는 꽃다운 풀, 향기가 좋은 풀로, 본 시어(詩語)에는 ‘충정(忠貞)하거나 현덕한 사람’을 비유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② 처처(萋萋): 초목이 무성하게 우거진 모양. ‘무덤무덤’으로 표현한다.

③ 산일흑(山日黑): 산중에 날이 저물다.



시87. 정일精一의 시축에 쓰다

詩87. 精一詩軸¹⁾ 정 일 시 축

向壁功深着一蒲²⁾,
향 벽 공 심 착 일 포

면벽面壁으로 공력功力
심오함에 이르고자 부들채찍 지녔더니,

出塵襟韻映冰壺³⁾.
출 진 금 윤 영 빙 호

세속世俗 초월한
심중心中의 기개가 옥병에 비치네.

秋風更踏西關路⁴⁾,
추 풍 갱 답 서 관 로

(그런데) 추풍의 도래로
다시 서관로西關路를 신유神遊하니,

漢上青峯入夢孤⁵⁾.
한 상 청 봉 입 몽 고

한강변의 푸른 산봉은
꿈에서 봐도 외로웠네.

1) 정일시축(精一詩軸: 정일의 시축에 쓰다)

- ① 정일(精一): 선승(禪僧)의 법호(法號)로 보인다.
- ② 시축(詩軸): 시를 적는 두루마리.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승려와 교류하는 매개(媒介) 중의 하나가 시(詩)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시승(詩僧)들이 출현하여 사대 부들과 격의 없이 수창(酬唱)하기도 하였다. 사대부들은 유람에 도움을 준 승려의 후의에 보답하는 것으로 시를 써주곤 하였다. 이러한 승려들의 구시(求詩) 행 위는 대부분의 유람기록에 빠지지 않고 나타난다. 승려들이 사대부에게 구한 시를 축(軸)으로 만들어 지니는 것은 당시의 고풍(古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의 문인 청천당(淸天堂) 심수경(沈守慶: 1516~1599)이 지은 『견훤잡록(遣閑雜錄)』에, “승려가 고관(高官)과 유생(儒生)들에게 시(詩)를 구해서 몸가짐의 보배로 삼고 이것을 시축(詩軸)이라고 한다. 이것은 승려들의 고풍(古風)이

다. 명공거경(名公巨卿)들까지도 모두 써주었는데, 여성군(礪城君) 이암(頤菴) 송인(宋寅: 1517~1584)이 가장 많이 써 주었고, 나 또한 잘 써 주는 편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상균, 2012, 「朝鮮時代遊覽을 통한 士大夫의 交遊樣相」 사학연구 참조) 이로 미루어볼 때, 위의 시제(詩題)에 쓰인 ‘시축’은 서애가 정일(精一)이란 선승(禪僧)에게 써준 것으로 이해된다.

- 2) ① **향벽공심(向壁功深)**: 면벽공심(面壁功深): 오랜 수련을 통하여 깊은 경지에 이르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이는 중국 선종(禪宗)의 창시자인 달마(達磨)가 송산(嵩山) 소림사(少林寺)에서 9년간 면벽좌선(面壁坐禪)하면서 높은 경지에 올랐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성어(成語)이다. (남송의 혜명(慧明) 등이 엮은 『오등회원(五燈會元)·동토조사(東土祖師)』편에 보임) 중국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의 양(梁)나라 무제(武帝) 때, 천축국(天竺國) 향지왕(香至王)의 셋째 왕자인 달마(達磨)가 중국에 와서 북위(北魏)의 영토인 송산(嵩山) 소림사(少林寺)에서 9년간 머물렀다. 이때 그는 오로지 벽을 마주한 채 좌선에 전념하면서 종일토록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9년을 변함없이 면벽좌선하고 나서, 깨달은 선법(禪法)을 제자 혜가(慧可)에게 전수한 뒤 죽었다. ‘면벽공심(面壁功深)’은 여기서 유래하였다. 뒤에 장기간의 연찬(硏鑽) 끝에 학문이나 기술 등이 정밀하고 깊은 경지에 오르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a. **향벽(向壁)**: 벽을 향하다, 벽을 마주보다

b. **공심(功深)**: 수련이 깊다. 즉 수련을 통해 깊은 경지에 이른다.

- ② **착일포(着一蒲)**: (자신을 경계하는 의미로) 창포 한 줄기를 몸에 지니다. 한줄기 부들채찍으로 자신을 치다.

이는 『후한서(後漢書)·유관전(劉寬傳)』에, “하급관리가 과오를 범하였는데(吏人有過), 부들채찍으로 그를 벌하여(但以蒲鞭罰之), 욕을 보일뿐(示辱而已), 신체적 고통은 가하지 않았다(終不加苦).”라는 데서 유래한다. 이는 겉으로 형벌을 내릴 뿐 실제로는 고통이 없는 형벌로 관후한 정치를 이른다. 즉 하급관리의 잘못에 대하여 관용을 베푸는 태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본 시에서는 화자(話者)가 달마의 9년 면벽의 고행참선을 떠올리며 자성(自省)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a. **착(着)**: 몸에 지니다, 갖다(때리다)

b. **일포(一蒲)**: 창포(菖蒲) 한 줄기. 본 시에서는 ‘하나의 부들채찍’으로 쓰였다.

- 3) ① **출진(出塵)**: 세속(世俗)을 초월하다.

- ② **금운(襟韻)**: 도량(度量)과 기개(氣概)

a. **금(襟)**: 마음속, 생각, 포부, 도량

b. **운(韻)**: 기도(氣度: 기개氣概), 기품(氣品)

- ③ **영(映)**: 비치다, 되비치다(반조返照하다)

- ④ **빙호(冰壺)**: ‘빙호(氷壺)’로도 쓴다. 이는 얼음을 넣은 옥으로 만든 병이란 뜻인데, 품덕(品德)이며 마음이 청렴결백한 것을 비유한 말로 많이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4) **추풍갱답 서관로(秋風更踏西關路)**: 추풍 불길래 다시 서관로西關路를 신유神遊했는데):

****역지주석**: 본 시구와 아래의 시구는 추풍(秋風)의 도래로 화자가 임진왜란 당시

국왕의 서쪽으로의 파천(播遷) 악몽을 되새기는 것으로 보인다.

- ① 갱답(更踏): 다시 신유(神遊)하다
 - a. 갱(更): 다시, 또
 - b. 답(踏): 유상(遊賞): 노닐며 관상(觀賞)하다.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신유(神遊)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10」의 주석 34)의 ‘신유(神遊)’조항을 참조 바람)
 - ② 서관로(西關路): 서관(西關) 지역으로 가는 길을 뜻한다.
 - ☆‘서관(西關)’이란 평안도 지역과 황해도 지역 일대를 칭한다. 이 명칭은 『조선왕조실록·연산군일기·6년 1월 9일』 조항에 처음으로 보인다.
 - ☆『선조실록·26년(계사년癸巳年: 1593) 9월 3일』 조항에는 ‘서관’이라는 용어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관서(關西)’라는 명칭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5) ① 한상(漢上): 한강 주변
- ② 입몽고(入夢孤): 꿈에서 봐도 외롭다

시88. 신경^{信敬} 승려에게 증여하다

詩88. 贈山人信敬¹⁾
증 산 인 신 경



碧嶂千層合²⁾,
벽 장 천 층 합

청록색 병풍 같은 산봉^{山峯}이
 겹겹이 둘러싸고,

江村一逕深³⁾.
강 촌 일 경 심

강변 마을 오솔길은 초목에 가려졌네.

蓬門誰見過⁴⁾,
봉 문 수 견 과

썩대 엮어 만든 문 앞에
 누가 내방^{來訪}했나 했더니,

緇錫獨相尋⁵⁾.
치 석 독 상 심

치의^{緇衣} 입고 석장^{錫杖} 짚은
 승려 한 분이 찾아오셨네.

柿葉⁶⁾秋全赤,
시 엽 추 전 적

감나무 잎은 가을되자
 다 붉게 물드는데,

庭梧夕半陰⁷⁾.
정 오 석 반 음

뜰 안의 벽오동은
 날 저물면서 거뭇거뭇해지네.

花峯⁸⁾看月出,
화 봉 간 월 출

산봉에 꽃이 핀 듯 월출^{月出}광경 보이더니,

萬頃瀉鎔金⁹⁾.
만 경 사 용 금

수많은 산봉을 황금 녹여
 부은 듯 붉게 물들이네.

- 1) ① 산인(山人) : 산중에 은거하는 선비 또는 도사(道士)의 뜻으로 쓰는데, 본 시에서는 내용상 ‘산승(山僧)’의 뜻으로 쓰였다.
 ② 신경(信敬) : ‘신경(信敬)’은 어떤 승려의 법호(法號)이나 이력은 미상이다.
- 2) ① 벽장(碧嶂) : 청록색 병풍처럼 연이어 둘러싼 산봉(山峯)
 ② 천층합(千層合) : 일천 겹으로 둘러싸다, 겹겹이 둘러싸다
- 3) ① 강촌(江村) : 강가에 있는 마을, 강변의 마을
 ② 경(逕) : 소로, 오솔길
 ③ 심(深) : ‘은장(隱藏 : 숨김)하다’는 뜻인데,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초목에 가려지다’로 번역한다.
- 4) ① 봉문(蓬門) : 쑥대를 엮어 만든 문, 또는 그런 문을 단 집. 가난한 사람이나 은사(隱士)의 집을 가리킨다. 자기 집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도 쓴다.
 ② 수견과(誰見過) : 누가 내방(來訪)했나?
 a. 견과(見過) : 겸사(謙詞)로서 ‘내방(來訪)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5) ① 치석(緇錫) : 치의(緇衣)와 석장(錫杖)
 a. 치(緇) : 치의(緇衣) : ‘치(緇)’는 자색을 띤 흑색으로, 치의(緇衣)는 ‘검은 옷’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의 중엽이후부터 고려 말까지 약 천년동안 불교문화시대에 범의인 흑장삼(黑長衫)과 붉은 가사가 중국으로부터 전래하여 전통적인 우리 옷 위에 착용하게 된 것이다. 승려의 정복이었다. 일반적으로 승려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한국에서 지금은 회색으로 사용한다.
 b. 석(錫) : 석장(錫杖) : 승려나 수행자가 갖는 고리가 달린 지팡이다. 원래는 인도의 승려가 산야를 편력(遍歷)할 때, 흔들어 울려서 독사나 해충을 쫓았던 것을 말한다. 머리 부분은 석제(錫製)이며 탑파형(塔婆形)으로 여러 개의 금속 고리를 붙였다. 가운데 부분은 나무, 아래 부분은 어금니 뿔이다.
- ② 독상심(獨相尋) : 한 사람이 찾아오다.
 a. 상심(相尋) : 심방(尋訪 : 방문하여 찾아옴)하다
- 6) 시엽(柿葉) : 감나무의 잎
- 7) ① 정오(庭梧) : 뜰 안의 벽오동 나무
 ② 석(夕) : 날이 저물다. 해 질 무렵, 해질녘
 ③ 반음(半陰) : 어두침침하다. 본 시에서는 전(轉)하여, ‘거뭇거뭇하다(색깔이 맑지 않고 어둡다)’로 번역한다.
- 8) 화봉(花峯) : 산봉에 꽃이 피다
- 9) ① 만경(萬頃) : 백만 묘(畝). 1경은 100묘이다. 1묘는 30평이다. 면적이 광활함을 형용하는 말로 자주 쓴다. 본 시에서는 ‘수많은’로 번역한다.
 ② 사(瀉) : 쏟아, 기울여 붓다
 ③ 용금(鎔金) : 용화(鎔化 : 열로 녹여서 모양을 변화시킴)한 금속, 또는 ‘금속을 녹이다’는 뜻이다. 이때의 ‘금(金)’을 특별히 ‘황금’의 뜻으로 쓰기도 한다.

시89. 시 「망호헌 望湖軒」을 차운 次韻 하여

詩89. 次望湖軒韻¹⁾
차 망 호 헌 운



霜後衣裳薄²⁾,
상 후 의 상 박

서리 내린 후에 입은 겉옷
여전히 얇은데,

秋來枕席單³⁾。
추 래 침 석 단

가을이 됐지만
베개며 이부자리조차 홀겁일세.

客夢長杳杳⁴⁾,
객 몽 장 묘 묘

나그네의 꿈자리 기억은
늘 가물가물 한데,

江月正團團⁵⁾。
강 월 정 단 단

강물에 비친 달은
때마침 등글등글하네.

靜坐生眞想⁶⁾,
정 좌 생 진 상

정좌수련 靜坐修練 하니
심중에 참된 생각 들면서,

愁多覺歲闌⁷⁾。
수 다 각 세 란

수심 많은 중에도
세밀이란 걸 알아챘네.

自慚疎道力⁸⁾,
자 참 소 도 력

스스로 부끄러운 게
도학 道學 수도 修道 소홀하여,

隨處未能安⁹⁾。
수 처 미 능 안

어딜 가도 여태껏
마음 안정하지 못하는 것일세.

1) 차망호헌운(次望湖軒韻: 망호헌 시詩를 차운하여): 본 시제(詩題)와 동일한 시제가 줄역(拙譯)의 『국역 류성룡 시 Ⅲ』의 「시38」에도 보인다.

① 차·운(次韻): 이는 바로 시를 지어 화답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보운(步韻)이라 고도 칭한다. 기타 내용은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 ‘차운(次韻)’조항을 참조 바람.

② 망호헌(望湖軒): 인동현(仁同縣: 지금의 경북 구미시 동부일대의 지역) 서부의 낙동강 강변에 있었던 누정(樓亭)이다. 조선 중종 때의 문신(文臣), 강혼(姜渾: 1461~1519)이 쓴 망호헌 건축의 기문(記文)이 있다. 「서애연보」에 기재된 병술년(丙戌年: 1586: 서애 45세) 조항에 보면, “(서애는) 남계정사(南溪精舍: 지금의 경북 군위읍 대북2리에 위치함)에서 인동으로 가서 모친을 찾아뵈었다. 이때 겸암공(謙菴公: 1539~1601: 서애의 백씨 류운룡柳雲龍)이 대부인(大夫人)을 모시고 임지(任地)인 인동에 있었다. 선생은 하회에서 인동까지는 거리가 조금 먼 관계로, 가까운 남계정사(南溪精舍)에 거처하면서, 날마다 시종들을 시켜 문안을 드리게 하고, 자신은 열흘마다 한 번씩 가서 뵈었다(自南溪往覲仁同, 時謙菴公奉大夫人任仁洞任所. 先生以河隈距仁洞稍遠, 遂近就南溪, 日使僮僕問安, 每旬親往定省.)”라는 대목이 보인다.

****역자주석:** 시 「망호헌(望湖軒)」의 원문은 자료를 찾지 못했다.

2) ① 의상(衣裳): 겉에 입는 옷. 겹옷. 저고리와 바지 또는 저고리와 치마. ‘의복’의 총칭으로 쓴다.

a. 의(衣): 상의(上衣)

b. 상(裳): 아랫도리 옷(바지와 치마). 고대에는 아랫도리에 입는 옷을 ‘상(裳)’이라 하였고, 이는 남녀가 다 입었다. 지금은 ‘아랫도리의 옷’을 ‘하의(下衣)’란 말로 쓴다.

② 박(薄): 얇다, 홀겁이다

3) ① 침식(枕席): 베개와 눕는 자리. 침구(寢具)를 이르는 것으로 베개와 이부자리를 가리킨다.

② 단(單): 얇다, 홀겁이다

4) ① 객몽(客夢): 나그네의 꿈. 본 시에서는 ‘나그네가 꿈의 기억’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장(長): 늘, 항상

③ 묘묘(杳杳): (기억에) 늘 가물가물하다

5) ① 강월(江月): 강물에 비친 달

② 정(正): 때마침(바야흐로, 한창)

③ 단단(團圓): 둥근 모양. 둥글둥글하다, 둥글둥글하다

6) 정좌 생진상(靜坐生眞想: 정좌수련靜坐修練하니 심중에 참된 생각 들면서):

****역자주석:** 성리학(性理學: 도학道學)에서는 ‘마음’을 선성(善性)에 근거하는 본연

지성(本然之性)의 도심(道心)과 기질(氣質)의 청·탁(淸濁)에 근거하는 기질지성(氣質之性)의 인심(人心)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연지성은 맑고 맑은 바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도리에 부합되는 처사를 하지만, 기질지성은 주어진 환경조건에 따라 선성(善性)을 드러낼 수도 혹은 악성(惡性)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사함에 있어,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학에서는 ‘거경존심(居敬存心)’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좌수련(靜坐修練)’을 제시하고 있다. 본 시에서 “심중에 참된 생각이 일어난 것(生眞想)”은 바로 정좌수련을 한 결과임을 피력한 것이다.

- ① 정좌(靜坐) : 마음을 평정(平靜)하게 단좌(端坐)하여, 잡념을 배제하고 눈을 감은 채 안좌(安坐)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학도학불(學道學佛)이 모두 제시하고 있는 일종의 수양방법이다. 본 시에서는 도학의 ‘정좌수련법’을 가리킨다. 본 수련은 심신(心身)의 수렴(收斂)을 통해 의식의 각성(覺醒)을 목표로 한다. 기타 내용으로 앞의 「시32」의 주석 9)의 ① ‘정중(靜中)’조향을 참조 바람.
- ② 생진상(生眞想) : 참된 마음의 작용, 곧 ‘인(仁)에 근거하여 측은지심(惻隱之心) · 의(義)에 근거하여 수오지심(羞惡之心) · 예(禮)에 근거하여 사양지심(辭讓之心) · 지(智)에 근거하여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작용하는 것(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 a. 생(生) : 일어나다(작용하다), 드러나다
 - b. 진상(眞想) : ‘참된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 ④ 진(眞) : 참 되다
- ⑥ 상(想) : 이는 마음의 작용으로, 즉 생각, 감정, 오감 등이 모두 이 안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인 · 의 · 예 · 지(仁義禮智)라는 본연지성(本然之性 : 도심 道心)이 외물(外物)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작용인, ‘측은(惻隱) · 수오(羞惡) · 사양(辭讓) · 시비(是非)’의 기질지성(氣質之性 : 인심人心)을 뜻한다.
- 7) ① 각(覺) : 깨닫다, 알아채다
- ② 세란(歲闌) : 세모(歲暮) : 세밑. 한 해가 끝나가다
 - a. 란(闌) : 끝나가다
- 8) ① 자참(自慚) : 스스로 부끄러워하다, 스스로 수치로 여기다
- ② 소(疎) : 소홀히 하다, 경시하다
- ③ 도력(道力) : ‘도학(道學)에 정진(精進)하는 공력(功力)’을 말한다.
 - a. 도(道) : 여기서는 신유학(新儒學)의 ‘도학(道學)’을 가리킨다.
 - b. 력(力) : 정진(精進) 혹은 수련(修練)하는 공력(功力)을 뜻한다.
- 9) ① 수처(隨處) : 어디를 가도, 어디에서도
- ② 미능안(未能安) :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다
- ③ 안(安) : 안심(安心) : 마음을 안정시키다. 이는 도학의 심법(心法)을 함축한 시어(詩語)이다. 앞의 「시72」의 주석 8)의 ① ‘안심구경법(安心究竟法)’과 뒤의 「시103」의 주석 3)의 ① ‘안심(安心)’ 조향을 참조바람.



시90. 우중에 지난 날을 생각하며
시「작년 한식 때의 성묘前歲寒食拜掃」를
차운次韻하여

詩90. 雨中感舊次前歲寒食拜掃韻¹⁾
우 중 감 구 차 전 세 한 식 배 소 운

濃雲東北未停行, 동북쪽에 짙은 구름 쉬지 않고 흘러가더니,
농 운 동 북 미 정 행

雨勢²⁾今朝亦未晴。 아침에도 비 올 형세로 개이지 않네.
우 세 금 조 역 미 정

林外杏花³⁾紅半落, 수림 밖의 살구꽃이 절반은 떨어졌는데,
임 외 행 화 홍 반 락

水邊烟柳綠初冥⁴⁾。 물가의 수양버들은 녹색으로 짙어지네.
수 변 연 류 녹 초 명

無情歲月遷移地⁵⁾, 무정한 세월이
무 정 세 월 천 이 지
대지의 경색景色을 바뀌가니,

不盡人生感慨情⁶⁾。 진력盡力 못한 인생에 감개의 정취 베어드네.
부 건 인 생 감 개 정

欲趨芳華行樂事⁷⁾, 꽃구경이나 빨리 가서
욕 추 방 화 행 락 사
경치 관상觀賞하고 싶나니,

水雲花鳥總堪驚⁸⁾。 강과 구름이며 꽃과 새들이
수 운 화 조 총 감 경
필경 경탄할만하리라.

- 1) ① 감구(感舊) : 지난날을 생각하며(그리워하며)
- ② 차운(次韻) : 차운은 바로 시를 지어 화답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보운(步韻)이라고도 칭한다. 기타 내용은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 ‘차운(次韻)’조항을 참조 바람.
- ③ 「전세한식배소(前歲寒食拜掃) : 지난해 한식 때의 성묘」 : 본 시는 앞의 「시24」의 시를 차운(次韻) 한 것이다.
- 2) 우세(雨勢) : 비 오는 세기와 형세
- 3) 행화(杏花) : 살구꽃
- 4) ① 수변(水邊) : 물가
- ② 연류(煙柳) : 연류(煙柳)로도 쓴다. 연무(煙霧)에 뒤덮인 버들 숲. 버드나무나 버들 숲을 가리키기도 한다.
- ③ 록(綠) : 녹색
- ④ 초(初) : 개시하다
- ⑤ 명(冥) : (색이) 짙어지다
- 5) ① 천이(遷移) : 천이(遷徙)로도 쓰며, 변천하다, 변화하디 뜻이다. 본 시에서는 “경색(景色)을 바꾸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지(地) : 땅. 본 시에서는 지상의 풍경[색깔]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6) ① 부진(不盡) : 진력(盡力)하지 못하다.
- ② 감개정(感慨情) : 감개하는 정취가 배어들다
- 7) ① 추(趨) : 빨리 가다
- ② 방화(芳華) : 방화(芳花)로도 쓰며, ‘향화(香花)’의 뜻이다.
- ③ 행락사(行樂事) : 경치를 즐기다, 경물관상(景物觀賞)을 하며 여기저기 다니다.
 - a. 행(行) : 다니다
 - b. 낙사(樂事) : 경물관상(景物觀賞) 하는 일
- 8) ① 수운(水雲) : 강물과 구름
- ② 화조(花鳥) : 꽃과 새
- ③ 총감경(總堪驚) : 필경 경탄할 만하다



시91. 인동현^{仁同縣} 망호현^{望湖軒}에서 시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재상^(湖陰相國)」을
차운하여

詩91. 仁同望湖軒 次湖陰相國韻¹⁾
인 동 망 호 현 차 호 음 상 국 운

其一

[1]

欲向西樓倚晚晴²⁾,
용 향 서 루 의 만 청

서루^{西樓}에 가려고 저물녘에 갠
하늘 믿고 나섰는데,

烏峯嵐翠半簾明³⁾.
오 봉 남 취 반 립 명

금오봉^{金烏峯}에 푸른 이내
절반 내린 발처럼 걸쳤네.

堂秋已絕含泥燕⁴⁾,
당 추 이 절 함 니 언

들판에 수확 끝났는지
진흙 묻고 오는 제비 있는데,

樹老時聞喚友鶯⁵⁾.
수 로 시 문 환 우 앵

나무에는 이따금
한 쌍의 앵무새가 지저귀네.

天地有心留客恨⁶⁾,
천 지 유 심 유 객 한

천하에 정의^{情意} 있건만
나그네에겐 한이 남은지라,

山河無賴展詩情⁷⁾.
산 하 무뢰 전 시 정

산천 (완상^{玩賞}에만) 의지할 수 없어
시편^{詩篇}을 펼쳐 읊조리네.

瑤琴莫向愁邊奏⁸⁾,
요금막향수변주

거문고를 시름겨운
사람 곁에선 타지 마시게나,

彈到文王百感生⁹⁾。
탄도문왕백감생

문왕조文王操 곡을 탄주하면
온갖 감회 배어날 것이니.

(서애주석: 山一本作關奏一本作弄)¹⁰⁾
산 일 본 작 관 주 일 본 작 놀

其二¹¹⁾

[2]

樓樓岐路已華顛¹²⁾,
서서기로이화전

기로岐路에서 허둥지둥하다 보니
이처럼 백발됐고,

萬事推遷異後前¹³⁾。
만사추전이후전

세상사 변화에 맞추다 보니
일의 전후 괴이해졌네.

歲晚親朋聯客榻¹⁴⁾,
세만친붕연객탁

세월에 친한 벗들과
객관에서 함숙하는데,

酒醒疎雨打秋蓮¹⁵⁾。
주성소우타추련

술 깬 때 성긴 빗방울이
추련秋蓮에 떨어지네.

關山恨結三年笛¹⁶⁾,
관산한결삼년적

고향생각에 한 맺혀 지난 삼년
‘관산關山’곡만 피리로 불었는데,

澤國晴分一抹烟¹⁷⁾。
택국청분일말연

강하江河에 청명한 절후되니
청천靑天에 조각구름 떠가네.

賴有君詩能起我¹⁸⁾,
뇌유군시능기아

자네 시를 받고 보니
이렇게 나를 감동시키는데,

瓊瑤木李愧爭先¹⁹⁾
경요목이괴쟁선

목리木李같은 내 시를 미옥美玉이라 하니
쟁선爭先하면 부끄럽지.

- 1) ① 인동(仁同) : 인동현(仁同縣) : 지금의 경북 구미시 동부일대의 지역이다.
- ② 망호현(望湖軒) : 앞의 「시89」의 주석 1)의 ② ‘망호현(望湖軒)’조항을 참조 바람.
- ③ 차·운(次韻) :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 ‘차운(次韻)’조항을 참조 바람.
- ④ 호음상국(湖陰相國) : 호음(湖陰) 정사룡(鄭士龍) 재상:
☆정사룡(鄭士龍 : 1491~1570) : 조선 명종 때의 문신이다. 자는 운경(雲卿)이고, 호는 호음(湖陰)이며, 본관은 동래(東萊)이다. 광보(光輔)의 아들이다. 명상(名相) 정광필(鄭光弼 : 1462~1538)의 조카로서, 1509년(중종 4) 문과에 장원급제 했으며 내의 요직을 거쳐 대제학(大提學)·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지냈다. 시문에 뛰어났으며 음률에도 밝아 명나라 사신을 여러 번 접대하여 이름이 높았고, 이양(李樛 : ?~1453)의 당이 되어 정1품의 위계에까지 올랐으나 이양이 실각한 후 관직이 삭탈되었다.
- 2) ① 서루(西樓) : 망호현(望湖軒)을 가리킨다. 망호현이 ‘인동현(仁同縣) 관사의 서쪽에 있는 누각’이기에 일컬어진 말이다.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다.
- ② 의(倚) : 만다, 의지하다
- ③ 만청(晩晴) : 저물녘의 쾌청한 하늘색을 (날씨를) 이르는 말이다. 청천(晴天)을 가리킨다
- 3) ① 오봉(烏峯) : ‘금오봉(金烏峯)’의 약칭으로 쓰였다. 지금의 경북 구미시 남서쪽에 위치한 ‘금오산(金烏山, 976m) 산봉’을 가리킨다.
- ② 남취(嵐翠) : 청록색의 산무(山霧) 산에 걸친 남기(嵐氣), 이내[해질 무렵 보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 남기(嵐氣)
- ③ 반림(半簾) : 반 정도 내린 발
- ④ 명(明) : 대낮
- 4) ① 당(堂) : 드넓은 평원
- ② 추(秋) : 수확
- ③ 이절(已絕) : 이미 끝나다
- ④ 함니(含泥) : 진흙을 입에 물다
- ⑤ 연(燕) : 제비
- 5) ① 수로시문(樹老時聞) : 나무에는 매우 이따금 …소리가 들린다.
- ② 환(喚) : 지저귀다
- ③ 우(友) : 두 마리의 조수(鳥獸)를 이르는 말로 쓰였다. ‘한 쌍’이라고 번역한다.
- ④ 앵(鶯) : 앵무새
- 6) ① 천지(天地) : ‘천하(天下)’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 ② 유심(有心) : 정의(情意)가 있다.
- ③ 유객한(留客恨) : 나그네의 수심은 남아있다.
- 7) ① 전(展) : (시편<詩篇> 시경의 악장)을 펼쳐서 그 내용을 읊조리다(노래하다).

- ② 시경(詩經): 시편(詩篇) 곧 시경(詩經)의 전후악장(前後樂章)의 가사(歌詞) 내용을 가리킨다.
- a. 시(詩): 『시경(詩經)』의 ‘시(詩)’를 칭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음악’의 가사이다. 고로 시경의 시편(詩篇)은 모두 악곡의 ‘악장(樂章)’을 칭한다. 왜냐하면, ‘시경 305편’은 모두 당시에 가창이 되었던 노래의 가사이기 때문이다.
- b. 정(情): 시경의 시편(詩篇)은 독립된 소곡(小曲)들이 모여 큰 악곡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 가사의 내용 또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시에서 언급된 이 ‘정(情)’은 ‘정절(情節)’의 약어(略語)이다. ‘정절(情節)’이란, 사건의 내용과 경위가 있는 작품의 줄거리를 의미한다.
- 8) ① 요금(瑤琴): 옥으로 장식한 거문고, 진귀한 거문고
 ② 막(莫): …말라
 ③ 향(向): …를 향해서, …에게는
 ④ 수변(愁邊): 수심이 있는 사람 옆
 ⑤ 주(奏): 연주하다
- 9) ① 탄(彈): (악기를) 타다. 치다
 ② 도(到): 동사 ‘탄(彈)’의 뒤에 보어로 쓰여, ‘(거문고 타는 소리가) …까지 미치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문왕(文王): 본 시에서의 ‘문왕(文王)’은 「문왕조(文王操)」의 약어로 쓰였다.
 ☆「문왕조(文王操)」: 악부(樂府)의 금곡(琴曲: 거문고 곡조)명칭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주문왕(周文王: 생몰년 미상)이 작곡했다고 한다. 『악부시집(樂府詩集)·금곡가사1(琴曲歌辭一)·문왕조(文王操)」에, 송(宋)나라의 학자 곽무친(郭茂倩: 생몰년 미상)이 해제(解題)에서 말하기를, “「금조(琴操)」에서 이르기를(「금조(琴操)」曰), ‘주왕(紂王: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무도無道하여(紂爲無道), 제 후들이 모두 문왕(文王: 주무왕周武王의 부친으로 성은 화姬, 이름은 창昌임)에게 귀순하자(諸侯皆歸文王), 교외에서 봉황이 글귀 적힌 목편木片을 입에 물고 온 후에(其後有鳳凰銜書於郊), 문왕이 마침내 이 가사를 지었다(文王乃作此辭).’고 하였고, 사회일謝希逸은 「금론(琴論)」에서 이르기를, 「문왕조(文王操)」는 문왕이 지었다(「文王操」, 文王作也).”고 하였다. 또한 『태평어람(太平御覽)』 권84에서 한(漢)나라의 학자이자 관료였던 환담(桓譚: BC 24~AD 56)의 『신론(新論)』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문왕조(文王操)」란 것은(「文王操」者…), 문왕자신이 법도法度を 갖추고(文王躬被法度), 남모르게 인의(仁義)를 행하며(陰行仁義), (여러 상황이 내재된 것을 제작한) 금곡琴曲을 전수해 주었던 까닭에(授琴作操), 그 소리가 분분하여 복잡하게 어울리는데(故其聲紛以擾), 각음(角音: 각성角聲: 중국 고대신화에서 다섯 천제天帝 중에 동방의 춘명春命을 관장하던 신神의 가사로 소리의 감정은 회홀로 표현됨)과 상음(商音: 5음 중의 하나로, 선율이 상조商調를 주음主音으로 하는 악성樂聲이며, (표현되는 계절은 가을이며) 그 소리는 비량애원悲涼哀怨함)이 화음和音을 이뤄 경이롭다(駭角震商).”고 하였다. 훗날 「문왕조(文王操)」에 관한 기록은 『사기(史記)·공자세가(孔子世家)』와 『한시외전(韓詩外傳)』권5에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공자가 춘추시기에 저명한 악사(樂師) 사양(師襄)에게 ‘거문고[琴]’를 배운 적이 있다. 그때 배운 금곡(琴曲)이 바로 「문왕조」이다. 훗날 사람들은 「문왕조」의 원상회복을 시도하고자

할 때, 금곡에서 묘사한 인물형상의 주체를 주문왕에서 공자로 바꾸어 이해하였다. 고로 훗날의 「문왕조」는 공자의 덕행을 찬송하는 곡조로 여기게 되었다.

④ 백감생(百感生): 온갖 감회가 다 배어나다.

- 10) **서애주석: (본 시의 제6구 “산천〈완상玩賞에만〉 의지할 수 없어 시편詩篇을 펼쳐 읊조려보네(山河無賴展詩情).”라고 읊은 구절에서) 어떤 책에서는 ‘산(山)’자 대신에 ‘관(關)’자를 써서, 시적 장단을 맞췄고(山一本作關奏), 어떤 책에서는 ‘산山’자 대신에 ‘릉(弄)’자를 썼다(一本作弄).

**역지주석: 첫째, ‘산(山)’자 대신에 ‘관(關)’자를 썼을 경우, ‘관하무뢰(關河無賴)’의 뜻은 ‘산하무뢰(山河無賴)’의 뜻과 별 차이 없이 ‘산천 완상(玩賞)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뜻이 되고, 둘째, ‘산(山)’자 대신에 ‘릉(弄)’자를 썼을 경우, ‘농하무뢰(弄河無賴)’는 ‘강하(江河) 완상(玩賞)에 의지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다.

- 11) 기이(其二): 지금 역자가 번역하고 있는 『서애전서(西厓全書)·속집편(續集篇)』 중에는 본 시의 제2수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역자가 본 시 제1수의 용어 정리를 하던 중에 감호당(鑑湖堂) 여대로(呂大老)의 문집인 『감호집(鑑湖集)』에서 본 시의 제2수를 찾았다. 『감호선생문집(鑑湖先生文集) 권1(卷一)·인동현仁同縣 망호현望湖軒에서 서애西厓 류공柳公의 시를 차운하여(仁同望湖軒, 次柳西厓韻)』란 시제(詩題) 아래 자신의 시를 읊은 다음, ‘서애시를 첨부하다(附西厓詩)’는 제목아래 서애의 원시(原詩) 제1·제2수가 모두 첨부되어 있어서, 역자가 본 시에 그 제2수를 추가한다. 『감호집(鑑湖集)』은 3권 2책으로 목판본이다. 1650년에 여대로의 증손 문징(文徵) 등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1860년에 9대손 찬조(繼祖)가 중간(重刊)하였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여대로(呂大老: 1552~1619):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의병장이다. 자는 위수(渭叟) 또는 성우(聖遇)이며, 호는 감호(鑑湖)이다. 아버지는 정자 응구(應龜)이며 조식(曹植: 1501~1572)의 문인이다. 또한 그는 서애의 종숙인 대사헌大司憲 구촌(龜村) 류경심柳景深의 사위이기도 하다. 1582년(선조 15)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성균관박사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권응성(權應星)과 함께 금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권응성을 가장(假將)으로 삼고 의병장 김면(金沔: 1541~1593)과 협력하여 지례·금산의 적을 거창 부근에서 격파하여 공을 세웠다. 적을 격파하고 군량을 관장한 공으로 지혜현감·예조 및 병조 좌랑, 대구관관·사헌부 지평·합천 군수 등을 지냈다. 이조참의에 추증되고, 경양사(鏡陽祠)에 봉향되었다. 문집 『감호집(鑑湖集)』이 있다.

- 12) ① 서서(棲棲): 분망(奔忙)하고 불안한 모양. 황황(遑遑): 허둥지둥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게 급함)하며 불안한 모양
 ② 기로(岐路): 갈림길
 ③ 이(已): 이미, 벌써, 이처럼(여차如此)
 ④ 화전(華顛): 백발, 노인, 연로함을 가리키는 말
 a. 화(華): (두발이) 하얗게 세다
 b. 전(顛): 머리꼭대기, 정수리
 13) ① 만사(萬事): 세상사(世上事)
 ② 추천(推遷): (시간, 형세, 풍조 등이) 변천하다. 변화하다, 뒤바뀌어가다

- a. 추(推) : 천이(遷移 : 옮기어 바뀔)하다, 추이(推移 : 일이나 형편이 차차 옮겨가거나 변해 감)하다
- b. 천(遷) : 변화하다, 변천하다
- 14) ① 세만(歲晩) : 세모(歲暮 : 세밑)가 되다
- ② 친봉(親朋) : 친한 벗들
- ③ 련(聯) : 연합하다, 연계(聯系)하다. 본 시에서는 ‘연석(聯席)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④ 객(客) : 객사(客舍), 여관, 객관(客館)
- ⑤ 탐(楊) : 좁고 길며 비교적 낮은 침대. 전(轉)하여 본 시에서는 ‘숙박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 15) ① 주성(酒醒) : 술이 깨다. 취후(醉後)에 깨어나다. 본 시에서는 ‘술이 깼을 때’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소우(疎雨) : (뚝뚝) 성기게 내리는 비, 소우(小雨 : 잠시 조금 내리는 비)
- ③ 타추련(打秋蓮) : 추련(秋蓮)에 (빗방울이) 떨어지다.
- a. 타(打) : (빗방울이) 떨어지다. ‘타(打)’는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대신에 두루 쓰인다.
- b. 추련(秋蓮) : 가을철의 연꽃잎
- 16) ① 관산(關山) :
 ☆변방의 관문에 있는 산으로 옛날 진(秦)의 북쪽 변방에 있는 산을 말한다.
 ☆‘관산월(關山月)’의 약칭으로 한대(漢代) 악부의 명칭이며, ‘변방의 달’이라고 번역된다.
 **역주석 : 본 시에서의 ‘관산(關山)’은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 하나는 변방에 있는 산으로, 여기에는 사향지심(思鄉之心)을 내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악부(漢樂府)의 횡취곡(橫吹曲)인 ‘관산월(關山月)’을 줄여서 칭한 악곡의 명칭이다. 이 악곡은 군악(軍樂)이며 전가(戰歌)이다. 이 군악의 전가에는 변방의 군사들이 오랫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 상심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삼년세월동안 화자가 피리로 분 악곡은 다름 아닌 바로 이 ‘관산월’의 악곡인 것이다.
 서애의 시, “세만친봉 연객탐(歲晩親朋聯客榻)”에서는 세모(歲暮)인데도 귀향하지 못하고 객관에서 가까운 벗들과 새해를 맞이하는 외로운 입장을 두보(杜甫)의 변새시(邊塞詩)인 「세병마행(洗兵馬行)」에 나오는 “삼년동안 오랑캐 피리 속에서 변방 산의 달을 보며 지냈다(三年笛裏關山月).”라는 시구에 빗대어 화자의 이러한 사향(思鄉)의 정한(情恨)을 ‘관산월’의 곡조에 맞추어 피리로 불어서 풀어낸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세병마행(洗兵馬行)」 : 본 시제(詩題)는 ‘병기兵器를 씻어 거둠’이라는 의미로 두보가 안록산(安祿山)의 난이 다 평정되어가고 당(唐)나라의 중흥의 기운이 보이는 것을 기뻐하면서 앞으로는 ‘무기와 갑옷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다시는 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한 제명(題名)이다. 이 시가 세간(世間)에 나온 이후로, ‘관산월’은 악곡으로서의 의미보다 타향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말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서애의 본 시도 예외가 아니다.
- ② 삼년적(三年笛) : 삼년세월 피리로써 관산(關山) 곡조를 불었다.

- a. 삼년(三年): 두보의 본 시 속에서의 3년은 숙종(肅宗) 지덕(至德) 원년(元年: 757)에서 건원(乾元) 2년에 이르는 3년을 말한다. 그러나 본 시 속에서는 그냥 ‘여러 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였다.
- b. 적(笛): 두보의 시에서의 ‘적(笛)’은 강적(羌笛)을 칭한다. 강적은 곧 강족(羌族)의 피리로 길이가 2척(尺) 4촌(寸)이며 구멍이 세 개 또는 네 개 뚫려 있다. 그러나 서에 시 속에서는 그냥 ‘일반 피리’를 뜻하며, 명사가 아닌 동사로 쓰여, ‘피리를 불다’는 뜻이며, 이의 목적어는 ‘관산월(關山月)’ 곡조가 되겠다.
- 17) ①택국(澤國): 수향(水鄉: 못이나 하천이 아름다운 지역, 수곽水廓). 본 시에서는 인동현(仁同縣) 망호현(望湖軒) 주변의 경관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인동(仁同)의 중앙부를 낙동강이 관류하고 있어 ‘택국(澤國)’이라 칭한 것으로 보인다.
- a. 국(國): 지역, 지방
- ②청분(晴分): 청명한 절후. 맑은 하늘, 가을 하늘. 본 시에서는 ‘청명한 가을’의 뜻으로 쓰였다.
- a. 청(晴): 청명하다
- b. 분(分): 절후의 명칭으로 본 시에서는 추분(秋分)의 ‘분(分)’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일말(一抹): 주로 한 번 바르거나 지우는 정도라는 뜻으로 얼마 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한 줄기[一條], 일편(一片: 한 조각). 흔적이나 경물(景物) 등에 쓰이는 말이다. ‘말(抹)’은 경미(輕微)한 흔적, ‘약간’으로 번역한다.
- ④연(烟): 연기 같은 형태의 사물, 곧 운(雲: 구름)이나, 무(霧: 안개) 같은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18) ①뢰(賴): 안다, 획득하다
- ②유(有): 취득하다, 획득하다
- ③군시(君詩): 그대의 시, 자네의 시
- a. 군(君): 상대방에 대한 존칭이며, 본 시에서는 감호(鑑湖) 여대로(呂大老: 1552~1619)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서애보다 10년 연하(年下)일 뿐 아니라, 위의 주석 11)에서 언급했듯이 여대로는 바로 종숙 류경심(柳景深)의 사위이다. 고로 ‘자네’라고 칭한 것으로 보인다.
- ④능기아(能起我): 이렇게 나를 감동시키다.
- a. 능(能): ‘이렇게, 이와 같이’라는 뜻의 부사로 쓰였다.
- b. 기(起): 흥기(興起)하다, 감동하여 일어나다
- 19) ①경요(瓊瑤): 미옥(美玉). 아름다운 옥. 비유하여, 다른 사람이 답례로 한 예물이거나 편지 혹은 시문(詩文)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쓴다.
- ②목리(木李): 과일명칭으로, 명사(檳榔)이다. 목리(木梨)로도 쓴다. ‘명사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모과(木瓜)나무와 비슷하다. 타원형의 장과(漿果: 과육과 액즙이 많고 속에 씨가 들어있는 과실)는 짧고, 약용(藥用)하며, 꽃은 분홍색이다. 본 시에서는 서애 선생 자신의 시를 겸칭하여 비유한 말로 쓰였다.
- ③괴쟁선(愧爭先): 앞서기를 다투면 부끄럽다.

시92. 제목 미상

詩92. 題未詳

제 미 상



劇暑愁難度¹⁾,
극 서 수 난 탁

폭서 이어지자 근심을 측량키 어렵더니,

清秋²⁾喜却回。
청 추 회 각 회

청명한 가을되니 기쁨 역시 돌아오네.

病隨庚伏盡³⁾,
병 수 경 복 진

앓던 병이 삼복더위 따라
극에 달했는데,

樽向晚涼開⁴⁾。
준 향 만 량 개

저물녘에 날이 청량해져
술잔을 마주하네.

臨水看雲去⁵⁾,
임 수 간 운 거

강물 굽어보며
흘러가는 구름 바라보다가,

鉤簾⁶⁾待月來。
구 린 대 월 래

발 걸어 올리고 달뜨기를 기다렸네.

勝遊/驚昨夢⁷⁾,
승 유 경 작 몽

(낮에) 즐겁게 한 유람이
간밤 꿈엔 경이로웠나니,

曾上鬱⁸⁾臺。
증 상 울 대

어떻게 울⁸⁾대鬱⁸⁾臺에
올라갈 수 있었을꼬!

- 1) ① 극서(劇暑) : 혹서(酷暑) : 몹시 심한 더위
- ② 수난(愁難度) : 근심을 헤아리기 어렵다.
 - a. 탁(度) : 추측하다, 헤아리다, 계산에 넣다
- 2) 청추(淸秋) : 맑은 가을, 맑고 상쾌한 가을
- 3) 경복진(庚伏盡) : 삼복더위가 극에 달하다.
 - ① 경복(庚伏) : ‘삼복(三伏)’을 이르는 말이다.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들어 있는 세 번의 절기를 ‘복날’이라 한다. 첫 번째 복날을 초복(初伏)이라 하고, 두 번째 복날을 중복(中伏), 세 번째 복날을 말복(末伏)이라 한다. 초복은 하지(夏至)로부터 세 번째 경일(庚日), 중복은 네 번째 경일, 말복은 입추(立秋)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다. 그래서 ‘삼복’을 ‘경복’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또한 복날은 열흘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과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린다. 그러나 해에 따라서는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이 되기도 한다. 삼복기간은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더운 시기로 몹시 더운 날씨를 가리켜 ‘삼복더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 ② 진(盡) : 극한에 달하다, 절정에 이른다.
- 4) ① 준(樽) : 술잔
- ② 향(向) : 가까이 하다, 마주하다
- ③ 만량(晩涼) : 저물녘에 청량하다, 저물녘에 서늘하다
- ④ 개(開) : 시작하다
- 5) ① 임수(臨水) : 물을 굽어보다
- ② 간운거(看雲去) : 구름이 떠가는 걸 바라보다.
- 6) ① 구(鉤) : 갈고리로 끌어당기다. 본 시에서는 ‘발을 건다, 건어 올리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렴(簾) : 발(가늘고 긴 대를 엮어서 늘어뜨린 것)
- 7) 승유 경작몽(勝遊驚昨夢 : (낮에) 즐겁게 한 유람이 간밤 꿈엔 경이로웠나니) :

****역자주석 : 아래의 주석 8)의 ② 조항을 참조 바람.**

 - ① 승유(勝遊) : 상쾌한 유람, 즐겁게 유람하다
 - ② 경(驚) : 놀라다, 경이롭다
 - ③ 작몽(昨夢) : 어젯밤의 꿈. 여기서의 ‘몽(夢 : 꿈)’은 ‘신유(神遊 : 정신적으로 동경하여 그 경지를 유람하는 것같이 느끼는 것)’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주석 8)의 ② ‘울고대(鬱口臺) 조항을 참조 바람’
- 8) 증상울고대(曾上鬱口臺 : 어떻게 울고대에 올라갈 수 있었을꼬!) :
 - ① 증상(曾上) : 어떻게 (어찌해야) 올라갈 수 있었을꼬!
 - a. 증(曾) : 대명사로 의문을 표시하며, ‘하(何 : 어떻게, 어찌하여, 무슨, 어떤…)’에 상당하는 뜻으로 쓴다.
 - b. 상(上) : 올라가다
 - ② 울고대(鬱口臺) : ‘口’는 결자(缺字)이다. 누대의 명칭인데, 이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누대의 명칭이나 지명으로 ‘울고대’는 없다. 다만, 중국의 당대(唐代)에 건축된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감주시(贛州市) 서북부 허란산(賀蘭山) 산정(山頂)’에 위치하는 ‘울고대(鬱孤臺)’라고 하는 누대가 있다. 이곳은 북송(北宋)의 대문호 동파(東坡) 소식(蘇軾 : 1036~1101)이 왕안석(王安石 : 1021~

1086)의 변법(變法)에 반대하다가 혜주(惠州)로 좌천되어 가던 도중에 명승지인 이곳 ‘울고대’를 유람하며 참담한 심정을 시로써 읊었던 곳이고, 수년 후 돌아올 때도 이곳에 들러 지난번에 지었던 시의 운(韻)으로 다시 시를 읊었던 곳이다. ‘울고대’는 소동파가 지은 시의 시제(詩題)이기도 하다.

본 시의 제8구에서 “〈낮에〉 즐겁게 한 유람이었는데 간밤의 꿈엔 경이로웠다(勝遊驚昨夢).”라고 한 것은 아마도 소동파의 심회에 공감한 뜻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울고대(鬱口臺)’가 ‘울고대(鬱孤臺)’일 것이라는 것은 역자의 추측에 불과함으로 번역은 결자(缺字)가 있는 그대로 한다.



시93. 권직장權直長の 초은정招隱亭을 쓰다

詩93. 題權直長 招隱亭¹⁾
제 권 직 장 초 은 정

招隱亭邊萬木稠²⁾, 초은정招隱亭 주변에는 수림이 백백한데,
초 은 정 변 만 목 주

劒巖³⁾西去白雲愁。 벼랑 서쪽 상공엔 백운이 수심에 잠겨 있네.
검 암 서 거 백 운 수

天師古迹迷春草⁴⁾, 은사隱士가 남긴 옛 자취 봄풀 우거져
천 사 고 적 미 춘 초 찾을 길 없는데,

野老清遊付釣舟⁵⁾。 시골 노인은 청아한 유람을
야 로 청 유 부 조 주 낚싯배에 의탁하네.

□□□□□□□,

欲投簪紱賦三休⁶⁾。 관복 벗고 (사공도司空圖가 쓴)
욕 투 감 불 부 삼 휴 삼휴三休의 뜻을 읊고 싶었네.

年來轉覺衰頹甚⁷⁾, 근래 (사람들은) 오도悟道의 방향 바뀌
연 래 전 각 쇠퇴 심 (성리학이) 심하게 쇠퇴해졌는데,

問舍求田不自由⁸⁾。 집과 농지 같은 소리小利에
문 사 구 준 부 자 유 집착하면 자유롭지 못하다네.

1) ① 제(題) : 쓰다

② 권직장(權直長) : 권 직장

a. 권(權) : 권씨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

b. 직장(直長) : 조선시대 중앙의 각 관아에 두었던 종7품 관직이다. 주로 궁궐내의 재정 물품을 담당했던 관서에 많이 두었는데 전곡 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담당했다.

③ 초은정(招隱亭) :

****역지주석** : 첫째 본 시의 시제(詩題)를 놓고 볼 때, ‘초은정’의 소유주는 직장(直長) 권공(權公)인 듯하나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둘째, 『고려사(高麗史) · 지리지(地理誌)』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충선왕(忠宣王)때의 국통(國統 : 국왕의 고문으로 불교정책의 책임을 맡아보던 승직(僧職))으로 천태종(天台宗)의 고승(高僧)인 정오(丁午 : 생몰년 미상)가 지은 정자 명칭이 ‘초은정’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정자는 정오가 정유년(丁酉年 : 1297) 봄에 지금의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에 지었다고 한다. 둘째, 권직장(權直長)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초은정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문(詩文)의 제3구에 보이는 “천사고적(天師古迹)”과 관련지어 보면, 『고려사(高麗史) · 지리지(地理誌)』의 기록에 약간의 신빙성이 보인다. 즉 고려 충선왕(忠宣王)때의 국통(國統 : 국왕의 고문으로 불교정책의 책임을 맡아보던 승직(僧職))으로 천태종(天台宗)의 고승인 정오(丁午 : 생몰년 미상)가 지은 정자 명칭에 ‘초은정’이 있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혹시 이를 조선의 권직장(權直長)이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 볼 수는 있다.

2) 만목조(萬木稠) : 수림(樹林)이 뻗뻗하게 우거지다.

3) ① 검(劔) : 검(劍) : 갈날 같다. 본 시에서는 깎아지른 듯한 모습을 형용한 말로 쓰였다.

② 암(巖) : 낭떠러지, 가파른 언덕

4) ① 천사(天師) : 고대에 도술(道術)을 지닌 자에 대한 존칭

****역지주석** : 본 시에서는 아마도 ‘초은정(招隱亭)’과 관련된 은자(隱者), 곧 ‘권직장’을 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시에서는 천사(天師)의 기본의미인 ‘도술을 지닌 자’가 아닌 은자(隱者)로 번역한다.

② 고적(古迹) : 옛 자취. 본 시에서는 초은정의 주인 권직장이 남긴 흔적들을 가리킨다.

③ 미춘초(迷春草) : 춘초(春草)가 우거져 은사(隱士)가 남긴 옛 자취를 찾을 수 없다.

a. 미(迷) : 길을 찾다

5) ① 야로(野老) : 시골에 사는 노인. 본 시에서는 ‘권직장(權直長)’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② 청유(淸遊) : 청유(淸游)로도 쓴다. 고상하게 놀다. 청아(淸雅)하게 놀며 관상(觀賞)하다.

③ 부(付) : 부탁하다. 본 시에서는 ‘의탁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④ 조주(釣舟) : ‘어선(漁船)’과 같은 말

6) ① **잠불(簪紒)**: 관에 꽂는 비녀와 인끈. 고대 관원의 복식(服飾: 의복장식)이다. 현귀(顯貴)한 관위(官位), 즉 고관(高官)에 비유하는 뜻으로 쓴다. 본 시에서는 관복을 대칭한 말로 쓰였다.

a. **잠(簪)**: 관에 꽂는 비녀

b. **불(紒)**: 인수(印綬: 인끈: 병권을 가진 무관이 발병부發兵符 주머니를 매어 차던 길고 넓직한 녹색 끈).

② **부삼휴(賦三休)**: 삼휴(三休)를 읊다.

a. **부(賦)**: (시를) 읊다

b. **삼휴(三休)**: 당나라 말엽의 문인이자 문신인 사공도(司空圖)가 만년에 족질(足疾)을 핑계로 은퇴를 요구한 뒤, 중조산(中條山) 왕관곡(王官谷: 지금의 산서성山西省 영제시永濟市 동남 45리 왕관곡)에 거주하면서, 정자를 하나 짓고 ‘삼휴(三休: 삼휴정三休亭의 약칭임)’라 명명(命名)하였다. 그리고 나서 글을 짓기를, “휴(休)‘자는 쉰다는 뜻이고, 아름답다는 뜻이니(休, 休也, 美也), 기왕 쉬기 시작했으면 그 휴식에 아름다움도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既休而具美存焉). 대체로, 그 재량을 가능해보건대 첫째로 마땅히 쉬어야 하며(蓋量其才一宜休), 그 분수를 헤아려 보건대, 둘째로 마땅히 쉬어야 하며(揣其分二宜休), 늙고 귀머졌으니 셋째로 마땅히 쉬어야 한다(모차외삼의휴耄且聵三宜休). 게다가 젊어서는 게을렀고(又少而惰), 장성해서는 경솔했으며(長而率), 늙어서는 진부해졌으니(老而迂), 이 세 가지는 세인(世人)을 구제할 재목이 아니므로(是三者不濟時之用), 역시 마땅히 쉬어야 한다(又宜休也).”라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구당서(舊唐書)·문원전하(文苑傳下)·사공도(司空圖)』를 참조 바람) 훗날 사람들은 이 ‘삼휴(三休)’란 말을 퇴은(退隱: 퇴직하여 은거함)의 전고(典故)로 삼았다.

***사공도(司空圖): 837~908**: 당나라 말기 하중(河中) 우향(虞鄉)사람이다. 자는 표성(表聖)이고, 자호는 지미자(知非子) 또는 내욕거사(耐辱居士)를 썼다. 의종(懿宗) 함통 10년(咸通十年: 869) 진사에 급제했다. 예부시랑(禮部侍郎) 왕웅(王凝)에게 인정을 받았고, 노휴(盧携)에게 높은 절가가 알려져 제관(諸官)을 거쳐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郎)이 되었다. 회종(僖宗)이 봉상현(鳳翔縣: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봉상현鳳翔縣)에 왔을 때 제조(制詔)를 맡겼고, 얼마 뒤 중서사인(中書舍人)에 임명했다. 소종(昭宗) 용기년(龍紀年: 889)초에 다시 사인(舍人)에 올랐지만 병으로 고사했다. 건녕년간(乾寧年間: 894~897)중에 호부시랑(戶部侍郎)에 임명되지만 며칠 뒤 사직했다. 조산(條山) 왕관곡(王官谷)에 은거하면서 글을 지어 뜻을 나타냈다. 주전충(朱全忠: 852~912: 후량後梁의 제1대 황제)이 당나라를 찬탈한 뒤 불렀지만 가지 않았고, 초평 2년(初平二年: 908)에 애제(哀帝)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죽었다. 시는 당나라 말기에 으뜸으로 꼽혔고, 특히 기품 있기로 알려져 있다. 저서에 『사공표성문집(司空表聖文集)』 10권과 시집 5권이 전해지고 있다.

7) ① **연래(年來)**: 일 년 이래 혹은 근년 이래, 근래에

② **쇠퇴심(衰頹甚)**: 쇠퇴해진 것이 심하다, 심하게 쇠퇴해졌다

8) ① **문사구전(問畝求田)**: 집을 매입하고(장만하고) 전지(田地)를 구입하다. 이 말은

주로 사람이 소리(小利)만 추구하고 원대한 포부가 없음을 형용한 말로 쓴다. 이 말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진등전(陳登傳)』에, “유비劉備가 〈허사許汜에게〉 말하기를(備曰) : ‘당신은 국사(國士 : 나라 안에서 뛰어난 인재)라는 명성이 있으나 (君有國士之名), 지금 천하는 크게 혼란스럽고(今天下大亂), 천자는 거처할 장소도 잃어버렸소(帝王失所). 〈이러한 때에〉 그대에게 집안일을 잊고 우국진충憂國盡忠하며, 세상을 구제할 큰 뜻을 품기 바랐소만(望君憂國忘家, 有救世之意), 그대는 주택매입과 전지田地 구입에 열중했을 뿐이오(而君求田問舍). 〈따라서〉 그대의 말에 채택할만 한 것이 없으니(言無可采), 이는 원룡(元龍 : 진등陳登의 자字)이 꺼리는 바이니(是元龍所諱也), 어찌 그대와 더불어 대화할 수 있겠소(緣當與君語)?’”라고 한 대목이 있다.

- ② 부자유(不自由) : 자유롭지 못하다, 편안치 않다, 제대로 할 수 없다



시94. 선몽대仙夢臺의 주인 정가靜可
이열도李閱道 공公에게 증여하다

- 정해년(丁亥年 : 1587년, 서애46세) 만춘晩春에 -

詩94. 贈仙夢臺主人李靜可閱道¹⁾ 丁亥暮春
증 선 몽 대 주 인 이 정 가 열 도 정 해 모 춘

關海經年別²⁾,
관 해 경 년 별

도성 밖에서 이별한지
여러 해 지났는데,

烟花幾日同³⁾。
연 화 기 일 동

봄날 좋은 경치 언제 다시 함께
감상할는지요.

相留應袞袞⁴⁾,
상 류 응 곤 곤

(떠나는 저를) 만류하는 말씀
거듭거듭 하셨으나,

惜別又惓惓⁵⁾。
석 별 우 종 종

이별을 아쉬워하면서도
총총 서둘렀지요.

桂樹攀難久⁶⁾,
계 수 반 난 구

계수나무에 올라가서는
오래 버티시기 어려웠으나,

仙臺夢易空⁷⁾。
선 대 몽 이 공

선몽대에서는 꿈을 꾼도
평안하고 그윽하겠지요.

何當⁸⁾一樽酒,
하 당 일 준 주

언제라야 (다시 함께)
술 한 잔 하게 될는지요,

暫醉水雲中⁹⁾.
잠 취 수 운 중

잠시 강물에 비친 조각구름에 취해봅니다.

- 1) 증선몽대주인 이정가열도贈仙夢臺主人李靜可閱道: 선몽대 주인 정가靜可 이열도 공에게 증여하다):

****역자주석:** 위의 시는 우암(遇巖) 이열도(李閱道: 1538~1591) 선생이 모아둔 권축(卷軸)을 선생의 16대 주사손(主祀孫)인 중화옹(重華翁)이 1975년에 인쇄한 『선몽대지(仙夢臺志) 건(乾)』에도 보인다. 그런데 『선몽대지(仙夢臺志)』에는 시제(詩題)가 역자가 텍스트로 쓰고 있는 『서애전서(西厓全書)』와는 달리 「선몽대 주인에게 삼가 올린다(奉呈仙夢臺主人)」라고 수록되어 있으나,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시문(詩文)은 한 자의 출입도 없이 완전히 동일하다. 또한 『선몽대지(仙夢臺志)』에는 작시(作詩)의 시기도 “정해모춘(丁亥暮春: 1587년 만춘)”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여기 본 시에 그대로 추가하여 옮긴다.

- ① 선몽대(仙夢臺): 경북 예천군(醴泉郡) 호명면(虎鳴面) 백송리(白松里) 내성천(乃城川) 남쪽 우암산(遇巖山) 기슭에 있는 정자(亭子)이다. 선몽대는 1563년 (명종 19)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종손자(從孫子: 형이나 아우의 손자)이자 문하생인 우암(遇巖) 이열도(李閱道: 1538~1591)가 창건하였다. 누대에 오르면 선경에 비길 만큼 경치가 아름답다. 동서로 흐르는 내성천의 모래밭이 한 눈에 들어오고, 누대 아래에는 가늘고 긴 냇물이 굽이쳐 흐르고 뒷산에는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산 중턱에는 약수터가 있다. 정자 주변에는 노송이 울창하다. 이열도의 유고(遺稿)와 유물(遺物)을 장서각에 보관하였으나, 1924년 화재로 소실되고 퇴계 이황의 친필 편액(扁額)과 약포(藥圃) 정탁(鄭琢: 1526~1605) ·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 ·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1561~1613) ·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 등의 시문(詩文)을 당시의 명인들이 기록한 제영록(題詠錄)과 심유록(尋遊錄)만이 보관되어 있다. 매년 정월 보름에 이곳에서 동제(洞祭)가 열리며, 2006년 명승 제19호로 지정되었다. 예천군 및 진성이씨(眞城李氏) 백송파(白松派) 종중(宗中)에서 관리하고 있다.

- ② 이정가열도(李靜可閱道): 정가(靜可) 이열도(李閱道): 성씨 다음에 자나 호 또는 관직을 쓰고 이름을 그 뒤에 쓰는 것은敬稱(敬稱)의 한 예이다.

a. 이정가(李靜可): 이열도(李閱道)의 자(字)이다.

b. 열도(閱道): 이름이다.

- ④ 이열도(李閱道: 1538~1591): 본관은 진성(眞城)이고, 출신지는 경북 예천(醴泉)이다. 자는 정가(靜可), 호는 우암(遇巖)이며, 황해도 웅진현(熊津縣: 지금의 웅진군)의 기린도(麒麟島: 당시 현縣의 남쪽 30리에 위치한 섬) 찰방(察訪: 각 도의 역참驛站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직外職으로 공문서 전달과 공

무수행으로 방문한 관리들의 편리를 도모하였음)을 역임한 이굉(李宏 : 1515~1573 : 퇴계 이황의 둘째 형인 이하(李河 : 1482~1544)의 둘째 아들로 퇴계의 종손(從孫)이며, 진성이씨 백송과 입향조임. 백송리 난산(卵山)에는 백송마를 진성이씨 입향조인 이굉과 그의 아들 우암 이열도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음)의 아들이다. 1576년(선조 9)에 과거에 급제하여 정자(正字 : 조선시대 교서관校書館·홍문관弘文館·승문원承文院의 정9품 관직)를 시작으로 벼슬길에 올라 박사(博士 : 조선시대 성균관·홍문관·승문원·교서관 등에 두었던 정7품 관직)·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 사헌부 소속의 종6품 관직)·예조정랑(禮曹正郎 : 조선시대 예조소속의 정5품 관직)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585년(선조 18)에 외직인 고령현감(高靈縣監)으로 부임하여 선정(善政)을 베풀었으며, 평안도사(平安都事 : 평안도 관찰사를 보좌하는 종5품 관직)로 승진하였다. 1587년(선조 20)에 다시 내직(內職)인 형조정랑(刑曹正郎 : 형조 소속의 정5품 관직)이 되었다. 이때 경상도 경산군(慶山郡)에 흉년이 들어 민심이 피폐해지자 고을을 다스릴 책임자로 대신들이 우암을 천거하였다. 우암은 군수로 부임한 후에 사비를 들여 굶주린 군민(郡民)을 구휼하고 향교를 설립하는 동시에 농업을 장려하였다. 또한 공정한 과세(課稅)를 부과하면서 1년 만에 경산군은 안정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사(監司)가 만나지는 연락이 와서 가보니 책의 표지를 찢달라는 것이었다. 글씨를 잘 써서 특별히 그런 주문을 했을 것이나, 우암의 생각은 달랐다. 사적(私的)인 일로 바쁜 공직자를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직위가 높은 감사라도 부당한 처사라며 그 길로 사직하고 더 이상 관직에 머물지 않았다고 한다. 귀향한 우암은 선몽대를 짓고 후학을 가르치며 자연을 벗 삼으며 생애를 마감했다. 선몽대(仙夢臺) 동주(洞主) 우암(遇巖) 이열도(李閱道) 선생이 1975년에 주사손(主祀孫) 중화옹(重華翁)이 상재(上梓)할 때 『선몽대지(仙夢臺志)』라 하였다.

서에 류성룡과 우암 이열도는 동문수학한 퇴계의 문인(門人)이자 또한 서에의 넷째 아들 초(初)가 우암의 사위인 관계로 사돈지간이기도 하다.

- 2) ① 관해(關海) : 도성(都城) 밖 벽지(僻地). 본 시에서는 선몽대에서의 이별을 떠올려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② 경년(經年) : 한 해 또는 여러 해의 시간이 경과하다. 경과한 시간이 매우 오래됐음을 표현한 말이다.
- ③ 별(別) : 헤어지다, 따로 떨어지다, 이별하다
- 3) ① 연화(煙花) : 연화(煙花)로도 쓰며, 일반적으로 화려한 봄 풍경을 가리킨다.
- ② 기일(幾日) : 어느 날, 며칠날. 본 시에서는 ‘언제 다시’로 번역한다.
- ③ 동(同) : 같이하다. 함께 하다, 화동하다
- 4) ① 상류(相留) : 만류(挽留)하다
- ② 응곤곤(應衰衰) : 남아 있는 자가 (만류하는 말로) 거듭거듭 하다(끊임없이 하다).
 - a. 응(應) : 받아들이다. 허락하다, 응답하다. 본 시에서는 ‘떠나려는 서예선생에게 좀 더 머무르라는 정가(靜可)공의 말[응답]’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곤곤(衰衰) :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양. 본 시에서는 ‘거듭거듭’으로 표현 한다.
- 5) ① 석별(惜別) : 이별을 아쉬워하다

- ② 우(又): 오히려
- ③ 충충(忠忠): 충충(忽忽)으로도 쓰며, 본 시에서는 ‘서두르는 모양, 분망한 모양’의 뜻으로 쓰였다.
- 6) ① 계수(桂樹): 계화수(桂花樹)라고도 칭한다. 이는 물푸레나무 과(科)에 속하는 상록엽관목(常綠葉灌木)이다. 학술명은 목서(木犀: *Osmanthus fragrans* Lour.)이다. 중국 사람들은 이 목서(木犀) 나무를 계화수(桂花樹) 또는 암계(岩桂)라고 불렀다. 목서(木犀)나무는 수많은 품종이 있으나, 땅 밑에서 많은 줄기가 올라와 수형(樹形)을 이루어서 원줄기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하여 이 나무는 올라간다고 해도 더위잡을 곳이 없어서 올라가기도 어렵거니와 올라간다고 해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 대체로 꽃은 금색과 흰색이 있어 금계(金桂: 금목서金木犀), 은계(銀桂: 은목서銀木犀)로 대표되며, 꽃은 9월에 개화하고 향기가 탁월하다.
- 또한 이 계화수는 달 속의 월계수(月桂樹)와 연계되는 신화(神話)에도 보인다. 즉 당(唐)의 문인(文人), 단성식(段成式)이 엮은 『유양잡조(酉陽雜俎) 권1·천지(天咫)』에서, “월계수 나무의 높이가 5백장(百丈)이나 되고(月桂高五百丈), 그 아래서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베어 넘기는데(下有一人上斫之), 나무가 상처를 입어도 곧 바로 합쳐졌다(樹創隨合). 그 사람은 오강(吳剛) (자(字)는 질(質)임)이라고 하며, 서하(西河) 출신이다(人姓吳名剛, 西河人). 선도(仙道)에만 전념하다가 과오를 범하여(學仙有過), (천제가 진노해서) 그를 월궁(月宮)으로 귀양 보내어 그곳에서 도끼로 계수나무 찍어내는 일을 명령하였다(謫令伐樹).”라는 내용이 보인다. 중국인들은 이 신화[오강신화吳剛神話]에 나오는 ‘월계(月桂)’를 또한 ‘계화수’라고 칭한다. 앞의 「시34」의 주석 3)의 ① ‘계화(桂花)’조항도 참조 바람.
- **역주주석:** 계수나무는 과거에 급제함을 비유한 것으로 쓰이나, 본 시에서는 이 열도 공의 관직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 ② 반난구(攀難久): 더위잡고 올라간대도 (나무 높아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 위의 주석 6)의 ① ‘계수(桂樹)’조항을 참조 바람. 본 시는 월계수(月桂樹)의 ‘신화의 의미’도 함축했다고 보아진다.
- a. 반(攀):
- 더위잡다(높은 곳에 오르려고 무엇을 끌어 잡다)
 - (무엇을 잡고) 기어오르다
 - (지위가 높은 사람과) 친척관계를 맺다
- b. 난구(難求): 오래 버티기 어렵다
- 7) ① 선대(仙臺): 이열도(李閱道)가 건축한 선몽대(仙夢臺)의 약칭으로 보인다.
- ② 몽(夢): 꿈을 꾸다, 잠자며 꾸는 꿈
- ③ 이(易): 평안하다
- ④ 공(空): 그윽하고 고요하다
- 8) 하당(何當): 어느 날, 어느 때
- 9) ① 잠취(暫醉): 잠시 취하다
- ② 수운(水雲): 물 위에 비친 조각구름
- ③ 중(中): 명사 뒤에 쓰며, 장소를 나타낸다.



시95. 원지정²⁾遠志亭의 연좌루¹⁾燕坐樓에서

詩95. 遠志亭燕坐樓¹⁾ 원지정 연좌루

遙憐植杖翁²⁾,
요련식장옹

오랜 세월 그리워했던 지팡이 짚은
그 은사隱士는,

鶴髮雙眼碧³⁾。
학발쌍안벽

학의 깃털 같은 백발에
눈동자는 벽안碧眼이었다네.

永嘯⁴⁾月明中,
영소월명중

명월明月 아래서 길게 휘파람을 부는데,

秋風桂花白⁵⁾。
추풍계화백

추풍이 불어와 계수나무 꽃이
하얗게 날리네.

1) ① 원지정(遠志亭) : 하회(河回) 마을 안에 위치한 원지정사(遠志精舍)를 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49」의 주석 1)의 ② ‘원지정사(遠志精舍)’조항을 참조 바람.

② 연좌루(燕坐樓) : 연좌루는 기둥이 층의 받침이 되어 청(廳 : 마루)이 높이가 된 다락으로 누정(樓亭)이라고도 칭한다. 이는 원지정사(遠志精舍)와 한 담 안에 있으며, 중요민속자료 85호이다.

a. 연좌(燕坐) : 앉아서 명상하는 것. 연좌(宴坐)와 같다. ‘연(宴)’은 안락의 뜻이다. 심신을 적정(寂靜)하게 하여 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근본의 정선(淨禪)에 안주하여, 밖의 추악함이나 더러움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 본 시제(詩題)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b. 루(樓) : 기둥이 층의 받침이 되어 청(廳 : 마루)이 높이가 된 다락집을 말한다.

누정이라고도 칭한다. 누의 기능은 휴식하거나 연회(宴會)나 시회(詩會)를 하고 문루나 망루, 포루(砲樓)처럼 감시하거나 조망하는 군사시설의 기능도 했다. 지주는 개인적인 기능의 건물이라면 누는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행유하는 공공 기능의 건물이다. 본 시에서는 마을 안에 건립한 까닭으로 개인 누정(樓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안동대 이종호 교수의 「낙동강 상류의 누정풍류」를 참조 바람)

- 2) ① 요련(遙憐): 오랜 세월이 지난 그 먼 옛날의 식장옹(植杖翁)을 그리워하다(회상하다).
 - a. 요(遙): 시간이 (세월이) 오래 지났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 b. 려(憐): 그리워하다
- ② 식장옹(植杖翁): 지팡이 짚고 다니던 노인. 본 시에서는 ‘은자(隱者)’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a. 식장(植丈): 직역하면, ‘지팡이를 땅에 꽂다’는 뜻인데,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다’는 말로 쓴다. 『논어(論語)·제18 미자편(微子篇)』에, “자로子路가 공자를 수행하던 중에 뒤처져서 걷다가(子路從而後), 마침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遇丈人), 〈그 노인은〉 지팡이에 삼태기를 걸어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以杖荷蓑). 자로가 묻기를(子路問曰): ‘노인장, 〈저의〉 선생님을 보셨습니까(子見夫子乎)?’라고 하니, 그 노인이 말하기를(丈人曰): ‘사지四肢를 부지런히 움직여 일하지 않고(四體不動), 오곡도 구분하지 못하는 처지에(五穀不分), 누구를 보고 선생님이라 하시오(孰爲夫子)?’라고 하면서, 〈그 노인은〉 지팡이를 땅에 꽂아놓고 김을 매었다(植其杖而芸).”고 하는 대목이 있다. 후에 이 문장에 나오는 ‘식장(植丈)’이란 말을 ‘지팡이를 짚다’는 뜻의 전고(典故)로 삼았다.
 - b. 옹(翁): 노인장, 노인
- 3) ① 학발(鶴髮): 학의 깃처럼 하얀 머리털. 본 시에서는 은자의 머리를 표현한 시어(詩語)이다.
 - ② 쌍안벽(雙眼碧): 두 눈동자가 벽안(碧眼)이다.
 - a. 벽(碧): (눈동자가) 파랗다
- 4) 영소(永嘯): 장소(長嘯): 휘파람을 길게 불다.
- 5) 계화백(桂花白): 계수나무 꽃이 하얗게 날리다.
 - ① 계화(桂花): 계수나무의 꽃. 이 꽃의 향기는 ‘만리(萬里)’까지 퍼진다 하여 ‘만리향’이라고도 칭한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34」의 주석 3)의 ① ‘계화(桂花)’조향과 「시94」의 주석 6)의 ① ‘계수(桂樹)’조향을 참조 바람.
 - ② 백(白): 우리나라에는 중국산의 계화수(桂花樹)가 있으며 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금목서(金木犀)이고 다른 하나는 은목서(銀木犀)이다. 전자는 흰색에 가까운 노란색 꽃을 피우고, 후자는 흰 꽃이다. 달밤에 비추이는 것을 묘사한 것이니 모두 흰색으로 보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었다.



시96.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공과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 공이 지은 시의 운을
차운하여 두 분께 드리다

詩96. 次鶴峰松巖韻贈上人¹⁾
차 학 봉 송 암 운 증 상 인

柳綠花如雪,
유 록 화 여 설

버들가지 녹색綠葉 푸르고
백설 같은 꽃 피는데,

春江靜不流。
춘 강 정 불 류

봄날 강물은 잠잠해져
흐르지 않는 듯 하네요.

高樓凭遠望,
고 루 병 원 망

높직한 누각에 기대어
먼 곳까지 바라보는데,

何處是神州²⁾。
하 처 시 신 주

어느 곳이 신선 머무는 곳일까요?

節序空驚換³⁾,
절 서 공 경 환

절후가 바뀌는 것에 공연히 놀라다보니,

江湖漫抱憂⁴⁾。
강 호 만 포 우

강호에 살면서도
온통 근심 품고 살았네요.

逢僧題一語⁵⁾,
봉 승 제 일 어

어떤 승려 만나 시 한 수
지어주고 나니,

- 1) ① 차운(次韻): 차운은 바로 시를 지어 화답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보운(步韻)이라고도 칭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11」, 주석 1)의 ① ‘차운(次韻)’조항을 참조 바람.
- ②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김성일(金誠一: 1538~1593): 조선 선조 때의 문신으로 자는 사순(士純), 호는 학봉이다. 본관은 의성이며,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의 제자이다. 나이 27세 때 사마시(司馬試)에 들었고, 1568년(선조 1)에 문과에 급제, 사국(史局)에 들어갔고 호당(湖堂)을 거쳐, 부제학을 역임하였으며, 1591년(선조 24)에 통신부사(通信副使)가 되어 정사(正使) 황윤길(黃允吉: 1536~?)과 함께 일본에 다녀왔다. 윤길은 반드시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성일은 그와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상도우병사(右兵使)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대노하여 처벌을 명하였으나 좌의정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변호로 용서되어 초유사(招諭使)로 중국, 죽산(竹山)·함양(咸陽) 등지에서 격문(檄文)을 돌려 김면(金沔: 1541~1593)·정인홍(鄭仁弘: 1535~1623)·곽재우(郭再祐: 1552~1617) 등의 도움을 받아 의병을 일으켜 진주성을 사수하다가 순직하였다. 안동사람들은 그가 있던 임하현(臨河縣)에 사당을 세우고 모셨으나 뒤에 퇴계묘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문집으로 『학봉집(鶴峯集)』이 있다.
- ③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의 호(號):
 ☆권호문(權好文: 1532~1587): 조선 중기의 문인, 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이름은 호문(好文), 자는 장중(章仲), 호는 송암(松巖). 안주교수(安州敎授) 권륙(權陸)의 아들이다. 앞의 「시21」의 주석 1)의 ② ‘권호문(權好文)’조항을 참조 바람.
- ④ 상인(上人): 도덕적으로 고상한 사람
- 2) 신주(神州): ‘신주(神洲)’라고도 쓰며, ‘고대 전설상의 신선이 활동하던 곳’을 가리킨다.
- 3) ① 절서(節序): 계절의 차례, 절기(節氣)
 ② 공경환(空驚換): 공연히 놀랍게 바뀌다. 바뀌는 것에 공연히 놀라다.
- 4) ① 강호(江湖): 은사(隱士)의 거처. 은자(隱者)나 시인·묵객이 현실을 도피하여 살던 시골이나 자연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② 만포우(漫抱憂): 가슴 가득 근심을 품고 있다.
- 5) ① 봉승(逢僧): (어떤) 승려를 만나다
 ② 제일어(題一語): ‘한 마디 쓰다’는 뜻인데, ‘시 한 수 지어주다’는 것은 겸사(謙辭)의 의미로 표현한 말이다.

**역주주석: 안동대학교 퇴계학 연구소 권영락 선생이 번역한 서에 류성룡의 시(詩)인 「승려 학봉의 시축(詩軸)에 차운하여 쓰다(次題學明僧軸) - 경혜(丁亥)」(하회본 『서예전서(西厓全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를 보면, 본 시제(詩題)

에 작시(作詩) 년대가 '정해(丁亥)'로 명기되어 있고, 본 시의 결구(結句)에, “작별을 위로하며 봄 시름 흩어버리세(慰別散春愁).”라고 되어있어, 위의 본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당시 서애는 그해 3월에 소환을 받고 입궐하던 도중에 다시 사양하고 돌아왔는데, 위의 인용시나 「사96」의 본 시를 연관시켜 이해해보면, 동일시기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본 시에서 첨부한 학봉과 송암의 원시(原詩)의 내용을 보아도 모두 동일시기 곧 정해년에 작시된 것으로 사료(史料)된다.

여기서 정해년(丁亥年)이란, 공원(公元) 1587년으로, 선조 집권 20년차이며 서애 46세 때이다. 「서애연보」의 정해년 조항을 보면, “이 해 3월에 입궐하라는 소환을 받고 가다가 도중에서 돌아오다. 또다시 수차 소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서애가 환조(還朝)를 원하지 않은 이유는 앞의 「시63」의 주석 1)의 ③ ‘을유(乙酉)’조항과 「서애연보」의 을유년(乙酉年 : 1585 : 선조 18년, 서애 44세) 조항을 참조 바람.

- 6) ① 요취(聊取) : 그냥 ...하다
 a. 료(聊) : 애오라지(부족하나마 그대로), 그런대로
 b. 취(取) : 어기조사
 ② 사한수(寫閒愁) : 까닭 없이 밀려드는 수심이 없어지다.
 a. 사(寫) : 없애다, 사라지다
 b. 한수(閒愁) : 까닭 없이 밀려드는 수심, 까닭모를 수심

附鶴峯韻

부 학 봉 윤

학봉의 원시(原詩)韻을 첨부함

斷玉安精舍,	덕 닦고 현재賢才 양성하니 정사精舍 안정되고,
平臨洛水流.	평지로 내려오면 낙동강이 흐르지.
天開明月峽,	하늘은 열렸고 밝은 달빛 산골짜기에 비치니,
地勝永嘉州.	지상의 명승지는 이곳 영가주永嘉州일세.
暫領湖山趣,	잠시 산천의 흥취 음미하다가도,
還兼進退憂.	여전히 거취去就 문제로 근심하게 되네그러.
功成應有日,	공을 세우는 것도 마땅히 시기가 있는 것이니,
猿鶴莫深愁.	은사隱士끼선 깊은 시름일랑 하지 마시게나.

附松巖韻

부송암韻

송암松巖의 원시운原詩韻을 첨부함

河曲儒仙境,
하곡유선경

縈廻碧玉流.
영회벽옥류

雲泉擅東國,
운천천동국

風物領南州.
풍물영남주

慣得三春樂,
관득삼춘락

頗懷一世憂.
과회일세우

時行時止好,
시행시지호

春別散漫愁.
춘별산만수

하회마을은 유선儒仙이 사는 곳이어선지,

벽옥 같은 푸른 강물이 감돌며 흐르네 그러.

흰 구름 맑은 샘물의 경치는 조선에서 제일이고,

미풍양속美風良俗은 영남에서도 으뜸일세.

가만히 놔둬도 얻어지는 봄맞이의 낙樂이 있는데,

한 세월의 근심을 가슴 가득 품고 있네그러.

때에 맞춰 행하고 때에 따라 멈추는 게 좋으니,

(이번) 봄 보내면서 잡다한 근심일랑 푸시게나.



시97. 눈앞의 사물을 읊다

- 두 수 -

詩97. 卽事¹⁾二首
즉 사 이 수

其一
기 일

[1]

萬事紛然²⁾又一年,
만 사 분 연 우 일 년

만사가 열기설기 얹히면서
또 한 해 가는데,

秋來霜鬢更蕭然³⁾。
추 래 상 빈 경 소 연

가을 되자 하얀 살쩍은
더 푸시시 해지네.

茅簷清晝⁴⁾坐終日,
모 첨 청 주 좌 종 일

맑은 날 초가집 처마 밑에
종일토록 앉아서,

靜裏幽懷祇自憐⁵⁾。
정 리 유 회 지 자 려

고요 속에 생각하니
내 자신이 가련할 뿐일세.

其二
기 이

[2]

老來容易得新年⁶⁾,
노 래 용 이 득 신 년

늙으면 빨라지는 신년 맞게 된다더니,

古語沈吟覺信然⁷⁾.
고 어 침 음 각 신 연

옛 격언을 숙고컨대 확실하다 느껴지네.

病起偶尋江上路⁸⁾,
병 기 우 심 강 상 로

병이 나서

이따금 강변길을 나와 보면,

白沙青草更堪憐⁹⁾.
백 사 청 초 갱 감 련

백사白沙며 청초는 가련한 걸
더 잘 전디네.

-
- 1) 즉사(卽事): 눈앞의 사물을 읊다.
2) 분연(紛然): 뒤섞여 어지러운 모양, 어지러운 모양, 뒤섞인 모양, ‘얼기설기 얹혀다’로 표현하다.
3) ① 상빈(霜鬢): ‘상빈(霜鬢)’으로도 쓰며, ‘백색 빈발(鬢髮), 하얗게 센 살쩍(서리같은 흰 귀밑머리)’의 뜻이다.
② 갱(更): 더욱, 한층 더
③ 소연(蕭然): 적막하다, 조용하다, 스산하다, 쓸쓸하다, 생기가 없다. 본 시에서는 ‘푸시시하다’로 번역한다.
4) ① 모침(茅簷): 초가지붕의 처마 밑
② 청주(淸晝): 대낮, 맑게 갠 낮
5) ① 유희(幽懷): 내심에 품은 정감(情感), 가슴속 깊이 품은 생각, 남모르는 깊은 생각
② 지(祇): 단지
③ 자련(自憐): ‘자련(自怜)’으로도 쓴다, 스스로 슬픔에 젖다, 스스로 가여이 여겨지다, 자신이 가련하다
6) ① 노래(老來): 노년이 된 후에
② 용이(容易): 모종의 사물의 변화 발전의 정도가 빨라지다.
③ 득신년(得新年): 새해를 맞다
7) ① 고어(古語): 고대로부터 전해내려 오던 격언경구(格言警句)
② 침음(沈吟): 침음(沉吟)으로도 쓰며,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③ 각(覺): 느끼다, 깨닫다, ...라고 여기다(생각하다)
④ 신연(信然):
☆이와 같이(이 말처럼) 확실하다
☆과연, 진실로
8) ① 병기(病起): 병이 났다
a. 기(起): 치유(治愈)되다, (병이) 났다
② 우심(偶尋): 동반 따라 (길을) 나서다.
a. 우(偶): 이따금, 때때로
b. 심(尋): 찾아 나서다, 길을 나서다
9) ① 백사(白沙): 흰모래, 백사(白沙)
② 청초(靑草): 푸른 풀
③ 갱감련(更堪憐): 가련함을 더욱 잘 견디다.



시98. 지한대사智閑大師를 송별하면서

詩98. 送閑上人¹⁾
송한상인

穿尋蘿逕度重岡²⁾,
천심라경도중강

(한상인閑上人是) 여라女蘿 덩굴진
오솔길 지나 겹겹의 산등 넘어서,

壺裏乾坤自一鄉³⁾.
호리건곤자일향

병 속에 비친 선경 같은
천지가 자신의 고향이라네.

月白却疑槎犯斗⁴⁾,
월백각의사범두

달 밝으면 뗏목타고
은하수에 오르는데 미혹되다가,

日長還恐海生桑⁵⁾.
일장환공해생상

햇빛 짹짹 비치면 바다에
썩나무 자랄까 두려워한다네.

垂眉坐定雲侵榻⁶⁾,
수미좌정운침탁

눈 감고 좌정坐定하면
결상 밑에 구름이 깔리고,

剗木分泉冷透床⁷⁾.
고목분천냉투상

샘물 담은 목통木桶 옆에 두면
침상에 냉기 스며든다네.

不語剩知閒有味⁸⁾,
불어잉지한유미

말 안 해도 흠뻑 느껴지는
한적한 정취 있기에,

短筇隨處管行裝⁹⁾。 단장 짚고 갈 수 있는 곳이면
단 풍 수 처 관 행 장 어디든 행장 꾸린다네.

1) 송한상인(送閑上人: 한상인을 송별하면서)

****역주주석:** 역자의 텍스트인 『서애전서(西厓全書) 권2 · 속집편(續集篇) · 시부(詩部)』에는 본 시의 시서(詩序)가 실려 있지 않다. 그래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 본 시의 주석에 시서(詩序)를 첨부한다. 이 서문은 『서애전서(西厓全書) 권2 · 속집편(續集篇) · 습유(拾遺) · 서(序)』의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 이의 전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지한대사智閑大師를 송별하는 시의 서문(送閑上人詩序)」

대사의 이름은 ‘지한智閑’인데, 자字도 남겨놓지 않았지만, 그의 불도佛道를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되어 온 이름이다. 비록 저속한 면을 다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일찍이 〈불문佛門의〉 문호門戶를 섭렵함으로써 그 자신의 도道를 지킨 사람이었다. 눈썹이 희끗희끗한 노인으로 벽안碧眼인데다가, 평온하고 고요한 자세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절대적 존재의 태도를 지녔으니, 그 이름자만 봐도 심정적으로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師名智閑, 不滯其字也, 信於其道爲羣輩所推與*之語. 雖不盡解粗, 嘗涉獵於門戶以衛其道者也. 眉厖*而眼碧, 靜暇*而無爲*, 觀其名則心以識其人也).

*추여(推與): 칭송하다

*미방(眉厖): 눈썹이 희끗희끗하다. 이 때의 ‘방(厖)’은 ‘방(彪)’과 통하는 자의 뜻으로 쓰였으며, ‘잡색(雜色)’의 뜻이다. ‘눈썹의 잡색’이니, ‘희끗희끗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정가(靜暇): ‘영정한가(寧靜閑暇)’의 뜻으로, ‘평온하고 고요하며 한가하다’는 말이다.

*무위(無爲): 본 서문에서는 ‘불교용어’의 뜻으로 쓰였으며, ‘인연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닌 것’을 가리키며, 사물이 변천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온갖 법의 유위(有爲: 인인과 연緣의 화합에 의한 것임서)임을 표시하는 ‘사상(四相: 색<色>: 형태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 변화하는 것)과 심<心>: 마음, 정신)의 스스로 온갖 변화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생<生>: 생성되는 것, 주<住>: 생성된 현상에 잠시 머무는 것, 이<異>: 생성된 현상이 변화하는 것, 멸<滅>: 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곳)을 사상四相이라고 함)’의 변천이 없이 생성되는 것을 가리켜 ‘무위라고 한다.

놀랍게도 〈한상인閑上人: 지한대사智閑大師의〉 ‘한<閑>: 안정安靜됨: 평온하고 한가로움’ 지는 그 ‘지혜[智]’를 외물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됨을 양성하며, 좋아하고 싫어함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인즉, 대사大師는 〈이름자의 뜻처럼〉 그 수준에 근접했다. 대사의 위인 됨을 알지 못했으면 그의 지해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니, 그가 안정됨을 주재主宰하지 못했다면 〈안정됨〉 그 지혜를 위해서라도, 〈그는〉 오직 수련했을 뿐이었으리라. 그 안정됨을 얻고서도 지혜를 근본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는 〈진정환〉 안정됨을 위해서라도 〈지혜를 근본으로 삼지 못한 그런 지혜는〉 일소했을 것이다. 무릇 지혜로

써 그 도도를 규명하고, 안정됨을 양성할 수 있는 연후에,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어 사악한 경지에 진입하지 않고 그 기쁨에 편안해져서, 외부의 이간離間에 미혹되지 않는다면, 대사大師의 이름자의 뜻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혜로워지고 난 후에 그 안정됨을 얻어야, 순서가 있다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에 직면하여 그의 의지를 안정되게 하고 그의 지혜를 보존하면서, 진실한 심성으로 행동을 취해야, 평온하게 그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조용하고 침착한 상태로 침묵하고 있을 때, 그 평온함이 심중에 부처가 보이고 불법을 들을 수 있는 연후라야, 비로소 화상和尚[지한대사]에게 말을 건낼 수 있을 따름이었다. 대사가 힘써 일까? 청풍이 솔솔 불어오고, 월광이 밝게 비치며, 산중 운무雲霧의 기氣가 한적하고, 온갖 소리가 정적에 잠겨있는데, 대사의 지혜는 그 가운데서 얻었을까? 운무가 송림松林에 머물고, 여녀女蘿 덩굴이 무성하여 소로小路가 어두컴컴한데, 은은한 범종梵鐘소리가 사찰의 담벼락을 넘어 들려온다.

(噫閑其智，不役於外物，養其閑，不着於好惡，則師其庶幾乎。不知師，不能記其智，而不主於閑則其爲智也，役焉而已。得其閑，而不本於知，則其爲閑也，蕩焉而已。夫以智而明其道，而能養之閑然後，知所向而不入於邪境 安所樂，而不迷於外構，師之名可謂盡矣。先其智而後其閑，可謂有序矣。見其事，而閑其志守其智，而確之性，其動也，閑其靜也。閑閑*之於默之際，閑之於見聞*之地*然後，始可與言浮屠氏*而已也。師勉乎哉? 清風徐來，明月流光*，山氣*暇，萬籟*寂，師之智其有得乎? 雲烟*鎖谷*蘿逕*微暝*，鍾聲越梵○○*).

*한한(閑閑): 도가용어로서 ‘조용하고 침착한 모양’의 뜻이다. 본 서문에서는 ‘안정(安靜)되다’로 번역한다.

*견문(見聞): 불교용어로서 눈으로 부처님을 보고 귀로 불법(佛法)을 듣는 것을 말한다.

*지(地): 마음(생각)이 활동하는 영역

*부도씨(浮屠氏): 부도자(浮屠子): ‘화상(和尚)’이다. 여기서의 부도(浮屠)는 부도(浮圖), 부타(浮陀) 등으로도 쓰는데, ‘붓다(Buddha: 불타佛陀: 불교의 교조 석가모니)’의 음역(音譯)이며, ‘각자(覺者: 모든 불법佛法의 진리를 깨달은 자)’라 번역된다. ‘불(佛)’이라 약칭한다.

*유광(流光): 물이 흘러가듯 비치는 월광(月光)

*산기(山氣): 산중 운무의 기운

*만뢰(萬籟): 온갖 소리

*운연(雲烟): 운무(雲霧), 연무(烟霧), 송림(松林)에 비유한 말로도 쓴다.

*쇄곡(鎖谷): 산계곡에 머물다

*나경(蘿逕): 여녀(女蘿) 덩굴이 무성한 오솔길(소로小路)

*미명(微冥): 혼암(昏暗)과 같은 말로서, ‘어둡다’는 뜻이다.

*범○○(梵○○): 본 서문에서 결자(缺字)로 된 두 자는 ‘왕택(王宅)’이라고 추정된다. ‘범왕택(梵王宅)’은 ‘불사(佛寺: 사찰) · 승사(僧舍: 사찰, 절)’를 가리킨다. 역자는 이 뜻으로 번역한다.

그렇다면 대사의 의지는 안정安靜됨에만 있었을까? 그의 마음이 안정되었지만, 안정되어진 까닭을 모르는 안정됨이라면, 진세塵世의 안정됨이다. 그런 단순한 안정됨만 알고, 그 안정됨 가운데서 스스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것을 안 지혜는〉 세속적인 지

헤이기에, 대사는 〈다시〉 애썼으리라. 나는 대사를 평소에 알고 지내지 못했지만, 만나자마자 오랜 옛 벗처럼, 꿈에서 그 신령神靈을 영접하여 교제하는 순간에, 〈그 대사의 신령은〉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여 인위적으로 추구하는 게 없었고, 마음이 안정되어 절박한 게 없었으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그 명성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관점을 좇아서 그의 이름을 기술記述했지만, 감히 이보잘 것 없는 글로서, 그 이름자만 서술할 수 없는지라, 다시 시를 지어서 훗날의 〈대사大師의〉 본래면목으로 삼고자 한다.

(師之志其有閑乎? 閑其意, 而不知其所以爲閑則凡閑*也. 知其閑, 而不能自得*於其中, 則凡智也, 師勉乎哉. 余於師素未相識, 一見如舊*, 接神交*於俄頃之間*, 淡而無營), 閑而不迫*, 可謂*人也? 不負其名者也. 求其說而以序其名, 不敢以拙辭既爲之序, 又爲詩以爲他日之面目*云).

*범한(凡閑): 진세(塵世)의 평온함. 이는 불도(佛道)는 깨닫지 못하고, 주변 경관에만 도취되어 얻는 평온함을 이른 것이다.

*自得(自得): 스스로 만족하다

*일견여구(一見如舊): 만나자마자 오래 사귄 벗과 같다. 첫 만남에서 의기투합하다.

*신교(神交): 몽혼(夢魂)이 서로 교회(交會)하다. 신령을 통하여 서로 사귀다.

*이경지간(俄頃之間): 삼시간에, 일순간에, 순식간에

*담이무영(淡而無營):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여 인위적으로 경영할 게 없다.

*한이불박(閑而不迫): 마음이 평온하여 절박한 것이 없다.

*가위(可謂): 하위(何爲): 어떤 ...인가? 무슨 뜻인가? 이때의 '가(可)'는 '하(何)'와 통하며 '위(謂)'는 '위(爲)'와 통하는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 뒤에 '야(也)'가 뒤따른다.

*면목(面目): 이는 선가(禪家)의 6조(六祖) 혜능(慧能)이 처음 한 말로 끝 사람의 '참모습인 본래면목(眞面目)'을 일컫는 말이다. 흔히 체면이라는 개념으로 쓰이나, 선가에서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본성, 즉 참모습[본래면목]을 뜻한다.

① 송(送): 송별하다

**역주주석: 역자가 '송별하다'라고 번역했으나, 본 시에서는 대면한 사람을 송별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古典)을 읽은 서애가 꿈속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신유(神遊: 신체를 통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경지를 유람하는 것과 같이 느끼는 것)하면서, '송별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② 한상인(閑上人): 지한대사(智閑大師)

a. 한(閑): 중국 오대시대(五代時代)의 고승 '지한(智閑)'을 약칭하여 쓴 것이다.

○지한(智閑: ?~914): 오대(五代: 당말唐末 송초宋初 사이(907~960)에 흥망한 후량後梁·후당後唐·후진後晉·후한後漢·후주後周) 시대의 고승(高僧)으로서, 속성(俗姓)은 유(劉)씨이고, 호는 향엄(香嚴)이며, 후량(後梁)의 청주(青州: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익도현益都縣) 사람이다. 그는 체격이 컸고, 나이가 어렸음에도 건문이 넓은 데다 아는 것이 많았으며, 지혜가 출중했다. 이렇게 재능이 있는 동시에 책략까지 두루 갖춘 사람이라 향리의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그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앞으로 학습에 열중하면 훗날 반드시 군주를 보

좌할 훌륭한 인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그에 대한 세간의 명성이 높아감에도 성년이 되면서 그는 입신양명(立身揚名)에 대한 흥취를 느끼지 못하고 돌연 출가하였다.

그는 당나라 승려 백장(百丈 : 백장선사 : 회해懷海 : 백장회해百丈懷海: 720~814년: 선문禪文 규식規式인 『백장청규百丈清規』를 지은 고승임)의 문하에서 수행하였으나 깨달음을 얻기도 전에 백장선사는 입적했다. 그래서 지한은 위산사(滬山寺: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동고현銅鼓縣 위산滬山에 있는 절)에 들어가, 선사(禪師) 영우(靈祐: 위산영우滬山靈祐: 위산滬山: 771~853: 위양종滬仰宗의 초조初祖)를 찾아가서 그의 불법(佛法)을 이어받았다. 그때 스승인 위산은 지한이 법기(法器: 불법을 받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의 지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문기를, ‘자신은 물론 양친조차 태어나기 이전의 진면목(父母未生前本來面目)’ 곧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던 때의 자신의 본성’이자 ‘절대무차별의 자기’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다. 지한은 여러 가지로 대답했으나 스승인 위산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스승께 그 답을 가르쳐 달라고 했으나,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견해일 뿐이니 그대의 건견見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하며 거절했다.

지한은 이 화두(話頭: 선적禪의인 문제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기 위한 사제 간의 문답)를 풀기 위해 갖가지로 노력했지만 풀지 못하였다. 지한은 울면서 ‘금생에 깨닫지 못하면 밝이나 축내는 사람 밖에 되지 못한다.’ 하면서, 위산에게 하직하고 수행의 정진을 다짐하면서, 무당산(武當山: 지금의 호북성湖北省 단강구시丹江口市 서남부에 위치함)에 들어가, 남양(南陽) 혜충국사(慧忠國師: ?~775)가 살던 옛집 터에 향엄사(香嚴寺)라는 암자를 짓고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산중에서 풀을 베다가 던진 기왓장이 대나무를 맞추는 소리를 듣는 순간 홀연히 깨달았다.’ 이것이 이른바 ‘향엄격죽(香嚴擊竹)’으로 이를 약칭하여 ‘격죽(擊竹)’이라고 하는 화두이다. 지한은 스승 위산영우(滬山靈祐)를 향해 감사의 큰 절을 올리고, 한 수의 계송(偈頌: 불교의 가르침을 읊은 시)을 아래와 같이 읊었다.

‘탁’ 한 번 부딪친 소리에 (여태껏) 알아야 할 것이라

인식했던 걸 다 지왔나니,

이것은 수행해서 얻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닐세.

얼굴 활짝 펴고 불조佛祖가 행한 대도大道를 찬양하니,

근심 걱정하는 중생의 마음에 빠져들지 아니하네.

가는 곳 마다 악업의 행위는 쌓지 않으면서,

맑은 음성과 안색만 지닌 채 규범조차 잊고 수행하네.

각지의 득도한 선승禪僧들이,

모두 다 (이 소승小僧을) 최상등급자라 말하네.

一擊忘所知

而不假修知

動容揚古路

不墮悄然機

處處無踪跡

聲色忘威儀

諸方達道者

咸言上上機

*망(忘): 기억에서 지워버리다

*소지(所知): 불교용어로서, ‘알아야 할 것알아야할 대상’을 가리킨다.

*이(而) : 대명사로서, ‘이것, 그것’의 뜻으로 쓰였다.

*가(假) : 의지하다, …을 기반으로 하다.

*동용(動容) : 불교용어로서, 얼굴을 활짝 펴는 것, 편안대소하는 것을 가리킨다.

*양(揚) : 찬양하다, 칭송하다, 선전하다, 널리 알리다. 본 계송에서 ‘양(揚)’의 의미를 ‘날다’를 본의(本意)로 하여, ‘이리저리 넘나들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본 뜻구는 “얼굴 활짝 펴고 지나온 옛길을 넘나들어도, 근심 걱정하는 중생의 마음에 빠져 들지 아니하네(動容揚古路, 不墮惛然機).”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고로(古路) : 불교용어로서 ‘불조(佛祖)가 걸어난 길, ‘불조가 행한 대도(大道)’를 말한다. 본 계송에서는 지한대사(智閑大師)가 깨닫기 전에 걸어왔던 ‘과거의 길’을 칭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불타(不墮) : 빠져들지 않다

*초연(惛然) : 근심 · 걱정하는 모양

*기(機) :

○ 불타의 교법을 받아 그 교화를 입을 수 있는 주체, 곧 중생(衆生)을 말한다.

○ 기연(機緣), 인연, 중생, 마음의 움직임, 마음, 심의

*처처(處處) :

○ 본 계송에서는 지한대사가 운수납자(雲水衲子) : 구름과 물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즉 구름과 물처럼 산다고 하여 칭한 말임)로 만행(萬行)하던 곳곳을 칭한다.

○ 안거(安居) : 집안에서 편안하게 지냄)하다

*증적(踪跡) : 왕래하다, 교왕(交往)하다. 본 계송에서는 중생과 왕래하면서 남긴 악업(惡業)의 행위나 행동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성색(聲色) : ‘맑은 음성과 안색’을 가리킨다.

*위의(威儀) : 수행자가 생활하며 갖추어야 할 네 가지의 몸가짐인 ‘행(行 : 가는 것) · 주(住 : 머무르는 것) · 좌(坐 : 앉는 것) · 와(臥 : 눕는 것)’를 ‘사위의(四威儀)’라고 한다. ‘위의’는 일반적으로 ‘행동거지의 각종 규범’을 가리키는 뜻으로 쓴다.

*제방(諸方) : 각지(各地)

*달도자(達道者) : 득도(得道)한 사람, 여기서는 선승(禪僧)을 칭한다.

*함언(咸言) : 모두 다 …라고 할 수 있다, 모두 다 …라고 말씀하시다

*상상기(上上機) : 가장 훌륭한 소질을 가진 자. 최상등급의 인물, 곧 지한대사 자신을 칭한 말이다.

④ 상(上) : 최상등(最上等), 최상의

⑤ 상기(上機) : 불교용어로서, ‘상근(上根 : 훌륭한 소질을 가진 사람 혹은 뛰어난 자)’과 같은 말이다.

당시 사람들은 이 지한선사(智閑禪師)를 ‘향엄화상(香嚴和尚)’이라고 불렀다. 지한선사는 또한 조동종(曹洞宗)의 개조(開祖)인 양개(良价 : 동산양개洞山良价 : 807~869) 선사를 찾아가 참구(參扣 : 스승을 찾아가 문을 두드림)하여 불법을 전수받기도 했다. 지한선사는 후량(後梁)의 태조 건화 4년(乾化四年 : 914) 4월 96세로 입적(入寂)하였다. 시호(諡號)는 ‘습등대사(襲燈大師)’이다.

b. 상인(上人) : ‘학덕(學德)이 뛰어난 고승(高僧)’이란 뜻인데, 본 시에서는 ‘승려에 대한 존칭’으로 쓰였다. ‘화상(和尚)’ 또는 ‘대사(大師)’로 번역할 수 있다.

- 2) ① 천(穿): …를 뚫고 지나가다, 통과하다
- ② 심(尋): 길이의 단위로, 1심(尋)은 8척에 해당한다. 본 시에서는 소나무에 기생하는 여라(女蘿)의 늘어진 덩굴길이가 보통 8척에 해당함을 말한 것이다.
- ③ 나경(蘿徑): 나경(蘿徑)으로도 쓰며, 뜻은 ‘여라(女蘿)의 덩굴이 무성한 소로(小路)’이다.
- a. 리(蘿): 여라(女蘿): 송리(松蘿): 소나무 겨우살이과에 속하는 기생지의류(寄生地衣類)의 하나이다. 참나무·떡갈나무·동백나무·자작나무·소나무 등 겨우살이 하는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본 시에서는 소나무 겨우살이에 대한 설명을 한다. 송리는 안개 잘 끼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의 줄기와 가지에 실타래처럼 주렁주렁 늘어져 달리는데 누런 녹색이 돌며 가지가 갈라진다. 맛은 쓰고 달며 독이 없다. 한방에서 이노제·해열제·거담제로 쓴다.
- b. 경(逕): 경(徑): ‘소로(小路: 협로狹路: 좁은 길: 오솔길)’의 뜻이다.
- ④ 도(度): ‘도(渡)’와 통하며, ‘(강을) 건너다’. 또는 ‘과(過)’의 뜻으로 써서 ‘시간과 공간을 지나가다’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본 시에서는 ‘공간을 지나가다. 넘어가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⑤ 중강(重岡): 중첩된 산강(山岡: 산등성이, 언덕).
- 3) ① 호리건곤(壺裏乾坤): ‘병속의 천지’라는 뜻이다. 이 말과 같은 뜻으로 쓰는 말이 ‘호중일월(壺中日月: 병 속의 일월)·호중천지(壺中天地: 병 속의 천지)·호중천(壺中天: 병 속의 하늘)’ 등이다. 이 말들은 모두 ‘선경(仙境)’을 이르거나 ‘승경(勝境: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을 이르는 말로 쓴다. 그 전설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동한(東漢)의 비장방(費長房: 생몰년 미상)이 시연(市掾: 시장을 관리하는 관원)으로 있을 때, 시중(市中)에서 어떤 노인이 약을 팔고 있었는데, 가게 앞에 커다란 병을 하나 걸어 두고, 시장이 파하면 그 병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지방(子房)이 뒷층에서 그것을 보고나서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튿날 그 노인을 방문하여 사정을 말하고 부탁하니 그 노인이 수락하여, 노인과 함께 병속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속에는 화려한 전당(殿堂)이 세워져 있었고, 감미로운 주안상이 성대하게 차려져 있어서, 노인과 함께 마시고 나왔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한서(後漢書)·방술전 하(方術傳下)·비장방(費長房)』을 참조 바람)
-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위에서 말한 ‘호리건곤(壺裏乾坤)’을 비롯하여 ‘호천(壺天)’ 등의 말을 ‘선경(仙境)’ 또는 ‘승지(勝地)’를 이르는 말로 썼다.
- a. 호리(壺裏): 병 속
- ④ 호(壺): 용기(容器)의 명칭이다. ‘병’으로 해석되는데, 배가 깊고 주둥이 부분이 좁으며, 주로 몸통이 원형이고, 방형(方形: 몸통이 네모진 형)도 있으며, 타원형 제품도 있다. 신석기 시대에 이미 도제(陶製)의 호(壺)가 있었다. 상주시대(商周時代) 동제호(銅製壺)에는 왕왕 뚜껑이 있었다. 한대(漢代)에 와서는 방형(方形)은 ‘방(紡)’이라 했고, 원형은 ‘중(鍾)’이라 했다. 고대에는 이 안에 술을 담기도 했고 양식을 담기도 했다. 후세에 와서는 주로 액체를 담는 병으로 썼다.
- ⑤ 리(裏): 속, 안

- ② 건곤(乾坤): 건곤(乾《》)으로도 쓰며, 천지(天地)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 ③ 자일향(自一鄉): 자신의 유일한 고향이다.
- 4) ① 월백(月白): 월색(月色)이 밝고 맑다.
- ② 각(卻): 바로, 막, 과연 문득
- ③ 의(疑): 미혹되다, 현혹되다
- ④ 사범두(槎犯斗): 뗏목타고 은하수에 닿다, 뗏목 타고 등천(登天)하다
 *범두사(犯斗槎): 신선이 되어 노닐며, 승천(昇天)할 때 타는 선주(仙舟)를 가리킨다.
- a. 사(槎): 뗏목
- b. 범두(犯斗): 고대 신화전설에 의하면, 은하수는 바다와 잇달아 통한다고 하였다. 해변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매년 8월이 되면 해상(海上)에서 양식을 실은 뗏목을 타고 기한을 정해두고 왕래하면서 노를 저어 은하수에 이르러 견우와 직녀를 만났다고 한다. 이 전설은 서진(西晉)의 학자이자 문인인 장화(張華: 232~300)가 편집한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박물지(博物志)』 권3에 기록이 보인다.
- ④ 범(犯): 도달하다, 이르다
- ⑤ 두(斗): 성수(星宿: 별자리)의 명칭이다. 그 모양이 ‘국자’를 닮았기 때문에 ‘두(斗)’라고 칭한 것이다. 본 시에서는 복두칠성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5) ① 일장(日長): 햇빛만 늘 비치다, 오랫동안 날이 흐리지 않고 햇볕이 쨍쨍 내리쬘다
- a. 일(日): 햇빛[日光], 햇볕, 햇살. 본 시에서는 ‘햇볕’으로 쓰였다.
- b. 장(長): 성(盛)하다, 즉 기운이나 세력이 한창 왕성하다. 본 시에서는 햇볕이 쨍쨍 내리쬘다는 뜻으로 쓰였다.
- 오래, 항상, 언제나, 늘
- ② 환공(還恐): 여전히 두렵다
- ③ 해생상(海生桑): 바다에 뽕나무가 자라다. 이 말은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달리 이르는 말로서, 세상의 변천이 극심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6) ① 수미(垂眉): 눈썹을 아래로 드려우다. ‘눈을 감고 고개 숙이는 것’을 달리 표현한 말이다.
- ② 좌정(坐定): 선정(禪定)에 들기 위하여 자리 잡고 앉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시 89」의 주석 6)을 참조 바람.
- ③ 운(雲): 구름
- ④ 침(侵): 침습하다. 본 시에서는 ‘갈라다’로 의역한다.
- ⑤ 탐(楊): 갈상. 본 시에서는 ‘갈상 말’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7) ① 고목(剗木): 나무의 속을 파내다(배를 만들 때 쓰는 방법임) 본 시에서는 목통(木桶: 나무통)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a. 고(剗): 속을 파내다
- ② 분(分): 나누다. 본 시에서는 퍼 담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천(泉): 샘물
- ④ 랭(冷): 냉기

- ⑤ 투(透) : 스며들다, 침투하다
- ⑥ 상(床) : 침상
- 8) ① 불어임지(不語剩知) : 말을 안 해도 흠뻑 느껴지다.
 - a. 불어(不語) : 말하지 않다
 - b. 잉(剩) : 남다. 본 시에서는 ‘넘치다’는 의미로 쓰였으며, ‘흠뻑’으로 번역한다.
 - c. 지(知) : 얻다, 받다, 득도(得到)하다. 여기서는 ‘느껴지다’로 번역한다.
- ② 한(閒) : 한적하다
- ③ 유미(有味) : 의미가 있다, 정취가 있다
- 9) ① 단공(短筇) : 단장(短杖) : 짧은 지팡이. 본 시에서는 ‘단장(短杖)’을 짚고 갈 수 있는 ‘곳’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수처(隨處) : 도처에, 어디서나
 - ③ 관행장(管行裝) : 필히 행장을 꾸리다.

시99. 산승^{山僧} 혜묵^{惠默}에게 증여하다

詩99. 贈山人^{惠默}¹⁾
증 산 인 혜 묵



一別雲蹤冠岳山²⁾,
일 별 운 종 관 약 산

일별一別이후 (승려께선) 구름 따라
관악산에 들어가더니,

十年淸想繞重巒³⁾.
십 년 청 상 요 중 만

십년을 청정淸淨한 생각하며
첩첩산봉을 두루 돌아다녔구려.

何方一問眞消息⁴⁾,
하 방 일 문 진 소 식

어느 곳에 계신지 줄곧 선인^{仙人}의 소식
수소문했었는데,

恨我無由脫世間⁵⁾.
한 아 무 유 탈 세 간

까닭 없이 나를 원망이야 했겠소만
세간을 훌쩍 벗어났구려.

- 1) ① 산인(山人) : 선가(仙家), 도사(道士), 승려 같은 부류의 사람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승려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혜묵(惠默) : 어떤 승려의 법호(法號)이다. 그는 청량산(淸凉山 : 높이 870m. 태백산맥의 줄기인 중앙산맥의 명산으로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산. 봉화와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좌도慶尙左道의 청량산은 이황(李滉)이 후학을 양성한 곳이었음) 연대사(蓮臺寺) 대승암(大乘庵)의 승려 조일(祖一)의 사승(師僧)이다. 조선 중기 안동 출신의 문신인 김중청(金中淸 : 1567 ~ 1629)의 『구전집荷全集 권5 · 유청량산기遊淸凉山記』에, “구전(荷全) 김중청(金中淸)도 스승 월천(月川) 조목(趙穆)과 함께 1601년 청량산을 유람할 때, 대승암(大乘庵)의 승려 조일(祖一)이 사승(師僧) 혜묵(惠默)의 시축(詩軸)을 가지고와서 조목에게 보였는데, 조목 자신이 쓴

절구 두 편이 있었다. 일전에 조목이 유람하며 해묵에게 써준 시를 해묵의 제자 승려를 통해 청량산 유람에서 다시 보게 된 것이다. 이어 조일이 종이를 올려 시를 청하자 조목이 한 수를 쓰고 함께 유람 간 금난수(琴蘭秀)와 김중청이 각각 한 수씩 써 주었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상은 강원도청 학예연구사 이상균의 「朝鮮時代遊覽을 통한 사대부의 交遊樣相」에서 참조함) (독자의 편의를 위해, 인용문 안에 있는 한자음을 역자 임의로 모두 한글발음을 부착하였음) 그렇다면, 위의 시는 곧 서에도 청량산에 들렀을 때 해묵 승려를 만나서 그의 시 축에 본 시를 써준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된다.

- 2) ① 일별(一別): 한 번 헤어지다, 잠깐 헤어지다
 ② 운종(雲蹤): 구름이 되어 뒤쫓아 가다. ‘구름이 흘러가듯 (마음이) 뒤쫓아 가다’는 뜻이다.
 ③ 관악산(冠岳山):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과 경기도 안양시와 시흥군, 과천시
 의 경계에 있는 높이 629m의 산이다. 기반암은 화강암이며, 심하게 풍화를 받아 험
 한 암벽이 많고 기묘한 형상을 한 바위들도 많다. 북한산, 남한산 등과 함께 서울
 분지를 둘러싼 자연의 방벽이다. 관악산은 원래 경기지역의 명산이나 본 시에서
 는 경북의 청량산(淸涼山)을 비유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 3) ① 청(淸): 청정(淸淨)하다, 맑고 밝다
 ② 상(想): 생각하다
 ③ 요(繞): 휘감다, 감돌다, (주위를) 빙빙 돌다
 ④ 중만(重巒): ‘중암(重巖: 겹겹이 쌓인 암벽)’과 같은 말이다. ‘겹겹이 쌓인 산’의 뜻
 으로도 쓴다.
- 4) ① 하방(何方): 어느 곳이든, 어디서든, 어디에, 어느 곳에
 ② 일문(一問): 줄곧 묻다, 알아보다, 수소문하다
 ③ 진소식(眞消息): 선인(仙人)의 소식
- 5) ① 한(恨): 원망하다
 ② 무유(無由): …까닭이 없다
 ③ 탈세간(脫世間): 세간(世間)을 떠나다(벗어나다)

시100. 산승_{山僧} 사경_{思敬}에게 증여하다

- 두 수 -

詩100. 贈_증山人_{산인}思敬_{사경}¹⁾ 二首_{이수}



其一
기 일

[1]

僧來不用携詩軸²⁾,
승래 불용 휴 시축

승려 오시면서 시축_{詩軸}까지
휴대할 필요 없는데,

觸眼驚懷手澤新³⁾.
촉안 경회 수택신

그 시축 보고나서 손때 탄
청신함에 내심 놀랐네.

何心續和前詩韻⁴⁾,
하심 속화전시운

어떤 맘으로 계속 이전 시의
운자_{韻字} 따라 화답했는지,

閱到前詩淚滿巾⁵⁾.
열도전시누만건

전에 지은 시를 보니
눈물이 흘러 수건을 다 적시네.

其二

[2]

流光鼎鼎如川⁶⁾,
유광 정정 여천

세월이 휙휙 강물처럼 흘러가니,

白髮蕭蕭滿顙⁷⁾。
백 발 소 소 만 전

백발은 희끗희끗 정수리를 다 덮었네.

每見携來詩卷，
매 건 휴 래 시 권

만날 때 마다 시집詩集을 휴대하고 오시니,

不堪感淚沄然⁸⁾。
불 감 감 루 현 연

감동에 젖어서 주르르 눈물이 흐르네.

-
- 1) ① 산인(山人): 선가(仙家)나 도사(道士) 같은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본 시에서는 ‘승려’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사경(思敬): 승려의 법호(法號)이며 이력은 미상이다.
- 2) ① 불용(不用): …할 필요가 없다
② 휴(携): 휴대하다. 지나다
③ 시축(詩軸): 시를 적는 두루마리. 관련내용은 앞의 「시87」의 주석 1)의 ② ‘시축(詩軸)’조항을 참조 바람.
- 3) ① 촉안경희(觸眼驚懷): 촉목경심(觸目驚心): 모종의 정황(情況)을 보고 내심 놀라다. 보기만 해도 놀란다. 보기에 가슴 아프다. 사태가 엄중하여 (놀라워, 심각하여) 충격을 받는 것(심금을 울리는 것)을 형용한 말이다.
a. 촉안(觸眼): 촉목(觸目): 눈에 떠다, 눈길이 닿다
b. 경희(驚懷): 경심(驚心): 놀라다(놀란다), 심금을 울린다, 내심으로 많이 놀라다
- ② 수택신(手澤新): 손때 탄 그 흔적이 청신했다.
a. 수택(手澤): ‘수한(手汗)’과 같은 말로서, ‘손때(오랫동안 쓰고 매만져서 길이 든 흔적)’란 뜻이다. 후세 사람들은 선인(先人)이나 연장자(年長者)의 유묵(遺墨: 죽은 사람이 남긴 필적) 등을 칭할 때 자주 쓰는 말이다. 『예기(禮記)·옥조(玉藻: 고대 제왕의 면류관冕旒冠의 앞뒤로 늘어뜨린 옥구슬을 꿰 오색의 끈)』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책을 차마 읽지 못하는 것은(父沒而不能父之書), 그 책에 (아버지가 써넣은 주석의 글을 비롯해서) 아버지의 손때가 땀기 때문이다(手澤存焉爾).”고 한 대목이 있다.
당나라 학자 공영달(孔穎達: 574~648)이 위의 문장을 주소(註疏)하기를, “그 책은 아버지가 평생 손에 들고 있던 것으로 (아버지의) 손때가 땀기 때문에(謂其書有父平生所持手之潤澤存在焉), (그 손때 탄 흔적이 지워질까 걱정이 되어) 차마 읽지 못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故不忍讀也).”고 하였다.
④ 택(澤): 윤택(潤澤), 광택(光澤). 본 시에서는 그 시축(詩軸)을 오래 써서 ‘손때가 타서 윤기가 흐르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신(新): 신선하다, 청신했다
- 4) ① 하심(何心):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② 속(續): 계속하다, 잇다
③ 화(和): 시가(詩歌)로 화답하다. 타인이 지은 시사(詩詞)의 제재(題材)와 체재(體裁)에 따라서 지은 시사(詩詞)

④ 전(前) : 이전의

⑤ 시운(詩韻) : 시의 운(韻)

a. 운(韻) : 운자(韻字) : 각 시행(詩行)의 동일한 위치에 규칙적으로 쓰인 음조(音調)가 비슷한 글자를 운(韻) 또는 운자(韻字)라고 한다.

5언절구(五言絶句 : 한 구의 글자가 5언이며 4구로 이루어진 시)는 짝수구의 마지막 글자가 운이 된다. 5언율시(五言律詩 : 한 구의 수가 5언이며 8구로 이루어진 시)도 절구와 마찬가지로 짝수구의 마지막 글자가 운이 된다. 7언절구(七言絶句 : 한 구의 글자 수가 7언이며 4구로 이루어진 시)와 7언율시(七言律詩 : 한 구의 수가 7언이며 8구로 이루어진 시)도 짝수구의 마지막 글자가 운이 되는데, 7언시(七言詩)의 경우에는 첫 구에 운을 달기도 한다. 이처럼 한시(漢詩)는 운을 달고, 대우법(對偶法 : 전후구의 내용을 대응하게 하여 대립의 미미를 나타내는 수사법)을 쓰는 동시에 평측법(平仄法 : 한자의 음은 성조聲調에 따라 평성平聲 · 상성上聲 · 거성去聲 · 입성入聲으로 나뉘는데, 이 중 평성을 평탄한 소리라 하여 평성이라 하고, 그 나머지는 기울어진 소리라 하여 측성仄聲이라 한다. 근체시에서는 평성과 측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하여, 이 평측이 지닌 가락(리듬)을 이용한 운율적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평측법이라 함)을 써서, 그 가락(리듬)을 이용한 운율적 효과를 나타내어 시적미를 표현한다.

5) ① 열도(閱到) : 읽고(보고) 나서

② 누만간(淚滿巾) : 눈물 흘러 수건을 다 적셨다. 수건이 온통 눈물로 다 젖다.

6) 유광정정여천(流光鼎鼎如川 : 세월이 휘휘 강물처럼 흘러가니) :

****역주주석 :** 본 시의 제2수는 고체시(古體詩)이다.

① 유광(流光) : 유수(流水)같이 흘러가는 세월을 가리키는 말이다.

② 정정(鼎鼎) : 세월이 빨리 흐르는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회회 지나가다'로 표현한다.

7) ① 소소(蕭蕭) : 희소(稀疏)하다. 드문드문하다. 본 시에서는 '성성(星星)하다, 희끗 희끗하다'로 표현된다.

② 만(滿) : 충만하다, 가득 차다, 가득 퍼지다, 널리 덮이다

③ 전(顛) : 머리꼭대기, 정수리

8) ① 불감(不堪) : 참을 수 없다. 본 시에서는 '겹다(감동에 겨워서 정서가 거세게 일어나 누를 수 없다)'로 번역한다.

② 감루(感淚) : 감동하여 눈물이 흘러내리다. 본 시에서는 그러한 눈물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현연(泫然) : 눈물을 흘리는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눈물을 흘리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눈물이) 줄줄(주르르) 흘러내리다.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다'는 말에서, '줄줄, 주르르, 뚝뚝' 등의 표현이 그 예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시101. 김제천 金堤川 공公에게 증여하다

- 진퇴운進退韻을 사용하여 갑신년(甲申年: 1584년:

서애 43세)에 -

詩101. 贈金堤川用進退格甲申¹⁾

증 김 제 천 용 진 퇴 격 갑 신

綉席雙飛鳳²⁾,
수 석 쌍 비 봉

수놓은 방석에는 한 쌍의 봉황이 날고,

華燈³⁾兩卷書。
화 등 양 권 서

오색 등 아래에는
두어 권의 책이 놓였네.

清宵留遠客⁴⁾,
청 소 유 원 객

청정淸靜한 밤 멀리서 오신
손님 머무시는데,

涼月滿平湖⁵⁾。
양 월 만 평 호

가을의 밝은 달빛 잔잔한 호수에
가득 찼네.

老厭維摩室⁶⁾,
노 염 유 마 실

노공老公은 유마거사維摩居士
방장실方丈室 같은 방에도 흠족해 하는데,

春思武昌魚⁷⁾。
춘 사 무 창 어

(나는) 술잔 들자 무창어武昌魚 같은
물고기 안주 생각났네.

商山傳好事⁸⁾,
상 산 전 호 사

(공공이) 상산商山 같은 곳에 은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 널리 알려져서,

免得卜隣孤⁹⁾.
면득복린고

(이사하면) 이웃을 선택하여
외로움을 면하도록 해야겠네.

- 1) ① 김제천(金提川) : 인명(人名)인데 이력은 미상이다.
- ② 진퇴격(進退格) : 진퇴운(進退韻)이라고도 한다. 율시(律詩 : 8구로 되어 있는 한시 체漢詩體)에서 운(韻 : 운자韻字 : 각 시행詩行의 동일한 위치에 규칙적으로 쓰인 음조音調가 비슷한 글자)을 쓰는 일종의 격식(格式)이다. 한 수의 시에 두 개의 비슷한 운부(韻部 : 운서韻書에 같은 운의 자를 함께 모아 일부一部로 만든 것)의 운자를 격구(隔句 : 한 구 건너 대우對偶를 이루는 구)에 체환(遞換 : 차례차례 바꾸어가며)해서 압운(押韻 : 주로 짝수구의 마지막 글자에 같은 운을 규칙적으로 다는 일)하여, 선택한 그 두 개의 운자가 일진일퇴(一進一退)하는 까닭에 일컬어진 명칭이다.
- ③ 갑신(甲申) : 갑신년(1584), 선조 17년 서에 43세. 앞의 「시59」의 주석 1), 역자 주석을 참조 바람.
- 2) ① 수석(綉席) : 수를 놓아 만든 방석이나 보료
- ② 봉황(鳳凰) : 봉황(鳳凰으로도 씀)이다. 봉황은 고대 전설상의 백조지왕(百鳥之王 : 온갖 새 중의 왕)이다. 수컷은 ‘봉(鳳)’이라 하고, 암컷은 ‘황(凰)’이라 하는데, 통칭 ‘봉(鳳)’ 또는 ‘봉황(鳳凰)’이라 한다.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이 상상의 새는 기린·거북·용과 함께 사령(四靈) 또는 사서(四瑞)로 불린다. 전반신은 기린, 후반신은 사슴, 목은 뱀, 꼬리는 물고기, 등은 거북, 턱은 제비, 부리는 닭을 닮았다고 한다. 깃털에는 오색 무늬가 있고 소리는 오음(五音)에 맞고 우렁차며, 오동나무에 깃들어서 새나무 열매를 먹고 영천(靈泉 : 신기한 약효가 있는 샘)의 물을 마시며 산다고 한다.
- 3) 화등(華燈) : ‘화등(華鐙)’으로도 쓴다. 조각하고 장식한 것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등(燈)을 가리키며, ‘채색 등’ 또는 ‘오색 등’으로도 불린다.
- 4) 청소(淸宵) : 청정(淸靜 : 고요함, 조용함)한 밤
- 5) ① 양월(涼月) : 양월(涼月)로도 쓰며, 본 시에서는 ‘추월(秋月), 즉 가을의 밝은 달(빛)’의 뜻으로 쓰였다.
- ② 만(滿) : 가득 차다
- ③ 평호(平湖) : 잔잔한 호수
- 6) ① 로(老) : 노인, 늙은이, 노공(老公 : 나이 지긋한 귀인 또는 노인을 높여 이르는 말). 본 시에서는 ‘멀리서 오신 손님’을 가리키며, ‘김제천(金提川) 공(公)을 높여서 이르는 말’로 쓰였다.
- ② 염(厭) : 흠족하다. 만족하다
- ③ 유마실(維摩室) : 유마장실(維摩丈室) : 불교어로서, ‘유마거사(維摩居士)의 방장실(方丈室 : 사방 일丈〈一丈 : 10척 즉 3.33m〉이 되는 방)’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멀리서 오신 손님이 머무는 대단히 협소한 방’을 비유한 말로 쓰였다.
- a. 유마(維摩) : 인도의 고대 상업도시 비사리국(Vaiśālī國 : 毘舍離國 : 비야국毘耶國)의 장자(長者 : 부호, 자산가)로서, 석가모니(釋迦牟尼 : Śakya-muni : BC 566~BC 486)의 속제자(俗弟子)이다. 그의 성명은 유마힐(維摩詰 : Vimalakirti :

비마라毘摩羅詰)로 음역되는데, 약칭하여 유마(維摩)라고도 잘 부르며, 이 성명 뒤에 거사(居士 : 집에 거주하는 선비·부호·자산가·불교에 귀의한 제가在家남자)란 칭호를 붙여 불교에서는 그를 자주 유마거사(維摩居士)라고 칭한다. 그는 속가(俗家)에 있으면서 보살행업(菩薩行業 : 보살로서 행해야 하는 행위)을 닦은 사람이며, 그 수행이 높아서 불제자(佛弟子)도 미칠 수 없었다고 한다. 불교의 경전인 『유마경(維摩經 : 일상생활 속에서 해탈의 경지를 체득해야함을 유마월이라는 주인공을 내세워 설화식으로 설한 경전)』의 주인공이다.

- b. 실(室) : 방. 본 시에서는 ‘아주 협소한 방’, 곧 ‘사방 1장(丈 : 3.33m)되는 방’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7) ① 춘사(春思) : 술잔 들자 (나는) ...이 생각한다.

****역자주석 :** 본 시에서의 ‘춘(春)’자는 동사로 쓰인 것으로 보고 ‘술을 (술잔을) 들다’로 해석한다. ‘춘(春)’을 당나라 사람들은 ‘술[주酒]’을 칭할 때 ‘주(酒)’자의 미의 ‘춘(春)’자를 썼는데, 후세에도 그것을 연용하였다.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 : 701~762)의 시 「선성군宣城郡에서 술을 잘 빚었던 기씨紀氏 노인장을 조문弔問하면서((哭宣城善釀紀叟)」에, “기씨 노인장은 황천에 가셔서도(紀叟黃泉裏), 여전히 ‘노춘주(老春酒 : 노주老酒의 의미로, 기씨가 생전에 빚었던 예전의 그 술의 뜻임)’를 빚고 있었지(還應釀老春).”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청대의 학자 왕기(王琦)가 이 시를 주석하면서 말하기를, “당나라 사람들은 명주名酒의 명칭 뒤에, ‘춘春’자를 많이 덧붙여 썼다(唐人名酒多帶春字).”고 하였다. 현대 중국인은 그 ‘춘(春)’자 뒤에 ‘주(酒)’자를 덧붙여 쓴다.

- ② 무창어(武昌魚) : 모แซ치 혹은 방어(魴魚)의 일종이다. 이는 살집이 부드럽고 지방이 많아 주로 찜으로 즐긴다고 한다. 『호북통지(湖北通志)』에, “모แซ치는 번구(樊口)에서 나는 것이 최고이다”라고 적혀있다. 사서(史書)에서 말하는 번구가 바로 오늘날의 호북(湖北)의 악성현(鄂城縣)을 말하며, 또한 고대에 무창(武昌)이라는 지명도 오늘날의 무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鄂城)을 가리킨다. 뿐만 아니라 무창어(武昌魚)라는 이름의 이 음식은 멀리 삼국(三國)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삼국지(三國志) · 오지(吳志) · 육개전(陸凱傳)』에 그 자료가 보인다. 이에 의하면, 삼국시기 오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손호(孫皓 : 242~284)가 당시 오나라의 도읍을 건업(建業 : 지금의 남경南京)에서 무창(武昌)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신하인 육개(陸凱 : 198~269)가 당시 항간에 떠돌던 동요를 인용하여 천도(遷都)의 불가함을 건의하였다고 한다. 그 동요는 “차라리 건업의 맹물을 마시지(寧飲建業水), 무창의 기름진 물고기는 먹지 않을래요(不識武昌魚) ; 차라리 건업으로 돌아가 죽고말지(寧還建業死), 무창에 머물면서 살지 않을래요(不止武昌居).”라는 내용이다. 실제로 손호가 무창으로 도읍을 옮긴 뒤, 양주(揚州 : 도읍지 건업을 중심으로 한 12개 군縣의 땅) 백성들은 강물을 역류하여 생활용품을 공급해야했을 뿐 아니라, 무창은 땅도 척박하고 험지라서 백성을 안정시킬 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배를 정박시켰다하면 격류에 침몰되고 구렁지에 거주하면 산세 또한 험준하여 위험했다. 본 시에서 ‘무창어(武昌魚)’를 언급한 것은 멀리서 오신 손님을 접대하는데, 술안주로서는 채소밖에 없어 ‘물고기 안주’를 내놓고 싶은 시적화자의 아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손호(孫皓 : 242~284) : 삼국시대 오나라 마지막 군주(재위, 264~280)이

다. 오군(吳郡) 부춘현(富春縣 : 지금의 절강성浙江省 부양시富陽市) 사람으로, 자는 원종(元宗) 또는 호종(皓宗)이고, 별명은 팽조(彭祖)이다. 손권(孫權 : 182~252)의 손자이고, 손화(孫和 : 224~253?)의 아들이다.

*육개(陸凱 : 198~269) : 삼국시대 오(吳)나라 오군(吳郡) 오현(吳縣 : 지금의 강소성江蘇省 소주시蘇州市) 사람으로, 자는 경풍(敬風)이고, 육손(陸遜 : 183~245)과 한집안 사람이다.

- 8) 상산(商山) : 상판(商阪)이라고도 하고, 상령(商嶺)이라고도 하며, 지폐산(地肺山) 또는 초산(楚山)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상현(商縣) 동북(東北)에 위치한다. 이곳은 지형이 험준하고 경관이 수려하다. 진말한초(秦末漢初)에 사호(四皓 : 상산사호商山四皓)가 이곳에 은거했었다.

****역지수석** : 본 시에서는 김제천(金堤川) 공(公)의 은거지가 상산(商山)처럼 수려한 곳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상산사호(商山四皓) : 상산사공(商山四公) : 상산로(商山老) : 상산옹(商山翁) : 진말(秦末)에 동원공(東園公) · 기리계(綺里季) · 하황공(夏黃公) · 녹리선생(甬里先生) 등 네 명은 진(秦)나라의 전란을 피하여 상산(商山)에 은거했는데, 이들은 모두 연세가 80여 세로 백발노인이어서 수미호백(鬚眉皓白 : 수염과 눈썹이 흰)했던 까닭에,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상산사호(商山四皓)’라 칭했다. 한고조(漢高祖 : 유방劉邦 : BC 247~BC 195)가 이들을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후에 고조가 태자(훗날의 혜제惠帝)를 폐하려하자, 여후(呂后 : BC 241~BC 180)가 유후(留侯 : 장량張良 : ?~BC 186)의 계책을 빌어 사호(四皓)를 맞아들여 태자를 보좌토록 하자, 마침내 고조도 태자 폐위의 의사를 거둬들였다. (상세한 내용은 『사기(史記) · 여후세가(呂侯世家)』를 참조 바람.)

- 9) ① 면득(免得) : 면제(免除)하다, 면하다, 피하다
 ② 복린(卜隣) : 살 만한 곳을 정하기 위해 이웃의 선악을 점치다. 전(轉)하여 살기 좋은 곳을 가려 이사하다. 이웃을 선택하다.
 ③ 고(孤) : 고독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외로움



시102. 산승에게 증여하다

- 세 수 -

詩102. 贈山人¹⁾ 三首
증 산 인 삼 수

其一
기 일

[1]

望裏雲山近²⁾,
망 리 운 산 근

시야에 들어오는 구름 낀 산을
친근하게 여기다 보니,

愁邊歲月深³⁾。
수 변 세 월 심

(이 몸은) 시름 곁에
머문 세월이 오래 됐네.

一春多病日,
일 춘 다 병 일

봄 한 철 병으로 앓는 날이 많았는데,

孤錫遠來心⁴⁾。
고 석 원 래 심

한 자루 석장錫杖 짚고
먼 길 오셔서 마음 쓰시네.

院靜杏花落⁵⁾,
원 정 행 화 락

뜨락은 고요한데 살구꽃이 떨어지고,

庭虛山鳥吟⁶⁾。
정 허 산 조 음

텅 빈 대청에는 산새 우는 소리 들리네.

題詩知戲劇⁷⁾,
제 시 지 회 극

시를 쓰려면
익살도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데,

都爲寫煩襟⁸⁾。
도 위 사 번 금

온통 번민하는 심회心懷만 묘사해
시를 짓네그려.

其二
기 이

[2]

秋風長嘯宇宙間⁹⁾，
추 풍 장 소 우 주 간

추풍이 좌좌 천지간에 연이어 부는데,

盡日江樓對遠山¹⁰⁾。
진 일 강 루 대 원 산

진종일 강변 누각에서
먼 산을 마주하고 있네.

一片白雲山際出¹¹⁾，
일 편 백 운 산 제 출

한조각 백운이
산언저리에 출현하더니만,

等閒行去不知還¹²⁾。
등 한 행 거 부 지 환

무심하게 흘러가니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네.

其三
기 삼

[3]

微月隱西峯¹³⁾，
미 월 은 서 봉

초승달은 서산 산봉山峯에 가려졌는데,

松風生澗谷¹⁴⁾。
송 풍 생 간 곡

솔바람은 산골짜에서 솔솔 불어오네.

端居清道心¹⁵⁾，
단 거 청 도 심

평소 도심道心 속에서
잡념 없이 지내다 보니,

浩然媚幽獨¹⁶⁾。
호 연 미 유 독

기상氣象이 호방해져
홀로 지냄도 좋아하게 됐네.

庭卓山僧錫¹⁷⁾,
정 탁 산 승 석

뜨락에는 산승^{山僧}의
석장^{錫杖}이 세워졌고,

門多隱者轍¹⁸⁾。
문 다 은 자 철

문 앞에는 은사^{隱士}가 타고 온
수레바퀴 자국이 많으네.

小窓¹⁹⁾梅有花,
소 창 매 유 화

작은 창 밖에는 매화꽃이 피어있고,

三春²⁰⁾吾事足。
삼 춘 오 사 족

이 봄 석 달 동안
내가 한 일에 만족하네.

- 1) 산인(山人) : 선가(仙家)나 도사(道士) 같은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본 시에서는 ‘승려’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기타 자세한 뜻은 앞의 「시101」의 주석 1)의 ① ‘산인(山人)’ 조항을 참조 바람.

****역주주석:** 본 시 세 수는 시인을 방문한 산승에게 써서 준 시이다. 조선 전기 유학자들은 불교교리에도 밝았고 승려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서애가 생존했던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이들의 교유에도 변화를 보인다. 승려들은 이름 있는 유학자들에게 자신의 시축(詩軸)에 발문을 받기 위해 먼 길도 마다 않고 찾는 것이 당시의 문화적 현상으로 변모되었다.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비호 아래 불교 재건을 도모한 불교계의 움직임이 유생들의 큰 반발을 일으켰으면서도, 사대부들의 산중 유람을 돕는 인사는 바로 승려들이었고, 사대부들 또한 산중암자에 은거하며 수양하거나 공부에 몰두하는 사례가 일반화되었다. (청량산박물관, 2007,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 I』 참조) 그리하여, 배불승유(排佛崇儒)의 기조하에 서도, 조선 중기는 사대부들의 승려와의 방외(方外 : 유교에서 도교나 불교를 가리켜 방외학方外學이라 함) 교류가 묵인되는 풍토였다. (앞의 「시87」의 주석 1)의 ② ‘시축(詩軸)’ 조항을 참조 바람.)

- 2) ① 망(望) : 시력이 미치는 곳, 시야
② 리(裏) : ‘내부, 안쪽, 속’을 가리키는 말인데, 명사 뒤에 붙어서 장소·방위·범위를 표시한다.
③ 운산(雲山) : 구름이 낀 산, 구름과 산
④ 근(近) : 친근하다, 친근하게 여기다. 가까이 있다
3) 수변(愁邊) : 시름 곁에, 시름의 근처에, 시름의 언저리에
4) ① 고석(孤錫) : 한 자루의 석장, 독특한 석장(錫杖)

*석장(錫杖) : 승려가 가지고 있는 선장(禪杖)이다. 즉 승려나 수행자(修行者)가 소지(所持)한 고리가 달린 지팡이이다. 원래는 인도 승려가 산야를 편력(遍歷)할 때, 흔들어서 독사나 해충을 쫓아 살생을 막았던 것을 말한다. 형태는 머리 부분의 주석(朱錫)고리와 중간의 나무자루 부분 및 이를 아래에서

꽃은 축[어금니 뿔]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이 석장은 흔들면 소리가 난다고 하여 성장(聲杖)이라고도 하고 명장(鳴杖)이라고도 한다. 산스크리트어(고대 인도의 표준문장어)로는 ‘각카라(Khakkahara)’라고 한다.

- ② 원래심(遠來心): 멀리서 와 (먼 길 와서) 마음을 쓴다. 본 시에서는 ‘멀리서 오신 승려가 마음 쓰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5) ① 원정(院靜): 뜨락은 고요하다
- ② 행화락(行花落): 살구꽃이 떨어지다
- 6) ① 정허(庭虛): 대청은 텅 비어 있다.
- ② 산조음(山鳥吟): 산새가 울다(지저귀다). 본 시에서는 산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7) ① 제시(題詩): 한 가지 일이나 한 종류의 사물 또는 한 권의 책이나 한 폭의 그림에 접근하여 느낀 감정을 표현하면서 제목을 붙여 시를 짓는 것을 말한다. 주벽(柱壁: 기둥과 벽), 서화(書畵), 기명(器皿) 등에 많이 쓴다. 본 시에서의 ‘제시(題詩)’는 시를 쓰다 혹은 시를 짓다는 단순 의미로 쓰였다.
- ② 지희극(知戲劇): 희극적인 것도 알아야 하다, 익살적인 표현도 할 줄 알아야 한다.
- 8) ① 도(都): 모두, 다
- ② 위(爲): (문장, 글을) 쓰다, 짓다
- ③ 사(寫): 묘사하다
- ④ 번금(煩襟): 번민하는 심회(心懷), 번회(煩懷: 번그러운 속사俗事 때문에 시달리는 마음), 마음속의 번뇌, 번민
- 9) ① 장소(長嘯): 본의는 길게 부는 휘파람 혹은 소리를 길게 빼어 시나 노래를 읊조리는 것을 뜻하나, 본 시에서는 ‘연이어 (바람이) 불다’의 뜻으로 쓰였다.
 - a. 장(長): 많이, 오래, 멀리서
 - b. 소(嘯):
 - 조수(鳥獸)의 우는 소리나 기타 날카롭고도 (예리하고도) 길게(자꾸) 이어지는 소리를 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기러기가 기력기력 자꾸 울거나, 호랑이가 어흥어흥 울부짖거나, 말이 히힃히힃 연이어 우는 것들이다. 또한 찌르레기나 풀벌레를 비롯한 귀뚜라미 따우이가 찌르르 자꾸 우는 것을 표현한 뜻으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추풍이 쑹쑹 연이어 불다’의 뜻으로 해석한다.
- ② 우주간(宇宙間): ‘천지간(天地間)’의 뜻으로 쓰였으며, ‘이(은) 세상, 사방’을 가리킨다.
- 10) ① 진일(盡日): 종일, 전종일
- ② 강루(江樓): 강변의 누각
- ③ 대원산(對遠山): 먼 산을 마주하고 있다.
- 11) ① 산제(山際): 산변(山邊: 산의 주변·언저리)
- ② 출(出): 나타나다, 출현하다
- 12) ① 등한(等閒): 마음에 두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 ② 행거(行去): 지나가다, 흘러가다
- ③ 환(還): 귀환하다, 돌아오다
- 13) ① 미월(微月): 미월(眉月: 눈썹과 같은 달)과 같은 말로서 ‘초승달’의 뜻이다.

- ② 은(隱): 엄폐(掩蔽)되다. 가려지다
 ③ 서봉(西峯): 서쪽 산봉우리, 서산 산봉(山峰)
- 14) ① 송풍(松風): 솔바람, 숲숲 사이로 스쳐 부는 바람
 ② 생(生): 일다, 발생하다
 ③ 간곡(澗谷): 산골짜기
- 15) ① 단거(端居): 평소, 평상시
 ② 청(淸): 잡념이 없다
 ③ 도심(道心): 천리(天理: 송대 이학자理學者들이 주장한 영구불변의 객관적 도덕법칙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총명總名임), 즉 의리(義理: 일정한 윤리도덕의 준칙, 곧 천리·도의道義)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이는 곧 성리학에서 말하는 ‘본연지성(本然之性)’의 경계이다. ‘도심(道心)’이라는 용어가 보이는 자료는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의 16자법(字法)을 근거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전수해주었다는 “진실로 그 중정中正의 도를 잡으라(允執厥中).”는 말에서 비롯된다. 이때 순임금이 여기에서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隱微하기 때문에, 오로지 <인심과 도심을> 세심하게 분별하고 오직 한결같이 도심을 유지해야 한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는 말을 덧붙인데서 기인한다.
- 16) 호연 미유독(浩然媚幽獨: 기상氣象이 호방해져 홀로 지냄도 좋아하게 됐네):
 **역주주석: 본 짓구는 당(唐)나라 이백(李白)의 『이태백시가전집(李太白詩歌全集)』 권23에, 「심양尋陽의 자극궁紫極宮에서 가을에 느낀 바 있어 갖다(尋陽紫極宮感秋作)」는 시에 보인다. 즉 “정좌靜坐하고 온갖 묘리妙理 살펴보노라니(靜坐觀衆妙, 기상氣象이 호방해져 홀로 고요히 지냄도 좋아하게 되네(浩然媚幽獨).”라고 하는 짓구가 있다.
 **역주주석: 위의 짓구를 “호방한 마음 지니고 홀로 고요히 있는 게 매혹적일세”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 ① 호연(浩然):正大(正大)하고 호방한 (늠름한) 모양, 마음이 넓고 뜻이 큰 모양. 즉, 본 시에서는 호연지기(浩然之氣), 곧 기상(氣象)이 호방하고正大해짐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미(媚): 사랑하다, 애호(愛好)하다. 매혹적이다
 ③ 유독(幽獨): 고요히 홀로 있다, 홀로 고요히 있다, 정적(靜寂) 속에 고독하다
- 17) ① 정(庭): 뜰, 뜰
 ② 탁(卓): 세우다, 세워놓다
 ③ 산승석(山僧錫): 산승(山僧)의 석장(錫杖)
- 18) ① 문다(門多): 문전(門前)에는 ...이 많다.
 ② 은자철(隱者轍): 은사(隱士)가 났던 수레의 수레바퀴 자국
- 19) 소창(小窓): 작은 창. 본 시에서는 ‘작은 창밖’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20) 삼춘(三春): 춘계(春季) 3개월.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84」의 주석 5)의 ② ‘삼춘(三春)’조항을 참조바람.

시103. 예복禮服을 쓰다

詩103. 題卷衣¹⁾
제 권 의



養身無奇策²⁾,
양 신 무 기 책

양생養生에는 기이한 계책이 없으나,

安心是妙方³⁾.
안 심 시 묘 방

마음 안정에는 신묘한 방법이 있다네.

平生虛過氣⁴⁾,
평 생 허 과 기

일평생 의기義氣를
헛되이 그르치고 나서야,

奔走惜流光⁵⁾.
분 주 석 유 광

분주히 뛰어다녔던 세월을 애석해 하네.

葉積秋扉掩⁶⁾,
엽 적 추 비 업

꽃잎을 모았다가
가을철 문창호지에 장식해놓으니,

窓寒野菊香⁷⁾.
창 한 야 국 향

빈곤한 집 창가에서 들국화 향기 풍기네.

如何年四十⁸⁾,
여 하 연 사 십

어찌하다 나이 벌써 마흔이나 되었던고!

猶自嘆亡羊⁹⁾.
유 자 탄 망 양

아직도 이 몸은 (갈림길에서 방황하다가)
양 잃은 것을 탄식하네.

1) ① 제(題) : 적다, 쓰다, 서명하다

② 권의(卷衣) :

☆존귀한 사람이 입는 예복(禮服)으로 ‘곤의(袞衣)’라고도 한다. 『예기(禮記)·잡기(雜記)』에서 유래되었다. 『세종실록 22년』 ‘10월 4일[계유]’조항에도, “환(環 : 임금의 귀양 간 사람을 다시 부른 신패信牌)을 내린 지 얼마 아니 되어(賜環未幾), 권의(卷衣)가 다시 복구되었는데(卷衣已復), 옛덕을 추모하게 되니(追惟舊德), 내 마음이 슬프노라(予心是惻). 이에 예관禮官을 보내어(爰遣禮官), 변변치 않은 재물을 베푸노니(俾陳菲薄), 혼령이 어리석지 않거든(靈其不昧), 흠향歆饗하기 바라노라(庶幾歆格).”에 해당 용어가 보인다. 본 시에서는 ‘고관의 예복’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2) ① 양신(養身) : 양생(養生)이라고도 하며, 이는 신체를 보양(保養)하여, 삶이 활력을 날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양생의 도(道)와 양생의 술(術)에 기초하여 사람 개별에 맞는 양생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제2장 양신(養身)』을 참조 바람.

② 기책(奇策) : 기이한 계책

3) 안심 시묘방(安心是妙方) : 마음 안정에는 신묘한 방책이 있다네) :

**역지주석 : 성리학[도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천리(天理)와 통하는 도심(道心)이 내재하므로 이를 주체로 성정(性情)을 통솔하면 언제나 위태로운 인심(人心)을 조절하여 마음의 평안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① 안심(安心) : 마음을 편안하게 하다. 성리학(性理學·도학道學)에서는 이를 달리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곧 ‘심법(心法)’을 통해 전수해왔다. 즉 역대 유학자들은 학문의 목표를 성인(聖人)이 되는 것에 두었고, 도학자(道學者)들은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 이 ‘심법’을 평소의 화두(話頭)로 마음에 새기며, 심성(心性)을 닦는 일에 주력하였다. 바로 이러한 관심은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의 16자법(字法)에서 시작하였으며, 자사(子思)는 이를 『중용(中庸)』의 정수(精髓)로 다루었다. 송대에 와서 주희(朱熹 : 1130~1200)는 마침내 이 심법을 근간으로 “마음은 몸의 주체다(心者, 身之主也).”라고 했고, 또한 “마음은 성성과 정정을 통솔한다(心統性情).”라는 심성론(心性論)의 요체를 제시하여, 거경궁리(居敬窮理)로써 천리(天理)의 본연(本然)을 함양하고, 거경성찰(居敬省察)로써 불순한 생각의 침투를 방지하여 마음을 닦을 것을 주장하였다.

*거경궁리(居敬窮理) : 인식론적인 의미의 ‘궁리’와 실천론적인 뜻의 ‘거경(居敬)’을 합하여 ‘거경궁리’라고 한다. 북송(北宋)의 정호(程顥)와정이(程頤)에 의해서, 경(敬)이 철학적으로 다루어졌고, 남송(南宋)의 주희(朱熹)에 의해서 궁리가 강조되었으며 조선의 이황(李滉)이 계승하여 거경궁리의 철학적 의미를 심화시켰다. 기타 내용은 주희(朱熹)가 집주(集註)한 『중용장구(中庸章句)』나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참조 바람. 앞의 「시72」의 주석 8)의 ① ‘안심구경법(安心究竟法)’을 참조바람.

② 묘방(妙方) : 좋은(묘한) 방법

4) ① 허(虛) : 헛되이

② 과(過) : 그르치다

- ③ 기(氣) : 의기(義氣)
- 5) ① 분주(奔走) : 분주하다, 바쁘게 활동하다, 열심히 뛰어 다니다
 ② 석(惜) : 아쉽다, 애석하다
 ③ 유광(流光) : 유수같이 흘러간 세월
- 6) ① 엽적(葉積) : 꽃잎을 모으다
 ② 추(秋) : 가을철
 ③ 비(扉) : 문짝. 전(轉)하여 ‘보잘 것 없는 집’
 ④ 엄(掩) : 문식(文飾)하다, 겹치레하다, 꾸미다
- 7) ① 창한(窓寒) : 빈곤한 집 창가에서, 빈한(貧寒)한 집의 창가에서
 ② 야국향(野菊香) : 들국화 향기가 풍기다
- 8) 연사십(年四十) : 나이 마흔 살
- 9) ① 유(猶) : 아직도, 여전히
 ② 자(自) : 내 자신
 ③ 탄(嘆) : 탄식하다
 ④ 망양(亡羊) : 양을 잃어버리다

『열자(列子)·설부편(說符篇)』에, “양자(楊子 : BC 440? ~ BC 360? : 양주楊朱 : 춘추전국시대의 학자)의 이웃 사람이 〈기르던〉 양을 잃어버리자(楊子之鄰人亡羊), 집안 식구들을 다 거느린데다가(既率其黨), 양자의 동복(童僕 : 나이 어린 종)까지 불러내어 그 양을 찾아 나섰다(又訪楊子之豎追之). 그래서 양자가 말하기를 (楊子曰) : ‘아아(噫)! 양 한 마리 잃고(亡一羊), 찾아나서는 사람이 어찌 이리 많은가(追者之衆)?’라고 하자, 이웃 사람이 말하기를(鄰人曰) : ‘갈림길이 많아서 입니다(多岐路).’라고 하였다. 양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 돌아오자(既反), 양자가 묻기를(問), ‘양을 찾았느냐(獲羊乎)?’라고 하니, 대답하기를(曰), ‘찾지 못했습니다(亡之矣).’라고 하자, ‘어찌하여 잃고 말았는고(奚亡之)?’ 하니, ‘갈림길 도중에 또 갈림길이 있어서(岐路之中又有岐路), 저희들은 그 양이 어느 길로 간지 몰라서(吾不知所之), 돌아온 것입니다(所以反也).’라고 하였다. …… 심도자(心都子 : 양자楊子の 제자라고 하나 확실한 근거가 없음)가 말하기를(心都子曰) : ‘큰 길은 갈림길이 많아서 양을 잃고(大道以多岐亡羊), 학자는 방술方術이 많아서 사는 방법을 잃는다(學者以多方喪生).’고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후에 사람들은 이 ‘망양(亡羊)’이란, 말을 ‘갈림길에 들어서서 성취한 바가 없음’을 이르는 말의 뜻으로 썼다.

****역지주석 :** ‘망양(亡羊 : 양을 잃어버림)’이란 말은 성어(成語) ‘망양보뢰(亡羊補牢 : 방심하고 있다가 양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외양간은 보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방지하고 있다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때맞춰 보완하는 것이 늦지 않는 것임을 비유한 말)’의 뜻과는 다르다. 망양보뢰의 뜻으로 쓰면, 예문은 류명희 · 안유호 줄역, 『국역 류성룡시 II』의 「시29」의 주석 69)의 ‘망양되가보(亡羊牢可補 : 염소는 잃었어도 축사흠늬는 보수해야 하고)’조항에서 ‘망양(亡羊)’의 예문을 참조 바란다.



시104. 강변마을에서 사문^{斯文}
이경영^{李景嶸}에게 부치다

詩104. 江上寄李斯文^{景嶸}¹⁾
강 상 기 이 사 문 경 영

江南萬里逢君處²⁾, 강남 먼 곳에서 오신 그대를 만났을 때,
강 남 만 리 봉 군 처

洛北扁舟³⁾載酒遊。 낙동강 북쪽에서 나룻배에
낙 북 편 주 재 주 유 술 싣고 노닐었지.

相思忽覺梅窓夢⁴⁾, 그리워하다 홀연 깨보니
상 사 홀 각 매 창 몽 매화 핀 창가에서 꿈 꿈이었는데,

一夜寒香滿竹樓⁵⁾。 하룻밤 새 그윽한 향기
일 야 한 향 만 죽 루 죽루^{竹樓}에 가득 찼네.

1) 강상 기이시문 경영(江上寄李斯文景嶸 : 강에서 사문^{斯文} 이경영^{李景嶸}에게 부치다) :

****역지주석:** 본 시는 한매(寒梅)가 피는 이른 봄에 화자가 하회마을에서 만났고, 낙동강 북쪽 부용대 아래서 함께 선유(船遊)를 즐겼던 ‘이경영’이라는 인물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이다.

① 강상(江上) : 강변에서

a. 상(上) : 명사 뒤에 써서 ‘강하(江河)의 기슭’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다.

*하상(河上) : 강변. 본 시에서는 ‘낙동강 강변’을 가리키며, 이는 곧 지금의 ‘하회(河回) 마을’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역대로 일컬어진 ‘하회마을의 명창’을 보면, 곡강(曲江) · 강촌(江村) · 하외(河隈) · 하곡(河曲) 등이다. 마을의

이름을 ‘하회(河回)’라고 한 것은 낙동강이 하회마을을 굽이돌아 흘러 풍수 지리적으로 태극형(太極形)·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행주형(行舟形)으로 일컬어지는데서 근거한다. 고로, 마을의 주산(主山)은 화산(花山)이라 부르고 부용대 앞을 흐르는 낙동강은 화천(花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낙동강의 상류인 화천은 동(東)에서 서(西)로 흘러와서 다시 동쪽으로 역류하다가 서쪽으로 굽이쳐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화천이 마을을 돌아나간다고 하여, ‘물돌이 마을, 곧 하회’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 ② 이시문 경영(李斯文 景嶸) : 사문(斯文) 이경영(李景嶸) :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67」의 주석 1)의 ② ‘이시문(李斯文)’과 ③ ‘경윤(景嶸)’ 조항을 참조 바람.
- 2) ① 강남(江南) : 한강남쪽 지역을 이르는 말이다.
- ② 만리(萬里) : ‘만리’는 실제거리 ‘만리’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의 ‘대략적 표현’이며, 본 시에서는 ‘만 리 떨어진 곳에서 오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봉(逢) : 만나다, 상봉하다
- ④ 군(君) : 그대
- ⑤ 처(處) : 때, 시(時)
- 3) ① 낙북(洛北) : 낙동강 북쪽. 본 시에서는 하회마을 북쪽에 위치한 옥연정사(玉淵精舍) 아래쪽을 흐르는 화천(花川)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② 편주(扁舟) : 일엽편주(一葉片舟) : 한 척의 조그마한 배
- 4) ① 상사(相思) : 그리워하다. 본 시에서는 화자가 객체인 ‘이경영(李景嶸)’을 그리워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홀각(忽覺) : 홀연 잠에서 깨어나다
- ③ 매창몽(梅窓夢) : 매화 핀 창가에서 꾸 꿈이었다.
- 5) ① 일야(一夜) : 하룻밤
- ② 한향(寒香) : 그윽한 향기, 청한(淸閑)한 향기
- ③ 죽루(竹樓) : 대나무로 지은 누각



시105. 무제 無題

詩105. 無題¹⁾ 무 제

湖上鴛鴦鳥²⁾,
호 상 원 앙 조

雙飛復同宿³⁾.
쌍 비 복 동 숙

美人來不來⁴⁾,
미 인 내 불 래

烟波空極目⁵⁾.
연 파 공 극 목

호수에서 노니는 저 원앙새는,

쌍쌍이 날다 등지로 돌아와
함께 잔다네.

미인은 오시는지 아니 오시는지,

안개 짙은 수면을
부질없이 아득히 바라보네.

1) 무제(無題): 당조(唐朝) 이래로 시인들이 시의 주제(主題)를 들어내고 싶지 않거나 제목을 붙이기 어려울 때, 무제(無題)라는 시제(詩題)를 많이 썼다. 본 시의 경우도 그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2) ① 호상(湖上): 호수에서

② 원앙조(鴛鴦鳥): 원앙(새). 오리과의 물새이다. 옛날 전설에 의하면 이 새는 자웅(雌雄)이 짝지어 살면서 떠나지 않는 까닭에 ‘필조(匹鳥: 짝지어 사는 새)’라고 칭했다. 부부를 비유하기도 한다.

3) ① 쌍비(雙飛): 암수가 쌍쌍이 날다

② 복(復): 등지로 돌아오다, 귀소(歸巢)하다

③ 동숙(同宿): 함께 잠자다

4) ① 미인(美人): 인품과 덕성이 훌륭한 사람

② 래불래(來不來): 올지 안 올지

- 5) ① 연파(烟波) : 파(煙波)로도 쓰며, 연무가 짙게 낀 수면이라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안개 짙은 수면’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공(空) : 부질없이, 헛되이, 공연히
③ 극목(極目) : 시력이 미치는 데까지 아득히 바라보다



시106. 영옥병풍^{靈玉屏風}에 쓰일 시문을 보내고
나서 풍악산^{楓岳山}을 유람하면서

詩106. 送^송靈^영玉^옥遊^유楓^풍岳^악¹⁾

一去關東數十齡²⁾,
일 거 관 동 수 십 령

처음 관동지방에 갔던 때가
수십 년 전인데,

只今塵路漫勞形³⁾。
지 금 진 로 만 노 형

지금 흙먼지 이는 그 길 가면서
몹시 지쳐있네.

空添鬢髮隨年白⁴⁾,
공 첨 빈 발 수 연 백

두발은 공연히 나이 따라
백발만 늘어나니,

未了仙山入夢青⁵⁾。
미 료 선 산 입 몽 청

신선 산다는 산이 아직 있다면
꿈에라도 (가서) 젊어지고 싶네.

春草乍遍滄海域⁶⁾,
춘 초乍 편 창 해역

봄풀이 때마침 자라 해변까지 퍼졌는데,

碧雲遙指羽人亭⁷⁾。
벽 운 요 지 우 인 정

벽운^{碧雲}은 멀리서 신선 노니는
정자 쪽으로 흘러가네.

朝來送爾臨江岸⁸⁾,
조 래 송 이 름 강 안

아침에 (병풍에 쓸) 시문 보내고
강변을 굽어보면서,

正覺高懷入杳冥⁹⁾。
정각고회입묘명

깨달음의 고상한 생각에
몰입하니 오묘하네.

- 1) ① 송(送) : 보내다
- ② 영옥(靈玉) : 불교용어이다.
☆좌두(座頭 : 좌두坐頭 : 선림(禪林 : 선종사원禪宗寺院)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이름)의 하나로, 좌두병풍(坐頭屏風 : 좌두병풍座頭屏風 : 좌두격판座頭隔板)을 가리킨다. 이것은 선림(禪林)에서 사용하는 병풍으로, 높이가 3척인데, 방 출입문의 좌우의 좌수(座首 : 앉는 자리의 제일 앞자리)에 세워둔다. 본 시에서 가리키는 ‘영옥(靈玉)’은 이 뜻으로 쓰였으며, 그 병풍에 쓰일 시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영옥 병풍에 쓰일 시문’으로 번역한다.
- ③ 유(遊) : 유람하다
- ④ 풍악(楓岳) : 풍악(楓嶽) : 풍악산(楓嶽山) : ‘가을의 금강산’을 이른다.
- 2) ① 일거(一去) : 처음으로 가다. 본 시에서는 ‘처음 갔던 때’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관동(關東) : 영동(嶺東 : 강원도에서 대관령 동쪽에 있는 지역을 이르는 말)
- ③ 수십령(數十齡) : 수십 년
- 3) ① 진토(塵土 : 흙먼지)의 노상(路上 : 길바닥), 흙먼지 이는 길. 본 시에서는 흙먼지 이는 길을 가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만(漫) : 과다하게, 많이, 무척이나
- ③ 노형(勞形) : 몸이 몹시 피곤하고 지쳐있다.
- 4) ① 공(空) : 부질없이, 괜히
- ② 첨(添) : 첨가하다, 보태다, 덧붙이다, 덧붙다
- ③ 빈발(鬢髮) : 살쩍과 머리털, 또는 머리털(두발)
- ④ 수년백(隨年白) : 나이 따라 허영게 세다
- 5) ① 미료(未了) : 끝나지 않다(종료되지 않다), 해결(完結)되지 못하다. 본 시에서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선산(仙山) : 선인(仙人 : 신화전설에 나오는 불로장생하고 갖가지神通력을 지닌 사람)이 거주하는 산
- ③ 입몽청(入夢靑) : 꿈속에서라도 젊어지고 싶다. 몽경(夢境)에 진입하다
a. 청(靑) : 젊다. 청년. 본 시에서는 ‘젊어지고 싶은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6) ① 사(乍) : 때마침
- ② 편(遍) : 널리 퍼져있다, 보편적이다
- ③ 창해역(滄海域) : 해변까지 경계로 하다
- 7) ① 벽운(碧雲) : 청운(靑雲 : 푸른 빛깔의 구름), 벽공(碧空 : 푸른 하늘)중의 구름
- ② 요(遙) : 요원하거나 거리가 너무 멀다
- ③ 지(指) : 향하다, 목표지점을 향하여 전진하다. 본 시에서는 ‘…쪽을 향하여 흘러가다’는 뜻으로 쓰였다.
- ④ 우인정(羽人亭) : 신선이 노니는 정자(亭子)

- 8) ① 조래(朝來): 이른 아침, 새벽
 ② 송이(送爾): 그 시문(詩文)을 보내다
 ③ 임강안(臨江岸): 강변을 굽어보다
 a. 이(爾): 대명사로 쓰였으며, ‘그, 그것(시제詩題에 언급된 ’영옥靈玉’을 가리킴)’의 뜻으로 쓰였다.
- 9) ① 정각(正覺): 망혹(妄惑)을 단멸(斷滅)한 올바른 깨달음. 즉 우주와 자연,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깨달음을 말한다.
 **역자주석: 본 시에서 말하는 정각(正覺)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불·도(儒佛道) 삼교(三教)가 회통(會通)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리킨다. 이 삼교의 회통은 중국의 당말(唐末)에서 북송초(北宋初)에까지 문화적 현상을 형성했고, 서애가 생존했던 조선시대는 이미 이 삼교(三教)가 각각 ‘유교에서는 성인(聖人)·불교에서는 부처·도교에서는 진인(眞人)’을 제사하고, 그 내용성에서는 또한 ‘성인에서는 온갖 행위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부처에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른 자·진인(眞人)에서는 현상계에서 청정한 본원의 존재로 되돌아 간 자’로 그 개념이 확고히 뿌리를 내렸었다. 그리하여 3교가 모두 목적으로서의 성도(成道:도를 닦아 이룸)나 내용으로서의 달도(達道:도에 통달함)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으로서의 수도(修道)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보편화된 시대였다. 고로, 유교에서는 도덕적 수양론·불교에서는 심성(心性)의 수행론(修行論), 도교에서는 성·명(性命:정신과 육체)을 하나로 보는 수련론(修煉論)이라는 각기 다른 방법론이 크게 대두되었지만, 결국은 모두 ‘인간존재에 대한 해명을 이해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추구하는 명제(命題)가 회통이 되면서 ‘수도(修道)’하는 방법의 경계선이 모호해졌고, 결과 자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수도(修道)하는 면모를 달리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본 시에서도 이 시를 쓴 서애는 도학자이지만 읊고 있는 시적 경계는 도교적인 선계(仙界) 취향을 보이고 있다(김경수, 「북송초기 삼교회통론의 양상」 참조).
- ② 고회(高懷): 고상한 생각, 포부, 대지(大志:큰 뜻). 본 시에서는 ‘고상한 생각을 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③ 입(入): 몰입하다, (오묘한 경지에) 진입하다, 들다
 ④ 묘명(杳冥): 측량할 수 없이(헤아릴 수 없이) 오묘하다

시107. 삼가 시 「정양재 汀養齋에 와서(臨汀養齋)」의
운韻을 받들어 지은 시를 기록하여
드리오니 질정 叱正 있으시기 바랍니다

詩107. 奉次臨汀養齋韻錄呈求正¹⁾
봉 차 임 정 양 재 운 녹 정 구 정



世運看來往²⁾,
세 운 간 래 왕

시대마다 성쇠의 기운
거듭되는 것을 보면,

人心驗是非³⁾。
인 심 험 시 비

인심의 옳고 그름이 점검되는 것이네요.

撫年慙不惑⁴⁾,
무 년 참 불 혹

나이로 위안하려 해도 마흔 살이 부끄럽고

求友嘆全稀⁵⁾。
구 우 탄 전 희

벗을 찾아보려 해도
기회가 너무 적어 한숨짓네요.

白日懸秋昊⁶⁾,
백 일 현 추 호

태양이 가을 하늘 멀리 떠 있는데,

文星聚紫微⁷⁾。
문 성 취 자 미

문창성文昌星은 자미원紫微垣에
모여 있네요.

銀臺連玉署⁸⁾,
은 대 연 옥 서

은대銀臺 관아는 옥서玉署 관청에
연접해 있고,

佳氣繞金屏⁹⁾.
가 기 요 금 비

좋은 운기(雲氣)는

(공공의) 문호(門戶)를 감돌고 있는데요.

- 1) ① 봉(奉) : 받들다
- ② 차·운(次·韻) : (시제詩題 …의 시를) 차운하다.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 ‘차운(次韻)’ 항목 참조 바람.
- ③ 임정양재(臨汀養齋) : 「정양재汀養齋에 와서」 : 이것은 서애가 차운한 시의 시제(詩題)이다. 역자는 그 작자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고, ‘정양재’에 대한 소재지와 내력에 대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서애가 본 시의 시제에서 쓴 형식으로 보아 이 시를 지은 작가는 서애보다 연배가 높고 직급이 고위인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 ④ 녹정(錄呈) : 기록하여 드리다
- ⑤ 구정(求正) : 질정(叱正) 있으시기 바랍니다. 삼가 잘못을 지적하여 바로 잡아 주십시오. ‘청구지정(請求指正)’의 뜻으로, 자신의 작품이나 의견에 대한 비평을 남에게 청할 때 쓰이는 말이다.
- 2) ① 세운(世運) : 시대마다 있는 성쇠(盛衰)와 치란(治亂 : 안정과 혼란)의 기운
- ② 간래왕(看來往) : 흥성과 쇠퇴를 거듭하는 것을 보다
 - a. 간(看) : 보다, 관찰하다
 - b. 내왕(來往) : 여러 차례 중복함을 (거듭함을) 이르는 말이다.
- 3) 험사비(驗是非) : 시비를(옳고 그른 것을) 점검하다
- 4) ① 무(撫) : 위안하다
 - ② 년(年) : 나이, 연령, 연세
 - ③ 참(慙) :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럽게 생각하다
 - ④ 불혹(不惑) : 『논어(論語) · 위정편(爲政篇)』에, “마흔 살에 현혹되지 않았다(四十而不惑).”는 말이 있는 까닭에, 후세 사람들은 이 ‘불혹(不惑)’이란 말을 ‘40세’의 대칭으로 썼다.
- 5) ① 구우(求友) : 친구를 찾다, 벗을 구(求)하다
 - ② 탄전희(嘆全稀) : 아주 드문 것을 탄식하다, 기회가 적은 것을 한숨짓다
- 6) ① 백일(白日) : 태양, 양광(陽光)
 - ② 현(懸) : 걸려있다, 멀리 떠 있다
 - ③ 추호(秋昊) : 가을날의 하늘
- 7) ① 문성(文星) : 별 이름으로, 문창성(文昌星 : 구성九星 가운데 넷째 별)을 가리키며 문곡성(文曲星)이라고도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별은 문재(文才)를 주관한다고 하였는데, 후에는 ‘문재(文才)’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썼다.
 - ② 취(聚) : 모이다
 - ③ 자미(紫微) : 자미원(紫微垣 : 별자리 이름으로 삼원三垣 중의 하나이다)이다. 이는 큰곰자리 중심으로 170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이다. 태미원(太微垣) · 천시원(天市垣)과 더불어 삼원이라고 부르며, 별자리를 천자의 자리에 비유한 것이다.
- 8) ① 은대(銀臺) :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의 별칭이다.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아

(官衙)이다. 즉 왕명을 하달하고 하의(下意)를 상달하는 일을 맡았다. 이 밖에도 경연(經筵)·입시(入侍)에 참여하고 추국(推鞠)에 관여하였다. 관리의 임면(任免)과 상벌 및 과시(科試), 그리고 궁중의 제향(祭享) 등 의례적인 일에도 참여하였다. 승정원은 은대 외에도 정원(政院)·후원(喉院)·대언사(代言司)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

② 련(連) : 연접(連接)하다

③ 옥서(玉署) :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이다. 조선시대 관서(官署)의 명칭으로, 삼사(三司 :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홍문관)의 하나로, 궁중의 경서(經書)와 사적(史籍)의 관리와 문한(文翰)의 처리 및 왕의 학문적 자문(諮問)에 응하던 관청이다.

9) ① 가기(佳氣) : 아름다운(좋은) 운기(雲氣 : 구름이 움직이는 모양 혹은 구름기)을 가리킨다. 고대(古代)에는 이것을 길상(吉祥)이라고 여겼으며 흥륭(興隆)하는 징조라고 생각했다.

② 요(繞) : 감돌다, (주위를) 빙빙 돌다

③ 금비(金扉) : 부귀한 문호(門戶)



시108. 송별하면서 증여한 시

詩108. 贈別¹⁾ 증 별

靑姿綠鬢照烏巾²⁾,
靑 자 녹 빈 조 오 건

청금靑衿입은 자태에
흑두건도 빛나는데,

策第佳名冠百倫³⁾.
책 제 가 명 관 백 룬

급제했단 명성까지 얻었으니
동년배 중 으뜸일세.

筆下縱橫禮樂富⁴⁾,
필 하 종 횡 예 악 부

문세文勢가 거침없고
예악禮樂 재능도 뛰어나며,

胸中浩汗詩書新⁵⁾.
흉 중 호 한 시 서 신

심중의 생각이 웅대한데다
시서詩書까지 능해 신선하네.

鄉閭共愛生庭玉⁶⁾,
향 려 공 애 생 정 옥

향민鄉民이 모두 사랑하니
(자네는) 살아있는 옥수玉樹라,

邦國終須薦席珍⁷⁾.
방 국 종 수 천 석 진

조정에서도 결국
자네의 재학才學을 천거할걸세.

此去人間眞得意⁸⁾,
차 기 인 간 진 득 의

이때 세상에 나가면 진실로
득의得意할 것이니,

御輪歸拜北堂春⁹⁾
이 룬 귀 배 북 당 춘

수레 몰고 귀가해서 모친 방에
생기 돌게 배례拜禮 올리게나

(서애주석: 病未出, 別一詩代面)¹⁰⁾
병 미 출 별 일 시 대 면

- 1) 증별(贈別): 송별할 때 물품이나 시문(詩文) 등을 서로 증여하다. 본 시는 모인(某人)을 ‘송별할 때 증여한 시’이다.
- 2) ① 청자(靑姿): 푸른 것의 옷[靑衿]을 입은 자태, 곧 유생(儒生)을 칭하는 말이다.
 - a. 청(靑): 청금(靑衿): 靑襟: 당시 학생이 입던 옷)을 입다. 이는 중국의 고대학자와 명·청(明清) 시대의 수재(秀才)들이 입던 상복(常服)인 동시에, 조선의 유생(儒生)들이 입던 평상복이다. 앞의 「시39」의 주석 4)의 ② ‘청삼(靑衫)’ 조항도 참조 바람.
 - b. 자(姿): 모습, 용모, 자세, 자태
- ② 녹빈(綠鬢): ‘새까맣게 빛나는 빈발(鬢髮: 살쩍과 머리털을 아울러 이르는 말)’의 뜻으로, ‘검은 머리털[두발]’을 가리킨다.
- ③ 조(照): 빛나다
- ④ 오건(烏巾): 흑두건(黑頭巾), 흑색 두건. 고대에 은거하며 벼슬하지 않는 사람이 주로 썼던 모자이다.
- 3) ① 책제(策第): 책시(策試: 경문經文이나 정사政事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요구해서 선비를 시험하는 것임)와 선평(選評: 고대에 관리를 선발하면서 치르던 시험으로, 여럿 가운데서 골라 비평하던 과정을 이룸)
 - a. 책(策): 옛날에 고시(考試)를 통해서 선비를 뽑는데, 응시자에게 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책(策)’이라고 한다. 묻는 것을 ‘책문(策問)’이라 하고, 대답하는 것을 ‘대책(對策)’이라고 한다.
 - b. 제(第): 과거(科擧)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선발등급을 매기는 것을 ‘제(第)’라고 한다. 과거의 칭호나 관직의 등급을 가리키기도 한다.
- ② 가명(佳名): 좋은 명예. 좋은 평판. 명성이 높아 붙여진 미명(美名). 본 시에서는 ‘과거에 급제한 명성’의 뜻으로 쓰였다.
- ③ 관(冠): 앞서다, 뛰어넘다, 상회하다, 우승하다, 으뜸이다
- ④ 백(百): 모든, 매우 많은
- ⑤ 룬(倫): 무리, 동류(同類), 동배(同輩), 동년배
- 4) ① 필하(筆下): ‘문장, 문세(文勢)’를 가리킨다.
- ② 종횡(縱橫): 힘차게 (사상, 감정, 문장의 기세 따위가) 뿔어 나오다, 굵구치다, 약동하다.
- ③ 예악(禮樂): 예절(예법)과 음악. 본 시에서는 그 재능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고대 제왕은 예악을 상용하는 수단으로 준비의 질서를 다스리고 원근화합의 통치 목적을 달성했다.
- ④ 부(富): 풍부하다, 풍족하다는 말인데, 본 시에서는 ‘(재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5) ① **흉중(胸中)**: 심중, 품은 생각. 사람의 사상경계가 정신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쓴다.
- ② **호한(浩汗)**: 호한(浩瀾)과 같은 의미로 쓰며, (면적, 공간이) 넓거나 사물이나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을 형용한 말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심중의 생각이 웅대한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시서신(詩書新)**: 시서(詩書)가 (능해) 신선하다.
- 6) ① **향려(鄉閭)**: 같은 고향사람
****역주석**: 향려(鄉閭)는 조선시대에는 유림(儒林)들이 기거(起居)하던 곳으로 숭배하던 유림을 위해 제향(祭享)도 지내던 집이기도 하여, 유교사회에서 ‘향려’는 향리에서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기도 했다. 지금은 사전에도 없고 실생활에서 사용하지도 않지만, 문헌에는 종종 나온다.
- ② **생(生)**: 살아있다
- ③ **정옥(庭玉)**: 정원에 있는 옥수(玉樹: 회화나무). 우수한 자제(子弟)를 비유하는 말로 쓴다.
- 7) ① **방국(邦國)**: 국가, 나라, 조정
- ② **종(終)**: 마침내, 결국
- ③ **수(須)**: 반드시, 틀림없이
- ④ **천(薦)**: 천거하다
- ⑤ **석진(席珍)**: 좌석 위에 둔 진귀한 보물. 이는 곧 유자(儒者)의 훌륭한 才學을 비유한 것이다. 중국 육조시대(六朝時代) 양(梁)나라의 문예평론가 유헌(劉勰: 465?~520?)이 쓴 『문심조룡(文心彫龍)·원도(原道)』에서, “〈공자의 가르침은 마치 목탁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木鐸起而千里應), 〈그의 학문과 도덕은〉 자리위의 진귀한 보물들이 전하여지듯이 만대를 걸쳐 이어지며 메아리친다(席珍流而萬世響).”라는 대목에 보인다. 앞의 「시 32」의 주석 18)의 ② ‘석상진(席上珍)’ 조항을 참조 바람.
- 8) ① **차(此)**: 이때, 여기(이곳)
- ② **인간(人間)**: 진세(塵世), 세속사회세상
- ③ **진(眞)**: 참으로, 진실로
- ④ **득의(得意)**: 뜻을 얻다, 뜻을 이루다
- 9) ① **어륜(御輪)**: 수레를 몰다
- ② **귀배(歸拜)**: 귀가한 다음 …에게 배례(拜禮) 올리다
- ③ **북당(北堂)**: 모친의 거실
- ④ **춘(春)**: 초목이 성장하고 꽃이 피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자주 ‘생기(生機)’를 비유한 말로 쓴다.
- 10) ****서애주석**: “병을 아직 몰아내지 못해서(病未出), 송별하며 짓는 한 수의 시로 상면하는 것을 대신한다(別一詩代面)”:
- ① **병미출(病未出)**: 병을 아직 몰아내지 못하다
 a. **출(出)**: 구축(驅逐)하다, 몰아내다
- ② **별일시(別一詩)**: 송별하면서 지은 시 한 수
- ③ **대면(代面)**: 상면(相面)하는 것을 대신하다

시109. 녹음 綠陰

詩109. 綠陰¹⁾
녹 음



却掃還成癖²⁾,
각 소 환 성 벽

내객來客을 사절함은
여전이 오랜 습관이 되었지만,

端居養道眞³⁾.
단 거 양 도 진

평소에 도덕과 학문의 참된 도리는
양생養生 하네.

閒看時節變⁴⁾,
한 간 시 절 변

계절의 변화를 차분히 바라보고 있자니,

靜喜樹林新⁵⁾.
정 희 수 립 신

수림의 청신함에
잔잔한 기쁨이 느껴지네.

映日初分影⁶⁾,
영 일 초 분 영

햇빛이 비치자 금방 그늘과
뚜렷이 구분되는데,

藏花欲挽春⁷⁾.
장 화 욕 만 춘

못다 핀 꽃들은 가는
봄을 잡아두려 하네.

苔堦晝常寂⁸⁾,
테 계 주 상 적

이끼 낀 계단은 낮에도
항상 정적이 감돌기에,

幽思坐超塵⁹⁾
유사좌초진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앉아서
세속을 초탈했네.

-
- 1) 녹음(綠陰): 푸른 잎이 우거진 초목, 또는 그 초목의 그늘
- 2) ① 각소(却掃): 각소(卻掃)로도 쓴다. 다시는 문전의 길 쓸어가며 손님을 영접하지 않다. 내객을 거절하는 것, 즉 방문객을 사절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a. 각(却): 거절하다
b. 소(掃): 소제하다
- ② 환(還): 여전히
- ③ 성벽(成癖): 습관이 되다
- 3) ① 단거(端居): 평상시, 평소
- ② 양(養): 양생(養生)하다
- ③ 도진(道眞): 도덕과 학문의 진제(眞諦: 참된 도리)
*진제(眞諦): ‘진제(眞諦)’로도 읽는다. 이 말은 원래 불교용어로서, ‘속제(俗諦: 세속적 입장에서서의 진리)’와 ‘진제(眞諦: 궁극적인 입장에서서의 진리)’를 합칭하여 ‘이제(二諦)’ 또는 ‘진속이제(眞俗二諦)’라고 한다. 이 말은 ‘가장 진실한 의의(意義)나 도리’를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가장 진실한 도리’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4) ① 한간(閒看): 조용히 (고요히) 바라보다
② 시절변(時節變): 계절이 바뀌다(변하다)
- 5) ① 정희(靜喜): 잔잔한 기쁨이 느껴지다
② 수림신(樹林新): 수림이 청산하다. 수림의 청신함.
- 6) ① 영일(映日): 비치는 햇빛. 햇빛이 비치다.
② 초(初): 금방, 방금, 막
③ 분(分): 구분하다, 식별하다
④ 영(影): 그림자, 그늘
- 7) ① 장화(藏花): 숨어있는 꽃. 아직 피지 않은 꽃을 형용한 말이다. ‘뭇다 핀 꽃’이라 번역한다.
② 욕(欲): …하고 싶어 하다, 바라다, …하러 하다. 본 시에서는 ‘…하기 바라다’는 뜻으로 쓰였다.
③ 만춘(挽春): 가는 봄을 잡아 두다
- 8) ① 태계(苔階): 이끼 낀 계단
② 주상적(晝常寂): 낮에도 늘 정적이 감돌다
- 9) 유사좌초진(幽思坐超塵: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앉아서 세속을 초탈했네):
**역주주석: 본 시구는 “생각을 고요하게 하니 절로 세속에서 벗어나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① 유사(幽思): 깊은 생각에 잠기다, 생각을 고요하게 하다
② 좌초진(坐超塵): 앉아서 세속을 초탈하다
**역주주석: ‘저절로 세속을 벗어나게 되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
a. 좌(坐): 앉다. 부사로 쓰일 경우에는 ‘절로, 잠시’등의 뜻으로도 쓴다.
b. 초진(超塵): 세속을 초월하다, 진속(塵俗)을 초탈하다, 세속을 벗어나다

시110. 모某 공公에게 기증하다

詩110. 寄贈缺¹⁾
기증



聞公駐節海雲邊²⁾,
문공주절해운변

듣자니 공公은 해변에서
사명 수행 차 머문다니,

芳草天涯客夢牽³⁾.
방초천애객몽견

방초芳草같은 공公은
변방에서 객몽客夢에 시달리겠소.

學道愛人元素志⁴⁾,
학도애인원소지

유도儒道로 애민愛民하는게
(공의) 평소 염원인데,

登車攬轡自前賢⁵⁾.
등거람비자전현

수레 고삐 잡고 (군주에게) 간諫한 것은
선현先賢에서 비롯됐지요.

淳邦舊說遺風遠⁶⁾,
순방구설유풍원

순방淳邦의 옛 학설로서
그 풍교風教 전래 된지 오래인데,

末俗今傷染化遷⁷⁾.
말속금상염화전

저속한 풍속에 당대當代 인륜 손상되어
교화教化도 바뀌었소.

棠下佇看騰異誦⁸⁾,
당하저간등이송

팔배나무 아래서 관상觀賞하는데
이인異人이 읊은 시가詩歌 전해왔으니,

一方民物正顛連⁹⁾.
일 방 민 물 정 전 련

일부 지방민의 가산家産은
때마침 곤궁하여 고통스럽다네요.

- 1) 결(缺): 여기의 ‘결(缺)’자는 본 시를 편집한 사람의 의견인 듯 하다. ‘결자(缺字)’가 쓰여진 위치는 본 시를 받는 당사자의 성명이 기록되는 곳인데, 편집당시에 기명(記名)한 부분이 파손되어 편집자가 의미로 써넣은 것이 아닌가 한다. 아니면, 이 ‘결(缺)’자는 ‘결필(缺筆: 자획이나 자수 자체를 생략함)’의 약칭으로 썼을 수도 있겠다. 옛날에 이렇게 결필하는 것은 ‘피휘(避諱: 휘자諱字를 피함. 군주나 선조 또는 존장 등의 이름에 있는 글자를 직접 말하거나 쓰기를 꺼려 다른 자로 바꾸거나 공란으로 비워둠)’하는 일종의 방식으로 많이 썼다.
- 2) ① 주절(駐節): 옛날에 요직에 근무하는 관원이 사명(使命: 맡겨진 임무)을 집행하기 위해 그 지방에 가서 머무는 것을 가리킨다.
 - a. 주(駐): 머무르다
 - b. 절(節): ‘부절(符節: 신표信標: 부신符信)’의 뜻이다. 이것은 목편(木片) 또는 죽편(竹片)에 글을 쓰고 증인(證印)을 찍은 후에 두 쪽으로 쪼개어, 한 쪽은 상대방에게 주고 다른 한 쪽은 자기가 보관하였다가, 후일에 서로 맞추어 증거로 삼는 것이다.
- ② 해운변(海雲邊): 바닷가, 해변
- 3) ① 방초(芳草): 꽃다운 풀, 향기가 좋은 풀, 향기롭고 꽃다운 풀이다. 본 시에서는 충정(忠貞)하고 현덕(賢德)한 사람임을 비유한 뜻으로 쓰였다.
 - ② 천애(天涯): ‘천변(天邊: 하늘의 끝, 하늘 가)’과 같은 말로서, ‘지극히 먼 곳, 변방(邊方)’ 혹은 고향을 떠난 타향을 가리킨다.
 - ③ 객몽건(客夢牽): 타향에서 객몽(客夢)에 시달리다
 - a. 건(牽): 거리끼다, 구애(拘碍)되다. 본 시에서는 ‘시달리다’로 번역한다.
- 4) ① 학도(學道): 도예(道禮), 즉 ‘도(道)와 예(禮)를 학습하다’는 뜻으로, ‘유가(儒家)의 학설을 학습하다’는 말이며, 예를 들면, 인·의·예·악(仁義禮樂) 같은 것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애인(愛人): 백성을 애호하거나 타인과 우애롭게 지내는 것을 말한다.
 - ③ 원(元): 제일의 으뜸가는, 근본적인, 본래, 원래
 - ④ 소지(素志): 으뜸가는 평소의 포부(염원, 희망)
- 5) ① 남비(攬轡): 남비(攬轡)로도 쓰며, ‘말고삐를 잡아당기다(좌다)’는 뜻이다. 이 말은 군왕에게 간하여 군왕의 위험을 중지시키도록 하다는 뜻으로 쓴다.

☆『사기(史記)·원왕조조열전(遠盎皀錯列傳)』에, “한문제(漢文帝: 유황劉恒: BC 202~BC 157)가 패릉현(霸陵縣: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서안시西安市 동북)의 산상山 위에서(文帝從霸陵上), 서쪽의 가파른 산비탈로 말을 타고 달려 내려가려고 하였다(欲西馳下峻阪). 그때 원앙(遠盎: ?~BC 148: 조국楚國 출신의 서한西漢 무장)이 말을 타고(遠盎騎), 황제의 수레에 바짝 붙어서 (황제가 탄) 수레의 고삐를 잡고 좌었다(並車攬轡). 그러자 황제가 말하기를(上曰): ‘장군은 겁이 나는거요(將軍怯邪)?’라고 하니, 원앙이 말하기를(盎曰): ‘신이

듣기에, 집에 천금이 있는 사람은 처마 밑에 앉지 아니하고(臣聞千金之子坐不垂堂), 백금百金을 가진 부자도 마루 난간에 걸터앉지 않으며(百金之子不騎衡), 현명한 군주는 모험을 통한 뜻밖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聖主不乘危而徼幸).’고 하였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여섯 필의 말이 끄는 수레를 몰아(今陛下騁六駢), 가파른 고산 산비탈을 질주하여 내려가려 하시는데(馳下峻山), 만일 말이 놀라 수레가 부서진다면(如有馬驚車敗), 폐하께서는 자신을 너무 경시하셨은즉(陛下縱自輕), 종묘와 태후께는 무슨 면목으로 대하시겠습니까(奈高廟太后何)?’라고 하니, 황제는 비로소 중지하였다(上乃止).”고 한 대목이 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남비(攬轡)란 말을 군왕에게 간(諫)하여 군왕의 이험(履險: 위험한 일을 행함)을 중지시키도록 하다는 뜻으로 썼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원앙(遠盎: ?~BC 148): 전한(前漢) 초(楚)나라 사람이다. 나중에 안릉(安陵: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함양시咸陽市 동북부)으로 옮겼다. 자는 사(絲)이고, 원앙(爰盎)이라고도 불린다. 처음에 낭중(郎中)이 되었다. 원래 직간(直諫)을 잘해 이름이 조정에 알려졌다. 제상(齊相)과 오상(吳相)을 역임했다. 왕이 특히 그를 후대했다. 평소 조조(龜錯: BC 200~BC 154)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경제(景帝: BC 188~BC 141)가 즉위하자 조조가 어사대부(御史大夫)가 되었는데, 관리를 시켜 그가 오왕의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엮어 넣도록 하여 서인(庶人)이 되었다. 조조의 삭번(削藩) 정책으로 오초(吳楚)가 반란을 일으키자 황제에게 조조를 죽여 오나라에 사과하라는 건의를 하였다. 오초가 격파된 뒤 초상(楚相)으로 있다가 등용되지 못하자 병을 핑계로 사직했다. 나중에 양효왕(梁孝王)을 황제의 후사로 결정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간언을 올렸다가 안릉(安陵)의 관문(郭門) 밖에서 양효왕이 보낸 자객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 ② 자전현(自前賢): 선현(先賢)이 시작하다
- 6) ① 순방(淳邦): 순박한 나라
 - ② 구설(舊說): 옛 학설(관점, 생각)
 - ③ 유풍원(遺風遠): 선대(先代)가 남긴 풍속교화는 오래되었다.
- 7) ① 말속(末俗): 말세의 풍속, 수준 낮은 습속(習俗)
 - ② 금상(今傷): 당대(當代)에 와서 유풍(儒風: 유교적 풍속)이 손상되다
 - ③ 염화천(染化遷): 훈도교화(薰陶教化)가 변천되다.
 - a. 염화(染化): 훈도교화(薰陶教化)
 - b. 천(遷): 변천하다(되다), 변화하다(되다)
- 8) ① 당(棠): 감당(甘棠): 팔배나무: 장미과의 낙엽활엽교목이다. 높이는 10m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달걀모양 또는 타원형이다. 4~5월에 흰 꽃이 방상(房狀) 꽃차례로 피고, 열매는 타원형의 이과(梨果)로, 10월에 익는다. 목재는 기구재나 땃나무로 쓰고, 열매는 식용한다. 이 나무와 관련된 성어(成語)가 있으니, ‘감당지애(甘棠之愛)’이다.

*감당지애(甘棠之愛): 백성이 시정자(施政者)의 덕을 앙모하라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주(周)나라의 소공(召公)의 선정(善政)에 감격하여 백성들이 그가 일찍 쉬었던 팔배나무[棠]를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시경(詩經)·소남(召

南)·감당(甘棠)』을 참조하면 되겠다.

****역지주석** : 본 식구에서 읊은 ‘팔배나무 아래 서서 관상觀賞하다(棠下佇看)’는
말은 군왕의 선정을 양모하는 한편, 고위관료인 자신도 선정을 다짐하는 시간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② 하(下) : … 아래서
 - ③ 저간(佇看) : 우두커니 서서 …을 감상하다(바라보다)
 - ④ 등(騰) : 전달하다, 건네주다
 - ⑤ 이승(異誦) : 이인(異人)이 읊은 시가(詩歌)
- 9) ① 일방(一方) : 어떤 지방
- ② 민물(民物) : 백성의 재물. 백성의 가산(家産)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정(正) : 때마침, 바로
 - ④ 전련(顛連) : 피곤하여 참을 수 없다. (생활상의) 어려움, 고통. (생활이) 곤궁하여
고통스럽다.

시111. 제목 미상

-여섯 수-

詩111. 題未詳 六首
제 미 상 육 수



其一
기 일

[1]

半世辭簪笏¹⁾,
반 세 사 참 홀

반평생 되는 나이에 관직에서 물러나,

閒居數畝中²⁾.
한 거 수 묘 중

몇 묘畝 안 되는 집안에서
한가하게 머무네.

聞君多情趣,
문 군 다 정 취

그대의 말씨를 듣자하니
정취 흠뻑 풍기는데,

綽有古人風³⁾.
작 유 고 인 풍

옛 사람의 풍도를 넉넉하게 갖췄네그려.

其二
기 이

[2]

坐憶南溪谷⁴⁾,
좌憶 남 계 곡

앉아서 남계정사南溪精舍
계곡을 회상하는데,

春來幾樹花。
춘 래 기 수 화

봄이 왔으니 몇 그루 나무에
꽃이 피었겠네.

天涯⁵⁾望鄉淚,
천 애 망 향 루

머나먼 고향 쪽을 바라보다
눈물이 흘러서,

寄洒漢江波⁶⁾。
기 쇠 한 강 파

(그 눈물 향리에) 부치고자
한강물에 뿌렸네.

其三 기 삼

[3]

一樽⁷⁾醒復醉,
일 준 성 부 취

술 한 동이 놓고
깨었다 취했다 반복하면서,

頽然臥松石⁸⁾。
퇴 연 와 송 석

비칠비칠 하다가
소나무 옆 바위에 누웠네.

盡日不逢人,
진 일 불 봉 인

진종일 사람 하나 만나지 못했는데,

風來松子落⁹⁾。
풍 래 송 자 락

바람이 불어오자 솔방울이 떨어지네.

其四 기 사

[4]

世事浮雲外¹⁰⁾,
세 사 부 운 외

세상사 떠도는 구름처럼 멀게 느껴져서,

吾生更得休¹¹⁾。
오 생 경 득 휴

내 생애에 또 다시 사직辭職을 해야 했네.

時登小亭望,
시 등 소 청 망

때때로 작은 정자에 올라
풍경을 바라보는데,

幽興亦難收¹²⁾。
유 흥 역 난 수

그윽한 그 흥취는
역시 거둬들이기 어렵네.

其五
기 오

[5]

君非今世人，
군 비 금 세 인

그대는 금세¹²⁾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나니,

有似汝南黃¹³⁾。
유 사 여 남 황

(동한東漢) 여남군汝南郡의
(현인) 황헌黃憲과 흡사하니 말일세.

閉門終不出，
폐 문 종 불 출

대문 닫아놓고
진종일 외출하지 않는데도,

雙鬢已蒼蒼¹⁴⁾。
쌍 빈 이 창 창

양쪽 귀밑머리 이미 희끗희끗해졌네.

其六
기 육

[6]

門外無車馬，
문 외 무 거 마

문밖에는 내객來客의 거마車馬가 없으나,

園中有芋栗¹⁵⁾。
원 중 유 우 율

뜰 안에는 토란과 상수리나무가 있네.

偃仰朝復昏¹⁶⁾，
언 앙 조 부 혼

아침저녁으로 한가롭게 안거安居 하니,

生涯卽此足¹⁷⁾。
생 애 즉 차 족

(내) 생애가 바로 이 정도면
족한 것이지.

1) ① 반세(半世): 반평생. 본 시에서는 ‘반평생 되는 나이’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사(辭) : 사퇴하다, 관직에서 물러나다
- ③ 잡홀(簪笏) : 관직(冠簪: 관에 꽂는 비녀)과 수판(手版: 손에 쥐는 홀笏). 옛날에 벼슬아치가 사용하던 것으로, ‘관원(官員)’이나 ‘관직’을 비유한 말로 쓴다.
- 2) ① 수(數) : 수사(數詞)로서, ‘몇’의 뜻으로 쓰였다.
- ② 묘(畝) :
 ☆농지(農地), 전지(田地). 본 시에서는 가택(家宅)의 면적을 형용한 뜻으로 쓰였다.
 ☆토지의 면적 단위로서 1묘(一畝)는 30평으로, 99.17m²이다.
- ③ 중(中) : 본 시에서는 명사 뒤에 쓰여 장소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였다.
- 3) ① 작(綽) : 넉넉하다, 여유 있다, 많다
- ② 유(有) : 많이 있다(갖췄다)
- ③ 고인풍(古人風) : 옛 사람의 풍도
- 4) ① 좌억(坐憶) : 앉아서 …을 회상하다
- ② 남계곡(南溪谷) : 남계정사(南溪精舍)의 계곡
- a. 남계(南溪) : 남계정사(南溪精舍)
 *남계정사(南溪精舍) : 「서애연보(西厓年譜)」에 의하면, 이 정사(精舍 : 학문 연구와 정신 수양을 하던 곳으로, 곧 서당임)는 서애의 부친 관찰공(觀察公 : 입암 立巖 류중영柳仲郢)이 재실(齋室)을 지으려다 짓지 못하고 있다가 1581년(병술년, 선조 14, 서애 45세) 3월에 서애가 비로소 완성하였다. 서당의 위치는 경북 군위읍 대북2리(서원리라고도 함)에 있는 산기슭(솔터)에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앞의 「시41」 주석 1)의 ① ‘남계(南溪)’조항을 참조 바람.
- 5) 천애(天涯) : ‘천변(天邊 : 하늘의 끝, 하늘가)’와 같은 말로서, ‘지극히 먼 곳’을 가리킨다.
- 6) ① 기(寄) : 부치다
- ② 췌(洒) : 기본적인 의미는 ‘물을 뿌리다’는 뜻이나, 본 시에서는 화자의 망향의 눈물을 흐르는 한강물에 뿌린다는 의미로 쓰였다.
- ③ 한강파(漢江波) : 한강물의 흐름 혹은 물줄기
- 7) 일준(一樽) : 한 동이 술
- ① 준(樽 : 尊) : 술을 담는 항아리 모양의 그릇이다. 모양이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모양에 따라 화준(犧尊 : 주로 목제인 짐승 모양의 술 항아리), 상준(象樽 : 코끼리 문양을 새기거나 그 모양으로 만든 술 항아리), 저준(箸樽), 호준(壺樽), 대준(大樽) 등이 있다. 이것들은 주로 제사 때 술이나 명수(明水)를 담는데 쓴다. 준(樽)을 절그릇으로 된 술잔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나, 본 시에서는 의미상 ‘동이로 번역한다. (준尊에는 자기磁器로 만들어진 도자제기陶磁祭器, 곧 제사祭祀에 사용되는 기명器 皿과 이와는 무관한 생활 속에서 술을 마시는데 쓰는 온갖 그릇을 칭하는데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9」의 주석 22)의 ① ‘준(樽)’조항을 참조 바람.
- 8) ① 퇴연(頽然) : 거꾸러지는 모양,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양.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비칠비칠 하다’로 번역한다.
- ② 와송석(臥松石) : 소나무 옆 바위에 드러눕다
- 9) 송자락(松子落) : 솔방울이 떨어지다.
- 10) ① 세사(世事) : 세상사(世上事 :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 ② 부운외(浮雲外): 뜬 구름 밖에 있다, 뜬 구름처럼 관심에서 멀다
- 11) ① 오생(吾生): 나의 생애
 ② 갱(更): 다시, 또, 더욱, 한층 더
 ③ 득(得): 조동사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
 ④ 휴(休): 사거(辭去)하다, 고별하고 떠나다. 사직(辭職)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12) ① 유흥(幽興): 그윽하고 품위 있는 흥미(흥취)
 ② 역난수(亦難收): 역시 거두어들이기 어렵다.
- 13) ① 유사(有似): 유사(類似)하다. ...와 같다(비슷하다)
 ② 여남황(汝南黃): 동한(東漢) 여남(汝南) 출신의 황헌(黃憲)
 a. 여남(汝南): 동한(東漢) 여남군(汝南郡)
 b. 황(黃): 황헌(黃憲)을 약칭한 것이다.
 ☆ 황헌(黃憲: 생몰년 미상): 자(字)가 숙도(叔度)로서, 동한의 여남군 신양현(愼陽縣),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정양현(正陽縣) 사람이다. 세상명리에 자유로운 사람을 말한다. 동한의 학자 곽태(郭太: 128~169)가 말하기를, “숙도叔度는 수면水面이 왕왕汪汪하게 드넓어 마치 천 이랑의 물결과 같은 사람이라(叔度汪汪如千頃陂), 뒤섞어 혼탁하게 하려고 해도 탁해지지 않으니(渇之不濁), 참으로 측량할 수 없다(不可量也).”고 평가하였다. 기록된 황헌에 관한 史料가 부족하다. 기타의 자세한 내용은 『후한서(後漢書)·황헌전(黃憲傳)』을 참조 바란다.
- 14) ① 쌍빈(雙鬢): 양쪽 귀밑머리
 ② 이(已): 이미
 ③ 창창(蒼蒼): 희끗희끗하다
- 15) ① 원중(園中): 뜰 안에는, 텃밭에는
 ② 유(有): 존재하다, 있다
 ③ 우울(芋栗):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상수리나무[도토리나무]’란 설이고, 둘째 ‘토란과 상수리나무’라는 설이다. ‘상수리나무[도토리나무]’라고 하는데 ‘토란’이란 뜻의 ‘우(芋)’자가 들어간 것은 도토리와 토란 뿌리의 모양이 흡사한 까닭에서라고 한다. 역지는 ‘우울(芋栗)’을 ‘토란과 상수리나무’로 번역한다.
- 16) ① 언앙(偃仰): 부앙(俯仰: 고개를 숙임과 쳐들)하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다. 전(轉)하여 (엎드렸다 일어났다 마음대로 하니) 안거(安居)하다, 편안하게 한가로이 지내다, 유락(遊樂)하다.
 ② 조부혼(朝復昏): 아침과 저녁. 아침이 되었다 저녁이 되다. 전(轉)하여 조혼(朝昏)의 의미이고 날짜, 생활의 뜻으로 쓰인다.
- 17) 즉차족(卽此足): 이 정도면 족한 것이다.



시112. 어제 정안기鄭安奇 군을 만나서

(학봉노형鶴峯老兄의 새 거처지가) 경치 좋은
곳이란 소리를 듣고, 잠시 고상한
운치가 있는 (노형의) 시를 (정군과) 읊다가,
삼가 보운步韻하여 학봉형께 드린다

詩112. 昨逢鄭安奇聞得勝地 且誦雅韻

작 봉 정 안 기 문 득 승 지 차 승 아 운

謹步奉呈鶴峯老兄¹⁾

근 보 봉 정 학 봉 노 형

淸詩傳誦儘堪憐²⁾,
淸 시 전 승 전 감 렴

청신한 시 전승傳誦됨은
참으로 애호할 만해서인데,

泉石聊將慰暮年³⁾.
천 석 료 장 위 모 년

산천에서의 한담閑談은
늘그막의 위안이지요.

聞道新居開勝地⁴⁾,
문 도 신 거 개 승 지

듣자하니 새 거처지는
명승지에 지었다는데,

想應高眺盡平川⁵⁾.
상 응 고 조 진 평 천

짐작컨대 고지高地에서 조망하면
온통 평원이겠네요.

林禽囀處間邊鬧⁶⁾,
임금전처한변료

산새들이 지저귀는 곳이라
한적한 주변 시끄럽겠지만,

物象籠來靜裏娟⁷⁾.
물상룡래정리연

풍광 속에 새장 걸어둔 격이니
고요 속의 행복이지요.

意會自能成妙趣⁸⁾,
의회자능성묘취

내심으로 깨우치면 절로 미묘한 흥취
이룰 수 있는데,

不知何許有眞仙⁹⁾.
부지하허유진선

어느 때 선인(仙人)이 나타날지
알 수 없겠네요.

-
- 1) ① 정안기(鄭安奇): 미상
② 문득(聞得): …(라고) 들었다. 듣자니 …라고 한다
③ 승지(勝地): 지세(地勢)가 훌륭한 곳, 경치가 좋은 곳
④ 차송이운(且誦雅韻: 잠시 고상한 운치가 있는 시를 <정군과> 읊다가):
⑤ 근(謹): 삼가
⑥ 보(步): 이는 보운(步韻: 타인의 시에 화답하여 매 연聯에 모두 그 원래의 운을 사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차운(次韻)이라고도 칭한다. 관련 내용은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 ‘차운(次韻)’조항을 참조 바람.
⑦ 봉정(奉呈): 받들어 올리다, 헌상(獻上)하다, 드리다
⑧ 학봉(鶴峯): 조선 중기의 문신 김성일(金誠一: 1538~1593)의 호(號)이다. 관련 내용은 앞의 「시96」의 주석 1)의 ② ‘학봉(鶴峯)’조항을 참조 바람.
⑨ 노형(老兄):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을 가리킨다. 본 시에서는 남성 상호간의 존칭의 뜻으로 쓰였다.
- 2) ① 청시(淸詩): 청신한 시편(詩篇).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맑고 밝은 시
② 전송(傳誦): 세상에 전해진 시를 암송(또는 낭독)하다. 여러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가며 암송하다.
③ 진(儘): 참으로, 대단히, 몹시, 아주
④ 감(堪): …할 수 있다, (…하기에) 족하다
⑤ 띤(憐): 사랑스럽다, 귀엽다. 본 시에서는 ‘애호(愛護)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3) ① 천석(泉石): ‘산수(山水) · 산천(山泉)’과 같은 말이다.
② 료(聊): 한담(閑談)하다
③ 장(將): 곧, 바로
④ 위모년(慰暮年): 늙고막을 위안하다

- 4) ① 문도(聞道) : 듣건대, (…라고) 들었다
 ② 신거(新居) : 신축한 주택.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으며, ‘학봉 김성일 공의 주택’을 가리킨다.
 ③ 개승지(開勝地) : 명승지에 신축하다
- 5) ① 상응(想應) : 짐작컨대, 아마도
 ② 고조(高眺) : 높은 곳에서의 조망(眺望), 높은 곳에서 조망하면
 ③ 진(盡) : 모두, 전부, 다, 온통
 ④ 평천(平川) : 광활하고 평탄한 곳, 평원(平原)
- 6) ① 임금(林禽) : 숲속의 금조(禽鳥 : 날짐승, 조류鳥類), 산새
 ② 전처(轉處) : 지지귀는 곳
 ③ 한변(閑邊) : 한적한 주변
 ④ 뇨(鬧) :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 7) ① 물상(物象) : 경물, 풍경, 풍광(風光)
 ② 농래(籠來) : 새장을 놔두다(걸어두다)
 ③ 정리연(靜裏娟) : 고요속의 아름다움이다
- 8) ① 의회(意會) : 내심으로 깨닫다(이해하다, 파악하다, 납득하다)
 ② 자능(自能) : 절로 …할 수 있다. 스스로 능해지다, 절로 능력이 생긴다
 ③ 성묘취(成妙趣) : 깊고 정밀한 취지를 이루어내다
- 9) ① 부지(不知) : 알지 못하다
 ② 하허(何許) : 어느 때
 ③ 유(有) : 나타나다
 ④ 진선(眞仙) : 선인(仙人)



시113. 사월 스무 이렛날, 옥연정사에
 강풍이 불었다. 때마침 사순^{士純}
 김성일^{金誠一} 공이 성산^{星山}에서 산을
 유람하며 지은 여러 수의 시를
 보내왔는데, 각종 시체^{詩體}를 구비한 그
 시들이 진귀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어
 감탄한 나머지, 일일이 다 화답할
 수는 없지만, 아래의 시 한 수를 보내
 드린다

詩113. 四月二十七日 大風在玉淵精舍
 사 월 이 십 칠 일 대 풍 재 옥 연 정 사
 適^適士^士純^純自^自星^星山^山寄^寄示^示遊^遊山^山諸^諸詩^詩 衆^衆體^體俱^俱備^備金^金玉^玉鏗^鏗鏘^鏘
 적 사 순 자 성 산 기 시 유 산 재 시 증 체 구 비 금 옥 경 장
 感^感歎^歎之^之餘^餘 不^不能^能盡^盡和^和只^只次^次首^首篇^篇奉^奉呈^呈¹⁾
 감 탄 지 여 불 능 진 화 지 차 수 편 봉 정

顛風終日欲翻河²⁾,
 전 풍 종 일 욕 번 하

광풍狂風이 종일 불어
 강물이 역류하려 하고,

白浪掀船奈渡何³⁾.
 백 랑 혼 선 내 도 하

흰 파도가 배를 흔드니
 어찌 강을 건너겠소!

事與去來成轉燭⁴⁾,
 사 여 기 래 성 전 촉

인생사는 사람의 거취 따라
 바람 앞의 촛불이 되고,

心隨躁靜覓空花⁵⁾。
심 수 조 정觅 공 화

마음은 초조와 평온에 따라
환상의 꽃을 추구하지요.

衰年晚卜藏蹤地⁶⁾，
쇠 년 만 북 장 종 지

노년 되면 저도 행적 보관할 곳
선택해야했는데,

仙界遙臨滿樹霞⁷⁾。
선 계 요 립 만 수 하

(김형 계신)仙境仙境은 멀리서 봐도
수림이 노을로 물드네요.

誰借片帆迴泝穩⁸⁾，
수 차 편 범 회 소 온

편주片舟 빌려 타고 강물 거슬러
(김형께) 갈 준비도 하는데,

一江題品兩翁家⁹⁾。
일 강 제 품 양 웅 가

같은 강줄기에서 시평詩評하는 건
우리 양가 노인뿐일게요.

1) ① 대풍재옥연정사(大風在玉淵精舍 : 옥연정사에 강풍이 불었다) :

a. 대풍(大風) : 큰 바람, 강풍(強風), 광풍(狂風)

b. 옥연정사(玉淵精舍 : 중요민속자료 제88호) : 옥연서당(玉淵書堂) : 경북 안동시 광덕동(廣德洞)에 위치한 정사(精舍)로 하회동(河回洞)에서 부용대(芙蓉臺)를 바라보았을 때, 오른 쪽 기슭에는 옥연정사가 있고, 왼쪽 기슭에는 겸암정사(謙巖精舍 : 중요민속자료 제89호)가 있다. 옥연정사는 서애(西厓)가 후진양성과 함께 『징비록(懲毖錄)』 등 많은 역사적 저술을 한 곳이며, 겸암정사는 서애의 백형(伯兄)인 겸암 류운룡(柳雲龍 : 1539~1601) 선생이 도학(道學)의 이치를 궁구하기 위해 29세 되던 해인 1567년(명종 22)에 건립했다.

「서애연보」에 의하면, 옥연정사는 서애가 35세 되던 해(1576)에 짓기 시작하여, 10년이 지난 45세(1586)에 완성했다. 서애는 이곳에 작은 집을 지어 늘 도록 조용히 거처하고자 했으나, 집 지을 재력이 부족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탄홍(誕弘)이란 승려가 곡식과 베를 내놓고 건축을 주관하게 되어 겨우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지을 당시 이름은 ‘옥연서당’이었다.

서애의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서애선생문집(西厓先生文集) 권17·기(記)』)에는 옥연정사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기술(記述)되어 있다 :

“집 구조에 있어서, 대청[堂]으로 쓰는 마루는 두 칸의 넓이로, 감록헌(瞰綠軒 : 푸른 산천을 조망하는 마루 : 지금의 ‘사랑채라고 하는 곳의 대청’)이라고 불렀으니, 왕희지(王羲之)의 “고개 들어 하늘가를 우러러 보다가, 고개 숙여 파란 물굽이를 내려다 본다네”라는 말에서 취한 것이다(其制, 爲堂者二間, 名曰瞰綠, 取王羲之“仰眺碧天際, 俯瞰綠水隈”之語也). 이 대청[堂]의 동쪽으로, 연거

(燕居 : 은퇴하여 한가閑居함)하는 두 칸 넓이의 방이 있는데, 이름하여 세심재(洗心齋 : 마음을 씻는 집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사랑채에 있는 방)라고 하였으니, 『주역(周易)』의 계사(繫辭) 가운데의 말을 취한 것으로, 그 의미는 누구든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마음을 씻기를 바라서였다(堂之東, 爲燕居之室二間, 名曰洗心, 取易繫辭中語, 意或從事於斯以庶幾萬一爾). 또 북쪽에 있는 재(齋)는 세 칸 넓이의 집인데, 이 곳을 지킬 승려를 위해, 선가(禪家)의 말을 취하여, 완적재(玩寂齋 : 적멸寂滅 곧 열반의 경지를 관상하는 집이란 뜻으로 지금의 ‘안채라고 부르는 집’)라 이름을 지었다(又齋在北者三間, 以舍守僧取禪家說, 名曰玩寂). 또 동쪽에는 두 칸 넓이의 집인데, 벗이 방문하면 접대하는 곳으로, 원락재(遠樂齋 : 지금의 ‘별당채라고 부르는 집’)라고 이름 하였으니, 『논어(論語)·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라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東爲齋二間, 以待朋友之來訪者, 名遠樂, 取自遠樂乎之語). (동쪽에 있는) 원락재에서 서쪽으로 나가면, 두 칸 넓이의 작은 뒷마루가 있는데, 세심재와 나란히 있는 것으로, 애오헌(愛吾軒)이라고 이름 하였으니, 도연명(陶淵明)의 「산해경을 읽고 나서(讀山海經)」라는 시에 “나 역시 내 초가집을 사랑한다네”라는 샛구詩句에서 취한 것이니, 이것들을 종합해서 ‘옥연서당’이라는 편역을 내걸었다(由齋西出, 爲小軒二間, 與洗心齋相比, 名曰愛吾, 取淵明吾亦愛吾廬之語, 合而扁之曰玉淵書堂). (역자는 ‘소헌小軒’을 세심재에 있는 뒷마루로 보고 해석하였음.)

뿐만 아니라, 서에는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 첫머리에서 서당을 지은 동기와 주변 풍광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 ② 적사순 자성산(適士純自星山 : 때마침 사순士純 김성일金誠一 공이 성산星山에서) :
 - a. 사순(士純) : 조선 중기의 문신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 1538~1593)의 자(字)이다. 관련내용은 앞의 「시96」의 주석 1)의 ② ‘학봉(鶴峯)’조항을 참조 바람.
 - b. 성산(星山) : 지명으로 지금의 경북 남서부에 위치한 성주(星州)의 옛 이름이다.
- ③ 중체구비 금옥갱장(衆體俱備金玉鏗鏘 : 각종 시체詩體를 구비한 시들이 진귀하고 아름답다) :
 - a. 중체(衆體) : 여러 가지 시체(詩體)
 - b. 금옥갱장(金玉鏗鏘) : 진귀하고 아름답게 울리는 악기소리. 본 시에서는 그렇듯 아름답게 표현한 시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④ 금옥(金玉) : 황금과 주옥이란 말인데,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비유한 뜻으로 쓰였다.
 - ⑤ 갱장(鏗鏘) : ‘아름답게 울리는 악기소리’이다. 본 시에서는 그렇게 표현된 시적 정취를 비유한 뜻으로 쓰였다.
- ④ 불능진화 지차수편봉정(不能盡和只次首篇奉呈 : 일일이 다 화답할 수는 없지만 아래의 시 한 수를 보내드린다) :
 - a. 불능진화(不能盡和) : 일일이 다 화답할 수는 없다.

- b. 지(只) : 다만
 c. 차(次) : 다음의
- 2) ① 전풍(顛風) : 대풍(大風) : 몹시 부는 바람. 큰 바람), 폭풍, 광풍(狂風)
 ② 욕번하(欲飜河) : 강물을 거슬러 흐르게 하려 하다
- 3) ① 백랑(白浪) : 눈처럼 흰(새하얀) 파도
 ② 흔선(掀船) : 배를 뒤흔들다.
 ③ 내도하(奈渡河) : 어찌 강을 건너나! 어찌 나루터에 닿을까?
- 4) ① 사여거래(事與去來) : 인생사는 사람의 거취(去就)에 따라
 a. 사(事) : ‘사정(事情)’의 뜻으로, 사람의 생활 중에 일체의 활동과 그 생활 중에 닥치는 일체의 현상을 이른다. 본 시에서는 ‘인생사(人生事)’로 번역한다.
 b. 여(與) : 개사(介詞)로 쓰였으며, ‘…와 함께’의 뜻이다. 본 시에서는 ‘…에 따라’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c. 거래(去來) : ‘래거(來去)’의 도치된 형태로 쓰였으며, ‘근거, 내력, 도리, 내룡거맥(來龍去脈)’의 뜻으로 쓰였다.
 *내룡거맥(來龍去脈) : 풍수설(風水說) 혹은 지가설(地家說)의 용어로서, ‘산의 형세가 흡사 용의 몸체와 같이 기복(起伏)하며 연관(連貫)된 모양을 이루다’는 말로서, ‘사람이나 사물의 내력이나 사정(事情)의 전후 인과(因果)를 비유한 말’로 쓴다. 곧 ‘사람의 거취(去就)나 사물의 동향’을 이르는 말로도 쓴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 ② 성전촉(成轉燭) :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풍전등화(風前燈火)’가 되다’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쓰였다.
- 5) ① 조정(靜靜) : 조금함과 영정(寧靜) : 평안하고 조용함. 평온함)함
 ② 먹(覓) : 찾다, 구하다, 추구하다, 원하다
 ③ 공화(空花) : 공화(空華)로도 쓴다.
 ○ 불교용어로서, 눈병이 있는 사람이 착각하여 공중에 꽃이 있다고 환상에 보이는 것처럼, 번잡하게 이는 망상과 가상(假相)을 비유하는 말로 쓴다. 실체가 없는 번뇌를 비유해서 쓰는 말이기도 하다. ‘환상의 꽃’이라고 번역되고 ‘허공화(虛空華 : 허공화虛空花)’로도 번역된다.
- 6) ① 쇠년(衰年) : 노쇠(老衰)한 나이, 노년(老年)
 ② 만(晩) : ‘후배가 선배에 대한 자칭(自稱)’이다. ‘저’로 번역한다.
 ③ 복(卜) : 선택하다
 ④ 장종지(藏蹤地) : (지난) 행적을 보관한 곳이다
- 7) ① 선계(仙界) :仙境(仙境), 신선이 사는 곳, 속계를 떠난 경치 좋은 곳. 본 시에서는 사순(士純) 김성일(金誠一)이 머무는 곳을 미칭(美稱)한 뜻으로 쓰였다.
 ② 요(遙) : 거리가 매우 멀다
 ③ 림(臨) : 도달하다, 가다, (어떤 장소에) 가까이 있다, 임하다
- 8) ① 수차(誰借) : (일명편주를) 빌리다. 본 시에서는 ‘빌려서 타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a. 수(誰) : 본 시에서는 발어사로 쓰여 별도의 의미는 없다. ‘수석(誰昔 : 종전에, 이전에)’이 그 예이다.
 b. 차(借) : 빌리다

- ② 편범(片帆) : 고주(孤舟), 일엽편주(一葉片舟). 본 시에서는 ‘작은 배를 빌려서 타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③ 회소(洄沔) : ‘회소(洄溯)’라고도 쓴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본 시에서는 ‘편주 타고 서애 자신보다 더 상류 쪽에 있는 김성일(金誠一) 공에게 가고 싶은 심정을 표현한 말’이다.
- ④ 온(穩) : 준비하다, 안배하다, 안돈(安頓)하다
- 9) ① 일강(一江) : 같은 강하(江河)
- ② 강(江) : 낙동강을 가리킨다. 서애선생이나 사순(士純) 선생 모두가 안동 출신이기 때문이다.
- ③ 제품(題品) : 품평(品評). 본 시에서는 ‘시평(詩評 : 시 작품에 대한 비평)’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시114. 의흥현감義興縣監 정희린鄭姬鄰 공공의
별세를 애도한 시

詩114. 義興縣監鄭姬鄰輓詞¹⁾
의 흥 현 감 정 희 린 만 사

分竹公山帶臘來²⁾,
분 죽 공 산 대 납 래

(정공鄭公이) 현감으로 부임한 뒤
팔공산八空山에 납제臘祭 모시려 왔었는데,

銀臺遙憶屬離杯³⁾.
은 대 요憶 속 리 배

(그때) 좇대 앞에서 송별주 권하던 게
아득히 떠오르네요.

俄聞美政騰輿誦⁴⁾,
아 문 미 정 등 여 송

언뜻 듣자니 덕정 배풀어
칭송이 자자하던데,

時見情書到水隈⁵⁾.
시 견 정 서 도 수 외

그 정황의 서신이 하회河回까지
전해져 때때로 왔지요.

一疾沈綿⁶⁾官舍冷,
일 질 침 면 관 사 냉

한 번 병들자 꽤유치 못해
그 관사 적막해졌으니,

重泉會劍旅魂廻⁷⁾.
중 천 회 검 여 혼 회

구천九泉에서 명검名劍 모은 검광劍光
위력으로 객사한 혼령이여 돌아오시구려.

欲憑蘭玉追餘慶⁸⁾,
욕 병 난 옥 추 여 경

난옥 같은 자제들께 의지하여
여경餘慶 추구해야 하는데,

强慰深悲亦未裁⁹⁾。
강 위 심 비 역 미 채

애써 깊은 슬픔 위안해도
아직 억누르지 못하겠소.

1) ① 의흥현감(義興縣監):

- a. 의흥(義興): 의흥현(義興縣): 경북 중앙부에 위치한 군위군(軍威郡) 의흥면(義興面) 지역에 있었던 조선시대의 현(縣)
- b. 현감(縣監): 조선시대에 설치됐던 작은 현(縣)의 으뜸벼슬로, 품계는 종6품이다.

② 정희린 만사(鄭姬鄰挽詞): 정희린 공의 별세를 애도한 시

- a. 정희린(鄭姬鄰: 생몰년 미상): 임진왜란 공신록 명단에 순번 340번 “정희린(鄭姬鄰) 증참의(贈參議)”로 3등급에 기록된 것 외에는 정공(鄭公)에 대한 기타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아들 정선(鄭瑄)의 묘갈명(墓碣銘)에 아버지가 정희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b. 만사(挽詞): 만사(挽詞): 만장(輓章): 타계한 사람을 애도하여 지은 글이다. 그 글을 비단이나 종이에 적어 기(旗)처럼 만들어 들고 장례(葬禮)를 치를 때 상여 뒤에 들고 따라 간다.

2) ① 분죽(分竹): 대나무를 쪼개서 만든 것으로, 신분과 권력의 상징으로 삼고 신표로 쓰도록 주는 죽사부(竹使符: 부절符節)이다. 이는 봉관수권(封官授權: 관직에 봉하여 권력을 줌)을 이르는 말이다.

‘분죽(分竹)’은 곧 죽사부(竹使符)를 나눈다는 뜻으로 지방 고을의 수령이 되었다는 뜻이다. 본 시에서는 현감에 제수되어 부임하다는 뜻으로 쓰였다. 죽사부는 한(漢)나라 때 지방관이 차던 신부(信符)로 대나무로 만들어서 오른 쪽은 경사(京師)에 두고 왼쪽은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주었다.

****역지주석:** 본 시에서의 ‘분죽(分竹)’은 ‘현감(縣監)’을 대칭(代稱)한 말로 쓰였다.

② 공산(公山):

☆팔공산(八公山): 대구직할시와 경북 군위군(軍威郡)·영천군(永川郡)·칠곡군(漆谷郡)·경산군(慶山郡)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해발 1193m이다. 태백산맥의 보현산(普賢山: 1124m)에서 서남쪽으로 화산(華山: 828m)·팔공산·가산(架山: 902m)으로 연결된다. 팔공산을 중심으로 대구직할시와 경북의 경계에 형성된 환상(環狀)의 산지는 이른바 팔공산맥이라 하며 대구분지의 북부를 병풍처럼 가리고 있다. 팔공산의 옛 이름은 공산(公山)이라 하였으며 부악(父岳)이라고도 하였다. 『신동국여지승람(新東國輿地勝覽)』에는 이 산을 중악(中岳: 나라와 지방에 중·동·東·서·西·남·南·북·北의 오악五岳을 이름)에 비겨 중사(中祠: 중악中岳에 자내는 제사)하였다고 기록하였다.

③ 대(帶): 모시다, 추대하다, 받들다. 본 시에서는 ‘제사를 모시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④ 략(臘): 납제(臘祭): 납향(臘享): 제사 명칭이다. 납일(臘日: 예전에, 민간이나 조정에서 조상이나 종묘 또는 사직에 제사지내던 날임. 동지 뒤의 셋째 술일戌日에 지냈으나

조선 태조 이후에는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로 하였음)에 한 해 동안 지은 농사형편과 그 밖의 일들을 여러 신에게 고하던 제사이다.

- ⑤ 래(來) : 오다
- 3) ① 은대(銀臺) : 은으로 만들었거나 은색으로 도색한 솟대
- ② 요억(遙憶) : 회억(回憶 : 회고回顧)과 같은 말이다
- ③ 축(屬) : 술을 따라 서로 권하다(김주상권斟酒相勸)
- ④ 이배(離杯) : ‘이배(離盃)’로도 쓰며, ‘전별(餞別 : 송별)하며 드는 술’을 가리킨다. 이별의 술잔
- 4) ① 아(俄) : 갑자기, 홀연히, 순식간에, 언뜻
- ② 문(聞) : 듣다
- ③ 미정(美政) : ‘덕정(德政)’과 같은 말로서, ‘훌륭한 정치를 펴다(배풀다)’는 뜻이다.
- ④ 등(騰) : 칭송하다, 전파하다, 자자(藉藉)하다(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 떠들썩하다)
- ⑤ 여송(輿誦) : 여러 사람의 의논
- 5) ① 시견(時見) : 자주(늘) 보다, 수시로 보다, 상견(常見)하다
- ② 정서(情書) : 정황을 알려 주는 서신
- ③ 도(到) : …에까지 이르다
- ④ 수외(水隈) : 물굽이. 본 시에서는 하화마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6) 일질침면(一疾沈綿) : 한 번 병에 걸려 낫지 못하다(쾌유 못하다)
- ① 침면(沈綿) : ‘침면(沉綿)’으로도 쓰고 ‘침면(沉綿)’으로도 쓴다. 질병에 얽매어 오랜 시간 자나도 쾌유되지 않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병이 낫지 않고 오래 끝다’는 뜻이다.
 - a. 침(沈) : 잠기다
 - b. 면(綿) : 연속되다
- 7) ① 중천(重泉) : 저승.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이 가서 산다는 세계
- ② 회검(會劍) : 본 시에서는, 천하의 명검인 ‘용천검(龍泉劍)과 태아검(太阿劍)을 모아 한 자리에 두어서, 검광(劍光)의 자기(紫氣)가 빛이 나도록 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고사(故事)를 참조하기 바란다. 『진서(晉書)·장화전(張華傳)』에 오(吳)나라가 멸망하고 진(晉)나라가 흥성할 때, 하늘에 두성(斗星 : 북두칠성이 있는 별자리로 이는 28수宿의 8번째의 별자리임)과 우성(牛星 : 건우성牽牛星이 있는 별자리로 28수 가운데 9번째의 별자리에 있는 별들) 사이에 늘 자기(紫氣 : 서기瑞氣 : 상서로운 기운)가 서렸다. 당시 고위관료였던 장화(張華 : 232~300)는 뇌환(雷煥 : 생물년 미상)이 점성술에 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를 초청하여 함께 천문(天文)을 관측하였다. 그 때 뇌환이 말하기를 “두성斗星과 우성牛星 사이에 상당히 기이한 기운이 서려있는데(斗牛之間頗有異氣), 이것은 보검의 정기精氣로서(寶劍之精), 그 정기가 창공을 뚫고 하늘에 닿은 것 입니다(上徹于天耳).”고 하면서, 그 명검이 예장군(豫章郡) 풍성현(豐城縣 :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풍성시豐城市 남쪽 41리)에 있음도 예견했다. 그래서 장화는 즉시 뇌환을 풍성현 현령으로 명하여 보냈는데 “뇌환은 본 현에 도달하여(煥到縣), 옥사獄舍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파면서(掘獄屋基), 깊이 4장(四丈 : 13.32m) 남짓 파서 들어갔을 때(入地四丈餘), 하나의 석함石函을 발굴했는데

(得一石函), 그 석함에 광기光氣가 현란하게 빛났으며(光氣非常), 그 속에는 한 쌍의 검이 있었고(中有雙劍), 그 검에는 명칭이 새겨져 있었으니(並刻題), 하나는 용천龍泉이었고(一曰龍泉), 하나는 태아太阿였다(一曰太阿). 그러나 (그 두 자루의 검이 발굴된) 그날 밤 이후로 두성斗星과 우성牛星 사이에 서렸던 자기紫氣는 두 번 다시 보이지 않았다(其夕斗牛間氣不復見焉).”고 한다.

이렇게 발굴된 용천검과 태아검은 풍성현에서 발굴되었다하여 사람들은 ‘풍성검’이라 하였다. 이 명검을 발굴한 점성가 뇌환은 한 자루는 재상 장화에게 보내고, 한 자루는 자신이 가졌다. 뇌환 자신이 차고 있던 검을 두고 뇌환은 말하기를, “신기하고 괴이한 사물도(靈異之物)도 결국은 사라지며(終當化去), 영원히 사람을 위해 복종하지는 않는다((不永爲人服也).”고 하면서 이 명검을 주조한 춘추 시대 오(吳)나라 출신의 명검 주조자인 간장(干將)과 막아(莫邪)의 무덤가 나무에 걸여두었다. 한편, 뇌환에게 나머지 한 자루의 검을 받은 장화는 주(州)의 종사(從事)가 되어 그 검을 차고 현지로 가던 중에 연평진(延平津 : 고대 진평나라의 연평현에 있던 나루터 명칭.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남평시南平市의 동남쪽)에 도달했을 때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이 홀연히 절로 튀어나가 강물에 떨어졌는데(劍忽於腰間躍出墮水), … 〈검광劍光의〉 광채가 물속에서 빛나고(光彩照水), 파도가 일면서, 검은 사라졌다(波浪驚沸, 於是失劍).”라는 대목이 보인다.

후세 사람들은 ‘풍성현豐城縣’에서 발굴된 명검이라 하여, ‘풍성검豐城劍’이라 일컫던 이 말을 ‘걸출한 인재를 찬미할 때나 건식이 있는 사람이 ‘걸출한 인재임을 알아보고 발굴하는 것’을 이르는 뜻으로 썼다.

또한 이상에서 보듯이 비록 분실되었지만 천하의 명검인 명천검과 태아검은 지하에서도 그 검광이 빛이 나서 하늘의 두우성(斗牛星)에 이르도록 자기(紫氣)가 빛났던 것이다. 본 시에서 쓰인 ‘회검(會劍)’은 바로 그 검광을 모아 그 위력으로 써 유명(幽明)을 달리한 정공(鄭公)이 저승에서 이 승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장화(張華 : 232~300) : 중국 서진(西晉) 범양군(范陽郡) 방성(方城縣 :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고안현固安縣 남쪽 방성촌方城村) 사람이다. 자는 무선(茂先)이다. 박학했고 문장이 뛰어났다.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중심 인물인 완적(阮籍 : 210~263)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위(魏)나라 때 중서랑(中書郎)에 올랐고, 진무제(晉武帝)때 중서령(中書令)과 산기상시(散騎常侍)를 지냈다. 증론(衆論)을 무시하고 서진(西晉)의 대신(大臣)인 양호(羊祜 : 221~278)와 오(吳)나라를 멸망시킬 계책을 세웠다. 오(吳)나라 멸망에 공을 세워 광무현후(光武縣侯)에 봉해졌다. 초왕(楚王) 사마위(司馬瑋 : 271~291)를 제거하는데 공을 세워 시중(侍中)에 오르고 사공(司空)을 거쳐 장무군공(壯武郡公)에 봉해졌다. 조왕(趙王) 사마륜(司馬倫 : ?~301)에게 살해당했다. 화려한 시문(詩文)으로 알려졌고, 장재(張載 : 1020~1077) · 장협(張協 : ?~307?)과 함께 ‘삼장(三張)’으로 불렸다. 작품에 출세작이 된 「조료부(鶴鵠賦)」, 혜제(惠帝)의 황후의 난행을 충고한 「여사잡(女史箴)」과 「잡시(雜詩)」, 「정시(情詩)」, 「여지시(勵志詩)」 등이 유명하다. 또 일종의 백과사전인 『박물지(博物志)』를 저술했고, 시문집인 『장사공집(張司空集)』이 있다.

*뇌환(雷煥 : ?~?): 서진(西晉)의 예장군豫章郡(지금의 강서성江西省 남창시南昌

市) 사람으로, 천문관측을 좋아했다. 일찍이 장화(張華)를 도와 예장 풍성(豐城)에서 용천(龍泉)과 태아(太阿)라는 두 보검(寶劍)을 찾아냈다.

- ③ 여혼(旅魂) : 타향에서 객사한 사람의 혼령
- ④ 회(廻) : 돌아오다(가다)
- 8) ① 욕(欲) : …해야 하다
- ② 빙(憑) : …에 의존하다
- ③ 난옥(蘭玉) : 지란옥수(芝蘭玉樹 : 영지靈芝와 난초 및 옥수(玉樹) 등이 뜰 앞에 있음)의 뜻으로, ‘훌륭한 자제(子弟)’를 비유한 말로 쓴다.
- ④ 추(追) : 추구하다
- ⑤ 여경(餘慶) : 적선(積善)의 값음으로 앞으로 받을 경사(慶事),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보답으로 뒷날 그 자손이 받는 경사
- 9) ① 강(強) : 억지로, 강제로
- ② 위(慰) : 위로하다, 위안하다
- ③ 심비(深悲) : 몹시 (매우, 대단히) 슬프다. 깊은 슬픔
- ④ 역미재(亦未裁) : …해도 아직 억누르지 못하다



시115. 문경현^{聞慶縣}을 지나가는 도중에, 병이
나서 아직 길을 나설 수 없는지라,
동행인을 청해 절구시^{絶句詩} 두 수를
 읊은 다음, (이를) 기록하여 객관
주인에게 증정하다

詩115. 聞慶道中 病未赴 召偶吟二絶¹⁾ 錄呈主人
문 경 도 중 병 미 부 소 우 음 이 절 녹 정 주 인

其一
기 일

[1]

長路²⁾春寒病客愁,
장 로 춘 한 병 객 수

먼 길에 봄추위로 병객^{病客}이
수심 겨워하다보니,

故園歸思正悠悠³⁾.
고 원 귀 사 정 유 유

때마침 귀향생각만 뻗뻗히 이어지네.

非無戀闕丹心苦⁴⁾,
비 무 연 결 단 심 고

임이 그립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마음 괴로운 것은,

雪嶺橫天不自由⁵⁾.
설 영 횡 천 부 자 유

눈 덮인 산줄기에 가로 막혀
(내왕이) 자유롭지 못함일세.

其二
기 이

[2]

世故從來不我謀⁶⁾,
세 고 종 래 불 아 모

오래 사귄 벗과도 여태껏 내가
(귀향歸鄉을) 상의하지 않아선지,

碧天回首片雲浮⁷⁾.
백 천 회 수 편 운 부

청천靑天을 돌아보니 조각구름만 떠있네.

今朝匹馬歸田舍⁸⁾,
금 조 필 마 귀 전 사

오늘 아침 필마단기匹馬單騎로
귀농하러 가지만,

數日紛紛三笑休⁹⁾.
수 일 분 분 삼 소 휴

여러 날 마음이 들떠 뒤숭숭하다
삼소三笑하고 사직辭職했네.

-
- 1) ① 문경(聞慶): 문경현(聞慶縣: 지금의 경북 북서부에 있는 문경시)이다. 옛날부터 영남과 서울을 잇는 교통요충지이다.
② 병미부(病未赴): 병이 나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a. 부(赴): 가다, 앞으로 나아가다
③ 소우 음이절(召偶吟二絕: 동행인을 청해 절구시 2수를 읊다):
- 2) 장로(長路): 먼 길, 원로(遠路)
- 3) ① 고원(故園): 고향
② 귀사(歸思): 돌아갈 생각
③ 정(正): 때마침, 바로, 막
④ 유유(悠悠):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양. 본 시에서는 ‘면면(綿綿)히 이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4) ① 비무(非無): 없는 것이 아니다, (….) 앓는 것이 아니다
② 연궐(戀闕): 궁궐을 그리워하다. 마음속에 군주를 잊지 않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③ 단심(丹心): 결코 변치 않을 정성어린 마음, 진심, 충성심. 본 시에서는 화자의 마음을 가리킨다.
④ 고(苦): 괴롭다
- 5) ① 설령(雪嶺): 눈으로 덮인 산줄기
② 횡천(橫天): 높은 곳에 길게 가로 이어지다
③ 부자유(不自由): 자유롭지 못하다.
- 6) ① 세고(世故): 세교(世交: 전대前代부터 교분이 있던 사람), 고교(故交: 고구故舊: 사귄 지 오래된 벗)
② 종래(從來): 지금까지, 여태껏, 이제까지

- ③ 불아모(不我謀) : 나와 상의하지 않는다.
- 7) ① 벽천(碧天) : 청천(靑天) : 벽공(碧空) : 푸른 하늘
 ② 회수(回首) : 회두(回頭) : 머리를 뒤로 돌리다. 본 시에서는 ‘돌아보다’로 번역한다.
 ③ 편운부(片雲浮) : 조각구름 떠 있다.
- 8) ① 금조(今朝) : 오늘 아침
 ② 필마(匹馬) : 한 필의 말. 단신(單身) : 한 몸, 홀몸을 가리키는 뜻으로 자주 쓴다. 본 시에서는 ‘필마단기(匹馬單騎) 혹은 단기필마(單騎匹馬)’의 약어로 쓰였다.
 ③ 귀전사(歸田畝) : (사직辭職하고) 농촌으로 돌아가다
- 9) ① 수일(數日) : 여러 날
 ② 분분(紛紛) : 마음이 산란한 모양
 ③ 삼소(三笑) : ‘도덕적 경지가 극히 높은 3인의 고사(高士)가 도(道)를 논하다가 대소(大笑)했다’는 뜻인데, ‘삼소(三笑)’했던 곳과 관련된 고사(故事)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계삼소(虎溪三笑)’를 이해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38」의 주석 1)의 ① ‘도인삼소(道人三笑)’ 조항을 참조 바란다. 본 시에서는 서애가 ‘삼소(三笑)하며 사직(辭職)을 결심한 것을 표현한 말’로 쓰였다. 또는 서애가 ‘삼소(三笑)’의 고사(故事)를 떠올리면서 마음이 편해졌음을 함축하기도 한다.
 ④ 휴(休) : (관직을) 그만두다, 사직(辭職)하고 떠나다



시116. 어젯밤에 홀로 정원에서 거니는데,
월색이 너무 아름다운데다가, 멀리서
내방한 제군^{諸君}의 마음이 고마워서,
얼핏 떠오른 생각으로 읊은 시를
기록하여 증정한다.

김회중^{金晦仲} 형제와 정경임^{鄭景任} 그리고 이숙평^{李叔平}이
문안 왔다(김회중 형제에게 증여한 시는 별집^{別集}에 실려
있다)

詩116. 昨夜獨步庭中 月色甚佳 有感於諸君遠來之意

작 야 독 보 정 중 월 색 심 가 유 감 어 제 군 원 래 지 의

偶吟錄呈金晦中兄弟與鄭景任、李叔平來謁

우 음 녹 정 김 회 중 형 제 여 정 경 임 이 숙 평 래 열

(有贈金晦中兄弟詩 載別集)¹⁾

爲學靡他法²⁾,
위 학 미 타 법

학문을 하는 데는
별다른 방법이 없나니,

存心在至誠³⁾.
존 심 재 지 성

집중해서 지극정성 쏟는데 있다네.

百年今日意⁴⁾,
백 년 금 일 의

평생을 오늘 같은 마음 지녀야 할지니,

三夜見君情⁵⁾.
삼 야 견 군 정

(나는 겨우) 사흘 밤 제군의 실정^{實情}을
봤을 뿐이네.

涓積終成海⁶⁾,
연 적 종 성 해

시냇물이 모여서 결국은 바다를 이루고,

蘭抽自發馨⁷⁾.
난 추 자 발馨

난초도 싹 돋으면 절로 향기 풍기네.

鳶飛與魚躍⁸⁾,
연 비 여 어 약

솔개는 하늘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나니,

一笑倚風櫺⁹⁾.
일 소 의 풍 령

다락배에서 바람 씌며
한바탕 웃어 보세나.

1) ① 작야(昨夜): 어제 밤

② 정중(庭中): 뜰 안에서

③ 우음(偶吟): 열핏 떠오르는 생각을 시가로 읊다

④ 김회중 형제(金晦仲兄弟): 줄역 『국역 류성룡 시』 권1 「시57」의 시제(詩題)에, “김미백(金美伯) 군과 김회중(金晦仲) 군, 권손행(權巽行) 등이 찾아 왔길래, 열핏 떠오르는 생각을 시로 읊어 써 주다(金美伯、晦仲及權生巽行來訪 偶吟書贈).”에서, “두 청년은 자주 방문했는데, 이번엔 권군 또한 나란히 말을 타고 왔네(二妙勤相訪, 權君又並驂).”라고 읊고 있다. 이 시문에 의거하면, 김회중은 본 시에서 김미백과 서애선생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며, 이 두 사람은 형제간으로 추측된다.

김회중은 자가 회중(晦仲)이고, 이름은 김혜(金惠: 1566?~?). 부친은 김수길(金綏吉). 본관은 상산(商山: 경상북도 서쪽에 위치하는 상주尙州 지역의 옛 지명임)이다.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과 군수(郡守)를 지냈다.

⑤ 정경임(鄭景任): 정경세(鄭經世: 1563~1633):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 학자. 자는 경임(景任), 이름은 경세(經世), 호(號)는 우복(愚伏), 일묵(一默) 외 여러 개이다. 본관은 진주(晉州). 상주(尙州) 출신으로 류성룡(柳成龍)의 문인이다. 1582년 진사를 거쳐 1586년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한 뒤 봉교(奉敎)를 거쳐 1589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워 1598년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고, 1623년 인조반정으로 부제학에 발탁되고 대사헌을 거쳐 이조판서 겸 대제학에 이르렀다.

그는 도학(道學)이 정몽주(鄭夢周)에서 시작되어 이황(李滉)에게서 집성되었으며,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이언적(李彦迪) 같은 여러 현인들이 나와 정학(正學)으로 더욱 깊이 연구하여 왕성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영남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주에 서원을 세우야 한다고 역설하고, 유생을 설득하여 도남서원(道南書院)을 창건하였으며, 이곳에 오현(五賢)을 종사(從祀)하였다. 예론(禮論)에도 밝아서 김장생(金長生)과 함께 예학과(禮學派)로 불렸다. 시문과 서예에도 뛰어났다.

상주(尙州)의 도남서원(道南書院)과 대구(大邱)의 연경서원(研經書院) 등에 제향되었으며, 저서에 『우복집(愚伏集)』과 『상례참고(喪禮參考)』 등이 있다.

- ⑥ 이숙평 내알(李叔平來謁) : 숙평(叔平) 이준(李埈)이 문안 오다
- a. 이숙평(李叔平) : 이준(李埈 : 1560~1635) : 조선 중기의 문신(文臣). 본관은 흥양(興陽), 이름은 준(埈), 자는 숙평(叔平), 이숙재(李叔載 : 이전李塹)의 동생이다. 이들 형제는 류성룡이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 수학하였으며 이때부터 퇴도(退陶)의 학설을 배우고 주자서(朱子書)를 전심(專心)으로 공부하였다.
- b. 내알(來謁) : 와서 찾아뵈다. ‘알(謁)’은 곧 알현(謁見)하다는 뜻으로 높은 사람에게 면회하다는 뜻이다. 앞에서 열거한 사람들은 모두 서애의 문인(門人)인 까닭에 이렇게 쓴 것이다. ‘문안왔다’로 번역한다.
- 2) ① 위학(爲學) : 학문을 하다
 ② 미(靡) : 없다
 ③ 타법(他法) : 다른 별도의 방법
- 3) ① 존심(存心) : 집중하다
 ② 재지성(在至誠) : 지극한 정성을 쏟는데 있다
- 4) ① 백년(百年) : 일생, 종신(終身)
 ② 금일의(今日意) : 오늘 같은 마음을 지닌다
- 5) 군견정(君見情) : 제군(諸君)의 실정(實情)을 보다.
 ① 정(情) : 실정(實情), 정황(情況)
- 6) ① 연(涓) : 시내, 살개천, 개울
 ② 적(積) : 모이다, 쌓이다
 ③ 증성해(終成海) : 결국 바다가 되다
- 7) ① 난(蘭) : 난초
 ② 추(抽) : (싹, 이삭 등이) 돋다, 패다
 ③ 자발형(自發馨) : 절로 향기를 풍기다
- 8) 연비어약(鳶飛魚躍) : 솔개는 하늘에서만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만 뜬다. 이는 만물이 각각 천지자연의 이치대로 제 처소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관련내용은 앞의 「시8」의 주석 28)의 ② ‘연어동(鳶魚動)’조항을 참조 바람.
- 9) ① 일소(一笑) : 한바탕 웃다
 ② 의풍(倚風) : 바람을 쐬다
 a. 의(倚) : ...에 기대다. (바람을)을 받다. 본 시에서는 ‘바람을 쐬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③ 령(櫓) : (櫓) : 다락이 있는 배. 누선(樓船), 다락배. 이것은 배 안에 이층으로 집을 지은 배로서 주로 해전(海戰)이나 뱃놀이에 쓰였다.

시117. 송별에 즈음하여 미백^{美伯} 김교^{金喬}와
회중^{晦仲} 김혜^{金憲} 형제에게 증여하다

詩117. 贈別金美伯喬 晦仲憲 兄弟¹⁾
증 별 김 미 백 교 회 중 혜 형 제



已見當仁勇²⁾,
이 건 당 인 용

이미 인仁을 행하는 용기를 보았으니,

還容抗顏師³⁾.
환 용 항 안 사

스승에게 정색하고
대하는 것도 용인하겠네.

應須謹容節⁴⁾,
응 수 근 용 절

마땅히 몸가짐과 언행을 삼가고
절도^{節度} 있게 처신하며,

且覺遠心期⁵⁾.
차 각 원 심 기

기대하는 것은 멀리 있단 것도 깨닫게나.

楚壁連城器⁶⁾,
초 벽 연 성 기

초나라 화씨벽^{和氏璧}은
여러 성^城과 바꾸는 보배였으나,

湘蘭⁷⁾出俗姿。
상 난 출 속 자

상산^{湘山}의 난초는 속된 자태로
자라야 했네.

心乎何日已⁸⁾,
심 호 하 일 기

(저들을) 염려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자신인지라,

- 1) ① 증별(贈別) : 예물이나 시문(詩文)을 멀리 떠나는 사람에게 주다.
- ② 김미백(金美伯) : 미백(美伯) 김교. 미백은 기묘의 자이거나 호이다. 이렇게 호나 자 또는 직함을 성씨 다음에 쓰고 이름을 그 뒤에 쓰는 것은 경칭(敬稱)의 한 예이다. 김교에 대한 이력은 미상이다.
- ③ 회중혜(晦仲憲) : 김회중(金晦仲) : 자 회중(晦仲), 이름은 김혜(金憲 : 1566?~?). 부친은 김수길(金綬吉). 본관은 상산(商山 : 경상북도 서쪽에 위치하는 상주尙州 지역의 옛 지명임)이다.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과 군수(郡守)를 지냈다.
- 2) ① 이견(已見) : 이미 봤다.
- ② 당인(當仁) : 인(仁)을 행함에는, 인을 행할 일을 마주하면
 - a. 당(當) : 만나다, 마주치다
 - b. 인(仁) : 어진 일, 올바른 일
- ③ 용(勇) : 용기
『논어(論語) · 위령공(衛靈公)』편에, “공자가 말하기를(子曰) : ‘인(仁)을 행할 일을 대하면 〈인(仁)을 실천함에는〉 스승에게도 겸양謙讓하지 않는다(當仁不讓於師).’”고 한 대목이 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송나라 유학자 주희(朱熹 : 1130~1200년)는 집주(集注)에서, “‘당인當仁’은 인(仁)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 행한다는 뜻으로(當仁, 以仁爲己任也), 스승일지라도 겸양하지 않는다(雖師亦無所遜). 마땅히 용감하게 나서서 행해야한다는 말이다(言當勇往而必爲也).”고 하였다. 후에 사람들은 ‘당인불양(當仁不讓)’이란 말을,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대하면 능동적으로 나서서 행하여야 하며, 결코 남에게 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 3) ① 환(還) : 여전히, 뿐만 아니라 …도
- ② 용(容) : 수용하다, 용인하다
- ③ 항안(抗顏) : 정색(正色)하다. 태도가 엄정함을 이르는 말이다.
- 4) ① 응수(應須) : 마땅히 …해야 한다
- ② 근(謹) : (언행을) 신중히 하다, 삼가다
- ③ 용(容) : 몸가짐
- ④ 절(節) : 절도(節度 : 법도)를 지키다, 절도(節度)있게 처신하다
- 5) ① 차각(且覺) : 또한 …을 깨닫다
- ② 원심기(遠心期) : 기대하는 것은 멀리 있다.
 - a. 원(遠) : 멀리 있다, 거리가 멀다
 - b. 심기(心期) : 기대하다. 기대하는 것
- 6) ① 초벽(楚璧) : 초(楚)나라의 화씨벽(和氏璧)을 가리킨다.
 - a. 초(楚) : 초나라
 - b. 벽(璧) : 환상(環狀 : 둥글고 평평하며 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의 옥. 『한비자(韓非子) · 화씨(和氏)』편에, “초나라 사람 화씨(和氏 : 변화卞와 라고도 함)가 초산(楚山 : 지금의 사천성四川省 천천현天全縣 서부에 위치함) 산중에서 큰 옥덩

어리를 취득하였는데(楚人和氏(卞和)得玉璞楚山中), 그것을 받들어 여왕厲王에게 헌납했다(奉而獻之厲王). 여왕厲王은 옥인(玉人: 옥장이)에게 그것을 감정토록하니(厲王使玉人相之), 옥인이 말하기를(玉人曰): ‘돌덩이입니다(石也)’고 하자, 왕은 화씨가 자기를 속였다고 여겨(王以和爲誑), 그의 왼발을 자르는 벌을 내렸다(而刖其左足). 여왕厲王이 죽고(及厲王薨), 무왕이 즉위하자(武王即位), 화씨는 또 그 옥덩어리를 무왕에게 헌납하였다(和氏又奉其璞而獻之武王). 무왕이 옥인玉人에게 그 옥덩어리를 감정토록 하니(武王使玉人相之), 옥인은 역시 말하기를(又曰): ‘돌덩이입니다(石也).’라고 하자, 왕은 또다시 화씨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고(王又以和爲誑), 화씨의 오른 발을 자르는 벌을 내렸다(而刖其右足). 무왕이 죽고, 문왕이 즉위하였다(武王薨, 文王即位) …… 왕은 곧 옥인玉人을 시켜 그 옥덩어리를 다듬도록 하자(王乃使玉人理其璞), 마침내 보옥의 모습을 드러냈기(而得寶焉), 드디어 그 옥을 命名하여 말하기를(遂命名曰): ‘화씨지벽(和氏之璧: 화씨가 채취한 천하에 보배로운 옥)이다(和氏之璧).’고 하였다. 후에 사람들은 이 ‘화씨지벽(和氏之璧)’이란 말을 ‘진귀한 보물’의 뜻으로 썼고, ‘비범한 인재’를 비유하는 말로도 썼다. 또한 ‘화씨(和氏)’란 말을 써서, ‘식재지사(識才之士: 인재를 알아보는 선비)’의 뜻으로 비유했다. 그런가 하면 ‘화옥(和玉)’이란 말을 가지고 ‘희귀한 보물’의 뜻으로 쓰기도 했고, ‘세상에서 중시하는 현재(賢才)’를 비유하는 뜻으로 쓰기도 했다.

② 연성기(連城器): 여러 곳의 성(城)과 맞바꾸는 데 관련된 귀중한 보기(寶器)

a. 연성(連城):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조(趙)나라 혜문왕(惠文王)이, 화씨벽(和氏璧)을 얻게 되었다. 그러자 진 소왕(秦 昭王)이 그 소식을 듣고 조왕(趙王)에게 사신을 보내어, 진(秦)나라의 15개 성과 화씨벽을 바꾸자고 요청했다.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기(史記) · 염과 인상여(廉頗藺相如列傳)』를 참조 바람.

b. 기(器): 보기(寶器). ‘진(珍)’이나 ‘벽(璧)’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7) 상난(湘蘭): 상산(湘山)에서 자라는 난초

****역지주석:** ‘진시황(秦始皇)이 벌거숭이산으로 만들었던 불운한 상산(湘山)에서 자란 난초’라는 의미인데, 이는 자극정성으로 수신(修身)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았다는 사람을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① 상(湘): ‘상산(湘山)’을 가리킨다.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악양시(岳陽市) 남쪽 동정호(洞庭湖) 가운데 위치한다. 군산(君山: 군주가 방문했던 산)이라고도 한다. 『사기(史記) ·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 “진시황이 상산사(湘山祠: 상수湘水의 신을 모신 사당)에 이르렀을 때 시황始皇이 박사들에게 묻기를(上問博士曰): ‘상군(湘君: 상수湘水의 신)은 어떤 신인가(湘君何神)?’ 라고 하니, 박사들이 대답하기를(博士對曰): 듣간대(聞之), 요임금의 따님이 순임금의 부인이 되었는데 사후에 이곳에 장례 지냈다고 하옵니다(堯女舜之妻而葬此).’라고 하였다. 그러자 진시황은 크게 노하여(於是始皇大怒), 복역 중인 죄수 3000명을 보내 상산湘山의 나무를 모두 베게하여(使刑徒三千人皆伐湘山樹), 그 산을 벌거숭이산으로 만들었다(赭其山).”고 한 대목이 있다.

② 란(蘭): 난초

- 8) ① 심호(心乎) : (지들을) 염려하다
 a. 심(心) : 마음 쓰다, 관심 갖다, 근심하다, 염려하다
 b. 호(乎) : 본 시에서는 어기(語氣)를 완화하고 어기를 잠시 정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뜻으로 쓰였다.
- ② 하일(何日) : 언제나
- ③ 기(己) : 자기, 자신. 본 시에서는 서에 자신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시118. 서재書齋에 머무르는 감회

- 정해년丁亥年 : 1587년 : 서애 46세 -

詩118. 齋居感懷 丁亥
재 거 감 회 정 해



抱病端居¹⁾又一年,
포 병 단 거 우 일 년

신병身病 지닌 채 일상 생활하기
또 일 년,

閉門高臥意悠然²⁾。
폐 문 고 와 의 유 연

내객來客 사절하고 은거해도
마음은 유연하네.

心功着事還多事³⁾,
심 공 착 사 환 다 사

마음을 수련하고 일해도
여전히 일처리에 문제 많으니,

物理關天少見天⁴⁾。
물 리 관 천 소 견 천

만물이치가 천도天道와 연관되나
그 천리天理 깨닫는 사람 적으네.

道在鳶魚長活潑⁵⁾,
도 제 연 어 장 활 발

도道는 솔개와 물고기에게도 있어
언제나 활기 넘치는데,

人從藤葛謾牽纏⁶⁾。
인 종 등 갈 만 견 전

사람은 등갈藤葛 넝쿨에 다가갔다
엮혔던 걸 숨기네.

聖門自有無言訣⁷⁾,
성 문 자 유 무 언 결

성도에 진입할 문은 있었지만
말로 표현할 비결은 없었는데,

千古分明只眼前⁸⁾.
천 고 분 명 지 안 전

천고千古의 세월 동안 (공자의 도道가)
뚜렷하게 지금까지 존재해 왔네.

-
- 1) ① 포병(抱病): 환병(患病): 포질(抱疾): 신병(身病)이 있다. 장기간 병에 시달리다. 병을 지니고 있다.
② 단거(端居): 평상적으로 거처하다, 평소의 생활을 하다, 일상생활을 하다
- 2) ① 고와(高臥): 은거하며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세설신어(世說新語)·배조(排調)』에, 세속을 떠나 초야에 은거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음을 비유하는 말에 ‘동산고와(東山高臥)’라는 전고(典故)가 있다. 관련 내용은 앞의 「시7」의 주석 21)의 ② ‘고와(高臥)’조항을 참조 바람.
② 의유연(意悠然): 마음은 유연(悠然)하다
- 3) ① 심공착사(心功着事): 마음수련을 하고나서 일을 착수하다
a. 심공(心功): 마음을 수련하다. 이 말은 도가(道家)의 비술(秘術)에 속하는 것으로 기(氣)수련의 일종이다. 이는 마음이 허정(虛靜)한 상태에 들도록 수련하는 공부이다.
『도장정화 제2집(道藏精華 第二集)』에, 역세진선(曆世眞仙)이 찬술(撰述)하고, 청대(淸代) 석유강(席裕康)이 찬집(纂輯)했으며, 왕지혜(王知慧)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 『내외공도설집요(內外功圖說輯要)·분행외공결(分行外功訣)·심공(心功)』에 보면, ‘심공(心功)’의 구체적인 방법이 보인다. 즉 “무릇 〈단전丹田의 힘으로〉 굴신동작을 할 때는(凡行功時), 먼저 반드시 마음을 고요히 가지고(先必冥心), 잡다한 생각을 멈추며(息思慮), 정욕을 끊음으로써(絕情欲), 신기神氣를 굳게 지킨다(以固守神氣).”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서에 생존당시에 행하여졌던 퇴계(退溪)의 정좌법(靜坐法)과 그 맥(脈)이 닿아있다. 관련 내용은 앞의 「시32」의 주석 9)의 ① ‘정중(靜中)’조항을 참조 바람.
*『도장정화(道藏精華)』는 총 17집(75권, 104책)으로 대만의 도교학자 소천석(蕭天石) 선생이 1990년에 대만의 자유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본 총서에 수록된 도교서적들은 양생문화 방면에 치중해 있다. 도교의 내단학(內丹學)과 관련된 저작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b. 착사(着事): 일에 착수(着手)하다, 어떤 일을 시작하다, 일을 하다
② 환다사(還多事): 여전히 심사(心事)가 많다. 여전히 일처리에 문제가 많다.
- 4) ① 물리관천(物理關天): 만물의 이치는 모두 천도(天道)와 관련이 있다.
a. 물리(物理): 사물의 도리, 규율, 만물의 이치
b. 관천(關天): 천명(天命)과 관계가 있다, 천의(天意)에 연관되다, 천도에 관련이 있다.
② 소(少): …하는 사람은 적다(많지 않다), …하는 경우는 적다
③ 견천(見天): 천리(天理)를 깨닫다
- 5) ① 도(道): 천리(天理: 천도天道: 자연법칙), 천도(天道: 천리天理: 천의天意). 본 시에서는 천도(天道)의 이치대로 만물이 제각기 적소(適所)를 만나 처한 환경에 따라 적응하며 사는 것을 이르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연어(鰲魚) : 본 시에서의 ‘연어’는 ‘연어비약(鰲魚飛躍 : 솔개는 하늘에서만 날고 물 고기는 연못에서만 뛰다)’의 약어(略語)로, 만물이 각각 천지자연의 이치대로 제 처소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앞의 「시8」의 주석 28)의 ② ‘연어동(鰲魚動)’조항을 참조 바람.
- ③ 장활발(長活潑) : 오랫동안 (언제나) 활발하다, 활기차다
- 6) ① 등갈(藤葛) : 등나무와 칠. 본 시에서는 불여의(不如意)한 세상사, 곧 세속의 갈등과 괴로움을 비유한 뜻으로 쓰였다.
- ② 만견전(謾牽纏) : 등갈(藤葛)에 얽혔던 것을 숨기다.
- a. 만(謾) : 속이다, 감추다, 기만하다
- b. 견전(牽纏) : (끈질기게) 엉켜 붙다, 얽히고설키다
- 7) ① 성문(聖門) : ‘성도(聖道)에 진입하는 문’이라는 뜻인데, 본 시에서는 ‘공자의 도에 진입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 ② 자유(自有) : 자연히(응당) 있다.
- ③ 무언결(無言訣) : 말로 전달할 비결이 없다.
- 8) ① 천고(千古) : 오래된 연대. 전(轉)하여 오랫동안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 ② 분명(分明) : 명확하다. 분명하다
- ③ 지(只) : 줄곧, 끊임없이
- ④ 안전(眼前) : 지금, 현재. 본 시에서는 ‘지금까지’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시 ○○○. 정해년 丁亥年 정월 초하룻날
 대설 大雪이 내리는데,
 시詩 「인동 망호헌 仁同望湖軒」의
 운자韻字를 차운하여

詩 ○○○. 丁亥元日 大雪 次仁同望湖軒韻¹⁾
 정 해 원 일 대 설 차 인 동 망 호 헌 운

道大雪羣峯暗²⁾,
 도 대 설 군 봉 암

대설이 내리면서 뭇 산봉 山峰이 가려지고

濃雲四野同³⁾.
 농 운 사 야 동

질은 구름 끼어서 사방의 들판이
 똑 같으네.

長林隱見裏⁴⁾,
 장 립 은 현 리

우거진 수림이 보일락 말락 하는 곳에서,

蒼壁有無中⁵⁾.
 창 벽 유 무 중

청산의 암벽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네.

病或閒來減⁶⁾,
 병 혹 한 래 감

병이 나서 평소만은 본래 못하지만,

詩從靜後工⁷⁾.
 시 종 정 후 공

시심詩心은 평정을 찾은 후에 정교해졌네.

室空香縷細⁸⁾,
 실 공 향 루 세

방안은 횡한데 향로에서
 실 같은 연기 피어오르니,

- 1) 정해원일(丁亥元日 : 정해년 정월 초하룻날) 대설(大雪: 큰 눈이 내리는데) 차인동망호현운(次仁同望湖軒韻 : 시 「인동망호현」의 운자를 차운하여) :

****역자주석 :** 역자가 번역하는 본 시집의 목차로 보면, 본 시는 「시118」에 해당되나, 역자는 본 시의 목차를 「시○○○」으로 표기하였다. 그 이유는 본 시가 시제(詩題)의 표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역자가 이미 번역한 「권3·시38」에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본고가 저본(底本)으로 하고 있는 『서애전서(西厓全書)·권2 속집편(續集篇)·시부(詩部)』의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시집에서 이 시를 중복하여 본 『권4』에 수록하는 것은 저본인 『서애전서』와 역자의 번역본을 대조해 가면서 읽을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권3」에 보이는 시제(詩題)는 「정해원일(丁亥元日) 대설(大雪) 차망호현운(次望湖軒韻)」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고 「권4」의 해당 시제(詩題)에서는 ‘인동(仁同)’이라는 두 글자가 더 첨가되어 있다. 그러나 시의 원문은 완전히 일치한다. 그래서 본 역시집(譯詩集)에서는, 본 시의 원문과 역문 및 주석(注釋)을 시의 목차에 따라, 「시118」의 위치에 수록은 하되 시 총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 시의 목차를 「시○○○」으로만 표기하였다.

- ① 정해원일(丁亥元日 : 정해년 정월 초하룻날) :
- a. 정해(丁亥) : 정해년(丁亥年) 선조 20년, 1587년, 서애 46세 되던 해이다.
 - b. 원일(元日) : 초하룻날
- ② 차 인동 망호현 운(次仁同望湖軒韻 : 인동 망호현의 운자를 차운하여) :
- a. 차…운(次韻) : 차운은 바로 시를 지어 화답하는 방식의 일종으로, 보운(步韻)이라고도 칭한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11」의 주석 1)의 ① ‘차운(次韻)’조항을 참조 바람.
 - b. 인동(仁同) : 인동현(仁同縣). 행정구역의 명칭. 본래 신라의 사동화현(斯同火縣)인데, 후에는 수동현(壽同縣)이 되었다가 통일신라시대에는 인동현(仁同縣)이라 하였고, 고려시대에는 경산부(京山府)와 약목현(若木縣)에 예속되었다가, 조선시대 중기에 와서 인동부(仁同府)로 승격되었다. 지금 경북 구미시(龜尾市) 인동동(仁同洞)을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이다.
 - c. 망호현(望湖軒) : 인동현(仁同縣 : 지금의 경북 구미시 동부일대의 지역) 서부의 낙동강 강변에 있었던 누정(樓亭)이다. 조선 중종 때의 문신(文臣), 강혼(姜渾 : 1461~1519)이 쓴 망호현 건축의 기문(記文)이 있다. 기타 내용은 앞의 「시89」의 주석 1)의 ② ‘망호현(望湖軒)’조항을 참조 바람.
- 2) 암(暗) : (안개나 구름 또는 눈비가) 하늘을 덮다, (시선을) 가리다
- 3) ① 농운(濃雲) : 짙은 구름
- ② 사야(四野) : 사방의 들판. 일반적으로 사방을 가리킨다.

- 4) ① 장림(長林):
 ☆길게 뻗어 있는 숲, 우거진 수풀
 ☆은자(隱者)의 거처를 비유하는 말
- ② 은현(隱見):
 ☆보일 듯 말듯하다, 보일락 말락 하다. 본 시에서는 이 뜻으로 쓰였다.
 ☆은퇴했다 출사(出仕)했다
 ☆숨었다 나타났다 하다
- 5) ① 창벽(蒼壁): 청산의 암벽.
 **역주주석: 『권3·시38』에서는 ‘창벽(蒼壁)’을 ‘푸른 장벽’으로 번역하였으나, 여기서는 ‘청산의 암벽’으로 수정한다.
- ② 유무중(有無中): 시야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다
 a. 유무(有無): 존재여부를 표현한 것이다
 b. 중(中): 안중(眼中). 즉 본 시에서는 ‘시야(視野) 앞’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6) ① 병혹(病或): 병이 나서
 a. 혹(或): ‘유(有)’와 같은 뜻으로, ‘나다, 생기다’는 의미이다.
 ② 한래(閑來): 한래(閑來)로도 쓰며, ‘평시(平時)’에라는 의미로 쓰인다.
- ③ 감(減): …만 못하다, 쇠약해지다
- 7) ① 시증정(詩從靜): 시심(詩心)이 안정을 되찾다
 a. 시(詩): 시심(詩心)
 b. 증정(從靜): 안정(安靜)을 되찾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외물(外物)에 좌우되는 욕심을 버리고 상생(相生)의 순리를 좇아 마음이 평정(平靜) 혹은 안정(安靜)의 상태를 유지 보존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증(從): 따르다, 순종하다
 ⑤ 정(靜): 외물(外物)에 감응하기 전의 본연(本然)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본 시에서는 ‘안정(安靜: 외물과 접촉이 없는 평온의 상태)을 되찾았다’라고 번역하였다.
- ② 후공(後工): …한 후에야 비로소 정교(精巧)해지다
- 8) ① 실공(室空): 방안이 텅 비다
 a. 실(室): 방, 거실
 b. 공(空): 텅 비다
- ② 향루세(香縷細): 향로에 한 가닥의 연기가 실처럼 가늘게 피어오른다.
 a. 향(香): 향로(香爐)
 b. 루(縷): 양사(量詞)로 ‘실 또는 연기 같은 가늘고 긴 물건을 헤아리는 데 쓰인다.
 c. 세(細): 가늘게 피어오른다. 즉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상태를 묘사한 시어(詩語)이다.
- 9) ① 유사(幽思): 숙고(熟考), 심사(深思), 장고(長考)
 ② 정(正):

☆확실히, 진정, 참으로, 정말

☆바로, 막, 때마침

③ 신통(神通): 신기할 정도로 묘하다, 신통하디로 표현하다



시119. 시축詩軸에 쓰다

詩119. 詩軸¹⁾ 시 축

道力終衰薄²⁾,
도 력 종 쇠 박

도력道力이 이미 쇠잔하고
몸도 약해지다 보니,

天心轉窈昏³⁾.
천 심 전 요 혼

정신마저 흐릿해져 혼란스럽기만 하네.

流年逼安臥⁴⁾,
유 년 뵈 안 와

흘러가는 세월은 편히 누워 쉬라
압박하는데,

萬事欲無言⁵⁾.
만 사 욕 무 언

만사는 한마디 말도 하지 말기를 바라네.

芳草秦京道⁶⁾,
방 초 진 경 도

방초芳草는 경성京城가는 길옆에
깔려있는데,

晴雲洛水原⁷⁾.
청 운 낙 수 원

갠 하늘엔 구름 떠있고
낙동강은 옛 모습 그대로세.

寧辭題一語⁸⁾,
영 사 제 일 어

어찌 말 한마디 적는 것조차
마다하겠는가,

只是解愁繁⁹⁾.
지 시 해 수 번

시름이나 풀고자 했음인데 번거롭네그려.

1) 시축(詩軸 : 시축에 쓰다) :

****역자주석 :** ‘시축’이란, ‘시를 적는 두루마리’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으며, 본 시에서는 ‘사에 자신의 시축’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기타 내용은 앞의 「시87」의 주석 1)의 ② ‘시축’조항을 참조 바람.

- 2) ① 도력(道力) : 수도(修道)해서 얻어지는 공력(功力), 도(道)를 닦아서 얻어지는 힘
 ② 증(終) : 마침내, 결국, 이미, 벌써
 ③ 쇠박(衰薄) : 쇠파하다, 쇠미(衰微)해지다
- 3) ① 천심(天心) : 하늘이 부여한 마음으로, 곧 ‘본성 혹은 본심’의 뜻인데, 본 시에서는 ‘정신·의식’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② 전(轉) : 변하다, 바뀌다, 달라지다
 ③ 요혼(窈昏) : 우매해져 혼란스럽다, 정신이 흐릿해지고 의식이 혼란스럽다
- 4) ① 유년(流年) : 물과 같이 흘러가는 세월, 연령, 흐르는 세월
 ② 편안외(遍安臥) : 편히 누워 쉴 것을 압박하다, 편히 누워 쉬라고 압박하다
- 5) ① 만사(萬事) : 만사, 여러 가지 온갖 일. 매사(每事). 본 시에서는 ‘세상사’를 칭한다.
 ② 욕무언(欲無言) : 시비(是非)를 가리는 말을 하지 않기를(말기름) 요구하다
- 6) ① 방초(芳草) : 향기롭고 꽃다운 풀, 본 시에서는 ‘충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② 진경(秦京) : 진(秦)나라의 도성 함양(咸陽)을 가리키는데, 본 시에서는 조선의 경성 ‘한양(漢陽)’의 대칭으로 쓰였다. ‘경성(京城)’으로 번역한다.
 ③ 도(道) : 길, 통로
- 7) ① 청운(晴雲) : 맑게 개인 하늘에 백운白雲이 떠 있다.
 ② 낙수(洛水) :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경내를 흐르는 낙하(洛河)를 가리키나, 본 시에서는 하회리 앞을 흐르는 낙동강을 대칭하는 말로 쓰였다.
 ③ 원(原) : 의구(依舊) : 예전 그대로 변함이 없음)하다. 본 시에서는 ‘예전 그대로 흘러감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8) ① 녕(寧) : 어찌 (…이겠는가), 설마 (…하겠는가)
 ② 사(辭) : 마다하다, 피하다, 그만두다
 ③ 제일어(題一語) : 한마디 말을 적다
- 9) ① 지시(只是) : 다만, 단지 …에 불과하다
 ② 해수(解愁) : 걱정(우울, 고민, 근심, 시름)을 잊다(풀다, 달래다, 덜다)
 ③ 번(繁) : 성가시다, 귀찮다, 번잡하다, 번거롭다



시120. 정해년(丁亥年: 1587년: 서애 46세) 이월
 열 여드렛날 비가 오는데,
 연좌루^{燕坐樓}에 앉아 반산^{半山}
 왕안석^{王安石}의 시를 차운하여

詩120.¹⁾ 丁亥二月十八日雨 坐^燕坐^樓²⁾ 次^{半山韻}³⁾
 정 해 이 월 십 팔 일 우 좌 연 좌 루 차 반 산 운

春風長嘯獨凭樓⁴⁾,
 춘 풍 장 소 독 병 루

춘풍이 솔솔 부는 데
 홀로 누의 난간에 기대앉았는데,

山自蒼蒼水自流⁵⁾.
 산 자 창 창 수 자 류

산색^{山色}이야 본래 창창하지만
 강물은 절로 흘러가네.

須識箇中眞意味⁶⁾,
 수 식 개 중 진 의 미

그 가운데서 진정한 정취
 당연히 우리나라거늘,

莫言江上使人愁.
 막 언 강 상 사 인 수

강변이 사람을 수심에 잠기게 한다고
 말하진 말게나.

- 1) 위의 시는 본고가 저본으로 한 『서애전서(西厓全書) 권2·속집편(續集篇)·시부(詩部)』에서는 121번째의 시제(詩題)에 해당되나, 여기 목차에서는 「시120」으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앞의 「시○○○」의 주석1)의 **역자주석**에서 밝혔듯이, 본고의 「시118」이 『서애전서 권1·간본편(刊本篇)·별집(別集) 권1 시부(詩部)』를 저본으로 한 줄역 『국역 류성룡 시 III』의 「시38」과 중복 되었기에, 본고에서는 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시 총수에서 1시제를 감소하여 「시120」으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시○○○」의 주석 1)의 역자주석을 참조 바란다.

- 2) 연좌루(燕坐樓) : 앞의 「시95」에서 주석 1)의 ② ‘연좌루(燕坐樓)’ 조항을 참조바람.
- 3) 차반산운(次半山韻) : 반산(半山)의 운(韻)을 차운(次韻)하다
- ① 차운(次韻) : 앞의 「시11」에서 주석 1)의 ① ‘차운(次韻)’ 조항을 참조바람.
- ② 반산(半山) : 북송(北宋)의 정치가이자 학자인 왕안석(王安石)의 별호(別號).
 ☆왕안석(王安石 : 1021~1086) : 중국 북송의 정치가이자 학자이며, 자는 개보(介甫)이고, 호는 반산(半山)이다. 부국강병을 위한 신법(新法)을 제정하여 실시하였다.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저서에 『주관신의(周官新義)』, 『왕임천선생집(王臨川先生集)』 등이 있다.
- 4) ① 장소(長嘯) : (바람이) 쇄쇄(술술) 불다.
- a. 장(長) : 정도를 표시하는 말로서, ‘대(大 : 크다, 많다, 세다)’의 뜻으로 쓰였다.
- b. 소(嘯) : 물이나 바람 등의 소리로서 ‘쌩쌩·술술·쇄쇄(썩썩)·윙윙’ 등으로 표현되는 말인데, 본 시에서는 ‘술술 부는 바람소리’를 형용한 뜻으로 쓰였다.
- ② 독빙루(獨凭樓) : 홀로 누각 난간에 기대 있다
- a. 빙(凭) : 기대다, 의지하다. 본 시에서는 ‘난간에 기대앉은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b. 루(樓) : 누각. 본 시에서는 ‘연좌루(燕坐樓)’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였다.
- 5) ① 산자창창(山自蒼蒼) : 산색(山色)은 본래 창창하다.
- a. 산(山) : 본 시에서는 산색의 뜻으로 쓰였다.
- b. 자(自) : 본래
- c. 창창(蒼蒼) : 초목이 나서 푸릇푸릇한 모양으로 ‘창창하다’로 표현된다.
- ② 수자류(水自流) : 강물은 저절로 흘러가다
- a. 수(水) : 하류(河流), 강
- b. 자류(自流) : 저절로 흘러가다
- 6) ① 수식개중(須臾箇中) : 마땅히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
- a. 수(須) : 반드시, 틀림없이, 본래, 당연히
- b. 식(識) : 지각하다, 느끼다, 인식하다. 본 시에서는 ‘(마음속에) 우리나라’로 표현한다.
- c. 개중(箇中) : 이 가운데, 그 속에
- ④ 개(箇) : 지시대명사로 쓰여, ‘이’·‘그’의 뜻으로 쓰였다.
- ② 진의미(眞意味) : 참된(진정한) 정취
- a. 의미(意味) : (문학·예술작품에 표현된) 경지·경계(境界)·정취·무드, 취미·흥미



「서애연보西厓年譜」 초록抄錄

하회본河回本 『서애전서西厓全書』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2와 별집別集 권1
 및 『서애전서西厓全書』 권2 속집편續集篇에서 작시연도作詩年度가 명기明記된
 시작품은 병기併記함

1542(중종中宗 37. 임인壬寅)년

10월 1일 경상도 의성현義城縣 사촌리沙村里 외가에서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
 류중영柳仲郢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다.

1554(명종明宗 9. 갑인甲寅)년 13세

동학東學¹⁾에서 『중용中庸』·『대학大學』을 강독하다.

강관講官은 크게 칭찬하면서, “반드시 큰 학자가 될 것이다(必成大儒)”라고
 하다.

1557(명종明宗 12. 정사丁巳)년 16세

향시鄉試에 합격하다.

1558(명종明宗 13. 무오戊午)년 17세

광평대군(廣平大君 : 세종대왕 아들) 5세손 이경李堉의 딸과 결혼하다.

1560(명종明宗 15. 경신庚申)년 19세

부친의 사택私宅에서 부친 관찰공을 모시고 있다가 가을에 서울로 돌아오다.
 여러 친우들과 남계南溪에 놀러 가서 수석水石을 둘러보고, 시를 읊고 탄식
 하다.

1) 사학(四學) 중의 하나이다. 조선 중종 때 서울의 동서남북에 학교를 세워 사대부의
 자제를 교육시키던 학교이다.

“내가 성인聖人의 문하門下에서 놀게 되었다면(使我得游聖門), 단목씨(역자주 : 단목씨段木氏 공자 제자인 자공子貢의 성씨)만큼은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端木氏之徒可學而至)”라고 하였다.

10월, 관악산에 들어가서 『맹자孟子』를 읽다.

1561(명종明宗 16. 신유辛酉)년 20세

고향에 돌아와서 『춘추春秋』를 읽다.

1562(명종明宗 17. 임술壬戌)년 21세

안동安東 도산陶山에서 퇴계退溪 선생으로부터 『근사록近思錄』을 배운. 퇴계는 “이 젊은이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此人天所生也)”라고 하여 선생이 장차 대성할 인물임을 예언하다.

7월 기망(既望 : 음력 매달 16일)에 부친 관찰공이 소동파蘇東坡의 적벽강赤壁江 놀이를 주제로 시를 짓게 하자 선생은 즉시 근체시近體詩로 “달 밝고 바람 맑은 창공은 옛날부터 있어왔건만(月白風清空萬古), 이름만 남겨 두고 사람이 떠나간 지 몇 천 년이나 되었는가(名留人去幾千年).”라고 짓다.²⁾

9월 도산陶山에 가서 퇴계선생을 뵈고, 수개월을 머물면서 『근사록近思錄』 등을 수업하다.

이때부터 성리학性理學에 전념하며 실천적인 것을 강구하여 성현으로 지표를 삼아, 퇴계의 칭찬을 받다.

금계金溪에 있는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을 찾아가다. 학봉은 선생에게, “우리 들은 퇴계 선생을 모신 지 오래되었으나, 한 말씀도 칭찬받은 일이 없었는데

2) 본 시는 7언율시로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 권2 속집편(續集篇)·시부(詩部)의 「시1」에 보인다. 이 속집편의 국역은 류명희·안유호가 역주와 감수를 한 네 번째의 국역시집으로 이의 표제를 『국역 류성룡 시 VI-1』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권4-1·시1」로 약기(略記)한다.

같은 방식으로 『서애전서』 권1 간본편(刊本篇) 본집(本集) 권1(卷一)의 시부를 저본으로 한 것의 국역시집의 표제는 『국역 류성룡 시 I』로 붙였으므로, 이는 「권1·시1」로 약기한다. 또한 『서애전서』 권1 간본편 본집 권2(卷二)의 「시1」일 경우는 두 번째의 국역시집이므로 「권2·시1」로 약기하며, 『서애전서』 권1, 간본편 별집(別集) 권1(卷一)의 「시1」일 경우에는 세 번째의 국역시집이므로 「권3·시1」로 약기한다.

공은 선생을 한 번 뵈었는데도 선생이 바로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사람으로, 훗날 반드시 큰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공은 어떻게 스승에게서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었소?”라고 하다.

1563(명종明宗 18. 계해癸亥)년 22세

생원 진사 동당초시東堂初試에 합격하다.

1564(명종明宗 19. 갑자甲子)년 23세

생원生員 회시會試³⁾에 1등, 진사進士에 3등을 하다.

퇴계선생이 남에게 준 편지에, “이현(而見 : 류성룡의 字)은 빨리 달리는 수레로 앞에서 길을 인도하여 나가는 듯하니(而見逸駕啓途), 그 사람 형제의 지향志向하는 바가 매우 가상하다(其人兄弟趣向甚嘉).”라고 하다.

황해도에 있는 부친(관찰공)을 가서 뵈다.

7언악부시가 보인다.⁴⁾

1565(명종明宗 20. 을축乙丑)년 24세

태학太學에 들어가다. 문정왕후文定王后(중조中宗의 비妃)가 불심佛心이 깊어 보우普雨가 왕비를 위해 무차회無遮會⁵⁾를 한 달이 넘도록 열었는데, 왕후가 곧 죽게 되자 세간에서는 보우가 무리하게 여러 날 재齋를 올리길 요구한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분개하다. 이때, 태학생들도 이에 공감하고 보우를 죽이지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선생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그러나 태학생들의 주소奏疏가 수용되지 않자, 그들은 “감히 학관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당적아세黨賊阿世⁶⁾하는 놈으로 지목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선생은 “우리가 임금에게 간하다가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물러서는 건데, 다른 이름을 붙일 게 없어서 굳이 ‘당적아세’라고 하는가?”라고 하며 반대하다. 선생은 태학

3) 초시에 급제한 자가 서울에 모여 다시 보는 시험이다.

4) 「권4-1·시9」를 참조 바람.

5) 무차대회(無遮大會)라고도 한다. 이의 뜻은 성범(聖凡)·도속(道俗)·귀천·상하의 구별 없이 일체 평등으로 재시(財施)와 법시(法施)를 행하는 대법회를 말하는 것이다.

6) 당적아세(黨賊阿世) : ‘적의 편이 되고 세태에 아부하다’는 뜻이다.

생들의 반발에도 굽하지 않고, 이를 ‘점신오명玷身汚名’⁷⁾이란 낙자로 바꾸다.

1566(명종明宗 21. 병인丙寅)년 25세

문과에 응시, 병과(丙科)⁸⁾에 합격. 승문원承文院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로 임명되다.

봄에 정주定州 목사牧使로 부임하는 부친 관찰공觀察公을 모시고 갔다가 여름에 귀가하다.

오는 길에 황강黃岡을 지나던 중, 그날 밤 꿈에 백씨伯氏 겸암공謙菴公이 병들어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 이때 사실 겸암공이 병이 들어 고향에 머물러 있었다.

서애는 평소 관직에 뜻이 없었으나, 부친과 형님의 명으로 과거를 보아 급제를 하다. 그러나 관직을 맡기 전까지는 공부만 하고자 하다. 퇴계 선생이 그런 말을 듣고 겸암공에게 “그대의 아우는 처음으로 과거에 합격했건만(更憐賢季初攀桂), 얼마이게 될 세상일에서 벗어나려는 뜻이 더욱 가상하다네(萬事將纏欲脫纏)”라는 시를 보내오다.

이 시기에 5언고시古詩와 7언절구絶句의 시詩가 보임.⁹⁾

1567(명종明宗 22. 정묘丁卯 : 선조宣祖 즉위 해임)년 26세

봄에 정자正字로 승진되고, 휴가를 얻어 정주에 가서 부친 류중영柳仲郢 관찰공을 문안하다.

4월,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 겸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을 임명받고 조정에 돌아오다.

6월, 명종 서거.

8월, 고향에 가는 퇴계 선생을 전송하기 위해 광진廣津까지 가서 송별시를 짓

7) 점신오명(玷身汚名) : ‘몸에 흠집을 내고 이름을 더럽히다’는 뜻이다.

8) 병과(丙科) : 조선 시대에, 과거 합격자를 성적에 따라 나누던 세 등급 가운데 셋째 등급. 문과(文科)에서는 23명, 무과(武科)에서는 20명을 뽑아 정9품의 품계를 주었으며, 성균관·승문원·교서관의 임시직인 권지(權知)에 임명하였다. 고려 숙종 이후에 제술과(製述科)에 합격한 사람을 성적에 따라 나눈 등급의 둘째. 모두 7명을 뽑았다.

9) 「권1·시1」과 「권1·시2」 및 「권3·시1」과 「권4·시15」를 참조 바람.

다. 지문점마(咨文點馬¹⁰)로 의주義州에 가던 중에 정주定州에 들러 관찰공을 문안하다.

10월, 조정에 돌아오다.

1568(선조宣祖 1. 무진戊辰)년 27세

2월, 휴가를 얻어 정주定州에 가서 관찰공을 뵈다.

이때 정관재靜觀齋에서 7언절구絶句의 설리시說理詩 한 수를 지음.¹¹⁾

가을에 왕명을 받아 성주星州로 가서 포사(曝史 : 사책史冊을 벌에 쬔고 바람을 쏘이는 일)하다. 이때, 성주로 가는 길에 고향에 들러 하외(河隈 : 지금의 명청은 하회河回邑)에 있는 겸암공謙菴公을 찾아보다.

1569(선조宣祖 2. 기사己巳)년 28세

10월, 사헌부司憲府 감찰이 되어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 : 정사正使는 이 후백李後白)으로서 명나라 연경燕京에 가다. 이때에 명의 태학생 수 백 명이 왕양명王陽明과 진백사陳白沙의 학문을 주장한데 대하여, 선생은 설문청薛文淸 설이 정통유학의 종주宗主임을 주장하여 감탄과 존경을 받다. 또한 궁중서열에서 유생儒生을 도사道士와 승도僧徒의 뒷줄에 세우는 잘못을 지적하여 즉석에서 시정正하게 함으로써, 명나라 조정을 놀라게 하다.

선생의 이러한 발언과 풍모에 감동한 신안新安 출신 관료, 오충주吳仲周가 옥하관玉河館으로 선생을 찾아와서 호의를 표하자, 선생은 퇴계 선생의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보여 주다. 선생이 돌아올 때 오공吳公이 서序를 곁들인 송별시送別詩를 지어준다.¹²⁾

또한 부채에다 두 사람이 헤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팔분서체八分書體¹³⁾로 ‘관산별의關山別意’란 네 글자를 써서 주자, 선생은 그 운자韻字를 달아서 화답하다.¹⁴⁾

10) 지문점마(咨文點馬) : 지문이 왕래할 때 사용하는 말을 점검하는 책임자.

11) 설리시(說理詩)란, 사물의 규율이나 이치를 추구하거나 중시하여 읊은 시를 말하는 것이다. 「권1·시4」를 참조 바람. 「권3·시1」과 「권3·시6」도 참조 바람. 이 시기에, 유별시(留別詩)인 「권4-1·시16」도 보임.

12) 「권1·시11」, 부록으로 첨부한 「충주원운仲周元韻」을 참조 바람.

13) 팔분서체(八分書體) : 예서(禮書)와 전자(篆字)를 절충하여 만들어진 서체의 하나.

1570(선조宣祖 3. 경오庚午)년 29세

3월, 연경燕京에서 돌아온 후, 병조좌랑兵曹佐郎 겸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에 임명되다. 봉당의 징후를 아뢰 전영의정前領議政 이준경李浚慶의 유차遺劄¹⁵⁾를 문제 삼아, 그의 관작官爵을 추탈追奪하자는 공론이 크게 일었으나, 선생이 그 부당함을 주장하여 이를 저지하다.

1571(선조宣祖 4. 신미辛未)년 30세

3월, 예안禮安에 가서 퇴계 선생 장례식에 참석하다.¹⁶⁾
조정에 돌아와 병조좌랑兵曹佐郎에 임명되다.
가을에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모친을 가서 뵈다.
낙동강洛東江 서쪽 언덕, 서애西厓에 서당을 지으려 하다가 터가 좁아서 결정하지 못하고, 이로써 스스로 ‘서애’로 호를 삼다.
가을, 5언고시古詩, 「기몽記夢」¹⁷⁾을 짓다.

1573(선조宣祖 6. 계유癸酉)년 32세

4월, 아들 위樟가 태어나다.
7월, 부친 류중영柳仲郢[황해도 관찰사]의 상을 당하다.
11월, 천등산天燈山 금계金溪에 장사 지내고, 하외河隈¹⁸⁾로 와서 반곡返哭하다.
상례는 모두 주자朱子の 『가례家禮』를 따른다. 겸암공과 번갈아 산소 옆을 지키고, 아침·저녁으로 성묘하였으며, 초하루·보름 때면 반드시 돌아와서 영좌靈座에 전향을 올렸음.

14) 「권1·시11」의 2수와 「권1·시99」를 참조 바람.

15) 유차(遺劄) : 임종 직전 준경이 부르고 아들이 받아 적어, 선조에게 올린 네 가지 조목의 유차(遺劄)이다.

16) 이 시기에 「권4-1·시20」의 시가 보임.

17) 「권1·시7」을 참조 바람.

18) 하외(河隈) : 지금은 하회(河回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로 칭하고 있음.

1575(선조宣祖 8. 을해乙亥)년 34세¹⁹⁾

9월에 상복을 벗다.

홍문관弘文館 부교리副校理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다.

겨울에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임명되었으나 또다시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다.

1576(선조宣祖 9. 병자丙子)년 35세²⁰⁾

1월, 홍문관 교리校理에 임명되어 소명召命을 받고 부임하다가 도중에 사양하고 돌아오다.

원지정사遠志精舍²¹⁾가 완성되다. 정사精舍는 마을 북쪽 강 언덕 위에 있으며 다섯 칸이며, 기문記文이 있다.

4월,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에 임명되어 조정에 돌아오다.²²⁾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에 전임되었고, 또 홍문관전환弘文館典翰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했지만,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에 옮겨 임명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뵈다.

12월, 홍문관弘文館 부응교副應教에 임명되었으나 상소하여, 충청도와 경상도 중에 조그마한 고을의 목민관이 되어 65세의 노모老母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청하였으나, 윤택 받지 못하다.

1577(선조宣祖 10. 정축丁丑)년 36세

1월, 의정부議政府 검상檢詳에 임명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모친을 가서 뵈다.

2월, 군위軍威의 선산先山을 찾아가 성묘하다.

여름에 사인舍人으로 승진하였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다. 상소上疏로 노모

19) 이 해에 「권4-1·시26」의 시가 보임.

20) 이 해에 「권4-1·시27」의 시가 보임.

21) 원지정사(遠志精舍) : 중요민속자료 85호. 이 정사(精舍)는 서애(西厓)가 32세 때(선조 6년, 1573년)에 부친상을 당하고, 낙향해서, 은거할 때에 지은 건축물. 소재지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12-1번지이다.

22) 선생은 이때 경성(京城)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비가 와서 풍기객사(豐基客舍)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비가 그치면서 떠날 때, 풍기군수 배삼익(裴三益)에게 7언절구의 유별시(留別詩)를 써주었다. 「권3·시12」를 참조 바람.

의 봉양을 주청하였으나 윤택 받지 못하다.

여강서원廬江書院의 퇴계 선생 봉안문奉安文을 짓다.

구도求道에 대한 향심向心을 표현한 시가 보임.²³⁾

1578(선조宣祖 11. 무인戊寅)년 37세²⁴⁾

봄에 휴가를 얻어 안동의 노모를 뵙고 조정으로 돌아오다.

4월, 「원지정사기遠志精舍記」를 쓰다.

7월, 아들 여씨가 태어나다.

8월,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모친을 가서 뵙다. 또한 같은 달, 남행하는 길에 동호東湖에 위치한 몽퇴정夢賚亭에서 지인知人들과 하룻밤을 묵고 길을 나설 때 5언을시로, 유별시留別詩를 지어주다.²⁵⁾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서 홍문관弘文館 응교應敎에 임명되다.

선생이 옥당玉堂에 있을 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불러 하위河隄의 산수도를 그려 그것으로 아버지 생각과 고향 생각하는 뜻을 붙이다.

1579(선조宣祖 12. 기묘己卯)년 38세²⁶⁾

봄에 홍문관 직제학直提學에 임명되다.

4월,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 춘추관春秋館 수찬관修撰官에 임명되다. 과거에는 승정원에서 쓰는 종이가 넓고 두꺼워서 비용이 많이 들었으나, 선생이 건의하여, 한 달분의 양을 규정하여 남용하지 못하게 하고, 종이의 품질을 두껍지도 넓지도 않게 하자, 백성들이 그것을 편하게 여기다.

7월,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가서 뵙다.

왕께서 본도本道에 음식물을 대접하라고 명하시다. 이번 길에 평중宏仲 이덕홍李德弘과 함께 배를 타고 「논학유감論學有感」이란 7언절구의 시 두 편을

23) 「권1·시14」를 참조 바람.

24) 이 해 가을에 「권4-1·시35」의 시가 보임.

25) 「권1·시15」를 참조 바람.

26) 이 해에 「권4-1·시28」의 시가 보임.

짓다.²⁷⁾

겨울에 다시 승지承旨에 임명되다. 상소하여 노모의 봉양을 주청하였으나, 윤희 받지 못하다.

1580(선조宣祖 13. 경진庚辰)년 39세²⁸⁾

선생은 노모를 봉양하고자 해마다 관직을 사양하였으므로, 선조宣祖는 이때에 마침 상주목사尙州牧使가 결원缺員이 되자 이조吏曹에 물어 상주에서 안동까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임을 파악하고 선생을 상주목사尙州牧使로 특명하여, 노모를 모시도록 하다. 선조는 “그대에게 상주목사를 시킨 것은 이웃고를 관리들이 본받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以爾爲尙牧欲使隣官取法耳)”라고 하다.

선생은 임지에서 마을마다 초학자初學者를 교육시키는 교관과 향약鄕約²⁹⁾을 실행하는 유사有司를 선출하여 글로써 깨우쳤는데 대략 오륜五倫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먼저 할 일로 삼다. 선생은 또한 몸소 향교의 명륜당에 나아가 그곳 서생書生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는데, 우복愚伏을 위시한 여러 제자들에게 의해 훗날 상주지역의 퇴계학맥과 서애학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다.

이임離任할 때는 이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서 선생의 공덕을 칭송하고 또

27) 「논학유감(論學有感)」: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 시부(詩部)에는 보이지 않고 「서애연보(西厓年譜)」에만 보인다.

제1수 : 수많은 성인聖人이 전한 심법心法이니 탐구할만한 도이건만,
십 년이나 벼슬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네
늦가을 강변에서 상봉하고 한없이 감탄했나니,
그대 따라 노를 저어 원류를 찾아 가고 싶네.
千聖傳心道可求, 十年塵路未回頭。
相逢絕歎秋江晚, 理棹從君欲溯流。

제2수 : 대도大道는 본래 유일무이한 길이건만,
에답도다 후학後學들은 공론空論만 일삼네.
참된 실체를 명백히 드러내야 할지니,
물고기 물에 놓고 술개 하늘 나는 것은 다 동일한 근원이네.
大道由來不二門, 堪憐末學逞空言。
居然漏泄眞消息, 魚躍鳶飛擲一源!

28) 이 해 봄에 「시4-1·시38」의 시가 보임.

29) 「권1·시16」, 주석 2)의 ②번 ‘유규(遺規)’ 조항을 참조 바람.

한 생사당生祠堂을 세우려하자, 선생은 친한 이에게 글을 보내어 이를 저지시키다.

10월, 아들 단褄이 태어나다.

1581(선조宣祖 14. 신사辛巳)년 40세

다시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오다. 상소하여 벼슬을 그만두고 노모의 봉양을 주청하였으나, 윤희를 받지 못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뵈고 가을에 조정으로 돌아오다.

고향에 있을 당시 마침 정사精舍에 매화가 피기 시작하여 그 주변을 거닐며 시를 읊는데 승려가 시 한 수를 요구함에 지어준다.³⁰⁾

선생은 고향에 다닐 때마다 반드시 민폐를 널리 조사하여, 조정에 돌아오면 언제나 이를 보고하다.

무빙차자無氷箭子 10조목을 올리다. 왕명으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지어 올리다.

1582(선조宣祖 15. 임오壬午)년 41세³¹⁾

봄, 사간원司諫院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다. 이때 휴가를 얻어 고향에 있던 중에 소환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오다. 당시 대사간으로 소환되어 가는 길에 문경聞慶에 숙박하면서 7언을 시 한 수를 짓다.³²⁾

7월, 아들 진軫이 태어나다.

겨울에는 우부승지右副承旨에서 도승지都承旨로 특진되다. 명명나라 사신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예의와 법도에 준하는 처사로, 선조와 명명의 사신 양쪽에 모두 찬사를 받다. 사신이 떠난 후, 선생은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에 승진되다.

왕명으로 『황화집皇華集』 서문을 짓다.

1583(선조宣祖 16. 계미癸未)년 42세³³⁾

30) 「권1·시17」을 참조 바람.

31) 이 해에 「권4-1·시45」의 시가 보임.

32) 「권1·시18」을 참조 바람.

33) 이 해에 「권4-1」에 시 「49」·「시50」·「시51」·「시56」의 시가 보임.

1월 홍문관 부제학에 임명되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구경언의九經衍義』의 발문跋文을 짓다.

5월, 당론黨論이 격화되어 귀향하다.

가을, 정사精舍에서 번잡한 세상사를 우려하며 7언절구 한 수를 짓다.³⁴⁾

10월,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다. 다시 상소로 사양했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1584(선조宣祖 17. 갑신甲申)년 43세³⁵⁾

8월, 왕명으로 『문산집文山集』³⁶⁾ 서문을 짓다. 승진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조판서禮曹判書 겸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에 임명되다. 각처에 향약鄉約³⁷⁾을 반포하여, 효제孝悌와 예양禮讓을 돈독히 하는 것으로 백성을 교화시키고 풍속을 바로잡는 기본으로 삼다.

성리학性理學의 ‘이설理說’을 세워 퇴계선생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고택故宅을 바라보면서 그를 애도하는 7언절구絶句를 짓다.³⁸⁾

1585(선조宣祖 18. 을유乙酉)년 44세³⁹⁾

3월, 왕명으로 『정충록精忠錄』 발문을 짓다.

4월, 만이들 위禱가 죽다.⁴⁰⁾

의주목사義州牧使 서익徐益이 “정여립鄭汝立⁴¹⁾이 이이李珣에게 보낸 글에서 류

34) 「권1·시22」를 참조 바람.

35) 이 해에 경상도 관찰사로서 비안현(比安縣)에 도착하여, 벽에 적힌 시의 운(韻)을 차운하여 지은 시가 보임. 「권3·시36」을 참조 바람. 「권4-1」에 「시59」와 「시101」도 보임.

36) 송(宋)의 충신 문천상(文天祥)의 문집(文集).

37) 권선징악을 위주로 한 향촌의 자치 규약으로서, 본디 중국 송(宋)나라 때의 남전 여씨(藍田呂氏 여대균呂大鈞)의 향약을 본뜬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종 14년에 실시되었다.

38) 「권1·시23」을 참조 바람.

39) 이 해에 「권4-1」에 「시63」·「시64」·「시65」·「시72」·「시78」·「시79」·「시80」의 시가 보임.

40) 「권3·시43」을 참조 바람.

41) 조선 중기의 역신(逆臣)(1546~1589). 자는 인백(仁伯). 수찬(修撰)을 지냈다. 정

성룡을 들어서 크게 간악한 자”⁴²⁾라는 지적을 하자, 선생은 스스로 자신을 탄핵하는 ‘물러나야할 5가지’이유를 써서 주청하였으나, 윤휴 받지 못하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가서 뵈다.

20년 전(24세), 선생이 태학생太學生이었을 당시에 보우普雨승려가 개최한 무차대회無遮大會가 문정왕후文定王后的 죽음을 초래했다는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가 선조에게 받아드려지지 않아서 야기됐던 파문을 상기想起하며 7언절구를 짓다.⁴³⁾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선생의 문집을 교정校正하고 그 발문跋文을 짓다.

1586(선조宣祖 19. 병술丙戌)년 45세

봄에 예조판서를 사임하고 귀향 중 문경聞慶에서 숙박을 한 후, 현감 허행원許行遠의 전송을 받으면서 7언율시로 작별을 하다.⁴⁴⁾

3월, 휴가를 얻어 고향에 돌아와서 직명職名 취소를 주청奏請하다.

군위軍威의 선영 남쪽에 위치한 남계서당南溪書堂이 완성되다.⁴⁵⁾

남계에서 인동仁同으로 가서 노모를 뵈다. 이때 겸암공이 임지任地인 인동에서 대부인太夫人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은 하회에서 인동까지는 거리

권을 잡으려는 야심으로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고 도참설을 퍼뜨려 모반을 꾀하려 단로 나자 도주하여 자살하였음.

- 42) 선생의 자기탄핵 상소에 의하면, 10년 전, 반란자 정여립(鄭汝立)이 자신의 견해(사마광司馬光의 사관史觀인 “천하는 공물公物이니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를 주자의 성리학보다 낫다고 하여 좋게 보지 않았는데, 당시 그의 명망이 높아 모두들 그를 요직에 발탁하려하는데, 이경중(李敬中)만이 적극적으로 배척했음. 결과 외부의 의논이 ‘이경중이 훌륭한 사람을 질투한다.’고 떠돌아서 이경중을 이조에서 추방하였음. 그러나 선생은 전일의 견해로 정여립의 사람됨을 좋게 여기지 않았고, 선생의 동료들도 이경중의 말을 긍정하여, 이에 정여립이 호남에 있을 때 서울 사람에게 보낸 글에서, 서애를 지적하여 ‘큰 간악[巨奸]’이라 함이, 서익(徐益)의 상소에 거론되었음.

43) 「권1·시25」를 참조 바람.

44) 「권1·시28」을 참조 바람.

45) 남계의 12 절경을 5언절구로 읊음. 이 시는 소서(小序)가 없어 작시(作詩) 년대는 알 수 없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본 시집에 관련시가 있음을 알림. 즉 「권1·시52」를 참조 바람. 또한 이 해에 남계정사 학생들에게 시 한 수 지어 부침. 「권1·시29」를 참조 바람.

가 조금 먼 관계로 이와 가까운 남계南溪에 거처하면서, 날마다 시종들을 시켜서 문안을 드리게 하고, 자신은 10일마다 한 차례씩 문안을 드린다.

옥연서당玉淵書堂이 완성되다.⁴⁶⁾ 선생이 원지정사遠志精舍를 지은 뒤에 오히려 마을과 너무 가까운 것을 한탄하여 북담北潭에다 자그마한 집을 지어 거기에 서 늙을 계획을 하다. 마침 탄홍龔弘이란 승려가 그 일을 담당하겠다고 자청하여, 곡식과 비단帛을 투자함. 그런 뒤 10년이 지나서 완성되었는데, 이름은 ‘옥연玉淵’이라 하다. 정사잡영精舍雜詠⁴⁷⁾과 기문記文⁴⁸⁾이 있다.

야은治隱 길재吉再선생 ‘지주 중류비砥柱中流碑’의 음기陰記⁴⁹⁾를 지음.

구백담具栢潭의 부고를 받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7언율시律詩의 애도시哀悼詩가 있음.⁵⁰⁾ 제문과 만사挽詞도 있음.

1587(선조宣祖 20. 정해丁亥)년 46세⁵¹⁾

3월, 입궐하라는 소환을 받고 가다가, 도중에서 사양하고 돌아오다. 또다시 수차 소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다. 이때 7언절구로 「재거독역齋居讀易」을 짓다.⁵²⁾

46) 옥연서당이 완성되고 나서 지은 시가 보인다. 「권3·시28」과 「권3·시47」을 참조 바람.

47) 여기서 이 정사잡영(精舍雜詠)은 바로 「권2·시54」인 「옥연십영 효이백고숙십영(玉淵十詠效李白姑熟十詠)」을 가리킨다.

48) 여기서 ‘기문(記文)’은 ‘옥연서당기(玉淵書堂記)’를 가리킨다. 관련 내용은 류명희·안유호 역, 「권2·시54」의 주석 1)의 ① ‘옥연(玉淵)’ 항목을 참조 바람.

49) 음기(陰記) : 비갈(碑碣)의 등 뒤에 새긴 글.

50) 「권1·시34」를 참조 바람.

51) 이 해 정월 초하룻날 지은 시가 보인다. 「권3·시38」을 참조 바람. 이 시는 「권4-1·시118」에도 보임. 이는 편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보인다. 이 해 늦봄에 지은 시로서는 「권3·시39」와 「권4-1·시94」를 참조 바람. 또한 계절에 대한 기재는 없이 그냥 ‘정해년(丁亥年)’으로만 표기된 시인 「권4-1·시119」도 보임.

52) 「재거독역(齋居讀易)」: 화하본 『서애전서(西厓全書)』 시부(詩部)에는 보이지 않고 「서애연보(西厓年譜)」에만 보인다.

초라한 서재에서 『주역』을 읽다가 나의 어리석음 탄식하며,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다보면 어느덧 서쪽으로 해가 지네.

복희와 문왕 소식이 멀다 하지 말라,

창밖에 봄새가 여기저기서 지저귀거늘.

窮簷讀易歎吾迷, 晨起研劘至日西。

입궐하라는 명을 받고 용추龍湫 폭포에 이르러 5언절구를 짓다.⁵³⁾

퇴계 선생의 문집을 편차編次하다.

1588(선조宣祖 21. 무자戊子)년 47세

동경연同經筵으로 부름을 받고 가다가 도중에서 사양하고 돌아오다. 여러 번 소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다.

5언절구시 「연좌루 추사燕坐樓秋思」를 짓다.⁵⁴⁾

선생이 하회河回에 있을 때, 학기學己가 찾아오다. 때마침 정사(玉淵精舍)에 국화가 활짝 피어 있어, 국화시를 지어서 그에게 보이다.⁵⁵⁾

10월, 형조판서刑曹判書 겸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을 겸하다. 선조를 인견하고 학문을 토론하는데, 선조가 왕양명王陽明의 ‘치양지致良知’와 ‘심즉리心即理’의 학설을 질문하면서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같이 여기다. 이에, 선생이 상세하게 설명하니, 선조는 “학문은 마땅히 정자程子나 주자朱子를 종사宗師로 삼아야지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다.

홍문관弘文館 대제학大提學, 지경연知經筵 춘추관春秋館 · 성균관사成均館事를 겸하게 하여, 다시 사양의 상소를 올렸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다.

1589(선조宣祖 22. 기축己丑)년 48세

봄,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에 병조판서兵曹判書 겸무의 임명을 받다.

6월, 왕명으로 『효경대의孝經大義』의 발문을 짓다.

휴가를 얻어 안동에 계신 노모를 가서 뵙다.

7월, 부인 이 씨가 세상을 뜨다.

9월, 안동으로 가는 부인의 상여를 전송하다. 이때 선생은 일본 사신使臣이 도성都城 아래에 와서 있었던 관계로, 통신사通信使를 물색하느라고 신천新川까지 상여만 전송하고 돌아오다.

또 예조판서에 임명되다.

莫道義文消息遠，隔窓春鳥數聲啼。

53) 「권1·시35」를 참조 바람.

54) 「권1·시33」을 참조 바람.

55) 「권1·시92」의 소서(小序)에 보인다.

10월, 정여립鄭汝立의 역모 옥사가 일어나다. 이로 인해, 여러 번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다.⁵⁶⁾

이때 위관委官이었던 정철鄭澈이 옥사를 공정하게 다스리지 못하여 선비들이 많이 연루되었는데, 선생의 상소로 오히려, 이경중의 관작은 올려 주었고 무고를 당한 명사名士들은 차츰 풀려나게 되다.

28세 때 성절사聖節使 일행에서 서장관書狀官의 임무를 띠고 북경에 갔을 때, 교우交友하게 된 신안현新安縣 출신 오중주吳仲周라는 관료를 지금껏 20년이 지나도록 소식을 듣지 못하여, 당시의 추억을 떠올려 시를 짓다.⁵⁷⁾

1590(선조宣祖 23. 경인庚寅)년 49세

3월, 황윤길黃允吉, 김성일金誠一 등을 통신사通信使로 보내어 왜국倭國의 정세를 살펴 오게 하다.

-
- 56) 1. 연루된 이유 : 선생이 고향에 있으면서 여러 번 부름을 받고도 부담하지 않자, 백유양白惟讓이 조정에 나오도록 권하라는 뜻으로, 정여립에게 편지를 썼는데, 마침 이때, 정여립의 옥사가 일어나면서, 그 글이 조정에 입수되어 백유양의 진술에서 선생의 성명이 나옴. 이 때문에 선생은 체임(遞任)시켜 주기를 여러 번 청했으나 윤허 받지 못함. ‘44세의 연보’도 참조 바람.

2. 선생이 스스로 죄인임을 탄핵한 상소 요점 :

첫째, 10년 전, 반란자 정여립이 자신의 견해(사마광司馬光의 사관史觀인 “천하는 공물(公物)이니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없다”)를 주자의 성리학보다 낫다고 하여 좋게 보지 않았다. 당시 그는 명망이 높아 모두들 그를 요직에 발탁하려하였지만, 당시의 이경중(李敬中)만은 이를 적극적으로 배척하여, 결국 이조에서 추방되었다. 이에 정여립이 호남에 있을 때 서울 사람에게 보낸 글에서, 서애를 지적하여 ‘큰 간악[巨奸]’이라 함이, 서익(徐益)의 상소에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둘째, 이를 계기로 서애는 농촌에 물러나 있게 되었다. 이제 보면 정여립의 간악한 죄상(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해서, 매달 사회射會를 열어 세력을 확장한 관계로, 1587년〈선조 20〉 왜선이 전라도 손죽도損竹島를 침범했을 때, 전주부윤 남언경南彦經의 요청으로 대동계를 동원해서 왜구를 격퇴하였음. 이후 대동계 조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신립申砬과 병조판서 살해로 병권장악에 이르게 됨. 정철鄭澈을 위관委官으로 이 사건을 조사처리하게 되자, 기축옥사己丑獄死로 이어졌음)을 미리 안 사람은 이경중(李敬中)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 선생은 그의 기미를 엿보면서도 간악한 진상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귀양 가게 되더라도 달게 받겠고, 만약 농촌으로 물러나 앉아 죄과를 반성하게 해주면 다행으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 57) 「권1·시99」를 참조 바람.

4월, 휴가를 얻어 노모를 가서 뵈다. 선조는 서애의 노모에게 내전(內殿 : 왕비)의 옷을 내리고, 또한 노모를 서울로 모셔와 봉양토록 하다.

5월,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고 이조판서를 겸하다. 명나라에 오기誤記된 조선 왕조 종계宗系를 바로 잡은 공로로 광국공신光國功臣, 풍원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서훈敍動되다.

1591(선조宣祖 24. 신묘辛卯)년 50세

2월, 좌의정佐議政에 오르고, 여전히 이조판서를 겸무하다. 선생은 조정의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왜국의 침공侵攻 조짐을 명나라에 통고하도록 하다.

7월, 왜란倭亂에 대비해서 장수가 될 만한 인재를 천거하여 정읍현감井邑縣監 이순신李舜臣을 전라도 좌수사左水使로, 형조정랑刑曹正郎 권율權慄을 의주목사義州牧使로 임명토록 하다.

그 전부터 써오던 진관제鎭管制⁵⁸⁾를 다시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반대론에 부딪쳐 실현시키지 못하다.

1592(선조宣祖 25. 임진壬辰)년 51세

3월, 『증손전수방략增損戰守方略』이란 병서兵書를 저술하여 이순신에게 보내어, 실전實戰에 활용토록 하다.

4월 13일, 임진왜란 발발. 좌의정佐議政으로서 특명으로 병조판서兵曹判書 겸인.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광해군光海君을 왕세자로 책봉冊封하도록 계청啓請하다. 「근왕에통교서勤王哀痛教書」를 널리 반포하고, 왕자들을 각도各道에 파견하여 근왕병勤王兵을 소집하도록 주청하다. 경상慶尙 우병사右兵使 김성일金誠一을 사면할 것을 주청하여 윤허를 받다.

5월, 왜병의 도성都城 침입이 임박하여, 왕을 모시고 개성開城에 이르자, 영의정領議政으로 임명되었으나, 개성 주민들의 항의(영의정을 파직하면서 함께 있던 좌의정[서애]를 문책하지 않음은 잘못이라고 자청하여 파직된 것임)로 자청하여 그 날(5월 2일)로 파직되다.⁵⁹⁾

58) 자신의 지역은 자신이 책임지는 군대 철칙. 이전의 방위체제는 각 지역에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크고 작은 진을 설치해 지역단위로 방어하는 진관제(鎭管制)였다.

동파역東坡驛에서 “만약 조선 8도가 모두 함락되면 명나라에 가서 하소연해야 한다(若八路俱陷便可赴愬王朝)”는 공론에 “선생은 안 된다고 하면서(公曰不可)”, “어기가 만약 이 강산을 한 걸음이라도 벗어난다면(大駕離東土一步地), 조선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朝鮮非我有也)”라고 극력 반대하여, 국내 향전 태세를 굳히다.

6월, 풍원 부원군豐原府院君으로 다시 서용敍用되다. 평양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윤휘를 얻지 못하다. 함경도로 거동하지는 공론公論을 극력 반대하여, 의주義州로 파천播遷토록 하다. 평양까지 침공한 왜군의 전방前方을 막고 후방을 차단하여, 포위하는 유격전遊擊戰을 지령하다.

9월, 군수물자의 보급과 명나라 장관將官들의 접대임무를 맡다. 건주위建州衛(청 태조 누루하치)가 구원병을 보내주겠다는 제의提議를 거절하도록 주청하다.

12월, 평안도平安道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왜군의 간첩인 김순량金順良 등을 잡아 차단하여 군기누설을 예방하다. 명명의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과 안주安州에서 회견할 때, 선생은 소매에서 평양지도를 꺼내어 형세와 군사들의 진입로를 지시하자, 제독이 붉은붓으로 표시하며, “적이 내 눈에 환하게 보인다”라고 말함에, 평양탈환을 협의하다. 선생이 물러간 후 제독은 부채에다 7언 율시를 써서 보내오다.⁶⁰⁾

59) “신은 이산해와 더불어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 국사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산해는 이미 파직되었는데 신만이 어찌 감히 스스로 무죄라고 해서 정승으로 있겠습니까” 하며, 대죄를 청함.

60) 이여송(李如松 : ?~1598)의 시. 「서애연보」에 보인다.

군사를 이끌고 밤사이 압록강 건너 것은,
조선이 불안하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네.
명철한 황제께서 날마다 승첩보 기다리시니,
미친한 신하는 밤마다 즐기던 술도 끊어버렸네.
봄인데도 살기가 돌지만 마음은 되레 장쾌하니,
이번 길에 요귀들 아주 뺏속까지 서늘하게 해주리라.
웃으며 장담하노니 감히 승산 없다 하겠는가,
꿈에서도 언제나 출정만을 생각하네.
提兵星夜渡江干，爲說三韓國未安。
明主日懸旌節報，微臣夜釋酒杯歡。
春來殺氣心猶壯，此去妖氛骨已寒。

1593(선조宣祖 26. 계사癸巳)년 52세

1월, 명군明軍과 협력하여 평양성을 탈환하다. 호남에서 운송되어 온 곡식으로 기민飢民을 구제해줄 것을 주청하여 시행토록 하다.

3월, 임진강臨津江에 칩으로 다리浮橋를 놓아 대군大軍을 건너게 하다. 충청·전라·경상 삼도三道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4월, 선생은 이여송의 대외對倭 강화講和 교섭에 항의했으나 명군明軍이 일방적으로 정전停戰하여, 왜군이 철수하자 명군과 함께 서울을 수복하다.

선생은 이여송의 의중을 파악한 터라, “명나라를 믿을 수 없으니 자주적自主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자”고 건의하여,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고 장정壯丁을 모집했으며, 조총鳥銃과 대포 등의 화기火器도 증강增強하다.

6월, 왕명을 받고 영남에 내려가다가 안동에 계신 노모를 문안하다.⁶¹⁾ 문안을 드리고 죽령竹嶺의 신림원新林院에 도달했을 때, 본도本道(역자주 : 원래 근무하던 도〈道〉란 뜻으로, 여기서는 ‘충청도’를 가리킴)에 체류하라는 명을 받고 여러 장수들을 단속해 놓은 다음, 신림원新林院에서 청풍현淸風縣으로 돌아온 후, 한벽루寒碧樓에서 업무로 인한 느낌을 7언율시로 표현하다.⁶²⁾

7월,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본 뜬 군병 훈련을 실시하도록 건의하다.

8월, 압록강 연안沿岸의 중강中江에서 우리나라의 소금·철·은·면포綿布·동銅 등과 중국의 양곡糧穀을 교역하도록 해서 식량을 확보하도록 하다.

9월, 왕명으로 다시 행재소行在所로 돌아오다.

10월, 선조를 모시고 환도還都하여,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설치를 주청하다. 훈련도감訓練都監 도제조都提調를 겸무하다. 계사啓辭를 올려, 변응성邊應星을 경기좌방어사京畿左防禦使로 임명하여 용진에 주둔시키기를 청하다.

다시 영의정에 임명되다.

談笑敢言非勝算，夢中常憶跨征鞍。

*석(釋) : 패기하다. 방치하다.

61) 처음에 겸암공(謙菴公)이 대부인을 모시고 난을 피하여 관동으로부터 전전하다 태백산 아래 이르렀는데, 이때 와서 처음으로 인편과 길이 통하여 선생이 찾아가 문안을 드림.

62) 「권1·시65」를 참조 바람.

윤월 11월, 조선을 더 이상 구원할 뜻이 없는 명은 사신으로 사헌司憲을 파견하여 우리의 국정國情을 살피고, 명이 왜군을 물리쳐 줄 것만을 바라는 선조를 퇴위시켜, 직접 통치를 강요하는 국서國書를 보내 왔으나, 선생이 이를 극력 반대하여 물리치다. 선생의 충성심과 지략智略에 감탄한 사헌司憲은 선생이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山河再造之功)이 있다”고 선조에게 극구 찬양하며 선생으로 하여금 국사國事를 전관專管토록 하라는 말까지 하다. 결과 선조 양위讓位 사건이 무마되다.

1594(선조宣祖 27. 갑오甲午)년 53세

3월, 진관법鎭管法을 다시 쓰기로 하여 국민군國民軍 제도를 확립시키다. 공물貢物을 미곡米穀으로 대신하여 바치도록 하고, 소금을 증산增産해서 이를 전매제專賣制로 하여 군량미를 확보토록 하다. 민심의 안정이 난국을 수습하는 기본임을 역설하여, 민생民生을 돌보는 안집도감安集都監을 설치하고 도제조都提調로 임명되다.

4월, 폐병을 앓아서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석상서石尙書⁶³⁾가 참장參將 호택湖澤을 보내어 차부箭付로 본국의 대신大臣을 유시諭示하지⁶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선생은 병중病中에 차자箭刺를 올려 재상宰相을 보내 왜적의 정세를 진주陳奏할 것을 청하다.

5월, 지방관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해이해진 관官의 기강을 쇄신하도록 건의하다.

6월, 대신을 명나라로 보내어 왜군의 동정動靜을 알리고 대책을 협의하도록 하다. 「군국기무십조軍國機務十條」를 올리다.

63) 석상서(石尙書) : 명나라 만력(萬曆) 연간에 병부 상서(兵部尙書)를 지낸 석성(石星)을 말함. 동명(東明) 태생으로 자는 공신(拱宸)이며,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조정에 구원을 요청한 조선 정부를 적극 지원하였으나, 뒤에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하옥되어 죽었음.

64) 이때에 중국 조정은 왜적이 오래도록 물러가지 않는다고 천하의 병력을 다 동원할 수 없으니, 왜적의 요청에 따라 조공을 허락하고 군사를 해체할 것을 요청함. 석상서(石尙書)가 이 논의를 주장했으나 과도관(科道官)이 이를 공박하여 송경략(宋經略)은 이로 인하여 파직되어 돌아갔고, 시랑 고양겸(顧養謙)이 대신 왔었음.

7월, 연병사무鍊兵事務를 병조兵曹에서 전담도록 하다. 문벌門閥·신분身分·출신지出身地의 차별 없이 총포銃砲·도검刀劍·기기器械·수학數學·광업鑛業·주철鑄鐵·화약火藥·제염製鹽 등에 유능한 인재를 널리 등용하도록 건의하다.

선생은 당시의 다사다난했던 시국時局의 구심점에서 시정가施政家로서 혹은 군략가軍略家로서 쉽지 않았던 자신의 처세를 잡언체의 시로 농 삼아 전하는 것이 보인다.⁶⁵⁾

1595(선조宣祖 28. 을미乙未)년 54세

1월, 한강 유역에 둔보屯堡⁶⁶⁾를 구축하고, 둔전병屯田兵 제도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다.

소疏를 올려 기축년己丑年(1589) 정여립鄭汝立의 옥사獄事に 억울하게 죽은 이의 오명을 씻어줄 것을 건의하다.

10월, 휴가를 얻어 귀향하려고 여주驪州에 이르렀다가 소명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오면서, 노모가 계신 남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다.

경기·황해·평안·함경 사도四道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임명되다. 사도순찰사四道巡察使에게 군병軍兵의 교련을 유시諭示하다.

11월, 관영官營의 제철장製鐵場을 설치하여 대포와 조총을 제조하도록 하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순시하고 승장僧將 사명대사四溟大師(惟政)에게 성城을 쌓고 창고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다.

과사성婆娑城에서 승병장僧兵將 의엄義嚴 장로에게 7언을시를 써 주다.⁶⁷⁾

1596(선조宣祖 29. 병신丙申)년 55세

1월, 군사를 훈련시키는 규칙을 제정하여 사도四道에 반포하다.

2월, 건주위建州衛⁶⁸⁾의 침입에 대비하여 북면北邊의 방위를 강화할 것을 평

65) 「권1·시66」을 참조 바람. 「권3·시60」도 참조 바람.

66) 둔보(屯堡) : 군대의 기능과 일반생활을 동시에 수행하는 마을.

67) 「권1·시68」을 참조 바람.

68) 건주위(建州衛) : 중국 명나라 성조(成祖)인 영락제(永樂帝) 때에, 남만주(南滿洲)의 건주(建州) 지역에 사는 여진족(女真族)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한 군영. 이후

안· 함경 양도兩道 순변사巡邊使에게 지령하다.

3월, 청명淸明에 금계金溪의 선영을 참배하다.

5월, 조완도趙完堵라는 자가 상소하여, “선생이 그의 아버지 조헌趙憲이 당연하게 얻을 군공을 업페했다.”고 하자, 선생은 “신이 대신의 지위에 있으면서 남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어, 직접 이름을 들어 배척받았습니다. 이는 반드시 신이 평소에도 남에게 가볍게 보인 소치이니, 외람되나 신의 관직을 체면攄免해 주소서.”라고 사직辭職을 주청했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윤월 8월, 선조가 대신에게 명하여 동궁東宮에게 청정聽政하게 하자 선생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문 앞에서 한 달 남짓 복합伏閣⁶⁹⁾하여, 윤허를 받아 내다.

9월, 이순신李舜臣에게 죄를 주자는 의견에 반대하여 사직상소辭職上疏를 올린다.

11월, 청야책淸野策⁷⁰⁾을 채용하여 왜적의 재침再侵에 대비하도록 하다.

전란 후 지방방어 상황순시를 위해 남행南行길에 오른 좌랑佐郎 정경임鄭景任에게 선생이 파사성婆娑城에서 5율로 된 시를 지어 주며, 내심內心을 보이다.⁷¹⁾ 선생이 명나라 장수를 따라 남정南征할 때, 잠시 하회河回에 들렀는데, 학기學己가 시집詩集을 들고 찾아와서 화운和韻을 요구하여, 그 시집에 수록된 시운詩韻에 차운次韻해서 주다.⁷²⁾

1597(선조宣祖 30. 정유丁酉)년 56세

3월, 이순신이 무함誣陷으로 파면될 때, 그 부당함을 극력 진언했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자, 그를 천거한 책임을 지고 5차례나 사직상소를 올린다.

8월, 왕명을 받고 경기京畿를 순찰하다. 이때, 적이 재차 준동하여 전라도와

여진족의 부족장에게 지휘권을 넘겨주었으며, 건주좌위(建州左衛)와 건주우위(建州右衛)가 새로 생겨남에 따라 건주 삼위(三衛)가 되었음.

69) 복합(伏閣) :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에 조신(朝臣) 또는 유생(儒生)이 대궐문(大闕) 밖에 이르러 상소(上疏)하고 엎디어 청하던 일.

70) 들판을 완전히 비우고 성에 들어가 방어하는 책략.

71) 「권1·시72」를 참조 바람.

72) 「권1·시92」의 소서(小序) 안에 보인다.

충청도 지방이 모두 봉쇄되자, 선생이 왕명을 받아 곧바로 한강漢江에 나가 순찰하면서, 경기 우방어사右防禦使 유림柳濂에게는 무한산성無限山城을, 별장別將 조발趙撥에게는 독성雋城을, 좌방어사左防禦使 변응성邊應星에게는 파사성婆娑城을 각각 지키게 하고, 이로 인해, 강 연안 일대를 따라 왕래하면서 물살이 세고 얇은 곳을 잘 경비하도록 하다.

경기京畿를 순찰하고 조정으로 돌아오다. 이때 시국時局의 안정에 역량이 따라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5언율시로 표현한 시가 보인다.⁷³⁾

9월, 어가를 호종하고 강가를 나가 순찰하다. 왕명을 받고 나가 경기와 충청도를 순찰하다. 왜적이 물러간 뒤 선조는 여러 대신을 각도에 보내어 그곳의 백성들을 위무하게 하다.

10월, 왕명으로 경기·충청 지방을 순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제장諸將들의 공과功過를 살피다.

11월, 왕명을 받고 남쪽에 내려가다. 이때 양경리楊經理·마도독麻都督이 곧 남쪽에 내려가게 되자, 선조는 선생에게 먼저 가서 군량을 조치하라고 명함.

12월, 봉화에 가서 노모를 찾아뵈다. 이때 대부인이 난을 피해 봉화에 있었다.

경리經理에게 선생을 헐뜯는 자가 있어, 경리는 그 말을 믿고, “유모柳某는 군문軍門 형개邢介에게 죄를 짓고 이쪽으로 도망 와서 군량을 운반하는 일 등을 전적으로 윤승훈尹承勳에게 맡겼다.”라고 하자, 선생은 장계를 올려 상황을 말하고 직명을 삭제해주길 청했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1598(선조宣祖 31. 무술戊戌)년 57세

여러 번 사직상소를 올렸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1월, 왕의 소환을 받다. 다시 봉화로 가서 노모에게서 수일간 머물다.

2월, 조정에 돌아오다. 이때 운암雲巖을 지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신曹伸이 거처하던 조그마한 정자를 임금이 하사한 호피虎皮로 구입하여 머물러 쉴 뜻을 가졌으나, 관직에 얽매어 뜻을 이루지 못하다. 이때, 종사관 윤경립尹敬

73) 「권1·시82」를 참조 바람.

표과 더불어 노닐면서, 운암골짜기 바위 위에 5언을시를 남김.⁷⁴⁾ 선생을 공박하는 자가 이를 두고, “전원이 온 나라 안에 두루 펼쳐져 있다(田園遍一國)”라고 하다. 이에, 다시 사퇴서를 올렸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3월, 사직서를 올렸으나, 선조는 “국가가 위태롭고 급박하니 대신으로서 사퇴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며 윤허하지 않다.

4월, 어가를 호종하고 서강西江에 가서 진법陳法을 연습하다.

7월, 왕명으로 벽제碧蹄에서 군문軍門 형개邢介를 맞이하다.

9월, 명명의 주사主事, 정응태丁應泰는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울산전투에서 패배하고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본국[조선 조정]도 양호와 합작하여 은폐했으며, 왜인과도 통모한다고 탄핵하다. 이에 선조가 분개하여 동궁東宮에게 결재를 받게 하고 정사政事を 돌보지 않다. 서에는 정2품 이상의 관리를 인솔하여 복합伏閣하다.

이때, 형군문邢軍門의 차인差人이 과도관科道官을 보내와서 군량미 운반을 청했는데, 선조가 답을 하지 않다. 마침 이때 선생은 대궐 뜰에서 선조가 정사政事 보기를 주청奏請하고 있었는데, 이조 판서 홍진洪進이 관안官案을 가지고 선생 앞에 다가와서 차출하여 보낼만한 자를 묻자, 황급한 터라, 전한典翰 김신국金愼國· 집의執義 황정철黃廷詰· 병조정랑兵曹正郎 윤홍尹弘· 지평持平 이이첨李爾瞻 등 네 사람을 낙점하고 서류를 갖추어 아뢰다. 이때 이이첨이 격노하여 혼자 계좌를 올려 선생이 자청해서 가지 않은 것을 탄핵하였고, 이에 윤홍의 소疏가 이어지자, 선조는 이이첨 대신 송석경宋錫慶으로 대신하다.

선생이 탄핵을 받았으나, 국사가 시급해서 회피할 수 없어, 한편으로는 선조가 정사政事 보기를 계청啓請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과도徐科道에게 위의 사실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올리다. 선조는 여전히 정사政事を 보지 않았고 선생을 미워하는 자들은 별때같이 공박과 배척의 상소를 올리다. 이에, 자신을 탄핵하는 차자箴刺를 올리고 사직을 주청하였으나 윤허 받지 못하다.

27일, 명나라 정응태丁應泰의 무주誣奏 사건에 대한 진주사陳奏使를 고사固辭하다.⁷⁵⁾

74) 「권1·시84」를 참조 바람.

그러나 선조는 여전히 이를 윤허하지 않아, 29일 동성東城 밖에 나가 왕명을 기다리다. 사직서를 올렸으나 윤허하지 않다. 당시 사면초가에 처해 있던 선생을 희지希之 김대현金大賢이 그의 선친의 시집을 들고 찾아와서 보여줌에 7언율시로써 그간의 심경과 우의를 표현하다.⁷⁶⁾

10월 6일, 마침내 진주사陳奏使를 체면遞免하다.

9일, 영의정領議政을 체면하다.

22일,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은 고금도古今島에서 선생이 논핵論劾되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탄식하다.

11월, 19일에 파직되자, 바로 20일에 남쪽으로 하행下行하다.

22일에 용진龍津을 건너 양근楊根 대탄大灘에서 유숙하다. 이날 선생의 행차가 관직에서 파직되어 전원으로 돌아갈 때, 도미천渡迷遷에 이르러, 삼각산三角山이 보이자, 말에서 내려 네 번 절을 하고 이곳을 떠날 때의 감회를 7언절구絶句로 읊다.⁷⁷⁾

75) 「서애연보」에 의하면, 명나라 정응태(丁應泰)가 무주(誣奏)한 사건에 대하여 선생이 고사(固辭)한 진주사(陳奏使)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이 이미 중한 탄핵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물러가 엎드려 죄를 기다려야 하고 결코 조정에 얼굴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기가 위급함으로 말미암아 어제 공의(公議)에 거슬림을 무릅쓰고 재차 대궐에 나가 공무를 수행하며 공사(公事)를 아뢰었고, 또 신의 봉사(역자주: 진주사陳奏使를 봉행하는 것) 등의 일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 유숙(柳濬)이 또 소(疏)를 올려 신의 죄악을 극도로 열거했습니다. 소(疏)는 벌써 이전에 들어갔는데도, 신은 전연 내막을 알지 못하고 태연스럽게 공사(公事)를 아뢰었습니다. 신의 몰골이 외롭고 위태로운 것은 이만해도 알 것입니다. 신이 이 지경이 되도록 논핵(論劾)을 당하였으니, 대신 자리에 함부로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진주사(陳奏使)의 봉행 문제는 곧 온 국가의 막대한 일입니다. 생각건대, 죄악이 많아 나라 안에서 가장 버림받은 자를 선발하여 보내면 무엇으로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신은 또한 무슨 면목으로 중국 조정의 사대부들을 만나 시비곡직을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지금 이 말을 하면 신을 좌주려는 자들은 또 반드시 사행(使行)을 회피한다는 죄목으로 돌릴 것입니다. 사리가 이와 같으니, 사생(死生)과 영육을 구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76) 「권1·시86」을 참조 바람.

77) 「권1·시87」을 참조 바람. 공교롭게도 선생이 파직된 이 날은 이순신이 명(明)나라 제독 진린(陳璘)과 연합하여 노량(露梁)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도주하던 적선을 추격하다가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한 날이기도 함. 서애는 이순신의 전

28일, 양근陽根에 사는 인척과 상사上舍 김언수金彦瑒가 각각 쌀 몇 말씩을 내
서 노자로 주어, 길은 떠나게 되었으나, 가족家屬들은 다 도보로 따르다.

30일, 충주 금탄金灘에서 유숙하다.

12월 1일, 덕산촌德山村에서 유숙하다. 산골길이 좁고 험한데 큰 눈이 몰아치
고 날은 또 칙흑처럼 어두워서 지척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 선생은 하인에게
명하여 부싯돌을 쳐서 불을 붙이게 하여, 험한 길을 간신히 지나 덕산촌에 당
도하자 밤이 벌써 깊었다.⁷⁸⁾

12월 5일, 태백산 아래 있는 도심촌道心村에 가서 노모를 찾아뵈다. 6일에는
모든 관작官爵이 삭탈되다.

1599(선조宣祖 32. 기해己亥)년 58세⁷⁹⁾

2월, 16일. 금계金溪에 가서 성묘하고 돌아와서 하의河隈에 갔다.⁸⁰⁾

사를 애도한 시작(詩作)을 남기고 있다. 「권2·시36」을 참조 바람.

78) 삭탈관직 된 이후, 귀향길에서 지은 시로 보임 : 「권2·시24」, 「권2·시25」, 「권3
·시67」.

79) 「권1·시91」과 「권1·시94」의 작시(作詩) 배경 : 선생의 시작(詩作)에 작시(作
詩) 년대가 기해(己亥)년으로 명기된 작품 1제(題 : 「권1·시91」)와 기해년으로
추정되는 1제(題 : 「권1·시94」)가 있다. 기해년이니 모두 서애가 58세 때의 작
품으로, 이미 이때는 관직에서 파직된 이후의 시기에 속한다. 고로 마땅히 시의 배
경이 ‘하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모두 태백산과 관련되어 있다. 전자인 「권1·
시91」은 태백산 아래에 있는 ‘도심촌(道心村)’이란 민가(民家)이고, 후자인 「권1·
시94」는 태백산을 마주하는 ‘서재(書齋)’이다. 「연보(年譜)」에 의거하면, 서애는
이미 지난 해(무술년戊戌年 : 1598), 11월에 관직에서 파직되어 가솔을 데리고 귀
향길에 올랐고, 12월에 노모가 계시는 피난지인 ‘도심촌’에 들렀다. 그리고 금년
(1599) 2월, 금계金溪에 가서 성묘하고 하회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보인다.
다시 연보를 보면, 서애는 (1599) 3월부터 하회에서의 정착을 시작하였으며, 금년
4월에 노모가 도심촌에서 돌아왔고, 선생은 이를 축하드리는 조출한 잔치를 열었
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지난 해(1598) 12월에서 금년(1599) 4월 이전까
지는 노모의 거처지가 하회가 아닌 태백산 아래의 ‘도심촌’이 되겠다. 아마도 효성
이 지극했던 선생은 당시 가솔들은 먼저 하회로 이동시키고 노모는 추운 겨울을
피해 금년 일기 화순한 4월에 하회로 모셔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니 선생은 노모
가 계시는 도심촌에 임시거처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주로 겨울철을 머물렀던 것으
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위의 두 시작(詩作)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두 편의 시작(詩
作)을 참조 바람.

80) 「권3·시71」 참조 바람.

3월, 옥연서당玉淵書堂에 나가 있으면서 찾아오는 손님을 사절하다. 그들은 선생을 위해 소疏를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였으나, 선생은 급히 친한 사람에게 글을 보내 힘써 말리다. 이때 정사精舍에 복숭아꽃이 만발하여, 갑자기 ‘이 물건이 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此物關我何事), 심체心體는 맑고 뚜렷해야하니 한쪽으로 치우쳐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心體澄虛不可有偏著)’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절구시絕句詩한 수를 짓다.⁸¹⁾

4월, 노모가 도심촌道心村에서 돌아옴에, 노모를 위해 송정松亭에서 조출한 잔치를 베풀다. 대부인은 선생이 관직이 삭탈되었는데도 화염火焰이 여전하다는 말을 듣고 밤마다 첫 닭이 울면 반드시 일어나서 의복을 정제한 다음 정화수를 떠 놓고 하늘에 빌었다.⁸²⁾

6월 28일, 직첩職牒을 돌려주었다가 얼마 안 되어 직첩을 도로 회수해 가다.⁸³⁾

9월, 겸암공과 함께 배를 타고 옥연소玉淵沼에서 놀다.

10월, 노모에게 헌수獻壽하다.

성극省克 김홍미金弘微에게 글을 주어 학문을 논하다.⁸⁴⁾

81) 「권3·시75」를 참조 바람.

82) “내 아들은 집에서 효자였고 나라에서는 충신이었습니다(吾子在家爲孝子，在國爲忠臣)”라고 하는 기원을 수십 일 동안 기구(祈求)하였음.

83) 선조가 하명하여 직첩(職牒)을 돌려주자 삼사(三司)가 그를 논핵하였음. 선조가 옥당(玉堂)이 올린 차자에 비답(批答)한 것을 보면 :
“논핵한 일이 실정에 너무 지나치니, 그 사람이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곁에서 보는 사람도 역시 복종하지 않는다. ‘주화(主和)’ 두 글자로써 탈을 잡아 심지어 진회(秦檜)와 비교하였는데, 진회는 오랑캐의 뜻을 받아들여 처자를 보전하였으며 송(宋)나라에 잠입하여 금인(金人)을 위해 화친을 도모하여 악비(岳飛) 등을 죽인 인물이다. 지금 류성룡도 왜적의 뜻을 받아들여 남몰래 음모를 통해 그의 처자들을 보전하고 화의를 주장했다는 것인가. 이런 말로써 인심을 승복시키고 국시(國是)를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인가. …… 그리고 중론을 물리치고 한밤중에 사신을 보냈다는 말은 더욱이 말이 안 된다. 그때는 조정의 의논을 널리 모아서 결정했고, 그 조정의 의논은 승정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과연 중론을 물리치고 독단으로 보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물며 파직된 지가 벌써 세월이 경과했는데 지금 어찌 관직을 복구할 수 없단 말인가.”

84) “지금 사람들은 옛사람이 학문을 논하던 경로에 대해, 견해도 없고 근거도 없으면서 거만하고 자신만만하게 정·주(程朱)를 얹잡아 보는데, 나는 일찍이 그러한 것

하회에서 선달 그림날 밤을 보내면서, 지난 해 그림날 밤엔 태백산 아래 작은 불사佛寺에서 그림밤을 보내던 정경을 떠올려, 다시 명년의 선달 그림날 밤은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내용의 시가 보인다.⁸⁵⁾

1600(선조宣祖 33. 경자庚子)년 59세⁸⁶⁾

1월, 옥연정사玉淵精舍에 나가 보허대步虛臺에 소나무를 심다.⁸⁷⁾

2월에 봄을 맞이하면서 노경老境의 정취를 읊은 시 한 수가 보인다.⁸⁸⁾

3월, 노모를 모시고 옥연정사에 가서 꽃을 구경하다.

퇴계선생 연보退溪先生年譜를 편찬하다. 퇴계선생 연보를 편찬 중에 선생이 병중이라, 본 작업에 참여한 김이정金而靜·김사열金士悅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월색이 아름다운 밤에 7언절구시 4수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다.⁸⁹⁾

5월, 옥연서당에 나가 보허대步虛臺에 대나무를 심다.

8월 14일, 겸암謙菴과 함께 금계金溪에 가서 성묘하다.

18일, 보허대를 증축하고 이름을 달관대達觀臺로 고치다.⁹⁰⁾

10월 29일, 『대학大學』을 읽고 느낀 점이 있어 7언절구 10수 「독대학유감 십수讀大學有感十首」를 쓰다.⁹¹⁾

에 대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누구에게 말해 줄 사람도 없었지만, 말해 주더라도 받아들여서 생각하여 살피려고 하지 않는 데야 어찌겠는가. 도리만 환하게 눈앞에 있을 뿐이니, 아무리 상산(象山)이나 양명(陽明)이 지금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내 또한 갑자기 행복을 하라는 것발을 세우지는 못할 터이니, 하물며 지금 세상에 이른바 술지개미를 먹고 뭍은 술을 마시는(餽糟啜醢) 자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대가 보는 바와 같은 것은 다행히 사리에 어긋나거나 모나지 않으니, 천만번 더욱 힘써서 이설(異說)에 동요되지 않는다면 어찌 교유만이 다행스러울 뿐이겠는가.”

85) 「권1·시110」을 참조 바람.

86) 작시(作詩) 연도(庚子年 : 1600년 : 59세)만 기재된 「권2·시10」의 시가 보인다.

87) 「권3·시87」, 「권3·시88」을 참조 바람.

88) 「권1·시112」를 참조 바람. 「권3·시74」도 참조 바람.

89) 「권1·시115」을 참조 바람.

90) 「권3·시101」을 참조 바람. 「권3·시118」도 참조 바람.

91) 「권2·시8(총 10수)」을 참조 바람.

또한 성극(省克) 김홍미(金弘微)에게 준 글에도 관련내용이 보인다 : “지난 겨울에 『대학(大學)』의 격물설(格物說)을 생각하다가 보다 깊은 깨달음의 경계가 있는

11월, 직첩職牒을 되돌려 받고 7언절구시를 남기다.⁹²⁾

12월, 13일 서쪽으로 산릉山陵에 가다.

21일 의인왕후 관棺을 동성東城 밖 길가에서 곡송哭送하고 그 날로 돌아오다.⁹³⁾

1601(선조宣祖 34. 신축辛丑)년 60세

3월에는 겸암공이 별세하고, 8월에는 대부인이 별세하다.

12월, 서용敍用의 명이 내리다.

선생이 관직에서 축출되어 3년째 되는 해에 학기學己 승려가 찾아와서 시집 한 권을 보여주자, 불문佛門에 대해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겨 장단구長短句 시를 지어 그 시집 후면에 써 주다.⁹⁴⁾

1602(선조宣祖 35. 임인壬寅)년 61세

4월, 청백리淸白吏로 뽑혀 『염근청백록廉謹淸白錄』에 이름이 오르다.

『영모록永慕錄』을 찬술하다. 서序와 발跋이 있다. 겨울에는 『상례고증喪禮考證』을 수찬하다.

것 같아서, 뜻하지 않게 7언절구 10수를 썼으니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며 지금 그 대에게 보낸다. 그 말편(末篇)에,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 진실로 다 마음인데, 그것이 인심인 줄 알고 그것이 도심인 줄 아는 그것이 어떤 물건인가? 이 물건이 어둡지 않으면 간명하게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공부야 곧 여기에 있다’ 하였는데, 요사이 내가 이 뜻을 생각하여 분명하게 알았다.”

선생은 또 일찍이 말하기를 : “『대학』 한 책에서 요점은 ‘지(止)’ 자 하나에 있다. 뜻은 마땅히 성(誠)에서 멈추어야 하고, 마음은 마땅히 정(正)에서 멈추어야 하며, 몸은 마땅히 수(修)에서 멈추어서, 가정·국가·천하에 이르기까지 만사와 만물이 마땅히 멈추어야 할 곳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격물치지(格物致知)도 다만 멈추어야 할 곳을 알아서 (거기에서) 멈추려고 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또 일찍이 ‘논설(論說)’을 지어, 회재 선생(晦齋先生)의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에서 경문(經文)의 오류를 검토해 고쳐야함을 언급했다.

92) 「권2·시21」과 「권2·시98」를 참조 바람.

93) 의인왕후(懿仁王后)의 산릉(山陵)에 갔다가 용궁에 들러 생질 이돈(李焯)·이찬(李燦) 형제에게 뵈어 보인 시로 「권2·시22」가 있다. 역시 같은 시기의 작품으로 보이는 「권2·시23」도 있다.

94) 「권1·시92」의 소서(小序)에 있는 2수의 시운(詩韻)에 다시 차운(次韻)하여 지은 것이다.

1603(선조宣祖 36. 계묘癸卯)년 62세

10월 삼년상을 마친다. 이때 선생의 나이는 육순이 넘었는데도 상을 당하여서 초상 때부터 장례葬禮와 제사祭祀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모두 몸소 처리하고 일찍이 자제에게 대행시키지 않았다.

1604(선조宣祖 37. 갑진甲辰)년 63세⁹⁵⁾

3월, 옥연정사玉淵精舍에서 김성극金省克을 송별하다. 이때 김공이 강릉의 임소로 가게 되자, 선생이 옥연정사에서 그를 송별하면서 술을 두어 잔 마신 다음 일어났다. 김공이 갑자기 개연히 탄식하여, “선생을 황야에 몰려 나와 계시게 하니 시사時事가 말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선생은 깜짝 놀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찌서 이런 말을 하는가? 늙은 내가 변변치 못하여 국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데도 성은이 하늘과 같아서 내가 향촌에서 목숨을 연장하도록 해 주셨으니, 지금까지 7년 동안에 털끝만한 것도 다 하늘이 주신 것이네.” 이어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5언율시 한 수를 지어 뜻을 붙인다.⁹⁶⁾

95) 갑진년(甲辰年 : 1604년 : 63세) 때의 시작(詩作)으로 보이는 것들 : 1월28일에 지은 「권2·시26」, 일자만 29일로 명기된 「권2·시28」, 시문에 직접 63세라고 밝힌 「권2·시41」, 아들 자남(子男)의 요절을 애도한 「권2·시53」, 역시 자남을 회고한 시로 시문에는 죽은 지 반년이나 지났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비슷한 시기로 보아지는 「권2·시60」 등이 보인다.

96) 서애가 63세 되던 해에 성극당(省克堂) 김홍미(金弘微 : 1557~1605, 류성룡의 문인)가 옥연정사를 방문했을 때, 선조(宣祖)를 생각하며 읊은 시 : 「권2·시30의 제3수」에 보인다. (본 시는 총 3수임) 이외에도 「권3·시139」, 「권3·시140」, 「권3·시141」, 「권3·시142」 등을 참조 바람.

성군聖君의 큰 은혜 한없이 중하거늘,
미천한 이 신하는 과오만 허다하네.
한 마디도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만 가지 계책이 모두 어긋나고 말았네.
못 다한 효도 한탄하나 귀향은 너무 늦었고,
궁궐 쪽에 구름 끼어 복쪽이 아득하네.
단지 남은 몇 줄기 눈물이나마,
저 한강물에 부쳐 불까하네.
聖主洪恩重, 微臣罪戾多.

6월, 옥연정사玉淵精舍를 나가다.

7월, 『징비록懲毖錄』의 저술을 마치다. 다시 부원군府院君으로 서용敍用되고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서훈敍勳되다.

8월, 상소하여 소명召命을 사퇴하고 아울러 훈록勳錄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⁹⁷⁾

9월, 충훈부忠勳府에서 공신功臣인 선생의 초상화肖像畵를 그릴 화가를 보냈으나 나라에 공이 없다고 사양하여 그대로 돌려보내다.

『양명집陽明集』을 읽고 서序와 7언율시詩 2수를 짓다.⁹⁸⁾

一言無報效，萬計悉蹉跎。

風樹南來晚，宮雲北望賒。

惟殘數行淚，寄灑漢江波。

97) 「권3·시129」와 「권3·시130」을 참조 바람.

98) 「권2·시44(총2수)」를 참조 바람.

서(序)의 요약 : “양명과 주자의 학문이 다른 큰 요점은 다만 치지(致知)와 격물(格物) 네 글자에 대해 의견을 별도로 세우는 데에 있다. 주자는 ‘사람 마음의 신령함은 모르는 것이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가 없는 것이 없다.’고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해서 그 앎을 극진히 하게 하였다. 양명은 ‘이치는 내 마음에 있으니 밖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니, 그의 학문을 논하는 것은 한결같이 양지(良知)를 위주로 한다.

「연보」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명의 본심설(本心說)이 가정(嘉定) 무렵 문의(文義)의 폐단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사람이, 불에 피로워하는 자를 보고 문득 그로 하여금 물에 뛰어들게 하였는데, 물과 불이 비록 다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양명이 송(宋)나라 말엽 문의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오로지 본심설을 주장하였으나, 그 유폐가 도리어 문의의 폐단보다 더 심한 점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대목이 보인다. 서야가 『양명집』을 읽고 느낀 바가 있어서 쓴 두 수의 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제1수(양명학설을 논박하다) :

양명은 논설마다 “마음이 곧 이치이다”고 하면서,

“이치는 내 마음에 있지 책에 있지 않다”고도 하였네.

사람이 비록 입이 있어 맛을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곰발바닥과 생선 맛을 보고 구분해야 생소하지 않다네.

(사물의) 도는 만 갈래로 다르거늘 하나의 이치로 귀결시키다니,

영토가 호월胡越로 (남북으로) 나뉘었어도 다 내 집이란 격일세.

지금 천하는 홍수가 극심하여 산릉山陵까지 차 오르는데,

애닦다 누가 다시 메인 개울바닥 파내 물길 띄울꼬

1605(선조宣祖 38. 을사乙巳)년 64세

1월, 「지행설知行說」을 짓다.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짓다.

왕양명王陽明이 ‘지·행知行을 합해서 하나’라 하여, 주자朱子의 학설을 극력 반박하였는데, 선생이 이 설을 지어서 해명하다.

3월, 봉조하奉朝賀⁹⁹⁾의 녹봉을 사양하는 소疏를 올렸으나 윤택되지 않다.

4월 24일, 큰아들 여췌가 죽다. 제문祭文과 행장行狀이 있다.

9월, 서미동西美洞(지금의 경북 안동시 풍산읍豐山邑 소재)으로 이사하다.

이때 하회마을이 홍수가 나서 수목樹木이 없어지고 바람이 거세어 요양하기에 불편하고 또한 손님의 방문도 번거로워서 선생은 하회를 떠나 이곳 학가산鶴駕山 산속에 위치한 서미동으로 이사를 하다.¹⁰⁰⁾

김성극金省克의 부음을 듣고 곡하다. 김공이 문학에 조예가 있으므로 선생의

陽明每說心爲理，理在吾心不在書。
人雖有口能知味，味辨熊魚始不疎。
道有萬殊歸一法，地分胡越儘吾廬。
如今天下懷襄甚，惆悵何人更整疏。

제2수(세속적 학문을 바로 잡고 내 자신을 경계하다) :

가정년간嘉定年間に 세속적 학문의 폐단은,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했음일세.
오직 주례周禮만이 천하를 공고히 한다면서,
정전正殿은 돌보지 않고 진종일 비워뒀다네.
깊은 곳 비추는 것은 한 치의 거울임을 잊지 말아야하며,
배를 갓 띄우려 할 때 필히 반듯 바람 받아야지.
저 시골벽적인 세상 어두운 데를 살피려면,
한결같이 자성自省해야 효험을 보리라.

嘉定年間末學弊，尋枝摘葉儘無窮。
徒聞姬轍周天下，不顧明堂盡日空。
燭幽莫忘徑寸鑑，行船須倚半帆風。
看他擾擾昏昏地，一念回光便見功。

- 99) 봉조하(奉朝賀) : 전직 관원을 대우하여 종2품 이상의 관원에게 사임한 뒤에 특별히 준 벼슬. 실제 사무는 보지 않으며, 다만 의식이 있을 때에만 관청에 나가서 참여하고 종신토록 녹봉을 받음.

- 100) 『권2 시집』에는 하회에서 서미동(西美洞)으로 이사를 한 이후의 시가 적지 않게 보인다. 이를 테면, 「권2·시75」, 「권2·시79」, 「권2·시80」, 「권2·시82」, 「권2·시90」, 「권2·시91」, 「권2·시101」 등이 있음.

사랑을 받았다. 이때 강릉 임소에서 죽자, 그를 애도하며 7언절구 한 수를 짓다.¹⁰¹⁾

『제왕기년록帝王紀年錄』을 짓다.

1606(선조宣祖 39. 병오丙午)년 65세

3월, 서미동西美洞에 초당草堂을 짓다. 초당은 겨우 3칸으로 구조도 매우 꾸밈이 없고 누추하였으나, 선생은 거기에 거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농환弄丸’으로 이름을 붙인다.¹⁰²⁾

선생의 차자次子인 단褌이 『심경心經』¹⁰³⁾을 배우기를 요청하자 선생이 기쁘게 생각해서 「조명설鈞名說」¹⁰⁴⁾을 짓다.

『성유록聖諭錄』 후면에 발문을 쓰다. 선생이 차례로 받은 비답批答과 교지敎旨

-
- 101) 「권2·시76」 : 이외에도 「권2·시78」도 참조 바람.

북풍이 노호怒號하며 서쪽 숲을 흔들더니,
천 리 밖의 서신 와서 슬픈 소식 전하네.
백발의 늙은이 나 홀로 남게 되었으니,
누구와 다시 흥금을 토로해야 할지 모르겠네.
朔風號怒動西林, 千里書來報惡音。
白首人間惟我在, 不知誰與更論心。

- 102) 서미동(西美洞)에 초당을 짓고 나서 자제를 훈계한 내용 :

일찍이 자제에게 이르기를 : “사람이 이욕에 빠져서 염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까닭은 다 자족함을 알지 못한 데에서 나온다. 이 집이 비록 협소하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가리고 추위와 더위를 넘기며 이곳에서 지낼 수 있으니, 이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느냐. 무릇 사람이 자기가 처한 곳에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인들 살지 못하겠느냐.”

- 103) 『심경(心經)』 : 중국 송대 진덕수(眞德秀)가 경전(經典)과 송대 도학자들의 저술에서 심성수양에 관한 격언을 모아 편집한 책으로 총 4권 중 권1, 2이다. 내용은 『서경』 1장, 『시경』 2장, 『역경』 5장, 『논어』 2장, 『중용』 2장, 『대학』 2장, 『예기·악기』 3장, 『맹자』 12장으로 총 29장과 송대 도학자들의 글인 주돈이(周敦頤)의 「양심설(養心說)」과 「통서(通書)」, 「성가학장(聖可學章)」, 「정의」 등 7편이 실려 있다. 진덕수는 이 명문들에 송대 유학자들의 논의들을 주석으로 삼았으며, 자신의 「심경찬(心經贊)」 1편을 덧붙였다.

- 104) 선조가 즉위하면서 유술(儒術)을 높이고 장려하여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 등이 유행했는데 발탁된 기로(耆老 :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죽자 그런 풍조가 변하면서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이 명예를 남는 미끼라고 불리게 된 세대에 대하여, 느낀 바가 있어 정리한 논설이다.

를 한데 모아 한 책으로 만들어 ‘성유록’이라 이름하고, 그 뒷면에 발문을 짓다.¹⁰⁵⁾

12월 11일, 병을 무릅쓰고 망매亡妹 숙인淑人의 여친旅櫬(객지에 있는 관槨)을 신양리新陽里에 곡송哭送하고 돌아온 후 병이 악화되다. 그러나 오히려 새벽부터 일어나 관대冠帶를 하고 외당外堂에 나가 자제들과 함께 『퇴도선생문집退陶先生文集』을 교정하며 의리를 강론하다가 간혹 한밤중이 되기도 하다. 또는 문집의 편질이 방대하여 강구講究하기가 어려울까 하여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의 예를 모방하여 약간 절목節目을 덜어 별도로 한 질을 만들어 후학들이 읽기에 편리하도록 하려고 했으나, 병으로 이루지 못하다.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을 교정하고 의리를 강론하다.

1607(선조宣祖 40. 정미丁未)년 66세

1월 29일, 허노재許魯齋 형衡의 시를 써서 자제들에게 보여 주며 충신토록 माम에 새기도록 당부하다.¹⁰⁶⁾

2월 12일 시 한 수를 지어서 자제들에게 보여 주다.¹⁰⁷⁾

105) 『성유록(聖諭錄)』의 발문(跋文) :

“소신이 변변치 못함에도 성상의 끝없는 은혜만 입고 한 가지도 보답하지 못한 채, 끝에 와서 많은 죄과만 저질러 이토록 낭패하였는데도, 오히려 목숨을 보전하여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은 성상의 넓고 큰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신의 개미같이 미약한 정성을 끝내 바칠 날이 없기 때문에, 삼가 평일에 받았던 교지를 수록하여 한 책을 만들어 아침저녁으로 공경히 잘하고 읽기를 바라니, 슬프고 또 감격해서 스스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106) 서애가 훈계할 때 인용한 이 시구는 원(元)나라 주자학의 대가(大家) 허형(許衡) : 1209~1281 : 자字는 노재魯齋)의 시로 다음과 같음 :

만 가지로 보양하는 것은 다 허위이고,
조심하는 것만이 중요한 법이다.

萬般補養皆爲僞, 只有操心是要觀。

107) 서애가 자제들을 훈계한 시 : 『서애전서(西厓全書) 권3』 『관화록(觀化錄)』에 보인다.

숲 속에 새 한 마리 쉬지 않고 우는데,
문밖에는 쩡쨍 장작 패는 소리 들리네.
만물의 원기元氣 모였다 흩어지는 것도 공교로우나,
단지 한스러운 것은 평생 부끄러운 일 많이 한 것일세.
권하노니 자손들이 꼭 삼가 하여라,

3월, 선생의 병보病報에 접한 선조宣祖는 내의內醫를 보내어 병환을 살피게 하다.

하루는 아들 진軫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다.

“죽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내가 어찌 죽음을 서러워하여 마음이 동요 되는 사람이겠느냐. 오직 나라를 향한 일념만이 죽을 때까지 잊기 어려울 뿐 이다.”

형묘의 아들 의椅에게 명하여 유계遺戒를 쓰게 하다.¹⁰⁸⁾

병중에 지은 시를 엮어 『관화록觀化錄』이라 명명命名하다.

5월 6일, 향리鄕里 농환재弄丸齋 초당에서 운명殞命하다.

부음이 서울에 전해지자 향곡巷哭이 일어났으며 1,000여 백성이 선생의 옛 집터에 모여 통곡하고 조정에서는 3일 동안 공휴公休를 선포하고 상민들은 자진하여 4일 동안 철시撤市하였다. 풍산현豐山縣 수동壽洞에 예장禮葬하다. 선 조가 예조좌랑禮曹佐郎 구혜具惠에게 치제致祭토록 하다.

선생은 일찍이 말하였다.

“내가 평생에 세 가지 한이 있다. 군친君親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한이고, 작위爵位가 너무 분에 넘치는 데도 일찍 물러서지 못한 것이 두 가지 한이며, 망영亥靈되게도 도道を 배울 뜻이 있으면서도 이루지 못한 것이 세 가지 한이다.”라고 말하다.

중효 밖에 달리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임!

林間一鳥啼不息，門外丁丁聞伐木。

一氣聚散亦偶然，只恨平生多愧怍。

勉爾子孫須慎旃，忠孝之外無事業！

108) 서애의 유계(遺戒)

“너희들이 착한 일을 힘써 생각하고 힘써 행한다면 가세(家世)를 대체로 보전할 수 있다. 나는 세상에 공덕이 없었으니 죽으면 마땅히 검소하게 장사 지내라. 남에게 청해서 비명(碑銘)을 짓지 말고 만장(輓章)도 스스로 만들어서 보내 준 것만 쓰도록 하라. 또한 가업을 지키는 데는 스스로 체통(體統)이 있어야하니 문란하게 하지 마라. 효성(孝誠)과 화목은 곧 가업을 지켜 나가는 도리이고,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는 오직 정성과 공경에 있으니 풍성하게 장만하는 것에 힘쓰지 말라.”

1610(광해군光海君 2, 경술庚戌)년 :

조선 선조 재위시의 명재상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 1542~1607)의 사후, 1610년에 이 풍악서원豐嶽書院의 서당을 바탕으로 하여 서원을 건립하고 류성룡 선생을 향사享祀한 것이 지금의 병산서원屏山書院이다.

1614(광해군光海君 6, 갑인甲寅)년 :

병산서원屏山書院에 위판位版¹⁰⁹⁾을 봉안하였으며, 그 뒤에 남계서원南溪書院, 여강서원蘆江書院, 삼강서원三江書院, 도남서원道南書院, 빙산서원氷山書院 등에도 위판이 봉안되다.

1627(인조仁祖 5, 정묘丁卯)년 :

문충공文忠公의 시호諡號가 하사下賜되다.

위의 「서애연보西厓年譜」 초록은 하회본 『서애전서西厓全書』 간본편刊本篇 별집別集 권3의 연보年譜와 역시 『서애전서』 간본편 본집 권1·권2와 별집別集 권1의 시부詩部 및 『서애전서』 권2의 속집편續集篇 시부詩部를 참조하였음. 또한 민족문화추진회 편, 류성룡 저, 『국역 서애집 ②』도 참조하였음.

109) 위판(位版) 또는 위패(位牌)는 자식이나 후손들이 많을 때 목판에 관직성명을 써 놓고 집에서 받드는 것이다.



가산(嘉山)	152	거연(居然)	67
각소(却掃)	452	거전법(車戰法)	276
간과(干戈)	274	거치붕산(遽值崩山)	170
간기(間氣)	34	건강(建康)	19
간래(看來)	233	건곤(乾坤)	85, 109, 419
갈로(羯虜)	11	격(格)	100
감비(堪比)	99	격(檄)	63
감차(堪嗟)	53	격즙(擊楫)	17
강(強)	474	견천(見天)	486
강(江)	65	겸암정(謙巖亭)	290
강각(江閣)	373	경(更)	170
강남(江南)	261	경(竟)	116
강동(江東)	118	경(經)	255
강미(江湄)	325	경(逕)	380
강상(江上)	438	경거(瓊瑠)	368
강한(江漢)	20	경락(京洛)	320, 367
강해(江海)	176, 227	경률(景嶮)	321
강호(江湖)	202, 407	경복(庚伏)	394
강회(江淮)	65	경사(瓊絲)	343
강(更)	212, 302, 343, 363	경설(經說)	161
강(羹)	94	경세(傾世)	197
강(更)	281	경예(瓊藥)	100
강장(鏗鏘)	467	경요(瓊瑤)	392
거사(居士)	175	경중(京中)	152

경훈(經訓)	208	고혼(孤魂)	357
게도(桂棹)	5	고회(高懷)	444
게목(鷄鶩)	341	곡(曲)	375
게목상쟁(鷄鶩相爭)	341	곤곤(滾滾)	355
게목쟁식(鷄鶩爭食)	341	공(工)	64
게미(癸未)	269	공강정(控江亭)	152
계수(稽首)	24	공난취(功難就)	274
계수(桂樹)	403	공명(空明)	350
계운궁(啓運宮)	10	공산(公山)	471
계전(桂殿)	27	공화(空花)	468
계화(桂華)	215	공후(公侯)	140
계화(桂花)	215, 405	과(戈)	138
고(苦)	240	과모(戈矛)	137
고국(故國)	12, 341	관녕(管寧)	222
고근(孤根)	101	관녕탑(管寧榻)	222
고량(膏粱)	72	관동(關東)	443
고륜(尻輪)	108	관동(冠童)	84
고면처(孤眠處)	298	관산(關山)	391
고목(剝木)	419	관악산(冠岳山)	422
고문경(古文經)	158	관외(關外)	142
고문경학(古文經學)	158	관중(關中)	113
고방(孤芳)	98	관탁(盥濯)	85
고석(孤錫)	432	관하(關河)	199
고신(孤臣)	142	관해(關海)	402
고와(高臥)	76, 486	광간(狂簡)	82
고원(古原)	183	광례(曠禮)	15
고원(故園)	476	광연(曠然)	137
고인(故人)	202	괴저(怪底)	92
고장(孤裝)	262	광(觥)	95
고정(孤亭)	153	교릉(喬陵)	16
고청(高聽)	40	교리(校理)	180
고충(孤忠)	17, 60	교리(蛟螭)	48
고침(孤枕)	142	교리궁(蛟螭宮)	48
고침(高枕)	286	교서(校書)	253
고침안와(高枕安臥)	286	구경법(究竟法)	337
고침이와(高枕而臥)	286	구관(九關)	67
고풍(高風)	102	구만(九萬)	306

구만리(九萬里)	306
구모(鳩謀)	325
구묘(九廟)	52
구산(舊山)	193
구양수(歐陽脩)	101
구원(舊員)	67
구장(丘長)	34
구정(求正)	446
구천(九天)	162
국시(國是)	68
군방(群芳)	98
군불견(君不見)	100
군사(郡舍)	75
군서(軍書)	66
군옥(群玉)	38
군자(君子)	279
궁통(窮通)	286, 313
권의(卷衣)	436
권장중(權章仲)	175
권주(權駐)	14
권호문(權好文)	172, 407
귀신(鬼神)	209
규벽(奎壁)	39
극(戟)	138
극목(極目)	152
극부(克夫) 서인원(徐仁元)	215
금계(金溪)	182, 375
금계재사(金溪齋寺)	182
금구(金甌)	11
금구(金鉤)	74
금대(琴臺)	220
금문경(今文經)	159
금문경학(今文經學)	159
금반(金盤)	27
금방(金榜)	238
금비(金扉)	447
금설(今說)	158

금영(襟靈)	331
금오봉(金烏峯)	388
금운(襟韻)	377
금의(金衣)	319
금자패(金字牌)	127
금직(禁直)	161
금패(金牌)	127
금화(金花)	246
기(器)	207
기(畿)	86
기(幾)	87
기·국(杞菊)	72
기로(耆老)	245
기무(起舞)	116
기사(幾舍)	94
기수(羈愁)	212
기수(琪樹)	239
기욕(嗜欲)	28
기정(岐亭)	308
기조(騎曹)	352
기희(希希)	82
김득(金玜)	47
김미백(金美伯)	482
김성일(金誠一)	407
김임보	179
김제천(金提川)	427
김천민(金天民)	312
김혜(金惠)	482
김홍미(金弘微)	179
김홍민(金弘敏)	179
김희중 형제(金晦仲兄弟)	479
김희중(金晦仲)	482
나 나감(那堪)	240
나경(蘿逕)	418
나무(那無)	137
나부(那復)	72

낙강(洛江)	167
낙락(落落)	274
낙북(洛北)	439
낙사(洛社)	197
낙수(洛水)	493
낙하(洛河)	154
난대(蘭臺)	161
난대(樊大)	27
난만(爛漫)	229
난산(亂山)	147
난수(亂樹)	313
난옥(蘭玉)	474
난장(蘭漿)	5
난주(蘭舟)	279, 317
남강(南江)	188, 189
남계(南溪)	237, 238, 242, 343, 460
남계정사(南溪精舍)	237, 460
남계편액(南溪扁額)	237
남극(南極)	197
남도(南渡)	60
남비(攬轡)	454
남여(藍輿)	14
남연록(南延祿)	371
남중수(南仲綏)	373
남취(嵐翠)	388
남훈(南薰)	92
낭묘(廊廟)	168
내룡거맥(來龍去脈)	468
내의(萊衣)	93
녕(寧)	493
노(老)	267
노래의(老萊衣)	93
노성(魯城)	120
노심(勞心)	137
노어주(老漁舟)	287
노자(鸕鷀)	316
노자암(鸕鷀巖)	316

노정당(盧正郎)	367
노종원(盧從元)	367
노포(露布)	66
녹리(綠裏)	92
녹빈(綠鬢)	449
녹의(綠蟻)	330
녹태(綠苔)	139
너락(牢落)	268
뇌환(雷煥)	473
늑름(懍懍)	137
단 (端居)	313, 434, 452, 486
단견(但遣)	101
단점의(單袷衣)	84
단공(短筇)	420
단단(團團)	264, 382
단심(丹心)	476
단애(丹崖)	317
단연(丹鉛)	159
단지(團枝)	74
달존(達尊)	197
담망(淡忘)	300
당(倘)	161, 341
당(堂)	72, 242, 388
당년(當年)	247
당연(倘然)	82
당전(唐殿)	66
대(臺)	121
대경(大經)	35
대로(大老)	197
도(道)	84, 167, 286, 383, 486
도가(徒歌)	141
도관(道貫)	313
도관궁통(道貫窮通)	286
도도(滔滔)	349
도룡(屠龍)	330
도문(徒聞)	362

도미(道微)	83
도심(道心)	434
도인삼소(道人三笑)	230
도정절(陶靖節)	262
도진(道眞)	452
독(獨)	193, 199, 203
독초계(毒草計)	64
동각(東閣)	100
동강(桐江)	41
동관(東觀)	254
동리(東籬)	202
동상(東床)	372
동상(東廂)	372
동상(東牀)	372
동순(凍筍)	99
동심(同心)	173, 191, 228
동자(董子)	223
동장(銅章)	246
동중서(董仲舒)	223
두견(杜鵑)	355
두병(斗柄)	291
두우(斗牛)	141
둔전(屯田)	275
등갈(藤葛)	487
등림(登臨)	309
라(蘿)	418
랍(臘)	471
래(來)	137
력(力)	383
령(纒)	480
로(虜)	129
료(醪)	173
루(縷)	490
류중영(柳仲郢)	328
률(律)	206

마수동(馬首東)	64
마조(馬曹)	353
마조도일(馬祖道一)	348
막막(漠漠)	52, 152
만(晩)	195
만(輓)	197
만경(萬頃)	380
만기(萬機)	23
만대(晩臺)	355
만대루(晩對樓)	355
만사(輓詞)	471
만청(晩晴)	388
만파(滿把)	202
만학천암(萬壑千巖)	365
망극(罔極)	128
망단(望斷)	142
망망(茫茫)	221
망양(亡羊)	122, 437
망운(望雲)	155
망혜(芒鞋)	365
망호현(望湖軒)	382, 388, 489
매태(莓苔)	132
매형(梅兄)	92
맥맥(霖霖)	302
맥상류(陌上柳)	140
맥화(麥禾)	305
면벽공심(面壁功深)	377
명(明)	388
명개(鳴凱)	65
명명(冥冥)	183, 255
명열(明閼)	335
모(矛)	138
모(茅)	74
모자(茅茨)	324
모점(茅店)	147
모참(茅簷)	313, 411
모피(毛皮)	228

목란(木蘭)	368
목란주(木蘭舟)	368
목릉(穆陵)	270
목릉관(穆陵關)	270
목리(木李)	392
몽(夢)	41
몽각(夢覺)	319
몽단(夢斷)	319
묘(畝)	302
묘(畝)	460
묘명(杳冥)	444
묘모(廟謨)	274
묘묘(杳杳)	24, 382
묘산(廟算)	18
묘연(渺然)	333
무릉(茂陵)	28
무미(嫵媚)	355
무제(無題)	440
무창어(武昌魚)	428
무흘9곡(武屹九曲)	46
문경(聞慶)	476
문대(門對)	193
문득(聞得)	463
문란(門闌)	363
문사구전(問舍求田)	398
문성(文星)	169, 446
문왕(文王)	389
문왕조(文王操)	389
물감(物感)	183
물리관천(物理關天)	486
물상(物象)	464
물아(物我)	99
미간(楣間)	363
미월(微月)	433
미인(美人)	217, 440
미정(美政)	472
민(閔)	12

민물(民物)	456
민이(民彝)	363
밀변(密邊)	98
박	
박윤(朴潤)	252
반림(半簾)	388
반변(半邊)	359
반산(半山)	495
반야(半夜)	116
반음(半陰)	380
반창(半窓)	355
발목(拔木)	170
발산(拔山)	115
방국(邦國)	450
방박(磅礴)	50
방비(芳菲)	85
방사(方士)	24
방생(房生)	275
방심(芳心)	92
방온(龐蘊)	349
방초(芳草)	322, 375, 454, 493
방추(防秋)	276
방형(芳馨)	34
방화(芳華)	385
배천(配天)	11
백(魄)	131
백(白)	98, 129
백구(白鷗)	189
백련사(白蓮社)	249
백린(白鱗)	118
백석란(白石爛)	141
백옥(白屋)	39
백옥경(白玉京)	23
백운정(白雲亭)	330
백일(白日)	52
번금(煩襟)	356, 433
번창(燔蒼)	109

벌목쟁(伐木丁)	36
범두(犯斗)	419
범두사(犯斗槎)	419
범주(泛酒)	73
벽(壁)	482
벽간(壁間)	298, 330
벽람(碧嵐)	331
벽장(碧嶂)	380
벽침(碧檐)	238
벽침(碧簷)	238
변두(簋豆)	96
변위미(辨危微)	233
별집(別集)	267
병산서당(屏山書堂)	189
병인(丙寅)	150
병자(丙子)	193, 199
병혹(病或)	490
보(步)	463
보운(寶運)	11
보운(步韻)	163
복린(卜隣)	429
복축(卜築)	327
복토(伏土)	74
봉(鳳)	427
봉·영(蓬瀛)	24
봉림대(鳳臨臺)	340
봉문(蓬門)	380
봉성(鳳城)	190
봉원(逢原)	308
봉인(封人)	94
봉취(鳳吹)	23
봉황(鳳凰)	427
부교리(副校理)	180
부군(父君)	152
부묵(孚默)	110
부양(俯仰)	50
부제학(副提學)	261

부환(負喧)	327
부휴(浮休)	336
북담(北潭)	284, 290
북당(北堂)	450
북로(北虜)	273
북호(北湖)	284
분분(紛紛)	477
분연(紛然)	139, 411
분점(分占)	191
분죽(分竹)	471
불감(不堪)	170, 207, 212, 281, 320, 425
불어잉지(不語剩知)	420
비만(飛輓)	274
비몽신(費夢神)	191
비신(費神)	191
빈발(鬢髮)	359, 443
빙호(冰壺)	377
사(社)	121
사(乍)	183, 443
사(事)	68
사(舍)	94
사(除)	153
사(槎)	419
사공도(司空圖)	398
사범두(槎犯斗)	419
사사(絲絲)	261
사순(士純)	467
사야(四野)	489
사연(肆筵)	94
사전양(謝羶羊)	77
사직(社稷)	65
사천(射天)	68
삭운(朔雲)	180
산랑(散郎)	38
산북(山北)	294
산북사(山北寺)	335

산인(山人)	250, 380, 421, 424, 432	생황(笙簧)	245
산재(山際)	433	서강수(西江水)	348
삼규(三吁)	52	서곡(西曲)	369
삼년 불규원(三年不窺園)	224	서관(西關)	235
삼년적(三年笛)	391	서관로(西關路)	378
삼소(三笑)	477	서극부 인원(徐克夫仁元)	215
삼양성(三兩聲)	319	서루(西樓)	194, 388
삼재(三才)	40	서림(西林)	327
삼추(三秋)	139, 202	서산(西山)	255
삼춘(三春)	372, 434	서서(棲棲)	390
삼탄식(三嘆息)	150	서성(瑞星)	197
삼호(三戶)	112	서세(瑞世)	340
삼휴(三休)	398	서수(逝水)	121
삼삽(颯颯)	250, 365	서원(西原)	50
상(想)	383	서원옹(西原翁)	50
상(湘)	483	서천(逝川)	121
상난(湘蘭)	483	서행(西行)	360
상로(霜露)	14	서혈(鼠穴)	186
상류(相留)	402	서호(西湖)	100, 291
상림(上林)	319	석(鳥)	202
상림원(上林苑)	319	석두(石竇)	48
상부(相孚)	36	석상지진(席上之珍)	209
상빈(霜鬢)	411	석상진(席上珍)	209
상사의(相思意)	146	석자(釋子)	51
상산(商山)	245, 429	석장(錫杖)	432
상산사호(商山四皓)	429	석진(席珍)	450
상소(上疏)	267	선가(仙家)	238
상수(相讐)	137	선구(仙區)	317
상시(傷時)	139	선대(仙臺)	403
상양(徜徉)	231	선몽대(仙夢臺)	401
상응(相應)	464	선온(宣醢)	158
상인(上人)	407, 417	선옹(仙翁)	51
새전신(賽田神)	302	선원(仙源)	296
생(笙)	245	선진(仙塵)	27
생가(笙歌)	245	설악(雪嶺)	98
생벽수(生碧樹)	85	성(腥)	98
생학(笙鶴)	27	성근(省覲)	211

성동(城東)	216	송암(松巖)	175, 176, 407
성문(聖門)	86, 169	송회(松檜)	147
성사(聖師)	83	수(愁)	136
성산(星山)	467	수평(壽航)	95
성영(成泳)	360	수령(遂令)	137
성풍(腥風)	12	수로시문(樹老時聞)	388
성현역(省峴驛)	299	수변(愁邊)	220, 389
성효(誠孝)	100	수살(愁殺)	109
세(歲)	97	수연(數椽)	50
세고(世故)	476	수연청초(水連青草)	309
세만(歲晩)	92	수외 행로경(誰畏行路驚)	184
세사(世事)	330	수외(水隈)	472
세이(洗耳)	290	수유(須臾)	99
세재양(歲載陽)	161	수중지(水中止)	227
소(疏)	267	수진(水津)	279
소(疎)	267	수택(手澤)	424
소(囑)	433	순공(荀公)	35
소단(燒丹)	27	순군(荀君)	35
소련(少連)	285	순옥 공(荀彧公)	35
소사(昭事)	16	순옥(荀彧)	35
소소(昭昭)	208	순창(順昌)	57
소소(蕭蕭)	250, 425	순창주첩(順昌奏捷)	57
소슬(蕭瑟)	128	순창지전(順昌之戰)	59
소식(蘇軾)	2	순침(巡簪)	101
소연(蕭然)	176, 371, 411	승상(勝賞)	49
소연(疎烟)	359	승회(勝會)	162
소영(疏影)	300	시(時)	207
소영(疎影)	300	시견(市犬)	372
소요유(逍遙遊)	144	시료(詩料)	101
소우(疎雨)	391	시서(詩書)	197
소인(騷人)	72, 101	시엽(柿葉)	380
소조(蕭條)	147	시축(詩軸)	376, 424
소혼(銷魂)	193	시축(詩軸)	493
소회(昭回)	39	시형(柴荊)	314
속화(速禍)	18	식장(植丈)	405
손호(孫皓)	428	식장옹(植杖翁)	405
송라(松蘿)	418	신(身)	249

신감(神鑑)	35	약류(弱柳)	150
신기(神器)	119	양덕(陽德)	150
신녕현(新寧縣)	298	양마(羊馬)	132
신마(信馬)	357	양마성(羊馬城)	132
신연(信然)	411	양신(養身)	436
신유(神遊)	120	양월(陽月)	290
신정(新亭)	253	양월(涼月)	427
신주(神州)	407	양인(良人)	139
신충(宸衷)	14	양화(楊花)	234
실(室)	428	어은향(御醞香)	161
실록교정정(實錄校正廳)	158	어은(漁隱)	280
심공(心功)	486	어은정(漁隱亭)	278
심충겸(沈忠謙)	202	어조(魚鳥)	52, 238, 317
쌍난(雙鑾)	13	언성(偃城)	127
아(俄)	472	언성지첩(偃城之捷)	127
아악(雅樂)	245	언성현(圓城縣)	127
악비(岳飛)	125	언앙(偃仰)	461
악비묘(岳飛廟)	125	엄광(嚴光)	41
악시(惡詩)	372	여경(餘慶)	474
악왕묘(岳王墓)	125	여남(汝南)	461
안(安)	383	여대로(呂大老)	390
안기(安期)	25	여라(女蘿)	418
안기조(安期棗)	26	여산(廬山)	47
안득(安得)	102	여송(輿誦)	472
안성백(安成伯)	188	여우(犁雨)	302
안심(安心)	336, 383, 436	여정(餘情)	29
안심구경법(安心究竟法)	336	여후(呂后)	109
안심법(安心法)	356	역려(逆旅)	220
안일(晏日)	75	역로(驛路)	300
암막(黯漠)	109	역자(亦自)	99
암암(黯黯)	212	역정(驛亭)	240
애애(藹藹)	96	연(燕)	199
애일(愛日)	95	연년(年年)	131
야로(野老)	397	연래(年來)	221
야수(也須)	186	연류(烟柳)	385
야채(夜寨)	64	연류(煙柳)	385
		연비어악(鳶飛魚躍)	480

연성(連城)	483	오봉(烏峯)	388
연성기(連城器)	483	오음(午陰)	85
연안(宴安)	18	오자(吾子)	199
연어(鳶魚)	85, 487	오제(五齊)	73
연어비약(鳶魚飛躍)	85	오주(五酒)	73
연원(淵源)	168	옥두방(玉豆芳)	74
연적흑(連磧黑)	63	옥루(玉漏)	216
연좌(燕坐)	404	옥서(玉署)	447
연좌루(燕坐樓)	404, 495	옥연정사(玉淵精舍)	466
연파(烟波)	322, 441	옥영(玉英)	101
연편(聯翩)	128	옥장(玉帳)	116
연하(煙霞)	167	옥적성(玉簫聲)	146
연하(烟霞)	341	옥정영원(玉井靈源)	296
연형(年兄)	199	옹리혜계(甕裏醢雞)	6
연화(年華)	184, 195, 261	외룡암(臥龍菴)	45
연화(烟火)	63	외부(瓦缶)	159
염속(厭俗)	138	외부황종(瓦缶黃鍾)	159
염화(染化)	455	완용(婉容)	96
염부(飴婦)	302	왕문(枉問)	190
영귀(詠歸)	81	왕방(枉訪)	294
영단(靈壇)	25	왕안석(王安石)	495
영사(永使)	102	외물(外物)	137
영산(寧山)	197	요금(瑤琴)	168
영서(靈緒)	11	요락(寥落)	314
영옥(靈玉)	443	요리(料理)	208
영외(嶺外)	305	요감(遙岑)	176
영일(永日)	229	요취(聊取)	408
영지(嬰志)	83	요혼(窈昏)	493
영진(靈眞)	345	용사(龍沙)	262
영혼(英魂)	131	용사십리(龍沙十里)	262
예부명(翳復明)	146	용장(龍臧)	305
예선삼작(禮宣三爵)	162	용장(龍藏)	305
예악(禮樂)	449	용장고학(龍藏古壑)	305
오(梧)	281	용척(龍脊)	118
오건(烏巾)	449	우(虞)	116
오대시안(烏臺詩案)	4	우(郵)	362
오리(五利)	26	우격(羽檄)	62

우둔(遇遜)	267	유마장실(維摩丈室)	427
우심(偶尋)	411	유매(流邁)	206
우우(踽踽)	143	유방(劉邦)	107
우울(芋栗)	461	유별(留別)	152
우인정(羽人亭)	443	유사(有士)	140
운(韻)	425	유사(有似)	461
운물(雲物)	167	유사(幽思)	490
운수(雲樹)	369	유상(遺像)	51
운외(雲外)	355	유색(楡色)	96
운잡(雲岑)	176	유생(儒生)	209
운탄(雲灘)	241	유신(遊神)	23
울결(鬱結)	137	유연(悠然)	167, 246
울굴(鬱屈)	117	유유(悠悠)	142, 212, 274, 355, 476
원마(遠磨)	47	유유리(悠悠裏)	352
원사(遠思)	368	유인(有仁)	119
원사녀(遠思女)	139	유자(猶自)	173, 363
원세(遠勢)	359	유전(流傳)	49
원앙조(鴛鴦鳥)	440	유정(幽情)	268
원잡(遠岑)	176	유조(遺鳥)	109
원정(遠情)	199	유체(留滯)	162
원지정(遠志亭)	404	유하혜(柳下惠)	285
원지정사(遠志精舍)	263, 326	유학(幼學)	322
원화(元化)	34	유한(遺恨)	122
월륜(月輪)	352	유현(幽軒)	300
월유(月遊)	15	유환(遊宦)	212
월화(月華)	148	유회(幽懷)	411
위루(危樓)	267	육개(陸凱)	429
위릉(威稜)	113	육경(毓慶)	164
위응물(韋應物)	184	윤곤(輪困)	117
위응물(韋應物)	184	윤윤(昀昀)	302
유(有)	228	윤필(潤筆)	254
유거(幽居)	172, 328	율외(律外)	98
유광(流光)	359	응(戎)	64
유궁(有躬)	63	은대(銀臺)	446, 472
유련(留連)	243	은은(隱隱)	49
유마(維摩)	427	은점(恩霑)	161
유마실(維摩室)	427	은파(銀波)	48

은현(隱見)	490
을해(乙亥)	189
음운(陰雲)	63
음훈(吟魂)	75
응곤곤(應袞袞)	402
응수(應須)	482
의(意)	333
의마(依馬)	193
의백(毅魄)	131
의비(儀備)	13
의풍(倚風)	480
의흥(義興)	471
이(以)	368
이경률(李景嶽)	321
이경임(李景任)	342
이모(二毛)	352
이무정(李茂貞)	143
이보(李輔)	342
이사(異事)	99
이사문 경영(李斯文 景嶸)	439
이사문(李斯文)	321
이석(履鳥)	253
이숙평(李叔平)	480
이안도(李安道)	211, 308
이열도(李閱道)	401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	337
이전인(李全仁)	339
이정가(李靜可)	401
이조정당(吏曹正郎)	180
이준(李竣)	480
이황(李滉)	167
이후백(李後白)	219
인간(人間)	23, 72, 224, 227, 345, 450
인갑(鱗甲)	49
인동(仁同)	388, 489
일(日)	195
일(一)	42, 72, 94, 180, 191, 223, 242, 255

일기(一氣)	302
일기(壹氣)	345
일록(逸鹿)	111
일묘(一畝)	371
일상(逸想)	167
일실(一室)	176
일좌(一坐)	150
일준(一樽)	294
임거흥(林居興)	314
임류(臨流)	49
임만(林巒)	343
임엽(林葉)	314
임원계(林園契)	36
임풍 일장동(臨風一長慟)	184
입내(入內)	139
잉(仍)	84
잉득(剩得)	99
잉정(仍呈)	280

자(自)	168, 183
자궁(紫穹)	47
자능(自能)	464
자미(紫微)	446
자새(紫塞)	65
자시(自是)	28, 119, 340
자유(自有)	208
작(爵)	162
작서(雀鼠)	362
작서모(雀鼠耗)	362
작자(作者)	228
잔(殘)	217
잔선(殘蟬)	195, 200
잠계(潛溪)	339
잠광(潛光)	141
잠불(簪紱)	398
잠홀(簪笏)	460
잡영(雜詠)	266

장(長)	212, 382	정(正)	74, 382, 456, 476, 490
장구(杖履)	37	정각(正覺)	444
장농(丈農)	312	정경세(鄭經世)	479
장루(粧樓)	139	정경임(鄭景任)	479
장리(杖履)	49	정구(鄭逵)	46
장림(長林)	489	정녕(丁寧)	359
장성(長城)	130	정랑(正郎)	367
장소(長嘯)	495	정사(精舍)	50, 266, 330
장정(長程)	180	정사룡(鄭士龍)	388
장중(章仲)	172	정삼(征衫)	121
장화(藏花)	452	정서(情書)	472
장화(張華)	473	정신(精神)	209
쟁사(爭似)	101	정안기(鄭安奇)	463
저력(樗櫟)	267	정옥(庭玉)	450
저복원(貯福院)	150	정위(庭闈)	96
저산(樗散)	267	정일(精一)	376
적(磧)	63	정절(靖節)	262
적벽(赤碧)	5	정정(鼎鼎)	425
적벽지유(赤壁之遊)	4	정좌(靜坐)	344, 383
적세(賊勢)	62	정주(定州)	152, 154
전(展)	388	정주목(定州牧)	152
전경(專逕)	73	정중(靜中)	207
전련(顛連)	456	정학(正學)	87
전묘(田畝)	305	정해(丁亥)	489
전송(傳誦)	463	정호(庭戶)	197
전연(顛連)	246	정희린(鄭姬鄰)	471
전영(前楹)	96	제군(諸君)	294, 296
전처(轉處)	464	제물(濟物)	143
전철(前哲)	374	제시(題詩)	28, 433
전풍(顛風)	468	제자(諸子)	37, 87
절(節)	258, 454	제정(帝廷)	39
점(占)	243	제천정(濟川亭)	257
점년(占年)	302	제품(題品)	469
점역(點易)	285	제화(題畫)	147
정(楨)	102	조대(昭代)	161
정(頰)	102	조도(鳥道)	262
정(情)	480	조돈(朝墩)	238

조래(朝來)	63, 212	중천(重泉)	472
조세(早歲)	23	중체(衆體)	467
조정(躁靜)	468	중추(仲秋)	199
조주(釣舟)	397	즉사(卽事)	195, 411
조차(造次)	40	증닉(拯溺)	115
존심(存心)	363	증상(曾上)	394
졸업(拙業)	177	지(芝)	197
종남(終南)	190	지락(至樂)	82
종석(宗祏)	12	지리(至理)	374
종성(鍾城)	273	지모(遲暮)	268
종야(終夜)	356	지음(知音)	291
종정(從靜)	490	지정(至情)	93
종지(從知)	99	지천(指天)	117
좌(坐)	344	지초(芝草)	197
좌간(坐看)	121	지한(智閑)	415
좌정(坐定)	419	지한대사(智閑大師)	415
주(州)	142	직장(直長)	397
주(走)	284	진(榛)	109
주경(畫景)	75	진(秦)	110
주남(周南)	162	진(儘)	463
주무(綱繆)	143	진(盡)	464
주변책(籌邊策)	267	진경(秦京)	493
주절(駐節)	454	진기(塵鞴)	83
주첩(奏捷)	60	진락(眞樂)	83
죽실(竹實)	341	진상(眞想)	383
죽연정(竹淵亭)	252	진선(眞仙)	464
준(樽)	97, 294, 460	진시황(秦始皇)	110
준준(朏朏)	93	진원(眞源)	86, 233
중(中)	168	진일(盡日)	176
중도(中道)	68	진정(塵情)	243
중류(中流)	317	진착(珍錯)	75
중만(重巒)	422	진취(疹瘁)	221
중소(中宵)	291, 345	진취(疹頓)	221
중수(仲綬)	371	진취(盡悴)	221
중양(重陽)	172	진퇴격(進退格)	427
중양일(重陽日)	202	진편(陳編)	83
중원(中原)	11, 129	질려(蒺藜)	305

차(次)	258, 284	천화(天和)	74
차…운(次…韻)	446, 489	참참(喋喋)	128
차…운(次韻)	332, 335, 382, 385, 388, 495	청(淸)	345
차운(次韻)	124, 175, 188, 202, 278, 280, 340, 407	청경(淸景)	258
작일포(着一蒲)	377	청기(淸沂)	85
찬영(餐英)	72	청도안(靑逃眼)	138
참군(參軍)	353	청려(靑藜)	160
참참(慘慘)	52	청련(靑蓮)	219
창궁(蒼穹)	65	청론(淸論)	228
창망(蒼茫)	155	청명(靑冥)	39
창망(悵望)	309	청분(淸分)	392
창벽(蒼壁)	490	청사(靑史)	20
창창(蒼蒼)	306, 461	청삼(靑衫)	365
창한(窓寒)	437	청시(淸詩)	463
창해역(滄海域)	443	청운(靑雲)	250
채(寨)	64	청위(淸渭)	190
채상자(采桑子)	101	청유(淸游)	261
채채(採採)	369	청유(淸遊)	261
책제(策第)	449	청자(靑姿)	449
처(處)	186	청조(靑鳥)	25
처처(萋萋)	375	청준(靑樽)	330
척자(隻字)	292	청풍(靑楓)	142
척호(陟岵)	155	체(薜)	99
천(阡)	170	초(楚)	19, 61
천공(天功)	53	초래(草萊)	13
천로(泉路)	309	초벽(楚壁)	482
천루(千累)	207	초승(超乘)	64
천말(天末)	212	초연(悄然)	264
천사(天師)	397	초요(岵藹)	355
천석(泉石)	463	초은정(招隱亭)	397
천심(天心)	493	초창(悵悵)	364
천지(天地)	34, 388	초택(楚澤)	41
천차성(天借成)	99	촉(屬)	472
천착(穿鑿)	362	촉물(觸物)	150
천하(泉下)	309	촌료(村醪)	173, 203
천혈(穿穴)	362	촌허(村墟)	250
		충(摠)	167, 208

충충(恩恩)	403
추극(樞極)	67
추사(秋思)	195
추서(墜緒)	28, 169
추소(秋素)	331
추정(趣庭)	38
추창(惆悵)	200
추호(秋昊)	446
축축(蹴蹴)	113
춘궐(春閨)	139
춘사(春思)	428
춘욱(春旭)	85
충어(虫魚)	253
취성(聚星)	33
취성정(聚星亭)	33
취잔(吹殘)	146
측측(惻惻)	183
치석(緇錫)	380
치의(緇衣)	42
칠묘(七廟)	13
칠묘제(七廟制)	13
칠정(七情)	136
침면(沈綿)	472
침음(沈吟)	268, 411

탄 홍(誕弘)	249, 324
탈사(脫履)	23
탑(榻)	391
태계(苔堦)	452
태사(太史)	38
태실(太室)	23
택국(澤國)	392
탱(撐)	153
퇴계(退溪)	167
퇴연(頽然)	460
투불(投紉)	168

파 (把)	331
팔년천하(八年天下)	115
팔룡(八龍)	37
패(沛)	112
패업(霸業)	121
편액(扁額)	238
편언척어(片言隻語)	208
편언척자(片言隻字)	208
평무(平蕪)	357
평천(平川)	464
포아(蒲芽)	152
풍로(風露)	148
풍류자(風流子)	372
풍류재자(風流才子)	372
풍색(風色)	150
풍수(風樹)	298
풍수경회(風樹驚懷)	298
풍악(楓岳)	443
풍애(風埃)	352
풍월(風月)	168
피무(披霧)	228
피운무(披雲霧)	228
필마(匹馬)	477
필호(筆戶)	331

하 단(何但)	99
하당(何當)	144, 403
하류심처(河流深處)	305
하순(何遜)	100
하외(河外)	60
하유(何由)	362
하장(河庄)	312
하허(何許)	195, 464
학발(鶴髮)	405
학봉(鶴峯)	407, 463
학염(虐焰)	109
한(閑)	415

한고(寒苳)	99	행로난(行路難)	227
한공(間功)	177	행문(倖門)	185
한국(漢國)	119	행사(行師)	61
한국(寒菊)	173	행재(行在)	67
한궁(漢宮)	12, 66	행정(行正)	375
한금(寒衾)	212	행화(杏花)	385
한덕재(韓德載)	199	향국(鄉國)	352
한래(間來)	490	향려(鄉閭)	450
한록(寒綠)	71	향벽공심(向壁功深)	377
한록당(寒綠堂)	71	향훈(香魂)	118
한록의(寒綠衣)	76	허봉(許筭)	226
한매(寒梅)	150	허정(虛程)	24
한북(漢北)	261	헌(軒)	243
한산거사(寒山居士)	371	험이(險夷)	286
한상(漢上)	378	현감(縣監)	471
한상인(閑上人)	415	현송(絃誦)	120
한소(閑消)	317	현연(泫然)	425
한소(間消)	317	현회(顯晦)	341
한수(間愁)	176, 408	혈오연화(血汚蓮花)	131
한승상(漢丞相)	50	협도(夾道)	183
한식(寒食)	131, 182	형역(形役)	318
한정(閑情)	145	형작(螢燭)	160
한청(汗靑)	254	형해(形骸)	318
한향(寒香)	439	혜(惠)	284
함양(咸陽)	114	혜련(惠連)	285
함장(函丈)	169	혜묵(惠默)	421
합하(合下)	83	호(胡)	66
항우(項羽)	107	호계삼소(虎溪三笑)	230
해구(海鳩)	324	호리간곤(壺裏乾坤)	418
해기(海氣)	155	호악(灝噩)	160
해문(海門)	259	호연(浩然)	434
해생상(海生桑)	419	호운(呼韻)	373
해우(海隅)	142	호위(胡爲)	180
해하(垓下)	106, 109	호음상국(湖陰相國)	388
행(行)	46	호한(浩汗)	450
행락사(行樂事)	385	혼(魂)	131
행로(行路)	212	홍몽(鴻濛)	51

홍문관(弘文館)	179	황종와부(黃鍾瓦釜)	159
화(華)	241, 258	황헌(黃憲)	461
화(禾)	305	해나무	239
화(靴)	64	회(晦)	290
화동(華棟)	279	회(淮)	65
화류(驂騑)	42	회소(洄沔)	469
화사(華使)	258	회중혜(晦仲惠)	482
화산(華山)	295	회화(悔禍)	62
화우(花雨)	319	획획(滌滌)	183
화옹(和戎)	18	횡천(橫天)	476
화전(華顛)	390	효매(孝梅)	92
환상(環狀)	482	효성(器聲)	65
황(簧)	246	훈옹(勳庸)	65
황금불취(黃金不就)	27	흰화(萱花)	95
황룡(黃龍)	49	휴(休)	461
황종(黃鍾)	159	휴정(休禎)	97
황중(黃鍾)	159	흉차(胸次)	85
황종와부(黃鍾瓦釜)	159	희마(戲馬)	121



국역 및 감수



류명희(柳明熙)

本貫 豊山

臺灣 國立政治大 문학박사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

주요논저

李清照詩詞箋釋

蘇東坡詞所表現的心路歷程研究

敦煌歌辭의 意境研究(1, 2) 외 다수

안유호(安維鎬)

本貫 順興

臺灣 國立師範大學 역사과 졸업

(前) 충북 충현고교 교사(한문·중국어)

학원강사(한문·중국어)

국역 서애전서 Ⅲ-4-1

국역 류성룡 시 IV-1

2020년 5월 15일 초판 발행

발 행 인 류 진(柳 津)

발 행 처 사단법인(社團法人)

서애선생기념사업회(西厓先生紀念事業會)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3

(풍산빌딩 16층)

☎ 02)3406-5862, 5670

제작·공급처 한스박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2길 24, 예장빌딩 301호

전화 : 3273-1247 FAX : 3273-1273

등록번호 제301-2011-205(2011. 11. 15)

비매품

ISBN 979-11-87317-05-0 04810

ISBN 978-89-967692-0-0 (세트)

